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15

국역 만취집

晚翠集

위계도 저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15

국역 만취집

晚翠集

위 계 도 저

본서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호남한국학 저술 출판 지원을 받아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간행한 것임.

『만취집』, 지행(志行)과 시문(詩文)을 두루 갖춘 위계도(魏啓道)의 문집

박 명 희(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강의교수)

1. 위계도의 삶과 그 위인 및 업적¹

위계도(1926~1999)의 자는 경배(敬培)요, 호는 만취(晩翠)이며,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고조는 국헌(菊軒) 위도방(魏道昉)이고, 증조는 옥계(玉溪) 위영집(魏榮集)이며, 조부는 초헌(樵軒) 위윤조(魏胤祚)이다. 그리고 부친은 의재(毅齋) 위석한(魏錫漢)으로, 문장과 행실을 모두 갖추었다. 위계도는 이러한 부친과 해남윤씨 사이에서 7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으며, 출신지는 전남 장흥 관산(冠山) 성산리(聖山里)이다.

위계도는 타고난 성품이 순수하고 정직하였으며 의용(儀容)이 단정하고 차분하였다. 어려서부터 재주와 지혜가 있었고 조금 자라서는 항상 문학(文學)을 익히니 문중 어르신들이 매우 사랑하였다. 5세 때 종형 인재(忍齋) 위계동(魏啓同)에게 나아가 쇄소진퇴(灑掃進退)의 예절을 익혔고, 9세 때 잠계(潛溪) 백형기(白亨幾, 1881~1948)의 문하에서

1 위계도 선생의 삶에 관한 내용은 공연웅이 쓴 「만취위공행장(晩翠魏公行狀)」에 근거했음을 밝힌다. 또한 위계도 선생은 필자에게 한문학의 기분을 닦도록 인도해 주신 분임을 밝힌다. 따라서 본문에서 호(號)와 함께 '선생'이란 칭호를 쓰고 싶었으나 문장을 쓰는데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유념하여 부득이 존함을 썼다. 이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호(號) 대신 존함(尊銜)을 썼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길 바란다.

『논어』·『맹자』·『중용』·『대학』 등 경서를 반복해 읽었다. 백형기의 자는 선일(璿一)이요,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백형기는 그의 나이 47세(1927년) 때 선계(銑溪) 서쪽에 잠계서실(潛溪書室)을 열었는데, 위계도는 9세(1935년)에 백형기를 찾아가 경서를 읽었다.

위계도는 17세 때 화산(曹華山) 조교석(曹教錫) 응을 당동(堂洞)의 사제(私第)로 초빙하여 여러 해 동안 경사자집(經史子集)을 공부하여 대의(大義)에 두루 통달(通達)하였다. 이후 약관(弱冠)의 나이에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錡, 1901 ~ 1960)에게 나아가 학문을 연마하였다. 김문옥의 자는 성옥(聖玉)이요,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김문옥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학맥을 이은 율계(栗溪) 정기(鄭琦)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로써 위계도의 학맥이 곧, 기정진에 닿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계도는 김문옥에게 나아가 공부하며 경사(經史)의 심오한 뜻과 의리의 정미(精微)함에 대하여 의심이 들면 반드시 묻고 알아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예가 나날이 깊어지니 스승 김문옥이 칭찬을 자주 하였고, 사우(師友)들도 모두 위계도를 추중(推重)하였다. 그런데 위계도의 나이 35세(1960년) 때 김문옥이 세상을 떠났다.

위계도는 김문옥의 장례 후 스승의 생전유지를 받들어 화순 절동(節洞)에 남아 스승의 사우(祠宇)와 기념관 건립, 문집 간행, 제전(祭田) 마련 등에 노력을 다하였고, 역책(易簣) 10년 뒤에 사당을 세워 스승을 기리는 일에 앞장섰다.

또 근방(近方)의 마음을 함께하는 벗들과 ‘금곡음사(琴谷吟社)’라는 계(契)를 만들고, 산수가 아름다운 곳의 정자와 누각을 찾아 권선(勸善)과 강학(講學)을 하며, 시를 읊어 서로의 뜻을 나누곤 하였다.

위계도는 늘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강조하여 학자라 해도 농민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농번기가 되면 제자들과 함께 논에서 모내

기를 손수 하였다. 또한 부모를 섬김에 뜻과 몸을 극진히 봉양하였고, 상을 당해서는 애통함이 법도를 넘었으며, 기일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듯 극진하였다. 형제들과 우애가 있어 화락하였고, 종친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온화하고 신의가 있었다. 남의 좋은 점을 즐겨 말하면서도 잘 못은 덮지 않으니, 사람들이 군자라 칭송하였다.

위계도는 화순 절동 도남재에서 스승의 유지를 받든 후, 58세가 되자 삶의 거처를 광주(光州) 궁동(弓洞) 등으로 옮겼고, ‘삼성실(三省室)’을 열어 가르침에 더욱 힘썼다. 이에 소문을 듣고 위계도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제주(濟州) 등에서 찾아왔으며, 광주 인근 지역에서는 전남대 교수, 조선대 교수 및 학생들, 전·현직 교사, 한문·서예학 원장들 등이 지속적으로 배움에 참여하였다. 전북 전주에서도 전주대학교 한문학과 김성환 교수와 함께 한문에 뜻을 둔 학생들이 문우회²를 만들어 십수 년간 방학을 이용하여 화순 절동의 도남재에서 배움을 이어갔다.

특히 현 백천서당³ 강주인 김재희와 김성환 교수의 지도하에 문우회 회원들이 『만취집』시(詩)와 산문을 국역하였다.

-
- 2 문우회 : 김성환 교수가 1982년도에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에 부임한 후 학생들을 절동(節洞) 위계도에게 보내 공부하도록 하였는데, 위계도는 1986년 여름 절동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문우회(文友會)란 이름을 주고 서로 면전(勉旃)할 것을 당부하니 그 뜻은 문우회 서(文友會序)에 곡진히 담겨있다. 김성환 교수의 지도하에 이 시기에 공부한 전현직 교수와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만취집 산문 부분의 국역에 참여하였다.(참여 구성원 : 책임감수 김성환(전 전주대학교 교수)/번역 [류재운(전 전주대학교 교수) 소현성(전주대학교 교수), 김동현(전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김일균(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김삼현(교사), 김종국(교사), 김태국(교사), 김양식(교사), 김병훈(교사), 김희경, 백영진]
 - 3 백천서당 : 위계도 직전 제자인 김재희가 강주인 서당으로 김재희의 제자인 최이호(조선대학교 선인 번역 연구원)와 김성훈(한국 고전 번역원 조선왕조실록 역자) 등이 고전 번역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재희의 지도하에『만취집』국역에 위계도의 재전제자인 이대연(한국국학진흥원 한문교육원 연구생)과 박미향(한국학호남진흥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초창기(~1984년) 절동에서 친자(親炙)를 받은 용친회(隆親會), 광주에서(1985~1999년) 수학(受學)한 보인회(輔仁會), 1986년 이후 전주대 한문교육과 학생들로 구성된 문우회(文友會)와 그 밖에 문인록에 등재된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위계도가 전도(傳道)에 독실하였음을 방증(傍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계도의 가르침은 물질 만능으로만 흐르는 시대에 선비정신과 그 정신적인 면을 함양하는 한 알의 씨앗이 되어, 각자의 직분 속에서 인간을 선한 방향으로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조그만 울림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일청(一淸) 김형재, 중헌(重軒) 윤정복 등과 함께 관선회(觀善會)를 통하여 강마(講磨)하였고, 무진음사(武珍吟社)의 사우(士友)들과 함께 서로 수작(酬酌)하고 음영(吟詠)하여, 학행(學行)이 독실하시니 지역의 유풍(儒風)이 진작되었는데, 풍질(風疾)로 1999년 6월 8일 생을 마치니, 향년 74세이다.

그렇다면 위계도의 됴됨이는 어떠했으며, 업적은 무엇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김순택(金淳澤)이 쓴 「만취유고서(晩翠遺稿序)」와 공연웅(孔鍊雄)이 작성한 「만취위공행장(晩翠魏公行狀)」의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본다.

①

대저 선비의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지행(志行)과 시문(詩文)이니, 지행에 장점이 있으면 시문에 단점이 있고, 시문에 장점이 있으면 지행에 단점이 있으니, 한 가지도 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겸한 자는 이 누구인가? 만취위석사계도(晩翠魏碩士啓道)가 그분이 아니겠는가? 살펴보건대 시례(詩禮)의 집안에서 성장하여 품성이 온후하고 탄솔(坦率)하며, 재

질이 총명하고 민혜(敏慧)하여 일찍이 가훈을 이었고, 이어서 당시의 문덕대가(文德大家)에게 수학하여 취향이 방정하고, 조예(造詣)가 긴밀하여 사문(師門)의 기대와 동류의 추증이 막중하였다. 이로부터 학식이 넓고 이름이 높아, 사방에서 학업을 청하는 자 무리를 이룸에, 여러 해를 가르치고 깨우치기를 게으르지 아니하여 성취한 자 적지 않았다.⁴

②

아, 공은 뛰어나고 순수한 재주와 자질로 일찍부터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뜻을 가다듬고 독실하게 배워서 경사자전(經史子傳)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공부하였고 그 문학(文學)과 행의(行誼)와 지절(志節)도 의연(毅然)히 사림(士林)의 본보기가 되었다. 비록 그 명도(命道)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처지에 안주하여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후진(後進)들의 훈도를 자신의 소임(所任)으로 여겼으며, 유학의 명맥을 한 방면에 부지하여 세웠으니, 공이 사문(斯文)에 끼친 공로가 누가 감히 적다고 하겠는가?⁵

우선 김순택은 글 ①을 통해 위계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을 적었다. 첫째, 지행과 시문을 모두 겸하였고, 둘째 품성이 온후하고 탄솔(坦率)하며, 재질이 총명하고 민혜(敏慧)하다 했으며, 셋째 문덕대가(文德大家)에게 수학하여 취향이 방정하고, 조예(造詣)가 긴밀하다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방에서 학업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성취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였다. 이어 공연웅도 ②번 글을 통해 위계도와 관련한 여러 사실을 말하였는데, 첫째 경사자전(經史子傳)

4 魏啓道, 『晚翠集』, 「晚翠遺稿序」(金淳澤) 일부분.

5 魏啓道, 『晚翠集』, 「晚翠魏公行狀」(孔鍊雄) 일부분.

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공부했다 하였고, 둘째 문학(文學)과 행의(行誼)와 지절(志節)이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셋째 명도(命道)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후진들의 훈도를 자신의 소임으로 삼으며 유학의 명백을 부지했다 하였다. 김순택이 글 중에 말한 ‘탄술’이란 성품이 너그럽고 대범함을 뜻하고, ‘민혜’란 민첩하고 슬기롭다는 뜻이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세월 위계도를 직접 접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어떤 됃됨이를 지녔고, 어떤 업적을 이룩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내용은 모두 진실에 바탕한 것으로, 위계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된다.

2. 문집의 편찬 경위

『만취집』은 위계도의 개인 문집으로, 2002년 4월 15일에 발간되었다. 발행처는 삼성실(三省室)이고, 주관은 만취집간행위원회이며, 편집은 김준(金濬)이 맡았고, 교정은 위계도의 제자 김영웅(金永雄)과 정연태(鄭然台)가 하였다. 즉, 위계도가 세상을 뜬 3년 뒤에 문집이 간행된 것이다.

문집 교정을 맡은 김영웅은 「경제만취선생유고후(敬題晩翠先生遺稿後)」를 작성했는데, 이 글을 통해 “제자 된 자들이 마치 금옥(金玉)을 얻은 것처럼 반가울 뿐만 아니라, 평소 종유(從遊)한 여러 선비들도 뒤라서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여 감개무량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들을 위하여 교묘하게 꾸며대는 글[爲人巧飾之文]을 경계하신 스승 위계도의 평소 말씀을 따르자면, 문집 간행을 그리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였다. 그렇다 해도 문집을 간행할 수밖에 없는 까닭과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렇기는 하나, 우리 선사께서 평소에 성현(聖賢)의 글을 읽고 의리(義理)를 변론하거나, 혹은 사우(士友)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애써 부응해 준 글이나, 자연 현상의 양태(樣態)를 조용히 관찰하고 수시로 사물을 음영(吟詠)하거나 불평(不平)한 심사를 후련하게 씻어내고 시사(時事)를 슬퍼하여 심회를 서술하거나, 산수의 아름다운 곳을 두루 유람하면서 심정을 즐겁게 하거나 인간의 애경(哀慶)을 접하고 이에 대해 서술하거나, 사람들에게 권선징악(勸善懲惡) 하기 위한 훈계를 드리우거나, 벗을 초대하여 밤을 새워 대작(對酌)하며 창수(唱酬)한 시편들이 그야말로 많다고 할 수 있으되, 후세에 전하려고 도모하지 않고 먼지 쌓인 상자 안에 버려두어 거의 흩어져 사라질 지경이었다. 이런 까닭에 나의 외우(畏友)인 정연태가 이 점을 걱정하여 수집하고 정리 서사(書寫)하였는데, 일을 지난해 봄부터 시작하여 올봄에 마쳤으니, 그의 어질어서 혼자 수고한 것을 어찌 이루 다 말하겠는가. 또한 특히 느낀 바가 있으니, 간행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제현(諸賢) 및 제자들의 의리와 정성에서 나왔다. 이는 선사께서 평소 가르침에 싫증 내지 않고 순순히 바르게 다듬은 증함이 아니겠는가.⁶

김영웅은 위 내용을 통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위계도의 시와 문장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문집을 간행하게 된것이라 말하였다. 그리고 “일을 지난해 봄부터 시작하여 올봄에 마쳤다”라고 언급하는 한편, 정연태의 공을 높이 인정하였다. 여기서 말한 “지난해 봄”은 2001년을 가리키고, “올봄”은 2002년을 가리킨다. 이로써 『만취집』은 2001년 봄에 간행 일을 시작하여 2002년 봄에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魏啓道, 『晚翠集』 附錄, 「敬題晚翠先生遺稿後」(金永雄) 일부분.

3. 문집의 전체 구성과 주요 내용

1) 문집의 전체 구성

『만취집』은 총 8권 및 부록 등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에 「문우회서(文友會序)」와 「만취유고서」·「만취선생유집서(晩翠先生遺集序)」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권1부터 권4까지는 한시가 수록되어 있고, 권5부터 권8까지는 문장이 정리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록이 덧붙여져 있다. 우선 권1부터 권4에 수록된 한시를 종류별로 구분해 제수(題首)를 <표1>에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만취집』 시 권별 정리

| 한시종류 권수 | 오언 절구 | 오언 율시 | 칠언 절구 | 칠언 율시 | 고체시 | 권수별 작품 제수 | 지은 연도 |
|--------------------|------------|------------|-------------|--------------|------------|--------------|------------------------------------------------------------------------|
| 권1 | | | 4제 10수 | 56제 144수 | 16제 16수 | 76제 170수 |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
| 권2 | 10제 12수 | 7제 7수 | 23제 39수 | 100제 129수 | 1제 1수 | 141제 188수 | 1961, 1962, 1964, 1965, 1966, 1967, 1968 |
| 권3 | 14제 19수 | 13제 13수 | 19제 29수 | 106제 106수 | 20제 20수 | 172제 187수 | 1979, 1981, 1982, 1983, 1985, 1986, 1969 |
| 권4 | 18제 38수 | 31제 31수 | 47제 69수 | 110제 112수 | 42제 42수 | 248제 292수 | 1970, 1971, 1973, 1975, 1976, 1977, 1978, 1992, 1990, 1988 |
| 한시 종류별 작품 제수 | 42제 69수 | 51제 51수 | 93제 147수 | 372제 491수 | 79제 79수 | 637제 837수 | |

이상 정리한 <표1>에 따르면, 『만취집』 권1부터 권4까지 수록된 한시 작품은 총 637제 837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시 종류별 작품 제수를 보면, 오언절구는 42제 69수, 오언율시는 51제 51수, 칠언절구는 93제 147수, 칠언율시는 372제 491수, 고체시는 79제 79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따져보면, 칠언율시 등 근체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이어 권5부터 권8까지 수록된 문장 제목 및 편 수는 다음과 같다.

권5 :

- 「김고당 규태계 올림[上金顧堂 奎泰]」, 「김입헌 증가계 올림[上金立軒 種嘉]」, 「손경한 평기에게 답함[答孫景韓 坪琦]」, 「권희철에게 답함[答權熙哲]」, 「윤낙천 재찬에게 보냄[與尹樂泉 在瓚]」, 「정영택에게 보냄[與鄭永澤]」, 「신영호에게 보냄[與申英浩]」 이상 편지글 총 7편
- 「노남자에 대한 논 1[魯男子論]」, 「선비 중에 군자와 소인이 있다는 논 1[儒有君子小人論]」, 「하늘이 변하지 않으면 도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논[天不變道亦不變論]」, 「적송자 따르기를 원하는 논[願從赤松子論]」, 「의리로 조조를 풀어준 데 대한 논[義釋曹操論]」, 「칠석에 대한 논[七夕論]」, 「선비 중에 군자와 소인이 있다는 논 2[儒有君子小人論]」, 「노남자에 대한 논 2[魯男子論]」, 「자애와 효성에 대한 설[慈孝說]」, 「붕우가 오류에 들어간 데 대한 설[朋友參五倫說]」, 「닭이 알을 품음에 대한 설[鷄抱卵說]」, 「오늘 하루와 다음 날 이틀을 바꾸지 않는다는 설[一今日不換二明說]」, 「남의 산의 돌로도 나의 옥을 갈 수 있다는 설[他山之石可以攻玉說]」, 「새가 자주 나는 것에 대한 설[鳥數飛說]」, 「천만인 가운데에서도 자기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설[千萬人中常知有己說]」 이상 잡저 총 15편
- 「밀양박씨오충실기 서[密陽朴氏五忠實記序]」, 「삼회당실기 서[三悔

堂實記序], 「기재유고 서[氣齋遺稿序], 「항와유고 서[恒窩遺稿序], 「문우사시고 서[文友社詩稿序], 「함양박씨가승 서[咸陽朴氏家乘序], 「옥천조씨파보 서[玉川趙氏派譜序], 「송수경에게 주는 서[贈宋君首旻序]」 이상 서문 총 8편

- 「오산재기[烏山齋記], 「노산재기[鷲山齋記], 「진수재기[進修齋記], 「종산재기[鍾山齋記], 「모정기[慕亭記], 「석헌정기[石軒亭記], 「반환정기[盤桓亭記], 「월천재기[月川齋記], 「취송정기[翠松亭記], 「충무사중건사실기[忠武祠重建事實記], 「함허정기[涵虛亭記], 「수산재기[水山齋記], 「동산재기[東山齋記], 「봉산재중건기[鳳山齋重建記]」 이상 기문 총 15편

권6 :

- 「상지재유고의 발문[尚志齋遺稿跋], 「장렬사지의 발문[壯烈祠誌跋], 「여한시문의 발문[麗韓詩文跋], 「오현유고의 발문[梧軒遺稿跋], 「중와유고의 발문[重窩遺稿跋], 「남운유고의 발문[南耘遺稿跋], 「금곡음사시고의 발문[琴谷吟社詩稿跋], 「쌍석유고의 발문[雙石遺稿跋], 「석봉유고의 발문[石峰遺稿跋], 「휴재공공유고의 발문[休齋孔公遺稿跋]」 이상 발문 총 10편
- 「연함의 명[硯函銘]」 이상 명문 총 1편
- 「이한영의 자사[李漢榮字辭]」 이상 사 총 1편
- 「충무사의 상량문[忠武祠上梁文], 「충현사의 상량문[忠賢祠上梁文], 「월천재의 상량문[月川齋上梁文], 「백호재의 상량문[白湖齋上梁文], 「죽수서원의 중건 상량문[竹樹書院重建上梁文]」 이상 상량문 총 5편
- 「잠계 백 선생의 제단을 세울 때의 고유문[潛溪白先生設壇時告由文], 「은산사에 봉안하는 김노은과 송와 두 분께 올리는 고유문[隱

- 山祠奉安金蘆隱松窩二公告由文」 이상 고유문 총 2편
- 「고산서원에 묘정비를 세울 때 터를 여는 축문[高山書院廟庭碑堅立時開基祝文]」, 「정암 조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는 축문[靜菴趙先生影幀奉安祝文]」, 「김고당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는 축문[金顧堂先生影幀奉安祝文]」, 「성균관 진사 자헌대부호조참판에 추증된 조공 언형을 봉안하는 축문[成均館進士贈資憲大夫戶曹參判曹公彥亨奉安祝文]」, 「노절효공 상향 축문[盧節孝公常享祝文]」 이상 축문 총 5편
 - 「백잠계 선생께 제사 지내는 글[祭白潛溪先生文]」, 「송포 선생께 제사 지내는 글[祭丁松浦先生文]」, 「스승 김효당 선생께 제사 지내는 글[祭先師金曉堂先生文]」, 「박우당 선생께 제사 지내는 글[祭朴藕堂文]」 이상 제문 총 4편
 - 「부사맹 박공의 유장비[副司猛朴公遺庄碑]」, 「운남 처사 박공의 유장비[雲南處士朴公遺庄碑銘]」, 「장기 현감 장흥 위공의 유장비[長髻縣監長興魏公遺庄碑]」, 「호조 참판에 추증된 무구와 신공의 유장비[贈戶曹參判無咎窩申公遺庄碑]」 이상 유장비 총 4편
 - 「회양 부사 김해 김공의 유허비[淮陽府使金海金公遺墟碑]」, 「홍주 송씨의 유허비[洪州宋氏遺墟碑]」, 「방은 임공 정사 유허비[芳隱林公精舍遺墟碑]」 이상 유허비 총 3편
 - 「광산김씨 세장천비[光山金氏世葬阡碑]」, 「광산김씨 세장천비[光山金氏世葬阡碑]」, 「달성배씨 세장비[達城裴氏世庄碑]」 이상 세장비 총 3편
 - 「남천 서공 강학비명[南川徐公講學碑銘]」 이상 강학비 총 1편
 - 「통덕랑 초계 정공 제단비[通德郎草溪鄭公祭壇碑]」 이상 제단비 총 1편
 - 「농은 밀양 손공의 기적비[農隱密陽孫公紀績碑]」, 「경은 김공의 기

적비[耕隱金公紀蹟碑], 「통정대부 양공 기성 척해기적비명[通政大夫梁公起盛拓海紀蹟碑銘]», 「청파 송공의 기적비[靑波宋公紀蹟碑]», 「홍문관 박사 광산 이공의 기적비[弘文館博士光山李公紀蹟碑]», 「군수 유민봉의 기적비[郡守庾珉鳳紀績碑]», 「군수 김옥현의 공적비[郡守金沃炫功績碑]», 「군수 백주원 기공비[郡守白柱元紀功碑]」 이상 기적비 총 8편

- 「청계 구 선생 순의비명[淸溪具先生殉義碑銘]」 이상 순의비 총 1편
- 「광산 김공 규병 규안 추모비[光山金公圭炳圭安追慕碑]」 이상 추모비 총 1편
- 「덕림재 건립 기실비[德林齋建立紀實碑]」 이상 기실비 총 1편
- 「지정 밀양 박공의 기행비명 병서[芝亭密陽朴公紀行碑銘 并序]», 「효자 연안 차덕일과 덕원의 기행비[孝子延安車公德逸德元紀行碑]」 이상 기행비 총 2편
- 「애죽 최공의 효행비[愛竹崔公孝行碑]», 「계은 이공의 효행비[溪隱李公孝行碑]», 「강산 나주오공의 효행비[江山羅州吳公孝行碑]」 이상 효행비 총 3편
- 「유인 경주이씨 효열비[孺人慶州李氏孝烈碑]」 이상 효열비 총 1편

권7 :

- 「농포 문공의 묘갈명 병서[農圃文公墓碣銘 并序]», 「증사헌부 지평 범공의 묘갈명 병서[贈司憲府持平范公墓碣銘 并序]», 「진사 경암 이공의 묘갈명 병서[進士警菴李公墓碣銘 并序]», 「전은 조공의 묘갈명 병서[田隱趙公墓碣銘 并序]», 「소원 이공의 묘갈명 병서[小源李公墓碣銘 并序]», 「만오 서공의 묘갈명 병서[晩悟徐公墓碣銘 并序]», 「지촌 최공의 묘갈명 병서[芝村崔公墓碣銘 并序]», 「빙와 안공의 묘갈명 병서[氷窩安公墓碣銘 并序]», 「석천 김공의 묘갈명 병서[石泉金

公墓碣銘 并序], 「지우당 김공의 묘갈명 병서[止愚堂金公墓碣銘 并序], 「심암 박공의 묘갈명 병서[心巖朴公墓碣銘 并序], 「성균진사 사천 김공의 묘갈명 병서[成均進士斜川金公墓碣銘 并序], 「순헌 나공의 묘갈명 병서[筍軒羅公墓碣銘 并序], 「양재 강공의 묘갈명 병서[陽齋康公墓碣銘 并序], 「설후 허공의 묘갈명 병서[雪後許公墓碣銘 并序], 「의사 인동 장공의 묘갈명 병서[義士仁同張公墓碣銘 并序], 「약헌 광산 김공의 묘갈명 병서[藥軒光山金公墓碣銘 并序], 「참봉 흥성 장공의 묘갈명 병서[參奉興城張公墓碣銘 并序], 「통정대부 성공의 묘갈명 병서[通政大夫成公墓碣銘 并序], 「부호군 김공의 묘갈명 병서[副護軍金公墓碣銘 并序], 「통정대부승정원우승지 겸경연참찬관에 추증된 송은 김공의 묘갈명 병서[贈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兼經筵參贊官松隱金公墓碣銘 并序], 「낙파 장공의 묘갈명 병서[洛波張公墓碣銘 并序], 「서양헌 광산 노공의 묘갈명 병서[瑞陽軒光山盧公墓碣銘 并序], 「석오 조공의 묘갈명 병서[石塢曹公墓碣銘 并序], 「호은 처사 백공의 묘갈명 병서[湖隱處士白公墓碣銘 并序], 「사간 기헌 최공의 묘갈명 병서[司諫寄軒崔公墓碣銘 并序], 「소암 박공의 묘갈명 병서[紹菴朴公墓碣銘 并序], 「모재 장공의 묘갈명 병서[慕齋張公墓碣銘 并序], 「범농 심공의 묘갈명 병서[凡農沈公墓碣銘 并序], 「홍문관 교리 소은 송공의 묘갈명 병서[弘文館校理小隱宋公墓碣銘 并序], 「사헌부 지평 이공의 묘갈명 병서[司憲府持平李公墓碣銘 并序], 「행선전관수문장 백공의 묘갈명 병서[行宣傳官守門將白公墓碣銘 并序], 「남강 배공의 묘갈명 병서[南江裴公墓碣銘 并序], 「인암 김공의 묘갈명 병서[訥菴金公墓碣銘 并序], 「유인 광산김씨의 묘갈명 병서[孺人光山金氏墓碣銘 并序], 「죽계 송공의 묘갈명 병서[竹溪宋公墓碣銘 并序], 「중헌 위공의 묘갈명

병서[重軒魏公墓碣銘 并序], 「금농 송공의 묘갈명 병서[錦農宋公墓碣銘 并序], 「송암 정공의 묘갈명 병서[松巖丁公墓碣銘 并書], 「죽취 정공의 묘갈명 병서[竹醉丁公墓碣銘 并序] 이상 묘갈명 총 40편

권8 :

- 「초산 방공의 묘표[樵山房公墓表], 「도은 임공의 묘표[道隱林公墓表], 「신재 이공의 묘표[慎齋李公墓表], 「백헌 박공의 묘표[柏軒朴公墓表], 「남정 최공의 묘표[南亭崔公墓表], 「계은 이공의 묘표[溪隱李公墓表], 「효자 김공의 묘표[孝子金公墓表], 「학생 변공의 묘표[學生邊公墓表], 「광산 김공의 묘표[光山金公墓表], 「금정 장공의 묘표[錦汀張公墓表], 「경암 민공의 묘표[景菴閔公墓表], 「인재 김공의 묘표[忍齋金公墓表], 「강재 한산 이공의 묘표[剛齋韓山李公墓表], 「통덕랑 김해 김공의 묘표[通德郎金海金公墓表], 「농은 김공의 묘표[農隱金公墓表], 「금계 서공의 묘표[錦溪徐公墓表], 「절충장군동지중추부사행용양위부호군 이공의 묘표[折衝將軍同知樞府事行龍驤衛副護軍李公墓表], 「덕헌 문공의 묘표[德軒文公墓表], 「노은 백공의 묘표[蘆隱白公墓表], 「만성 박공의 묘표[晩醒朴公墓表], 「덕헌 김공의 묘표[德軒金公墓表], 「근포 위공의 묘표[勤圃魏公墓表], 「풍곡 노공의 묘표[豐谷盧公墓表], 「유계 한공의 묘표[柳溪韓公墓表], 「이재 조공의 묘표[彝齋曹公墓表], 「청계 민공의 묘표[淸溪閔公墓表], 「죽헌 김공의 묘표[竹軒金公墓表], 「의당 김공의 묘표[毅堂金公墓表], 「통덕랑 지암 노공의 묘표[通德郎芝菴盧公墓表], 「금계 장공의 묘표[錦溪張公墓表], 「소정 강공의 묘표[小亭姜公墓表], 「만수당 조공의 묘표[晩睡堂曹公墓表], 「춘강 강공의 묘표[春岡姜公墓表], 「연파 범공의 묘표[蓮波范公墓表],

- 「정와 안공의 묘표[靜窩安公墓表]」, 「송곡 고공의 묘표[松谷高公墓表]」, 「금산 박공의 묘표[錦山朴公墓表]」, 「죽계 김공의 묘표[竹溪金公墓表]」, 「밀양 손공의 묘표[密陽孫公墓表]」, 「농은 서공의 묘표[農隱徐公墓表]」 이상 묘표 총 40편
- 「열부 한산이씨의 서사[書烈婦韓山李氏事]」 이상 서사 총 1편
 - 「종백 인재 위공의 행장[從伯忍齋魏公行狀]」, 「금재 송공의 행장[肯齋宋公行狀]」 이상 행장 총 2편
 - 「지사 주촌 심공 전[志士舟村沈公傳]」, 「우모 이유인 전[禹母李孺人傳]」 이상 전 총 2편

이상 정리한 결과 권5부터 권8까지 총 187편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187편 중에서 가장 많은 문장은 묘갈명과 묘표로 둘 다 40편씩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부록에는 「만취 위공의 행장[晚翠魏公行狀]」(공연웅), 「만취 위공의 묘갈명 병서[晚翠魏公墓碣銘 并序]」(이백순), 「만취유고의 발문[晚翠遺稿跋]」(손평기), 「삼가 만취 선생 유고의 뒤에 쓰다[敬題晚翠先生遺稿後]」(김영웅), 「문인록[門人錄]」 등이 정리되어 있다.

2) 문집의 편차별 주요 내용

『만취집』의 구성을 다시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수에 서문 3편이 있고, 권1부터 권4까지 총 637제 837수의 한시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5부터 권8까지 총 187편의 문장이 정리되어 있고, 마지막 부록에 행장, 묘갈명, 발문, 유고후, 문인록 등이 있다. 이를 편차별로 나누어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수에 놓인 서문 「문우회서」는 위계도가 쓴 것이다. 이 글은 위계도가 화순 절동에서 강학할 때 문우회(文友會)를 결성한 뒤 지은 서문이

다. 제자들이 진지하게 학문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말이 담겨 있다. 「만취유고서」, 「만취선생유집서」는 김순택과 강동원(姜東元)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만취집』을 간행하며 기념해 지었다.

권1에 실린 한시 작품은 총 76제 170수이다. 이들 작품은 시제(詩題)에 연도가 적힌 경우가 있는데, 대략 1952년부터 1960년까지이다. 1952년은 위계도의 나이 27세이다. 따라서 권1에 수록된 한시 작품은 대체로 위계도가 20~30대 시절에 지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권1의 시를 통해 보면, 위계도는 농사를 지으면서 학문을 닦았다고 생각한다. 곧, 「오월의 전가[五月田家]」, 「도랑을 터서 밭에 물 대다[決渠灌田]」, 「보리를 베다[刈麥]」, 「이앙[移秧]」, 「뽕잎을 따다[採桑]」, 「밭에 김매다[耘田]」 등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작품이 있는데, 「감시[感時]」가 바로 그 시이다. 위계도는 이 작품의 수련 두 구에서 “고개 돌려 천지 보니 감개도 많아, 전란의 소식은 근래에 어떠한고[回首乾坤感慨多, 干戈消息近如何]”라고 읊어 전란의 소식이 궁급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옛 사적을 유람하던 중에 지은 작품도 있다. 가령, 「부여에서 옛날을 회상하며[扶餘懷古]」, 「노랑을 지나며 이충무공의 사적을 느껴서[過露梁感李忠武公事]」, 「의랑사 논개[義娘祠 論介]」, 「축석루에서 세 분 장사를 위로하며[矗石樓吊三壯士]」, 「김각간이 말을 참수하던 거리를 지나며[過金角干斬馬巷]」, 「남산사 옛 터를 지나며[過南山祠舊墟]」 등은 옛 사적과 관련한 작품으로, 형식은 모두 고체시에 의거하였다. 또한 시제에 ‘과작(課作)’이란 말이 들어간 작품도 있는데, 「노강산방에서 과작하다 8수[蘆岡山房課作 八首]」, 「또 9수[又 九首]」, 「산방과작 6수[山房課作 六首]」, 「구재에서의 과작, 18수[苟齋課作 十八首]」, 「경자년 춘삼월에 효당 선생께서 북

천에 이거하여 김씨의 영사재에서 장수하실 때 날마다 과작으로 시를 지었다 6수[庚子春三月 曉堂先生移居福川 藏修于金氏永思齋 逐日課吟六首]」 등이 바로 그러하다. ‘과작’은 원래 과거시험 답안지를 작성한 것을 의미하는데, 위계도의 시는 과거시험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경쟁적으로 시를 지은 경우, 시제에 ‘과작’이란 말을 넣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권2에 실린 한시 작품은 총 141제 188수이다. 권2에 실린 한시 종류는 고체시는 1제 1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근체시이다. 또한 권2에 실린 작품을 지은 연도는 1961년부터 1968년까지이다. 1961년은 스승 김문옥이 이미 세상을 뜬 이듬해로, 위계도의 나이 36세 때이다. 사실 위계도는 35세(1960년) 이전에 스승을 따라 삶의 거처를 화순으로 옮겼다. 따라서 권2의 시부터 화순의 공간이 등장하는데, 「적벽으로 가는 도중에 입으로 부르다 7월 초10일[赤壁途中口呼 七月初十日]」, 「적벽강가를 유람하다[遊赤壁江上]」, 「임대정[臨對亭]」, 「적벽강에서 노닐다[遊赤壁江]」 등이 이와 관련한 작품이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위계도는 스승 김문옥이 세상을 뜨자 스승 집에서 기거하며, 지역의 여러 벗들과 계를 맺어 그 이름을 ‘금곡음사’라 했는데, 이와 관련한 시로 「금곡에서 보인계를 닦다[琴谷修輔仁契]」가 있다. 또한 위계도는 당시 여러 시사(詩社)와 관련한 시를 남기는데, 「영평음사에 화운하다[和永平吟社]」, 「오산음사[鰲山吟社]」, 「무진음사에서 여러 어르신과 모여서 이야기하다[武珍吟社與諸丈會話]」, 「무진음사 여러 어르신과 함께 망암 박춘서의 장원에서 놀다[與武珍吟社諸丈遊朴望菴春緒庄]」, 「무진의 작은 모임[武珍小會]」, 「무진음사에 가려다가 일이 있어서 이루지 못하다[擬赴武珍吟社有事未果]」, 「무진시사의 초청에 가다 2수[赴武珍詩社之招 二首]」, 「무진음사의 여러 벗들과 불갑사를 유람

하다[與武珍吟社諸友遊佛甲寺], 「무진에서의 모임에서 읊다[武珍會吟]」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위계도는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되었으면 하는 염원을 담은 시도 남겼는데, 「남북통일을 염원하다[願南北統一]」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권3에 실린 한시 작품은 총 172제 187수이다. 권3에 실린 작품 창작 연도를 보면, 1969년, 1979년, 1986년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시 종류도 칠언율시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나 대체로 여러 시 유형이 골고루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권3에는 교유시, 유람시, 축수시, 애도시 등 다양한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권2를 이어 시사 관련 시가 여러 편 있다는 점을 한 특징으로 손꼽을 수 있다. 곧, 「무진음사 모임에서 읊다 신유년[武珍會吟 辛酉]», 「무진음사의 작은 모임[武珍小會]», 「무진야회[武珍雅會]», 「무진음사의 벗과 석헌정에서 노닐다[與武珍社友遊石軒亭]», 「무진의 야회[武珍雅會]», 「무진음사가 절산에서 모이니 김씨들이 작은 술상을 차리다[自武珍吟社約會于節山 金氏爲設小酌]», 「무진음사 및 목포음사의 벗들과 유달산을 오르다[與武珍及木浦吟社諸友登儒達山]», 「무진음사원이 고상하게 모이다[武珍雅集]」 등은 시사와 관련한 시인데, 모두 무진음사를 대상으로 지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위계도는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에 있는 동백정(冬柏亭)을 가서 「동백정에서 느낌이 있어서[冬柏亭有感]」 작품을 짓기도 하였다. 이곳은 일찍이 스승 김문옥이 강학을 했던 장소인데, 옛날을 추억하며 느낌을 시로 읊었다.

권4에 실린 한시 작품은 총 248제 292수이다. 지은 연도는 1970년부터 1992년까지 다양하며, 교유시, 애도시, 축수시, 차운시, 증시(贈詩) 등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앞의 권2, 권3과 마찬가지로 무진음사와 관련한 시가 있는데, 「음사의 여러 어른을 모시고 서강사에서

놀다[陪吟社諸丈遊瑞岡祠], 「광부의 선비들 모임[光府雅集], 「가을 날 무진음사의 초대에 나가다[秋日赴武珍吟社之招], 「무진의 회화[武珍會話], 「무진의 벗들과 모여 얘기하다[與武珍諸友會話], 「새해 첫 날 무진음사에 가다[開正赴武珍社], 「무진음사 회원의 청장에 가다[赴武珍會員淸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위계도는 시국을 한탄하는 시를 남겼는데, 「시국을 탄식하다[嘆時]」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위계도는 이 작품의 미련(尾聯)에서 “작은 기에도 모두 쓰이건만, 무능하고 재주 없어 부끄럽네.[寸長尺技咸爲用, 祇愧無能且不才]”라고 표현하여 어지러운 시국임에도 힘을 발휘하지 못해 부끄럽다고 말하였다. 이는 시국이 어지러운데도 유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권5에는 편지글, 잡저, 서문, 기문 등이 실려 있다. 우선 편지글은 김규태, 김종가, 손평기, 권희철, 윤재찬, 정영택, 신영호 등에게 보낸 것이다. 잡저는 「노남자에 대한 논」 두 편, 「선비 중에 군자와 소인이 있다는 논」 두 편 등 총 15편을 수록하였다. 이 15편은 경서 또는 역사책을 읽다가 느낌이 일어, 지은 경우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계기로 인해 생각을 정리한 경우도 있다. 가령, 「노남자에 대한 논」 두 편과 「선비 중에 군자와 소인이 있다는 논」 두 편, 「남의 산의 돌로도 나의 옥을 갈 수 있다는 설」 등은 경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글이고, 「적송자 따르기를 원하는 논», 「의리로 조조를 풀어준 데 대한 논」 등은 역사책을 읽은 뒤 느낌이 일어 지었으며, 「새가 자주 나는 것에 대한 설」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느낌이 일어 생각을 정리한 글이다. 이 잡저를 통해 평소 위계도의 지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 그 의의가 작지 않다. 서문은 총 8편이 실려 있는데, 실기 및 문집, 시고, 가승, 파보 등 다양한 책이 나온다. 「밀양박씨오충실기 서」는 임진왜란 때 의병에 참여했던 박

천봉(朴天鵬)과 그의 네 아들들의 행적을 기록한 실기에 서문을 쓴 글이고, 「삼희당실기 서」는 삼희당 문공(文公)의 실기에 쓴 서문이며, 「기재유고 서」는 신무철(申武澈)의 문집에 쓴 서문이다. 「항와유고 서」는 문충렬(文忠烈)의 문집에 쓴 서문이고, 「문우사시고 서」는 김문옥이 결성한 문우사의 시고(詩稿)에 쓴 서문이며, 「함양박씨가승 서」와 「옥천조씨파보 서」는 함양박씨와 옥천조씨의 가승과 파보에 쓴 서문이고, 마지막 「송수경에게 주는 서」는 제자 송수경에게 준 서문이다. 기문은 총 15편이다. 「오산재기」는 김세보(金世寶)의 재실에 쓴 기문이고, 「노산재기」는 박동춘(朴東春)의 재실에 쓴 기문이며, 「진수재기」는 영암 월출산 아래 밀양김씨가 세운 재실에 쓴 기문이고, 「중산재기」는 능주에 있는 김해김씨의 재실에 쓴 기문이다. 「모정기」는 홍주송씨 죽계공(竹溪公)의 누정에 쓴 기문이고, 「석헌정기」는 김영창(金永昌), 영우(永佑)가 부친을 위해 지은 누정에 쓴 기문이며, 「반환정기」는 이춘성(李春城)의 누정에 쓴 기문이고, 「월천재기」는 청풍김씨의 재실에 쓴 기문이다. 「취송정기」는 순천박씨의 누정에 쓴 기문이고, 「충무사증건사실기」는 승주(昇州) 신성포(新城浦)에 소재한 충무사(忠武祠) 증건 실기이며, 「함허정기」는 청송심씨의 누정에 쓴 기문이다. 「수산재기」는 기건(奇虔)의 후손 수산재 기옹(奇翁)의 재실에 쓴 기문이고, 「동산재기」는 나주에 소재한 동산재에 쓴 기문이며, 「봉산재증건기」는 옥천조씨의 재실을 증건한 내용을 담은 기문이다.

권6에는 발문, 명문, 사, 상량문, 고유문, 축문, 제문, 유장비, 유허비, 세장비, 강학비, 제단비, 기적비, 순의비, 추모비, 기실비, 기행비, 효행비, 효열비 등 다양한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상지재유고의 발문」은 문기호(文基鎬)의 문집에 쓴 발문이고, 「장렬사지의 발문」은 광주에 소재한 장렬사의 기록물에 쓴 발문이며, 「여한시문의 발문」은 『여한시문제

1집(麗韓詩文第一集)』에 쓴 발문이고, 「오현유고의 발문」은 위계룡(魏啓龍)의 문집에 쓴 발문이다. 「중와유고의 발문」은 위홍량의 문집에 쓴 발문이고, 「남운유고의 발문」은 정남운(丁南耘)의 문집에 쓴 발문이며, 「금곡음사시고의 발문」은 금곡음사 시고에 쓴 발문이다. 「쌍석유고의 발문」은 이희용(李熙容)의 문집에 쓴 발문이고, 「석봉유고의 발문」은 석봉 거사 신공(申公)의 문집에 쓴 발문이며, 「휴재공공유고의 발문」은 공연웅(孔鍊雄)의 조부 휴재공의 문집에 쓴 발문이다. 「이한영의 자사」는 이한영의 자(字)가 군실(君實)인 이유를 적었다. 고유문으로는 잠계 백 선생과 은산사에 봉안하는 김노은과 송와에 올리는 글이 있고, 유장 비로는 부사맹(副司猛) 박성민(朴聖民)·밀양박씨 운남 처사·장기 현감 장흥 위공·무구와 신공 등과 관련한 것이 있다. 유허비로 회양 부사(淮陽府使)를 역임한 김몽규(金夢圭)·홍주송씨·방은(芳隱) 임응호(林應鎬)와 관련한 글이 있고, 세장비로 광산김씨와 달성배씨와 관련한 글을 수록하였다. 그 외 위계도는 강학비·제단비·기적비·순의비·추모비·기실비·기행비·효행비·효열비 등의 글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행적을 드러내었다.

권7에 묘갈명 40편이 실려 있는데, 농포 문공·증사헌부 지평 범공·경암 이공·전은 조공·소원 이공·만오 서공·지촌 최공·빙와 안공·석천 김공·지우당 김공·심암 박공·성균진사 사천 김공·순헌 나공·양재 강공·설후 허공·의사 인동 장공·약현 광산 김공·참봉 흥성 장공·통정대부 성공·부호군 김공·통정대부승정원우승지경경연참찬관에 추증된 송은 김공·낙파 장공·서양현 광산 노공·석오 조공·호은 처사 백공·사간 기현 최공·소암 박공·모재 장공·범농 심공·홍문관 교리 소은 송공·사헌부 지평 이공·행선전관수문장 백공·남강 배공·인암 김공의 묘갈명·유인 광산김씨의 묘갈명·죽계 송공의 묘갈명·중현 위공의 묘갈명·

금농 송공·송암 정공·죽취 정공을 위한 글 등이 그것이다.

권8에 묘표 40편이 각각 실려 있는데, 초산 방공·도은 임공·신재 이공·백현 박공·남정 최공·계은 이공·효자 김공·학생 변공·광산 김공·금정 장공·경암 민공·인재 김공·강재 한산 이공·통덕량 김해 김공·농은 김공·금계 서공·절충장군동지중추부사행용양위부호군 이공·덕헌 문공·노은 백공·만성 박공·덕헌 김공·근포 위공·풍곡 노공·유계 한공·이재 조공·청계 민공·죽헌 김공·의당 김공·통덕량 지암 노공·금계 장공·소정 강공·만수당 조공·춘강 강공·연파 범공·정와 안공·송곡 고공·금산 박공·죽계 김공·밀양 손공·농은 서공을 위한 글이 그것이다. 또한 권8에 서사로서 「열부 한산이씨의 서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화순에 살던 오영호(吳寧鎬) 모친의 행장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종백 인재 위공의 행장」과 「금재 송공의 행장」은 위계동(魏啓同)과 송효섭(宋孝燮)의 행장을 각각 기록한 것이다. 「지사 주촌 심공 전」과 「우모 이유인 전」은 심의선(沈宜璿)과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 문조(文朝) 딸의 행적을 각각 기록한 전이다.

4. 문집의 가치와 그 의의

이상 위계도의 삶과 그 위인 및 업적, 문집의 편찬 경위, 문집의 전체 구성과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만취집』의 가치와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현대 호남 학맥의 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위계도는 20대부터 김문옥을 좇아 학문을 연마하였다. 김문옥은 기정진의 학맥을 이은 학자로, 위계도가 그러한 김문옥을 추종했다는 것은 곧, 기정진의 학맥을 이었다는 뜻이다. 위계도가 남긴 시와 문장을 검토해 보면, 여러 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로써 기

정진의 학문이 어떤 사람들에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위계도는 1960년 이전에 스승 김문옥을 따라 화순으로 삶의 거처를 옮겨 살았으며, 58세 이후부터 광주에서 살았다. 처음 화순에 있을 때 금곡음사를 결성해 시사 활동을 하였고, 이후 광주의 무진음사의 한 일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여러 편의 한시 작품을 남겼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편의 시사(詩社)관련 한시 작품은 근현대 광주와 주변 지역의 문예활동 실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후자는 1910년을 기점으로 한문학은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1910년 이후에도 무수한 문인 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한문으로 나타내었다. 『만취집』도 그중 한 문집이라 말할 수 있다. 즉, 『만취집』원본 또한 한문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한글세대들에게는 그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국역 『만취집』을 간행한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평생 한문에 익숙했던 위계도의 생각을 한글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점이 국역 『만취집』의 한 의의라 말할 수 있다.

2024년 5월

만취유고 서문[晚翠遺稿序]

대저 선비의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지행(志行)과 시문(詩文)이니, 지행에 장점이 있으면 시문에 단점이 있고, 시문에 장점이 있으면 지행에 단점이 있으니, 한 가지도 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겸한 자는 이 누구인가? 만취위석사계도(晚翠魏碩士啓道)가 그 분이 아니겠는가.

살펴보건대 시례(詩禮)⁷의 집안에서 성장하여 품성이 온후하고 탄솔(坦率)하며, 재질이 총명하고 민혜(敏慧)하여 일찍이 가훈을 이었고, 이어서 당시의 문덕대가(文德大家)에게 수학하여 취향이 방정하고, 조예(造詣)가 긴밀하여 사문(師門)의 기대와 동류의 추증이 막중하였다. 이로부터 학식이 넓고 이름이 높아, 사방에서 학업을 청하는 자 무리를 이름에, 여러 해를 가르치고 깨우치기를 게으르지 아니하여 성취한 자 적지 않았다.

또 일찍이 사람됨의 방도를 얻어, 아버이를 섬김에 양생(養生)하고 송사(送死)하는 예절을 모두 갖추었고, 형제들에게 화락하였으며, 벗 사귀기를 신의로써 하고, 사람 대하기를 근신으로써 하며, 몸가짐을 겸손과 공경으로 하고, 일 처리하기를 명백히 하였다. 또 용사(隆師)⁸의 의

7 시례(詩禮) : 공자의 아들 리(鯉)가 뜰에서 공자 앞을 빠른 걸음으로 지나다가 공자로부터 '시례(詩禮)에 대하여 배웠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일이 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가정에서 부친으로부터 배우는 가학(家學)을 말할 때 쓴다. 『論語』「季氏」

8 용사(隆師) : 『소학집주(小學集註)』「서(序)」에 “옛날에 소학교에서는 사람을 가르치되,

리에 간절하여 동문의 벗들과 국중(國中)의 인사들로 더불어 협의하고 협력하여 사당(祠堂)을 세워 효당(孝堂) 김선생(金先生)을 제향하여 종신토록 사모하였으니, 가히 그 지행의 가상함을 알 수 있다.

간혹 고을의 동지들과 더불어 산수를 유람하며 감흥을 읊고 풍월을 음영하여 정을 펼치며, 기타 정사(亭榭) 누대(樓臺)의 운(韻)과 세상을 근심하고 시대를 탄식하는 시(詩)와 만사(輓詞) 등 수백 수가 격조에 합당하여 하나라도 꾸미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선(善)을 즐겨 말하여 문자로 찬술한 수백 편 또한 문체에 알맞아 사실을 기록하고 실정에 합치되니, 근세 속사(俗士)들의 기교(奇巧)하고 부탄(浮誕)한 글로써 가히 비교할 수 없음에, 그 시문의 고명함이 앞에서 이른바 겹했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만취자로 더불어 서로 사귀어 오래되었으니, 거리가 멀어 비록 서로 자주 만나지는 못하였으나, 서로 허여함이 지극히 간절하였다. 옛날 우리 선조고 춘풍당 차운(先祖考春風堂次韻)을 베껴 유고(遺稿)를 빛나게 하였고, 또 뒤에 선인께서 돌아가심에 매헌만사를 지어 위문하였다. 나 또한 그 선부장(先府丈) 의재공(毅齋公)의 부음을 받들며 만사를 지어 애도하였고, 또 편지로써 왕복하여 정의(情誼)가 더욱 두터워 영원히 이 즐거움을 보존하고자 기약하였는데, 뜻밖에 부음을 듣고 경악하여 시로써 울고 애도하였다. 이제 그 문도(門徒) 김사문 영웅(金斯文永雄) 정사문 연태(鄭斯文然台)가 스승을 잃은 슬픔을 안고, 시문을 수집하여 책을 만들어 후세에 전하기를 도모함에 나를 성덕산방(成德山房)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과,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히 하는 방도를 가르쳤는데, 이는 모두 자신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근본이 된다.[古者小學 教人以灑掃應對進退之節 愛親敬長隆師親友之道 皆所以爲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本]”라는 내용이 보인다.

으로 찾아와 권단(卷端)의 글을 청하였다. 비록 가당치 않으나 옛날의 교분을 잊기 어렵고, 또 바야흐로 세강속말(世降俗末)에 윤리가 패상(敗傷)하여 효제를 알지 못하는 자가 대부분인데, 두 사람의 스승 섬기는 정성의 독실함이 이와 같은지라, 굳이 사양하지 못하고 글을 쓰노니, 이 글을 읽는 자 누가 감흥을 일으켜 격동하지 않으리오.

단기 4334년 신사 소한절(小寒節)

광산 김순택(光山金淳澤)이 쓴다.

原文 晚翠遺稿序

夫士之最所貴者，惟志行與詩文而有長於志行而短於詩文，長於詩文而短於志行，一亦有難而兼之者，是誰。抑亦晚翠魏碩士啓道其人歟。攷察則生長詩禮家，稟性溫厚坦率，才質聰明敏慧，早襲庭訓，晚受學於當詩文德大家，趣向方正，造詣緊密，師門之期待，同流之推誦莫重，自是而學博名高，四方請業，徒衆而積年，教誨不倦，成就者不尠。且以早得爲人之方，事親也，養生送死之節，咸備，昆季也，和樂且湛，交友以信誼，對人以勤慎，持身謙恭，處事明白，又切於隆師之義，與同門友及國中人士，協議合力，建祠而享曉堂金先生，終身思慕，可以知其志行之嘉尚。間或，與省內同志，遊樂山水而賦興，吟詠風月而敘情，其他亭榭樓臺之韻，憂世歎時及挽詞等之句數百首合於雕格而一不雕飾，樂道人善而讚述文字數百篇，亦是適於文體而記實稱情，非以近世俗士，奇巧浮誕之文，可比者，又可以知其時文之高明，嚮所謂兼之者是矣。余與晚翠子，結交歲久而距里遠隔，雖不相逢頻數，契許至切而昔年惠我先祖考春風堂次韻而光遺稿，後先人下世，又惠梅軒挽詞而慰問，余亦承其先府丈毅齋公訃音而作挽哀悼，又以書簡往復，情誼尤篤，期於永保此樂，意外聞訃，驚愕而以詩哭挽，今其門徒金斯文永雄，鄭斯文然台痛極樛折，蒐輯其詩與文，成冊而圖傳後訪余於成德山房而請卷端之文，雖不可當，難忘舊日之交分，方茲世降俗末，倫理敗傷，不知孝悌者，舉皆而二人事一之誠之篤實如此，不固辭而書之，讀斯稿者，孰不興感而激動也哉。

檀紀 四千三百三十四年 辛巳小寒節 光山 金淳澤 書

만취선생유집 서문[晚翠先生遺集序]

호남의 장흥 고을에 문학과 행의(行義)로 세상에 드러난 분이 계시니, 곧 위공(魏公) 만취(晚翠) 선생이시다.

일찍이 가훈을 이어 백잠계(白潛溪) 선생에게 수업하여 경사에 정통(精通)하고 백가를 두루 섭렵하여 학문이 이미 이루어짐에, 이에 효당(曉堂) 김선생(金先生)님께 나아가 질정하고 집지하여 위기(爲己)의 학문을 힘써 효제에 독실하고 지절(志節)을 숭상하여 문학에 뛰어났다.

경술국치로부터 속세에 뜻이 없어 임천(林泉)에 자취를 숨겼고, 이윽고 광복이 된 후에는 또 서양의 사조(思潮)가 범람하여 일선의 양기(陽氣)를 붙잡기 어려움을 보고, 이에 후진을 가르쳐 인도하고 유학을 부식(扶植)함으로 임무로 삼았다. 중년에는 광주 서석산(瑞石山) 아래로 거처를 옮겨 삼성실(三省室)을 여니, 원근의 사우들이 날마다 서로 찾아와 학도들이 운집하여 상사(席畝)가 능히 수용하지 못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무진(武珍) 일대에 문풍이 성대하게 일어났다.

불행스럽게 중도에 풍질(風疾)에 걸려 끝내 회복하지 못하였으니, 오히려 사문(斯文)의 재앙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는가.

돌이켜 옛날 선생의 담박한 생애를 추억함에 만감이 교차한다. 바야흐로 그 춘하의 즈음에는 백화를 감상하며 가득히 술을 마시고, 녹음에 들어서서는 태탕(駘蕩)⁹하게 시를 읊었으며, 추동의 계절에 이르러서는 단풍을 찾아 수레를 멈추고 그림을 그려보고, 백설을 기다려 화로를 안

고 책을 보셨으니, 이는 또한 사계절이 번갈아 감에 즐거움 또한 다함이 없는 것이다. 산수를 사랑하고 풍월을 즐겨 표연(飄然)히 출진(出塵)의 형상이 있고, 한묵(翰墨)을 즐기고 거문고와 책을 즐겨 효효연(囂囂然)히 자득하며 세상의 근심을 잊었다. 이는 곧 곳을 따라 감흥하고, 때때로 감회를 서술하여 선생이 항상 자연의 즐거움에 마음을 붙이고 늙음이 장차 이름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평일 강학하고 시를 읊으며 친절히 가르쳐 주심이 마치 어제의 일과 같아 생각에 능히 잊을 수 없도다.

선생의 시문에 대해서는 웅장하고 두터우며 맑고 굳세다는 세평이 이미 나왔으니, 나의 얇은 식견으로 다시 무엇을 말하리오.

이제 유고(遺稿)를 발간함에 문인 김사문영웅(金斯文永雄)과 정사문연태(鄭斯文然台)가 가장 애를 썼으니, 가히 선사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일을 마치고 출간함에 내가 스승을 따랐다는 증거로써 나에게 서문을 청하였으나, 내 책임자가 아니니 어찌 감당하리오. 그러나 존사(尊師)의 마음은 또한 남에게 사양할 수 없어, 이 몇 마디를 붙여 책임을 면하노니, 부끄럽고 또 송구할 따름이다.

단기 4335년 임오 입춘절
진주 강동원이 삼가 기록한다.

9 태탕(駘蕩): 넓고 큰 모양을 말하기도 하고 화장한 모양을 일컫기도 한다. 사영운(謝靈運)의 「직중서성(直中書省)」 시에 “벗 그리는 정은 가슴속에 울적하고, 봄의 풍광은 화장도 하여라. 어찌하면 바람을 탈 만한 날개를 얻어, 산수를 마음대로 완상할 수 있을까. [朋情以鬱陶, 春物方駘蕩. 安得凌風翰, 聊恣山泉賞?]” 하였다.

原文 晚翠先生遺集序

湖南長興鄉，有文學行義著于世者，卽魏公晚翠先生也。早襲正訓，受業於白潛溪先生，精通經史，博涉百家，學而成，乃就正于曉堂金先生而執摯，務爲己之學，篤于孝悌，尊尚志節，長于文學。自庚戌國恥，無意於世，遯跡林泉，既已光復之後，又見西湖汎濫，難扶線陽，乃以啓迪後進，扶植斯文爲己任。中年，轉居于光府瑞石山下，開三省室，遠近士友，逐日相尋，學徒雲集，庠舍不能容，由是武珍一帶文風，蔚然興矣。不幸中途，罹于風疾，終不能回復，嗚乎，斯文之厄，胡至於此乎。回憶昔年先師淡白之生涯，萬感交錯，方其春夏之際，償百花，淋灑而酌酒，入綠陰，駘蕩而吟詩，及其秋冬之節，訪丹楓，停車而模畫，待白雪，擁爐而看書，此亦四時代序，樂亦無窮者也，而愛山水翫風月，飄飄然有出塵之像，耽翰墨娛琴書，囂囂然有忘世之憂，此則隨處感興，有時敘懷，先生之所以常寓於自然之樂，而不知老之將至者非耶。平日講學誦詩，親切訓誨，遽然如昨日事，念不能忘也。至於先生詩文至雄厚清勁，已有世評，以余淺見薄識，復何言及。今刊遺稿，門人金斯文永雄，鄭斯文然台，最爲賢勞，可謂不負先師之恩。役畢臨梓，以余從師之證，請序於余，余非其人，安敢當。然尊師之心，亦不讓於他，茲付數語以塞責，愧且悚也已矣。

檀紀 四千三百三十五年 壬午立春節 晉州 姜東元 謹誌

문우회 서문[文友會序]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문으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 인(仁)을 돕는다.¹⁰’라고 하였다. 대개 군자가 학문을 하는 것은 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은 반드시 벗을 바탕으로 삼으니, 벗이 되어서는 단지 모일 뿐만이 아니라, 문으로써 모이되, 혹은 옛날의 시서(詩書)를 고찰하며, 혹은 요즘 세상의 사물을 궁구한 이후에 도가 밝아지게 된다. 또한 인을 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을 뿐만이 아니라, 선이 있으면 서로 권하고, 허물이 있으면 서로 규찰한 이후에 덕이 날로 나아가게 된다. 무릇 벗을 모으는 도가 그 관계한 것이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어찌 소홀히 말하겠는가?

내가 복천(福川)의 절산(節山)에 산 지 수십 년에 혹 책을 읽다 틈이 나면 구두(句讀)를 가르쳤다. 단지 유속(流俗)에 물들고 안일함에 익숙해져 있으니, 마땅히 스스로 자신을 단속할 겨를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하거늘, 어찌 생각이 다른 사람에 미치겠는가? 이것은 이른바 자신을 그르치고 남을 그르치는 격이니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때때로 「열명」의 유효학반(惟數學半)¹¹과 학기의 교학상장(教學相長)¹²

10 군자는 …… 돕는다. : 『논어』 「안연(顔淵)」에 공자(孔子)의 제자인 증자(曾子)가 “군자는 문으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君子以文會友以友輔仁]”라고 하였다.

11 유효학반(惟數學半) : 『서경』 「열명 하(說命下)」에 은 고종(殷高宗)의 재상인 부열이 “가르침은 배움의 반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에 전념하면 그 덕이 닦임을 자신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惟數學半 念終始典于學 厥德修罔覺]”라고 하였다.

의 말을 외우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였다.

아! 또 서양 글이 성한 날을 당하여, 능히 자신을 단속하고 머리를 숙여 고문자에 뜻이 있는 자가 드물고, 또 비록 고문자에 뜻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현의 언행을 지킬 만하고 따를 만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더욱 드물다. 그렇다면 우리는 헛되이 적막한 공산 가운데 모여 농담과 해학으로 엄병덤병 날을 보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뜻을 힘쓰고 행동을 돈독히 하여, 세상의 가장 좋은 일을 남에게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거의 증자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제군들은 어찌 힘쓰지 않겠는가.

原文 文友會序

曾子曰‘君子以文會友，以友輔仁’，蓋君子之爲學，欲其求仁，而仁必資友，爲友非徒會也，以文會之也，或考詩書於古昔，或窮事物於今世而後道蓋明矣。且夫爲仁非但由己也，有善則相勸，有過則相規而後德日進矣。夫會友之道，其所關若是其重大，則豈可以等閒語之哉。余居福川之節山，凡數十年矣，或以讀書暇日，教以句讀。但爲染於流俗，習於安逸，而當恐自檢其身不暇，奚念及他人哉。是所謂自誤誤人，而不禁其媿恥之心也。然時誦說命之惟教學半與學記之教學相長之語，而亦所以自慰也。噫，當且蟹行文盛之日，能檢身屈首而有志於古文字者鮮矣，且雖有志於古文字，而必以聖賢之言行爲可守可服者尤鮮矣。然則吾輩非欲徒然聚首於空山寂寞之中，而以戲談譁說因循度日也。必自勵志篤行，而不欲以世間一等事讓與別人，則庶可不違乎曾子之所言矣。諸君盍相勉旃哉。

12 교학상장(教學相長) : 『예기』 「학기(學記)」에 “배운 다음에야 자기의 지혜가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르쳐 본 후에 어려움을 알게 되니, 부족함을 안 후에 스스로 반성하고, 어려움을 안 후에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므로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증진한다.’ 한 것이다. [學然後知不足，教然後知困，知不足然後能自反也，知困然後能自強也。故曰：教學相長也.]” 하였다.

차례

만취집 해제 • 3

만취유고(晩翠遺稿) 서(序) • 26

만취선생유집(晩翠先生遺集) 서(序) • 29

문우회(文友會) 서(序) • 32

제1권 | 시(詩) • 61

여름날 즉사 2수 • 62

번민을 물리치다 2수 • 64

흥을 풀다 3수 • 66

벗을 그리다 • 68

즉사 4수 • 69

고우 • 72

회청 • 73

풍욕 2수 • 74

감시 • 76

은사가 • 77

부여에서 옛날을 회상하며 • 79

노량을 지나며 이충무공의 사적을 느껴서 • 82

의량사 논개 • 85

민경문 범식의 내방에 사례하며 • 87

우정의 봄밤에 소파와 설주 두 어르신을 모시고 시를 읊다 • 88

소천의 조씨 유장을 지나며 • 89

산거즉사 2수 • 90

평호 조덕경 돈승 집에서 묵다 • 92

효당 선생의 「별교에서 고읍촌으로 옮기며」 시에 차운하다 • 93
 오월의 전가 • 94
 날이 갠 것을 기뻐하며 • 96
 도원행 • 98
 정부 아내의 노래 • 100
 목우 • 102
 노송행 • 103
 산당춘일즉사 14수 • 105
 봄을 보내며 • 112
 동백화 • 113
 삼학사를 애도하다 • 115
 이효갑의 내방을 기뻐하며 • 117
 도랑을 터서 밭에 물 대다 • 118
 시장에 가다 • 119
 천관산 노래 • 120
 장맛비를 괴로워하다 • 121
 잠깐 갠 • 122
 날이 갠을 기뻐하다 • 123
 즉사 • 124
 축석루에서 세 분 장사를 위로하며 • 125
 김각간이 말을 참수하던 거리를 지나며 • 127
 노강산방에서 과작하다 8수 • 129
 또 9수 • 134
 선병한 대인 남헌공의 71세 생일을 축하하며 • 140
 춘일즉사 2수 • 141
 귀향하는 도중에 • 142
 산당에서 회포를 풀다 4수 • 143
 자송 양동하에게 주다 • 146
 하일즉사 7수 • 147

단오일에 송농 이동범 어른께서 마침 오셨기에 느낌이 있어서 • 151
 송농께 올리다 • 152
 신죽 • 153
 보리를 베다 • 154
 목동의 피리 2수 • 155
 이양 • 157
 뽕잎을 따다 • 158
 꽃에 물을 주다 • 159
 밭에 김매다 • 160
 출정한 군인의 아내 • 161
 노송 • 162
 가뭄을 근심하며 • 163
 산방과작 6수 • 164
 보인계회의 시 • 168
 여름밤 즉흥시 • 169
 우인이 징병을 받았다가 풀려남을 기뻐하며 • 170
 문우계에서 운을 들다 • 172
 우중에 영남의 선비 해석이 이르다 • 173
 우중 즉흥시 6수 • 174
 남산사 옛 터를 지나며 • 178
 구재에서의 과작 18수 • 181
 봄을 보내며 • 191
 흥을 풀다 5수 • 192
 우송 구철수께 화답하여 올리다 • 195
 산당에서 여러 벗과 날마다 함께 읊다 5수 • 196
 적벽을 유람하다 • 199
 경자년(1960) 춘삼월에 효당 선생께서 복천에 이거하여 김씨의 영사재에서
 장수하실 때 날마다 과작으로 시를 지었다 6수 • 200
 춘원정의 원운을 차하다 • 204

효당 선생께서 문득 후생을 버리고 돌아가시자 우제를 지낸 후 감회로
눈물지으며 짓다 • 205
가을 흥취 6수 • 206

제2권 | 시(詩) • 209

용암재에서 고당을 알현하고 느낌이 있어 짓다 • 210
고당을 모시고 밤에 대화를 나누다 • 211
금곡에서 이별을 이야기하다 • 212
제야 • 213
상원에 읊다신축년(1961) • 214
봄날에 여러 어른과 함께 이야기하다 3수 • 215
한가한 때 자유롭게 읊다 3수 • 217
여름날 즉흥 • 220
『효당집』을 간행한 후에 여러 벗들과 청석강에서 놀다 • 221
초가을 • 222
금곡잡영 4수 • 223
세모에 이별에 임하여 운자를 들어 회포를 노래하다 • 225
제야에 읊다 • 226
신정 • 227
봄날 즉흥으로 읊다 10수 • 228
여름날의 즉흥 5수 • 234
적벽으로 가는 도중에 입으로 부르다7월 초10일 • 237
적벽강가를 유람하다 • 238
가을날 즉흥으로 읊다 2수 • 239
춘야에 벗을 만나 읊다 • 241
금곡에서 겨울밤에 상보 서기종 그리고 경재 김영일과 함께 읊다 2수 • 242
상보 서기종이 내방하다 • 244

단석 김경발 어르신 61세 생일을 축하하다 • 245
 영평음사에 화운하다 • 246
 부산에서 구덕산장의 시를 차운하다 • 247
 덕경 조문승 형과 함께 장성의 용산재로 성재 나갑주를 방문하다 • 248
 용산야화 나씨 정자 • 249
 아은당 시를 차운하다 • 250
 함평으로 월주 이강현을 방문하다 • 251
 또 근체 1수를 짓다 • 252
 불갑산에 오르다 • 253
 불갑사 만세루에 쓰다 • 254
 용산의 재회 • 255
 사창으로 가는 길에 입으로 부르다 • 256
 뒤늦게 김춘원 어르신의 61세 생일 시를 차운하다 • 257
 나성재, 산암 변시연, 조덕경과 백양사를 유람하다 • 258
 백양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입으로 부르다 • 259
 산암의 유거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번계 김윤동 어르신께서 자리에 계셨다
 절구 2수 • 260
 산암의 별장에서 번계 선생의 백양사 시를 차운하다 • 261
 계은당 양대원 선생의 시의 원운을 차하다 • 262
 호산 박성주를 애도하다 • 263
 매창 박태선공을 애도하다 절구 2수 • 264
 쌍매 박태항 형의 유거에 쓰다 • 265
 가군의 66세 생일에 기쁨을 적다 • 266
 성재의 내방에 사례하다 • 267
 덕산정사 강회 시운 • 268
 한거하면서 회포를 쓰다 • 269
 장선의 문우계를 닦다 • 270
 탁암 정진만을 애도하다 절구 2수 • 2721
 금곡에서 보인계를 닦다 • 272

바다를 보다 • 273
 초하에 윤석촌과 나성재 및 절산의 어른들과 함께 청석강에 노닐다 • 274
 가을 흥취 2수 • 275
 여러 벗과 강상에서 입으로 노래하다 • 277
 동경에서의 추회 • 278
 광한루의 가을 달 • 279
 추강의 어부 • 280
 인곡 김정채를 애도하다 • 281
 춘원 최인철의 유거에 쓰다 • 282
 산당에서 우연히 읊다 • 283
 학우 김규환, 김경석, 김준, 김종옥, 김용기, 김영웅, 최영채, 김찬수와
 이별하며 주다 • 284
 서재에 기거하다 느낌이 일어 읊다 • 285
 절산 어른들이 열흘 과작으로 시를 지으니 나도 화답하다 6수 • 286
 가을날의 즉흥시 • 289
 흥을 보내다 • 290
 석촌과 성재 그리고 벽초 손평기와 함께 저녁에 앉아 회포를 노래하다 • 291
 버들 솜 • 292
 장병택 별장에서의 작은 모임 • 293
 여러 군의 벗들과 월출산 아래 남강 이효갑 형의 별장에 묵다 • 294
 월출산에 오르다 • 295
 경포대에서 노닐다 • 296
 인덕정 • 297
 보리 물결 • 298
 오산 음사에 화답하다 • 299
 사은 공사열에게 축수하다 • 300
 공사은 별장에서 풍영계를 닦다 • 301
 녹음 • 302
 풍영정에서 이퇴계 선생의 시를 차운하다 • 303

꿈에서 퇴계 선생을 뵈고 • 304
 남강 나종태 어르신 의 유거에 쓰다 • 305
 오산음사 • 306
 노호서실에서 운을 듣다 • 307
 남북통일을 염원하다 • 308
 인암의 선자도에 쓰다 • 309
 탁사정에서 판상의 시를 차운하다 • 310
 죽헌 김영량을 추수하다 • 311
 무진음사에서 여러 어르신과 모여서 이야기하다 • 312
 성암 양회순의 수연을 축하하다 • 313
 무진음사 여러 어르신과 함께 망암 박춘서의 장원에서 놀다 • 314
 동초 정철환의 서실에서 운을 듣다 • 315
 동초 61세 생일 추수 시 • 316
 송오 김기현을 애도하다 절구 2수 • 317
 향택 임종채의 아버지를 애도하다 절구 2수 • 318
 죽곡정사를 방문하다 • 319
 백양사에서 노닐다 • 320
 고산서원을 참배하며 • 321
 석촌, 성재와 함께 월주를 방문하다 • 322
 불갑사로 가는 도중에 • 323
 불갑사를 유람하다 • 324
 송농의 장원에서 풍영계를 닦다 • 325
 장산재에서의 감회 • 326
 산재에서 즉흥으로 읊다 • 327
 무진의 작은 모임 • 328
 서릉재 김용구의 재사에 쓰다 • 329
 죽하 윤종림 어른을 애도하다 절구 2수 • 330
 녹양의 청파 위흥규의 장원에서의 작은 모임 • 331
 청강서실에서 벗과 만나 밤중에 대화하다 • 332

무진음사에 가려다가 일이 있어서 이루지 못하다 • 333
 직현 김일식 어른을 애도하다 절구 3수 • 334
 필암서원을 참배하다 • 335
 무진시사의 초청에 가다 2수 • 336
 임대정 • 338
 청석강가에서 죽헌 김영량, 매당 김준현, 석촌, 학산 김영회와 함께 술을
 마신 후에 운을 들다 • 339
 흥을 보내다 • 340
 삼우정 시를 차운하다 • 341
 낭산의 제월 • 342
 정각의 청풍 • 343
 마령의 낙조 • 344
 조동의 초가 • 345
 제강의 여화 • 346
 발옥산으로 돌아가는 구름 • 347
 금성의 소나기 • 348
 태수산의 채하 • 349
 철천에서 만호정 시를 차운하다 • 350
 초산서실에 쓰다 • 351
 여러 군의 벼들을 맞아 관산의 당동에 있는 나의 장원에서 풍영계를 닦다 •
 352
 천관산에 오르다 • 353
 역락재에서 선비들 모임 • 354
 적벽강에서 노닐다 • 355
 물염정에서 판상의 시를 차운하다 • 356
 박형윤의 아버지를 애도하다 절구 2수 • 357
 차씨의 세심정에 오르다 • 358
 장씨의 만귀정에 쓰다 • 359
 요월정에 오르다 • 360

장성 산암장에서 벽농 김상진, 우죽 한철수, 방산 손중희, 월주, 성재, 청강
 유재관과 함께 이야기하다 절구 2수 • 361
 담헌장에서의 수창 • 362
 답답함을 풀다 • 363
 취가정에서 느낌이 있어 • 364
 김씨의 송계재에서 느낌이 있어 읊다 • 365
 재동서원을 참배하다 • 366
 무진음사의 여러 벗들과 불갑사를 유람하다 • 367
 부산 안용복 장군의 고사에 느낌이 있어 • 368
 장산 야화 • 369
 광부에서 모여 얘기하다 • 370
 김고당 선생을 애도하다 • 371
 금계사 • 375
 광산부 벗들의 초대에 가다 • 376
 뜰에 고매가 있는데 나도 또한 임포의 흥취가 있어 아끼고 완상함을 그치지
 않았다. 올해 봄이 온 후로 눈의 깊이가 한 자나 되었는데 한 무리 괴조가 그
 위에 모여서 수일 동안 쪼았다. 때에 미쳤는데도 꽃 한 송이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를 지었다 절구 2수 • 377
 성재를 추억하다 • 378
 무진에서의 모임에서 읊다 • 379

제3권 | 시(詩) • 381

정곡정을 지나다가 느낌이 있어 • 382
 강진을 지나다가 술재에게 주다 절구 2수 • 383
 간벽천 • 384
 춘곡 이강중에게 드리다 • 385
 소당 김보전에게 주다 • 386

- 간송 이흥채 청장에 쓰다 • 387
 남계 임종덕에게 수창하다 • 388
 서재에서 느낌이 있어 읊다 • 389
 화강 주상섭에게 주다 • 390
 서석산에 올라 • 391
 송강 김문옥을 축수하다 • 392
 여민 송석의의 회갑연을 축하하다 • 393
 유달산을 바라보며 학산 김일남과 금봉 박행보와 함께 갔다 • 394
 목포에서 홍도에 도착하다 • 395
 홍도를 유람하다 절구 2수 • 396
 홍도에서 가거도로 가서 잠시 쉬고 삼태를 지나 밤에 흑산도에서 숙박하다
 절구 2수 • 397
 귀로에 금봉장에서 묵다 • 398
 석당 박말갑에게 주다 • 399
 익헌 김종삼의 장원 아회에서 • 400
 인암장원의 아회 • 401
 안은봉 정사 유희비 시에 차운하다 • 402
 양천 박형문을 애도하다 • 403
 남농 고광칠을 애도하다 • 404
 석헌정 시운을 차하다 • 405
 춘강 신흥렬을 애도하다 • 406
 감회 • 408
 우연히 읊다 • 409
 송운강을 애도하다 • 410
 우촌 김은호 서실에 쓰다 • 411
 무진음사 모임에서 읊다 • 412
 장찬홍 화실에 쓰다 • 413
 인암을 애도하다 • 414
 유석 유겸중, 석촌, 노강 박내호와 함께 읊다 • 415

초산장원의 아회 • 416
 우전 김재만을 축수하다 • 417
 우인과 함께 얘기하다 • 418
 용강정 원운을 차하다 강인환 선인의 정자이다 • 419
 신재 김호영 어른 수석을 뒤늦게 축하하며 • 420
 신재의 회훈례 잔치 시운을 차하다 • 421
 방산 이종호에게 주다 당시 나주 군수였다 • 422
 금정서실 주인 이관수에게 부치다 • 423
 무진음사의 작은 모임 • 424
 유춘계 사성당 원운에 차하다 • 425
 자미정에서 노닐다 반남에 있다 • 426
 제주의 유람, 금봉과 함께 가다 • 427
 주중에서 짓다 • 428
 한라산을 바라보며 • 429
 호남의 향우에게 주다 • 430
 소암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다 • 431
 제월 유동렬의 장원에서 만나 얘기하다 • 432
 백봉 김옥현에게 주다임술년(1982) • 433
 향산서실에 쓰다 위성렬 • 434
 화산 김기석 장군에게 주다 • 435
 석천 박영봉을 애도하다 • 436
 심산 김보열 서실에 쓰다 • 437
 양곡 이경호를 애도하다 • 438
 청강 유재관을 애도하다 • 439
 김규호 양호장에서의 아회 • 440
 동초 정철환 어른을 애도하다 • 441
 춘강 정용재의 사적을 읽고 느낌이 있어서 • 442
 신춘에 회포를 쓰다 • 443
 망암 박춘서를 애도하다 • 444

우인이 초대한 작품에 차운하다 • 445
 무진아회 • 446
 벽초 손평기의 장원에서 작은 모임 • 447
 무진음사의 벗과 석헌정에서 노닐다 • 448
 녹천 임동한을 애도하다 • 449
 방산이 보내준 술에 사례하다 절구 4수 당시 화순 군수였다 • 450
 술재가 보내준 부채에 사례하다 절구 2수 • 452
 우연히 읊다 • 453
 이화서 신도비 건립을 듣고 느낌이 있어 읊다 • 454
 해관 송경섭을 애도하다 절구 3수 • 455
 절산에서 문우계를 닦다 • 456
 산사를 유람하다 • 457
 유석 유겸중을 애도하다 • 458
 아우정 원운을 차하다 • 459
 불란서를 유람하는 금봉을 보내며 • 460
 소성장에서의 모임 • 461
 덕촌서실에 쓰다 • 462
 제군의 내방에 사례하다 • 463
 서재에서 회포를 쓰다 • 464
 회포를 써서 우인에게 주다 • 465
 장산의 모임에서 읊다 • 466
 금초의 별장에서의 아회 • 467
 자상 정연태에게 주다 • 468
 제군에게 보여주다 • 470
 김수당의 청장에 쓰다 • 471
 백자춘 은기가 정묘년(1987) 하력 2월 초1일에 근연을 차렸기에 12운을
 지어서 주었다 • 472
 소암의 장원에 묵다 • 474
 망양정에 쓰다 • 475

학교당 원시에 차운하다 • 476
 관선회 벚들과 대화하다 • 477
 임창섭 군의 새 거처에 쓰다 • 478
 회포를 털어 보내다 • 479
 담대헌에서의 아회 • 480
 열강으로 가는 이군실 한영을 보내며 • 481
 한성에서 한의원을 개업한 군실에게 주다 • 482
 척전 이병내의 서실에 쓰다 • 483
 인간의 혼채는 예나 지금이나 말하는 것이다. 오지헌 대형께 자식 다섯이
 있으니 고인의 오악에 견줄 만하다. 병인년(1986) 동짓달에 혼채를 마쳤기
 때문에 나의 느낌을 써서 계자 용교와 자부 이영숙의 혼례잔치에 주다. • 484
 김양호에게 수창하다 • 485
 계교회 벚들과 함께 순천, 광양 여러 군을 두루 관광하다 • 486
 임청대 • 487
 팔마비 • 488
 옥류동의 학사대 백운산 아래에 있다 • 489
 봉양사 광양에 있다 • 490
 나주의 다도로 신정 김선곤을 방문했는데 죽파 이상영과 송강과 약헌
 김환균이 함께 가서 오언고시 한 수를 지었다 • 491
 방산 대형의 수석에 증정하다 • 492
 시거 • 494
 무진의 아회 • 495
 춘계 유후석을 애도하다 • 496
 장산재의 아회 • 497
 석헌정의 회화 • 498
 우인의 유거를 방문하다 • 499
 관해 김영철의 서실에 쓰다 • 500
 노호 심정섭의 서실에 쓰다 • 501
 김후담의 선정인 영취정의 원운에 삼가 차하다 • 502

조근정의 61세 수연을 축하하다 • 503
 종보의 창간을 축하하다 • 505
 여러 벗의 내방을 사례하다 • 506
 겸정서실에 쓰다 • 507
 박연정 성배에게 주다 • 508
 또 • 510
 춘강 기영명 어른을 애도하다 • 512
 최정현의 장원에서 작은 모임 • 513
 선암사에서 여러 군의 선비들과 강회하다 • 514
 빙와 안종열 어른을 애도하다 절구 2수 • 515
 견흥 • 516
 취헌 김종수 어른을 애도하다 • 517
 백헌 허준강의 장원에서 풍영계를 닦다 • 518
 다시 칠언절구를 읊다 • 519
 오수 고적비 아래를 지나다가 느낌이 있어서 지었다 • 520
 조씨의 취사정에 오르다 • 521
 영춘당 원운을 차하다 • 522
 무진음사가 절산에서 모이니 김씨들이 작은 술상을 차리다 • 523
 영벽정에 오르다 • 524
 춘계 유희석에게 주다 절구 2수 • 525
 서상보가 나를 방문하여 시를 주기에 그 시운에 따라 화답하다 • 526
 송강정에 올라서 • 527
 죽산 백충선을 애도하다 • 528
 필암서원에서 벽농, 계은 김채수를 모시고 백하 변동렬, 월주, 석촌, 봉와
 박석원, 성재, 산암과 함께 얘기하다 • 529
 익일 저녁 배를 빌려 황룡강을 건너 산암의 장원에서 묵다 • 530
 호서의 음성으로 가는 봉암을 보내며 • 531
 대흥사에서 묵다 • 532
 해남의 벗들과 다시 칠언절구를 읊다 • 533

비로 해남향교에 체류하며 촌곡 김상형, 시당 박효수를 모시고 해양 오형기,
 백파 민창기, 운암 박호배, 우당 박영호, 백하 민점기와 함께 운자를 들어
 회포를 읊다 • 534
 장산에서 고상하게 모이다 • 535
 춘사 봉만근의 서실에 쓰다 • 536
 설경 • 537
 한거의 감회 • 538
 세모에 제생과 이별하다 절구 4수 • 539
 금곡의 밤의 대화 • 541
 상원 • 542
 세초에 회포를 쓰다 • 543
 매화를 읊다 • 544
 무진음사 및 목포음사의 벗들과 유달산을 오르다 • 545
 피꼬리 • 546
 서강사 낙성식의 음연 • 547
 만곡사에서 느낌이 있어서 • 548
 동백정에서 느낌이 있어서 • 549
 담대헌에서 여러 어른과 대화하다 • 550
 백범 김구를 애도하다 • 551
 전가를 슬퍼함 • 552
 부채 • 553
 무진음사원이 고상하게 모이다 • 554
 면양정에 올라서 • 555
 고민을 풀다 • 556
 석촌이 와서 절산의 여러 어른과 대화하다 • 557
 남리 조국현 공을 애도하다 절구 3수 • 558
 중추월 • 559
 국화 • 560
 해관 송경섭 어른께 드림 절구 2수 • 561

학정 이우규를 애도하다 • 562

제4권 | 시(詩) • 563

산거에 느낌이 있어 • 564

세모에 이별을 얘기하다 • 565

광부에서 석촌 권희철과 함께 읊다 • 566

가군의 71세 생신에 느낌이 있어 • 567

음사의 여러 어른을 모시고 서강사에서 놀다 • 568

광부의 선비들 모임 • 569

녹천 임동한에게 주다 • 570

영룡대 • 571

빙월정 • 572

순천의 객관에서 학남 정환섭과 이별하다 • 573

유거에 회포를 쓰다 • 574

요월정을 유람하다 • 575

석천 박영봉의 장원에서 일재 정홍채, 석촌, 중헌 이민승을 모시고 운자를 나눠 청자를 얻다 • 576

청우당에 쓰다 • 577

춘계 유희석의 장원에서 우송 이민수, 석촌, 이중헌과 술에 취해 운을 들다 • 578

종인 성암 위성택의 61세 생일 시에 차운하다 • 579

옥산 김정출에게 주다 절구 2수 • 580

김씨 강명재 시를 차운하다 • 581

가을날 무진음사의 초대에 나가다 • 582

즉사 • 583

나삼봉군이 군영에서 편지를 보내어 절구 2수로 사례하다 • 584

소암 박종삼의 수연을 축하하다 • 585

백하 민점기의 벽상에 쓰다 절구 3수 • 586
 매헌 김영석을 애도하다 절구 3수 • 587
 경저에서 옥산에게 주다 절구 5수 • 588
 소매 안사순 어른을 애도하다 절구 3수 • 590
 석남 정원홍을 애도하다 절구 2수 • 591
 춘전 김지규의 서실에 쓰다 절구 2수 • 592
 운강 신의성을 애도하다 • 593
 송암 손석환을 애도하다 절구 2수 • 594
 사헌 정창균을 애도하다 • 595
 백양사에서 풍영계를 닦다 • 596
 태석 김규원에게 주다 • 597
 춘담 김원석 공을 애도하다 절구 2수 • 598
 우당 문동일을 축수하다 • 599
 매창 정상탁의 벽 위에 쓰다 절구 2수 • 600
 화산 문재무를 애도하다 2수 • 601
 내가 계축년(1973) 봄에 성재와 함께 여수객관에 기우하였으니
 실로 오남 김공 도중의 유문을 교열하기 위함이었다.
 가일에 음영하면서 답답함을 푸는 계기로 삼았다. • 602
 부록, 성재의 시 • 603
 오동도를 유람하다가 느낌이 있어 절구 2수 • 604
 부록 시 • 605
 오남집을 읽고 느낌이 있어 • 606
 솔재 정채균에게 주다 • 607
 동초장에서의 선비들 모임 • 608
 소암 현중화에게 드리다 • 609
 우암 박건복에게 보내다 • 610
 화강 주정민에게 부치다 • 611
 벽담 장종철 서실에 쓰다 • 612

계축년(1973) 10월 29일, 어머니 상을 만나 한해가 지나도록
 시를 폐하다가 을묘년(1975) 정월에 비로소 음사의 초대에 가서
 2수를 짓다 • 613
 서석산을 유람하다 • 614
 사평의 소성 정귀모의 장원에서 선비들 모임 • 615
 백하 변동렬 회갑연에 고시 1편을 지어 축하하다 • 616
 촌곡 김원득을 축수하다 • 618
 나성재의 「일본으로 가는 석천 김원직을 보내는 시」에 차운하다 • 619
 강씨의 「정당매」 시에 차운하다 절구 2수 • 620
 청석강가에서 문우계를 닦다 • 621
 『송강집』을 읽고 느낌이 있어서 • 622
 근사재 원시를 차운하다정영택 • 623
 시산 이종필을 애도하다 절구 2수 • 624
 창평성 밖으로 신영호 군을 방문하다 • 625
 박종회 군에게 주다 • 627
 관호정 원시에 차운하다 • 628
 흥을 풀다 • 629
 정당 오태형의 장원에서 회화하다 • 630
 소암 현중화에게 드리다 • 631
 영사재에서의 아회 • 633
 박지은 응을 애도하다 절구 2수 • 634
 초연정의 회화 • 635
 국사 정희면 공의 강학비를 읽고 느낌이 있어 • 636
 현재 김주성에게 드리다 • 637
 인암 김재권에게 축수하다 • 639
 용강 백종호에게 주다 • 641
 송오 위성탁에게 부치다 • 642
 남강 이효갑의 장원에 쓰다 • 643
 사촌 민병재에게 주다 • 644

술재에게 주다 당시 강진군수이다 • 645
 벽천 박형률에게 주다 • 646
 두류산에서 일두선생의 시운을 차하다 • 647
 불일폭포 • 648
 쌍계사를 유람하다 • 649
 산장에서 노닐다 구수원지 • 650
 덕은 조임환의 장원에서 회화하다 • 651
 송농 이동범 어른을 애도하다 • 652
 정다산의 「천일각」 시를 차운하다 8경을 붙이다 • 655
 죽도에 돌아가는 돛배 • 656
 계량에 올리는 조수 • 657
 우도의 취사 연기 • 658
 용포의 어선 불빛 • 659
 천태산의 저녁 구름 • 660
 연사의 저녁 종소리 • 661
 다산의 청람 • 662
 관악의 적설 • 663
 장산에 모여 읊다 • 664
 대만으로 가는 벽강 김호를 보내며 • 665
 나송와의 수석을 축하하다 삼봉의 대인이다 • 667
 우천서실에 쓰다 • 668
 자춘 윤정호가 시를 지었기에 그 시운을 써서 화답하다 • 669
 송강 김문옥에게 부치다 • 670
 촌곡 강동원의 장원에 쓰다 • 671
 연강 정동채 회갑시에 차운하다 • 672
 장난삼아 유춘정에게 주다 • 673
 무진의 회화 • 674
 정씨 오악정 원시에 차운하다 • 675
 초연정에 오르다 • 676

매헌 김영준을 축수하다 • 677
 낭주에서 은재 박도섭 어른을 곡하다 절구 3수 • 678
 큰형님 계현의 61세 생신에 기쁨을 쓰다 • 679
 동래에서 송상현 공이 순절한 일을 느껴서 • 680
 태종대에 올라 대마도를 바라보다 • 681
 부산항 절구 2수 • 682
 술암 정태석의 장원에 쓰다 • 683
 화순의 우평에서 수계하다 • 684
 해남 벗들의 초대를 받고 짓다 • 685
 금봉 박행보에게 주다 • 686
 국화를 감상하다 느낌이 있어 • 687
 서운 원창규를 애도하다 • 688
 자춘을 방문하였는데 만나지 못하다 • 689
 덕강 양주혁을 애도하다 절구 3수 • 690
 이리에 계신 일청 장인을 방문함에 느낌이 있어 근체 1수를
 삼가 드리다 • 691
 잠포 장영학의 회갑연을 축하하다 • 692
 김종택 군에게 주다 • 693
 오종근 군에게 주다 • 694
 설날에 읊다 • 696
 계산 김계윤의 장원에 쓰다 • 697
 난석 현태에게 주다 • 698
 시경 박익준의 장원에 쓰다 • 699
 녹포를 보내준 후암 오재울에게 사례하다 절구 2수 • 700
 흥을 풀다 • 701
 송술봉을 애도하다 절구 3수 • 702
 매헌 김영준이 한성에 거주함에 읊시 1수를 지어 보내다 • 703
 공정옥의 장원에서 아회 • 704
 축석루에 오르다 • 705

한산도를 유람하다 • 706
 오후암의 장원에서 회화하다 • 707
 대곡 김석구 선생 문집을 읽고 느낌이 있어 짓다 • 708
 장성에서 김신평의 효행비를 읽고 읊시 한 수를 짓다 • 709
 우암과 지헌 오명렬의 방문에 사례하다 절구 2수 • 710
 감음 • 711
 학정서실에 쓰다 문일호 • 712
 무진의 벗들과 모여 얘기하다 • 713
 원석 유종룡을 애도하다 • 714
 우음 • 715
 무양사를 배알하다 • 716
 추호 김달호의 서실에 쓰다 • 717
 온재 장천석의 수연을 축하하다 • 718
 광주 하백동의 소하 김용학의 집에서 일청, 백하 변동렬,
 석촌과 함께 읊다 • 719
 단석 정원강에게 부치다 • 720
 김철중 준에게 주다 • 721
 방번 원국진에게 주다 • 722
 김복진 오태에게 주다 • 723
 김자건 장수에게 주다 • 724
 김자중 도수에게 주다 • 725
 김여장 규환에게 주다 • 726
 김대진 경석에게 주다 • 727
 위자문 창복에게 주다 • 728
 김후복 옹기에게 주다 • 729
 김입부 기수에게 주다 • 730
 큰조카 군명 경량에게 주다 • 731
 차질 자문 무량에게 주다 • 732
 균형 권량에게 주다 • 733

명보 창량에게 보이다 • 734
 나선재 삼봉에게 주다 • 735
 김보훈 요송에게 주다 • 736
 취송 김영달에게 주다 • 737
 김보경 용에게 주다 • 738
 이득우 용림의 서실에 쓰다 • 739
 임동일의 서실에 쓰다 • 740
 옥천 민용의 서실에 쓰다 • 741
 모은당의 「지감」 시운을 차하다 • 742
 용암서당 시운을 차하다 봉화 2수 • 743
 중재서실에 쓰다 • 744
 이방산의 서안에 분매가 있어 절구 한 수를 장난삼아 읊다 • 745
 오추의 아집 • 746
 유방산 서실의 시운을 차하다 • 747
 새해 첫날 무진음사에 가다 • 748
 배민 • 749
 유수사 근성에게 주다 • 750
 임신년(1992) 원단에 • 751
 추흥 • 752
 백자연 은준에게 주다 • 753
 시국을 탄식하다 • 754
 이사 후에 느낌을 읊다 • 755
 춘곡 강동원의 서실에 쓰다 • 756
 최춘경 정훈에게 써 보이다 • 758
 이남명 종수에게 주다 • 759
 김수사 도수에게 부쳐 주다 • 760
 하만송을 애도하다 • 761
 경산 우공을 뒤늦게 애도하다 • 762
 담대헌에서 풍영계를 닦다 • 763

남곡의 장원에서 수계하다 • 764
 강씨의 취사재 시운을 차하다 • 765
 양벽정의 판상의 시운을 차하다 • 766
 청탄의 회흔례 잔치를 축하하다 • 767
 우음 • 768
 절산의 벗들과 광주에서 경주로 가는 도중에 짓다 절구 3수 • 769
 경오년(1990) 초가을 • 770
 무진음사 회원의 청장에 가다 • 771
 김해김씨 삼현의 사적 병풍에 쓰다 • 772
 수산재의 원운에 차하다 • 774
 일청 김선생의 영연에서 곡을 하다 • 775
 도남재에서 멋스런 모임을 갖다 • 776
 오지호 화백의 10주기를 추도하다 • 777
 가을날의 우음 • 778
 『고봉집』을 읽고 나서 김춘곡 장인에게 드리다 • 779
 박창성 문재에게 주다 • 780
 무진년(1988) 세모에 여러 벗들에게 증별하다 • 782
 무진년(1988) 초가을에 계고동인회 회원과 영동지역을 여행하고 노름을
 알현하다 • 784
 청령포 • 785
 육신의 사당 • 786
 탄금대 신립의 배수진을 비판하다 • 787
 상주 총의사 정기룡 • 788
 단양을 지나며 • 789
 진안 마이산 • 790
 이 도사의 석탑에 쓰다 • 791
 청령포에서 어계 조려의 총의비에 쓰다 • 792
 문우계를 뒹다 • 793
 중국을 유람하는 조카 무량을 보내며 • 794

서산 공연웅, 임동일과 함께 채씨의 구암정에 오르다 • 795
 김양호의 청장을 방문하다 • 796
 소암 양동하에게 주다 • 797
 병중에 자책하다 • 798
 여러 벗에게 주다 • 799
 계하 구제국에게 주다 • 800
 공영보 연웅에게 주다 • 801
 김자영 영웅에게 주다 • 802
 김여해 창환의 서실에 부쳐 쓰다 • 803
 죽암 고영두의 청장에 쓰다 • 804
 영취정 고창에 있는 광산김씨의 정자이다 • 805
 모암 윤재갑을 애도하다 • 806
 이강양 채준에게 주다 • 807
 이자중 종식에게 주다 • 808
 김내선 양식에게 주다 • 809
 지가림의 서실에 쓰다 • 810
 화엄사에서 풍영계를 닦다 • 811
 병중에 읊다 • 812
 곡성에서 단군전을 알현하다 • 813
 백당 신태윤의 고사를 느끼고 • 814
 구례에서 매천의 사당을 알현하다 • 815
 윤추계의 묘소를 찾다 • 816
 구례 칠의단 절구 3수 • 817
 제석에 느낌이 있어서 • 818
 취송 김영달의 서실에 쓰다 • 819
 고금오의 서실에 쓰다 • 820
 울산 이희재의 서실에 쓰다 • 821
 김신정의 서실에 쓰다 • 822
 청탄서실에 쓰다 • 823

진난정의 서실에 부쳐 쓰다 • 824
홍운봉의 벽에 쓰다 • 825
심자상 정섭에게 주다 • 826
김소산 병학의 서실에 쓰다 • 827
덕암 김평호의 서실에 쓰다 • 828
백용암 광인에게 주다 • 829
김자득 명수에게 주다 • 830
학헌 이학재의 서실에 쓰다 • 831
서은 송진한 교수의 서실에 쓰다 • 832
애일당 김효순의 유거에 쓰다 • 833

부록 • 835

만취 위공의 행장 • 836
만취 위공의 묘갈명 병서 • 842
만취유고의 발문 • 847
삼가 만취 선생 유고의 뒤에 쓰다 • 850

일러두기

1. 시는 원문을 번역문 앞에 두고 문은 원문을 번역문 뒤에 두었다.
2. 주(註)는 본문 중의 간단한 해설 외에는 모두 해당 면에 각주(脚註)로 달았다.
3. 책 이름은 『 』 표기를 사용하고, 책 내용 중의 편·장·절 이름 및 시 제목 등은 「 」 표기를 사용하였다.
〈예시〉 『논어』 「술이(述而)」, 「귀거래사(歸去來辭)」
4. 인물의 성명, 본관(本貫)과 성씨(姓氏), 직위는 한 단어로 붙여 썼다. 성씨에 호(號)가 이어지는 경우에도 붙여 썼다.
〈예시〉 이순신, 김해김씨, 집현전대제학, 김효당
5. 육십갑자(六十甲子) 년도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예시〉 신축년(2021)

제 1 권

시(詩)

여름날 즉사 2수 임진년(1952) 별교 초료헌에 있을 때이다
 夏日即事 二首 壬辰 在筏橋鷓鴣軒時

1

風雨滿城五夜長 풍우 가득한 성에 오야¹³는 유장한데
 蓉山今日挹淸光 오늘 부용산 맑은 빛을 마주한다
 閒鶴依梅神皎潔 매화에 한가한 학은 정신이 교결하고
 稚篁臨水氣噓涼 물가의 어린 대는 기운이 허량하다
 壁間橫掛陳蕃榻 벽 사이엔 진번의榻¹⁴이 가로 걸려있고
 座上深傾北海觴 좌상에선 북해의 술잔¹⁵ 깊이 기울인다
 多謝主翁珍重意 주인옹의 진중한 뜻 참으로 고마우니
 有誰扶此一線陽 누가 이 한 가닥 양기를 부축할까¹⁶

2

萬里江湖我思長 만 리 강호에 나의 생각 유장하여
 登臨洛水好風光 낙수를 굽어보니 풍광이 아름답다

-
- 13 오야(五夜) : 하룻밤을 다섯으로 나누어 이른 말. 초경(初更 : 갑야(甲夜))·이경(二更 : 을야(乙夜))·삼경(三更 : 병야(丙夜))·사경(四更 : 정야(丁夜))·오경(五更 : 무야(戊夜)).
- 14 진번(蕃榻)의榻(榻) : 후한(後漢)의 진번(陳蕃)이 다른 손님은 일절 접대하지 않았는데, 서치(徐穉)만 오면 특별히 의자 하나를 내려놓고 환담을 하다가 그가 가면 다시 올려놓았다는 현탑(懸榻)의 고사가 있다. 『後漢書』 卷53 「徐穉列傳」
- 15 북해의 술잔 : 북해는 후한(後漢) 때 북해상(北海相)을 지낸 공융(孔融)을 가리키는데, 그는 본디 빈객을 좋아하여 말하기를 “자리에는 빈객이 항상 가득하고, 항아리에 술이 비지 않는다면, 나는 걱정이 없겠다. [座上賓客常滿 樽中酒不空 吾無憂矣]”고 하였다. - 『後漢書』 卷70 「孔融列傳」
- 16 양기를 부축할까 : 『주역』 「박괘(剝卦) 상구(上九)에 “큰 과일은 먹지 않는다. [碩果不食]”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섯 개의 효(爻)가 모두 음(陰)인 상태에서 맨 위의 효 하나 만 양(陽)인 것을 석과로 비유한 것으로, 하나 남은 양의 기운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 | |
|---------|----------------------|
| 樹色連天禽語滑 | 하늘 닿은 숲 빛은 새소리 매끄럽고 |
| 泉聲撼窓耳輪涼 | 창 흔드는 샘 소리는 귓가에 차갑다 |
| 雨餘見月先開戶 | 비가 개니 달을 보려 먼저 문을 열고 |
| 亂後逢人輒倒觴 | 난리 후라 사람 만나면 술잔 기울인다 |
| 倚樓遙望靑山外 | 다락에 기대 멀리 청산 밖을 바라보니 |
| 一兩漁帆歸夕陽 | 한 두 척 어선이 석양에 돌아온다 |

번민을 물리치다 2수

排憫 二首

1

咄咄幾人鳴不平 쫓쫓 몇 사람이나 불평을 토로하였나
 浮榮今古似雲輕 덧없는 영예는 고금에 가벼운 구름이라
 鍾晨難作歸鄉夢 새벽 종소리에 귀향의 꿈 이루기 어렵고
 月夜偏多憶友情 달밤이면 벗을 그리는 정 더욱 넘친다
 嚴陵台上和煙釣 엄릉¹⁷의 바위에선 안개 속에 낚시하고
 董子郊邊冒雨耕 동자¹⁸의 들판에선 비를 맞으며 경작한다
 太息蒼生漏船在 물이 새는 배의 창생을 크게 탄식하지만
 救時無力愧書生 시대를 구제할 힘없는 서생이 부끄럽네

2

溪屋閒來獨掩門 시냇가 집 한가로워 홀로 문을 닫으니
 故人不到月黃昏 옛 벗들 오질 않고 황혼의 달빛만

17 엄릉(嚴陵) : 엄릉은 후한시대의 은자인 엄광(嚴光)이다. 엄광은 한나라 광무제(光武帝)와 동학(同學)한 벗으로 은둔하여 살았다. 광무제가 황제가 된 뒤에 엄광을 불러서 조정에 머물기를 권하였으나, 엄광은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부춘산(富春山)으로 들어가 엄릉류(嚴陵瀨)라는 물가에서 낚시를 하며 지냈다. 『後漢書』 卷83 「逸民列傳 嚴光」

18 동자(董子) : 동자는 당나라 때 안풍(安豐) 사람 동소남(董召南)을 가리킨다. 『한창려집(韓昌黎集)』 권2에 실린 「차재동생행(嗟哉董生行)」에 “아, 동생(董生)이여!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고인의(古人)의 글을 읽는다. 종일 쉴 새 없이 일하여, 산에 가서 나무를 하기도 하고, 물에 가서 고기를 잡기도 하네. 부업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당에 올라가서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니, 부모는 근심하지 않고, 처자식은 불평하지 않네. [嗟哉董生 朝出耕夜歸讀古人書 盡日不得息 或山而樵 或水而漁 入廚具甘旨 堂間起居 父母不戚戚 妻子不咨咨]” 하였다.

| | |
|---------|-----------------------------------|
| 誰占一區武陵地 | 누가 한 구역 무릉 ¹⁹ 땅을 차지하였나 |
| 堪嘆舉世石壕村 | 온 세상이 석호촌 ²⁰ 같아 한탄스럽네 |
| 悵望故國揮漣淚 | 슬피 고향을 바라보며 눈물을 뿌리나니 |
| 久客萍鄉倒幾樽 | 오랜 객지생활 몇 단지 술을 들었던가 |
| 逍遙試步前川上 | 앞 시내를 소요하며 천천히 걸어보며 |
| 曲曲波瀾見道源 | 굽이굽이 파란에서 도의 근원 보나니 ²¹ |

-
- 19 무릉(武陵) :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을 말한다. 진(晉)나라 때 무릉(武陵)의 어부가 복사꽃이 내려오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곳이仙境(仙境)이라서 바깥세상을 잊고 살았다.
- 20 석호촌(石壕村) : 중국 하남성(河南省)에 있다. 당 현종(唐玄宗) 때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평정하기 위하여 남정(男丁)들을 모두 징발해 가고 심지어 나이든 사람까지도 마구 전쟁터로 내몰았다. 마침 두보(杜甫)가 석호촌에 유숙하고 있다가 그 상황을 듣고 석호리(石壕吏)라는 시를 지었다. 『杜詩』 「石壕吏」
- 21 근원 보나니 : 『논어』 「자한」에 이르기를 “공자가 냇가에서 말하기를 가는 것이 이와 같아서 밤낮을 쉬지 않는구나. [子在川上曰 逝者如斯夫 不畲晝夜]” 하였다. 이에 대해 주자는 “천지의 조화(造化)가 순환하여 한순간의 정지도 없는 것이 바로 도체(道體)의 본연이다.”라고 해석하였다.

흥을 풀다 3수

遣興 三首

1

| | |
|---------|-----------------------------------|
| 夕陽携酒上高樓 | 석양에 술을 안고 고루에 오르니 |
| 滿地煙霞散不收 | 땅에 가득한 연하는 걷히지 않았네 |
| 軒有篁筠堪敵肉 | 들창의 대나무는 고기를 대적하고 ²² |
| 戶臨江浦却疑秋 | 포구에 임한 집은 가을인 듯 시원타 |
| 君如飛鳥翩翩去 | 그대는 나는 새처럼 훨훨 떠나가고 |
| 歲與奔川滾滾流 | 세월은 세찬 시내처럼 씬 없이 흐른다 |
| 吾人不似同行雁 | 우리들 기러기처럼 동행하지 못하니 |
| 悵望浮槎古渡頭 | 슬프게 부사 ²³ 의 옛 나루를 바라본다 |

2

| | |
|---------|---------------------------------|
| 一川楊柳古城西 | 고성 서쪽 시내엔 버들이 무성하고 |
| 芳草依依被石堤 | 방초는 정겹게 돌 제방을 덮었다 |
| 煙沈古寺汎汎磬 | 안개에 잠긴 고사엔 풍경소리 들리고 |
| 日午荒村膊膊鷄 | 정오의 황량한 마을엔 닭이 날개 짓 |
| 萬樹涼從驟雨過 | 숲의 서늘함은 소나기를 쫓아오고 |
| 千峰影帶夕陽低 | 천봉의 그림자 석양에 낮게 깔렸다 |
| 緇塵不染芰荷色 | 세속 티끌도 연꽃의 빛 못 더럽히니 |
| 願借申屠結屋棲 | 신도적 ²⁴ 집을 빌려 깃들고 싶구나 |

22 고기를 대적하고 : 소식(蘇軾)의 「오잠승녹균헌(於潛僧綠筠軒)」시에 “밥상에 고기가 없어도 괜찮지만, 사는 곳에 대나무가 없을 수야 있겠는가. 고기가 없으면 몸만 마르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을 속되게 만든다. [可使食無肉 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 하였다. 『蘇東坡詩集』 卷9

23 부사 : 전라남도 낙안의 옛 이름이다.

24 신도적(申屠狄) : 은(殷)나라의 현인(賢人)으로 충간(忠諫)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을

3

| | |
|---------|--------------------------------------|
| 滄海茫茫半接天 | 망망한 창해는 반쯤 하늘에 접했는데 |
| 飄蓬又是洛橋邊 | 떠도는 쑥대처럼 또 낙교가에 왔구나 |
| 星垂古郭混燈影 | 별 빛은 옛 성곽 드리워 등불과 섞이고 |
| 雨洽千家占野年 | 비는 집집마다 적셔 들의 풍년을 점친다 |
| 興來輒引菘騰酒 | 흥에 겨워서 문득 골등주를 들이키고 |
| 醉後朗吟問月篇 | 술에 취해선 「문월편」 ²⁵ 을 낭랑히 읊노라 |
| 月下泠泠何處笛 | 달 아래 어디에서 맑은 피리 들려오나 |
| 戛然吹破萬山煙 | 그 소리에 만산의 안개가 흩어진다 |

안고 황하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한다. - 『莊子』 「盜跖」

- 25 문월편(問月篇) : 이백의 「과주문월(把酒問月)」에 “지금 사람은 옛날의 달을 보지 못하지만, 지금의 달은 일찍이 옛사람을 비쳤으리. [今人不見古時月 今月曾經照古人]”라는 명구(名句)가 있다.

벗을 그리다

懷友

萬事無心愁如海 만사에 무심해도 시름은 바다 같으니
江湖何處一長吟 강호의 어느 곳에서 길게 읊조리나
子期寂寞今千載 종자기도 적막한지 이제 천 년
誰復峨洋山水音 누가 다시 아양의 산수 연주할까²⁶

26 연주할까 : 거문고의 명인인 백아(伯牙)가 높은 산을 연주하면 친구인 종자기(鍾子期)가 “태산처럼 높다. [峨峨兮若泰山]” 하였고, 흐르는 물을 연주하면 “강하처럼 양양하다. [洋洋兮若江河]”고 평가하였다. 『列子』 「湯問」

즉사 4수

卽事 四首

1

| | |
|---------|-----------------------|
| 茶煙曳曳午簾輝 | 정오의 주렴 햇살에 차 연기 끌리고 |
| 一院微風半掩扉 | 뜰의 미풍에 문은 반쯤 닫혔다 |
| 兼旬雨歇蜂衙急 | 십 일의 비 그치자 벌들이 급히 날고 |
| 經夏苔封客到稀 | 여름철 이끼만 덮인 채 오는 객 드물다 |
| 身隨閒鷺磯邊坐 | 몸은 한가한 백로 따라 바위에 앉았지만 |
| 魂逐孤帆天外飛 | 마음은 돛배 좇아 하늘 밖 비상한다 |
| 燈下細看千載史 | 등 아래 천년 역사를 자세히 보니 |
| 風塵今日夢耶非 | 오늘날의 풍진이 꿈인지 아닌지 |

2

| | |
|---------|----------------------------------|
| 腥塵漠漠雨淒淒 | 비린 티끌 자욱하고 비는 차가운데 |
| 萬事人間眼轉迷 | 인간 만사 볼수록 더욱 미혹하다 |
| 鷓欲安棲枝上下 | 초료 ²⁷ 도 가지에 편안히 깃드는데 |
| 萍何漂泊水東西 | 부평초는 어찌 시내 동서로 떠도는고 |
| 朝來巷曲催租賦 | 아침이면 거리마다 세금을 재촉하고 |
| 夜半關河動鼓鼙 | 야밤이면 관하에 고비 ²⁸ 소리 들린다 |

27 초료(鷓鴣) : 뱀새 종류의 작은 새 이름이다.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초료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틀어도 그저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할 따름이다. [鷓鴣巢於深林 不過一枝]”라는 말이 있다.

28 고비(鼓鼙) : 고(鼓)는 큰북이고 비(鼙)는 작은북인데, 고대에 군중(軍中)에서 공격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였다. 전하여 전쟁 또는 군사(軍事)를 뜻한다. 『예기』 「악기(樂記)」에 “군자는 큰북 작은북 소리를 들으면 장수의 신하를 생각한다. [君子聽鼓鼙之聲, 則思將帥之臣.]”라고 하였다.

擊楫中流豈曾望 증류에서 노를 치는 것을²⁹ 어찌 바라리
詩樽日與子同携 시주(詩酒)만은 날마다 그대와 함께 하노라

3

青春作客水雲鄉 푸른 봄날에 수운향³⁰의 객이 되니
日暮江亭懷思長 해지는 강가 정자에 그리움만 유장하다
扁舟滄海何搖落 편주로 창해에서 얼마나 요락³¹했었고
千里冠山入渺茫 천릿길 관산이 아득하게 눈에 들어온다
古戍無人雲霧羃 옛 수루엔 사람 없고 구름만 자욱한데
晴窓讀畫月蒼蒼 맑은 창에 글을 보니³² 달빛만 창창하다
杜宇聲聲喚愁起 두우새 소리마다 시름을 불러일으키니
仲宣樓上幾傾觴 증선루³³에서 얼마나 술잔을 기울였었고

4

突兀青巒俯碧溪 우뚝한 청산이 푸른 시내 굽어보니
一樓高出小橋西 누각은 작은 교각 서쪽 높이 솟았네
地僻閒雲當午宿 땅이 외져 한가한 구름 정오에 머물고

29 노를 치는 것을 : 진(晉) 나라 조적(祖逖)이 군사를 거느리고 북방을 치러나가는데 증류(中流)에서 뱃전을 치며 맹세하기를, “중원을 맑히지 못하면 이 강을 건너지 않겠다.” 하였다. 『晉書』 「祖逖傳」

30 수운향(水雲鄉) : 물과 구름이 어우러진 풍경을 지녔기 때문에 수운향이라 표현하였다.

31 요락(搖落) : 초나라 시인 송옥(宋玉)이 지은 「구변(九辯)」에 “슬프다, 가을 기운이여. 소슬하게 초목은 바람에 흔들려 떨어져 시든다. [悲哉秋之爲氣也 蕭瑟兮 草木搖落而變衰]”라고 하였다.

32 글을 보니 : 원문의 ‘독화(讀畫)’는 ‘독서(讀書)’인 듯하다.

33 증선루(仲宣樓) : 증선은 삼국 시대 위(魏)나라 왕찬(王粲)의 자이다. 그는 일찍이 동탁(董卓)의 난리를 피하여 형주(荊州) 유표(劉表)에게 의지하였는데 강릉(江陵)의 성루(城樓)에 올라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등루부(登樓賦)」를 지었다. 『三國志』 卷21 「魏書 王粲傳」

| | |
|---------|-----------------------------------|
| 山明好鳥盡情啼 | 산이 밝아 좋은 새가 정겹게 운다 |
| 腥塵千里晴何日 | 천리의 비린 먼지는 어느 날에 맑을꼬 |
| 世路百年苦滑泥 | 한평생 세상길은 진흙탕보다 괴롭구나 |
| 茂叔窓前瀟灑意 | 창 앞에 있는 무숙의 소쇄한 뜻 ³⁴ 에 |
| 任他庭際草萋萋 | 뜰의 풀은 제멋대로 무성하게 자란다 |

34 소쇄한 뜻 : 송나라 도학자 주염계(周濂溪)가 “창 앞의 풀 베지 않으면서 [窓前茂草不除去], 저 풀 역시 나의 뜻과 같을 것이다. [與自家意思一般]”라고 하였다.

고우
苦雨

| | |
|---------|-----------------------------------|
| 霖雨濛濛江上村 | 장맛비 부슬부슬 내리는 강가 마을 |
| 四山漠漠晝常昏 | 사방 산은 막막하여 낮에도 늘 어둡다 |
| 愁濕飛禽未振翼 | 젖는 것 시름해 새도 날개 펴지 않고 |
| 沒泥行客欲消魂 | 진창에 빠진 행객은 마음이 스러진다 |
| 萬馬騰驤嚼溪畔 | 만마가 날뛰는 듯 강 언덕을 갉아먹고 |
| 群龍錯落掛檐根 | 군룡은 뒤섞여서 처마 끝에 걸렸구나 |
| 補天女媧今安在 | 하늘을 기운 여와 ³⁵ 지금 어디에 있나 |
| 大地嗷嗷衆口喧 | 대지엔 못사람의 하소연하는 소리뿐 |

35 하늘을 기운 여와 : 옛날에 공공씨(共工氏)가 진옥(顛頊)과 싸우다가 부주산(不周山)을 머리로 치받자 하늘 기둥이 부러지면서 땅이 동남쪽으로 꺼졌다. 이에 여와씨(女媧氏)가 자라의 다리를 잘라서 기둥을 받쳐 세우고, 오색(五色)의 돌을 구워 하늘을 메웠다 [補天]. 『淮南子』 「覽冥訓」, 『列子』 「湯問」

희청

喜晴

| | |
|---------|----------------------|
| 擬待霖晴苦未晴 | 비 개길 바랐으나 괴롭게 맑질 않더니 |
| 晴來一日覺身輕 | 맑고 나니 하루 만에 몸이 가벼워하다 |
| 郊原縹緲天低樹 | 들판에는 낮게 깔린 나무들이 푸르고 |
| 海氣茫洋波撼城 | 망망한 바다 기운 파도는 성을 흔든다 |
| 山月增揚前夜色 | 산월은 전날 밤의 빛을 더욱 휘날리고 |
| 林禽好送舊時聲 | 숲의 새는 옛 목소리를 예쁘게 보낸다 |
| 忽地長風吹霧盡 | 홀연 장풍이 안개를 다 거두어가더니 |
| 戎戎紅日照窓明 | 찬란한 붉은 해가 창을 밝게 비춘다 |

풍욕 2수
風浴 二首

1

靑山百轉水千回 청산과 시내 수없이 굽이지고 감도는 곳
 斜日微風芳草隈 저물녘에 방초 언덕에 미풍이 불어온다
 萬里江湖白鷗興 만 리 밖의 강호엔 백구의 흥취³⁶가 일고
 三庚炎熱碧筒杯 삼복의 찌는 더위에 연잎 술잔을 든다
 螢火亂燈草際起 반딧불은 어지러운 등불인양 풀숲에 날고
 鍾聲搖月中來來 종소리는 달빛 흔들며 산중에서 들려온다
 何當邀致羊裘客 어느 때에 양 갓옷 입은 객³⁷을 맞이하여
 塊磊胸懷得一開 가슴 속 쌓였던 흥회를 한 번 열어볼거나

2

江干落日却忘回 해 질 녘 강가에서 돌아가길 잊었나니
 楊柳堤頭沙一隈 버드나무 제방에는 모래톱 한 굽이
 遙憶嚶嚶曾點志 멀리 드높은 증점의 뜻을³⁸ 추억하고

36 백구의 흥취 : 두보(杜甫)의 시 「봉증위좌승장(奉贈韋左丞丈)」에 “호탕한 연파로 출몰하는 갈매기를, 만 리 밖 누가 길들이랴. [白鷗沒浩蕩 萬里誰能馴]”라고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

37 양 갓옷 입은 객 : 양 갓옷은 은자(隱者)가 입는 옷을 말한다. 엄광(嚴光)은 후한(後漢)을 세운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와 동문수학한 친구였지만, 광무제 즉위 후 성명을 감추고 은거하였다. 광무제가 그에게 간의대부란 벼슬을 내렸으나 나아가지 않고 부춘산(富春山)으로 들어가 늘 양가죽옷(羊裘)을 입고 낚시를 하며 살았다. 『後漢書』 卷83 「逸民列傳 嚴光」

38 증점의 뜻을 : 증점이 자신의 뜻을 말하라는 공자의 명에 대답하기를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젊음이 대여섯 명과 동자 예닐곱 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다. [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라고 하자, 공자가 그의 쇠락(灑落)한 기상을 인정했다. 『論語』 「先進」

| | |
|---------|----------------------------------|
| 更呼灑灑本初杯 | 다시 가득한 본초의 술잔을 ³⁹ 부른다 |
| 羈懷忽逐雲端去 | 나그네 회포 문득 구름 좇아 사라지고 |
| 涼意暗從水際來 | 상쾌한 뜻은 가만히 물가로부터 나온다 |
| 言志會今千載遠 | 뜻을 말하던 때는 이제 천 년 전 먼 일 |
| 從容鼓瑟向誰開 | 종용한 비파 연주를 누구에게 펼칠까 |

39 본초(本初)의 술잔을 : 본초는 후한(後漢) 때 원소(袁紹)의 자(字)이다. 후한(後漢) 말에 유송(劉松)이 원소(袁紹)의 자제와 함께 하삭(河朔) 즉 하북(河北)에서 삼복(三伏) 더위를 피하려고 밤낮으로 주연을 베풀어 취하였다. 『初學記』

감시

感時

| | |
|---------|-----------------------------------|
| 回首乾坤感慨多 | 고개 돌려 천지 보니 감개도 많아 |
| 干戈消息近如何 | 전란의 소식은 근래에 어떠한고 |
| 幾度西邊嘶鐵馬 | 몇 번이나 서울에서 철마가 울었나 |
| 又聞東海起風波 | 또 동해에서 풍파가 일어났다네 |
| 亂代誰能擇枝鳥 | 난세에 누가 가지 택한 새 ⁴⁰ 가 되랴 |
| 浮生甘作撲燈蛾 | 부생은 등불 치는 나방도 감수하리 |
| 江湖漠漠無人到 | 막막한 강호에 오는 사람도 없으니 |
| 獨上高樓放浩歌 | 홀로 높은 누각 올라 호가를 부른다 |

40 가지 택한 새 : 어진 사람이 임금을 잘 가려서 섬긴다는 말로, 『춘추좌전(春秋左傳)』에 공(哀公) 11년에 “새가 나무를 가려 앉는 법, 나무가 어찌 새를 가리랴. [鳥則擇木 木豈能擇鳥]”라는 말이 있다. 이 시구에서는 선군을 선택할 겨를이 없다는 의미로 쓰였다.

은사가
隱士歌

| | |
|---------|----------------------------------|
| 兀兀山中屋數間 | 산중의 몇 칸의 집 호젓하고 |
| 萬木森森一澗涯 | 만목은 시내 언덕에 무성하다 |
| 桂樹秋風雲冥濛 | 계수 ⁴¹ 의 추풍에 구름 자욱한데 |
| 蕙帳夜月影婆娑 | 혜장 ⁴² 에 한밤의 달빛 춤춘다 |
| 課耕巖厓數頃田 | 바위 벼랑 몇 이랑 밭을 경작하고 |
| 時擔枯藤一烏枝 | 때때로 마른 등나무 가지 짊어진다 |
| 朝餐靄靄千峰霞 | 아침엔 무성한 천봉의 노을 머금고 |
| 暮採燁燁萬壑芝 | 저녁엔 빛나는 만학의 영지를 캔다 |
| 閒支白石發清商 | 한가히 백석 기대 청상곡 ⁴³ 노래하고 |
| 獨倚孤松撫枯桐 | 홀로 고송 의지해 거문고 연주한다 |
| 林泉無禁可安身 | 임천은 막는 이 없어 안주할 만하니 |
| 一生徜徉山水中 | 일생을 산수 가운데 소요한다 |
| 厭聞當世紛紜事 | 당세의 어지러운 일 듣기 싫어하고 |
| 愛看古昔典墳書 | 옛 삼분오전 ⁴⁴ 의 책 보기 좋아한다 |

-
- 41 계수(桂樹) : 은자의 거처를 가리킨다. 옛 시에 “계수는 산 그윽한 곳에 총생하여 즐기는 높고 가지는 얽혔다. [桂樹叢生兮山之幽 偃蹇連蜷兮枝相繆]” 하였다. 『楚辭』卷8「招隱士」
- 42 혜장(蕙帳) : 혜장은 은자의 장막을 말한다. 남북조(南北朝) 공치규(孔稚珪)의 「북산이문(北山移文)」에 “혜초 장막은 비어 밤마다 학이 울고, 산인이 떠나 새벽 원숭이 놀란다. [蕙帳空兮夜鶴怨 山人去兮曉猿驚]”라고 하였다.
- 43 청상곡(淸商曲) : 악부(樂府)의 가곡으로, 가을에 속하는 상성(商聲)의 맑고도 슬픈 노래를 말한다.
- 44 삼분오전(三墳五典) : 삼분은 삼황(三皇)의 책이고 오전은 오제(五帝)의 책으로 경전을

雨過籬落摘園蔬 울타리에 비가 지나면 뜰의 채소 따고
風靜池塘觀戲魚 지당에 바람 잦아지면 물고기를 본다

拾薪烹茶石爲竈 땀감 주워 돌 아궁이에 차를 다리고
拂石留客葉爲觴 바위 쓸어 잎 술잔으로 객을 만류한다
花落檐前山日午 처마 앞에 꽃이 지고 산은 한낮인데
垂足北窓夢羲皇 북창에 발을 뺀고 희황을 꿈꾼다⁴⁵

落日蒼蒼樵歌起 어둑한 해 질 녘에 초가가 들려오는데
晚帶千峰影獨歸 늦게 천봉의 빛을 띠고 홀로 돌아온다
春園苔綠鹿爲群 이끼 푸른 봄 동산에 사슴과 어울리고
磻戶雲深鳥倦飛 구름 깊은 시냇가 집 새도 날기 지쳤다

筆絕入京故人書 서울의 친구에게 붙이는 편지 끊었고
筇無出山城市步 산을 나서 성시로 가는 걸음도 그쳤다
隱士何時無沮溺 언제건 장저 걸닉 같은 은사 없을까만
恨無當世問津者 당세에 나루를 묻는 자 없어 한하노라⁴⁶

말한다.

45 희황을 꿈꾼다 : 진(晉)나라 도잠(陶潛)의 「여자엄등소(與子儼等疏)」에 나오는 “오뉴월에 북창 아래 누워 있으면 서늘한 바람이 잠시 불어올 때면 스스로 희황 시대의 사람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五月中 北窓下臥 遇涼風暫至 自謂是羲皇上人]” 하였다.

46 한하노라 : 공자(孔子)가 제자들을 데리고 천하를 주유(周遊)하다가 초나라에 들렀을 때 장저(長沮)와 걸닉(桀溺)이 짚을 지어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로(子路)에게 나루터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게 하였다. 『논어』 「미자(微子)」에 나온다.

부여에서 옛날을 회상하며

扶餘懷古

匹馬西來暗傷神 필마로 서쪽 오니 적이 슬픈 마음
岸葦淅瀝風颼颼 언덕의 갈대는 부는 바람에 우수수
山色淒涼含暮景 산색은 처량하게 저녁 해를 머금고
江聲嗚咽恨千秋 강물은 오열하며 천추를 한하는 듯
白馬江上漁艇疾 백마강엔 어선이 빠르게 지나가고
炭峴山頭樵笛起 탄현⁴⁷ 산머리엔 초적 소리 들린다
漁樵爭說此江山 어부와 나무꾼 다투어 이 강산으로
當年唐羅大兵至 신라와 당의 대병이 왔다고 말한다
落花巖畔秋復春 낙화암 언저리에 가을 가고 봄 오건만
王孫千載恨無窮 왕손의 천년 한은 무궁하기만 하구나
一杯酌慰三千女 한잔 술 따라 삼천궁녀 위로하는데
巖花似嘔當時容 바위 꽃은 당시의 얼굴이 찡그리는 듯
江花落盡覓不得 백마강 꽃은 다 저서 찾을 길 없는데
孤石崔嵬水氣香 외로운 바위 높고 수기는 향기롭다⁴⁸
寺鍾猶帶故國聲 고란사⁴⁹ 종소리 여전히 고국의 소리
孤客西風欲斷腸 외로운 객만이 서풍에 애가 끊어질 듯

47 탄현(炭峴) : 대전광역시 동구와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의 경계에 위치한 식장산(食藏山)에 있는 고개이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이 침공하자 유배 중이던 충신 흥수(興首)에게 좋은 방책을 묻자 백마강과 탄현을 지킬 것을 말하였으나 간신들이 이를 무시하였으므로 당나라의 군사는 백마강을, 신라군은 탄현을 함락하게 되어 백제가 멸망하였다.

48 수기는 향기롭다 : 낙화암에서 떨어져 죽은 삼천궁녀의 영혼을 말한다.

49 고란사(高蘭寺)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부소산(扶蘇山)에 있는 절로, 백제의 멸망과 함께 소실된 것을 고려시대에 삼천궁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고란사(高蘭寺)라 하였다.

| | |
|---------|--------------------------------------|
| 玉樹悽悽翻樵唱 | 처량한 옥수는 초부의 노래에 흔들리고 ⁵⁰ |
| 銅駝隱隱沒野草 | 동타 ⁵¹ 는 야초에 은은하게 잠겨있다 |
| 空山嶮嶮千官塚 | 공산엔 천관의 무덤만 즐비해 있고 |
| 遺墟離離滿禾黍 | 유허에 벼와 기장만 가득 늘어져 있다 ⁵² |
| 半月城頭月空明 | 반월성 ⁵³ 거리에 달이 팬스레 밝고 |
| 泗水江上水自波 | 사비성 강가엔 물결이 절로 일렁인다 |
| 蒼煙古木荒臺晚 | 창연에 싸인 고목에 황량한 누대 저물고 |
| 斜日吊古寒鴉多 | 해 질 녘 옛날 애도하니 찬 까마귀 많구나 |
| 雪月蒼松古猶今 | 흰 달과 푸른 솔은 고금이 똑같은데 |
| 殘郭秋草今非古 | 남은 성곽 가을 풀은 옛 모습 아니로다 |
| 濟王不作苞桑戒 | 백제왕이 포상 ⁵⁴ 의 계책을 짓지 않으니 |
| 成階當年何憤慨 | 성충과 계백 ⁵⁵ 은 당년에 얼마나 분개했던가 |

- 50 처량한 …… 흔들리고 : 망한 백제의 노래가 아직도 귀에 들려오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이 시구의 '옥수(玉樹)'는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라는 곡을 말한다. 남조 진(陳)의 후주(後主) 진숙보(陳叔寶)가 정사는 돌보지 않고 매일 비빈(妃嬪) 등과 함께 노닐면서 새로 지은 시에 곡을 부쳐 노래를 부르게 하다가 끝내 나라를 망하게 한 고사가 있는데, 「옥수후정화(玉樹後庭花)」가 그 하나이다. 보통 망국의 노래를 뜻한다. 『陳書』 卷7 「皇后列傳」
- 51 동타(銅駝) : 구리로 만든 낙타이다. 도성이 오랑캐에게 함락되었음을 뜻하는 말로, 진(晉)나라 삭정(索靖)이 선견지명이 있어 천하가 난리로 혼란해질 것을 알고 낙양(洛陽)의 궁궐 문에 있는 구리로 만든 낙타를 가리켜 탄식하기를, “네가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겠구나.” 하였다. 『晉書』 卷60 「索靖列傳」
- 52 유허에 …… 있다 : 『시경』 「왕풍(王風) 서리(黍離)」에 “저 기장이 축 늘어졌거늘, 저 피는 짝이 돌았도다. 힘없이 가는 길 더디기도 해라, 이 마음을 둘 곳이 없도다. [彼黍離離 彼稷之苗 行邁靡靡 中心搖搖]”라고 한 데서 온 말인데, 여기서는 망해 버린 백제를 두고 한 말이다.
- 53 반월성: 충청남도 부여군의 부여읍 쌍북리(雙北里)와 구아리(舊衙里)에 걸쳐 있는 부소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다.
- 54 포상(苞桑) : 『주역』 「비괘(否卦)」에 “그 망할까 그 망할까 하여야 포(苞)한 뽕나무에 매었다 하리라. [其亡其亡 繫于苞桑]”라고 하였다.
- 55 성충과 계백은 : 성충(?~656)은 백제말의 충신으로 왕이 신라와의 싸움에서 연승하여 자만과 주색에 빠지자 극간하다가 투옥되었다. 죽음에 임박해 왕에게 글을 올려 적군

住馬欲問前朝事 말을 멈추고 전조의 일을 묻고자 하니
池上孤塔影崔嵬 연못가에 외로운 탑의 그림자만 높구나

이 쳐들어오면 탄현(炭峴)과 기벌포(伎伐浦)를 막을 것을 간언했다. 계백(?~660)은 660년 나·당 연합군이 백제의 요충지인 탄현과 백강(白江)으로 진격해 오자, 결사대 5,000명을 뽑아 황산벌에 나가 맞이하였다. 목숨을 버릴 것을 맹세한 결사대는 처음 연합군과의 네 번에 걸친 싸움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적 열세로 결국 백제군은 패하고 계백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노량을 지나며 이충무공의 사적을 느껴서

過露梁感李忠武公事

森森古栢露梁城 오래된 잣나무 뻗뻗한 노량성에
鬼然廟貌肅陰陰 우뚝 선 사당 으스스하게 그늘졌다
滄波萬里夕陽紅 창파 만 리에 석양빛은 붉은데
靑山峨峨水沈沈 청산은 높다랗고 물은 깊구나
林鳥慣知當年事 숲새도 당시의 일 익히 아는 듯
鎮日庭樹向我吟 종일 정원에서 나에게 지저귀다
憶昔將軍鏖兵處 예전 장군이 적을 치던 곳 추억하니
江水猶帶戰伐聲 강물은 여전히 전투 소리 띠는 듯
恍如韞袴坐壇上 어렴풋 무복으로 단상에 앉아서
指揮三軍號令明 삼군을 지휘하니 호령이 분명하다
魚龍萬恠激盪裏 어룡과 만괴가 동탕하는 가운데
天吳陽侯爲奔走 천오⁵⁶와 양후⁵⁷조차도 분주하여라
豺貅百萬傾國來 온 나라 동원해 백만 비휴⁵⁸ 왔으나
將軍單舸禦賊寇 장군이 배 한 척으로 적군을 막았네
東衝西突無人敵 동서로 충돌하매 대적하는 자 없으니
倭頭斬盡江水赤 왜인을 다 참수해 강물조차 붉구나
龜船沒處摧扶桑 거북선 침몰한 곳에 부상⁵⁹ 꺾이니

56 천오(天吳) : 『산해경』 「해외동경(海外東經)」에 “조양곡(朝陽谷)에 천오라는 신이 있는데 이가 바로 수백(水伯)이다. … 머리 여덟 개에 얼굴은 사람과 같고, 다리와 꼬리가 여덟 개이며 모두 청황색이다.” 하였다.

57 양후(陽侯) : 늘 풍파(風波)를 일으켜 배를 전복시킨다는 물귀신의 이름이다. 『淮南子』 「覽冥訓」

58 비휴(貔貅) : 호랑이를 잡아먹는다는 맹수의 이름으로 비(貔)는 수컷이고 휴(貅)는 암컷인데, 옛날에 길들여 전쟁에 썼다고 한다. 여기서는 왜적을 말한다.

59 부상(扶桑) : 해가 뜨는 동쪽 바다에 있다고 하는 신목(神木)의 이름이다. 여기서는 왜

| | |
|---------|---------------------------------------|
| 妙算多年扶社稷 | 다년간 묘책으로 사직을 부축했네 |
| 百萬生靈在漏船 | 백만 생령이 물새는 배에 있었으나 |
| 得此稍工免魚肉 | 이 초공 ⁶⁰ 을 얻어 어육 신세 면하였다 |
| 誓海魚龍感其誠 |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정성에 감복하고 |
| 盟山草木知其忠 | 산에 맹약하니 초목도 충성을 알았네 ⁶¹ |
| 古來薰蕕難相合 | 예부터 훈유 ⁶² 는 합치되기 어려운 법 |
| 一朝被讒怨彼穹 | 일조에 참소 받아 저 하늘 원망했네 |
| 蟄龍忽復起雷雨 | 침거한 용이 홀연 다시 뇌우 일으켜 |
| 再造邦命旭日紅 | 나라의 명운 만드니 옥일처럼 빛났다 |
| 閒山島外秋風起 | 한산도 밖에 가을바람 일어나니 |
| 恰似當年星落時 | 흡사 당시의 별이 질 때와 같구나 ⁶³ |
| 氣薄天地義凜凜 | 기개는 천지를 핍박하고 의리는 늠름하니 |
| 史冊功業千秋輝 | 사책의 공업은 천추에 빛나리라 |
| 青蛇白狗恥何忘 | 을사와 경술의 치욕을 어찌 잊으랴 |
| 志士到此淚沾衣 | 지사가 여기 오니 눈물이 옷을 적신다 |
| 大命未集金甌缺 | 천명이 안정되지 않아 금구 ⁶⁴ 가 허물어졌으니 |

를 가리킨다.

- 60 초공(稍工) : 뱃사공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이순신 장군을 의미한다.
- 61 바다에 …… 알았네 : 이순신이 한산도에 있으면서 지은 시 가운데, “바다를 두고 맹세 하니 물고기와 용이 움직이고, 산을 두고 맹세하니 초목이 아네. [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 등의 구절이 있다.
- 62 훈유(薰蕕) : 훈(薰)은 향초(香草)이고 유(蕕)는 악취 나는 풀인데,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으면 10년이 지나도 오히려 악취가 남는다고 하였다. 즉 선(善)은 소멸되기 쉽고 악은 제거하기 어려움을 비유한 말. “일훈(一薰) 일유(一蕕)는 10년이 가도 오히려 남은 냄새가 있다. [一薰一蕕十年尚有餘臭]”라고 하였다. 『左傳』 「僖公4年」
- 63 질 때와 같구나 :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말한다.
- 64 금구(金甌) : 금으로 만든 사발로 흠이 없고 견고하다 하여 강토(疆土)에 비유된다. 양무제(梁武帝)가 일찍 일어나 무덕각(武德閣)에 이르러 혼잣말로 “나의 국토는 오히려 금구와 같아 하나의 상처도 흠도 없다.” 하였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當今誰復爲國障 지금 누가 다시 나라의 방패가 되랴
安得起公九原下 어찌하면 구원⁶⁵에서 공을 일으켜 세워
再奠山河盤石上 다시 산하를 반석 위에 안정시킬까

『梁書』卷38「朱異列傳」

- 65 구원(九原) : 구원은 전국 시대의 진(晉)나라 경(卿), 대부(大夫)의 묘지가 있었던 곳으로, 일반적으로 무덤을 뜻한다.

의랑사 논개
義娘祠 論介

| | |
|---------|-----------------------------------|
| 秋風東走晉陽城 | 가을바람에 동쪽으로 진양성 ⁶⁶ 달려가니 |
| 蘆葦淅瀝滿洲汀 | 갈대는 우수수 모래톱 가에 가득하네 |
| 孤石嶙嶙尙崔嵬 | 외로운 바위는 여전히 높이 솟았는데 |
| 荒祠寂寂空丹青 | 황량한 사당은 적막하여 단청만 남았네 |
| 名節由來泰山重 | 명절은 예로부터 태산처럼 무거우니 |
| 死生何如鴻毛輕 | 생사는 홍모의 깃털처럼 가볍구나 |
| 一身翻然倭酋死 | 일신 던져 왜적의 추장과 함께 죽으니 |
| 義聲崢嶸動萬邦 | 의로운 명성 높아 만방을 감동시켰다 |
| 古來人生誰不死 | 예부터 인생에 누군들 죽지 않겠는가 |
| 義娘千秋死有光 | 의랑의 죽음만 천추에 빛나누나 |
| 蕙質猶能成此義 | 난초의 자질로 오히려 의를 이뤘으니 |
| 愧汗今古鬚丈夫 | 고금의 수염 난 장부들 부끄러워라 |
| 忠骸沒爲江中土 | 충혼의 몸은 잠겨 강중의 흙이 되니 |
| 江水嗚咽無聲流 | 강수는 오열하며 소리 없이 흐른다 |
| 藍水澗邊神靈雨 | 쪽빛 물 시냇가엔 신령한 비 내리는데 |
| 妓娘年年采藻蘋 | 기랑은 해마다 조빈 ⁶⁷ 을 캐는구나 |
| 欲收當日江裏骨 | 당일 강 속의 뼈를 수습코자 하여도 |
| 滄波萬頃碧潏潏 | 만경창파는 맑고 푸르기만 하여라 |
| 青山峨峨長不老 | 청산은 높이 솟아 영원히 푸르고 |

66 진양성(晉陽城) : 진주성(축석성)을 가리킨다.

67 조빈(藻蘋) : 조빈은 개구리밥과 마름으로, 제수(祭需)를 이른다. 『시경』 「소남(召南) 채빈(采蘋)」에 “이에 개구리밥을 남쪽 시냇가에서 채취하도다. 이에 마름을 저 흐르는 물에서 채취하도다. [于以采蘋 南澗之濱 于以采藻 于彼行潦]” 하였는데, 이는 제후의 부인이 사당에 제사 지내면서 제수를 장만하기 위해 수초(水草)를 채취함을 읊은 것이다.

| | |
|---------|------------------------------------|
| 流水滾滾亦無盡 | 유수의 흐름 또한 그침이 없구나 |
| 山青水流天地久 | 산 맑고 물은 흘러 천지는 장구하니 |
| 芳名妓籍應不泯 | 기적의 향기로운 이름 사라지지 않으리 |
| 回首乾坤誰可儔 | 진곤을 돌아보니 누가 짝할 만한고 |
| 要離千載可同歸 | 천년 전 요리 ⁶⁸ 와 함께 돌아갈 만하네 |
| 嗟娘一去不復返 | 아! 의랑은 한번 떠나 돌아오지 않으니 |
| 山河幾番屬島夷 | 산하는 몇 번이나 섬 오랑캐에 속했던가 |
| 史冊從此長寂寞 | 사책은 이제부터 길이 적막하리니 |
| 天地恨無一快兒 | 천지에 대장부 하나 없음을 한하노라 |

68 요리(要離) : 요리는 춘추 시대 오(吳)나라의 자객(刺客)이다. 오왕(吳王) 합려(闔廬)가 자객 전저(專諸)를 시켜 오왕 요(僚)를 죽이고, 또 요리에게 위(衛)나라에 망명한 오왕 요의 아들 경기(慶忌)를 죽이게 하였다. 『史記』 卷86 「刺客列傳 專諸」

민경문 범식의 내방에 사례하며 계사년(1953)

謝閔景文範植來訪 癸巳

| | |
|---------|---------------------|
| 遲君何日不登峰 | 그대 기다리며 날마다 산에 오르니 |
| 湖上春深興正濃 | 호수에 봄이 깊어 흥이 정히 짙구나 |
| 那堪去歲天涯別 | 작년 천애의 이별을 어찌 견뎠으리 |
| 剛喜今宵夢裏逢 | 오늘 밤 꿈속에서 만난 듯 기쁘구나 |
| 水際嘯涼脩竹籟 | 물가에 긴 대나무 소리 시원하나니 |
| 雲中待出暮山鍾 | 구름 속 저문 산 종소리를 기다린다 |
| 大界蒼生乾欲死 | 대계의 창생이 메말라 죽을 듯한데 |
| 風雷應復起濠龍 | 풍뢰에 못의 용이 다시 일어나리라 |

우정의 봄밤에 소파와 설주 두 어르신을 모시고 시를 읊다
 牛汀春夜陪小波雪舟二丈賦詩

| | |
|---------|------------------------------------|
| 匹馬南來恨太遲 | 필마로 남으로 더디게 오미 한스러워 |
| 向風馳想幾多時 | 바람을 맞으며 그리워함이 얼마였던고 |
| 健筆勢如傾峽瀉 | 건필의 형세는 협곡의 물을 쏟은 듯 |
| 長虹氣欲倒天垂 | 장홍의 기운은 하늘을 경도하듯 드리웠다 |
| 姜公枕被深人仰 | 강공의 침피는 ⁶⁹ 사람들이 깊게 추앙하고 |
| 蘇氏文章起我思 | 소동파의 문장은 나의 흠모를 일으킨다 |
| 春日病輕差可慰 | 봄날 병이 가벼워 조금 마음 위로되니 |
| 百花叢裏更爲期 | 백화가 필 때에 다시 기약을 하옵네 |

69 강공의 침피 : 침피는 베개와 이불인데 형제간의 우애를 뜻한다. 강굉(姜肱)은 후한(後漢) 사람으로 자가 백회(伯淮)인데, 두 아우인 중해(仲海)·계강(季江)과 우애가 지극하여 항상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잤다. 『後漢書』 卷53 「姜肱列傳」

소천의 조씨 유장을 지나며

過小川曹氏遺庄

一夜東風百花春 하룻밤 동풍에 봄꽃이 가득하니
芒鞋擬作踏青人 짚신으로 답청⁷⁰하는 사람 되고자
半川明月千竿竹 반천의 명월에 천 그루 대나무
不見主翁意已新 주인 보지 않아도 뜻은 새롭네⁷¹

70 답청(踏青) : 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고 거닌다는 뜻으로, 보통 청명절(清明節, 음력 3월 3일)에 야외에 나가서 산책하며 노니는 것을 말한다.

71 주인 …… 새롭네 : 왕휘지(王徽之)가 오(吳)나라 땅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대부의 집에 대나무 숲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극진하게 환대하는 것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곧장 대숲으로 발길을 돌려 한참 동안 읊조리다가 그냥 떠나려고 했던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簡傲」

산거즉사 2수
山居卽事 二首

1

| | |
|---------|---------------------------------|
| 靑嶂俯樓樓俯江 | 청산은 누각을 누각은 강을 굽어보니 |
| 江聲鎮日撼書窓 | 강물 소리 종일토록 서창을 흔든다 |
| 松塢曉煙新乳雀 | 솔 언덕 새벽안개에 참새가 부화하고 |
| 棠花疏影午眠尨 | 해당화 성긴 그늘엔 삽살개 낮잠 잔다 |
| 丹竈鍊生術何有 | 단조 ⁷² 에 연생술이 어디에 있으랴 |
| 靑燈攻苦業無雙 | 청등 아래 애쓴 학문만한 일 없으리 |
| 東風亦解詩人意 | 동풍 또한 시인의 뜻을 아는지 |
| 吹送殘紅入酒缸 | 남은 꽃을 날려 술동이에 지는구나 |

2

| | |
|---------|------------------------------------|
| 一亭兀兀四山低 | 사방 산 낮은 곳 정자가 호젓한데 |
| 偃仰其間政可棲 | 그 사이 유유자적 가히 깃들만하다 |
| 黃鳥啼來山日午 | 황조는 한낮의 산에서 울며 오고 |
| 白鷗飛盡海雲迷 | 백구는 바다구름 멀리 날아 사라진다 |
| 無文能送歸盤谷 | 반곡 ⁷³ 으로 갈 때 송별하는 글도 없어 |
| 有月常思過剡溪 | 달이 뜨면 늘 섬계 ⁷⁴ 방문을 생각한다 |

72 단조(丹竈) : 선약(仙藥)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화덕이다.

73 반곡(盤谷) : 보통 은자(隱者)의 처소를 가리킨다. 당(唐)나라 이원(李愿)이 이곳에 은거하려 할 적에 한유(韓愈)가 「송이원귀반곡서(送李愿歸盤谷序)」라는 명문을 지어 주었는데, 그 속에 “샘물은 달고 토질은 비옥하며 … 집터가 그윽하고 산세가 막혀 있어서 은자가 반선(盤旋) 즉 소요하는 곳이다. [泉甘而土肥 … 宅幽而勢阻 隱者之所盤旋]”라는 말이 나온다.

74 섬계(剡溪) : 친구의 방문을 뜻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가 폭설이 내린 밤에 술을 마시며 좌사(左思)의 초은(招隱) 시를 읊다가 갑자기 섬계(剡溪)에 있는 친구

西窓驚罷義皇夢 서창에서 희황의 꿈⁷⁵을 놀라서 깨니
剛厭門前印馬蹄 문전에 찍힌 말발굽이 참으로 싫구나

대규(戴逵)가 생각이 나서 밤새 배를 저어 그 집을 찾아갔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世說新語』「任誕」

- 75 희황(義皇)의 꿈 : 희황은 복희씨(伏羲氏)를 가리킨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근심 없이 순박하고 한적하게 살았으리라 하여 은자들이 자칭 희황상인(義皇上人)이라 하였다. 도연명이 여름에 북창 아래 누워 있다가 맑은 바람이 불어오자 스스로 복희씨 시대의 사람이라 하였다.

평호 조덕경 돈승 집에서 묵다

宿平湖曹德卿敦承庄

| | |
|---------|---------------------------------|
| 斜日獨登江上臺 | 지는 해에 홀로 강가 누대에 오르니 |
| 風光滿地眼初開 | 땅 가득한 풍광에 눈이 처음 열린다 |
| 佩酒客茵芳草話 | 술병 찬 객은 방초에 앉아 얘기하고 |
| 騎牛兒帶夕陽來 | 소를 탄 아이는 석양빛에 돌아온다 |
| 山亦多情當戶立 | 산도 다정한 양 문을 마주하여 서고 |
| 月如有約入門廻 | 달도 약속한 듯 문에 들어와 맴돈다 |
| 肯許沃州山一半 | 옥주산 ⁷⁶ 의 절반을 허락해주신다면 |
| 煙雲朝暮共徘徊 | 아침저녁 안개구름에 함께 배회하리라 |

76 옥주산(沃州山) : 진(晉)나라 때 고승인 축잠(竺潛)이 섬산(剡山)에 은거할 적에, 고승 지둔(支遁)이 옥주(沃洲)의 작은 고개를 매입하기를 청하였는데, 축잠이 “오고 싶다면 주기는 하겠으나,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산을 사서 은거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니, 지둔이 몹시 부끄러워했던 고사가 있다. 당나라 시인 유장경(劉長卿)의 「송방외 상인(送方外上人)」 시에, “옥주산을 매입하지 말라. 당시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있음을 안다네. [莫買沃洲山 時人已知處]” 하였다. 『會稽志』 卷15

효당 선생의 「별교에서 고읍촌으로 옮기며」 시에 차운하다
敬次曉堂先生自筏橋移古邑村韻

三載住家官道傍 삼 년 동안 관도 곁에 거주할 제
何時能忘水雲鄉 언제 수운의 고향⁷⁷을 잊었던가
棲棲不是稻梁計 서서함⁷⁸은 살기 위한 계책 아니건만
寥廓天風鳳未翔 광활한 천풍에 봉이 비상을 못하네

77 수운의 고향[水雲鄉] : 물이 흐르고 구름이 떠도는 곳, 또는 속기를 떠나 깨끗하고 맑은 곳, 즉 은자가 노니는 곳이다.

78 서서(棲棲)함 : 서서는 이곳저곳 옮겨 다닌다는 의미이다. 미생묘(微生敝)란 사람이 공자에게 말하기를 “구는 어찌하여 그렇게 서서한가, 혹 말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丘何爲是栖栖者與 無乃爲佞乎]” 하였다. 『論語』 「憲問」

오월의 전가

五月田家

榴花艷艷梅欲黃 석류꽃 아름답고 매실은 익어가니
田家忙忙最此時 농부는 이때가 가장 바쁜 시절
滿畦麥氣黃雲堆 두둑 가득한 보리는 황운이 쌓인 듯
四野秋色鋪局棋 들의 모 색깔은 바둑판처럼 펼쳐졌다
室中無人盡出野 집안엔 사람 없이 모두 들로 나가고
祇有老婦午饁之 다만 늙은 아낙만 점심 못밥을 차린다
西隣雨似東隣雨 서쪽의 비는 동쪽의 비와 같이 내리고
南山雲逐北山雲 남산의 구름은 북산의 구름 쫓는구나
雨中少歸夜刈麥 우중에 어린 아낙은 밤에 보리를 베고
曉月春聲隔水聞 새벽 달빛에 절구 소리 물 건너 들린다
百畝桑葉已沃若 백 이랑의 뽕나무 잎 이미 윤택하니
家家飼蠶無暫閒 집집마다 누에 먹이며 잠시도 틈이 없네
叱牛田間侵晨出 새벽이면 밭 사이에 소를 몰아 나서고
荷鋤晚帶溪月還 저녁엔 호미 메고 시내 달빛에 돌아온다
朝走城南暮城北 아침은 성남으로 저녁은 성북으로 달리니
鎮日奔走壟畝間 종일토록 밭이랑 사이에서 분주하다네
君不聞 군은 듣지 못했나
吾人讀書亦如此 우리의 독서도 이와 같음을
頭上歲月忽崢嶸 머리 위의 세월이 문득 흘러가 버렸네
焚膏繼晷何勤苦 등잔 밝혀 낮을 이으니 얼마나 근고하고
少年易老學難成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네
夏拾螢火冬照雪 여름엔 반딧불 줍고 겨울엔 눈빛 비쳤나니⁷⁹

79 눈빛에 비쳤나니 : 진(晉)나라 차운(車胤)은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등불 기름을 얻지 못

| | |
|---------|------------------------|
| 一寸光陰豈可輕 | 일촌의 광음도 어찌 가벼이 여기랴 |
| 可惜老大千百日 | 애석하다! 늙고 나서 천일백일이 |
| 何似青春一日日 | 청춘의 하루 이틀과 비교해 어떠한가 |
| 讀破萬卷趁此時 | 이때에 미쳐 만권을 독파할지니 |
| 不可得兮不可失 | 세월은 얻을 수 없고 잃어서도 안 되거늘 |

하였다. 그래서 여름이면 반딧불을 모아 주머니에 담아서 책을 비추어 읽었다. 진나라 손강(孫康)도 집이 가난하여 항상 눈빛에 책을 비추어 읽었다고 한다. ‘형설지공(螢雪之功)’의 고사가 여기에서 유래한다.

날이 갠 것을 기뻐하며

喜晴

浮雲捲盡曉天碧 뜬구름 다 걷혀 새벽하늘 푸르니
古城東畔日杲杲 고성 동쪽 가에 해가 높이 떴구나
穉燕斜檐獵蜻飛 어린 제비는 잠자리 잡으려 처마 비껴날고
亂蟬高樹迎風嘈 매미들은 높은 나무에 바람 맞아 운다
翠嵐軒外落繽紛 들창 밖 푸른 이내는 어지러이 지고
晴煙水際何蒼茫 물가의 맑은 안개는 참으로 창망하다
靑山歷歷入簾新 청산은 뚜렷하게 주발에 새롭게 들고
竹氣蕭蕭吹面涼 대 기운은 소소히 서늘하게 불어온다
日午田家曬芽麥 한낮 전가에서는 맥아를 말리고
沙暄江村掛漁網 모래톱 따뜻한 강촌에선 어망을 건다
三旬淫雨一日晴 한 달 장맛비도 하루아침 맑아지나니
人世何日不風浪 인간 세상 어느 날에나 풍랑이 없을까
古來治少亂常多 예부터 치세는 적고 난세는 늘 많으니
人生長在風雨中 인생은 항상 풍우 가운데 있다네
擬待天晴苦未晴 하늘 맑기를 기다렸으나 맑지 않더니
今朝始見旭日紅 오늘 아침 비로소 붉은 해를 보았네
塞上千戈何時定 변경의 전란은 어느 때나 안정될까
喜晴亦復願世晴 맑은 날 기쁘니 세상도 맑아지길 원하네
一天風雨良非惡 하룻밤 풍우는 참으로 싫지 않지만
四海風波正可驚 사해의 풍파는 정말 놀랍기만
一日天晴何足喜 하루의 갠 날이야 어찌 기뻐할 것 있으리
頭白未見黃河清 머리 세어도 황하의 맑음 보지 못하거늘

會待宇宙南風薰 온 천하에 남풍이⁸⁰ 훈훈하길 기다려서
 康衢煙月歌太平 강구연월⁸¹의 태평가를 부르리라

-
- 80 남풍이 : 순(舜) 임금의 오현금(五絃琴)을 처음으로 만들어 남풍가(南風歌)를 지어 부르면서 “훈훈한 남쪽 바람이여, 우리 백성의 수심을 풀어 주기를. 제때에 부는 남풍이여, 우리 백성의 재산을 늘려 주기를. [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이라고 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예기(禮記)』 「악기(樂記)」
- 81 강구연월(康衢煙月) : 강구와 연월은 요순시대에 백성들이 태평함을 구가(謳歌)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堯) 임금이 천하를 다스린 지 50년 만에 미복(微服) 차림으로 강구(康衢 : 사통팔달의 길)에 나가니 아이들이 “우리 백성들을 성립시킨 것이 모두 임금의 덕이라,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임금의 법칙을 따를 뿐이다. [立我烝民 莫非爾極 不識不知 順帝之則]”라고 노래 불렀다. 『열자(列子)』 「중니(仲尼)」

도원행⁸²

桃源行

世亂桃源何處尋 세상 혼란하니 어디서 도원을 찾을꼬
山深種桃是桃源 깊은 산 복사꽃 심은 곳이 도원일세
流水溶溶籠其山 유수는 넘실넘실 흘러 산을 둘러싸고
白雲悠悠鎖其門 백운은 유유히 흘러 그 문을 감싸네
數頃荒田萬卷書 몇 경의 황전에 만권 서적을 지니고
日臥其中長遨遊 날마다 그 가운데 누워 길이 노닌다
茶煙曳曳木未起 차 연기는 나무 끝에 길게 일어나고
溪聲瀼瀼窓間流 시내소리는 졸졸 창 사이로 흐른다
石礪蒼苔馴子鹿 돌 시내 푸른 이끼 어린 사슴 순하고
畝田春雨種靈根 새 밭은 봄비에 영지 뿌리를 심는다
霜下時採東籬菊 서리 내리면 동쪽 울타리 국화 캐고⁸³
座上不空北海尊 좌상엔 북해의 술 단지⁸⁴ 비지 않는다
白石鑿鑿泉涓涓 흰 바위 깨끗하고 샘물 잔잔히 흐르니
可以濯足可濯纓 발도 씻을 만하고 갓끈도 씻겠구나⁸⁵

82 도원행(桃源行) :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어떤 어부가 시대를 따라 가다가 길을 잃고 복사꽃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 무릉도원(武陵桃源)을 만났다고 한 고사에 대한 노래이다.

83 동쪽 …… 캐고 : 진(晉)나라 도잠(陶潛)이 팽택 영을 그만두고 전원생활을 즐긴 일을 차용한 것이다. 도잠의 시에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 따다가, 멀리 남쪽 산을 바라본다. [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고 하였다. 『陶淵明詩』 「飲酒」

84 북해의 술단지 : 북해는 후한(後漢) 때의 학자로 일찍이 북해상(北海相)을 지낸 공융(孔融)을 가리킨다. 공융이 본디 선비를 좋아하고 후진들을 교도하기 좋아하여 빈객이 항상 그의 문에 가득했던 데서 온 말이다. 그가 일찍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자리에 빈객이 항상 가득하고, 동이에는 술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나는 근심이 없겠다. [坐上客恒滿 樽中酒不空 吾無憂矣]”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70 「孔融列傳」

85 발도 …… 씻겠구나 : 세속을 초탈하여 고결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 [滄浪

| | |
|---------|------------------------------------|
| 春花秋葉驗時移 | 봄꽃과 가을 잎으로 세월을 증험하니 |
| 一生不關世外情 | 일생 세상 밖의 정은 아랑곳 앓는다네 |
| 武陵未必皆神仙 | 무릉이라 반드시 모두 신선은 아니요 |
| 神仙未必居武陵 | 신선이라고 굳이 무릉에 살지는 않나니 |
| 漁郎一去千載後 | 어부가 한 번 떠난 지 천년이 흘렀으니 |
| 桃源眞僞未可徵 | 도원의 진위 참으로 증명할 수 없다네 |
| 此地春來蒸紅霞 | 이 땅도 봄이 오면 붉은 노을 ⁸⁶ 무성해 |
| 落花時泛流水去 | 낙화가 때때로 유수에 떠서 흘러간다 |
| 漁郎且莫逐水來 | 어부는 물길 따라 찾아오지 말지어다 |
| 恐成後來荒唐語 | 훗날 황당한 말이 되어버릴까 두렵나니 |

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孟子』「離婁上」, 『楚辭』「漁父」

86 붉은 노을 : 복사꽃을 말한다.

정부 아내의 노래

征婦詞

萬戶砧杵動秋聲 집집마다 다듬이질 가을소리 이는데
一天明月雁南飛 하늘의 밝은 달에 기러기 남으로 난다
意有尺書天外至 하늘 밖에서 낭군의 편지가 올까 하여
急登高樓推殘機 베풀 밀치고 급히 높은 누각에 오른다
借問爾過漢家營 묻노라 너는 한나라 진영을 지나왔는데
良人何事今未歸 낭인은 무슨 일로 지금도 돌아오질 않나
與君結髮未幾年 그대에게 시집간⁸⁷ 지 몇 년도 되지 않나
寧知契闊百年期 백년의 기약 멀어질 줄 어찌 알았으랴
邊地漠漠書難寄 변방의 땅 막막하여 편지 붙이기 어렵고
塞天遙遙夢亦遲 북방의 하늘은 멀어서 꿈 또한 더디구나
明月應照天山雪 밝은 달은 천산의 눈을 비출 것이요
浮雲亦過玉門天 떠도는 구름도 옥문관⁸⁸의 하늘 지나리라
何當身爲雲與月 어느 때나 이내 몸 구름과 달이 되어서
往來塞垣戰壘邊 변방 장성의 전쟁터 보루를 왕래하러나
遙想寒天指欲墮 멀리 추운 하늘 손가락 떨어질 듯 추울 텐데
九月關河百戰時 관하의 구월엔 쉴 새 없이 전쟁하리라
戍樓夜夜不得眠 수루에선 밤마다 잠을 못 이룰 것이니
莫將梅花笛中吹 피리로 「매화곡」⁸⁹을 연주하지 말지어다

87 시집간[結髮] : 한(漢)나라 소무(蘇武)의 시에 “성인이 되어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로, 둘 사이에 은애를 의심하지 않았노라. [結髮爲夫妻 恩愛兩不疑]”라는 표현이 나온다. 『文選』 「留別妻」

88 옥문관[玉門] : 서역의 보화(寶貨)를 실어 나르기 위해 한 무제 때 설치한 관문이다.

89 매화곡(梅花曲) : 악부(樂府)의 횡취곡(橫吹曲) 가운데 하나로, 「낙매화곡(落梅花曲)」이라고도 한다. 이백(李白)의 「청계에서 한밤중 피리 소리를 듣다 [靑溪半夜聞笛]」에 “오

| | |
|---------|----------------------|
| 日寒無處寄衣去 | 날은 차가운데 옷을 붙일 곳이 없으니 |
| 泣送去時在腹兒 | 울며 보내드릴 때 뱃속엔 아이 있었네 |
| 一封書寄良人處 | 편지 한통을 입이 있는 곳에 부치나니 |
| 丈夫有身當殉國 | 장부의 몸 나라 위해 바쳐야만 하리라 |
| 君作天涯塞下土 | 그대 하늘가 변방에 흙이 되면 |
| 妾爲山頭望夫石 | 첩은 산머리의 망부석이 되리라 |

랑개 짓대로 매화인을 분다. [羌笛梅花引]"라고 하였다. 『李太白文集』

목우
牧牛

溪柳堪攀三月時 냇가 버들 부여잡을만한 삼월이면
江風拂面日遲遲 강바람은 얼굴 스치고 날은 더디다
寧戚窮懷叩角志 영척은 곤궁하여 고각의 뜻 품었고⁹⁰
豫州急羨誇牛兒 예주는 급박하자 목동을 부러워했다⁹¹
萬事無營藉草臥 만사를 경영 않고 풀을 깔고 누우니
千林何處行歌隨 숲속 어느 곳에 노래 부르며 따를까
是非都付浮雲外 시비는 모두 부운 밖에 떨어져 버리고
落日橫將一笛吹 지는 해에 피리를 비껴 잡고 부른다

-
- 90 영척은 …… 품었고 : 영척이 매우 빈곤하여 제나라에 가서 우각(牛角)을 두드리며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노래하자, 마침 환공(桓公)이 그 노래를 듣고 그를 비범한 사람으로 여겨 재상으로 등용했던 데서 온 말이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남산은 빛나고 백석은 깨끗하도다. 태어나서 서로 선양하던 요순시대 못 만나, 짧은 베 홑옷은 겨우 정강이만 가릴 뿐이네. 이른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소를 먹이노니, 긴 밤이 지루해라 언제나 아침이 올런고. [南山粲白石爛 生不逢堯與舜禪 短布單衣纔至骭 從昏飯牛薄夜半 長夜漫漫何時旦] 『呂氏春秋』, 『蒙求』 「寧戚叩角」
- 91 부러워했다 : 예주는 삼국시대 예주자사를 지냈던 유비이다. 원문 誇牛兒의 誇는 跨인 듯하다.

노송행

老松行

古城西畔有老松 고성 서쪽 언저리에 노송이 있는데
柯如屈鐵相交錯 가지는 굵은 쇠가 서로 교차한 듯⁹²
暝色淡淡煙千樹 어두운 빛은 담담히 천수에 안개 끼고
涼意颯颯風萬壑 서늘한 뜻은 샅샅히 바람 부네
鱗鱗赤甲雪霜裏 눈서리에 붉은 껍질은 비늘 같고
幢幢青蓋雨霧中 안개비에 푸른 일산은 무성하네
合在長春竹栢隣 긴 세월 죽백과 이웃함이 합당하니
肯與片時桃李紅 잠시라도 붉은 도리 꽃과 짝을 할까
古城今日非疇昔 옛 성의 오늘은 예전 같지 않건만
特立孤節經幾春 우뚝한 고절로 몇 년이나 지내왔나
今人不與古人接 지금 사람은 고인을 접하지 못하지만
老松應經閱古人 노송만큼은 응당 고인을 겪었으리라
雪墮凍盤千尺龍 눈이 내릴 때면 천척의 용 서려있고
月冷閒夢先天鶴 달빛 차면 한가히 선천의 학 꿈꾼다
年年行過休憩處 해마다 지나치며 휴식을 취하던 곳
時聞松子和煙落 때때로 솔방울이 안개 속에 떨어진다
孔明廟前參天栢 공명의 사당 앞 하늘 솟은 잣나무⁹³
何事千載使人悲 어이타 천년토록 사람을 슬프게 하나

92 가지는 …… 듯 : 두보(杜甫)의 「희위언위쌍송도가(戲韋偃爲雙松圖歌)」에 “두 그루 소나무 이끼 덮인 껍질은 처참히 갈라졌고, 굵은 쇠가 뒤엉키듯 높은 가지는 서러 있네. [兩株慘裂苔蘚皮 屈鐵交錯廻高枝]”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93 공명의 …… 잣나무 : 당(唐)나라 두보(杜甫)가 지은 「고백행(古柏行)」에 “제갈공명 사당 앞에 잣나무 있어, 가지는 청동 같고 뿌리는 바위 같네. [孔明廟前有老柏 柯如青銅根如石]”라고 하였다.

他日大廈如將傾 훗날에 큰 집이 장차 쓰러지려 하거든
應不捨此棟梁材 응당 이 동량의 재목을 버리진 않으리라

산당춘일즉사 14수 갑오년(1954)

山堂春日卽事 十四首 甲午

1

身似飄蓬西復東 이내 몸 쭉대처럼 동서로 오가다가
 倦遊今日又春風 권태롭게 노는 오늘 또 봄바람을 맞네
 幾處寒梅殘雪裏 잔설 속에 한때는 몇 곳이나 피었나
 一江漁笛夕陽中 석양 강가엔 어부의 피리소리 들린다
 偃仰林泉非素志 임천의 소요는 평소의 뜻이 아니건만
 鏞陶天地是良工 천지를 주재함은 양공의 솜씨인 것을
 萬事如今聊復爾 만사가 이제 다시 그러하거늘⁹⁴
 嗣宗何意哭途窮 사종은 어이타 막힌 길에서 통곡했나⁹⁵

2

春晴峽國喜君逢 맑은 봄날 산골에서 기쁘게 그댈 만나
 剪燭話心笑滿容 심지 자르며 마음 나누니 얼굴엔 웃음 가득
 日午溪亭風一榻 정오의 시내 정자 걸상엔 바람이 불고
 夜闌村塾月千峯 밤 깊은 마을서당 달빛은 천봉을 비춘다

94 그러하거늘[聊復爾] : 진나라 완함은 본래 길 남쪽에 살고, 다른 완씨(阮氏)들은 길 북쪽에 살았던바, 북쪽에 살던 완씨들은 다 부유했고, 남쪽에 살던 완씨는 빈곤했는데, 한번은 7월 7일에 북쪽의 부유한 완씨들이 모두 좋은 비단옷들을 밖에 내다가 포쇄(曝曬)하자, 완함은 거친 베로 지은 쇠코잠방이[積鼻褌]를 바지랑대 끝에 걸어 마당 가운데 내다가 포쇄하고 있으므로, 어떤 이가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세속을 면치 못한 것이니, 그저 그렇게 할 뿐이다. [未能免俗 聊復爾耳]”라고 했다 한다. 『世說新語』 卷6, 『晉書』 卷49 「阮籍列傳 阮咸」

95 사종은 …… 했나 : 사종은 완적 위(魏)나라 완적(阮籍)을 말한다. 완적이 울분을 달래려고 혼자 수레를 타고 나갔다가 길이 막히면 문득 통곡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晉書』 卷49 「阮籍列傳」

浮世人皆夢蕉鹿 뜬세상 사람은 모두 초록⁹⁶을 꿈꾸건만
 濟艱誰復作濠龍 간난 구제할⁹⁷ 호걸은 누가 다시 되려나
 拋置塵間憂與樂 세간의 근심과 즐거움 모두 던져버리고
 海山文酒好相從 해산에서 시문과 술로 즐겁게 상종하세나

3

大野茫茫劈一江 망망한 큰 들에 강이 하나 흐르니
 江光澄澈映書窓 강물 빛은 투명하게 서창을 비춘다
 深峽斜陽人語少 깊은 고을 석양빛 사람 소리 적은데
 明沙晴日鷺飛雙 맑은 날 밝은 모래 쌍쌍이 나는 백로
 百歲幾勞蝴蝶夢 백년 인생 얼마나 호접몽⁹⁸에 괴로웠나
 此生聊寄稻魚邦 이 삶을 애오라지 도어향⁹⁹에 부친다
 詩成投筆捲簾看 시가 되면 붓을 놓고 발 걸어 바라보니
 山色多情入酒缸 산색이 다정하게 술동이로 들어온다

96 초록(蕉鹿)을 꿈꾸건만 : 옛날에 정(鄭)나라 사람이 뿔나뿔을 하러 갔다가 사슴을 잡아
 서 남이 볼까봐 구덩이에 감추고 파초(芭蕉) 잎으로 덮어 놓았다. 이윽고 그 사슴을 잊
 어버리고는 마침내 꿈이라 여기고 길을 가면서 계속 그 사실을 혼자 중얼거리고 있으
 므로, 곁에서 그 말을 들은 자가 마침내 그의 말대로 그곳을 찾아가 사슴을 취하였다.
 득실(得失)의 무상(無常)함을 비유한다. 『列子』 「周穆王」
 97 간난을 구제할 : 두보의 「모친을 모시고 김중으로 돌아가는 왕판관을 전송하며 지은
 ‘開’자를 운자로 쓴 시 [送王十五判官扶侍還黔中得開字]에 “어렵고 위태로울 때 시대
 를 구할 재능에 깊이 의지하네. [艱危深仗濟時才]”라는 구절이 있다. 『杜少陵詩集』
 98 호접몽(胡蝶夢) : 『장자』 「제물론(齊物論)」 마지막에, 사람의 꿈속에 호랑나비가 되었
 는지, 아니면 호랑나비의 꿈속에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물화(物化)의 비유가 실
 려 있다.
 99 도어향(稻魚鄉) : 도어는 쌀과 물고기로, 도어향은 쌀과 물고기가 풍부한 시골을 가리
 킨다. 소식(蘇軾)의 「승주과기수수각 ... (乘舟過買收水閣) ...」 시에 “마음에 맞는 건
 시주의 모임이요, 일생을 보낼 곳은 어도향이로다. [得意酒詩社 終身魚稻鄉]”라고 하
 였다. 『蘇東坡詩集』 卷19

4

| | |
|---------|-------------------------------------|
| 世波滾滾此何時 | 세파는 쉽 없으니 이 어느 시절인가 |
| 羨彼鷓鴣得一枝 | 저 가지 하나 얻은 초료 ¹⁰⁰ 가 부러워라 |
| 地僻三千雲漠漠 | 삼천리 궁벽진 땅 구름만 막막하고 |
| 天長九萬日遲遲 | 구만리 장천 태양은 더디기만 하다 |
| 峽裏春生開窻戶 | 산골에 봄 돌아와 닫힌 문 열어보니 |
| 意中人到展愁眉 | 그리운 이 찾아와 찌푸린 눈썹 편다 |
| 煙塵宇內晴無日 | 세상의 연진은 청명할 날이 없으니 |
| 流水青山我所思 | 유수와 청산만이 내가 바라는 것이라 |

5

| | |
|---------|----------------------------------------|
| 溪屋深深掩竹扉 | 시냇가 집 깊숙이 대나무 문 닫고서 |
| 夢爲蝴蝶訪花飛 | 꿈에선 나비 되어 꽃 찾아 훨훨 난다 |
| 土室讀書傲軒冕 | 토실에서 독서하며 현면 ¹⁰¹ 을 오시(傲視)하고 |
| 春園摘菜敵甘肥 | 봄 동산 채소 따서 진미(珍味)에 대적한다 |
| 司馬遠遊得奇氣 | 사마천은 원유로 ¹⁰² 기특한 기운 얻었거늘 |
| 靈均何事製芰衣 | 영균은 무슨 일로 기의를 지었던고 ¹⁰³ |
| 雁隨江雨天涯去 | 기러기 강비 따라 천애로 날아가고 |
| 野麥青青鷺又歸 | 들판 보리 푸르니 제비가 또 돌아왔네 |

100 가지 …… 초료(鷓鴣):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넓은 숲속에서 초료가 차지하는 보금자리는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하다. [鷓鴣巢於深林 不過一枝]” 하였다.

101 현면(軒冕): 현면은 수레와 면류관이라는 말로, 관작과 봉록 등 높은 벼슬을 뜻한다.

102 사마천은 원유로: 사마천은 젊은 날 천하를 유람하고 나서 문장이 더욱 기특해졌다고 한다.

103 기의를 지었던고: 영균은 굴원의 자이다. 그가 지은 「이소(離騷)」에 “돌아가신 아버님 이 나의 이름을 정칙이라고 지어 주셨고, 나를 영균이라고 지어 주셨다. [名余曰正則兮 字余曰靈均]”라는 말이 나온다. 기의는 마음으로 만든 옷으로 은자를 상징한다.

6

| | |
|---------|-------------------------------------|
| 煙塵蒼茫與誰俱 | 창망한 연진에 누구와 함께 할까나 |
| 水竹堪居卜此區 | 수죽이 살 만하여 이곳을 차지했네 |
| 黯黯春愁臨酒盡 | 암담한 봄 시름 술을 대해 사라지니 |
| 茫茫世事轉頭無 | 망망한 세사도 잠깐 사이 없어졌네 |
| 作賦十年凌漢魏 | 시부 지은 지 십년 한위를 능가하고 |
| 枕書中夜夢唐虞 | 한밤이면 책을 베고 당우를 꿈꾼다네 |
| 淸江鷗鷺尋盟興 | 맑은 강 구로와 심맹 ¹⁰⁴ 할 흥이 이나니 |
| 不羨麒麟閣上圖 | 기린각의 도화 ¹⁰⁵ 를 부러워하지 않노라 |

7

| | |
|---------|------------------------------------|
| 一帶長江十里堤 | 한 줄기 긴 강물에 십리길 제방 |
| 依依芳草夕陽齊 | 아름다운 방초가 석양에 돌아났네 |
| 裁書無雁寄諸弟 | 아우들에 쓴 편지 부칠 기러기 없고 |
| 開篋有衣憐寡妻 | 상자 열어 옷을 보니 과처가 가련타 |
| 桃花三月新來燕 | 복사꽃 삼월이면 제비가 새로 오고 |
| 風雨五更獨唱鷄 | 비바람 치는 오경엔 닭이 홀로 운다 |
| 莫向樽前悲浩劫 | 술 단지 앞에서 호겁 ¹⁰⁶ 을 슬퍼말지니 |
| 螢窓卒歲共携提 | 형창에서 함께 손잡고 해를 마치세 |

104 구로(鷗鷺)와 심맹(尋盟): 구로와 맹세한다는 의미로, 자연에 은거하겠다는 결심을 뜻한다. 송(宋)나라 육유(陸游)의 「숙흥(夙興)」에 “학의 원망은 누굴 의지해 풀거나, 백구와의 맹서 이미 식었을까 염려되네. [鶴怨憑誰解 鷗盟恐已寒]” 하였다. 원문의 ‘심(尋)’은 약속을 단단히 한다는 뜻이다. 『춘추좌씨전』에 자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애공(哀公) 12년에 “지금 그대가 반드시 예전의 맹약을 굳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 굳게 할 수 있다면, 역시 그 맹약을 식게 할 수도 있다. [今吾子曰 必尋盟 若可尋也 亦可寒也]”라고 하였다.

105 기린각의 도화: 공신각을 말한다. 한나라 선제가 기린각에 공신의 초상을 그렸다.

106 호겁(浩劫): 호겁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큰 재화(災禍)를 뜻하는 의미이나 전하여 인간의 흥망성쇠의 긴 세월을 의미하기도 한다.

8

| | |
|---------|----------------------|
| 千巖峰巒一水涯 | 천 겹의 봉우리 두른 한 물가에 |
| 與君幾日詠歸偕 | 그대와 몇 날이나 귀영을 함께했나 |
| 春不嫌貧到窮峽 | 봄은 가난 혐의 않고 산골에 오고 |
| 月如有舊照空齋 | 달은 옛 정 있는 듯 빈집을 비춘다 |
| 何處花間對樽酒 | 어느 곳 꽃 사이에 술잔을 마주할까 |
| 今朝雨後穿芒鞋 | 오늘 아침 비 갠 후에 짚신을 신노라 |
| 煙塵漠漠人杳杳 | 막막한 연진에 사람도 멀기만 하니 |
| 獨倚東風寄此懷 | 홀로 동풍 기대어 이 마음 부치노라 |

9

| | |
|---------|-------------------------|
| 過雨千峰不染埃 | 비가 지난 천봉이 티끌에 물들지 않아 |
| 天風一嘯上高臺 | 하늘 바람에 휘파람 불며 높은 누대 오른다 |
| 夢隨明月鄉園去 | 꿈은 밝은 달 따라 고향으로 가고 |
| 身伴閒雲峽口來 | 몸은 한가한 구름 짝하여 협구로 온다네 |
| 病中覓句詩還澁 | 병중에 구절 찾으매 시가 더욱 쫄끄럽고 |
| 亂裏得書懷欲開 | 난리 속에 편지 얻으니 회포가 열리는 듯 |
| 一片花飛減春色 | 한 조각 꽃 날림에 봄빛이 줄어드니 |
| 莫辭醉倒掌中杯 | 장중의 술잔에 취해 쓰러짐 사양 말게 |

10

| | |
|---------|---------------------|
| 我來湖上幾經春 | 내 호숫가에 온 지 몇 년이 흘렀나 |
| 離思茫茫百感新 | 이별 생각 망망함에 백감이 새롭네 |
| 疎篁白日彈棋客 | 한낮의 성긴 대숲 바둑 두는 객이요 |
| 芳草斜陽弄笛人 | 석양의 방초엔 피리 부는 사람일세 |
| 孤棹清江鷗鷺興 | 청강 외로운 배에 구로의 흥이 일고 |

垂楊官道馬車塵 수양버들 관도엔 거마의 티끌뿐이네
 玩世徒勞蝴蝶夢 세상은 부질없이 호접몽에 수고하니
 靑山閉戶養天真 청산에 문을 닫고 천진을 기르려다

11

猿鶴千巖可與群 천암의 원학과 더불어 짝할 만하니
 地爐松火夜看文 흙 화로 관솔불로 밤에 글을 본다네
 客倚柴門三徑竹 객은 삼경¹⁰⁷의 대 길 사립문 기대고
 軒留白石一溪雲 들창엔 흰 바위 시내 구름 머물렀다
 歲月駸駸江水去 세월은 쉽 없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煙塵漠漠世波紛 연진은 막막하여 세파가 어지럽네
 天涯又此春將暮 천애에 또 이렇게 봄이 장차 저무니
 十二何時不憶君 온종일 어느 때나 그대 생각 아니하랴

12

五畝桑邊竹裏村 오묘의 뽕나무 가 대나무 숲속 마을
 夕陽籬落散鷄豚 석양빛 울타리엔 닭과 돼지 흩어진다
 胸中祇有煙霞癖 흉중에 다만 연하의 고질병만 있으니
 門外絕無車馬喧 문밖엔 거마의 시끄러움 전혀 없어라
 小溪添雨灘聲急 작은 시내 비가 더해 여울 소리 급하고
 萬樹交檐晝氣昏 많은 나무 처마 닿아 낮 기운 어둡다
 夢去故國迷先路 고향에 가는 꿈 앞길이 희미하니
 家書欲寫却忘言 편지를 쓰려 하나 도리어 말을 잊었네

107 삼경(三徑) : 시골로 돌아가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한(漢)나라 장후(蔣詡)가 향리로 돌아가서 모든 교분을 끊은 채 정원에다 오솔길 세 개(三徑)를 만들어 놓은 뒤에 오직 양중(羊仲)·구중(求仲) 두 사람과 어울려 노닐었다는 고사가 있다. 『三輔決錄』 「逃名」

13

| | |
|---------|-----------------------|
| 兀兀書樓倚碧山 | 우뚝한 서루가 푸른 산에 기대니 |
| 巖扉聞寂鳥間關 | 바위 문 적막하고 새들만 지저귀다 |
| 中流擊楫人何在 | 중류에 노를 치는 사람은 어디 있나 |
| 閉戶觀書意自閒 | 문 닫고 책을 보니 뜻 절로 한가하네 |
| 古寺僧尋微逕去 | 고사의 스님은 오솔길 찾아 가고 |
| 遠峯樵帶白雲還 | 먼 산 나무꾼은 흰 구름 띠어 돌아오네 |
| 恨殺庭園花欲盡 | 한스럽다! 정원의 꽃도 다 지려하니 |
| 綠陰携酒破愁顏 | 녹음에 술잔 잡고 시름 얼굴 깨고자 |

14

| | |
|---------|----------------------|
| 東風一望大江天 | 동풍에 한번 큰 강 하늘 바라보니 |
| 隔岸漁村帶暮煙 | 언덕 너머 어촌은 저녁안개 덮였다 |
| 晚院風微花自落 | 저녁 정원 미풍에 꽃은 절로 지고 |
| 曉城鍾動月無邊 | 새벽 성 종소리에 달빛은 끝이 없네 |
| 身隨北社漁樵話 | 몸은 북쪽 마을 어초 따라 얘기하고 |
| 夢逐清溪鷗鷺眠 | 꿈은 청계의 구로 쫓아 잠이 든다 |
| 常思百歲知音少 | 항상 생각건대 백년의 지음 적으니 |
| 千里懷人更上阡 | 천리 길 임 그리며 밭 언덕에 오르네 |

봄을 보내며

餞春

| | |
|---------|----------------------------------|
| 爲餞東皇過石橋 | 동황 ¹⁰⁸ 을 전별하러 석교를 지나고 |
| 復尋牆外落花條 | 다시 담 밖에 낙화의 가지 찾노라 |
| 人間誰有長今日 | 인간 세상 무엇이 늘 오늘 같으랴 |
| 客裏尤難送此宵 | 객중에 더욱 이 밤 보내기 어렵네 |
| 江草依依喚愁起 | 어여쁜 강풀은 시름 불러 일으키고 |
| 書燈兀兀欲魂消 | 서등은 오롯하여 애가 끊어지려 한다 |
| 千金一刻買何得 | 천금의 일각을 어찌 사서 얻을꼬 |
| 卜夜高樓尊酒招 | 밤을 점쳐 고루에서 술잔으로 부르리라 |

108 동황(東皇) : 동황은 봄을 관장하는 천신(天神)의 이름이다. 봄은 동방(東方)과 청색(青色)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동제(東帝), 동황(東皇), 청황(靑皇), 청제(靑帝) 등으로 불렸다.

동백화

冬栢花

을미년(1955) 봄에 효당 선생이 산정동의 집 한 채를 샀다. 뜰 가에 한 그루의 동백나무가 있는데 이미 600여 년이 흘렀다. 가지가 구불구불하여 형상이 푸른 일산 같았다. 아래는 반석이 있는데 7~8인이 앉을 수 있었다. 내가 일찍이 기이하게 여겨 시를 지어 기록했다.

乙未春曉堂先生買一屋於山亭洞 庭畔有一冬栢樹 已經六百餘年 枝柯盤屈 形如蒼蓋 下有盤石 可坐七八人 故余嘗奇之 因賦而記之

| | |
|---------|-------------------|
| 幢幢冬栢樹 | 우뚝 솟은 동백나무 |
| 鬱鬱四時青 | 울창하여 사시에 푸르구나 |
| 誰昔栽此物 | 누가 옛날 이 나무를 심어 |
| 爲我對窓櫺 | 나를 위해 창을 마주하게 했다 |
| 開戶入案青 | 문 여니 서안에 푸른빛 들어오고 |
| 爽氣朝暮通 | 상쾌한 기운 조석으로 통하누나 |
| 殘雪寒風裏 | 잔설과 찬바람 속에서도 |
| 葉間萬朶紅 | 잎 사이에 만 송이가 붉구나 |
| 冉冉清陰鋪石砌 | 무성한 청음은 섬돌에 펼쳐지고 |
| 纖纖紅霧蒸蒼空 | 섬섬한 붉은 안개 창공에 피어나 |
| 偃蹇身是老松伴 | 높은 몸체는 노송을 짝하고 |
| 玲瓏花作海棠魄 | 영롱한 꽃은 해당의 혼백일세 |
| 一院紅梅爭後先 | 뜰의 홍매와 선후를 다투니 |
| 滿山桃李揔無色 | 산 가득한 도리는 빛을 잃었네 |
| 可但花爲盛 | 어찌 다만 꽃만 무성할까나 |
| 又是節爲奇 | 더욱더 마디까지 기특하구나 |

| | |
|-------|----------------------------------|
| 衆木搖落日 | 뭇 나무 바람에 잎이 질 때 |
| 磊砢獨猗猗 | 우뚝 서 홀로 아름다워라 |
| 煙重疑龍蟄 | 안개 짙으면 용이 칩거한 듯 |
| 月明待鸞宿 | 달 밝으면 난새를 기다린다 |
| 昔日沒草中 | 지난날엔 ¹⁰⁹ 풀 속에 묻혔더니 |
| 今日爲庭實 | 지금은 정원의 보배 되었구나 |
| 靑蓋何盤盤 | 푸른 일산 어찌 그리 무성하고 |
| 愛爾獨盤桓 | 너를 사랑하여 홀로 배회하네 |
| 花神如欲語 | 화신도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
| 三嗅立清晨 | 세 번 냄새 맡고 ¹¹⁰ 새벽에 섰노라 |

109 지난날엔 : 동백수를 막 심어 아직 자라지 않을 때를 말한다.

110 세 번 냄새 맡고 : 『논어』 「향당(鄉黨)」에 공자가 제자들 앞에서 “‘산 교량(橋梁)의 암퇘이여, 때에 맞는구나, 때에 맞는구나!’라고 하자, 자로(子路)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핥을 잡아 올리니 공자가 거둬 냄새를 맡고 일어나셨다. [山梁雌雉 時哉時哉 子路共之三嗅而作]”라고 하였다. 두보(杜甫)의 「추우탄(秋雨歎)」에 “당상의 서생은 부질없는 백발의 물골로, 바람 앞에서 거둬 향을 맡으며 눈물짓는다. [堂上書生空白頭 臨風三嗅馨香泣]” 하였다.

삼학사¹¹¹를 애도하다

悼三學士

憶昔丙子年間事 옛날 병자 연간의 일¹¹² 떠올리니
三韓王氣欲成灰 삼한의 제왕(帝王) 기운 재가 되려 했네
鼓鼙聲喧動地來 고비¹¹³ 소리 떠들썩하게 땅을 흔들고
胡兵到處鬼神哀 호병이 이른 곳 귀신도 슬퍼했다
壯哉堂堂三學士 씩씩하구나! 당당한 삼학사여
義不帝秦獨敵戲 오랑캐 섬김 불의하다 홀로 탄식했네
一朝奮筆叫閭闔 일조에 붓을 떨쳐 창합¹¹⁴에 호소하고
斥彼胡虜犬彘如 저 오랑캐를 개돼지라고 배척했네
甘心死爲華夏鬼 달게 죽어 중화의 귀신이 될지언정
肯將此身拜穹廬 어찌 이 몸을 오랑캐 천막에 굽히랴
皇明日月今猶在 황명¹¹⁵의 일월 오늘도 여전하나니
君臣義定受恩多 군신의 의리 정해 받은 은혜 많았다
寧從地下見祖宗 어찌 지하에서 조종을 뵈겠는가
此身願作玉無瑕 이 몸은 티 없는 옥이 되길 원하네
此膝一屈不可伸 이 무릎 한번 굽히면 펴 수 없으니
忍向彼虜事媾和 차마 저 오랑캐와 강화를 일삼겠는가
文山死燕竟報宋 문산¹¹⁶은 연경에서 죽어 끝내 송에 보냈고

111 삼학사(三學士) : 삼학사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하고 척화(斥和)를 주장하다가 심양에 끌려가 순절한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를 가리킨다.

112 병자 연간의 일 : 인조 14년(1636) 병자년에 발발한 병자호란을 가리킨다.

113 고비(鼓鼙) : 『예기』 「악기(樂記)」에 “군자는 큰북 작은북 소리를 들으면 장수의 신하를 생각한다. [君子聽鼓鼙之聲 則思將帥之臣]”라고 하였다. 고(鼓)는 큰북이고 비(鼙)는 작은북인데, 고대에 군중(軍中)에서 공격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였다.

114 창합(闔閭) : 대궐문을 가리킨다.

115 황명(皇明) : 명나라를 말한다.

| | |
|---------|----------------------------------------|
| 仲連蹈海恥帝秦 | 중련 ¹¹⁷ 은 동해 밟아 진을 받들 부끄러워했네 |
| 尊周大義薄日星 | 존주의 대의가 일성을 핏박하니 |
| 正氣數闕誦幾春 | 정기가 ¹¹⁸ 몇 곡을 몇 해나 읊었던고 |
| 就戮不亂罵單于 | 형장에 나서도 꾀꾀이 선우 꾸짖었고 |
| 至死不變報君王 | 죽음에 이르러도 변치 않고 군왕에게 보답했네 |
| 忠動一世醜虜驚 | 충성이 일세를 진동하니 오랑캐조차 놀랐고 |
| 名傳千秋史冊芳 | 명성은 천추에 전해져 사책이 향기롭다 |
| 瀋陽江水流不波 | 심양강물 흘러 파도도 일지 않으니 |
| 江流應爲咽萬春 | 강류는 응당 만년토록 오열하리라 |
| 魂兮歸來鴨水陽 | 혼이여 압록강 양지로 돌아오라 |
| 秋風颯颯日欲曛 | 추풍이 샅샅하게 불고 날도 저물거니 |

116 문산: 송(宋)나라 문천상(文天祥)으로 길수(吉水) 사람이다. 자(字)는 송서(宋瑞), 호는 문산(文山)이다. 덕우(德祐) 초년에 원(元)의 군사가 침범해 들어오니, 문천상은 군내(郡內)의 호걸(豪傑) 및 산만(山蠻)을 발동하여, 조서에 응하여 근왕(勤王)하였다. 나중에 원나라 장수 장홍범(張弘範)에게 패하여 잡혀서 연옥(燕獄)에 3년 동안 구금되었으나 끝내 절개를 굽히지 아니하고 시시(柴市)에서 피살되었는데, 형(刑)에 임하자 「정기가(正氣歌)」를 지어 뜻을 보였다.

117 중련: 노중련(魯仲連)은 제나라의 고사(高士)로, 조(趙)나라가 진(秦)나라 군대에게 포위됐을 때 위(魏)나라가 신원연(新垣衍)을 보내 진나라 임금을 천자로 섬기면 포위를 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노중련이 “진나라가 방자하게 천자를 참칭(僭稱)한다면 나는 동해에 빠져 죽겠다.” 하니, 진나라 장군이 이 말을 듣고 군사를 후퇴시켰다. 『史記』 「魯仲連鄒陽列傳」

118 정기가(正氣歌): 문천상이 망해 가는 송(宋)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원(元)나라 군대와 끝까지 맞서 싸우다 사로잡혀 끝내 굴복하지 않은 채 「정기가(正氣歌)」를 부르고 시시(柴市)에서 죽었다.

이효갑의 내방을 기뻐하며 을미년(1955)

喜李孝甲來訪

乙未

幾向清宵思舊友 얼마나 맑은 밤에 옛 벗¹¹⁹을 그렸던가
夢中襟佩每相連 꿈속에서 늘 옷깃을 나란히 하였다네
話心竹樹江干屋 대숲 강가 집에서 마음을 나누었으니
回首金城雪裏天 금성의 눈 내리는 하늘로 고개 돌리네
隔歲逢君莫辭醉 해를 지나 그대 만났으니 취함 사양 말라
旅窓剪燭不須眠 여창의 심지 자르며 잠들지 말아야지
人生何日能無別 사람의 삶 어느 날인들 이별이 없으랴
努力崇明各勉旃 노력해 명덕 높이길¹²⁰ 각자 힘써야 하리

119 옛 벗 : 당나라 두보(杜甫)의 「추술(秋述)」에 “평소 나를 찾아오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비가 내려도 오더니, 지금은 비가 내리면 오지 않는다. [當時車馬之客 舊雨來今雨不來.]”라고 한 구절에서 온 말로, 구우(舊雨)는 옛 벗을, 금우(今雨)는 새 벗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120 노력하여 …… 높이길 : 한(漢)나라 때 이릉(李陵)이 소무(蘇武)와 작별할 때 준 시에 “부디 힘써서 밝은 덕을 숭상하여 백발까지 변치 않기로 기약하세나. [努力崇明德 皓首以爲期]”라고 하였다.

도랑을 터서 밭에 물 대다

決渠灌田

| | |
|---------|------------------------|
| 疏山鑿石覓源泉 | 산을 트고 돌을 쪼아 샘물을 찾아서 |
| 耕種及時上下田 | 때에 미쳐 위아래 밭을 갈고 파종한다 |
| 努力兼旬纔見績 | 수·노력하여 겨우 결과를 보나니 |
| 惓惓頃刻敢望年 | 경각이라도 게으르면 감히 풍년을 바랄까 |
| 初看微滴難盈掬 | 처음엔 방울방울 한 줌 차기도 어렵더니 |
| 終合涓流欲齧阡 | 끝내 작은 흐름 합쳐서 밭두둑 잠식할 듯 |
| 積小由來能就大 | 작은 것 쌓이면 이로써 큰 것 이루나니 |
| 何違一日做安眠 | 어찌 하루라도 편안히 잘 겨를 있으랴 |

시장에 가다 之市

男婦早朝赴若雲 남녀가 이른 아침부터 구름처럼 몰려가니
 喧聲鎮日漫紛紛 시끄러운 소리 온종일 부질없이 어지럽네
 便民交易塵無稅 백성의 교역에 편하고자 가게에 세금 없고
 避市三遷教已勤 시장 피해 세 번 옮기니¹²¹ 가르침 은근하다
 登壠營營罔利子 농단¹²²에 올라 경영하며 이익 그물질하는 자여
 忘生蠹蠹聚羶群 삶을 잊고 꿈틀대니 비린내 난 무리가 모인 듯
 最憐燕趙悲歌士 참으로 가련타 연조의 비가 하는 선비들 중
 屠狗如今儻有聞 지금도 흑여 개백정으로 알려진 이가 있는지¹²³

121 시장 …… 옮기니 :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의 고사가 실려 있는데, 무덤 근처에 집을 정하자 맹자가 매장하는 놀이를 하고, 시장 가까이 집을 정하자 맹자가 장사하는 놀이를 했으므로 결국 학교 가까이로 이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122 농단(壟斷) : 농단은 높은 언덕이다. 옛날에 어떤 사내가 높은 언덕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고 싼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팔아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자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다. 『孟子』「公孫丑下」

123 가장 …… 있는지 : 연나라와 조나라의 비분강개한 선비들이 지금도 흑여 시장에 은둔한 자가 있는냐는 뜻이다. 자객 형가(荊軻)는 연나라 태자 단(丹)의 부탁을 받고 진왕(秦王)인 영정(嬴政)을 죽이러 갔다가 피살당했는데, 『사기(史記)』 권86 「자객열전(刺客列傳)」에 “그가 연나라에 있을 적에 개백정[屠狗] 및 축(築)의 명인인 고점리(高漸離)와 어울려 노닐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천관산 노래¹²⁴

天冠行

| | |
|---------|------------------------------------|
| 天冠根盤幾百里 | 천관산은 몇백 리에 뿌리가 서렸나 |
| 雄厚磅礴鎮南州 | 웅후하고 광대하여 남주의 진산일세 |
| 地軸逶迤到此盡 | 지축이 멀리 흘러 이곳에서 다하니 |
| 石勢嶙峋接素秋 | 바위의 형세 높아 가을하늘 접하였다 |
| 芙蓉擊出白雲中 | 부용 같은 봉우리 백운 중에 솟았고 |
| 仙窟劈開滄海頭 | 신선의 동굴은 창해 끝에 열려 있다 |
| 萬壑沈沈藏蛟龍 | 만학은 침침하여 교룡이 숨어 있고 |
| 時時興雲又爲雨 | 때때로 구름 일어 다시 비가 된다네 |
| 瀛洲滄茫入眼際 | 영주 ¹²⁵ 는 아득히 눈길에 들어오고 |
| 靑空縹緲在足下 | 창공은 까마득히 발아래 있구나 |
| 鬼斧神斤一呵成 | 귀신의 도끼로 단숨에 이루었으니 |
| 蓬萊方丈共崔嵬 | 봉래산 방장산과 다 함께 높다랗네 |
| 仙跡今傳淸風壁 | 신선 자취 지금도 청풍 절벽 전해지고 |
| 成樓夜連烽火臺 | 수루의 밤은 봉화대에 이어졌다 |
| 下有洞府何窈窕 | 아래의 동부 ¹²⁶ 는 얼마나 깊고 깊은지 |
| 千村萬落蟻垤開 | 수많은 마을들 개밧둑처럼 열렸네 |
| 鍾靈毓秀千萬歲 | 천만년 신령하고 빼어난 기운 모아 |
| 產出傑人與英材 | 호걸과 영재를 산출해 내었어라 |
| 如今萬民苦旱甚 | 지금 만민이 가뭄으로 괴로움 심하니 |
| 何不興雨洽八垓 | 어찌 비를 일으켜 천하를 적시지 않나 |

124 천관산 노래 : 천관산(天冠山)에 대해 읊은 시로, 천관산은 현재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冠山邑)과 대덕읍(大德邑) 경계에 있는 산이다.

125 영주(瀛洲) : 제주도를 가리킨다.

126 동부(洞府) : 도교(道敎)에서 말하는 신선 마을이다.

장맛비를 괴로워하다

苦霖

| | |
|---------|---------------------------------------|
| 商家得傳欲爲霖 | 상나라는 부열을 임우로 삼고자 했는데 ¹²⁷ |
| 霖雨如今愁轉深 | 이젠 임우가 시름을 더욱 깊게 하네 |
| 縱橫壁上蝸行篆 | 벽엔 종횡으로 달팽이가 전자 그리고 ¹²⁸ |
| 荒穢田間草滿尋 | 황폐한 밭 사이는 풀이 한 길을 채웠네 |
| 紅日杲杲出何處 | 붉은 해는 어느 곳에서 솟아 밝으랴 ¹²⁹ |
| 蒼天漠漠亦無心 | 창천은 막막하여 또한 무심하여라 |
| 中夜空歎蝸補石 | 한밤에 여와 ¹³⁰ 의 하늘 때문 돌을 탄식하니 |
| 溪聲有意和孤吟 | 시내소리도 뜻이 있어 내 시에 화답하네 |

127 상나라는 …… 했는데 : 은(殷)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재상으로 임명하면서 “만약 나라에 큰 가뭄이 들면, 그대를 시켜 단비를 내리게 하겠다. [若歲大旱 用汝作霖雨]” 하였다. 『書經』 「說命上」

128 전자(篆字)를 그리고 : 달팽이가 전(篆)자를 그리듯이 구불구불 다니는 모습을 말한다.

129 붉은 …… 밝으랴 : 『시경』 「위풍(衛風) 백혜(伯兮)」에 “비 오려나 비 오려나 하였더니, 쟁쟁 해만 뜨는구나. [其雨其雨 杲杲出日]” 라는 말이 나온다.

130 여와 : 중국 고대에 하늘이 무너졌는데 여신 여와가 오색의 돌로 하늘의 샌 곳을 기웠다고 한다.

잠깐 갬

乍晴

| | |
|---------|------------------------|
| 擬待天晴苦未晴 | 개길 고대했으나 참으로 개질 않더니 |
| 今朝乍見日輪行 | 오늘 아침에 보니 일륜이 운행한다 |
| 篋中衣濕橫竿曬 | 상자의 젖은 옷 장대 걸어 말리고 |
| 街上泥乾穿屐輕 | 거리의 진흙도 말라 나막신 가볍다 |
| 比隣酒熟哦詩賀 | 이웃의 술 익자 시 지어 축하하고 |
| 四野禾登擊鼓聲 | 사방엔 풍년들어 북소리 울린다 |
| 眼看妖氛猶未淨 | 보이는 요기(妖氣)는 아직 깨끗지 않으니 |
| 暫平何似久昇平 | 잠시의 평화가 오랜 승평만 같으랴 |

날이 갠을 기뻐하다

喜晴

| | |
|---------|----------------------------------|
| 百骸無力解冠衣 | 온몸이 무력하여 의관을 벗었더니 |
| 園圍恰似中酒人 | 어릿어릿하여 ¹³¹ 흡사 술에 취한 듯 |
| 一朝天風獵獵吹 | 하루아침 하늘 바람 산들산들 불더니 |
| 掃盡漠漠千峰雲 | 막막한 천봉 구름 모두 쓸어 버렸네 |
| 閉門涇坐經數旬 | 문 닫고 조용히 앉아 수십 일 보내다 |
| 曳筇理鞋始出門 | 지팡이와 짚신으로 처음 문을 나선다 |
| 禾黍油油被阡陌 | 벼와 기장 무성하게 밭두둑을 덮었고 |
| 鳧鵝濯濯任浮沈 | 오리 거위 깨끗하게 멋대로 부침하네 |
| 翁補頹牆兒捕蜓 | 노인은 담을 쌓고 아이는 잠자리 잡고 |
| 蟬吟晴日鶯出林 | 맑은 날 매미 울고 피꼬리 숲 나선다 |
| 江村曠日曬漁網 | 강촌의 밝은 햇살에 어망을 말리고 |
| 峽國斜陽拾荊薪 | 산골마을 사양 빛에 떨나무를 줍는다 |
| 蔀屋幾經床上漏 | 작은 초가 침상은 몇 날이나 비가 썩나 |
| 山廚無復炊中噯 | 산중 부엌도 취사에 찡그림 없다네 |
| 溪聲冷冷葛衣涼 | 맑은 시내 소리 칩베 옷도 서늘하니 |
| 看書樹陰移床頻 | 나무그늘 책 보느라 자주 평상 옮긴다 |
| 九宇風雨淨何日 | 천하의 풍우는 어느 날에 청정하려나 |
| 萬里滄波迷渡津 | 만리창파에서 나루터를 헤매는구나 |
| 安得天風吹萬里 | 어찌하면 만 리 밖 하늘 바람 불어와 |
| 似此快廓掃風塵 | 오늘처럼 상쾌하게 풍진을 쓸어줄까 |

131 어릿어릿하여[園圍] : 『맹자』 「만장상(萬章上)」에 “처음에는 힘을 못 써 어릿거리더니 [園圍焉] 조금 있다가는 생기를 되찾고서 활발하게 움직였다[洋洋焉].”는 말이 있다.

즉사
卽事

幾年守此一燈青 몇 년이나 이 푸른 등불 지켰던고
歲月騰騰不暫停 흐르는 세월은 잠시도 멈춤 없네
請教常慚楊立雪 배움 청해 입설한 양시에 부끄럽고¹³²
離家難稱鯉過庭 집을 떠나 과정의 훈도¹³³ 부응 못했다
開懷從古歎無處 예부터 회포를 열 곳 없어 탄식했는데
知己如今似曉星 지기도 지금은 새벽 별처럼 드물구나
千載古人森在眼 천고의 고인만 삼연히 눈앞에 있으니
書聲鎖日隔簾聽 독서소리 종일토록 주발 건너 들린다

132 양시에 부끄럽고 : 정성을 다하여 스승을 모시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정호(程顥)의 수제자였던 양시(楊時)와 유초(游酢)가 정호의 사후(死後)에 배움을 청하러 정이(程頤)를 찾아갔을 때, 마침 정이가 문밖에 눈이 한 자나 쌓일 동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으나 감히 떠나가지 못하고 시립해 있었다고 한다. 『宋史』 「道學傳二 楊時篇」

133 과정(過庭)의 훈도 : 부친의 훈계라는 뜻이다. 공자의 아들 백어(伯魚)가 뜰을 가로질러 갈 때(過庭), 공자가 그를 불러 세우고 시(詩)와 예(禮)를 공부하라고 가르침을 내렸다. 『論語』 「季氏」

축석루에서 세 분 장사를 위로하며

矗石樓吊三壯士

晉陽城外水活活 진양성 밖 강물은 팔팔 흐르는데
矗石突兀戰壘空 축석루 우뚝 솟고 전루는 비었다
忽憶當年城中事 홀연 당시 성중의 일을 생각하니
士女氣義凌蒼穹 사녀의 의기가 창궁을 찌르는 듯
八域岌岌勢破竹 팔역의 급급한 형세 파죽 같으니
孤城子子卵擊石 외로운 성은 계란으로 바위 친 격
千鬪百戰堅不下 수많은 전투에도 굳게 항복 않으니
群蟻附緣伺穴隙 왜구는 개미떼처럼 오르며 엿보았다
矢盡糧絕援不至 화살과 양식 다해도 원병 오지 않아
投石噴湯猶禦敵 돌과 끓는 물로 여전히 적을 막았다
強哉仡仡三壯士 굳세구나! 용맹한 세 분의 장사¹³⁴여
只捐一死答君恩 한목숨 바쳐 군주의 은혜 보답했네
一杯笑指長江處 웃으며 한잔 술로 장강을 가리키고
化作千載忠義魂 천년 충의의 혼으로 변하고 말았지
名與日月爭光輝 명성은 일월과 함께 광휘를 다투나니
肯與肉食同爲倫 즐겨 육식자¹³⁵ 같은 무리가 되겠는가
睢陽千載張許在 천 년 전 수양성에 장허¹³⁶가 있었으나

134 삼장사(三壯士) : 임진왜란 때 진주의 축석루에 올라가 당면한 국가의 장래를 통탄(痛歎)하며 죽기로 맹세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 세 장사로, 호남(湖南)에서는 진주성이 함락될 때 투신 자결했던 김천일(金千鎰)·최경회(崔慶會)·고종후(高從厚)를 삼장사라고 일컬었고, 영남(嶺南)에서는 김성일(金誠一)·조종도(趙宗道)·이노(李魯)를 삼장사라 부른다.

135 육식자 : 위정자 계급을 말한다.

136 장허(張許) :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다.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안녹산(安祿山)이 난을 일으키자 장순이 거병(擧兵)하여 싸우다가 수양성(睢陽城)에 이르러 태수 허원과

| | |
|---------|---------------------|
| 諸公當日事更奇 | 삼장사 당일의 일이 더욱 기특하네 |
| 魂遊魂返知何處 | 혼백이 노니는 곳 그 어디인고 |
| 楓林颯颯月依依 | 풍림엔 소슬바람 달빛은 어른어른 |
| 飛鳳山靑長不老 | 비봉산은 푸르러서 길이 쇠하지 않고 |
| 南江江水流不盡 | 남강의 흐르는 물도 그침이 없구나 |
| 靑山崢嶸江波急 | 청산은 높고 강의 파도 급히 흘러 |
| 山水長含千古忿 | 산과 물은 늘 천고의 분노 머금었다 |
| 義氣磊落耀史冊 | 뇌락한 의기가 사책을 빛내나니 |
| 至今讀者爲壯魄 | 지금에도 읽는 자의 뜻 씩씩해진다 |
| 山河如今又幅裂 | 산하가 이제 또 갈기갈기 찢겼으니 |
| 如公九原何由作 | 어찌하면 구원에서 공들을 되살릴까 |

합세하여 군사 6천여 명으로 성을 지켜 반군의 남하(南下)를 막았다. 고립된 성에서 많은 군사들이 굶어 죽고 살아 있는 자들도 굶주림에 지치자, 장순이 자신의 애첩(愛妾)을 죽여 군사들에게 먹이고 허원은 자신의 종을 죽여 군사들에게 먹이면서 고군분투하였다. 끝내 적에게 성이 함락되었으나 굴복하지 않고 적을 꾸짖다가 살해당하였고, 함께 성을 지키던 허원은 낙양으로 잡혀가서 살해당하였다.

『新唐書』 卷192 「忠義列傳」 中 張巡, 許遠

김각간¹³⁷이 말을 참수하던 거리를 지나며

過金角干斬馬巷

快哉跡弛金角干 통과하구나! 호방한 김 각간이여
千載令人毛髮動 천년 후도 사람의 모발 솟게 한다
嗟晚今始過此巷 뒤늦게야 비로소 이 거리를 지나며
住馬盤桓心骨竦 말 멈춰 반환하니 심골이 송연하다
男兒生此天地間 남아가 이 천지 사이에 태어나서는
何不快意且適觀 어찌 뜻을 쾌히 해 자적하지 않으랴
夜卽達曙朝連夕 밤에서 새벽으로 아침은 저녁 이어
青樓朱閣恣喜權 청루와 주각에서 마음껏 환락했다
古來誤了幾英雄 예로부터 몇 명의 영웅 그르쳤던가
一被母責幡悟衷 어머니 질책 받고 번연히 깨달았네
人孰無過改爲貴 뉘라서 허물없으랴 고침이 귀하나니
脫洪返眞賢聖風 허물 벗고 진성(眞性) 회복이 성현의 풍모
折節讀書悟前非 기절(氣節) 꺾고 독서하며 이전 잘못 깨닫고
閉門長在一室中 문을 닫고서 늘 일실 중에 있었다네
馬亦慣知前日路 말은 또한 전날의 거리 익숙하였나니
焉知主人今日心 어찌 주인의 오늘날 마음 알았으랴
拔劍斬馬一何壯 검 뽑아 말을 베니 어찌 그리 씩씩하고
美人如痴罪馬深 미인은 어리석어 말을 깊이 질책했네
斡旋乾坤能轉機 건곤을 돌이키고 위기를 전환하여서
一統三韓徵在此 삼한을 통일한 징조가 여기에 있었네
泣鬼神策究天文 귀신을 울릴 계책은 천문을 연구했고

137 김각간(金角干) :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金庾信)을 말한다. 그의 벼슬이 태대각간(太大角干)에 이르렀다.

| | |
|---------|-------------------------------------|
| 驚人妙算窮地理 | 사람을 놀랄 묘산은 지리를 궁구했네 |
| 臨風鐵騎思酣戰 | 바람 맞으며 철기는 싸움터를 생각하고 |
| 燦雪寶刀奮勇威 | 눈빛처럼 빛나는 보검은 위용을 떨쳤다 |
| 略麗取濟一無敵 | 고구려 공략하고 백제 취하매 무적이니 |
| 功盖宇宙百世輝 | 공적은 천하를 덮어 백세에 빛나도다 |
| 英雄一去萬事灰 | 영웅이 한 번 떠나 만사가 재가 되니 |
| 落日天官風自悲 | 해 질 녘 천관촌에 바람만 절로 슬프구나 |
| 千古英名應不泯 | 천고에 영웅의 명성 사라지지 않으리니 |
| 在地爲嶽在天星 | 땅에서는 산악이 하늘에선 별이 되리라 |
| 如公儻知金甌缺 | 만일 공께서 금구의 결함 ¹³⁸ 을 알았다면 |
| 九泉飲泣憂生靈 | 구천에서 눈물 흘리며 생령을 근심하리 |

138 금구(金甌)의 결함: 금구는 국가의 영토를 뜻하는 말로, 금구의 결함이란 분단된 남북을 의미한다.

노강산방에서 과작하다 8수 병신년(1956)

蘆岡山房課作 八首

丙申

1

| | |
|---------|-----------------------------------|
| 鎮日書聲碧澗東 | 푸른 시내 동쪽에 종일 독서소리 |
| 茅茨兀兀夕陽紅 | 호젓한 초당에는 석양빛이 붉구나 |
| 尼父當年嘆水逝 | 당년 공자는 서수 ¹³⁹ 를 탄식했는데 |
| 嗣宗何事哭途窮 | 사중은 어이타 막힌 길에 통곡했나 ¹⁴⁰ |
| 兒去沽樽衝暮雨 | 아이는 저녁 비 맞으며 술을 사오고 |
| 客來無語倚春風 | 객은 와서 말없이 봄바람을 맞노라 |
| 遙遙尙友千秋上 | 멀리 천 년 전 고인을 벗 삼으니 |
| 奇氣嶙峋欲摩空 | 기특한 기운은 높이 허공에 닿을 듯 |

2

| | |
|---------|-----------------------------------|
| 過雨前山第幾峯 | 비가 앞산의 몇 개 봉우리 지났느냐 |
| 依稀一幅畫圖容 | 어렴풋이 한 폭 도화의 모습일세 |
| 捲簾遙望迷雲黛 | 발 걸으며 멀리 운대 ¹⁴¹ 가 아득한데 |
| 依几閒聽隔水春 | 안개 기대 한가히 물 건너 방아 듣는다 |
| 鄉愁暗逐春波動 | 향수는 가만히 봄 물결 좇아 일고 |
| 詩興微隨雨意濃 | 시흥은 은근히 우의 따라 짙어진다 |
| 日暖群生皆自得 | 날이 따스해 군생도 모두 자득하니 |

139 서수(逝水) : 서수는 쉼 없이 흐르는 물을 말한다. 『논어』 「자한(子罕)」에 “공자께서 시냇가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는 것이 이 물과 같구나.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른다.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다.

140 사중은 …… 통곡했나 : 사중은 완적 위(魏)나라 완적(阮籍)을 말한다. 완적이 울분을 달래려고 혼자 수레를 타고 나갔다가 길이 막히면 문득 통곡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晉書』 卷49 「阮籍列傳」

141 운대 : 구름에 덮인 검푸른 산을 말한다.

溪堂高午趁衙蜂 계당의 정오 벌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3

| | |
|---------|----------------------------------|
| 風塵滾滾此何時 | 풍진이 계속되니 이 어느 시절인고 |
| 閉戶看書歲月遲 | 문을 닫고 독서하니 세월은 더디네 |
| 避世擬追鹿門跡 | 세상 피해 녹문의 자취 ¹⁴² 추구하고 |
| 驚人欲效草堂詩 | 사람을 놀렐 초당시 ¹⁴³ 를 본뜨려네 |
| 海面不波渾似碧 | 해면은 파도 잔잔하여 모두 옥빛이고 |
| 山容過雨更呈奇 | 산 모습은 비 지나자 더욱 기특하네 |
| 一川鷗鷺深盟久 | 시내의 구로와 깊은 맹약한 지 오래라 |
| 心事生平爾自知 | 평생의 심사를 너희들만 절로 알리라 |

4

| | |
|---------|-----------------------------------|
| 水竹爲隣此可居 | 수죽을 이웃한 이곳 거처할 만하니 |
| 蝸廬俯仰不求餘 | 작은 집 부양하며 여분 구하지 않네 |
| 樽留昨日新除酒 | 술 단지엔 어제 새로 산 술 남았고 |
| 案積經年未答書 | 책상엔 해 가도록 답장 못한 편지들 |
| 散粒相招天驥鶴 | 날알 뿌려 장천기의 학을 불러오니 ¹⁴⁴ |

142 녹문의 자취 : 후한(後漢) 방덕공(龐德公)의 고사를 가리킨다. 방덕공은 방공(龐公) 또는 방거사(龐居士)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는 남군(南郡)의 양양(襄陽)에 살았는데, 형주 자사(荊州刺史) 유표(劉表)가 초빙하자 나아가지 않고 가솔을 모두 거느리고 녹문산(鹿門山)에 들어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後漢書』卷83「逸民列傳 龐公」

143 초당시 : 시성(詩聖)이라 불리는 두보(杜甫)의 시를 말한다. 초당(草堂)은 두보(杜甫)가 일찍이 성도(成都)에 우거할 때 거주했던 집으로, 완화계(浣花溪)가에 있어 일명 완화초당(浣花草堂)이라고도 한다.

144 장천기(張天驥)의 학을 불러오니 : 장천기는 송대(宋代)의 은사로 자는 성도(聖途)이고 호는 운룡산인(雲龍山人)인데, 그가 일찍이 운룡산(雲龍山)에 은거하면서 학(鶴) 두 마리를 길렀던바, 학들이 매우 잘 길들여져서, 매일 아침마다 산인이 서산(西山)을 향하여 놓아주면, 저물녘에는 학이 스스로 동산(東山)을 향하여 돌아오곤 하였으므로, 소식

對盤何必馮驩魚 소반 대함에 풍환의 물고기 필요하라¹⁴⁵
 從古雲林疏世客 예부터 운림에서 세상 멀리한 객들은
 幾多磊落傲簪裾 몇이나 뇌락하게 벼슬을 경시했던가

5

茅屋數椽月一湖 달빛 호숫가 자그만 모옥에서
 漁樵結社却忘孤 어초와 결사하여 외로움 잊노라
 延年時閱丹砂訣 수명 늘릴 단사결 때로 열독하고
 醫俗常懸脩竹圖 속됨 치료할 수죽도 늘 걸었네
 靑山猿鶴盟愈密 청산 원학의 맹약 더욱 친밀하니
 紫陌塵埃夢亦無 자맥¹⁴⁶의 티끌은 꿈에도 없어라
 午睡溪亭醒未盡 계정의 낮잠에도 술은 깨지 않는데
 林禽底意慢相呼 숲 새는 무슨 뜻으로 부질없이 부르는가

6

東風三月古城西 봄바람 불어오는 삼월 고성외 서쪽
 江水沈沈萬柳低 깊은 강물에 수많은 버들 드리웠다
 苔長石澗啣嚙鹿 이끼 자란 돌 시내엔 사슴이 울고
 日午山村啞喔鷄 한 낮의 산촌에는 꼬끼오 닭이 운다
 花間酒熟行歌客 꽃 사이에 술이 익어 객은 노래하고

(蘇軾)이 일찍이 그의 초당(草堂)인 방학정(放鶴亭)에 대한 기문(記文)을 지어 주었다.
 『東坡全集』卷36 「放鶴亭記」

145 풍환의 …… 필요하라 : 전국 시대 제(齊)나라 풍환(馮驩)이 맹상군(孟嘗君)의 식객(食客)이 되었을 때, 밥상에 고기반찬이 없자 장검의 칼자루[長鋏]를 두드리면서 “장검이여 돌아가자, 밥상에 고기가 없으니. [長鋏歸來乎 食無魚]”라고 노래했다.
 『戰國策』 「齊策4」

146 자맥(紫陌) : 변화한 도성을 말한다.

天末鴻歸寄字妻 하늘 끝 기러기에 치는 편지 부친다
 雲物怡人春似海 바다 같은 봄빛에 풍광이 기쁘게 하니
 山禽向我盡情啼 산새는 나를 향해 정을 다해 지저귐다

7

悠悠萍跡幾經春 유유한 부평초 자취 몇 해나 지났나
 春盡江湖意轉新 봄 다한 강호엔 뜻이 더욱 새로워라
 評碁一局留佳客 바둑 한판 두며 좋은 손님 만류하고
 裁簡數行寄故人 편지 몇 줄 적어 고인에게 부친다
 鄉夢纔歸千里外 꿈길에서 천리 밖 고향으로 가자마자
 鍾聲忽報五更晨 종소리는 홀연 오경의 새벽을 알린다
 何當占了梅兼竹 언제나 매화와 대나무를 차지하고서
 剩作園林伴鶴身 넉넉히 원림의 학을 벗 삼아 노닐까

8

靑衿四海好爲群 사해의 청금과 좋은 무리 이루어서
 話到三分情十分 삼 푼을 얘기하나 정의는 가득하네
 獨向郢門歌白雪 홀로 영문에서 「백설가」를 노래하니¹⁴⁷
 誰曾洛水望靑雲 누가 낙수에서 청운을 바라보았나

147 영문에서 …… 노래하니 : 옛날 초나라의 「백설(白雪)」, 「양춘(陽春)」 두 가곡(歌曲)은 곡조가 매우 고상하여 창화(唱和)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다. 송옥(宋玉)의 「대초왕문(對楚王問)」에 “영중에서 노래하는 나그네가 있어 맨 처음 「하리곡」, 「파인곡」을 노래하자, 국중에서 그것을 이어 창화하는 자가 수 천 인이었고, 「양아곡」, 「해로곡」을 노래하자, 국중에서 그것을 이어 창화하는 자는 수백 인이었고, 「양춘곡」, 「백설곡」을 노래하자, 국중에서 그것을 이어 노래하는 자는 수십 인에 불과했으니, … 이는 곡조가 고상할수록 창화하는 자가 더욱 적기 때문이다. [客有歌于郢中者 其始曰下里巴人 國中屬而和者數千人 其爲陽阿薤露 國中屬而和者數百人 其爲陽春白雪 國中屬而和者不過數十人 … 是其曲彌高 其和彌寡]”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芳草烟深愁黯黯 방초에 안개 깊어 시름이 어둡고
東園花落醉紛紛 동원에 꽃 지니 어지러이 취한 듯
茶臼聲高午眠醒 다구 소리 높아 낮잠에서 깨어나
開箱更檢舊詩文 상자 열어 다시 옛 시문 점검하네

또 9수 정유년(1957)

又 九首 丁酉

1

| | |
|---------|-------------------------------------|
| 飄蓬又此貝城東 | 썩대처럼 떠돌다 패성 ¹⁴⁸ 동쪽에 와 |
| 獨對書燈萬念空 | 홀로 서등 대하니 만념이 사라진다 |
| 寄跡荒山茅屋裏 | 황산의 모옥에 발자취 기탁하고서 |
| 玩心千古簡編中 | 천고의 간편을 마음으로 완미한다 |
| 擇居難得詹公卜 | 택거에 첨공의 점을 얻기 어렵나니 ¹⁴⁹ |
| 消吝今誰叔度風 | 지금 누가 비린 없앨 속도의 풍모일까 ¹⁵⁰ |
| 梅亦遽然謝枝盡 | 매화도 어느덧 가지에서 다 떨어지고 |
| 耐看庭栢照窓紅 | 뜰의 잣나무만 창을 붉게 비친다 |

2

| | |
|---------|-----------------------|
| 爲忘塵事臥林窓 | 진세의 일 잊으려 숲 창에 누우니 |
| 脩竹千竿月一江 | 수죽 천간에 강물에 비치는 달빛 |
| 烹茶火活因溫酒 | 차 다리는 불이 세니 술까지 데우고 |
| 馴鶴糧多又參苓 | 학 기르는 곡식 많아 삼살개도 기른다 |
| 覓句支頤心獨苦 | 시구 찾아 턱을 괴니 마음 홀로 괴롭고 |

148 패성(貝城) : 전라남도 보성(寶城)을 가리킨다.

149 택거에 …… 어렵나니 : 첨공은 초(楚)나라의 정첨윤(鄭詹尹)을 말한다. 굴원이 참소를 받고 쫓겨난 뒤 마음이 괴롭고 출처를 결단하지 못하여 첨공에게 점을 치러 갔다. 『楚辭』 「卜居」

150 속도의 풍모일까 : 속도(叔度)는 후한(後漢) 때의 사람 황헌(黃憲)의 자이다. 그는 자품이 청수하고 총명하여 당시 사람들로부터 안자(顔子)에 비유되기까지 했는데, 그와 같은 고을 사람인 진번(陳蕃)과 주거(周舉)는 항상 말하기를 “두어 달만 황생을 보지 못하면 마음속에 비린한 생각이 다시 싹터 버린다. [時月之間不見黃生 則鄙吝之萌 復存乎心]”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53 「黃憲列傳」

迎春蠟屐興無雙 봄 맞아 납극¹⁵¹하는 흥 견줄 것 없네
何當身在蘆山裏 어느 때나 몸은 노산 가운데 있으면서
寫得歐陽筆似杠 긴 장대 같은 구양수의 글 묘사해볼까¹⁵²

3

風塵滾滾此何時 풍진이 끝없는 이 무슨 시절이고
莫恨如雲富貴遲 뜬구름 부귀 더디다 한하지 말라
世事輸贏碁一局 세상의 영고성쇠는 한판의 바둑
春愁裊曳柳千枝 춘수는 수많은 버들가지에 끝린다
杯裏聖賢劉伶樂 술잔 속 성현¹⁵³은 유령¹⁵⁴의 즐거움
琴中山水子期知 거문고의 산수는 종자기만 알 뿐¹⁵⁵

-
- 151 납극(蠟屐) : 진(晉)나라 완부(阮孚)가 나막신에 항상 밀랍을 반들반들하게 칠해서 신은 습벽을 지니고 있었는데, 언젠가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갔을 때 밀랍을 칠하는 일을 태연히 계속하면서 “일생 동안 이런 나막신을 몇 켤레나 신을지 모르겠다. [未知一生當着幾緇屐]”라고 탄식했다는 ‘납극(蠟屐)’의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雅量」
- 152 어느 …… 묘사해볼까 : 송나라의 문장가인 구양수가 동년 진사인 유환(劉渙)이 벼슬을 버리고 여산 남쪽으로 옮겨가자 그 절개를 높이 여기며 「여산고(廬山高)」를 지었다. 시의 끝에 “장부의 장절은 그대만한 이 드물 테니, 아, 내가 그걸 말하려고 긴 장대 같은 큰 붓을 어떻게 얻으랴. [丈夫壯節似君少 嗟我欲說安得巨筆如長杠]” 하였다. 긴 장대 같은 붓이란 웅건(雄健)한 문장력을 말한다.
- 153 성현(聖賢) : 청주와 탁주를 말한다. 한말(漢末)에 기근이 심해서 조조(曹操)가 금주령(禁酒令)을 내리자 주객(酒客)들이 술이라는 말을 피하기 위하여 청주를 성인이라 하고 탁주를 현인이라고 불렀던 ‘청성탁현(淸聖濁賢)’의 고사가 있다. 『三國志』 卷91 「魏志徐邈傳」
- 154 유령(劉伶) :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으로 자는 백륜(伯倫)이다. 유령은 남달리 술을 좋아하여 늘 녹거(鹿車)를 타고 한 호로병의 술을 가지고 다녔는데, 한 사람에게 삼을 메고 따라다니게 하여 자기가 죽으면 그 자리에 묻어 달라고 하였다. 『晉書』 卷49 「劉伶列傳」
- 155 종자기만 알 뿐 : 옛날에 백아(伯牙)는 거문고를 잘 타고 그의 친구 종자기(鍾子期)는 소리를 잘 알아들었다. 백아가 일찍이 높은 산에 뜻을 두고 거문고를 타자, 종자기가 듣고 “좋다, 높다란[峨峨] 것이 마치 태산(泰山) 같구나.”라고 하였고, 또 백아가 흐르는 물에 뜻을 두고 거문고를 타자, 종자기가 듣고 “좋다, 광대한[洋洋] 것이 마치 강하(江河) 같구나.”라고 하였다. 『列子』 「湯問」

人生還似浮萍跡 인생은 도리어 부평초와 같으니
滿目滄波任所之 눈 가득한 창파는 멋대로 흐른다

4

山堂窈窕畫關扉 산당은 깊숙하여 낮에도 사립문 닫혔고
庭外時看鳥倦歸 뜰 밖에서 때때로 지친 새가 돌아온다
取醉夜頻傍酒檠 취하고자 밤이면 주합 자주 가까이 하고
慙寒春尙着綿衣 추위가 겁나 봄에도 여전히 솜옷 입는다
思治幾望渭川釣 치세 생각하며 얼마나 위천 조수¹⁵⁶를 바랐나
學淸要採首陽薇 청렴을 배우려면 수양산 고사리¹⁵⁷ 캐야 하리
吾生祇恐緇塵汚 나의 삶 다만 검은 먼지 물들까 두려우니
固守初盟願勿違 처음 맹세 굳게 지켜 어기지 않길 원하네

5

水竹清閒可卜居 수죽이 청한하여 복거할 만하니
軒風窓月世情疎 헌창의 풍월에 세정이 멀어진다
春深峽國催耕鳥 봄 깊은 산골엔 새는 경작을 재촉하고
水泮滄江上釣魚 얼음 풀린 창강엔 물고기는 낚시를 문다
磊落要成千載業 빼어난 천년의 사업을 이루려고
辛勤次讀五車書 애써 차례로 오거서¹⁵⁸를 읽노라

156 위천(渭川) 조수 : 훌륭한 현인을 말한다.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이 위수(渭水) 가의 반계(磻溪)에서 낚시질하다가 문왕(文王)을 처음 만나 사부(師傅)로 추대되었다. 뒤에 문왕의 아들인 무왕(武王)을 도와서 은(殷)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하였다.

157 수양산 고사리 : 수양산(首陽山)에서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고사리만 뜯어 먹다가 죽었다는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가리킨다.

158 오거서(五車書) : 전국 시대 명가(名家)의 대표적 인물인 혜시(惠施)에 대해서, 장자(莊子)가 “그의 학술은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책이 다섯 수레나 된다. [惠施多方 其書五車]”라고 말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박학다식하여 학문의 세계가 넓은 것을 비유할

人生此世誠難再 이승의 삶은 다시 오기 어려우니
 安得無爲牛馬裾 어찌 하는 일 없이 옷 입은 금수 되랴¹⁵⁹

6

何處江湖可隱居 어느 곳 강호가 은거할 만할까
 硯田生計未全疎 연전의 생계¹⁶⁰도 전혀 소홀하지 않다네
 片時晝枕迷蕉鹿 잠깐의 낮잠에 초록¹⁶¹이 미혹한데
 十里故人寄雁魚 십리 밖 친구에게 안어¹⁶²를 붙였다

때 흔히 쓰는 말이다. 『莊子』「天下」

159 옷 입은 금수 : 한유(韓愈)의 「부독서성남(符讀書城南)」시에 “사람이 고금을 통하지 못 하면, 마소에 사람 옷 입혀 놓은 것과 같다. [人不通古今 馬牛而襟裾]”라는 말이 나온다. 『韓昌黎集』

160 연전(硯田)의 생계 : 문필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161 초록(蕉鹿) : 옛날에 정(鄭)나라 사람이 뿔나무를 하다가 사슴을 잡아서 남이 볼까 깊은 구덩이에 감춰 두고 파초(芭蕉) 잎으로 덮어 놓았다. 이윽고 그 사슴 감춰 둔 곳을 잊어 버리고는 마침내 꿈이라 여기고 길을 가면서 계속 그 사실을 혼자 증명거렸다. 곁에서 그 말을 들은 자가 마침내 그의 말대로 그곳을 찾아가 사슴을 취하고, 그가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말하기를 “아가 뿔나무 하던 사람은 꿈에 사슴을 얻고도 그곳을 알지 못 했고, 내가 지금 그 사슴을 얻었으니, 저 사람은 참으로 꿈을 꾸 사람일 뿐인 것이다. [向薪者夢得鹿而不知其處 吾今得之 彼眞眞夢者矣]”라고 했다. 전하여 득실(得失)의 무상(無常)함을 비유한다. 『列子』「周穆王」

162 안어(雁魚) : 안어는 모두 서신을 이르는 말이다. 안어의 안(雁)은 옛날 기러기발에 서신을 묶어 날려 보내서 소식을 전달했다는 한(漢)나라 소무(蘇武)의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무제(武帝) 때 소무가 흉노(匈奴)에 사신으로 갔는데, 흉노의 선우(單于)가 그를 굴복시키려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가해도 소용이 없자, 북해(北海) 주변의 황량한 변방에 그를 안치하고 양을 치게 하였다. 뒤에 소제(昭帝)가 흉노와 화친을 맺고 소무를 돌려 보내 줄 것을 요청하자, 흉노 측에서는 소무가 이미 죽었다고 속였다. 이에 한나라 사신이 “우리 천자가 상림원에서 기러기를 쏘아 잡았는데, 기러기 발목에 묶인 편지에 ‘소무 등이 어느 늑 속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天子射上林中得雁 足有係帛書言武等在某澤中]”라고 다그쳐서, 소무가 19년 만에 귀국하게 되었다. 안어의 어(魚)는 잉어를 가리키는바, 악부(樂府) 상화가사(相和歌辭) 「음마장성굴행(飲馬長城窟行)」에 “손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잉어 두 마리를 주길래, 아이 불려 두 잉어를 삶게 했더니, 배 속에서 짙짙한 서신이 나오네. [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 呼兒烹鯉魚 中有尺素書]”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이 역시 서신을 가리킨다. 『漢書』卷54 「蘇建傳 蘇武」, 『文選』卷14 「古樂府」

| | |
|---------|-------------------------------------|
| 遊山興與謝公展 | 유산의 흥 사공의 신발 ¹⁶³ 과 함께 하고 |
| 玩世情深莊子書 | 완세의 정은 장자의 책이 깊기만 하네 |
| 碧海接天雲漠漠 | 벽해는 하늘에 닿아 구름만 막막한데 |
| 詩樽那日盍簪裾 | 시와 술로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할까 |

7

| | |
|---------|----------------------|
| 書聲鎮日碧溪西 | 벽계 서쪽에 종일 독서 소리 들리고 |
| 短短疎籬一屈低 | 키 작은 성긴 울타리는 낮게 깔렸다 |
| 身擬雲霄千里鵠 | 몸은 멀리 구름하늘 고니를 본뜨고자 |
| 夢醒風雨五更鷄 | 꿈은 비바람 치는 오경 닭소리에 깬다 |
| 垂綸據石蒼苔上 | 창대 바위에 앉아 낚싯줄 드리우고 |
| 吹笛放牛芳草堤 | 방초 제방엔 피리 불며 소를 놓는다 |
| 愁興淺深難較得 | 시름과 흥의 깊이를 견주기 어려운데 |
| 山禽何事盡情啼 | 산새는 어인 일로 정겹게 울어대는고 |

8

| | |
|---------|-----------------------|
| 半掛疎簾日迎春 | 성긴 주발 반쯤 걸어 봄날을 맞이하니 |
| 青山面面雨餘新 | 청산은 면면마다 비 지난 뒤 새롭구나 |
| 可是竹間觀奕客 | 대숲 사이 바둑 보는 객들 좋기 만한데 |
| 幾多林下把杯人 | 숲 아래 술잔 잡는 이는 몇이나 되었고 |
| 裁蔬滿圃盤常侈 | 밭 가득 채소 심어 소반이 항상 넘치고 |
| 寫畫千箋屋不貧 | 수많은 그림 그려 집도 가난하지 않구나 |
| 閱來世事雙瞳碧 | 세사를 겪고 나서 두 눈동자 더 푸르니 |

163 사공(謝公)의 신발 : 남조 송(南朝宋)의 시인 사영운(謝靈運)이 명산을 유람할 적에 산을 오를 때에는 나막신[屐]의 앞굽을 떼어 버리고 산을 내려올 때는 뒷굽을 떼어 걷기에 편리하도록 했다는 고사가 있다. 『宋書』 卷67 「謝靈運列傳」

誰復濟斯苦海津 누가 다시 이 고해의 나루터를 건네줄까

9

千里君歸欲暮春 천리 길 저문 봄에 그대가 돌아가니
清儀夜來入夢新 밤이면 맑은 위 의(威儀) 꿈속에 새로 든다
今古難爲名下士 고금에 명리 아래 선비 되기 어려우니
塵寰誰復意中人 티끌세상 누가 다시 의중인¹⁶⁴ 되리요
赴羶蟻鬪真堪笑 비린내에 달려드는 개미떼가 우습나니
當祿書多莫患貧 봉록 대신할 서책 많아 가난을 근심 않네
已識蹲鴟沃州大 이미 옥주에 준치¹⁶⁵가 큰 것 알았으니
秋風一問錦江津 가을바람에 한 번 금강나루를 물으리라

164 의중인(意中人) :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다. 도연명(陶淵明)의 「시주 속지조기사경이삼랑(示周續之祖企謝景夷三郎)」에 “나의 의중인을 생각한다. [念我意中人]” 하였다.

165 준치(蹲鴟) : 토란의 별명으로, 그 모양이 올빼미가 웅크리고 앉은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선명한 대인 남헌공의 71세 생일을 축하하며

賀宣炳翰大人南軒七十一生朝

朱顏華髮七旬春 백발의 흥안으로 칠순의 봄을 맞아
置酒高堂集四隣 고당에 잔치 열어 사방 이웃 모였네
閱盡眼前滄海劫 눈앞의 창해의 세월을 다 겪고 나서
化來天上石麒麟¹⁶⁶ 드디어 천상의 석기린¹⁶⁶이 되었구나
苦心曾育菁莪士 고심으로 일찍 청아의 선비¹⁶⁷ 길렀고
惠利偏霑蔀屋貧 은혜는 더욱 가난한 선비를 덮었도다
玉枝闌珊庭際窄 푸른 가지¹⁶⁸는 찬란하여 뜰이 좁으니
世間完福更誰人 세간에 온전한 복을 누린 이 누구인가

166 천상의 석기린 : 석기린은 『진서(陳書)』 권26 「서릉열전(徐陵列傳)」에 “서릉(徐陵)의 나이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집안사람이 데리고 가서 보였더니 보지(寶誌)스님이 ‘천상의 석기린(天上石麒麟)이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남의 자제를 칭찬하는 말이다.

167 청아(菁莪)의 선비 : 『시경』 「청청자아(菁菁者莪)」에 “무성한 다복쑥이 저 물가에 있다. [菁菁者莪 在彼中沚]”라고 하였다. 이는 인재를 교육하여 무성한 다복쑥을 기름과 같이 한다는 뜻이다.

168 푸른 가지(玉枝) :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다.

춘일즉사 2수
春日卽事 二首

1

| | |
|---------|----------------------|
| 幾度尋春海上村 | 몇 번이나 바닷가 마을 봄을 찾았나 |
| 殘梅籬落月黃昏 | 뜰의 쇠잔한 매화에 황혼의 달빛이라 |
| 家久無書知雁盡 | 기러기 그쳐 집 편지는 끊긴 지 오래 |
| 兒頻問字苦門喧 | 아이는 자주 글자 물어 집은 시끄럽다 |
| 世事蒼茫無際畔 | 세상의 일은 창망하여 끝이 없으니 |
| 人生邂逅此乾坤 | 인생은 이 천지에서 우연히 만났을 뿐 |
| 何當掃却塵愁了 | 언제나 티끌 시름 모두 쓸어버리고 |
| 拂石青山醉一番 | 청산의 바위 쓸고서 한 번 취해볼까 |

2

| | |
|---------|-----------------------|
| 振衣斜日下江干 | 지는 해에 옷을 털고 강가로 내려가서 |
| 雲物要人住杖看 | 맞아주는 풍광을 지팡이 짚고 바라본다 |
| 壠間稚麥方愁旱 | 밭두둑 어린 보리 막 가뭄을 시름하고 |
| 巖底小花尙怯寒 | 바위 밑 작은 꽃은 아직 추위를 겁낸다 |
| 幾處長吟費翰墨 | 얼마나 유장히 읊으며 한묵을 허비했나 |
| 如今徒讀愧儒冠 | 이젠 한갓 책만 읽어 유관이 부끄럽네 |
| 更待沙頭圓月上 | 다시 모래톱에 둥근 달 오르길 기다려서 |
| 愁腸灌酒覺懷寬 | 마음근심 술로 씻으니 회포가 넓어진다 |

귀향하는 도중에

歸鄉途中

| | |
|---------|-------------------|
| 家鄉百里路間關 | 고향 집 백리 길은 험난하기만 |
| 一夜雙親承候安 | 하룻밤 부모님 안부를 살폈다 |
| 颯颯風生車底轂 | 수레의 바퀴통엔 바람이 일고 |
| 茫茫煙起馬頭山 | 말머리 산엔 망망한 안개 낀다 |
| 世人枉作千年計 | 세인은 괜히 천년의 계책 세우니 |
| 塵界難尋半日閒 | 속세엔 반나절 잠도 찾기 어렵다 |
| 竹屋深深花砌暖 | 깊은 대 집 꽃핀 섬돌 따스하니 |
| 入門欣對弟兄顏 | 문에 들어 기쁘게 형제를 맞는다 |

산당에서 회포를 풀다 4수

山堂遣懷 四首

1

| | |
|---------|-----------------------------------|
| 杏花冉冉燕來天 | 부드러운 살구꽃 제비가 오는 하늘 |
| 山日遲遲可抵年 | 산골의 해 더디니 한 해를 대적한다 |
| 提壺勸飲春城酒 | 제호 ¹⁶⁹ 는 춘성의 술 마시길 권하고 |
| 布穀催耕峽國田 | 벼꾸기는 산골 밭을 갈라고 재촉한다 |
| 遊神劈摺詩書裏 | 정신은 첩첩한 시서 속에 노닐고자 |
| 買屋清閒水竹邊 | 맑고 한가한 수죽 가에 집을 샀다네 |
| 回首乾坤知己少 | 천지를 돌아봐도 마음 아는 이 적으니 |
| 東風留客更叩絃 | 동풍에 손님 잡으며 다시 현을 뜬다 |

2

| | |
|---------|--------------------------------------|
| 幾度跨驢憶灞橋 | 몇 번이나 나귀 타고 파교 ¹⁷⁰ 를 생각했나 |
| 有人文酒輒相招 | 사람 있으면 시와 술로 문득 부르다네 |
| 栽花一院蒸霞氣 | 뜰에 꽃을 심으니 노을이 피어오르고 |
| 築室高岡望海潮 | 높은 산에 집을 지으니 해조가 보인다 |
| 幽客煎茶松子火 | 그윽한 객은 솔방울 불로 차를 다리고 |

169 제호(提壺) : 제호로(提壺蘆)라는 새가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한문으로 술병을 들라는 뜻이 된다. 백거이(白居易)의 시 「조춘문제호조인제런가(早春聞提壺鳥因題鄰家)」에 “가를 원숭이 눈물 재촉하는 소리는 듣기 싫고, 봄새의 술병 들라 권하는 소리는 듣기 반갑네. [厭聽秋猿催下淚 喜聞春鳥勸提壺]” 하였다.

170 파교(灞橋) : 성당(盛唐)의 시인 맹호연(孟浩然)은 눈발이 휘날리는 파교(灞橋) 위를 나귀 타고 지나갈 때 가장 멋진 시상(詩想)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소식(蘇軾)의 시에 “그대는 또 못 보았는가 눈 속에 나귀 탄 맹호연을, 시 읊느라 찌푸린 눈썹 산처럼 솟은 두 어깨를. [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이라는 명구가 있다. 『蘇東坡詩集』 卷12 「贈寫真何充秀才」

親朋寄字月明宵 친한 벗은 달 밝은 밤 편지를 부쳐왔네
 紫陌塵中橫駟馬 도성의 풍진에 사마로 횡행함아
 何如山野任逍遙 산야에 마음껏 소요하는 것과 어떠한고

3

漁樵結社倚江臯 어초와 결사하여 강 언덕에 사노라니
 門外波濤幾尺高 문밖의 파도는 높이가 몇 척이고
 舉世靡風紛役役 온 세상이 풍파에 어지럽게 부러지니
 百年如水逝滔滔 백년세월 물처럼 도도하게 흐른다
 那堪諸弟別多日 여러 아우들과 오랜 이별 어찌 견디랴
 每嘆雙親催二毛 매번 부모님 귀밑머리 희어짐을 탄식하네
 遮莫越中群吠雪 월나라 못 개가 눈을 보며 짓건 말건¹⁷¹
 可能群吠亂吾曹 어찌 못 개가 우리를 어지럽게 하랴

4

萬樹參差一逕斜 빳긴 오솔길에 나무들이 들쭉날쭉
 傍溪瀟灑有人家 개울가 소쇄한 곳 인가가 있구나
 坐看籬落知還鳥 앉아 울타리에 돌아오는 새를 보고
 臥聽池塘亂吠蛙 누워 지당에 개구리 소리 듣는다

171 월나라 …… 말건 : 유종원(柳宗元)의 「답위중립논사도서(答衛中立論師道書)」에 무도한 세상에서 한유(韓愈)가 사설(師說)을 짓고 인하여 당당하게 후학들을 모아 가르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괴이하게 여겨서 서로 욕하고 헐뜯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굴자(屈子)의 노래에 ‘읍(邑)의 개들이 짓어 대는 것은 괴상한 것을 보고 짓는 것이다.’ 하였는데, 내가 예전에 용(庸)·축(蜀) 남쪽 지역에는 늘 비가 오고 해가 뜨는 날이 적어 해가 나오면 개들이 짓는다고 하기에 과장된 말이라 여겼다. 그런데 6, 7년 전에 내가 남쪽으로 왔는데 원화(元和) 2년 겨울에 큰 눈이 내려 오령(五嶺) 이남 남월(南越) 지역을 모두 덮었다. 이에 몇 고을의 개들이 모두 며칠 동안 놀라 어쩔 줄 모르며 마구 물어뜯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눈이 그치자 잠잠해졌다.” 하였다.

落日壯心歌白石 낙일에 장심으로 백석을 노래하니
百年謬計煮丹砂 백년에 단사 다리는 계획 그르쳤다
春盡江南謀一醉 봄 다한 강남에 한번 취하길 꾀해
携樽更覓葉間花 술병 들고 다시 잎 사이 꽃을 찾는다

자송 양동하에게 주다

贈梁子松東厦

| | |
|---------|-------------------------------------|
| 紅泉翠竹一茅堂 | 붉은 샘과 푸른 대 어울린 모당 하나 |
| 磨杵匡山歲月長 | 광산에서 유장한 세월 학문에 힘썼다 ¹⁷² |
| 燈前十載酬翰墨 | 등 앞에 십년 동안 한묵으로 수창하고 |
| 花下幾番倒酒觴 | 꽃 아래 몇 번이나 술잔을 기울였나 |
| 春風放棹知何處 | 봄바람에 어디서 노를 놓고 노닐었나 |
| 他日停雲覺異鄉 | 훗날 정운 ¹⁷³ 을 보고 타향임을 느낀다 |
| 筵前爲唱金縷曲 | 자리 앞에서 「금루곡」 ¹⁷⁴ 을 노래하나니 |
| 入山初志肯相忘 | 입산하던 처음 뜻을 어찌 잊을 것인가 |

172 광산에서 …… 힘썼고 : 이백(李白)의 고사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이백(李白)이 소릿적에 독서하다가 그만두고 여산(廬山)을 내려올 적에 길에서 노파가 공이를 갈고 있으므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바늘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이백이 이 대답을 듣고는 반성하며 다시 돌아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마저성침(磨杵成針)의 고사가 전한다. 광산(匡山)은 여산의 별칭이다. 『蜀中廣記』 卷12

173 정운(停雲) : 도연명(陶淵明)이 친우를 생각하며 지은 「정운(停雲)」이라는 제목의 사언시에 “몽게몽게 제자리에 서 있는 구름이요, 부슬부슬 제때에 내리는 비라. [靄靄停雲濛濛時雨]”라는 말이 나온다. 『陶淵明集』 卷1

174 금루곡(金縷曲) : 곡조(曲調) 이름으로 「금루의(金縷衣)」라고도 한다. 당(唐)나라 금릉(金陵)의 소녀(少女) 두추랑(杜秋娘)이 15세에 이기(李錡)의 첩(妾)이 되었는데, 이기를 위해 사(詞)를 지어 노래한 일이 있었다. 그 곡에 “주군께 권하노니 금색 실로 만든 옷을 아끼지 말고, 모름지기 소년 시절을 아껴야 하리. 꽃이 피어 꺾을 만하면 바로 꺾어 야 하니, 꽃 없어진 뒤에 부질없이 가지만 꺾지 마소서. [勸君莫惜金縷衣 勸君須惜少年時 花開堪折直須折 莫待無花空折枝]”라고 하였다.

하일즉사 7수
夏日卽事 七首

1

| | |
|---------|-----------------------|
| 一天如洗四郊青 | 하늘은 씻은 듯 사방 교외 푸르니 |
| 春盡更登江上亭 | 봄이 다할 때 다시 강가 정자에 오른다 |
| 送客微風芳草岸 | 미풍 부는 방초 언덕에 객을 보냄에 |
| 繫舟斜日白鷗汀 | 석양에 백구 노는 물가에 배를 맨다 |
| 遨遊翰墨心無俗 | 한묵에 소요하니 마음에 속기 없고 |
| 吟盡江山醉不醒 | 강산을 두루 읊어도 취기는 그대로 |
| 向晚村春猶未了 | 저물녘 절구질은 여전히 그치지 않아 |
| 花間藥臼隔溪聽 | 꽃 사이 약절구 소리 시내 건너 들린다 |

2

| | |
|---------|--------------------------------------|
| 詩思連綿第幾層 | 시상은 면면히 몇 층이나 되는가 |
| 危樓千尺墮還登 | 천 척 높은 누각 다시 오른다 |
| 句欲鏗鏘擲金響 | 시구는 쟁그랑 금속 소리 나는 듯 ¹⁷⁵ |
| 才誰爛漫入神能 | 재주 누가 원숙해 입신의 경지 들었나 |
| 中夜憂時頻看劍 | 중야에도 시절 근심해 자주 검을 보고 |
| 十年攻苦獨親燈 | 십년 세월 공부하며 홀로 등불 친했네 |
| 皇天應不虛生我 | 황천이 나를 헛되이 낳지 않았으리니 |
| 肯作區區附驥蠅 | 어찌 구구하게 천리마에 붙은 파리 되랴 ¹⁷⁶ |

175 시는 …… 나는 듯 : 진(晉)나라 때 손좌(孫綽)이 「천태산부(天台山賦)」를 짓고는 친구 범영기(范榮期)에게 말하기를 “자네가 이 글을 땅에 던져 보면 금속의 소리가 날 걸세. [卿試擲地, 要作金石聲.]”라고 하였다. 금속의 소리란 악기에서 나는 아름다운 소리로, 훌륭한 시문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晉書』 卷56 「孫綽列傳」

176 천리마에 붙은 파리 : 『사기(史記)」 「백이열전(伯夷列傳)」에 “안연(顏淵)이 비록 독실하

3

孤樓寄在澗西南 외로운 누각 시내 서남쪽에 자리하니
 偏愛疏簾滴翠嵐 성긴 주발 푸른 아지랑이 유달리 예쁘구나
 萬樹涼風侵午榻 서늘한 숲 바람 정오의 걸상 불어오고
 千峯斜日倒深潭 천봉의 지는 해는 깊은 연못 비친다
 每憐寂寂啖齋客 늘 가련타 쓸쓸히 냉이 먹는¹⁷⁷ 객이여
 誰作堂堂濟世男 누가 당당하게 시대 구할¹⁷⁸ 대장부인가
 無數青山相慰藉 무수한 청산이 나를 위로하여 주니
 餐霞枕石分爲甘 노을 먹고 돌에 누워 분수를 즐기리라

4

紛紛名利莫相求 분분한 명리를 구하지 말지어다
 白石清泉不妨幽 백석과 청천의 그윽함도 해롭지 않네
 招友時開裘仲徑 벗을 불러 구중의 삼경 열고자 하나
 無錢可買蔣公邱 장후의 언덕을 살 돈이 없구나¹⁷⁹
 得詩何處拈新境 어디서 시구 얻어 새 경계 드는고
 看畫晨燈憶舊遊 새벽 등에 그림 보며 옛일을 추억한다
 安得此身能自在 어찌하면 이내 몸 자유자재하여

계 학문을 닦긴 하였지만, 그래도 천리마 꼬리 끝에 붙었기〔附驥尾〕 때문에 그 행동이 더욱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하였다.

177 냉이 먹는 : 냉이는 사삼(沙蔘)과 비슷한 다년초(多年草)로, 송(宋)나라의 학자인 채원정(蔡元定)이 서산(西山)에서 공부할 적에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이것을 캐어 먹었다 한다.

178 시대 구할 : 두보의 「모친을 모시고 검중으로 돌아가는 왕판관을 전송하며 지은 ‘開’자를 운자로 쓴 시〔送王十五判官扶侍選黔中得開字〕에 “어렵고 위태로울 때 시대를 구할 재능에 깊이 의지하네. [艱危深仗濟時才]”라는 구절이 있다. 『杜少陵詩集』

179 벗 …… 없구나 : 한(漢)나라 때 장후(蔣詡)가 벼슬에서 물러나 두릉(杜陵)에 은거할 때, 대밭 아래에 세 갈래 오솔길을 만들고는 이 길을 절친한 벗인 구중(裘仲)과 양중(羊仲) 하고만 거닐었다고 한다. 『漢書』 卷72 「蔣詡傳」

免他泛泛若虛舟 저 흘러가는 빈 배 됨을 면할까

5

遙想岐山千載後 천년 후에 멀리 기산을 상상하니¹⁸⁰
萬邦荊棘少琅玕 만방엔 형극 뿐 낭간¹⁸¹은 적구나
史編讀盡腸中熱 역사를 읽고 나니 뱃속이 뜨겁고
世事嘗來齒欲寒 세사를 겪으며 치아가 시려진다
臥聽清溪鳴枕底 누워서 베개 밑 청계 소리 들으니
時疑仙侶在雲端 때론 신선이 구름 끝에 있는 듯
會待九苞千仞下 구포¹⁸²가 천 길에서 내려오길 기다리며
庭梧萃萃竹珊珊 뜰의 오동 무성하고 대나무 춤을 춘다

6

薄采汀蘭載一船 물가의 난초 캐어 배에 실으니
瘴煙漠漠水連天 자욱한 장연에 물은 하늘에 이어졌다
每思伴鵠雲中學 늘 흥곡을 짝해 구름으로 날기를 생각하니
恐被探珠海底牽 구슬 탐해¹⁸³ 바다 밑에 끌릴까 두렵네
浮世何人考在澗 뜬세상 누가서 물가에 고반¹⁸⁴할꼬

180 기산(岐山)을 상상하니 : 주(周)나라의 덕이 성대할 때 봉황이 기산에 날아와서 울었다 한다. 『시경』 「권아(卷阿)」에 “봉황새가 우니, 저 높은 언덕이로다. 오동나무가 자라니, 저 아침 해가 뜨는 동산이로다. [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 하였다.

181 낭간(琅玕) : 대나무를 비유하는 말이다. 낭간은 짙은 녹색 또는 청백색을 띤 옥이다.

182 구포(九苞) : 아홉 가지 깃털 색을 가진 봉황을 말한다.

183 구슬 탐해 : 『장자』 「천지(天地)」에 황제(黃帝)가 적수(赤水)에서 노닐고 돌아오는 도중에 현주(玄珠)를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찾지 못하다가 무심(無心)한 상망(象罔)이 찾았다는 고사가 있다. 이 시에서 재물을 탐하는 사람의 마음에 빗대어 말하였다.

184 고반 : 산림에 은거하며 안빈낙도하는 은사의 생활을 즐긴다는 말이다. 『시경』 「위풍(衛風) 고반(考槃)」에 “산골 시내에서 한가히 소요하니, 현인의 마음 넉넉하다. [考槃在澗 碩人之寬]” 하였다.

芳樽此日賓初筵 오늘 향기로운 술로 잔치를 열었다¹⁸⁵
 百年榮落終烏有 백년의 영고성쇠 끝내는 오유러니¹⁸⁶
 仰看青山俯濯泉 위로 청산을 보고 아래로 샘을 본다

7

吾道于今危一絲 우리의 도 오늘날 실을처럼 위태로워
 辭親百里每從師 백리에 부모 하직하고 늘 스승 따랐다
 莫恨穎錐處囊裏 자루에 처한 송곳을 한하지 말고¹⁸⁷
 第看秋水出硯時 갈고 다듬은 추수 같은 정신을 볼지어다
 衆卉園中何灼灼 정원의 못 꽃들은 얼마나 화사한지
 蒼松礪畔自遲遲 돌 시내 푸른 솔도 절로 의젓하구나
 已經桑海無量劫 이미 상전벽해의 무량한 세월 겪었으니
 肯負書燈卒歲期 서등으로 해를 마칠 기약 저버릴까

185 잔치를 열었다 : 『시경』 「소아(小雅) 빈지초연(賓之初筵)」에, “손님들이 잔치에 처음 모여선, 좌우로 질서가 정연하다. [賓之初筵 左右秩秩]” 한 데서 온 말이다.

186 오유러니 : 한(漢)나라의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자허부(子虛賦)」에서 자허·오유자·무시공(無是公)이라는 가공의 세 인물을 설정하여 문답을 전개했는데, 오유(烏有)는 ‘어찌 있겠느냐’는 뜻으로 실제로 없는 것을 말한다. 덧붙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187 송곳을 한하지 말고 : 전국 시대 평원군(平原君)의 식객(食客)이었던 모수(毛遂)가 “진작에 나를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게 하였다면, 송곳 끝이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송곳 자루 전체가 튀어나왔을 것이다. [使遂早得處囊中 乃穎脫而出 非特其末見而已]”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주를 과시했던 고사가 있다. 『史記』 卷76 「平原君列傳」

단오일에 송농 이동범 어른께서 마침 오셨기에 느낌이 있어서
端午日李松農翁東範適至有感

| | |
|---------|--------------------------------------|
| 索居忽覺故人遙 | 삭거 ¹⁸⁸ 하며 문득 벗이 멀다 느끼니 |
| 塊壘經春無處鎖 | 외로움은 봄이 지나도록 없앨 길 없어라 |
| 癯貌鶴依梅一樹 | 아윈 모습은 매화에 의지한 학이요 |
| 煩懷風拂柳千條 | 번뇌의 마음은 바람 스치는 버들가지라 |
| 菖蒲酒熟招魂日 | 창포로 빚은 술은 초혼날 ¹⁸⁹ 익어가고 |
| 艾葉人成逐癘朝 | 쑥 인형 ¹⁹⁰ 은 여역 쫓는 아침에 완성했네 |
| 百里今來高士駕 | 백리길에 이제야 고사의 수레 이르니 |
| 豪談傾海氣冲霄 | 호담은 바다 기울고 기는 하늘을 찌른다 |

188 삭거(索居) : 친지나 벗들과 헤어져서 혼자 외로이 사는 생활을 가리킨다.
『禮記』「檀弓上」

189 초혼날 : 단오절을 말한다. 전국 시대 초(楚)나라의 충신 굴원(屈原)이 5월 5일에 먹라수(汨羅水)에 빠져 죽었으므로 초나라 사람들이 슬퍼해서 해마다 이날이 오면 죽통(竹筒)에 쌀을 넣어 물에 던지며 제사 지냈다 한다. 초나라 시인 송옥(宋玉)이 「초혼(招魂)」을 지어 죄 없이 쫓겨난 굴원(屈原)을 위해 노래하였으므로 단오절을 ‘초혼일(招魂日)’이라고 한 것이다.

190 쑥 인형 : 5월 5일 단오절(端午節) 무렵이면 반드시 쑥을 채취하여 그것으로 인형(人形)을 만들어 문 위에 걸어서 독기(毒氣)를 물리친다는 형(荊)·초(楚)의 민속(民俗)에서 온 말이다.

송농께 올리다

呈松農

| | |
|---------|------------------------|
| 豪氣如虹百尺垂 | 무지개 같은 호기 백 척을 드리우니 |
| 臨風多日每馳儀 | 바람결에 많은 날을 사모했네 |
| 詩橐炎天揮汗至 | 시주머니 안고 더운 날 땀 흘리며 오시니 |
| 藍床梯院逐陰移 | 뜰의 푸른 평상 그늘 따라 옮기네 |
| 擬與遠圖大鵬起 | 멀리 남녘 도모해 대붕과 날아가려 하니 |
| 惟看清興白鷗知 | 맑은 흥취를 백구만이 알리로다 |
| 風流壓座松農子 | 좌중을 압도하는 풍류 넘치는 송농자여 |
| 偏愛翰林與墨池 | 한림과 목지를 매우 사랑하였네 |

신죽
新竹

數畝中間築一堂 몇 이랑 가운데 당 하나 지으니
琅玕碧立拂檐長 푸른 대가 처마 스치며 길게 뻗었다
幾過細雨娟娟淨 몇 번 가랑비 맞아 곱게 청정하고
乍起微風苒苒香 문득 부는 미풍에 싱그러운 향기रो다
晚節好爲松菊伴 歲寒에 슬과 국화의 좋은 짝이 되니
清姿合在橘柚鄉 맑은 자태 귤유¹⁹¹의 고크에 있어야 하리
新枝輒有干雲氣 새 가지에 구름에 솟는 기상 있으니
爲汝南風更引觴 남풍에 너를 위해 다시 술잔을 든다

191 귤유(橘柚) : 귤과 유자로, 천자에게 받치는 특별한 공물이다. 『서경』 「우공(禹貢)」에 “귤과 유자는 싸 두었다가 천자가 바치라 하면 바친다. [厥包橘柚 錫貢]”라는 말이 나온다.

보리를 베다

刈麥

| | |
|---------|-----------------------------------|
| 園竹齊抽蠶事忙 | 정원의 대 나란히 돌아 잡사가 바쁘니 |
| 千村萬落麥生香 | 수많은 촌락에 보리 향기 피어난다 |
| 瓶底垂空無彼此 | 피차없이 곡식은 향아리 밑까지 비었고 |
| 山疇未熟半青黃 | 산밭은 익지 않아 청황이 섞였다네 |
| 驅犢健夫擔數束 | 소를 모는 사내는 몇 속 보리를 메고 |
| 牽兒少婦戴傾筐 | 아이 끄는 어린 아낙 광주리를 이었네 |
| 休詫窮鄙今來足 | 곤궁한 집에서 넉넉하다 자랑 말라 |
| 已糶三春良可傷 | 이미 삼춘 곡식 팔았으니 ¹⁹² 슬프기만 |

192 이미 …… 팔았으니 :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고(生活苦)를 드러낸 시구이다. 당(唐)나라 섭이중(聶夷中)의 「상전가(傷田家)」라는 시에 “이월에 새 고치실을 미리 팔고, 오월이면 새 곡식 미리 팔아 세금 바치니, 우선 눈앞의 부스럼은 고치지만, 도리어 십장의 살을 도려내는구나. [二月賣新絲 五月糶新穀 醫得眼前瘡 剜却心頭肉]”라고 하였다.

목동의 피리 2수

牧笛 二首

1

杏花冉冉雨晴天 행화가 나풀거리는 비 갠 하늘
山日遲遲可抵年 산속 해는 더더 한해에 견줄 만하다
折枝爲笛垂楊下 수양 아래 가지 꺾어 피리 만들어
放轡猗巾芳草阡 방초 길에 고삐 놓고 두건 기울였다
窳戚動人歌磊落 영척의 뇌락한 노래¹⁹³ 사람 감동시키니
豫州立馬淚潸潸 예주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린다¹⁹⁴
溯江倒騎如圖寫 강 거슬러 말 거꾸로 타니¹⁹⁵ 그림과 같고
函谷青牛世共傳 함곡관 푸른 소는¹⁹⁶ 세상에 전해진다

2

燕掠平蕪江上天 강가 들판에 제비가 스쳐 날고
長堤吹笛破雲煙 긴 제방 피리 소리 운연이 흩어진다

193 영척의 …… 노래 : 영척이 매우 빈곤하여 제나라에 가서 우각(牛角)을 두드리며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노래하였다. “남산은 빛나고 백석은 깨끗하다. 태어나서 서로 선양 하던 요순시대 못 만나, 짧은 베 홑옷은 겨우 정강이만 가릴 뿐이네. 이른 새벽부터 한 밤중까지 소를 먹이노니, 긴 밤이 지루해라 언제나 아침이 올런고. [南山粲 白石爛 生不逢堯與舜禪 短布單衣裁至肝 從昏飯牛薄夜半 長夜漫漫何時旦]”

『呂氏春秋』, 『蒙求』, 『窳戚扣角』

194 예주: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유비를 말하는 듯하다.

195 말 거꾸로 타니 : 송(宋)나라 시인 반량(潘闓)의 「과화산(過華山)」시에 “하늘에 우뚝 솟은 세 봉우리가 너무 좋아서, 머리 돌려 읊으며 바라보다 나귀를 거꾸로 탔네. 옆 사람이 크게 웃지만 그야 웃거나 말거나, 나는 끝내 이곳에 집 옮겨 살고만 싶구나. [高愛三峯插太虛 掉頭吟望倒騎驢 旁人大笑徒他笑 終擬移家向此居]”라고 하였다. 『逍遙集』

196 함곡관 푸른 소는 : 『열선전(列仙傳)』에 의하면 노자(老子)가 일찍이 서쪽으로 떠날 때를 당하여 함곡관령(函谷關)에 윤희(尹喜)가 함곡관 위에 자기(紫氣)가 서려 있는 것을 관측했는데, 이윽고 과연 노자가 푸른 소[靑牛]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므로 윤희가 그에게 부탁하여 『도덕경(道德經)』 오천언(五千言)을 받았다는 고사가 있다.

| | |
|---------|------------------------------|
| 緩風拂拂時來面 | 미풍은 산들산들 얼굴에 불어오고 |
| 芳草依依欲沒阡 | 방초는 어여쁘게 두둑을 덮을 듯 |
| 母犢先呼童犢和 | 어미 소 먼저 울면 송아지 화답하여 |
| 前聲纔斷後聲連 | 앞소리 끊길 때면 뒷소리가 이어진다 |
| 飯牛今古知多少 | 「반우가(飯牛歌)」를 고금에 아는 이 몇이던가 |
| 惟有千秋白石傳 | 천추에 백석만 전해진다네 ¹⁹⁷ |

197 반우가를 …… 전해진다네 : 영적이 제 환공(齊桓公)을 만나 부른 노래를 「반우가(飯牛歌)」라 한다. 그 노래 중에 “남쪽 산은 말쑥하고, 하얀 돌은 번쩍이는데, 요순이 선양하는 것을 살면서 보지 못하였다. [南山矸 白石爛 生不遭堯與舜禪]”라고 하여 백석을 소재로 한 가사가 있다. 『淮南子』 「道應訓」

이양

移秧

新醅初熟稻魚鄉 도어향¹⁹⁸에 새 술이 막 익어가니
土鼓萼萼山日長 동동 토고¹⁹⁹소리 산의 해 유장하다
主雇男女皆僇僕 주인과 남녀일꾼 모두 허리 굽히고
手足頭尻共紛忙 머리에서 발끝까지 함께 분망하다
布來四野如棋局 바둑판처럼 사방 들판에 퍼졌으니
一準長繩似雁行 못줄을 기준 삼아 기러기가 나는 듯
始覺盤中辛苦粒 소반의 쌀알이 신고임을 깨닫나니
愧余徒坐樹陰涼 시원한 그늘에 앉은 내가 부끄럽네

198 도어향(稻魚鄉) : 도어는 쌀과 물고기로, 도어향은 쌀과 물고기가 풍부한 시골을 가리킨다. 소식(蘇軾)의 「승주과가수수각 ... (乘舟過賈收水閣 ...)」시에 “마음에 맞는 건 시주의 모임이요, 일생을 보낼 곳은 어도향이로다. [得意酒詩社 終身魚稻鄉]”라고 하였다. 『蘇東坡詩集』 卷19

199 토고(土鼓) : 『주례』 「춘관종백(春官宗伯)」에 “중춘이 되면 낮에 토고를 치고 피리로 빈 시를 연주하여 더위를 맞는다. [中春晝擊土鼓 吹籥詩以逆暑]”라고 하였다.

뽕잎을 따다

採桑

| | |
|---------|-----------------------------------|
| 雨過前村桑葉滑 | 앞마을에 비가 지나 뽕잎이 윤택하니 |
| 祈祈何處采繁宜 | 어디에서 무성한 쪽을 캐기 좋을꼬 ²⁰⁰ |
| 摘盡城南千畝樹 | 성 남쪽 천 이랑 뽕을 다 따고서 |
| 覓來牆角數疎枝 | 다시 담 모퉁이 성긴 가지 찾는다 |
| 新絲已賣三春節 | 새 실은 이미 봄철에 팔았으니 ²⁰¹ |
| 此日敢望半幅縑 | 이날에 반폭 비단조차 바라겠는가 |
| 田家從古多如此 | 전가는 예부터 대부분 이와 같으니 |
| 中夜喁喁但自悲 | 한밤에 신음하며 홀로 슬퍼할 뿐 |

200 무성한 …… 좋을꼬 : 『시경』 「빈풍(邠風) 칠월(七月)」에 “봄에 햇빛이 비로소 따뜻해져, 피꼬리가 울거든, 아가씨는 아름다운 광주리를 잡고, 저 오솔길을 따라, 이에 부드러운 뽕잎을 구하며, 봄에 해가 길고 길거든, 흰 쪽을 캐기도 많이 하니, 아가씨의 마음 서글퍼함이며, 장차 공자와 함께 돌아가리로다. [春日載陽 有鳴倉庚 女執懿筐 遵彼微行 爰求柔桑 春日遲遲 采繁祈祈 女心傷悲 殆及公子同歸]” 하였다.

201 봄철에 팔았으니 : 당(唐)나라 섭이중(聶夷中)의 「상전가(傷田家)」라는 시에 “이월에 새 고치실을 미리 팔고, 오월이면 새 곡식 미리 팔아 세금 바치니, 우선 눈앞의 부스럼은 고치지만, 도리어 심장의 살을 도려내는구나. [二月賣新絲 五月糶新穀 醫得眼前瘡 剜却心頭肉]” 라고 하였다.

꽃에 물을 주다

灌花

| | |
|---------|-------------------------|
| 千竿脩竹一溪沙 | 천 그루 수죽 우거진 시내 모래톱 |
| 高築庭園種百花 | 정원을 높이 쌓아 백화를 심었다 |
| 懶把長鑿畚舊土 | 긴 보습으로 묵은 흙 담기도 지쳐서 |
| 時將細溜養新芽 | 때로 작은 물줄기로 새싹을 기른다 |
| 黃昏幽砌播清馥 | 황혼의 깊은 섬돌에 청향(清香)이 퍼지니 |
| 暖日晴窓散紫霞 | 따스한 날 맑은 창에 자줏빛 노을 흩어진다 |
| 厭看衆芳鬪春色 | 봄빛 다투는 꽃들이 보기 싫어 |
| 故傍梅樹待寒葩 | 일부러 매화 곁에서 찬 꽃망을 기다린다 |

밭에 김매다

耘田

| | |
|---------|----------------------|
| 畏景正當六月天 | 햇빛 두려운 유월의 하늘 맞으니 |
| 靑衫白汗自漣漣 | 청삼에 흰 땀이 절로 흐른다 |
| 今朝冒雨東南野 | 오늘 아침은 동남 들판에서 비를 맞고 |
| 明日荷鋤上下田 | 내일은 호미 메고 위아래 밭에 가야지 |
| 但得耨籽稂莠盡 | 잡초를 모두 제거할 수만 있다면 |
| 何辭勞苦晝宵連 | 주야로 이어지는 노고 어찌 마다하리요 |
| 莫將此日優遊度 | 이런 날을 한가히 보내지 말지어다 |
| 佇看豆禾沒草阡 | 어느덧 콩과 벼가 밭둑에 묻히리니 |

출정한 군인의 아내

征婦

寒風落木動秋聲 찬바람 지는 앞에 가을소리 이니
萬戶搗衣憶遠征 집마다 다듬이질 멀리 정부(征夫)를 그린다²⁰²
錦字數行傳雁去 금자서²⁰³ 몇 줄을 기러기에 전하고
荒田百畝借人耕 황전 백 이랑은 사람을 사 경작한다
塞雲漠漠渺何際 변방의 막막한 구름 아득히 어디인가
閨月娟娟偏照營 규방의 고운 달은 더욱 진영(陣營)을 비추리라
腰佩黃金如斗大 허리에 큰 황금 인장 차고서²⁰⁴
邊庭待罷十年兵 변방의 십년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네

202 정부를 그린다 : 이백(李白)의 시에 “장안에 한 조각 달 밝은데,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 들리나니. [長安一片月 萬戶搗衣聲]”라는 구절이 나온다. 『李太白集』卷5「子夜吳歌」

203 금자서(錦字書) :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의 편지를 말한다. 전진(前晉) 두도(竇滔)의 처 소혜(蘇蕙)가 유사(流沙)로 쫓겨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비단 옷감 위에 「회문선도시(回文旋圖詩)」를 지어 보낸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晉書』「列女傳 竇滔妻蘇氏」

204 황금 인장 차고서 : 큰 공적을 세워 제후로 봉해졌다는 뜻이다.

노송
老松

| | |
|---------|----------------------------------|
| 瘦甲蒼髯一老松 | 여인 갑옷과 푸른 수염 노송은 |
| 百年長保舊時容 | 백년토록 길이 옛 모습 보전했다 |
| 絕壑挺身留鶴鶴 | 절학에 솟은 몸 황새와 학 머물고 |
| 清溪倒影似蛟龍 | 청계에 드린 그림자 교룡과도 같구나 |
| 磊磊根盤苓萬歲 | 뇌락한 뿌리에 만년 복령이 서렸고 |
| 亭亭寒壓雪千峰 | 정정한 기절(氣節)은 눈 덮인 천봉을 압도한다 |
| 風霜搖落窮山裏 | 풍상에 요락한 ²⁰⁵ 궁벽한 산 속에서 |
| 爲爾盤桓春復冬 | 너를 위해 반환하며 봄과 겨울 보낸다 |

205 요락한: 전국 시대 초(楚)나라 시인 송옥(宋玉)의 「구변(九辯)」 첫머리에 “슬프다, 가을 기운이여, 쓸쓸하게 초목은 바람에 흔들려 땅에 지고 쇠한 모습으로 바뀌었도다. [悲哉 秋之爲氣也 蕭瑟兮 草木搖落而變衰]”라는 표현이 나온다.

가뭄을 근심하며

憫旱

| | |
|---------|--------------------------------|
| 犁雨西郊不及時 | 서교의 여우 ²⁰⁶ 때에 못 미치니 |
| 桔槔聲裏日遲遲 | 길고 ²⁰⁷ 소리에 날은 더디기만 |
| 川渴山枯憎魃虐 | 산천은 메말라 사나운 한발 밍나니 |
| 柴爨圭瘞感神知 | 섞 태우고 규옥(圭玉) 묻어 신명을 감응케 한다 |
| 遙望百里平郊赤 | 멀리 붉은 빛 백리 평야 바라보니 |
| 叵耐千家一髮危 | 마을마다 한 올 터럭처럼 위태롭네 |
| 安得深湫打龍起 | 어찌하면 깊은 못 용을 일으켜서 |
| 暮天雷雨旱苗滋 | 저녁하늘 뇌우로 마른 싹을 적실까 |

206 여우(犁雨) : 쟁기질하기에 알맞게 내린 봄비를 말한다. 황정견(黃庭堅)의 「회화담금어(戲和答禽語)」라는 시에 “남촌 북촌에 한 보습 비 내리니, 머느리는 시어미 식사 차리고 시아버는 아이 밥을 먹인다. [南村北村雨一犁 新婦餉姑翁哺兒]”라는 구절이 있다.

207 길고(桔槔) : 한 끝에는 두레박, 다른 한 끝에는 돌을 매달아서 힘을 덜 들이고 물을 풀 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

산방과작 6수 무술년(1958)
 山房課作 六首 戊戌

1

數椽茅屋小溪東 작은 시내 동쪽의 몇 칸 모옥
 疎竹籬間一逕通 성긴 대 울타리 사이로 오솔길 통했다
 浪跡何時不鄉夢 유랑하는 자취 늘 고향을 꿈꾸었나니
 殊方今日又春風 타향의 오늘 또 봄바람이 분다
 乳鶴來巢池樹上 새끼 뱀 학은 못가 나무에 둥지 틀고
 猗蘭抽綠土甌中 고운 난초는 질화분에 싹이 돋았다
 河清無日西氛漲 태평한 날 없이 서방의 요기만 성하니
 思量萬事髮欲翁 만사를 생각하매 머리만 세려 하네

2

我有陽春郢裏歌 나의 「양춘곡」을 영에서 노래하지만²⁰⁸
 無人和此可如何 화답하는 사람 없으니 어찌할까
 銷愁日飲千鍾酒 시름 없애려 날마다 천 잔 술 마시고
 乘興時航萬頃波 흥을 타고 때로 만경창파에 배 띄운다
 一言中理多充棟 일언도 이치에 맞으면 충동²⁰⁹보다 나은 법
 有客談玄笑爛柯 객이 현담 말하니 도끼자루 썩는다²¹⁰ 웃네

208 양춘곡 …… 노래하지만 : 양춘곡은 초나라 가곡이고 영은 초나라 수도이다. 곡조가 고상하여 창화(唱和)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다.

209 충동(充棟) : 한우충동(汗牛充棟)의 약칭으로, 많은 서적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종원(柳宗元)의 「육문통묘표(陸文通墓表)」에, “그 서적을 집에 저장하면 동우(棟宇)에 꽂 들어차고 밖으로 내보내면 소와 말을 탐나게 한다. [處則充棟宇 出則汗牛馬]”라고 하였다.

210 도끼자루 썩는다[爛柯] :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뜻이다. 진(晉) 나라 왕질(王質)이라는 나무꾼이 신안(信安)의 석실산(石室山)에서 바둑 두는 두 동자(童子)를 만나 이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도끼자루가 썩어버렸고, 마을에 돌아가 보니 아는 사람은 죽었더라는

冷眼看過塵世事 차가운 눈으로 세속 일을 바라보니
 堪憐無數撲燈蛾 가련타 무수히 등불에 뛰어드는 나방인걸

3

蠻觸紛紛蝸角裏 달팽이 뿔 속에 만촉이 어지러우니²¹¹
 幾人於此夢槐安 몇 명이나 이곳에서 괴안국²¹² 꿈꾸었나
 西潮欲遍青邱界 서양 풍조가 청구²¹³에 두루 퍼지려하니
 吾黨誰復一縷殘 오당의 쇠잔한 일선 양기²¹⁴ 누가 회복할꼬
 憂時空嘆杞天壞 시절 근심하며 기우(杞憂)²¹⁵를 탄식하고
 涉世漫吟蜀道難 세상 살면서 촉도난²¹⁶만 읊조린다
 倦罷床書還獨立 지치면 책상의 서적 덮고 홀로 서서

고사에서 온 말이다. 『述異記』

- 211 만촉이 어지러우니 : 『장자』 「칙양(則陽)」에 “달팽이의 왼쪽 뿔 위에 있는 나라를 촉씨(觸氏)라 하고, 달팽이의 오른쪽 뿔 위에 있는 나라를 만씨(蠻氏)라 한다. 서로 영토를 다투어서 전쟁을 하였는데, 시체가 몇 만이나 될 정도로 즐비하였고, 패한 군대를 쫓아 갔다가 15일이 지난 뒤에야 돌아왔다. [有國於蝸之左角者曰觸氏 有國於蝸之右角者曰蠻氏 時相與爭地而戰 伏尸數萬 逐北旬有五日而後反]” 하였는데,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는 인간 세상을 비유한 말이다.
- 212 괴안국 : 덧없는 인생을 비유한 말로, 순우분(淳于棼)이란 사람이 괴목(槐木) 아래에서 술 취해 잠깐 누워 잠든 사이에 괴안국(槐安國)의 부마(駙馬)가 되어 남가(南柯)의 태수로 삼십 년 동안 있으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꿈을 깨고 보니 괴안국은 바로 괴목의 남쪽 가지 밑에 있는 개미구멍이었다는 이야기가 당나라 이공좌(李公佐)의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에 나온다.
- 213 청구(青邱) : 우리나라를 지칭한 말이다.
- 214 일선 양기 : 『주역』 「박괘(剝卦)」는 아래가 모두 음효(陰爻)이고 위에 한 획만 양효(陽爻)인바, 음(陰)이 성할 때 양(陽) 하나가 남아 있는 상(象)이다. 『주역』 「박괘(剝卦)」 상구(上九)에 이르기를 “큰 과일은 먹이지 않음이니,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집을 허물리라. [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 하였다.
- 215 기우(杞憂) : 춘추시대 기(杞)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근심하였다고 한다.
- 216 촉도난(蜀道難) : 당나라 이백(李白)이 「촉도난(蜀道難)」를 지어 촉도의 험난함을 묘사하였다.

靑山時復揭簾看 때때로 발을 걷고 청산을 바라본다

4

不獨離愁倍感秋 가을이라 이별의 시름 짙더니
東風又上故人樓 동풍에 또 고인의 누각을 오른다
客伴曉燈懷兀兀 객은 새벽 등 벗 삼아 회포가 호젓하고
雲迷鄉國夢悠悠 구름이 고향 가리니 꿈도 유유하다
世如一局將翻奕 세상은 승패가 번복하는 바둑이요
身似中流不繫舟 몸은 중류에 매지 않은 배로다
水竹堪隣隨處有 곳곳의 수죽이 이웃 삼을 만하니
何用家山院裏遊 어찌 꼭 고향 집 뜰에서만 노닐랴

5

卒歲藏修有此堂 해를 마치며 장수²¹⁷할 학당 있으니
爲看明月築方塘 밝은 달 보기 위해 네모 연못 쌓았다네
閱史千編雙眼碧 천 편 의 사책(史冊) 열독하니 두 눈이 푸르고
栽花百本四時香 백 그루 꽃을 심어 사시가 향기롭다
巷少車輪塵自斷 거리엔 수레 적어 티끌 절로 끊기고
風吹竹籟座生涼 대숲에 바람 불자 자리가 서늘하다
時勞迎客供鷄黍 때때로 손님 맞아 계서²¹⁸를 대접하니
塞耳人間話短長 인간의 시비장단엔 귀를 막으려나

217 장수(藏修) : 『예기』 「학기(學記)」에 나오는 말로, 학습에 전심하는 것을 뜻한다.

218 계서(鷄黍) :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대접했다는 말로,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 「미자(微子)」에 하조장인(荷篠丈人)이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를 만류하여 목계 하면서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대접하였다. [殺鷄爲黍而食之.]”라는 내용이 있다.

6

江湖何處我懷開 강호 어느 곳에서 나의 회포를 열까
 流水間雲意爽哉 유수와 한가한 구름에 뜻이 상쾌하다
 詩壇誰得窺唐入 시단에선 누가 당인(唐人)의 경지 엿보았나
 文軌時要駕宋來 문장은 때로 송인(宋人)을 능가해야 하리라
 招朋栗里陶潛逕 벗을 부르니 율리 도잠의 오솔길²¹⁹이요
 垂釣桐江嚴子臺 낚시 드리우니 동강의 엄자대²²⁰로다
 麥燕頰頰春似海 보리 제비 오르내려 봄이 바다 같으니
 紫桃花下幾傾杯 자춧빛 도화 아래서 몇 번이나 잔 기울였나

219 도잠의 오솔길 : 도잠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세 오솔길은 묵었으나, 소나무와 국화는 아직 남아 있도다. [三徑就荒 松菊猶存]”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20 엄자대(嚴子臺) : 후한시대의 은자인 엄릉(嚴陵)이 낚시하던 조대(釣臺)를 말한다. 엄릉의 엄광(嚴光)의 자(字)이다. 엄광은 한나라 광무제(光武帝)와 동학(同學)한 사이였는데, 광무제가 황제가 된 뒤에 변성명(變姓名)하고서 숨어 살았다. 광무제가 엄광을 찾아내어 조정으로 불렀으나 오지 않다가 세 번을 부른 다음에야 겨우 나왔다. 광무제가 벼슬을 권하였으나, 엄광은 절강성(浙江省)에 있는 부춘산(富春山)으로 들어가 동강에서 낚시질을 하며 지냈다. 『後漢書』 卷83 「逸民列傳 嚴光」

보인계회의 시

輔仁契會韻

茲遊屈指幾經春 이 모임 헤아리니 몇 년이 지났다
春盡江湖百感新 봄이 다한 강호에 온갖 감회 새롭다
四海誰爲名下士 사해에서 누가 이름난 선비²²¹인고
一樽相對意中人 한 동이 술로 그리던 이 맞이한다
流觴曲水蘭亭趣 유상곡수는 난정의 흥취이고²²²
憂國丹心洛社隣 우국단심은 낙사²²³에 견주노라
回首乾坤愁黯黯 고개 돌려 천지 보니 시름만 무거운데
天風何日掃煙塵 어느 날 하늘 바람이 연진을 쓸어갈꼬

221 이름난 선비 : 명하사(名下士)는 큰 이름을 누리는 선비라는 뜻이다. 당대(唐代) 한평(韓平)이 「송정원외(送鄭員外)」에서 “아이도 이름난 선비를 알고, 악공은 책 속의 시 다 투어 노래하네. [孺子亦知名下士 樂人爭唱卷中詩]”라고 하였다.

222 유상곡수는 …… 의취요 : 유상곡수(流觴曲水)는 물굽이를 만들어 놓고 둘러앉아 잔을 물에 띄워서 그 잔이 자기 앞에 오기 전에 시를 짓는 놀이이다.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가 지은 「난정서(蘭亭序)」에, “이곳에는 높은 산, 험준한 봉우리와 무성한 숲, 길게 자란 대나무가 있고, 또 맑은 시내 여울물이 난정의 좌우에 서로 비치는지라, 이를 끌어 들여 굽이쳐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운다. [此地有崇山峻嶺茂林脩竹 又有清流激湍映帶左右 引以爲流觴曲水]”라고 하였다.

223 낙사(洛社) : 송나라 문언박(文彦博)이 서도 유수(西都留守)로 있을 때 부필(富弼)의 집에서 연로하고 어진 사대부들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베풀어 서로 즐겼던 모임을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 또는 낙사기영회(洛社耆英會)라 하였던 데서 온 명칭이다. 『宋史』 卷 313 「文彦博列傳」

여름밤 즉흥시

夏夜即事

夢裏懷人度幾橋 꿈속에 임을 찾아 몇 개의 다리 건넜나
覺來悵望路遙遙 깨어나 먼 길을 슬피 바라본다
翁詵田穰尊前舞 노인은 풍년을 자랑하며 단지 앞에서 춤추고
兒喜天晴月下招 아이는 맑은 날 기뻐하며 달빛 아래 부른다
生居濁世宜緘口 탁세에 태어나서 침묵해야 할 것이니
肯向公門學折腰 어찌 공문을 향하여 절요²²⁴를 배울 것인가
知否青春難再得 청춘은 다시 얻기 어려움을 아는가 모르는가
光陰偏不我曹饒 광음이 우리에게만 관대하진 않으리라

224 절요(折腰) : 진(晉)나라 도잠(陶潛)이 팽택 현령(彭澤縣令)으로 있을 적에, 군(郡)에서 파견한 독우(督郵)의 시찰을 받게 되었는데, 아전이 도잠에게 의관을 갖추고 독우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 도잠이 탄식하면서 “내가 쌀 다섯 말 때문에 허리를 꺾어 향리의 어린아이에게 굶질거릴 수는 없다. [我不能爲五斗米折腰向鄉里小兒]”라고 하고는, 즉시 수령의 인끈을 풀어 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94 『陶潛列傳』

우인이 징병을 받았다가 풀려남을 기뻐하며

喜友人被募丁得釋

| | |
|-------|--------------------------------|
| 世波猶未定 | 세파는 아직 안정되지 않아 |
| 群犬夜相吠 | 개들이 밤에 서로 짖는다 |
| 群吏踰牆來 | 관리들은 담을 넘어오고 |
| 驅人急如矢 | 사람을 화살처럼 급하게 몬다 |
| 昔聞石壕吏 | 옛날에 석호리 ²²⁵ 를 들었는데 |
| 豈復如今世 | 어찌 다시 오늘과도 같을까 |
| 吾友忽被迫 | 내 벗은 홀연 핍박 받았어도 |
| 晏然不挫氣 | 편안히 의기가 꺾이지 않았지 |
| 莫道一時困 | 일시의 곤궁함 말하지 말라 |
| 從此長一智 | 이로부터 한 지혜가 더했으리라 |
| 美玉在石中 | 돌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옥 |
| 不琢不成器 | 쪼지 않으면 그릇 못 이루나니 |
| 諸君且莫駭 | 제군들은 놀라지 말지어다 |
| 否往泰終來 | 비색이 가면 태평이 오는 법 ²²⁶ |
| 朝暮渡江去 | 조만간 강을 건너갈 것이니 |
| 我思不可裁 | 내 그리움 그칠 수 없구나 |

225 석호리(石壕吏) : 두보가 석호를 지나면서 이 마을의 가렴주구(苛斂誅求)의 상황을 읊은 시이다. 당 현종(唐玄宗) 때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평정하기 위하여 남정(男丁)들을 모두 징발해 가고 심지어 나이 든 사람까지도 마구 전쟁터로 내몰았다. 마침 두보(杜甫)가 석호촌에 유숙하고 있었는데, 아들 삼 형제가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고 늙은 남편마저 징발하러 온 관리들에 대해 차라리 자신이 전장으로 나가 새벽밥이라도 짓겠다며 호소하는 노부(老婦)의 애절한 말을 듣고 「석호리」라는 시를 지었다. 『杜詩』 「石壕吏」

226 비색이 …… 오는 법 : 『주역』의 천지비괘(天地否卦)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지천태괘(地天泰卦)는 그 반대로 만물이亨통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讀書闕一榻
對卓少一盃
夢中在我傍
忽覺寂然無
樹影入書窓
忽復疑君至
數日籠中羽
一朝飛雲天
帶月入柴扉
犬亦迎欣欣
酌酒笑相語
從此善護持
莫以外至憂
素志詎終違

독서함에 걸상 한 개 비겼고
탁자엔 술잔 하나 줄겠네
꿈에서는 내 곁에 있었다가
홀연히 깨면 적연히 사라진다
나무 그림자가 서창에 드니
문득 그대가 오는가 싶었지
며칠간 새장 속 새였다가
하루아침에 운천으로 날아가네
달빛 띄고 사립문 들어서면
강아지도 맞으며 기뻐하리라
술 따르고 웃으며 말하노니
이제부터 몸을 잘 보호하시게
바깥일은 근심하지 말 것이니
평소의 뜻 어찌 끝내 어기랴

문우계에서 운을 들다

文友契拈韻

| | |
|---------|---------------------------------|
| 十載青燈峽裏居 | 십년 간 청등 켜고 산골에 살았더니 |
| 出門今日意何如 | 오늘 문을 나서 뜻이 어떠한가 |
| 未醒化蝶三春夢 | 삼춘에 호접의 꿈 ²²⁷ 깨지 못하고 |
| 欣坼招朋百里書 | 백리길 벗의 편지 기쁘게 뜯노라 |
| 蘭蕙依然交道密 | 난초와 혜초처럼 교분이 친밀하니 |
| 林泉自是世情疎 | 임천에 절로 세속의 정 멀어진다 |
| 福川從古多名產 | 복천은 예부터 이름난 物産 많아서 |
| 江鱖登盤一尺餘 | 쟁반에 커다란 강물 쏘가리 올랐다 |

227 호접의 꿈 : 『장자』 「제물론(齊物論)」 마지막에, 사람의 꿈속에 호랑나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호랑나비의 꿈속에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물화(物化)의 비유가 실려 있다.

우중에 영남의 선비 해석이 이르다

雨中嶺南士人海石至

相望千里隔山川 천리 먼 산천에서 바라만 보았더니
衝雨今朝却惠然 비를 맞으며 오늘 아침 찾아주었네
縱使范公塵滿釜 범공처럼 솥에 먼지만 가득해도²²⁸
何嘆季子郭無田 계자처럼 성곽 밖에 땅 없음을 탄식하라²²⁹
浮榮百歲邯鄲夢 백년 덧없는 영에는 한단의 꿈²³⁰이요
淸興一江鷗鷺天 맑은 흥취 이는 강은 구로의 세상일세
磊落風標慷慨意 뇌락한 풍표에 강개한 뜻 지녔으니
從今聊復許忘年 이제부터 망년의 벗²³¹을 허여하리라

228 먼지만 가득해도 : 범공은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범염(范冉)이다. 자는 사운(史雲). 내무(萊蕪)의 현령을 지냈다. 청빈하게 살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시루 속에 먼지 나는 범사운이요, 솥 속에 물고기 헤엄치는 범래무로다. [甗中生塵范史雲 釜中生魚范萊蕪]”라고 노래하였다. 『後漢書』 卷81 「范冉列傳」

229 계자처럼 …… 탄식하라 : 계자는 전국 시대 유세객인 소진(蘇秦)을 말한다. 소진이 합종책(合縱策)을 주장하며 연(燕)·제(齊)·초(楚)·조(趙)·위(魏)·한(韓) 등 육국(六國)의 제후를 설득하여 종약장(縱約長)이 된 뒤에 고향에 돌아와서 “가령 내가 낙양 성 교외에 좋은 땅 두 마지기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여섯 나라 정승의 인을 꺾을 수 있었겠는가. [且使我有洛陽負郭田二頃 吾豈能佩六國相印乎]”라고 말했다. 『史記』 卷69 「蘇秦列傳」

230 한단의 꿈 : 부질없는 인간사를 말한다. 당(唐)나라 심기제(沈既濟)의 「침중기(枕中記)」에 “노생(盧生)이 한단(邯鄲) 객사(客舍)에서 도인(道人) 여옹(呂翁)을 만나 자기의 곤궁한 신세를 한탄하자 여옹은 그에게 목침을 주고 잠을 자게 하였는데, 노생은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죽었다. 꿈을 깨어 보니 잠들기 전에 주인이 짓던 기장밥이 아직 익지 않았다.”고 하였다.

231 망년의 벗(忘年之友) : 연장자가 나이를 따지지 않고 사귀는 젊은 벗을 말한다.

우중 즉흥시 6수

雨中卽事 六首

1

| | |
|---------|-------------------------------------|
| 兼旬霖雨轉沈沈 | 십여 일 장마가 더욱 침침하니 |
| 四海元元愁正深 | 사해 백성들 근심 더욱 깊어진다 |
| 潢汙滿地崩田野 | 고인 물 가득해 전야가 무너지고 |
| 雷電閃空劈樹林 | 뇌전은 허공에 번쩍이며 숲을 쪼갬다 |
| 誰復補天媧氏術 | 누가 하늘 메운 여와 ²³² 의 방법 지녔나 |
| 難禁庇士少陵心 | 선비 보호하려는 소릉의 마음뿐일세 ²³³ |
| 安得長風吹霧盡 | 어찌하면 장풍이 운무를 다 걷어가서 |
| 欣看紅日破秋陰 | 추움을 깨는 붉은 해를 기쁘게 보려나 |

2

| | |
|---------|--------------------------------------|
| 疎竹爲籬茅結堂 | 성긴 대 울타리에 모옥(茅屋)을 엮어 |
| 田園樂志似山陽 | 전원의 뜻 즐기니 산양 ²³⁴ 과 같아라 |
| 剪韭蒸黍盤自移 | 부추 따고 수수 찌니 소반 절로 넘치고 ²³⁵ |

232 여와 : 옛날에 공공씨(共工氏)가 전옥(顛頊)과 싸우다가 성이 나서 부주산(不周山)을 머리로 치받자 하늘 기둥이 부러지면서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고 땅은 동남쪽으로 꺼졌는데, 이에 여와씨(女媧氏)가 자라의 다리를 잘라서 땅의 사방 기둥을 받쳐 세우고, 오색(五色)의 돌을 구워서 터진 하늘을 메웠다[補天]는 전설이 있다. 『淮南子』 「覽冥訓」, 『列子』 「湯問」

233 소릉의 마음뿐일세 : 소릉은 두보를 가리킨다. 두보의 시 「모옥위추풍소파가(茅屋爲秋風所破歌)」에 “천하에 가난한 선비들 크게 비호하여 모두 즐거운 얼굴로 풍우에 움직이지 않고 산처럼 편안할까. [大庇天下寒士俱歡顏 風雨不動安如山]”라는 구절이 있다.

234 산양(山陽) :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혜강(嵇康)이 머물던 곳이다. 혜강이 죽고 그 친구인 상수(向秀)가 일찍이 산양의 구택(舊宅)을 지나다가 그 이웃사람이 부는 첫대 소리를 듣고는, 이미 죽은 친구인 혜강(嵇康), 여안(呂安)과 서로 즐겨 노닐었던 예전 일을 추상(追想)하여 「사구부(思舊賦)」를 지었다. 『晉書』 卷49 「向秀傳」

235 시문의 ‘移’자는 ‘侈’의 잘못된 뜻하다.

批唐評宋頰生香 당송 시를 비평하니 뺨에 향기가 인다
溪上携琴梧映月 시내에 거문고 안으니 오동에 달빛 비추고
比隣有客酒過牆 이웃에 손님 있어 담장으로 술 넘기네
詩懷暗逐涼颺起 시상은 가만히 서늘한 바람 따라 일어나니
理屐江湖興復長 신발을 수선하자²³⁶ 강호의 흥 다시 기네

3

悠悠世事散如烟 유유한 세사는 연기처럼 흩어지니
魂夢常尋翰墨邊 꿈에선 항상 한묵 곁을 찾는다
工似寶刀經淬礪 솜씨는 같고 닦은 보도와 같고
心要清鑑照媿妍 마음은 미추(美醜)를 비추는 거울일세
縱知今日無梢子 금일에 뱃사공 없는 줄 알건만
耐看蒼生在漏船 누선에 있는 창생을 차마 보겠는가
管盡江山醒復醉 강산을 차지하여 깨고 다시 취하니
何須掛杖買醪錢 어찌 지팡이의 술값²³⁷이 필요하라

4

積雨淋漓獨掩扉 긴 비가 흠뻑 내려 홀로 문을 닫았더니
今朝始復對晴暉 오늘 아침 비로소 맑은 빛을 마주한다
松篁園窄梧兼老 솔과 대의 좁은 정원 오동도 늙어가고

236 신발을 수선하자: 진(晉)나라 완부(阮孚)가 나막신에 항상 밀랍을 만들반들하게 칠해서 신는 습벽을 지니고 있었는데, 언젠가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갔을 때도 밀랍을 칠하는 일을 태연히 계속하면서 “일생 동안 이런 나막신을 몇 켤레나 신을지 모르겠다. [未知一生當着幾緇屐]”라고 탄식했다는 ‘납극(蠟屐)’의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雅量」

237 지팡이의 술값: 『진서(晉書)』 권49 「완수열전(阮脩列傳)」에 “항상 걸어 다닐 때 백전(百錢)을 지팡이 머리에 매달아 놓았는데 술집에 이르면 곧 홀로 실컷 마셨다. [常步行以百錢掛杖頭 至酒店 便獨酣暢]”라는 기록이 있다.

| | |
|---------|-----------------------|
| 稻黍年豐蟹又肥 | 벼와 기장 풍년인데 게도 살이 찼다네 |
| 頽雲留檐故不散 | 낮은 구름은 처마 머물러 흩어지지 않고 |
| 習鳥墮地還高飛 | 어린 새는 땅에 떨어졌다 다시 나는구나 |
| 望鄉臺上思歸客 | 망향대 위에 고향을 그리는 나그네여 |
| 欲向西風一振衣 | 서쪽 바람 불 때면 한번 옷을 떨치고자 |

5

| | |
|---------|---------------------------------|
| 琅玕脩竹拂軒檐 | 옥빛의 긴 대나무 처마를 스치니 |
| 對食何須肉與兼 | 음식을 대함에 고기를 겸하라 ²³⁸ |
| 樵笛遠來響空谷 | 초적은 멀리서 빈 골짜기 울리고 |
| 茶煙細縵透細簾 | 차 연기는 아롱져서 푸른 발 뚫는다 |
| 作詩時犯蜂腰忌 | 시는 때로 봉요의 금기 ²³⁹ 범하고 |
| 臨事常慚蛇足添 | 일은 항상 사족을 더해 부끄럽다 |
| 興來無處非佳賞 | 흥이 일면 곳곳이 좋은 감상처라 |
| 偏愛青山入戶尖 | 문에 뾰족이 든 청산도 더욱 사랑스럽네 |

6

| | |
|---------|---------------------------------------|
| 山園種蕙護蘭孤 | 산원에 혜초 심어 외로운 난초 벼를 삼아 |
| 終日嗅香又作圖 | 종일토록 향기 맡고 그림도 그린다네 |
| 耽句驚人羨子 | 사람 놀랄 시구 탐함에 ²⁴⁰ 그대 재주 부럽고 |

238 옥빛의 …… 겸하라 : 소식의 「녹균헌(綠筠軒)」에 “밥 먹을 때 고기 없을지언정 사는 곳에 대나무 없을 수 없다. [可使食無肉 不可居無竹]” 하였다.

239 봉요(蜂腰)의 금기 : 봉요는 벌의 허리처럼 한가운데가 가늘다는 뜻으로 시를 지음에 있어 나쁜 점인 팔병(八病)의 하나인데, 제2번째의 글자와 5번째의 글자가 성음(聲音)이 같아서 양 머리는 크고 한가운데가 작은 것을 말한다. 『詩格』

240 시구 탐함에 : 두보(杜甫)의 시에 “나는 성벽이 오로지 좋은 시구만 욕심내어, 사람들 놀랄 만하지 죽어도 그만두지 않네. [爲人性癖耽佳句 語不驚人死不休]”라는 구절이 있다. 『杜少陵詩集』 卷10 「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

| | |
|---------|------------------------------------|
| 分曹鬪藝鈍慚吾 | 조를 나눠 문예 겨룸에 우둔한 내가 부끄럽다 |
| 幾多妄想舐天墮 | 얼마나 하늘 핥다 떨어지는 망상했나 ²⁴¹ |
| 每喜煩愁當酒無 | 늘 기쁜 건 술로 번뇌가 사라짐이라 |
| 經世誰回淳厚俗 | 누가 세상 경영해 순후한 풍속 되돌릴꼬 |
| 中宵往往夢唐虞 | 한밤에 왕왕히 당우시대를 꿈꾸노라 |

241 하늘 …… 망상했나 : 『한서(漢書)』에 “탕이 꿈에 하늘을 핥고서 왕이 되었다.”〔湯夢舐天而王〕”라고 하고, 『후한서(後漢書)』 『화희등후기(和熹鄧后紀)』에 “탕이 꿈에 하늘 끝에 올라가 하늘을 핥았다.〔湯夢及天而舐之〕”라고 하였다. ‘지(舐)’는 ‘지(舐)’와 같다.

남산사²⁴² 옛 터를 지나며
過南山祠舊墟

匹馬西來過玉川 필마로 서쪽 옥천²⁴³으로 와서
行到南山空躑躅 남산에 도착해 공연히 주저한다
爲問村人是誰居 촌인에게 묻노니 누구의 거처인가
云是晚隱高士墟 말하길 만은²⁴⁴ 고사의 옛터라네
聞之墮轡忽下馬 듣고서 고삐 놓고 문득 말에서 내려
整我衣冠一佈歔 의관을 정제하고 한 번 탄식하네
憶昔莊光禪受際 옛날 장릉과 광릉²⁴⁵이 선양(禪讓)할 때
天地翻覆日無光 천지가 번복하고 태양도 빛을 잃었다
滿朝簪笏拜新主 조정 가득 잠홀²⁴⁶들 새 군주께 절하니
丹書鐵券自煌煌 단서철권²⁴⁷이 저절로 휘황하구나
獨有六臣死守義 유독 사육신만 죽음으로 의리 지켜
卓犖大節日月章 탁락한 절개가 일월처럼 빛났도다

242 남산사(南山祠) : 순창으로 은거한 충신 권효(權曉)의 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안동 권씨(安東權氏) 문중과 향유들이 1800년(정조 24) 창건하였다. 1807년(순조 7) 권효의 위패를 봉안 향사하다가, 1868년(고종 5)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권효는 본관이 안동(安東), 자는 요일(堯日), 호는 만은(晚隱)으로 안동권씨 17세손이며 길창 부원군(吉昌府院君) 권준(權準, 1281~1352)의 4세손이다. 세종 때 벼슬이 사정(司正)에 이르렀고 1452년(단종 1) 수양대군이 고명 사은사(誥命謝恩使)로 명나라에 갈 때 함께하였다. 그리고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으로서 수양대군이 영의정으로 명나라에 갈 때 수행하여 중국 사람들에게 학문으로 존중받았다. 단종이 손위(遜位)하고 세조가 즉위하자, 벼슬을 버리고 원주로 숨었다가 다시 순창에 은거하였다.

243 옥천(玉川) : 전북 순창군을 말한다.

244 만은(晚隱) : 남산사에 배향된 권효의 호이다.

245 장릉과 광릉 : 장릉(莊陵)은 단종의 묘호이며, 광릉(光陵)은 세조의 묘호이다.

246 잠홀(簪笏) : 관잡(冠簪)과 수판(手板)으로, 전하여 벼슬아치를 이른다.

247 단서철권(丹書鐵券) : 단서철권은 철제(鐵製)의 계권(契券)에 단사(丹砂)로 써서 임금의 공신에게 내려주어 면죄 등의 특권을 누리게 한 증명서이다. 『漢書』 「高帝紀」

| | |
|---------|-----------------------------------|
| 先生自是難於彼 | 선생은 절로 사육신보다 어려웠으니 |
| 當日朝天輔首陽 | 당일에 조천하여 수양을 도왔다네 ²⁴⁸ |
| 受知己深勞已多 | 지우를 깊이 받고 공로도 많았으니 |
| 天衢自此任翱翔 | 천구 ²⁴⁹ 에서 마음껏 비상하였으리 |
| 浩然歸臥南山廬 | 호연히 돌아와 남산 집에 누워서 |
| 不復問津洌水陽 | 열수 북쪽의 소식 다시 묻지 않았네 |
| 生與六臣同其心 | 살아서 사육신의 마음과 함께하여 |
| 偃仰林泉甘遜肥 | 임천에 언양하며 비둔 ²⁵⁰ 을 즐겼다 |
| 魯連何日東海蹈 | 노중련은 어느 날 동해를 밟았던가 ²⁵¹ |
| 伯夷千秋雷首薇 | 백이는 천추에 뇌수산 고사리 췌도다 |
| 當時勳名今誰在 | 당대의 훈명은 지금 누구에게 있나 |
| 此地草木亦生輝 | 이곳의 초목조차 빛을 내는가 |
| 遺居有祠煥丹碧 | 옛 집터 남은 사당에 단청이 빛나고 |
| 俎豆百歲薦馨香 | 조두엔 백세에 제물 ²⁵² 을 바쳤다네 |

248 당일에 …… 도왔다네 : 만은 권효 선생은 1452년(단종 1) 수양대군이 고명사은사(誥命謝恩使)로 명나라에 갈 때 함께 했다.

249 천구(天衢) : 천구는 도성의 거리를 말한다.

250 비둔(肥遜) : 은둔하며 여유롭게 사는 생활을 말한다. 『주역』 「둔괘(遯卦)」 상구(上九)에 “살지는 은둔이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肥遜 無不利]”라는 말이 나온다.

251 노중련은 …… 밟았던가 : 노중련이 일찍이 조(趙)나라에 머물러 있을 적에 진(秦)나라가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邯鄲)을 포위하였다. 그때 조나라에 와 있던 위(魏)나라의 신원연(新垣衍)이 조나라로 하여금 진나라 왕을 황제(皇帝)로 추대하여 군대를 철수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노중련이 신원연을 만나서 진나라가 무도한 나라임을 역설한 뒤 “만일 진나라 왕을 황제로 추대한다면 나는 동해에 빠져 죽을지언정, 진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중지시키니, 진나라 군사들이 퇴각하였다. 『史記』 卷83 「魯仲連列傳」

252 제물[馨香] : 『서경』 「군진(君陳)」에 “지극한 정치를 하면 향기로워서 신명에게도 감응이 되는 법이니, 서직과 같은 곡식의 제물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밝은 덕의 제물이 향기로운 것이다. [至治馨香 感于神明 黍稷非馨 明德惟馨]”라는 말이 나온다.

| | |
|---------|------------------------------------|
| 多士駿奔想濟濟 | 선비들 준분 ²⁵³ 하던 모습 상상하나니 |
| 雲仍瞻慕亦踴躅 | 후손들도 우러러 사모하며 창창 ²⁵⁴ 했네 |
| 而今頽垣蕪草墟 | 이젠 퇴락한 담 잡초 무성한 터에 |
| 蒼涼古木怨斜陽 | 스산한 고목만 석양에 원망하는 듯 |
| 獨有高風凜不死 | 홀로 늠름한 고풍 사라지지 않으니 |
| 定與歸來共峴嶙 | 정히 혼백 돌아와 함께 우뚝 높이리라 |
| 安得磊磊輝耳目 | 어찌하면 높은 기상 만인의 이목에 비취 |
| 羞死今世反側人 | 금세의 반측하는 사람 부끄럽게 할까 |

253 준분(駿奔) : 사당에 있는 신주를 잘 만들어 모신다는 뜻이다. 『시경』의 「청묘(淸廟)」에, “제제한 많고 많은 선비들이 문왕의 덕을 굳게 잡아서 하늘에 계신 분을 대하고 사당에 모신 신주 분주하게 받드네. [濟濟多士 秉文之德 對越在天 駿奔走在廟]”라고 하였다.

254 창창(踴躅) : 『예기』 「곡례(曲禮)」에 “천자는 그윽하고 공경스러우며, 제후는 건장하고 성대하며, 대부는 가지런하고, 사는 날갯짓 하듯 펼쳐지고, 서인은 잔걸음으로 훑훑 달려간다. [天子穆穆 諸侯皇皇 大夫濟濟 士踴躅 庶人僬僬]”라고 하였다.

구재에서의 과작 18수 기해년(1959)

苟齋課作 十八首 己亥

1

| | |
|---------|---------------------------|
| 崎嶇散策出園東 | 험한 길 산책하며 동산 동쪽 나서니 |
| 聊喜群生得意同 | 못 생명들 득의함이 기쁘다 |
| 春煖菜娥鋪溪上 | 따스한 봄 시내엔 채소 캐는 아낙들 |
| 山深樵笛戛雲中 | 깊은 산 초적소리 구름 속에 울린다 |
| 漁艇乍過楊柳雨 | 어선에 버들 비 잠깐 지나더니 |
| 酒旗時掣杏花風 | 주막 깃발 살구꽃 바람에 펄럭인다 |
| 興來卽寫天機活 | 흥이 일면 활발한 천기를 묘사하니 |
| 何必談玄復說空 | 하필 현리(玄理)와 공적(空寂)을 설할 것인가 |

2

| | |
|---------|-----------------------|
| 山堂寂寂雨寥寥 | 산당은 적적하고 비는 부슬부슬 |
| 泥逕挾書集杏衫 | 젖은 길에 책을 끼고 학생들 모인다 |
| 愁多課日頻沽酒 | 시름 많아 과작 날도 자주 술을 사고 |
| 事擾經年未答函 | 일이 번다해 해가 가도록 답장 못했네 |
| 散跡江湖惟一杖 | 지팡이 하나로 강호에 유랑하는 몸 |
| 深盟猿鶴倚千巖 | 원학과 깊이 맹약하며 천암에 의지하네 |
| 種柳灌花無限趣 | 버들 심고 꽃 기르는 무한한 흥취 |
| 淵明千載此中咸 | 천 년 전 도연명도 여기 함께 하는 듯 |

3

| | |
|---------|----------------------|
| 似待燕來日揭簾 | 제비를 기다리며 날마다 발을 걸나니 |
| 江波微動縵纖纖 | 강 물결 살며시 일어 파문이 섬섬하다 |

| | |
|---------|------------------------------------|
| 鶴守門前嘉客到 | 학이 지키는 문 앞에 가객이 이르니 |
| 肉登盤上此君兼 | 소반에 고기 올리고 대나무도 곁했네 ²⁵⁵ |
| 白雨如絲濕衣重 | 실 같은 소나기 ²⁵⁶ 옷을 흠뻑 적시고 |
| 靑山有意入門尖 | 청산은 다정히 문에 뽀족이 들어온다 |
| 春愁春興知多少 | 봄날의 시름과 흥은 얼마나 되시고 |
| 詩思還因病裏添 | 시상은 도리어 병중에 더하는구나 |

4

| | |
|---------|-----------------------------------|
| 裁梧庭上已過尋 | 뜰에 심은 오동 한 길도 넘었는데 |
| 不見祥禽歲月深 | 봉황을 못 본채 세월만 깊어가네 |
| 驅愁難醉千鍾酒 | 시름 쫓는 천종 술도 취하기 어렵고 |
| 撫劍誰知萬里心 | 검을 만지매 누가 원대한 마음 알랴 |
| 扁舟領略江湖景 | 편주로 강호의 풍경 다 받아들이고 |
| 素志遨遊翰墨林 | 평소의 뜻으로 한묵의 숲에 소요한다 |
| 桂樹春深人欲老 | 계수 피는 깊은 봄 사람은 늙어가니 |
| 悠悠我思在靑衿 | 유유한 나의 사념 청금 ²⁵⁷ 에 있노라 |

255 대나무도 곁했네 : 소식(蘇軾)의 「우잠승녹균현(于潛僧綠筠軒)」시(詩)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식사에 고기는 없어도 되지만 사는 곳에 대나무가 없어선 안 되지. 고기가 없으면 사람을 수척하게 하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을 속되게 한다네. 사람이 수척한 것은 그래도 살찌울 수 있지만 선비가 속되면 치유할 수가 없다네. 옛사람이 이 말을 비웃으며 고상한 듯하나 도리어 어리석은 듯하다 하네. 만약 대나무를 마주 대하고서 진수성찬까지 먹을 수 있다면 세상에 어찌 양주학이 있으리오. [可使食無肉 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 人瘦尚可肥 士俗不可醫 旁人笑此言 似高還似癡 若對此君仍大嚼 世間那有揚州鶴]” 원시에서는 고기와 대나무의 흥취를 동시에 누릴 수 없다는 의미이나, 이 시에서는 변용하여 고기와 대나무를 모두 누렸음을 말하였다.

256 소나기[白雨] : 백우는 굵은 빗줄기를 나타내는 시어이다. 이백(李白)의 시에 “하얀 비가 겨울 산에 뿌리니, 흩뿌리는 모습이 은빛 대나무와 같네. [白雨映寒山 森森似銀竹]”라는 구절이 있다. 『李太白詩集』卷21 「宿鰕湖」

257 청금(靑衿) : 유생(儒生)을 일컫는 말로, 『시경』 「정풍(鄭風) 자금편(子衿篇)」의 ‘청청자

5

兀兀危梯樓百層 높은 사다리 놓인 백층 누각
 欲憑遐望苦攀登 기대어 멀리 보고자 애써 오른다
 萬斛塵埃煩未滌 만곡의 진애에 번뇌는 씻기지 않고
 平生志事愧無能 평생 뜻한 일은 무능이 부끄럽네
 山鳥迎春呼澗鳥 산새는 봄을 맞아 시냇가 새 부르고
 漁燈終夜對書燈 어선의 등은 밤새 서등을 마주한다
 男兒自有衝霄氣 남아는 절로 충천(衝天)의 기개가 있는 법
 千里何須付驢蠅 천리 길에 천리마에 붙은 파리²⁵⁸가 되랴

6

花開葉落記春秋 꽃 피고 잎 지면 봄가을 기억하나니
 世事商量無可求 세상 일 헤아림에 추구할 것 없어라
 有客時穿謝公屐 손님 오면 사령운의 신발 신지만
 無人共上仲宣樓 중선루²⁵⁹에 함께 오를 사람 없구나
 愁餘孤店三杯酒 시름겨우면 외로운 객점 석잔 술을 사고
 興伴滄江萬里鷗 흥이 일면 만리창강 갈매기를 짝한다
 且恐桃源漁子到 무릉도원에 어부가 찾아올까 두려우니
 呼童網盡落花流 아이 불러 흐르는 낙화를 그물로 거둔다

금(青青子衿)에서 온 것이다.

258 천리마에 붙은 파리 : 『사기(史記)』 「백이열전(伯夷列傳)」에 “안연(顏淵)이 비록 독실하게 학문을 닦긴 하였지만, 그래도 천리마 꼬리 끝에 붙었기(附驥尾) 때문에 그 행동이 더욱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하였다.

259 중선루(仲宣樓) : 중선(仲宣)은 후한(後漢) 말 건안칠자(建安七子)의 한 사람인 왕찬(王粲)의 자이다. 그가 형주(荊州)의 유표(劉表)에게 의지해 있을 때 강릉(江陵)의 성루에 올라 고향을 그리며 「등루부(登樓賦)」를 지었는데, 그 후로 누각을 흔히 중선루라고 한다. 『三國志』 卷21 「魏書 王粲傳」

7

拂拂柳絲垂地輕 흔들흔들 유사는 가볍게 땅에 드리우고
 花間戴勝勸春耕 꽃 사이 대승²⁶⁰은 춘경을 권면(勸勉)한다
 名區泉石疑靈壁 명승지의 천석은 영벽²⁶¹인 듯싶고
 深巷絃歌似武城 깊은 거리 현가는 무성²⁶² 같구나
 雲盡海天群岫出 구름 걷힌 바다하늘 산들이 드러나고
 日暝庭塢百花明 따스한 뜰 언덕엔 백화가 화사하다
 鄉愁黯黯開懷少 어두운 향수에 회포 푸는 날 적으니
 生憎中宵杜宇聲 한밤의 두견새 소리 밉기만 하구나

8

千秋我欲擬山陽 천년 후에 나는 산양²⁶³을 본뜨려고
 竹下爲園更築塘 대 아래 뜰을 짓고 다시 방당(方塘) 쌓았다
 萬壑煙霞都領盡 만학의 연하를 모두 차지하고서

260 대승(戴勝) : 삿꾸기의 별칭이다.

261 영벽(靈壁) : 안휘성(安徽省) 영벽현(靈壁縣)을 가리킨다. 송나라 장차립(張次立)의 장원이 있었다. 소식(蘇軾)의 「영벽장씨원정기(靈壁張氏園亭記)」에 “장씨의 선군이 영벽을 얻어 변수(汴水)와 사수(泗水) 사이에 집을 지었는데, 수레와 배, 관개가 모이는 곳이라 그 자손들이 출사하려고 하면 한걸음에 조정에 닿을 수 있고, 은둔하고자 하면 산림을 우러러보며 그 뜻을 기를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262 현가는 무성 : 공자가 무성(武城)에 이르러 현가(絃歌, 거문고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공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닭을 잡는데 어찌 꼭 소를 잡는 칼을 쓰겠는가.”라고 하셨다. 자유가 “예전에 저는 선생님께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도를 배우면 백성을 사랑할 수 있지만, 일반 백성이 도를 배우면 쉽게 부러먹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공자가 “제자들아, 언언의 말이 옳다. 내가 방금 한 말은 농담일 뿐이다.”라고 하셨다. 『論語』「陽貨」

263 산양(山陽) :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혜강(嵇康)이 머물던 곳이다. 혜강이 죽고 그 친구인 상수(向秀)가 일찍이 산양의 구택(舊宅)을 지나다가 그 이웃사람이 부는 것대 소리를 듣고는, 이미 죽은 친구인 혜강(嵇康), 여안(呂安)과 서로 즐겨 노닐었던 예전 일을 추상(追想)하여 「사구부(思舊賦)」를 지었다. 『晉書』卷49「向秀傳」

一川魚鳥兩相忘 시내의 물고기와 새는 서로 잊는다²⁶⁴
 慣知世路多歧路 세상에 기로가 많음을 익히 아나니
 久住萍鄉似故鄉 객지도 오래 거주하니 고향 같구나
 花落檐前午鷄唱 꽃은 처마 앞에 지고 정오에 닭 우니
 漁歌何處戛然長 어부 노래 어디에서 길게 울리나

9

蕭蕭竹擁兩三家 소소한 대나무가 몇몇 집 감싼 곳
 緩步緣溪景轉佳 개울을 산책하니 풍경 더욱 좋구나
 連天虛白晴江闊 하늘 닿은 넓은 강은 투명한 하얀 빛
 浮地微黃軟柳斜 땅엔 미황색 연한 버들 비껴있다
 川上無心看逝水 시냇가에서 무심히 가는 물 바라보고
 風前多事拾飛花 바람 앞에 날리는 꽃 부산하게 줍는다
 第待江南春未暮 다만 강남의 봄이 저물기 전에
 餘錢掛杖一樽除 남은 돈 지팡이에 걸어 술을 사리라²⁶⁵

10

經歲閉門門掩蘿 해가 가도록 녁쿨에 가려 닫힌 문
 幾嘆人世日風波 인세에 날로 이는 풍파 얼마나 탄식했나
 醉餘蒙叟三春夢 취한 후에 장자는 봄날의 꿈을 꾸고

264 서로 잊는다 : 『장자』 「대종사(大宗師)」의 “물이 바짝 말라 물고기들이 땅바닥에 처하게 되면, 서로 김을 내뿜어 축축하게 해 주고 서로 거품으로 적셔 주지만, 강과 호수에서 서로 잊고 사느니만 못하다. [泉涸 魚相與處於陸 相呴以濕 相濡以沫 不如相忘於江湖]”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265 술을 사리라 : 『진서(晉書)』 권49 「완수열전(阮脩列傳)」에 “항상 걸어 다닐 때 백전(百錢)을 지팡이 머리에 매달아 놓았는데 술집에 이르면 곧 홀로 실컷 마셨다. [常步行以百錢掛杖頭 至酒店 便獨酣暢]”라는 기록이 있다.

| | |
|---------|------------------------------------|
| 茶後盧仝七椀歌 | 차 마신 후엔 노동은 칠완가 ²⁶⁶ 부른다 |
| 滿眼風光詩思苦 | 눈 가득한 풍광에 시상도 괴로우니 |
| 深宵雨鐸旅懷多 | 깊은 밤비 풍경 소리 객의 회포 넘친다 |
| 水竹清魂隨處有 | 수죽의 맑은 정신 곳곳마다 있으니 |
| 緇塵滿地奈余何 | 속세 가득한 티끌이 나를 어찌하랴 |

11

| | |
|---------|--------------------------------------|
| 東風爲燕揭簾高 | 동풍에 제비 위해 발을 높게 걸고 |
| 千里遲君日上臯 | 천리 길 그대 기다리며 날마다 언덕 오른다 |
| 寄跡林泉何落落 | 임천에 붙인 자취 얼마나 쓸쓸한지 |
| 浮榮塵世歎滔滔 | 도도한 속세의 덧없는 영화 탄식한다 |
| 白駒空谷留嘉客 | 빈 골짜 백구 탄 가객을 만류하고 ²⁶⁷ |
| 明月剡溪艤小舸 | 섬계 ²⁶⁸ 에 달 밝으면 작은 배를 준비한다 |
| 百年祇恐違心素 | 평생의 마음 어긋날까 두려울 뿐 |
| 肯恨鬢邊催二毛 | 귀밑에 흰 터럭 재촉함을 한할까나 |

266 칠완가 : 노동은 당나라 시인으로 한유와 교류하였다. 「칠완가」는 그가 지은 다시(茶詩)이다.

267 가객을 만류하고 : 『시경』 「백구(白駒)」에 “희고 깨끗한 망아지가 우리 마당의 풀을 먹는다 하여 발을 묶고 고삐를 매어 오늘 아침 내내 있게 하여 이른바 그분이 여기에서 소요하게 하리라. … 희고 깨끗한 망아지가 저 빈 골짜기에 있다. 심성한 풀 한 다발을 주노니 그 사람은 옥처럼 맑도다. [皎皎白駒 食我場苗 繫之維之 以永今朝 所謂伊人 於焉逍遙 … 皎皎白駒 在彼空谷 生絳一束 其人如玉]” 하여 어진 이를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뜻을 노래하였다.

268 섬계(剡溪) : 친구의 방문을 뜻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가 폭설이 내린 밤에 술을 마시며 좌사(左思)의 초은(招隱) 시를 읊다가 갑자기 섬계(剡溪)에 있는 친구 대규(戴逵)가 생각이 나서 밤새 배를 저어 그 집을 찾아갔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世說新語』 「任誕」

12

| | |
|---------|-----------------------------------|
| 溪屋深深不剪茅 | 깊은 시냇가 집은 띠 풀 그대로 |
| 浮槎一路入平郊 | 부사로 가는 길은 평교까지 든다 |
| 千里誰憐驥伏櫪 | 복력한 천리마 ²⁶⁹ 누가 가련히 여기랴 |
| 一枝無復鷓安巢 | 초료는 편안한 가지 하나 없구나 ²⁷⁰ |
| 山居時有禽窺戶 | 산에 사니 때로 새가 창을 엿보고 |
| 竹裏微聞露滴梢 | 대숲엔 가지의 이슬 가늘게 들린다 |
| 人生須作千秋事 | 사람은 천추의 사업 지어야 하나니 |
| 何必區區賦解嘲 | 하필 구구히 해조 ²⁷¹ 를 읊을 것인가 |

13

| | |
|---------|----------------------------------|
| 淋淋梅雨漲溪橋 | 세찬 매우 ²⁷² 가 시내 다리 넘치니 |
| 細柳含煙淡未消 | 가는 버들 열은 안개 걷히지 않는다 |
| 竹翠琅玕染屋角 | 대나무 푸른빛은 지붕 끝을 적시고 |
| 花紅躑躅燃山腰 | 철쭉의 붉은 빛에 산허리가 붉게 탄다 |
| 萍蓬一世誰知己 | 한세상 부평초 신세 누가 지기일꼬 |
| 晨夕南村不費招 | 조석으로 남촌의 벗 부를 것 없어라 |
| 半生吐納煙雲氣 | 반평생 연운의 기운만 호흡했으니 |

269 복력한 천리마 : 복력은 구유에 누워있다는 뜻이다. 조조(曹操)가 지은 「보출하문행(步出夏門行)」이라는 악부가(樂府歌)에 “늙은 천리마가 구유에 누웠어도 뜻은 언제나 천리 밖이요, 열사의 나이 비록 늙었어도 장한 그 마음 변함이 없네. [老驥伏櫪 志在千里 烈士暮年 壯心不已]”라고 한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270 가지 하나 없구나 :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넓은 숲속에서 초료가 차지하는 보금 자리는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하다. [鷓鴣巢於深林 不過一枝]” 하였다.

271 해조(解嘲) : 세상의 조롱을 스스로 해명하는 글이다. 한(漢) 나라 양웅(揚雄)이 『태현경(太玄經)』을 지을 때, 권세에 아부하여 출세한 자들이 그의 담박한 생활 태도를 비웃자, 이를 해명하는 글을 지어 “해조(解嘲)”라고 명명하였다. 『漢書』 「揚雄傳下」

272 매우(梅雨) : 매실이 노랗게 익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내리는 비를 말한다.

笑殺紛紛門外潮 우습구나 어지러운 문밖의 조수여

14

懷思茫茫苦未寬 사념은 망망하여 누그러지지 않으니
 芳醪端合一場歡 향기로운 술로 한바탕 즐기리라
 竹能醫俗何須肉 대는 속기(俗氣)를 고치니 고기가 필요하랴²⁷³
 農是素封可代官 농사가 본래 봉지(封地)라 관직을 대신한다
 泉聲并帶棋聲落 바둑은 샘물 소리 어울려 떨어지고
 月影輕籠樹影寒 달빛은 가볍게 나무를 감싸 차갑구나
 春興漫漫猶不盡 흐드러진 춘흥이 다하지 않았으니
 更將畫譜剪燈看 다시 심지를 돌아 화보를 본다네

15

紛紜塵事摠無關 어지러운 속사(俗事)를 모두 관여 않고
 自許生涯翰墨間 스스로 한묵 간에 생애를 허여했다
 楚客問居詹尹子 초객은 침윤자에게 거처를 물었고²⁷⁴
 龐公盡室鹿門山 방공은 녹문산으로 가족을 이끌었네²⁷⁵
 忘形鷗鷺參盟集 외형 잊으니 구로가 맹약에 참여하고

273 고기가 필요하랴 : 소식(蘇軾)의 「어잡승녹균현(於潛僧綠筠軒)」시에 “밥상에 고기가 없는 것은 괜찮지만, 사는 곳에 대나무가 없을 수가 있겠는가. 고기가 없으면 몸이 마를 뿐이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속되게 만든다오. [可使食無肉 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라는 내용이 나온다. 『蘇東坡詩集』 卷9

274 거처를 물었고 : 굴원이 참소를 받고 쫓겨난 뒤 마음이 괴롭고 출처를 결단하지 못하여 침윤(詹尹)에게 점을 치러 갔다. 『楚辭』 「卜居」

275 방공은 …… 이끌었네 : 후한(後漢) 방덕공(龐德公)의 고사를 가리킨다. 방덕공은 원래 남군(南郡)의 양양(襄陽)에 살았는데, 형주 자사(荊州刺史) 유표(劉表)가 초빙하자 나아가지 않고 가솔을 모두 거느리고 녹문산(鹿門山)에 들어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後漢書』 卷83 「逸民列傳 龐公」

逐日漁樵結社還 날마다 어초의 결사에서 돌아온다
捲地西潮如鼎沸 사나운 서양 풍조는 솥이 끓는 듯
眼前誰保舊時顏 눈앞에 누가 옛 모습을 보전할까나

16

百鳥趁林夕氣昏 어두운 저녁 새들은 숲으로 가고
亂砧如碎竹間村 대숲 마을엔 다듬이 소리 흩어진다
滾滾塵愁江水去 도도한 세상 시름 강물처럼 흐르고
茫茫人事雪鴻痕 망망한 인사는 눈발의 기러기 자취²⁷⁶
崢嶸歲月驚頭上 지난 세월에 머리의 백발 놀라운데
磊落詩譚爽耳根 뇌락한 시화(詩話)는 귀 뿌리를 맑게 한다
坐談龍肉眞可笑 앉아서 용고기²⁷⁷를 말하니 우습구나
生平塊礪與君論 평생 쌓인 회포를 그대와 논하노라

17

響屋咿唔儘可聞 집을 울리는 글소리 참으로 들을 만하니
商評鎮日不勝欣 종일 평가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擬成花史傷春暮 꽃구경 하려니 저무는 봄 애상하여

276 기러기 자취 : 소동파(蘇東坡)의 「화자유민지회구(和子由澠池懷舊)」시에 “인생길 이르는 곳 무엇과 비슷한가? 기러기가 눈 진흙을 밟는 것과 같다네. 진흙 위에 우연히 발자국을 남겨 놓았을 뿐, 날아가면 어찌 다시 동쪽 서쪽 헤아리리. [人生到處知何似 應似飛鴻踏雪泥 泥上偶然留指爪 鴻飛那復計東西]”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蘇東坡詩集』 卷3

277 용고기 : 소식(蘇軾)이 진술고(陳述古)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진술고는 자신의 말은 지극하고 소식의 말은 비루하다고 여겼다. 소식이 진술고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하는 말을 음식에 비유해 보면 용고기(龍肉)와 같고 내가 하는 말은 돼지고기와 같아서 참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대가 종일토록 용고기에 대해 말하더라도, 내가 돼지고기를 실제로 먹으면 맛도 있고 배도 부른 것만 못하다.” 하였다. 『東坡全集』 卷74 「答畢仲舉書」 용고기는 진미이지만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돼지고기는 일상적으로 먹는 보통 음식이다. 공리공론만을 일삼아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圍坐書檠到夜分 한밤이 깊도록 등잔불에 둘러앉았네
 甯戚飯牛歌白石 영척은 소 먹이며 백석을 노래했²⁷⁸
 許生洗耳唾青雲 허생은 귀를 씻고 청운의 뜻 비웃었네²⁷⁹
 催詩鼓落推門看 시 재촉하는 북소리에 문을 열고 보니
 幾度山窓已夕曛 몇 번이나 산창에 저녁 해가 비쳤는고

18

縱設柴門故不開 사립문 두었으나 일부러 열지 않음은
 怕來俗客損庭苔 속객이 찾아와서 뜰의 이끼 손상할까
 奚囊春盡盈千首 봄은 가고 해남²⁸⁰엔 천수의 시 가득
 舊釀花殘強一杯 꽃이 지니 담근 술을 애써 드노라
 夜寒窓檢經冬破 밤이 추워 겨울에 깨진 창 점검하니
 身瘦衣寬去歲裁 몸은 야위어 거년에 지은 옷 헐겁구나
 屋後青山同謝眺 집 뒤의 청산은 사조의 시²⁸¹ 같으니
 清風吹拂讀書台 맑은 바람 독서하는 바위에 불어온다

278 영척은 …… 노래했^고 : 영척이 제 환공(齊桓公)을 만나 부른 노래를 「반우가(飯牛歌)」라 한다. 그 노래 중에 “남쪽 산은 말쑥하고, 하얀 돌은 번쩍이는데, 요순이 선양하는 것을 살면서 보지 못하였다. [南山研白石爛生不遭堯與舜禪]”라고 하여 백석을 소재로 한 가사가 있다. 『淮南子』 「道應訓」

279 허생은 …… 비웃었네 : 허유(許由)와 소보(巢父)가 기산(箕山) 영수(潁水)에 숨어 살았는데, 요(堯) 임금의 제위(帝位)를 맡기려 하자 허유가 이를 거절하고서 더러운 말을 들었다면서 귀를 씻으니, 이 말을 들은 소보가 “그대가 만약 깊은 산골에 살면서 세상과 통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대를 알아볼 수 있었겠는가. [子若處高岸深谷 人道不通 誰能見子]”라고 꾸짖고,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자기 소에게 마시게 할 수 없다고 하며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가서 물을 먹었다. 『高士傳』 「許由」

280 해남(奚囊) : 시초(詩草)를 넣는 주머니. 당(唐)나라 시인 이하(李賀)가 명승지를 돌아다니며 지은 시를 해노(奚奴, 종)가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에 넣었던 고사가 전해 온다. 『唐書』 「李賀傳」

281 사조의 시 : 사조(謝眺)의 「유동원(遊東園)」 시에 의하면 “향기로은 봄 술은 대하지도 않고, 다시 청산의 성곽을 바라보노라. [不對芳春酒 還望青山郭]”라고 하였다. 사조는 남조(南朝) 제(齊)나라 때의 시인이다. 자는 현휘(玄暉)이며, 오언시(五言詩)를 잘 지었다.

봄을 보내며

餞春

| | |
|---------|----------------------|
| 三春爲客百花隣 | 봄날에 객이 되어 백화를 이웃했더니 |
| 春去天涯恨復新 | 천애에 봄도 떠나 한이 다시 새롭네 |
| 幾番秉燭携朋樂 | 몇 번이나 촛불 잡고 벗들과 즐겼던가 |
| 隨處吟詩買酒頻 | 곳곳에서 시 읊으며 술을 자주 샀노라 |
| 離家千里浮萍跡 | 집을 떠나 천리 길 부평초 발자취 |
| 牽夢今宵化蝶身 | 오늘 밤은 꿈에 끌려 나비가 되었네 |
| 吾與東君歸未得 | 내 동군과 함께 돌아가지 못하니 |
| 傷心堂北老雙親 | 북당의 늙으신 부모님이 애달프다 |

흥을 풀다 5수

遣興 五首

1

| | |
|---------|-------------------------------------|
| 三載養神錦水西 | 삼 년 동안 금수 서쪽에서 정신 기르니 |
| 皓月千峰煙一溪 | 밝은 달빛 천봉에 시내의 안개뿐 |
| 倚杖觀魚吹浪沒 | 지팡이 기대 물결에 잠기는 물고기 보고 |
| 凝眸送鳥入雲迷 | 눈길 멈추고 구름 속 사라지는 새를 본다 |
| 林泉自在居還起 | 임천에서 자유자재로 거주하거나 |
| 世俗何須昂復低 | 어찌 세속에서 부양할 것 있으랴 |
| 不羨冲霄鯤鵬翼 | 먼 하늘 곤봉 ²⁸² 의 날개 부럽지 않으니 |
| 滿天風雨借鷓棲 | 세상 가득 풍우에 초료의 둥지 빌리고자 |

2

| | |
|---------|------------------------------------|
| 池竹檐雲愛此居 | 연못의 대 처마 구름 이 거처를 사랑하니 |
| 淸閒夢寐悟眞如 | 청한한 몽매에 진여를 깨닫는다 |
| 不醉何須常挈榼 | 취하지 않으니 어찌 늘 술통 지니라 |
| 耽吟每閱已看書 | 시 읊기 탐하여 매번 읽던 책 읽노라 |
| 宣父聞韶輒忘肉 | 선보는 소를 듣고 고기 맛을 잊었고 ²⁸³ |
| 馮生彈鋏苦思魚 | 풍생은 검을 치며 물고기를 생각했지 ²⁸⁴ |

282 곤봉(鯤鵬) : 곤어(鯤魚)와 봉조(鵬鳥). 북명(北溟)에 곤(鯤)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크기가 몇 천 리인지 모른다. 그 물고기가 화하여 봉(鵬)이라는 새가 되는데 그 봉새의 등이 몇 천 리나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 『莊子』 「逍遙遊」

283 고기 맛을 잊었고 : 공자가 제나라에서 순임금의 소(韶) 음악을 배우고 석 달을 고기 맛을 잊었다.

284 물고기를 생각했지 : 전국 시대 제(齊)나라 풍환(馮驩)의 고사이다. 풍환이 가난하여 맹상군(孟嘗君)에게 의탁했는데, 반찬으로 채소만 나왔다. 그러자 풍환이 칼등을 두드리며 '긴 칼을 찬 사람아 돌아갈지이다. 식탁에 물고기 반찬이 없구나.'라고 노래 불렀다.

幾多百歲違心素 백년 인생 얼마나 소심(素心)을 어겼던고
擬伴柴桑月下鋤 시상²⁸⁵을 벗 삼아 달빛 아래 김매고자

3

揮毫寫出輞川圖 붓을 휘둘러 망천도²⁸⁶를 그려내고
又試范生下五湖 또 범생처럼 오호로 내려간다²⁸⁷
佩蘭當日離騷客 난초를 찾던 당일의 이소객²⁸⁸이여
化蝶如今玩世吾 세상 희롱하는 나는 이제 나비 되었네
華國經綸慕伊呂 나라 빛내는 경륜은 이려²⁸⁹를 흠모하고
滿山煙月夢唐虞 산 가득한 연월에 당우시대를 꿈꾼다
欺世還稱能濟世 세상 속이는 자 되레 구제했다 칭하니
雌雄難辨屋頭烏 지붕 위 까마귀의 자웅 분별하기 어렵네²⁹⁰

『戰國策』「齊策4」

- 285 시상(柴桑) : 동진(東晉)의 처사인 도연명(陶淵明)이 살던 현(縣)의 이름인데 바로 도연명을 가리키기도 한다. 도연명의 고향은 강주(江州) 심양군(尋陽郡) 시상현(柴桑縣)으로,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구강시(九江市) 성자현(星子縣)이다.
- 286 망천도 : 「망천도(輞川圖)」는 본디 당나라 때의 시인으로 산수화에도 아주 뛰어났던 왕유(王維)가 일찍이 망천(輞川)에 별장을 짓고 망천의 20곳의 승경(勝景)을 배경으로 하여 그린 그림이다. 전하여 여기서는 평생 속세에 나가지 않고 산수 사이에서 조용히 은거함을 의미한다.
- 287 범생처럼 …… 내려간다네 : 범생은 춘추 시대 월왕(越王) 구천(句踐)의 모신(謀臣)인 범려(范蠡)이다. 범려가 일찍이 월왕을 보좌하여 오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나서는 월나라를 떠나 오호(五湖)에 배를 띄우고 돌아다니다가 제나라에 들어가서 치이자피(鸚夷子皮)로 성명을 바꾼 고사가 있다. 『國語』「越語下」, 『史記』卷129「貨殖列傳」
- 288 이소객(離騷客) : 이소객은 초(楚)나라의 삼려대부(三閭大夫)인 굴원(屈原)을 가리킨다. 굴원은 소인배들에게 모함을 받아 뜻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이소(離騷)」를 지었다.
- 289 이려(伊呂) : 상나라 탕왕(湯王)의 승상인 이윤(伊尹)과, 주나라 무왕(武王)을 보좌하여 은나라를 멸망시킨 여상(呂尙)을 말한다.
- 290 분별하기 어렵네 : 세간의 시비선악은 모호하여 분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4

| | |
|---------|------------------------------------|
| 垂柳絲絲拂我衣 | 드리워진 버들가지 내 옷을 스치니 |
| 南風吹盡却思歸 | 남풍이 불어오매 귀향을 생각한다 |
| 園深蒼鹿慣人面 | 깊은 뜰 푸른 사슴 사람 얼굴 익숙하고 |
| 午靜輕鷗登釣磯 | 고요한 정오 갈매기는 낚시 바위 오른다 |
| 尺蠖將伸先自屈 | 자벌레는 몸을 펼 때 먼저 굽히나니 ²⁹¹ |
| 閒雲無是亦何非 | 한가한 구름은 옳고 그림이 없어라 |
| 獨上望鄉垆上看 | 홀로 망향대 위에 올라서 바라보니 |
| 青山萬里路依依 | 청산의 만 리 길에 마음이 연연하다 |

5

| | |
|---------|------------------------|
| 高樓百尺挹平江 | 백 척 누각에서 잔잔한 강을 바라보니 |
| 時看沙禽坐語雙 | 모래톱 새들 쌍쌍이 앉아서 지저귐다 |
| 暮泊蘆叢垂釣岸 | 저녁에 낚시 언덕 갈대숲에 정박하고 |
| 夜明松火讀書窓 | 밤에는 서창에 관솔불을 밝힌다 |
| 甕貯稍羸思養鶴 | 옹기 곡식 넉넉해 학 기르길 생각하고 |
| 洞門深閉不須扃 | 골짜기 문은 깊게 닫혀 삼살개 필요 없네 |
| 月在柴門佳客到 | 사립문 달빛에 좋은 손님 이르니 |
| 碧芭蕉下酒盈缸 | 푸른 파초 아래 옹기에 술 가득하네 |

291 먼저 굽히나니 : 『주역』 「계사전하(繫辭傳下)」에 “자벌레가 몸을 굽혀 움츠리는 것은 장차 몸을 펴기 위함이고, 용과 뱀이 숨는 것은 자신의 몸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尺蠖之屈 以求信也 龍蛇之蟄 以存身也]”라는 말이 나온다.

우송 구철수께 화답하여 올리다

和呈具友松詰壽

| | |
|---------|-----------------------------------|
| 春來幾度夢中見 | 봄 들어 몇 번이나 꿈에서 보았던가 |
| 書到荒江寂寞濱 | 편지가 적막한 황강가에 이르렀네 |
| 李白劇談憐野逸 | 이백의 극담은 야일을 사랑하고 ²⁹² |
| 曼卿嗜酒識天真 | 만경 ²⁹³ 의 술 즐기는 천진을 안다네 |
| 名山何處相比屋 | 명산 어디에 서로 집을 이웃할까 |
| 滄海孤舟欲問津 | 창해에 고주로 나루를 묻고자 하네 |
| 矗石丹青聞改觀 | 축석루 단청을 바꿨다고 들었으니 |
| 安能佳味入吾唇 | 어찌하면 좋은 맛을 내 입에 맞볼꼬 |

292 야일을 사랑하고 : 두보의 「기이백(寄李白)」에 “마음껏 이야기하니 천진하고 방일함이 사랑스럽다. [劇談憐野逸]”라는 말이 있다.

293 만경(曼卿) : 만경은 송나라 시인 석연년(石延年)으로, 만경은 그의 자이다. 그는 술을 몹시 좋아하여 주량이 대단하였는데, 작은 병록을 가지고는 술을 싣질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늘 한탄하였다 한다. 『夢溪筆談』

산당에서 여러 벗과 날마다 함께 읊다 5수 경자년(1960)

山堂與諸友課日共吟 五首

庚子

1

| | |
|---------|----------------------|
| 漠漠煙塵誰指南 | 막막한 연진에 누가 지남이 되랴 |
| 憂心轉輾正難堪 | 근심으로 전전반측 견디기 어렵네 |
| 案上祇支唐宋籍 | 책상엔 당송의 서적만 쌓여있고 |
| 耳邊自絕是非談 | 귓가에는 절로 시비소리 끊겼네 |
| 春深園樹誇紅綠 | 봄 깊은 정원수는 홍록을 자랑하고 |
| 海近漁帆出兩三 | 가까운 바다엔 어선 몇 척 나선다 |
| 今古世情循一轍 | 고금의 세정은 같은 자취 따르니 |
| 何人吐苦不吞甘 | 누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지 않으랴 |

2

| | |
|---------|----------------------|
| 擁籬松柏自成林 | 울타리 두른 송백 절로 숲을 이뤘고 |
| 雨過蒼苔一徑深 | 비가 지난 오솔길은 푸른 이끼 짙구나 |
| 覓句挑燈抽古事 | 시구 찾느라 심지 돌아 고사를 추리고 |
| 添年對鏡愧初心 | 나이 더해 거울 보니 초심이 부끄럽다 |
| 從破窓迎千里月 | 찢어진 창문으로 천리 달빛 맞이하고 |
| 重畚梲待九章禽 | 오동에 흙을 돌아 봉황을 기다린다 |
| 梅花落盡君來晚 | 매화가 다 떨어져도 그대 더디 오시니 |
| 中夜徒勞夢裏尋 | 한밤에 수고롭게 꿈속에서 찾노라 |

3

| | |
|---------|--------------------|
| 光陰背我去堂堂 | 세월이 날 등지고 당당히 가버리니 |
| 舊興新愁誰短長 | 옛 흥과 새 시름 장단이 어떠한고 |

| | |
|---------|------------------------------------|
| 桃峽源深漁子到 | 무릉도원 깊은 곳에 어부가 이르고 |
| 畫梁春暮燕泥香 | 봄 저무는 그림들보 제비둥지 향기롭다 |
| 嫌窮幾苦成詩癖 | 곤궁이 싫어 애써 시벽을 이뤘고 |
| 忘世端宜寄醉鄉 | 세상 잊으려면 취향 ²⁹⁴ 에 기탁하는 법 |
| 海上青山雲萬里 | 바닷가 청산에 구름이 만 리인데 |
| 白鷗飛盡水蒼蒼 | 백구는 날아 사라지고 물만 창창하다 |

4

| | |
|---------|---------------------|
| 半園花鳥一茅堂 | 초가 정원에 꽃피고 새들 우는데 |
| 步月彈琴引興長 | 달빛 아래 탄금하니 흥취가 유장하다 |
| 天末雲消山呈媚 | 하늘 끝 구름 개어 산이 아름답고 |
| 意中人去座留香 | 임은 떠났으나 자리엔 향기 남았네 |
| 慷慨夜閱春秋傳 | 비분강개한 밤이면 춘추를 읽나니 |
| 灑落魂遊水竹鄉 | 쇄락한 마음은 수죽 고을 노닌다 |
| 奈負庭前冬栢樹 | 뜰 앞의 동백을 어찌 저버리랴 |
| 寒盟也守獨蒼蒼 | 세한의 맹세 지켜 홀로 창창하거늘 |

5

| | |
|---------|------------------------------------|
| 疏籬短短兩三家 | 낮고 낮은 성근 울타리 두세 집에 |
| 入戶青山面面佳 | 청산이 문에 드니 면면히 아름답다 |
| 愛月呼童瀟覓水 | 달빛 좋아 동자 불러 대통 물 가두고 |
| 惜春傾篋拾殘花 | 봄 아쉬워 광주리에 지는 꽃잎 줍네 |
| 誰復濟川作舟楫 | 누가 시내 건너는 배와 노 되어줄까 ²⁹⁵ |

294 취향(醉鄉) : 술에 취했을 때 온갖 걱정을 잊는 별천지의 경계이다. 당(唐)나라 왕적(王績)의 「취향기(醉鄉記)」에 보인다. 『新唐書』 卷196 「隱逸列傳 王績」

295 배와 노 되어줄까 : 『서경(書經)」 「열명상(說命上)」에 “내가 큰 내를 건널 적에는 그대

如今耕峽事桑麻 이제 산밭 갈며 상마를 일삼네
關河漠漠人何在 관하는 막막한데 임은 어디에 계신고
獨倚欄干月欲斜 홀로 난간에 기대니 달빛이 지려하네

를 나의 배와 노로 삼겠다. [若濟巨川 用汝作舟楫]”는 말이 나온다.

적벽²⁹⁶을 유람하다

遊赤壁

| | |
|---------|---------------------|
| 生平幾作福川夢 | 평생 얼마나 복천을 꿈꾸었나 |
| 策馬東風落日邊 | 동풍에 해 질 녘 말을 달린다 |
| 古寺鍾鳴雲外岵 | 고사의 종은 구름 밖 산에서 울리고 |
| 扁舟人坐水中天 | 편주의 사람은 수중의 하늘에 앉았다 |
| 琉璃萬頃飛白雨 | 유리 빛 만경 파도엔 백우가 날리고 |
| 芙蓉千疊鎖青烟 | 천 겹 연꽃 산들은 청연에 싸였네 |
| 當年鬼斧無痕鑿 | 당년에 귀신의 도끼 흔적 없으니 |
| 海內名山誰復前 | 해내의 무슨 명산이 이보다 앞서라 |

296 적벽 : 전남 화순군에 있는 경승지로 중국 양자강 상류의 적벽과 비슷하다고 이름 붙여졌다.

경자년(1960) 춘삼월에 효당 선생께서 복천에 이거하여 김씨의 영사재
에서 장수²⁹⁷하실 때 날마다 과작으로 시를 지었다 6수

庚子春三月 曉堂先生移居福川 藏修于金氏永思齋 逐日課吟 六首

1

| | |
|---------|---------------------|
| 古洞煙霞鎖碧山 | 옛 고을 연하가 벽산을 감싸니 |
| 秋霜春露優然間 | 가을 서리 봄 이슬이 짙은 곳 |
| 半夜靈風來颯爽 | 한밤에 맑은 바람 상쾌히 불어오니 |
| 深園翠竹自清閒 | 깊은 뜰 푸른 대가 절로 청한하다 |
| 輸誠苗裔追遐祖 | 정성 다해 후예는 조상을 추모하니 |
| 經劫軒檻觀舊顏 | 세월 지난 난간에서 옛 모습 본다네 |
| 屈指鄉邦誰得似 | 고을을 꼽으매 누가 이와 유사한고 |
| 騷人聊此一吟過 | 시인은 시를 읊으며 지나노라 |

2

| | |
|---------|----------------------|
| 睡起林窓日正高 | 잠에서 깨니 숲 창에 해가 높아서 |
| 持竿戴笠下江臯 | 낚싯대와 삿갓으로 강 언덕 내려간다 |
| 水明石鱖微吹浪 | 물이 맑아 쏘가리는 가만히 물결 뿜고 |
| 人靜沙禽欲上舫 | 인적 없어 모래톱 새는 배에 오르려네 |
| 擬伴仙丹超世客 | 선단 만드는 세상 밖 객을 벗하고 |
| 時參土室讀書曹 | 때로 토실의 독서하는 무리에 참여한다 |
| 欲收雲外千峰景 | 구름 밖 천봉의 풍경을 거두려고 |
| 徒倚欄頭更覓毫 | 난간에 서성이며 다시 붓을 찾는다 |

297 장수(藏修): 『예기』 「학기(學記)」에 나오는 말로, 학습에 전념하는 것을 뜻한다.

3

蜀道平於世路難 축도는 세상길 어려움보다 평탄하니
 林泉俯仰歲將闌 임천에 부양하며 한 해가 저물어간다
 身因涉險多慷慨 몸은 험난 겪어 비분강개가 많고
 學不知要愧汗漫 학문은 요체 몰라 두루 몽실 부끄럽다
 苦旱民望周雨露 괴로운 가뭄에 백성은 주나라 우로 바라고
 厭歐人憶漢衣冠 서양이 싫어 한나라 의관²⁹⁸ 추억한다
 如今海內紛蠻觸 지금은 세상에 만촉²⁹⁹이 분분하니
 誰復東山起謝安 누가 다시 동산에서 사안을 일으킬꼬³⁰⁰

4

淸泉白石別乾坤 맑은 샘과 흰 바위의 별천지에
 卒歲何關世外言 해를 마치도록 속세의 말 아랑곳하라
 編藥懸檐曬溪日 약초 묶어 처마 달아 시내 햇빛 쏘이고
 呼鷄下架散朝暾 닭은 햇대에서 내리니 아침 해에 흩어진다
 爲嘆壽民丹無術 백성의 단약 만들 방술 없어 탄식하니
 底事經春晝掩門 봄이 다 가도록 낮에도 문을 닫았네
 抹月批風幽興足 풍월을 읊으며 유흥이 가득하니

298 한나라 의관 : ‘한관위의(漢官威儀)’란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한나라 조정 관원들의 복식과 전례(典禮) 및 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전하여 고유한 전통 문물과 제도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299 만촉(蠻觸) : 『장자』 「칙양(則陽)」에 나오는데, 와우(蝸牛) 즉 달팽이의 두 뿔에 만(蠻)과 촉(觸)이라는 나라가 각기 자리 잡고서 하루가 멀다 하고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운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세상에 분분하게 명리를 다투는 의미가 되었다.

300 사안을 일으킬꼬 : 진(晉)나라 사안(謝安, 자는 안석)이 회계(會稽) 땅 동산(東山)에서 20여 년 동안 한가히 은거하면서 조정의 부름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자 “안석이 나오려 하지 않으니 장차 창생을 어찌할꼬. [安石不肯出 將如蒼生何]”라는 말을 들었다. 마침내 나이 사십에 몸을 일으켜 벼슬길에 나아가 삼공(三公)의 지위에까지 이르렀다. 『晉書』 卷79 「謝安列傳」

枕書時伴古人魂 책을 베고 때때로 고인의 마음 벗한다

5

| | |
|---------|----------------------------------|
| 鄙吝初銷迥出群 | 비린한 마음 사라져 멀리 무리 벗어나니 |
| 今看叔度有吾君 | 이제 숙도 ³⁰¹ 같은 그대를 보았다네 |
| 案頭筆禿詩千首 | 책상 붓은 천수의 시에 몽당이 되었고 |
| 花下樽芳話十分 | 꽃 아래 술은 무르익는 얘기에 향기롭다 |
| 承露荷重擎白朮 | 이슬 맞은 연꽃은 백홍 받친 듯 무겁고 |
| 隔簾山色纈青文 | 발 건너 산색은 푸른 문양 아롱졌다 |
| 愧余塵世超無得 | 부끄럽다 나는 진세를 초월치 못했으니 |
| 多事解嘲擬子雲 | 해조를 일삼으며 양자운을 본뜨려네 |

6

| | |
|---------|------------------------------------|
| 年來緘口學金人 | 몇 해를 침묵하며 금인 ³⁰² 을 본뜨고 |
| 寄興圖書意亦新 | 도서예 흥을 붙이니 뜻도 새로워라 |
| 碩鼠害苗曾苦魏 | 석서 ³⁰³ 는 묘를 해쳐 위나라 괴로웠고 |
| 千桃擁岸似逃秦 | 언덕의 복사꽃들은 진을 피한 듯 ³⁰⁴ |

301 숙도(叔度) : 숙도는 후한(後漢) 때의 사람 황헌(黃憲)의 자이다. 그는 자품이 청수하고 총명하여 당시 사람들로부터 안자(顔子)에 비유되기까지 했는데, 그와 같은 고을 사람인 진번(陳蕃)과 주거(周舉)는 항상 말하기를 “두어 달만 황생을 보지 못하면 마음속에 비린한 생각이 다시 짙어 버린다. [時月之間不見黃生 則鄙吝之萌 復存乎心]”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53 「黃憲列傳」

302 금인(金人) : 공자(孔子)가 주(周)나라 태묘(太廟)에 갔을 적에 금인(金人, 쇠로 만든 사람)의 입을 세 겹으로 꿰맨[三緘其口] 것을 보았는데, 그 등 뒤에 새긴 명문(銘文)을 보니 “옛날에 말조심을 하던 사람이다. 경계하여 많은 말을 하지 말지어다. 말이 많으면 실패가 또한 많으니라. [古之慎言人也 戒之哉 無多言 多言多敗]”라고 되어 있더라는 고사가 전한다. 『孔子家語』 「觀周」

303 석서(碩鼠) : 『시경』 「위풍(衛風)」의 편명으로, 폭정(暴政)에 시달리는 백성의 고달픔을 읊은 시이다.

304 진을 피한 듯 : 도잠(陶潛)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진(晉)나라 때 무릉(武陵)의 어부

| | |
|---------|-----------------------------------|
| 自憐車轂無苔破 | 가련타 이끼 깨며 찾는 수레도 없이 |
| 獨有林禽送語頻 | 홀로 숲의 새가 자주 노래를 보낸다 |
| 百里幸尋元白在 | 백리에 다행히 찾아갈 원백 ³⁰⁵ 있으니 |
| 綠楊明月好爲隣 | 푸른 버들 밝은 달에 좋은 이웃 되리라 |

가 시내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복사꽃이 물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도화림(桃花林)을 만났는데, 그곳에는 포악한 진(秦)나라 시대에 난리를 피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다가 집에 돌아온 뒤에 다시 찾아갔으나 끝내 무릉도원을 찾지 못했다.” 하였다. 『陶淵明集』 卷6

- 305 원백(元白) : 당(唐)나라 때 시인 원진(元稹)과 백거이(白居易)를 말한다. 백거이가 동도(東都) 이도리(履道里)에 향산루(香山樓)를 짓고 원진 등 당시의 명사들과 함께 모여 풍류를 즐겼는데, 전하여 친한 벗을 가리킨다.

춘원정의 원운을 차하다

次春園亭原韻

| | |
|---------|-----------------------------------|
| 澗阿槃考獨歌言 | 시내 언덕 은거지서 노래하고 말하나니 |
| 寤寐寬邁朝復昏 | 자나 깨나 자적하며 조석을 보낸다 ³⁰⁶ |
| 嗟此一身堂上躡 | 아! 이 몸은 당상의 절름발이 |
| 任他衆喙耳邊喧 | 저 사람들 소리야 귓가에 들리건 말건 |
| 時穿閒興東山屐 | 때로 한가한 흥에 동산의 신발 신고 |
| 快倒風流北海樽 | 쾌히 풍류 넘치는 북해의 술잔 든다 |
| 園草年年生不盡 | 정원의 풀은 해마다 끝없이 돌아나니 |
| 寸心那忘向阡門 | 어찌 밭두둑 향하는 마음을 잊으랴 |

306 조석을 보낸다 : 산림에 은거하며 안빈낙도하는 생활을 즐긴다는 말이다. 『시경』 「위풍(衛風) 고반(考槃)」에 “산골 시냇가에서 한가히 소요하나니, 현인의 마음이 넉넉하다. [考槃在澗 碩人之寬]”라고 하고, “고반이 언덕에 있으니, 석인의 마음이 넉넉하다. [考槃在阿 碩人之邁]”라고 하였다.

효당 선생께서 문득 후생을 버리고 돌아가시자

우제를 지낸 후 감회로 눈물지으며 짓다

曉堂先生奄棄後生而經虞祭后感涕有作

一世幾多聲氣同 한세상 맺이나 뜻을 함께 하였나³⁰⁷
楊生泣路可西東 양생처럼 동서의 기로에서 눈물 흘렸다³⁰⁸
遠遊何日因題柱 언제 원유하며 기둥에 글을 썼나³⁰⁹
秋思如今感轉蓬 오늘은 슬픈 생각 쭉대 신세 느낀다
大澤舞鯀龍忽逝 대택에 미꾸리 춤추고 용이 홀연 떠나니
昏衢失燭道悲窮 어둔 거리 빛 잃어 사문(斯文)의 곤궁 슬퍼라
茫茫千古摧梁恨 망망한 천고에 들보의 꺾임을 한하니³¹⁰
只信精靈昕夕通 정령만이 조석으로 감통하리라

307 뜻을 함께 하였나 : 『주역』 「건괘(乾卦) 문언(文言)」의 “같은 소리끼리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나니 … 이것은 각자 자신에 맞는 성향을 따르는 것이다. [同聲相應 同氣相求 … 則各從其類也]”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308 눈물 흘렸다 : 옛날 양주(楊朱)가 선(善)과 악(惡)의 분기점에서 악의 길을 향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렸던 ‘양주읍기(楊朱泣歧)’의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淮南子』 「說林訓」

309 기둥에 글을 썼나 :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촉군을 떠나 장안(長安)으로 가는 길에 성도의 성(城) 북쪽에 있는 승선교(昇仙橋)에 이르러 그 다리 기둥에 “고거사마를 타지 않고 서는 다시 이 다리를 건너지 않겠다. [不乘駟馬高車 不復過此橋]”라고 써서, 공명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뒤에 그의 뛰어난 문장 실력을 한 무제(漢武帝)에게 인정받고 출세했다. 두보(杜甫)의 시에 “기둥에 글을 썼던 당초의 장한 그 뜻이며, 지금은 생애가 홀로 굴러다니는 쭉대로세. [壯節初題柱 生涯獨轉蓬]”라는 표현이 나온다. 『杜少陵詩集』 卷3 「投贈哥舒開府翰二十韻」

310 들보의 꺾임을 한하니 : 현인의 죽음을 뜻한 말로, 효당 선생의 죽음을 비유한 것이다. 공자(孔子)가 자신이 죽을 꿈을 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뒷짐을 지고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서 한가로이 거닐며 노래하기를, “태산이 무너지겠구나, 들보가 부러지겠구나, 철인이 죽게 되겠구나. [泰山其頽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 하였다. 이후로 태산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부러짐은 곧 스승이나 철인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禮記』 「檀弓上」

가을 흥취 6수

秋興 六首

1

| | |
|-------|--------------------|
| 呼兒研墨濃 | 아이 불러 묵을 짙게 갈아 |
| 試寫入簾峯 | 발에 비친 산봉(山峰)을 묘사한다 |
| 誰憑昨夜夢 | 누가 어젯밤 꿈길 의지해 |
| 郵送三重封 | 삼중으로 봉한 편지 보냈나 |
| 蟬期江渚笛 | 매미는 강가의 피리 기약하고 |
| 樵下山廚春 | 초부는 산 부엌 방아 찧는다 |
| 交道心爲貴 | 교유의 도는 마음이 귀하니 |
| 休言隔歲逢 | 격세의 만남을 말하지 말라 |

2

| | |
|---------|---------------------------------|
| 書樓瀟灑挹平江 | 소쇄한 서루 평강을 마주하니 |
| 時見兒童負笈雙 | 쌍쌍이 책 든 아이들 보인다 |
| 庭落筧泉鳴夜枕 | 뜰의 대통 샘물 밤 베게 울리고 |
| 檐懸輪月照晨窓 | 처마의 둥근 달 새벽 창 비친다 |
| 人生適意爲安土 | 삶은 뜻에 맞으면 편안한 곳이니 |
| 杜宇何心戀故邦 | 두우는 어찌 고국을 연연하는가 |
| 覓句皺眉誰解意 | 시구를 찾는 고심을 누가 알라 ³¹¹ |
| 隣家時送濁醪缸 | 이웃은 때때로 탁주를 보내준다 |

311 누가 알라 : 맹호연은 눈발이 휘날리는 패교(霸橋) 위를 나귀 타고 지나갈 때 가장 멋진 시상(詩想)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소식(蘇軾)의 시에 “그대는 또 보지 못했는가, 눈발 속에 나귀 탄 맹호연이, 눈접 찌푸린 채 산처럼 어깨를 세우고 시 읊는 그 모습을. [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이라는 시구가 있다. 『蘇東坡詩集』 卷12 「贈寫真何充秀才」

3

| | |
|---------|-----------------------|
| 寒透輕衫忽感時 | 경삼에 스민 한기에 문득 시절을 느끼니 |
| 一園涼意客先知 | 정원의 서늘한 뜻 객이 먼저 안다 |
| 搗衣砧碎千村落 | 다듬이 소리는 촌락마다 흩어지고 |
| 催候蟬吟萬樹枝 | 철 재촉하는 매미는 숲에서 운다 |
| 漸瀝秋生詞賦健 | 쓸쓸한 가을기운에 시부도 굳건하고 |
| 崢嶸峯入畫圖奇 | 우뚝한 봉우리는 그림처럼 기이하다 |
| 江湖更欲飛雙屐 | 강호에 다시 신발 신고 유람하고자 |
| 拋却床頭消夏棋 | 평상머리 여름 보냈던 바둑돌 치우리 |

4

| | |
|---------|-------------------------|
| 忽覺秋來減帶圍 | 가을이 흘연 와 혁대도 줄어드나니 |
| 長吟何處却忘歸 | 어디서 길게 읊으며 돌아감을 잊는고 |
| 功名擬耀千秋史 | 공명을 천년 역사에 빛내려 하나니 |
| 書劍肯終一布衣 | 서검의 뜻 어찌 포의로 마치랴 |
| 閒情倚杖觀魚戲 | 한가한 정은 지팡이 기대 물고기 유희 보고 |
| 壯志冲霄伴鵠飛 | 장한 뜻은 하늘 높이 고니와 비상한다 |
| 恐有庭前破苔客 | 뜰 앞에 이끼 깨는 객이 있을까 저어해 |
| 呼童鎖日不開扉 | 아이 불러 종일 사립문을 열지 않는다 |

5

| | |
|---------|----------------------|
| 誅茅溪上卜幽居 | 시냇가 떠 풀 베어 그윽한 집 지으니 |
| 明月尋人入戶虛 | 명월이 사람 찾아 빈창으로 들어온다 |
| 容膝只安三畝宅 | 무릎 용납하는 작은 집에 안주하여 |
| 開心須讀五庫書 | 마음을 열려고 오거서를 읽는다네 |
| 草根露冷蟲聲急 | 초근의 찬 이슬에 벌레 소리 급하고 |

| | |
|---------|----------------------|
| 天際風高螢影疎 | 하늘 끝 바람 높아 반딧불이 성글다 |
| 種菜灌花經歲月 | 채소 심고 꽃에 물주며 세월을 보내니 |
| 馳驅紫陌較何如 | 자맥의 분주함과 견주어 어떠한고 |

6

| | |
|---------|----------------------|
| 微吟緩步下平湖 | 가볍게 읊으며 천천히 평호에 내려가 |
| 看到遙山色有無 | 멀리 어른대는 산색을 바라본다 |
| 一林風雨鷓鴣計 | 숲의 풍우에 뱀새는 가지에 깃들고 |
| 萬里滄溟鵬翼圖 | 만리 푸른 바다는 봉새가 날아간다 |
| 漁笛時兼樵唱起 | 어적은 나무꾼 노래와 어울러 일고 |
| 香茶還暖薄醪沾 | 향긋한 차는 몹은 탁주와 함께 사온다 |
| 爲看月夜婆娑影 | 달밤에 춤추는 그림자 보려고 |
| 且拓庭前手種梧 | 뜰 앞을 개척하여 손수 오동 심는다 |

제 2 권

시(詩)

용암재에서 고당³¹²을 알현하고 느낌이 있어 짓다

龍巖齋謁顧堂有感而作

千巖猿鶴一江西 천암의 원학이 우는 강 서쪽
 澗路苔深轉覺迷 시내길 이끼 깊어 더욱 길을 헤맨다
 筆勢縱橫永和帖 필세는 영화 서첩³¹³ 종횡하고
 詞源彷彿浣花溪 사원은 완화계³¹⁴와 방불하다네
 伏櫪誰知千里驥 마구간에 얹드리니³¹⁵ 누가 천리마를 알까
 報晨將見五更鷄 새벽 알리는 오경 닭을 장차 보리라
 此生安得樊籠脫 이 삶에 어찌하면 번룡³¹⁶을 벗어나서
 朝暮欣欣被耳提 조석으로 기쁘게 가르침을³¹⁷ 받을꼬

312 고당(顧堂) : 김규태(金奎泰, 1902~1966)로 고당은 그의 호이다. 본관 서흥(瑞興). 전남 구례 거주. 정기(鄭琦)의 문인.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한 그의 세계관은 저술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서학(西學) 등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성리학적 정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는 학문과 더불어 산행을 매우 좋아하여 산행기(山行記)를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서예에 능통하였다. 문집에는 『고당집』이 있다.

313 영화(永和) 서첩 :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첩(蘭亭帖)을 말함. 진목제(晉穆帝) 영화 9년(353) 삼월 삼진날, 즉 상사일(上巳日)에 왕희지, 사안(謝安), 손작(孫綽) 등 당대의 명사(名士) 40여 인이 회계(會稽) 산음(山陰)의 난정(蘭亭)에 모여서 계사(禊事)를 행하고, 이어 '곡수에 술잔을 띄우고[流觴曲水]' 시를 읊으면서 성대한 풍류놀이를 했다. 이때 「난정집서(蘭亭集序)」를 왕희지가 직접 짓고 쓰고 하여 명문명필(名文名筆)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晉書』 卷80 「王羲之列傳」

314 완화계(浣花溪) : 완화계는 시내 이름으로 두보(杜甫)를 가리킨다. 두보가 일찍이 성도(成都)에 우거(寓居)할 때 거주한 집이 완화계 가에 있었다.

315 마구간에 얹드리니 : 조조(曹操)가 지은 「보출하문행(步出夏門行)」이라는 악부가(樂府歌)에 이르기를, “늙은 천리마가 구유에 누웠어도 뜻은 언제나 천리 밖이요, 열사의 나이 비록 늙어도 장한 그 마음 변함이 없네. [老驥伏櫪 志在千里 烈士暮年 壯心不已]” 하였다.

316 번룡(樊籠) : 울타리와 새장.

317 가르침을 : 원문 '이제(耳提)'는 면명이제(面命耳提)의 준말로 귀를 끌어당겨 면전(面前)에서 가르친다는 뜻이다. 『시경』 「억(抑)」에 이르기를 “손으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일로 보여 주며, 대면하여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귀를 붙잡고 말해 주노라. [匪手攜之 言示之事 匪面命之 言提其耳]” 라고 하였다.

고당을 모시고 밤에 대화를 나누다

陪顧堂夜話

| | |
|---------|------------------------------------------|
| 紅泉翠壁絕塵清 | 붉은 샘 푸른 벼랑 티끌 끊겨 청정한데 |
| 幽鳥慣人故不驚 | 그윽한 새도 사람이 익숙한지 놀라지 않네 |
| 別鶴琴中留我聽 | 거문고의 「별학조」 ³¹⁸ 로 나를 만류해 듣게 하니 |
| 孤鸞鏡裏爲誰鳴 | 거울 속 고란 ³¹⁹ 은 누구 위해 우는고 |
| 雲山一抹先天色 | 운산 일대는 선천의 경색(景色)이요 |
| 杜宇三更遠客情 | 삼경의 두견새는 원객의 심정이라 |
| 休道乾坤風雨惡 | 건곤의 풍우가 험악하다 말하지 말라 |
| 名區如入古青城 | 명승지는 옛 청성 ³²⁰ 에 드는 듯하여라 |

318 별학조(別鶴操) : 한나라 상릉(商陵)의 목자(牧子)가 지었다는 칠현금(七絃琴) 곡명이다. 도연명의 「의고(擬古)」에 이르기를, “윗줄은 별학을 놀라게 하고, 아랫줄은 고란을 잡았도다. [上絃驚別鶴 下絃操孤鸞]” 하였다.

319 고란(孤鸞) : 외로운 난새이다. 난새는 자웅(雌雄)이 서로 사랑하여 떨어져 있으면 슬피 울며 특히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면 그것을 제 짝으로 알고 더욱 슬퍼하였다. 금곡(琴曲) 이름이기도 하다.

320 청성(青城) : 두보(杜甫)의 「장인산(丈人山)」 시에 이르기를, “청성의 나그네가 되면서 부터, 청성 땅에 침을 뱉지 않았네. [自爲青城客 不唾青城地]” 하였다.

금곡에서 이별을 이야기하다

琴谷話別

| | |
|---------|------------------------------------|
| 望鄉何日不登臺 | 날마다 누대 올라 고향을 바라보니 |
| 寒驛斜陽雪路開 | 석양빛 차가운 역참에 눈길이 열렸네 |
| 幾發中途失依嘆 | 중도에 의귀 ³²¹ 잃어 얼마나 한탄했던가 |
| 深慙小子挾書來 | 책 끼고 오는 어린애가 부끄럽네 |
| 勤工長夜堪聽漏 | 긴 밤 공부하며 물시계 소리 듣고 |
| 檢課兼旬每設杯 | 십여 일 일과 점검하며 늘 술잔을 든다 |
| 別後能忘提命語 | 이별 후에 능히 일러준 말 ³²² 잊으랴 |
| 世華冉冉暗中催 | 세월은 모르는 중에 씩 없이 흐르거늘 |

321 의귀(依歸) : 스승을 가리킨다. 『논어』 「옹야(雍也)」에 이르기를 “계씨가 민자건을 비움의 읍재로 삼으려 하자, 민자건이 사자에게 말했다. 나를 위하여 잘 사절해 주시오. 만약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문수의 북쪽에 있을 것이오. [季氏使閔子騫爲費宰 閔子騫曰 善爲我辭焉 如有復我者 則吾必在汶上矣]” 하였는데, 사랑좌(謝良佐)의 주에 이르기를 “... 하물며 민자는 성인을 얻어 의귀로 삼았으니 그 계씨의 불의한 부귀 보기를 개, 돼지쯤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었다. [況閔子得聖人爲之依歸 彼其視季氏不義之富貴 不啻犬彘]” 하였다.

322 일러준 말 : 원문 ‘제명(提命)’은 귀를 끌어당겨 면전(面前)에서 가르친다는 뜻이다. 『시경』 「억(抑)」에 이르기를 “손으로 잡아 줄 뿐만 아니라 일로 보여 주며, 대면하여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귀를 붙잡고 말해 주노라. [匪手攜之 言示之事 匪面命之 言提其耳]”라고 하였다.

제야
除夜

紆鬱秋來久癡吟 가을이라 우울한 마음 시를 오래 폐하고
細推往事每傷心 가만히 지난 일 회상하니 늘 마음 아프다
未能胸裏除塵了 흥중의 티끌 제거하지 못했으니
不覺燈前坐夜深 등 앞에 밤이 깊은 것도 느끼지 못한다
四海春生回斗柄 두병³²³이 돌아 사해에 봄이 돌아오니
千家曉白唱晨禽 마을마다 새벽닭이 우는구나
若教素志無違得 평소의 뜻 어기지만 앓는다면
肯嘆二毛頭上尋 어찌 머리의 새치를 탄식하랴

323 두병(斗柄) : 북두칠성 중에 자루 쪽의 세 별을 이른다. 이 별은 1년 내내 선회하며 달마다 가리키는 방향을 바꾼다.

상원에 읊다

신축년(1961)

上元吟

辛丑

又是今年福峽中 금년에 또 동북에서 지내니
 萍蓬一任轉西東 썩대처럼 동서로 전전하는 신세
 報春梅樹呈新瑞 봄을 알리는 매화 새 서상(瑞祥) 드러내니
 明燭樓臺想古風 누대에서 촛불 밝히고 고풍을 생각한다
 半道摧梁愁不寐 중도에 스승 잃어³²⁴ 시름으로 잠 못 이루니
 刊文須仗意何窮 문집 간행하여 의지하려는 뜻 무궁하다
 月圓可占豐凶歲 달이 둥글어 풍년을 점칠 수 있으니
 人滿街頭望碧空 거리 가득한 사람들 벽공을 바라본다

324 스승을 잃어 : 원문은 최량(摧梁)이다. 공자(孔子)가 자신이 죽을 꿈을 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뒷짐을 지고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서 한가로이 거닐며 노래하기를, “태산이 무너지겠구나, 들보가 부러지겠구나, 철인이 죽게 되겠구나. [泰山其頽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 하였다. 『禮記』 「檀弓上」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에서는 “태산이 무너지고 들보가 꺾어졌다. [泰山壞乎 梁柱摧乎]”라고 하였다.

봄날에 여러 어른과 함께 이야기하다 3수

春日與諸丈共話 三首

1

柳色淡黃春似海 버들 색은 담황빛 봄은 바다와 같으니
 田翁何事種纓慵 전옹은 어이타 경작에 게으른가
 消愁酒盡花間醉 꽃 사이에서 취해 시름 없애니
 可意人驚亂後逢 그리운 이 난리 후에 만나 놀랍구나
 愧我區區蠅附驥 부끄럽다 구구한 나는 천리마에 붙은 파리³²⁵
 羨君落落鶴依松 부럽다 그대는 낙락하여 솔에 기댄 학일세
 倚床偶閱千秋史 책상에 기대 우연히 천추의 역사 읽다가
 晝夢唐虞一任濃 낮에도 실컷 당우시대³²⁶ 꿈꾼다네

2

出林高閣俯青江 숲에 솟은 고각에서 청강을 굽어보니
 清趣世間誰有雙 맑은 흥취 세간에 누가 견주랴
 憂道綿如引鈞髮 천균³²⁷ 끄는 터럭 같은 도를 근심하고
 嘆民危若累棋邦 바둑돌 쌓은 듯 백성의 위난(危難) 탄식한다
 飛花有意黏人面 나는 꽃은 뜻이 있는 듯 얼굴에 붙는데
 垂柳何心拂酒缸 수양버들은 무슨 마음으로 술단지 스치나
 惱殺中宵思友夢 한밤에 벗을 그리는 꿈이 괴롭나니

325 천리마에 붙은 파리 : 『사기(史記)』 권61 「백이열전(伯夷列傳)」에 이르기를, “안연이 비록 학문이 독실하나 천리마 꼬리에 붙어 행실이 더욱 드러났다. [顏淵雖篤學 附驥尾而行益顯]” 하였다.

326 당우(唐虞)시대 : 당요(唐堯)와 우순(虞舜)의 합칭이다. 곧 요임금과 순임금이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던 태평한 시대를 뜻한다.

327 천균(千鈞) : 균은 무게 단위로 1균은 30근이다. 무거운 물건을 말한다.

每憐明月入虛窓 매번 빈창에 드는 명월만 가련하다

3

林泉窈窕可棲遲 임천은 그윽하여 서지³²⁸할 만하니
取次品題筆一枝 내킨 대로 붓을 들어 글을 써본다
草色偏青雨過後 풀빛은 비 온 후에 더욱 푸르고
江聲忽厲月明時 강 소리는 달 밝을 때 문득 사납다
微茫雲樹常懷友 아득한 운수³²⁹에 항상 벗을 그리고
磊落詞文更仰師 훌륭한 글을 보면 더욱 스승을 우러른다
種竹田寬因種玉 대밭이 넓어 옥까지 심으니³³⁰
此心惟有故人知 이 마음 오직 고인만이 알리라

328 서지(棲遲) : 천천히 돌아다니며 마음껏 노는 것을 말한다.

329 운수(雲樹) : 두보(杜甫)의 「춘일억이백(春日憶李白)」 시에 이르기를, “위수 북쪽엔 봄 하늘에 우뚝 선 나무, 강 동쪽엔 저문 날 구름 [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이라 하였다.

330 옥까지 심으니 : 옥의 씨앗을 뿌린다는 말이다. 양백옹(楊伯雍)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 무종산(無終山)에서 목마른 행인들에게 물을 길어다 마시게 해 준 결과, 이에 감동한 선인(仙人)으로부터 한 말의 옥 씨를 받아 수많은 미옥(美玉)을 생산하여 부유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진(晉)나라 간보(干寶)의 『수신기(搜神記)』 권11에 나온다.

한가한 때 자유롭게 읊다 3수

閒居漫吟 三首

1

靈均何事製荷衣 영균³³¹은 어인 일로 하의³³²를 만들었나
 如起九原可共歸 구원³³³에서 일어나면 함께 돌아가리라
 閱世休言蟬翼薄 세상이 매미 날개처럼 열다고 말하지 말라
 知音空嘆曉星稀 새벽별처럼 드문 지음³³⁴을 공연히 탄식한다
 遊魚活潑吹浪沒 물고기는 활발하게 물결을 불며 잠기고
 閒鳥悠揚拂地飛 한가한 새는 가볍게 땅을 스치며 비상한다
 管盡江湖多少景 강호에 많은 풍경 홀로 차지하여
 新詩寫罷故關扉 새 시로 묘사하고 일부러 문을 닫는다

2

淸泉白石占幽居 청천과 백석 있어 깊은 거처 점치니
 任彼親朋隔雁魚 저 친한 벗의 편지³³⁵는 오건 말진

331 영균(靈均) : 굴원(屈原)의 자.

332 하의(荷衣) : 연잎으로 만든 옷으로 은자(隱者)의 옷이다. 남북조(南北朝) 공치규(孔稚圭)의 「북산이문(北山移文)」에, 은자로서의 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고 “마름풀로 만든 옷[芰製]을 불사르고 ‘연잎으로 만든 옷[荷衣]’을 태웠다.” 하였다.

333 구원(九原) : 구원(九原)은 전국시대의 진(晉) 나라 경(卿), 대부(大夫)의 묘지가 있었던 곳으로, 무덤을 뜻한다.

334 지음(知音) : 음(音)을 안다는 말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한 벗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옛날에 백아(伯牙)는 거문고를 잘 타고,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는 거문고 소리를 잘 알았다. 종자기는 거문고 가락에 실은 백아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서, 백아가 높은 산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험준하기가 태산(泰山) 같구나. [峨峨兮若泰山]”라고 하고, 백아가 흐르는 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세차게 흐르는 것이 강하(江河) 같구나. [洋洋兮若江河]”라고 하였다. 종자기가 죽은 뒤에 백아는 자기의 음(音)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하여,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列子』 卷5 「湯問」

335 편지 : 원문 안어(雁魚)는 소식을 뜻한다. 옛날 기러기 발에 서신을 묶어 날려 보내서 소

經劫村饒人尙樸 난리 겪은 마을 풍요해 사람들 아직 질박하고
 深春地僻樹應疎 깊은 봄인데도 땅이 외져 나뭇잎 성글다
 貧憂鶴乏甕中糧 가난하니 옹기에 학의 식량 부족할까 근심하고
 閒看蟲雕世外書 한가롭게 벌레 먹은³³⁶ 세외 책을 본다
 知否當年塞翁馬 당년의 새옹지마³³⁷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莫將塵事歎盈虛 세속 일 가져다가 성쇠를 탄식 말라

3

休將素志廢中途 평소의 뜻 중도에 폐하지 말지니
 蘊玉如今待價沽 품은 옥을 이제 값을 기다려 팔리라
 爲忘一世眠垂釣 한세상 잊고자 낚시 드리워 즐고
 閒訴平生坐據梧 한가히 오동에 기대 평생을 말한다
 樽中白酒消塊磊 술 단지의 백주로 울적함을 없애니
 眼際青山似有無 눈앞의 청산은 있는 듯 없는 듯

식을 전달하였고, 악부(樂府) 상화가사(相和歌辭) 「음마장성굴행(飲馬長城窟行)」에 “손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잉어 두 마리를 주길래, 아이 불러 두 잉어를 삶게 했더니, 배 속에서 짙막한 서신이 나오네. [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 呼兒烹鯉魚 中有尺素書]”라고 하였다.

336 벌레 먹은 : 원문 충충(蟲雕)는 나무를 갉아 먹는 좀벌레와 같은 작은 기어라는 뜻으로 문장 짓는 것을 비하하여 칭찬 것이다. 이백(李白)의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에 이르기를 “조충의 소기라서 대인의 안목에 부합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恐雕蟲小伎 不合大人]” 하였다.

337 새옹지마(塞翁之馬) : 『회남자(淮南子)』 「인간훈(人間訓)」에 이르기를, “변방 근처에 사는 노인의 말이 도망쳐서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모두 위로하였는데, 그 노인은 태연하게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였다. 몇 달 뒤에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마 여러 마리를 데리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였는데, 노인은 ‘이것이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였다. 그의 아들이 말타기를 좋아하여 그 말들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니,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였다. 그러자 노인은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하였다. 1년 뒤에 오랑캐들이 대거 침입하자 장정들이 모두 나가 싸워 변방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열에 아홉은 죽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만은 다리가 부러진 관계로 부자가 모두 온전하게 살 수 있었다.” 하였다.

委翅戢鱗君莫說 뜻을 펼치지 못했다고³³⁸ 말하지 말라
 扶搖儻看得鵬圖 회오리바람³³⁹ 불면 대붕의 뜻을 보리라

338 뜻을 펼치지 못했다고 : 한유(韓愈)의 시에 이르기를, “나의 재주가 세상과는 서로 맞지 않나니, 지느러미 움츠리고 날개 접은 채 더 이상 희망이 없다오. [我材與世不相當 戢鱗委翅無復望]” 하였다. 『韓昌黎集』 卷3 「贈鄭兵曹」

339 회오리바람 : 원문은 부요(扶搖)이다.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이르기를, “대붕(大鵬)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적에,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리 창공으로 올라간다. [搏扶搖而上者九萬里]” 하였다.

여름날 즉흥

夏日卽事

峽國經春碧澗西 산골 푸른 시내 서쪽에서 봄을 지내니
堆雲黃麥與腰齊 구름 쌓은 듯 노란 보리가 허리까지 찼네
閭閻寂寂千峯月 적적한 마을에 천봉의 달빛 비치고
風雨蕭蕭五夜鷄 소소한 풍우에 오야³⁴⁰의 닭이 운다
避世韓康曾市隱 세상 피한 한강³⁴¹은 일찍 시장에 은둔했고
養眞晦父耐巖棲 참마음 길렀던 회보³⁴²는 바위에 깃들었다
午陰閒拂蠅扇子 정오의 그늘에서 한가히 승선자³⁴³ 부치니
應客有兒家賴妻 손님 맞을 아이 있고 집안 꾸러 아내도 있다네

340 오야(五夜) :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각.

341 한강(韓康) : 후한(後漢) 때 대표적인 은자(隱者)로 자는 백휴(伯休)이다. 그는 늘 명산에서 약초를 캐어다가 장안의 저자에 내다 팔았는데 한 입으로 두 값을 말하지 않았으며 30여 년을 그렇게 했다. 그때 어떤 여자가 한강에게 와서 약을 사는데, 한강은 값을 지켜 변동이 없었다. 여자가 성이 나서 “그대가 한백휴라도 되오? 두 값을 매기지 않다니.”라고 하자, 한강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 원래 이름을 숨기고자 하였는데, 지금 보잘것없는 여자까지도 나를 알아보니 약 따위를 팔아서 무엇하리.” 하고는 패릉의 산속으로 숨어버렸다. 『後漢書』 113권 「逸民傳 韓康」

342 회보(晦父) : 주희(朱熹)를 가리키는데, 주희(朱熹)의 호가 회암(晦庵)이다.

343 승선자(蠅扇子) : 파리 쫓는 부채.

『효당집』³⁴⁴을 간행한 후에 여러 벗들과 청석강에서 놀다
 曉堂集刊成後與諸友遊青石江

| | |
|---------|-------------------------------------|
| 誰能解事送人來 | 누가 일을 알았는지 사람을 보냈는고 |
| 恰似風流河朔杯 | 흡사 풍류 넘치는 하삭의 술잔 ³⁴⁵ 이로다 |
| 逐日汗衣闌夜束 | 매일 땀에 젖으며 밤을 지냈는데 |
| 如今笑口向君開 | 이제는 그대를 향해 크게 웃노라 |
| 佩壺吹笛茵芳草 | 술병 차고 피리 불며 방초를 자리삼고 |
| 戴笠垂竿坐釣臺 | 삿갓 쓰고 조대에 앉아 낚시를 드리운다 |
| 千載誰知川上嘆 | 천 년간 누가 천상의 탄식 ³⁴⁶ 알았으리 |
| 祇看不舍歲同催 | 다만 쉼 없는 세월의 흐름을 보노라 |

344 『효당집(曉堂集)』: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鈺, 1901~1960)의 문집이다. 구한말 만해 한용운 등 당대 대표적 지성들과 교류했고, 근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대 문장가였던 정인보 선생에게 “동방에 효당의 학문을 넘어설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극찬을 듣기도 했다. 또 일제강점기 단발령 거부와 독립운동으로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345 하삭(河朔)의 술잔: 여름날 피서(避暑)의 술자리를 말한다. 하삭은 황하(黃河) 이북 지방을 가리키는데 후한(後漢) 말기에 광록대부(光祿大夫) 유송(劉松)이 원소(袁紹)의 군(軍)을 진무(鎮撫)하고 있을 때 원소의 자제(子弟)들과 함께 날마다 이곳에서 연음(宴飲)을 즐겼다. 항상 삼복(三伏) 때를 당해서는 밤낮으로 통음(痛飲)하여 곤드레가 되도록 취하곤 하였다.

346 천상(川上)의 탄식: 공자가 일찍이 냇가에서 이르기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쉬지 않는도다. [逝者如斯夫 不舍晝夜]” 하였다. 『論語』 「子罕」

초가을

初秋

| | |
|---------|-------------------------------------|
| 露髮被襟圍圍身 | 산발하고 옷깃 풀며 지치던 ³⁴⁷ 몸이 |
| 輕輕腋羽感秋晨 | 가을 새벽 느끼니 가벼운 날개 돋는 듯 |
| 江山更理謝公屐 | 강산에서 다시 사공의 신발 ³⁴⁸ 수선하니 |
| 甕酒何須彭澤巾 | 옹기 술도 어찌 팽택의 두건 ³⁴⁹ 필요하라 |
| 爲夢家鄉長引睡 | 가향을 꿈꾸려고 늘 수면을 청하고 |
| 要忘世累不嫌貧 | 세상의 허물 잊고자 가난도 혐의하지 않네 |
| 如今詹尹維君在 | 오늘날 첨운 ³⁵⁰ 은 그대만 있을 뿐 |
| 僦屋丹厓碧澗濱 | 붉은 절벽 푸른 시냇가에 집을 빌린다 |

347 지치던: 춘추 시대 정(鄭) 나라 자산(子産)에게 누가 산 고기[生魚]를 선사했을 때 자산이 교인(校人)을 시켜 못에 놓아주라고 하자, 교인이 삶아 먹고는 복명하기를, “처음 놓아주었을 때는 지쳐서 퍼지 못하다가, 잠시 뒤에는 조금 퍼져서 유연히 갔습니다. [始舍之圍圍焉 少則洋洋焉 攸然而逝]” 하였다. 『孟子』 「萬章上」

348 사공(謝公)의 신발: 남조 송(南朝宋)의 시인 사영운(謝靈運)이 산을 오를 때는 나막신[屐]의 앞굽을 떼어 버리고 산을 내려올 때는 뒷굽을 떼어 걷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宋書』 卷67 「謝靈運列傳」

349 팽택(彭澤)의 두건: 팽택은 팽택령을 지낸 도잠(陶潛)을 가리킨다. 도잠의 「음주(飲酒)」에 이르기를, “만일 다시 유쾌히 마시지 않는다면, 공연히 두상의 건을 저버리게 되리라. [若復不快飲 空負頭上巾]”라고 하였는데 도잠은 항상 갈건(葛巾)을 쓰고 다니다가 술을 만나면 즉시 갈건을 벗어서 술을 걸러 마시고는 다시 그 갈건을 쓰곤 하였다.

350 첨운(詹尹): 초(楚)나라 때의 태복(太卜) 정첨운(鄭詹尹)을 가리키는 것으로,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하여 굴원(屈原)이 자신의 진퇴를 알아보려고 찾아갔다고 한다. 『楚辭』 「卜居」

금곡잡영 4수
琴谷雜詠 四首

1

| | |
|---------|-----------------------------------|
| 爲避城中萬丈塵 | 성중의 만장 티끌 피하려고 |
| 締盟水竹伴居人 | 수죽과 사는 이와 맹약을 맺었네 |
| 簡編堆案時供賞 | 서안에 쌓인 서책 함께 완상하고 |
| 雪月當窓可耐貧 | 창에 비치는 설월로 가난을 견디네 |
| 洛下誰爲喜迎客 | 낙하에선 누가 기쁘게 객을 맞을꼬 |
| 天外長作未歸身 | 하늘 밖에서 길이 못 가는 신세라 |
| 莫將詩鉢相催急 | 시발 ³⁵¹ 을 가지고 급하게 재촉 말라 |
| 黯黯羈懷正惱神 | 어두운 나그네 마음 사납게 하나니 |

2

| | |
|---------|-----------------------|
| 臘雪初晴江上村 | 선달의 눈 막 개인 강가 마을 |
| 梅花一樹對黃昏 | 매화 한그루 황혼을 마주했네 |
| 塞鴻何處人傳信 | 변방 기러기는 어데 소식 전하는고 |
| 好友來時月在門 | 좋은 벗 오실 때 달은 문을 비춘다 |
| 臨鏡還慙鬢莖白 | 거울 보니 하얀 귀밑머리 부끄럽고 |
| 敎兒正耐耳根喧 | 아이 가르치며 귀뿌리 시끄러움 견디다 |
| 風流落落芳隣老 | 풍류 넘치는 좋은 이웃 늙은이가 |
| 吟罷呼童引美樽 | 시를 읊고서 아이 불러 술 단지 당긴다 |

351 시발(詩鉢) : 남제(南齊) 때 경릉왕(竟陵王) 소자량(蕭子良)이 항상 밤이면 문인 학사들을 초청하여 술 마시며 시를 짓게 하면서, 촛불 1촌(寸)이 타는 동안에 사운시(四韻詩)를 짓도록 했는데, 뒤에 소문염(蕭文琰)이 그보다 더 빠른 방법으로, 동발(銅鉢)을 쳐서 그 소리가 한 번 그칠 동안에 사운시를 짓도록 했던 데서 온 말이다.
『南史』卷59「王僧孺列傳」

3

| | |
|---------|---------------------------------------|
| 鳩竹庭松共歲寒 | 언덕의 대 뜰의 솔이 세한 ³⁵² 을 함께 하니 |
| 幾吟行路此時難 | 얼마나 이 시절 행로의 어려움 읊었던가 |
| 志存涉世常緘口 | 세상 헤쳐 갈 뜻에 항상 입을 다물었고 |
| 計謬昇天懶煮丹 | 승천의 꾀 그르쳐 연단 만들기도 싫구나 |
| 叩篋村童凌雨雪 | 배우러 오는 ³⁵³ 촌동들 눈비를 무릅쓰고 |
| 狎人山鳥上楯欄 | 산새는 사람과 친해져 난간에 오른다 |
| 九原鄒聖今如作 | 구원 ³⁵⁴ 의 맹자가 지금 만약 살아난다면 |
| 何止區區一國安 | 어찌 구구하게 일국만 편안하게 하였으랴 |

4

| | |
|---------|---------------------|
| 筇無卒歲出於山 | 해가 가도 발걸음이 산을 안 나서니 |
| 流水白雲意自閒 | 유수와 백운에 뜻이 절로 한가하다 |
| 佳詩磊落驚人語 | 좋은 시어 뇌락하여 사람들 놀라고 |
| 舊友依稀憑夢顏 | 옛 친구 얼굴은 꿈결에 어렵듯하다 |
| 白髮空添憂樂裏 | 백발은 공연히 우락 중에 더하지만 |
| 丹心獨保是非間 | 단심만은 홀로 시비 사이에 보존한다 |
| 點朱三古書將盡 | 고서를 붉은 점을 찍으며 읽고 나서 |
| 臥聽樵歌夕日還 | 저녁에 돌아오는 초가를 누워 듣는다 |

352 세한(歲寒) : 『논어』 「자한(子罕)」에 이르기를,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송백이 제일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歲寒然後知松柏之後雕]” 하였다.

353 배우러 오는 : 원문 고택(叩篋)은 책을 싸 가지고 수업하러 가는 것을 말한다. 『예기』 「학기(學記)」에 이르기를 “입학하여 북을 쳐서 올리고 책을 꺼내는 것은 그 학업을 공손히 받기 위함이다. [入學鼓篋 孫其業也]” 하였다.

354 구원(九原) : 전국시대의 진(晉)나라 경(卿)·대부(大夫)의 묘지가 있었던 곳으로, 무덤을 뜻한다.

세모에 이별에 임하여 운자를 들어 회포를 노래하다

歲暮臨別拈韻賦懷

| | |
|---------|-------------------------------------|
| 苒苒光陰屬暮年 | 광음이 쉽 없이 흘러 세모를 맞으니 |
| 鄉懷斗起不成眠 | 갑작스런 고향 생각 잠 못 이룬다 |
| 人情真是陰晴日 | 인정은 참으로 흐림과 맑음이 바뀌고 |
| 塵事無端聚散烟 | 세속 일은 무단히 취산하는 안개로다 |
| 多謝君携甕底釀 | 고맙다 그대 옹기에 빚은 술 가져오니 |
| 何勞我掛杖頭錢 | 어찌 수고롭게 지팡이에 돈을 걸겠는가 ³⁵⁵ |
| 今非根蒂誰無別 | 이제 근체 ³⁵⁶ 아니면 누가 이별이 없으랴 |
| 更待東風楊柳天 | 다시 동풍과 양류의 시절 기다리리라 |

355 돈을 걸겠는가 : 진(晉) 나라 완수(阮修)가 막대기 끝에 술 사 먹을 돈을 걸어 놓고 다니면서 주막이 나오면 문득 들어가 취하도록 마신 고사가 있다. 『晉書』 『阮修傳』

356 근체(根蒂) : 도잠(陶潛)의 시에 이르기를 “인생이란 꼭지도 없고 뿌리도 없이, 길 위에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것. [人生無根蒂 飄如陌上塵]”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陶淵明集』 卷4 「雜詩」

제야에 읊다

除夜吟

冠山積雪沒溪橋 관산³⁵⁷의 적설이 개울의 다리 덮으니
蘿菔便成千里遙 나복³⁵⁸은 다시 천리 먼 길 되었네
莫恨惟吾除此夜 내 홀로 이 밤 보냄을 한하지 말라
應知諸老坐深宵 여러 노인도 깊은 밤 앉아 있으리라
維慙堂上無供旨 당상의 부모님 봉양 못해 부끄럽지만
肯向塵間學折腰 속세에서 허리 굽히는 일³⁵⁹ 따라하라
六十蓬瑗幾番化 거백옥³⁶⁰은 60년간 몇 번이나 변했던고
還慙舊我又元朝 옛 모습 그대로 새해를 맞아 부끄럽네

357 관산(冠山) : 전남 장흥(長興)의 옛 이름.

358 나복(蘿菔) : 나복산으로 모후산(母后山)이라고도 한다. 전라남도 순천시의 주암면 대광리·송광면 삼청리·화순군 동북면과 남면에 걸쳐진 산이다

359 허리 굽히는 일(折腰) : 진(晉)나라 도잠(陶潛)이 팽택현령(彭澤縣令)으로 있을 적에, 군(郡)에서 파견한 독우(督郵)의 시찰을 받게 되었는데, 아전이 도잠에게 의관을 갖추고 독우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 도잠이 탄식하면서 “내가 쌀 다섯 말 때문에 허리를 꺾어 향리의 어린아이에게 굽실거릴 수는 없다. [我不能爲五斗米折腰向鄉里小兒]”라고 하고는, 즉시 수령의 인끈을 풀어 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고사가 전한다. 『晉書』 卷94 「陶潛列傳」

360 거백옥(蓬伯玉) : 춘추시대 위(衛)나라의 현대부(賢大夫)이다. 그가 나이 육십이 되었을 때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고쳤다. 『장자』 「칙양(則陽)」에 이르기를 “거백옥은 나이 육십이 되는 동안 육십 번이나 잘못된 점을 고쳤다. [蓬伯玉行年六十而六十化]” 하였다.

신정 임인년(1962)
新正 壬寅

養眞數載臥衡茅 참모습 기르며 몇 년 형모³⁶¹에 누웠나니
朱穆當年亦絕交 주목³⁶²도 당년에 교류를 끊었노라
萬戶鎖災新桃符 집집마다 새 도부³⁶³로 재액 없애니
東風催候動林梢 동풍은 계절 재촉하며 숲 가지를 흔든다
酒醒強起呼茶椀 술 깨자 애써 일어나 찻잔 부르고
性拙常憐借鵲巢 성품 졸렬해 항상 까치둥지 빌림³⁶⁴이 애련하네
望月今宵歲豐否 오늘 밤 달을 보고 올해의 풍년을 짐치며
床頭聊祝穀登郊 책상에서 들의 곡식 익어가길 축원한다

361 형모(衡茅) : 형문(衡門)과 모옥(茅屋)을 줄인 말로, 보잘것없는 누추한 집을 말한다.

362 주목(朱穆) : 후한(後漢) 때 사람으로 시어사(侍御史)가 되어 당시 경박한 풍속에 격분하여 가슴을 치고 승후론(崇厚論)과 절교론(絕交論)을 제창하였다.

363 도부(桃符) : 마귀(魔鬼)를 쫓기 위하여 문짝에 붙이던 조그마한 나뭇조각으로 복숭아 나무로 만들어 길상(吉祥)한 문자(文字)를 적었다.

364 까치둥지 빌림 : 남의 집에서 기우(寄寓)하는 상황을 나타낸 말이다. 『시경』 「작소(鵲巢)」에 이르기를 “까치가 둥지를 지었는데 비둘기가 거주하네. [維鵲有巢 有鳩居之]” 라고 하였다. 만취 선생은 화순군 남면 절산리에 위치한 도남재(道南齋)에서 거거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도남재는 선생의 스승이신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錡)이 강학하던 곳으로 주민의 후원으로 지어졌다.

봄날 즉흥으로 읊다 10수

春日卽事 十首

1

| | |
|---------|---------------------|
| 爲訪寒梅上石皐 | 한매 찾아 돌 언덕 오르니 |
| 春光先着樹枝高 | 춘광이 먼저 높은 가지에 걸렸네 |
| 三宵憑夢人何在 | 삼일 밤 꿈속의 임은 어디 계신고 |
| 一斗沾唇氣欲豪 | 술로 입술 적시니 기운조차 호방하다 |
| 招客峽中淹翰墨 | 산골에 객을 불러 한묵을 적시고 |
| 鑿池園畔養鱗毛 | 정원 가에 연못 파서 물고기 기른다 |
| 百年人世頭將白 | 백년 세월 머리도 세려 하니 |
| 中夜長彈匣裏刀 | 한밤에 늘 갑 속의 칼을 두드린다 |

2

| | |
|---------|------------------------------------|
| 經歲閉門無客過 | 한 해 동안 과객 없어 문을 닫다 |
| 逢君今日一高歌 | 오늘 그대 만나 높이 노래 부른다 |
| 任他滿地煙塵漲 | 대지 가득 찬 연진이야 아랑곳 앓고 |
| 鎖此衝霄意氣多 | 이 넘치는 충천의 의기 없앤다 |
| 畜德常繙黃券子 | 덕을 쌓으려 ³⁶⁵ 향시 옛 서책 열어보고 |
| 養精曾廢綠樽波 | 정기 기르려 술잔도 일찍 폐했노라 |
| 種麻數畝田寬處 | 넓은 밭 몇 이랑에 마를 심고서 |
| 裁竹蒔花趣若何 | 대와 꽃도 심으니 그 흥취가 어떠한고 |

365 덕을 쌓으려 : 『주역』 「대축괘(大畜卦)」 상(象)에 이르기를 “군자는 옛 성현들의 언행을 많이 알아 자신의 덕을 키운다. [君子多識前言往行 以畜其德]” 하였다.

3

囊裏錢無酒可賒 주머니 속엔 술값도 없으나
 淸風兩腋玉川茶 옥천자³⁶⁶의 차에 몸엔 청풍이 인다
 江聲忽約砧聲厲 강 소리에 다듬이 소리 더욱 거칠고
 山影漸隨月影斜 산 그림자는 점차 달빛 따라 진다
 半枕夢回殘漏曉 침상(枕上)의 꿈이 잔루³⁶⁷의 새벽에 깨니
 四時春在一庭花 사시의 봄빛이 뜰의 꽃에 있구나
 飄蓬什載成何事 썩처럼 떠돈 지 이십 년 무엇을 이루었나
 親老如今愧不家 늙으신 부모 뵈지 못해 부끄럽네

4

了忘塵間事短長 속세의 시비장단 다 잊고서
 隱居樂志似山陽 은거하며³⁶⁸ 뜻을 즐기니 산양³⁶⁹과 같네
 栽竹孫多勝種玉 대를 심으니 죽순 많아 종옥보다³⁷⁰ 낫고
 鑿池形曲宜流觴 연못 파니 모습 굽어 유상³⁷¹하기 좋아라

366 옥천자(玉川子) : 옥천자는 당(唐)나라 시인인 노동(盧仝)의 호(號)이다. 그의 시 「다가(茶歌)」에 이르기를 “일곱째 잔은 다 마시기도 전에 두 겨드랑이에 날개가 돌아 맑은 바람이 술술 이는 길 깨닫겠네. [七椀喫不得也唯覺兩腋習淸風生]”라고 하였다.

367 잔루(殘漏) : 루(漏)는 물시계로 통에 남은 물의 양으로 시간을 측정한다. 여기서는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려 할 때를 나타내었다.

368 은거하며 뜻을 즐기니 : 『논어』 「계씨(季氏)」에 이르기를 “세상에서 물러나 숨어 살면서 자신의 뜻을 추구하고, 세상에 나아가 의를 행하여 자신의 도를 펼친다. [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라고 하였다.

369 산양(山陽) : 산양은 진(晉) 나라 때 상수(向秀)와 혜강(嵇康) 등 죽림칠현(竹林七賢)이 즐겨 노닐던 곳으로 상수(向秀)를 가리킨다.

370 종옥보다 : 종옥은 옥을 심는다는 말로, 양백옹(楊伯雍)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 무종산(無終山)에서 목마른 행인들에게 물을 길어다 마시게 해 준 결과, 이에 감동한 선인(仙人)으로부터 한 말의 옥 씨를 받아 수많은 미옥(美玉)을 생산하여 부유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진(晉)나라 간보(干寶)의 『수신기(搜神記)』 권11에 나온다.

371 유상(流觴) : 구불구불한 물길에 술잔을 띄우는 것.

詩賦覬覩唐宋帖 시부는 당송의 서첩을 엿보고
 書聲彷彿魯齊鄉 글소리는 노나라와 제나라 고을 비슷하다
 千山猿鶴知音者 천산의 원학이³⁷² 나의 지음³⁷³이니
 笑殺浮生自奔忙 우습다 뜬구름 인생 스스로 바쁘기만

5

的歷江山眼共明 뚜렷한 강산에 눈까지 밝아지니
 東風一嘯倚春城 동풍 부는 춘성에서 휘파람 부노라
 半庭梧待祥禽宿 뜰의 오동은 상금³⁷⁴이 깃들기를 기다리고
 數本蕉聽細雨聲 몇 그루 파초에선 가는 빗소리 들린다
 公瑾高談人自醉 공근³⁷⁵의 고담에 사람은 절로 취했고
 賈逵無賴舌勤耕 가규³⁷⁶는 생업 없어 설경에 힘썼다

-
- 372 원학(猿鶴)이 : 은둔할 때 함께했던 원숭이와 학을 말한다. 남제(南齊) 때의 문인 공치규(孔稚圭)가 일찍이 변절한 은사 주옹(周顛)을 두고 지은 「북산이문(北山移文)」에 이르기를 “혜장이 텅 비어 밤의 학은 원망하고, 산인이 떠나매 새벽 원숭이는 놀라도다. [蕙帳空兮夜鶴怨 山人去兮曉猿驚]” 하였다.
- 373 지음(知音) : 음(音)을 안다는 말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한 벗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옛날에 백아(伯牙)는 거문고를 잘 타고,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는 거문고 소리를 잘 알았다. 종자기는 거문고 가락에 실은 백아의 생각을 정확히 알아서, 백아가 높은 산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힘준하기가 태산(泰山) 같구나. [峨峨兮若泰山]”라고 하고, 백아가 흐르는 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세차게 흐르는 것이 강하(江河) 같구나. [洋洋兮若江河]”라고 하였다. 종자기가 죽은 뒤에 백아는 다시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列子』 卷5 「湯問」
- 374 상금(祥禽) : 봉황이다.
- 375 공근(公瑾) : 삼국시대 오(吳)나라 손권(孫權)의 장수인 주유(周瑜)의 자이다. 정보(程普)가 이르기를 “주공근과의 사김은 마치 순주를 마신 것과 같아 나도 모르게 절로 취한다. [與周公瑾交 若飲醇醪 不覺自醉]” 하였다. 『三國志』 卷54 「吳書 周瑜傳」
- 376 가규(賈逵) : 한(漢)나라 때의 가규(賈逵)가 입으로 경문을 외워서 가르치자, 학생들이 원근을 가리지 않고 몰려드는 바람에 곡식이 창고에 가득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가규는 힘으로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 경작을 한다.” 하였다. 『拾遺記』 卷6

峨洋千載今誰在 천년 후에 지음³⁷⁷은 이제 누가 있고
 欲向琴中訴此生 거문고에서 이 삶을 하소연하고자

6

宇宙便同一驛亭 우주는 하나의 역정과 같으니
 光陰爲我暫無停 광음은 나를 위해 잠시도 쉬지 않네
 人乏花間酬白杜 꽃 사이 이백 두보와 수작하는 이 없고
 膽麤袖裏吼青萍 간담은 거칠어 소매 속 청평검³⁷⁸이 운다
 古史挑燈點朱臥 고사 보려 심지 돋우어 붉은 점 찍으며 눕고
 晨春和月隔溪聽 새벽 방아소리 달빛과 섞여 개울 건너서 들린다
 何由復覩康衢上 어떻게 다시 볼까 강구³⁷⁹ 위에서
 朝野相歌出慶星 조야가 경성³⁸⁰의 출현 노래하는 것을

7

村翁慰我作詩朋 촌옹이 나를 위로해 시 벗이 되니
 石逕林樓日費登 돌길 숲속 누각에 날마다 애써 오른다
 茶香石鼎何須酒 석정의 차 향기 어찌 술이 필요하랴
 月入書窓可替燈 서창에 든 달은 등불을 대신한다
 蕩情恥似懷春女 정이 일면 임 그리는 여인처럼 부끄럽고
 凝坐寥如結夏僧 정좌하면 결하³⁸¹하는 스님처럼 적료하다

377 지음(知音) : 원문은 아양(峨洋)인데 춘추시대 백아(伯牙)가 연주하고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가 들었다는 「아양곡(峨洋曲)」을 가리킨다.

378 청평검(靑萍劍) : 옛날 보검(寶劍)의 이름으로,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설촉(薛燭)에게 보인 뒤에 비로소 명검임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379 강구(康衢) : 사방으로 통하는 넓은 길.

380 경성 : 북성으로 이 별이 나타나면 천하가 태평하다.

381 결하(結夏) : 여름 결제(結制)를 말한다. 결제는 승려들이 절 문을 나서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음력 4월 보름부터 시작하는 석 달 동안의 결제를 하안

一枕夢回故園路 고향 가는 침상의 꿈길에서 돌아오니
 五更鷄唱最生憎 오경³⁸²의 닭소리가 가장 밉구나

8

世事閱來將白頭 세사를 겪으며 머리가 세려 하니
 芳樽滌盡滿腸愁 술로 흥중 가득한 시름을 씻노라
 堪憐身勢隨蓬轉 가련타 신세는 쭉대 따라 전전하니
 忍說光陰逐水流 차마 광음이 유수 같다고 얘기하랴
 厭看眼前謀祿利 눈앞에 이록(利祿)의 피를 실컷 보나니
 誰能皮裏有春秋 누가 가슴 속에 『춘추』³⁸³를 두었나
 發軔中途旋忽止 출발하다 중도에 문득 그치니
 何日壯觀賦遠遊 언제 널리 유람하며 「원유」³⁸⁴를 노래할까

9

秋來終日掩柴扉 가을 들어 종일 사립문을 닫으니
 羈愁悠悠旅雁歸 객수(客愁)는 유장한데 기러기가 돌아온다
 生平伎倆依鉛槧 평생의 기량은 연침³⁸⁵에 의지했고
 無限經綸老布衣 무한한 경륜도 포의³⁸⁶로 늙어간다

거(夏安居)라 한다.

382 오경(五更) : 하룻밤을 다섯 단계로 나누었을 때 다섯째 부분으로 새벽 3시에서 5시까지이다.

383 가슴 속에 춘추 :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시비를 가려 포폄(褒貶)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진(晉)의 저부(褚裒)는 고귀한 풍도가 있었는데, 환이(桓彝)는 그를 평하면서 “피부 속에 춘추의 포폄(褒貶)이 있다. [季野有皮裏春秋]” 하였다. 『晉書』 卷93 「褚裒列傳」 제야(季野)는 저부의 자(字)이다.

384 「원유(遠遊)」 : 굴원(屈原)의 『초사(楚辭)』 「원유(遠遊)」편을 말한다. 속세를 떠나서 초월적 자세로 청고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385 연침(鉛槧) : 문필에 종사함을 말한다.

386 포의(布衣) : 벼룩으로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입는 옷이다.

耽吟自喜因詩瘦 시를 탐해 시로 수척해짐 기쁘지만
 取醉時慙中酒迷 취하면 때로 술에 미혹됨이 부끄럽다
 安得此身生腋羽 어떻게 하면 이 몸에 날개가 돌아서
 故山千里任飛飛 천리 길 고향으로 자유롭게 날아갈까

10

對案何思食有魚 밥상 대해 어찌 물고기³⁸⁷ 생각하라
 自憐絲穀列簪裾 사곡³⁸⁸이 잠거³⁸⁹에 나열된 것 가련타
 松醪挑興三盃後 솔잎 술을 석 잔 먹으며 흥이 솟으니
 蕉葉題詩一丈餘 파초 잎에 한 길 남짓 시를 짓는다
 潛究東西經世術 동서의 경세술을 깊이 연구하고
 病觀今古養神書 병중에 고금의 양신서를 보노라
 萬山猿鶴參盟集 만산의 원학³⁹⁰이 맹약에 참여하니
 分外功名意亦疏 분수 밖 공명엔 뜻이 멀어진다

387 물고기 : 전국시대 풍환(馮煥)이 맹상군(孟嘗君)의 식객(食客)으로 있을 때 대우가 좋지 못하여 몇 차례나 긴 칼[長鋏]을 통기면서 “장검이며 돌아가자, 밥상에 고기가 없으니. [長鋏歸來乎 食無魚]”라고 하였다. 『戰國策』「齊策4」

388 사곡(絲穀) : 곡복사신(穀腹絲身)의 준말이다. 배를 채우는 곡식과 몸을 가리는 실이라는 뜻으로,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이른다.

389 잠거(簪裾) :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

390 원학(猿鶴) : 같이 은둔하기로 원학(猿鶴, 원숭이와 학)과 맹약한다는 말이다. 남제(南齊) 때의 문인 공치규(孔稚圭)가 일찍이 변절한 은사 주옹(周顒)을 두고 지은 「북산이문(北山移文)」에 이르기를 “혜장이 텅 비어 밤의 학은 원망하고, 산인이 떠나매 새벽 원숭이 놀란다. [蕙帳空兮夜鶴怨 山人去兮曉猿驚]” 하였다.

여름날의 즉흥 5수

夏日即事 五首

1

| | |
|---------|-------------------------|
| 萬樹中間一草菴 | 숲 가운데 초가 암자 하나 |
| 園葵圃薤敵珍甘 | 아욱과 부추가 진미를 대신하나니 |
| 誰知土室看書客 | 누가 알랴 토실에서 책을 보는 객이 |
| 終作他時濟世男 | 끝내 훗날 세상 구제하는 장부가 되는 줄 |
| 簾晚蕭騷風在竹 | 늦게 발을 걷으니 바람은 우수수 대에 불고 |
| 天晴灑落月臨潭 | 하늘은 맑아 맑은 달이 못을 비춘다 |
| 情親千里君憑夢 | 정친한 그대 천리 길 꿈에서 보았더니 |
| 童叩板扉遠致函 | 동자가 판자문 두드리며 먼 곳 편지 전하네 |

2

| | |
|---------|------------------------------------|
| 爲看飛燕揭風簾 | 나는 제비 보려고 발을 걷으니 |
| 雲外青山又是兼 | 구름 밖 청산까지 함께 보인다 |
| 諸弟東西違唯諾 | 아우들 동서로 흩어져 함께 못하고 |
| 雙親寤寐一依瞻 | 부모님은 자나 깨나 그리워하네 |
| 縱多祖狄中流楫 | 조적 ³⁹¹ 의 중류의 노는 많으나 |
| 誰作傅公和羹鹽 | 누가 부열 ³⁹² 의 화갱의 소금 되겠는가 |

391 조적(祖狄) : 진(晉)나라 때의 명장으로 조적이 진원제(晉元帝) 때 군사를 통솔하여 북벌하기를 자청하자, 원제는 그를 분위장군(奮威將軍)으로 삼았다. 그가 북벌군을 거느리고 장강을 건너갈 때 강 중류에서 노를 치며 맹서하기를, “중원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다시 건너게 된다면 이 강물에 빠져 죽겠다.” 하였다.

392 부열(傅說) : 『서경(書經)』 「상서(商書) 열명하(說命下)」에 은나라 무정(武丁) 임금의 제상인 부열(傅說)에게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국을 끓일 때면, 그대가 간을 맞출 소금과 매실이 되어 주오. [若作和羹 爾惟鹽梅]”라고 하였다.

世亂應稀相惠好 난세에 혜호³⁹³하는 이가 드무니
且拋塵事酒杯添 잠시 세상사 버리고 술이나 더하련다

3

后山鍾氣勢巖巖 후산³⁹⁴에 기운 모여 형세가 높으니
中有高人迥出凡 그 속의 고인은 멀리 세속을 벗어났네
臥聽牧童牛背笛 소 등의 목동의 피리를 누워서 듣고
閒隨漁父夕陽帆 어부의 석양 돛배를 한가롭게 따라간다
借枝棲擇淳風俗 가지 빌려³⁹⁵ 깃듬에 순한 풍속 택하고
違世時裁廣袖衫 세상 어겨 때때로 소매 넓은 청삼을 재단한다
安得招來舊時伴 어찌하면 옛날의 벗들 초대하여
評古論今暮朝咸 고금을 평론하며 아침저녁 함께 할까

4

人無根蒂陌塵同 인생은 근체 없어 길 먼지와 같으니³⁹⁶
飄轉半生西復東 반평생을 동서로 떠돌았네
恐染荷衣鬧市裏 저자에서 하의³⁹⁷가 물들까 두려워
偶來蘿菑亂山中 우연히 나복³⁹⁸의 난산 가운데 왔노라

393 혜호(惠好) : 사랑하고 좋아함. 『시경』 「북풍(北風)」에 이르기를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이와 손잡고 함께 돌아가리라. [惠而好我 携手同歸]”라고 하였다.

394 후산(后山) : 모후산(母后山)으로 전라남도 순천시의 주암면 대광리·송광면 삼청리·화순군 동북면과 남면에 걸쳐진 산이다

395 가지 빌려 : 거처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초료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틀어도 가지 하나에 불과하다. [鷦鷯巢於深林 不過一枝]”라고 하였다.

396 길 먼지와 같으니 : 도잠(陶潛)의 시에 이르기를 “인생이란 꼭지도 없고 뿌리도 없이, 길 위의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것. [人生無根蒂 飄如陌上塵]”이라 하였다. 『陶淵明集』 卷4 「雜詩」

397 하의(荷衣) : 은자(隱者)의 옷을 말한다.

398 나복(蘿菑) : 동북의 옛 이름이다.

| | |
|---------|----------------------|
| 迷茫半枕三更夢 | 아득하다 침상의 삼경의 꿈이여 |
| 下上斜陽一澗風 | 시내 바람은 석양에 오르내린다 |
| 夏日抄書移榻好 | 여름날 평상 옮겨 글쓰기 좋으니 |
| 清陰數畝滿庭桐 | 뜰 오동 맑은 그늘 몇 이랑 가득하다 |

5

| | |
|---------|-----------------------|
| 池畔徘徊曳短筇 | 짧은 지팡이 끌며 연못가를 배회하니 |
| 江天雨意暗前峯 | 강천에 비가 오려는지 앞산이 어둡구나 |
| 琅玕竹暎澄清水 | 옥빛 대나무는 청정한 물에 비치고 |
| 骯髒梅依磊砢松 | 기개 높은 매화는 송석에 의지했네 |
| 歲穰樽謀課日醉 | 풍년이랴 날마다 취하기를 꾀하나니 |
| 庭間苔厚經年封 | 두터운 이끼는 해가 가도록 뜰을 덮었네 |
| 何由效得先生德 | 어떻게 하면 선생의 덕을 본받을까 |
| 庠舍當時窄不容 | 당시는 서당이 좁아 수용을 못했거늘 |

적벽으로 가는 도중에 입으로 부르다 7월 초10일
赤壁途中口呼 七月初十日

平生幾度福州夢 평생 몇 번 복주³⁹⁹를 꿈꾸었나
今趁秋風振我衣 이제 가을바람에 옷을 떨친다
林下鳥如能解意 숲의 새들도 나의 뜻을 아는지
斜陽欸欸送人歸 해 질 녘 정겹게 사람을 송별하네

399 복주(福州) : 화순(和順) 동복(同福).

적벽강가를 유람하다

遊赤壁江上

地慳名勝我來遲 하늘이 명승 아껴 오는 것 늦었으니
望美亭空欲問誰 비워진 망미정⁴⁰⁰을 누구에게 물을까
百尺潭深龍窟宅 백 척 깊은 못은 용의 굴택이요
萬年松帶鶴巢枝 만년 솔은 학이 깃든 가지로다
寒山梵唄天花裏 하늘 꽃비⁴⁰¹ 속에 한산사 범패소리 울리고
勿染簫聲夕日時 해 질 녘 물염정⁴⁰² 통소소리 들리네
仙人能容塵客否 신선은 속객을 용납하려는지
志如壁立終無移 나의 뜻 적벽처럼 서서 변치 않으리라

400 망미정(望美亭)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에 있는 조선 후기 적송(赤松) 정지준(丁之雋, 1592~1663)이 경영했던 누정이다. 1983년 동복댐 수몰로 인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 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401 하늘 꽃비 : 고승(高僧)이 강경(講經)하면 하늘에서 선녀가 꽃을 뿌려 찬탄한다고 한다.

402 물염정(勿染亭)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화순 적벽' 상류에 세워진 정자이다

가을날 즉흥으로 읊다 2수

秋日卽事 二首

1

| | |
|---------|-------------------------------------------------------|
| 疏傲生平孰似吾 | 평생의 소오 ⁴⁰³ 가 누가 나만 같을꼬 |
| 隣家酒熟隔牆呼 | 이웃에 술 익으니 담 너머로 불러본다 |
| 谷陰正午蚊侵席 | 어두운 계곡 낮에도 모기가 자리를 침범하고 |
| 政酷初秋吏索租 | 정치는 가혹해 초가을 관리가 조세를 재촉한다 |
| 泉石怡情何落落 | 천석의 기쁜 정은 참으로 낙락하니 |
| 昕宵授課總區區 | 朝夕의 수업도 모두 구구하기만 하다 |
| 紛紜憂道終謀食 | 어지럽다 우도자 ⁴⁰⁴ 가 끝내 먹을 것만 도모하니 |
| 絳帳今誰命世儒 | 붉은 장막 ⁴⁰⁵ 에 지금 누가 명세 ⁴⁰⁶ 의 유자일까 |

2

| | |
|---------|--------------------------------------------------|
| 臨岐楊子泣東西 | 동서의 기로에서 양자 ⁴⁰⁷ 는 울었는데 |
| 底意莊周物欲齊 | 어찌 장주 ⁴⁰⁸ 는 사물을 동일시켰던고 ⁴⁰⁹ |
| 祇向殘編忘歲月 | 다만 옛글 읽으며 세월을 잊었나니 |

403 소오(疏傲) : 소탈하고 세상일에 신경 쓰지 않음.

404 우도자(憂道者) : 도를 근심해야 할 선비나 유자를 가리킨다.

405 붉은 장막 : 원문 강장(絳帳)은 후진을 가르치는 곳을 뜻한다. 옛날 후한(後漢)의 대유(大儒) 마융(馬融)이 고당(高堂)에 앉아 붉은 장막을 드리우고 생도를 가르쳤다. 『後漢書』 「馬融傳」

406 명세(命世) : 세상의 명운을 짊어질 만한 학자.

407 양자(楊子) : 『회남자(淮南子)』 「설림훈(說林訓)」에 이르기를, “양자가 여러 갈래의 길을 보고 울었던 것은, 남으로도 갈 수 있고 북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楊子見逵路而哭之 爲其可以南可以北]” 하였다.

408 장주(莊周) : 장자(莊子)를 말한다. 전국(戰國) 시기 송(宋)나라의 사상가이다. 노자(老子)와 더불어 ‘노장(老莊)’으로 일컬어진다.

409 사물을 동일시켰던고 : 『장자』 내편(內篇) 7편 중 「제물론(齊物論)」이 전한다.

| | |
|---------|------------------------------------|
| 無妨深巷寡輪蹄 | 깊은 골목 찾는 이 적어도 무방하리라 |
| 籬疏脩竹通溪冷 | 울타리 성글어 수죽 사이로 찬 시내 통하고 |
| 樓敞青山入戶低 | 누각 트여 청산이 문 아래로 든다 |
| 雨雪霏霏風不盡 | 눈은 펄펄 내리고 바람도 그치지 않으니 |
| 朱陳何處共提携 | 어디에서 친한 벗 ⁴¹⁰ 과 손을 맞잡을꼬 |

410 친한 벗과 : 원문은 주진(朱陳)이다. 당나라 때 서주(徐州)의 고통현(古豐縣)에 주진(朱陳)이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주씨와 진씨 두 성씨만 살면서 대대로 두 성씨끼리 혼인을 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냈다는 고사가 있다.

춘야에 벗을 만나 읊다

春夜逢友人吟

幾度煩惱鬱未開 얼마나 울적한 회포 퍼지 못했나
欣迎高士伴春來 봄과 함께 온 선비를 기쁘게 맞노라
清談達曙令人醉 새벽까지 청담으로 심취하게 하니
何用盤中狼藉盃 어찌 어지러운 배반⁴¹¹이 필요하랴

411 배반(杯盤) : 술과 안주를 가리킨다. 소식(蘇軾)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이르기를,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따르니 안주가 다하고 술잔과 소반이 낭자하였다. [洗盞更酌 肴核既盡 盃盤狼藉]” 하였다.

금곡에서 겨울밤에 상보 서기종 그리고 경재 김영일과 함께 읊다 2수
 琴谷冬夜與徐祥甫祺鍾金綱哉榮日共吟 二首

1

| | |
|---------|-----------------------|
| 卜築精廬碧澗東 | 벽간 동쪽에 정사를 건축하니 |
| 一窓煙月一軒風 | 서창에는 달 비추고 마루에는 바람 부네 |
| 雁到依稀殘夢裏 | 기러기가 어렴풋 잔몽 속에 오더니 |
| 人來縹緲亂山中 | 임이 먼 난산 가운데로 찾아왔네 |
| 消渴茶能歸肺潤 | 갈증 해소하는 차에 폐가 윤택하고 |
| 排寒酒復借顏紅 | 추위 물리치는 술에 얼굴이 붉구나 |
| 天生男子終何用 | 하늘이 장부 낸들 끝내 무슨 소용이라 |
| 晨夕青燈專課童 | 조석으로 청등에 동자를 가르칠 뿐 |

2

| | |
|---------|-----------------------------------|
| 遯跡林泉學老農 | 임천에 은둔하며 노농 ⁴¹² 을 배웠더니 |
| 門前恐吏破苔封 | 관리가 문전 덮인 이끼 깎까 두렵네 |
| 案頭清趣千竿竹 | 책상의 맑은 흥취는 천간의 대나무요 |
| 風裏濫竽萬壑松 | 바람결 젓대소리는 만학의 솔이로다 |
| 舊友那堪書亦絕 | 옛 벗의 끊긴 편지를 어찌 견디랴 |
| 覺堂還愧窄難容 | 좁은 횡당은 수용 어려워 부끄럽네 |

412 노농(老農) : 번지(樊遲)가 농사짓는 일을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늙은 농사꾼만 못하다. [吾不如老農]” 하였다. 『論語』「子路」

阿蒙三日非吳下 삼일에도 오하의 아몽⁴¹³ 아니었으니
 久別相期刮目逢 오랜 이별 괄목상대하길 기약하세

413 아몽(阿蒙) : 중국의 삼국시대 오(吳)나라 여몽(呂蒙)이다. 손권(孫權)이 여몽을 군정(軍政)에 참여시키면서 독서를 권하였는데, 여몽이 군중(軍中)에 일이 많아서 독서의 여가가 없다고 사양하니, 손권이 “내가 어찌 경에게 경서를 연구하여 박사가 되라고 하는가. 지금 대강 지난 일을 섭렵해서 알아두라는 것이다. [孤豈欲卿治經爲博士耶 但當今涉獵見往事耳]”라고 하였다. 여몽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뒤에 노숙(魯肅)이 여몽과 담론하다가 탄복하면서 “나는 현제(賢弟)가 무략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학식이 깊고 넓으니 과거에 보던 오하의 아몽이 아니다. [吾謂大弟但有武略耳 至于今者 學識英博 非復吳下阿蒙]” 하니, 여몽이 “선비는 사흘만 헤어져 있어도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되는 법이다. [士別三日 卽更刮目相待]” 하였다. 『三國志』 卷54 「吳書 呂蒙傳 裴注」

상보 서기종이 내방하다

徐祥甫祺鍾來訪

| | |
|-------|----------------------------------|
| 摧梁今幾春 | 들보 꺾인 지 ⁴¹⁴ 이제 몇 해이고 |
| 觸處每傷神 | 보는 것마다 매번 마음 상할 뿐 |
| 世赴紛華裏 | 세상은 걸치레로 치달려 가는데 |
| 誰尋寂寞濱 | 누가 적막한 물가를 찾아주는가 |
| 源源有我友 | 나의 벗이 끊임없이 ⁴¹⁵ 방문하니 |
| 切切迺過人 | 절절한 마음 ⁴¹⁶ 남보다 더욱 넘치네 |
| 無日風濤定 | 풍파가 안정될 날이 없는데 |
| 何由渡此津 | 어떻게 이 나루를 건너오셨는고 |

414 들보가 꺾인 지 : 원문은 최량(摧梁)이다. 공자(孔子)가 자신이 죽을 꿈을 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뒷집을 지고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서 거닐며 노래하기를, “태산이 무너지겠구나, 들보가 부러지겠구나, 철인이 죽게 되겠구나. [泰山其頽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 하였다. 『禮記』 「檀弓上」

415 끊임없이 : 원문은 원원(源源)이다. 순(舜)임금이 천자가 된 뒤에 이복형(異腹兄)인 상(象)을 비(庖) 땅에 봉해 주고, “늘 보고 싶어 자주 찾아오게 하였다. [欲常常而見之 故源源而來]” 하였다. 『孟子』 「萬章上」

416 절절한 마음 : 『논어』 「자로(子路)」에 이르기를 “붕우 간에는 간절하고 자상히 권면하여야 한다. [朋友切切偲偲]” 하였다.

단석 김경발 어르신 61세 생일을 축하하다

奉賀丹石金慶埵丈六十一生朝

韓康高臥成都市 한강⁴¹⁷이 성도 시에 높이 누웠더니
落落丹翁可等班 낙락한 단석 옹만이 견줄 만하네
吞吐八荒河海氣 팔황⁴¹⁸과 하해의 기운 호흡하고
縱橫千古宋唐間 천고의 당송 간을 종횡하였네
案留心法傳來裔 책상엔 심법 남겨 후예에게 전하고
天借仙方保渥顏 하늘은 선방 주어 흥안을 보존했네
寶樹青青亦需世 청청한 보수⁴¹⁹ 또한 세상에 쓰이니
鹿鳴歌裏祝南山 녹명가⁴²⁰ 속에 남산지수⁴²¹ 축원하네

417 한강(韓康) : 후한(後漢) 때 대표적인 은자(隱者)로 자는 백휴(伯休)이다. 그는 늘 명산에서 약초를 캐어다가 장안의 저자에 내다 팔았는데 한 입으로 두 값을 말하지 않았으며 30여 년을 그렇게 했다. 그때 어떤 여자가 한강에게 와서 약을 사는데, 한강은 값을 지켜 변동이 없었다. 여자가 성이 나서 “그대가 한백휴라도 되오? 두 값을 매기지 않아요.”라 하자, 한강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 원래 이름을 숨기고자 하였는데, 지금 보잘 것없는 여자까지도 나를 알아보니 약 따위를 팔아서 무엇하리.” 그리고는 패릉의 산속으로 숨어버렸다. 『後漢書』 113권 「逸民傳 韓康」

418 팔황(八荒) : 여덟 방위의 멀고 너른 범위라는 뜻으로, 온 세상을 이르는 말.

419 보수(寶樹) : 훌륭한 자제(子弟)를 가리킨다. 진(晉) 나라 사안(謝安)이 자질(子姪)들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사람들은 자기 자제가 출중하기를 바라는가?” 묻자, 조카 사현(謝玄)이 말하기를 “비유하자면 마치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자기 집 뜰에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420 녹명가(鹿鳴歌) : 『시경』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군신이 잔치를 벌일 때 노래한다.

421 남산지수(南山之壽) : 『시경』 「소아(小雅) 천보(天保)」에 이르기를 “당신은 등골어 가는 초승달 같고 막 떠오르는 태양 같으며 영원한 남산과 같아서 이지러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으며, 무성한 송백과 같아서 당신을 끝없이 계승하지 않은 것이 없도다. [如月之恒如日之升 如南山之壽 不騫不崩 如松柏之茂 無不爾或承]” 하였다.

영평음사에 화운하다

和永平吟社

| | |
|---------|-----------------------------------------|
| 散策東風喜訪君 | 동풍에 산책하며 기쁘게 그대 방문하니 |
| 長堤細柳翠成文 | 긴 제방 가는 버들 푸른 무늬 이루었네 |
| 會當時好春將暮 | 마침 좋은 시절 당하여 봄이 저물고 |
| 話到情深夜欲分 | 정 깊은 대화는 밤중이 되려 하네 |
| 眼看彫蟲誇小技 | 눈으로 시부(詩賦) ⁴²² 보며 작은 기예 자랑하니 |
| 誰能千葩吐奇芬 | 누가 천 송이 꽃향기를 토해내는고 ⁴²³ |
| 永平從此振權域 | 이제 근역에 영평의 명성 떨치리니 |
| 儻見瑞光爛慶雲 | 난만한 경운 ⁴²⁴ 의 서광을 보리로다 |

422 시부(詩賦) : 원문 조충(彫蟲)은 나무를 갉아 먹는 좀벌레와 같은 작은 기예라는 뜻으로 문장 짓는 것을 비하하여 칭한 것이다. 이백(李白)의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에 이르기를 “조충의 소기라서 대인의 안목에 부합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恐雕蟲小伎 不合大人]” 하였다.

423 꽃향기를 토해내는고 :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취증장비서(醉贈張祕書)」에 이르기를 “동야는 걸핏하면 세상을 놀라게 하니, 하늘 꽃은 기이한 향기를 뿜는다. [東野動驚俗 天葩吐奇芬]” 하였다.

424 경운(慶雲) : 상서로운 구름.

부산에서 구덕산장의 시를 차운하다

釜山 次九德山莊韻

爲避城塵治一莊 성시의 티끌 피해 산장을 지었더니
松杉列戟護垣牆 솔과 삼나무 창처럼 원장을 수호한다
雲知閒意遙歸岵 구름은 한가한 뜻 알아 먼 산으로 돌아가고
月印道心時墮塘 달은 도심을 도장 찍어 연못을 비추네
充棟圖書身自潤 수많은⁴²⁵ 도서로 몸은 절로 윤택하고
盈庭杖屐座生香 뜰 가득한 선비⁴²⁶들로 자리엔 향기가 인다
如今地逐名人好 이제 이 땅이 명인을 좇아 아름다우니
何日膏車與共牀 언제나 찾아가서⁴²⁷ 침상을 함께 할까

425 수많은 : 원문 충동(充棟)은 한우충동(汗牛充棟)의 준말이다. 수레에 실어 운반하면 소가 땀을 흘리고 방안에 쌓으면 마룻대까지 닿는다는 뜻으로 책이 많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426 선비 : 원문 장극(杖屐)은 지팡이와 신발로서 찾아온 손님을 가리킨다.

427 찾아가서 : 원문 고거(膏車)는 수레에 기름을 쳐서 찾아가간다는 뜻이다. 당나라 한유(韓愈)의 「송이원귀반곡서(送李愿歸盤曲序)」에 “내 수레에 기름치고 내 말을 잘 먹여서 그대 따라 반곡에서 한가로이 살다가 나의 생애를 마치리라. [膏吾車兮 秣吾馬 從子于盤兮 終吾生以徜徉]” 하였다.

덕경 조돈승 형과 함께 장성의 용산재로 성재 나갑주를 방문하다

갑진년(1964)

與曹德卿兄敦承訪誠齋羅鉀柱于長城之龍山齋 甲辰

| | |
|---------|-----------------------------------|
| 相望竟如相見何 | 서로 바라보며 어이 만날까 하였더니 |
| 驅車千里此相過 | 천리 길 수레 몰아 이곳을 찾았네 |
| 己從高士趨知軌 | 높은 선비 좇아 추향(趨向)의 법도 알았고 |
| 歷覽群書識取多 | 군서를 두루 읽어 많은 식견 취했다네 |
| 落日芳樽因作賦 | 지는 해에 방준 곁에서 시부를 짓고 |
| 靑燈佳話到傾河 | 청등 아래 가화는 은하수 기움에 다다랐네 |
| 於君始聽陽春調 | 그대에게 비로소 양춘곡 ⁴²⁸ 을 들으니 |
| 自愧生平巴里歌 | 평생 하리파인 노래 부름이 스스로 부끄럽네 |

428 양춘곡(陽春曲) : 초(楚)나라의 가곡(歌曲) 이름인데, 이 가곡은 곡조가 매우 고상하여 화답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다. 어떤 사람이 초나라의 국도(國都)인 영(郢)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에 「하리(下里)」와 「파인(巴人)」을 노래하자 그 소리를 알아듣고 화답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고, 「양아(陽阿)」와 「해로(薤露)」를 노래하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백 명으로 줄었고, 「양춘(陽春)」과 「백설(白雪)」을 부르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다. 『文選』 卷45 「對楚王問」

용산야화 나씨 정자

龍山夜話羅氏亭

| | |
|---------|--------------------|
| 佛甲山靑入望新 | 불갑산 푸른빛이 새롭게 눈에 드니 |
| 煙霞癖癩玉爲人 | 연하에 깊은 병 아름다운 임이여 |
| 世間甲子君能忘 | 세간의 세월을 그대 능히 잊었나니 |
| 溪月松樞不着塵 | 계월과 솔창엔 티끌 하나 없어라 |

야은당 시를 차운하다

次野隱堂韻

城市緇塵恐染衣 성시의 검은 먼지 옷을 더럽힐까
桑麻雨露荷鋤歸 상마에 우로 내려 호미 메고 돌아간다⁴²⁹
南村諸友來無斷 남촌⁴³⁰의 벗들도 끊임없이 찾아오나
沮溺當年識者稀 그 옛날 저닉⁴³¹의 뜻 아는 이 적구나
問字癡農相戲狎 어리석은 농부는 글자 물으며 장난치고
慣人幽鳥不驚飛 사람 익은 유조는 놀라 날지 않는다
聞風今日多興起 풍모 들은 오늘날 흥기함이 많으니
野老應無素志違 야은당은 평소의 뜻 어김이 없으리라

429 호미를 지고 돌아간다 : 도잠(陶潛)의 시에 이르기를, “새벽에 일어나 잡초를 김매고, 달빛 띠고서 호미를 메고 돌아오네. [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 하였다.

『陶淵明集』 卷2 「歸田園居」

430 남촌(南村) : 도잠(陶潛)의 「이거(移居)」 시에 이르기를, “예전부터 남촌에 살고 싶었으니, 좋은 집터 찾아서가 아니라오. 들으니 깨끗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 많아, 아침저녁으로 자주 만나려고 해서라오. [昔欲居南村 非爲卜其宅 聞多素心人 樂與數晨夕]” 하였다.

431 저닉(沮溺) : 춘추 시대 초나라 은자(隱者)인 장저(長沮)와 결닉(桀溺)의 병칭이다. 공자가 초(楚)나라에서 채(蔡)나라로 돌아오다가 초나라의 은자인 장저와 결닉이 짝을 지어 발갈이하는 것을 보고 자로(子路)를 시켜 나무를 묻게 하자, 결닉이 말하기를 “천하가 모두 무도한데 누구와 번역시킨단 말인가.”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공자가 말하기를 “금수와는 무리가 될 수 없으니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누구와 함께하겠는가.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내가 그들과 번역시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論語』 「微子」

함평으로 월주 이강현을 방문하다

咸平訪李月州 康炫

| | |
|-------|-------------------------------------|
| 江海浮萍客 | 강해를 떠도는 부평초 같은 길손 |
| 幾思連子衿 | 얼마나 청금 ⁴³² 을 함께 하길 생각했던가 |
| 主人當世士 | 주인은 당세의 선비이니 |
| 肯許平生心 | 즐겨 평생의 뜻을 허여하겠는가 |

432 청금(靑衿) : 유자(儒者)를 뜻한다. 함께 공부할 것을 생각하였다는 말이다. 『시경』 「정풍(鄭風) 청청자금(靑靑子衿)」에 이르기를 “푸르고 푸른 그대의 옷깃이여, 길이 생각하는 내 마음이로다. 비록 나는 가지 못하나, 그대는 왜 소식을 계속 전하지 않는고. [靑靑子衿 悠悠我心 縱我不往 子寧不嗣音]” 하였다.

또 근체 1수를 짓다

又賦近體一首

鰲城過客此相連 오성⁴³³의 과객을 여기서 함께하니
 見竹珊珊一粲然 산산한 대를 보고 찬연히 웃노라
 春日幾番思蠟屐 봄날 몇 번이나 납극⁴³⁴을 생각했던가
 秋風長嘯共登船 추풍에 휘파람 불며 같이 배에 올랐네
 新詩筆落雲來繞 붓을 떨쳐 새 시 지으니 구름이 감싸고
 深巷松青鶴穩眠 깊은 거리 푸른 솔엔 학이 잠들었다
 投轄留人今復謁 투할⁴³⁵하며 붙잡는 일 오늘에도 보나니
 維駒空谷夕陽天 석양빛 하늘에 공곡의 망아지⁴³⁶로다

433 오성(鰲城) : 장성(長城)의 옛 이름.

434 납극(臘屐) : 납극은 불로 밀랍을 녹여 나막신에 바르는 것이다. 진(晉)나라 때 완부(阮孚)는 나막신을 매우 좋아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보니 완부가 나막신에 밀랍을 바르며 말하기를, “일생 동안 몇 켤레의 나막신을 신을 수 있을까.” 하였다. 『世說新語』 「雅量」

435 투할(投轄) : 수레바퀴의 빗장을 던져 손님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서(漢書)』 권92 「진준전(陳遵傳)」에 이르기를 “진준(陳遵)은 술을 즐겨서 매번 크게 취했다. 빈객이 집에 가득 차면 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객의 수레 빗장 가져다가 우물 속에 던져 버렸다. 비록 급한 일이 있는 객이라도 끝내 돌아가지 못하였다. [遵酒每大飲 賓客滿堂 輒關門 取客車轄 投井中 雖有急 終不得去]” 하였다.

436 공곡(空谷)의 망아지 : 『시경』 「백구(白駒)」에 이르기를 “희고 깨끗한 망아지가 우리 마당의 풀을 먹는다 하여 발을 묶고 고삐를 매어 오늘 아침 내내 있게 하여 이른바 그분이 여기에서 소요하게 하리라. … 희고 깨끗한 망아지가 저 빈 골짜기에 있다. 심상한 풀 한 다발을 주노니 그 사람은 옥처럼 맑도다. [皎皎白駒 食我場苗 繫之維之 以永今朝 所謂伊人 於焉逍遙 … 皎皎白駒 在彼空谷 生芻一束 其人如玉]” 하여 여진 이를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뜻을 노래하였다.

불갑산에 오르다

登佛甲山

| | |
|---------|------------------------|
| 振衣一蹴上高臺 | 옷을 떨치고 한 번 박차 고대에 오르니 |
| 眼界茫茫萬里開 | 눈앞엔 망망한 만 리가 열렸다 |
| 水光凝瘴接天盡 | 물빛은 장기(瘴氣)와 엉겨 하늘에 접했고 |
| 山影齊帆浮海來 | 산 그림자는 돛배 함께 바다에 떠 온다 |
| 仰看玉宇低捫斗 | 위로 하늘 보니 낮게 북두가 만져질 듯 |
| 俯視塵寰小似盃 | 아래로 속세 보니 술잔처럼 작구나 |
| 古寺曾經羅麗劫 | 옛 절은 신라와 고려의 시절 지나서 |
| 殘碑千載蝕莓苔 | 천 년 전 남은 비석 이끼가 잠식했다 |

불갑사⁴³⁷ 만세루에 쓰다

題佛甲寺萬歲樓

登臨氣欲秋

가을이 접어들 때 등립하니

萬歲有斯樓

만세에 이 누각 이어져 왔다

報佛恩何至

불은의 보답 참으로 지극하여

經營白盡頭

경영으로 머리가 다 세었네

437 불갑사(佛甲寺) :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불갑면(佛甲面) 모악리에 있는 절.

용산의 재회
龍山再會

| | |
|-------|-----------------|
| 半旬滯古城 | 5일을 고성에 체류하며 |
| 談笑一燈青 | 청등 아래 담소를 나누었다 |
| 曉月無心照 | 새벽달은 무심히 비추는데 |
| 寒蛩底意鳴 | 찬 쓰르라미는 어이 울어대나 |
| 多君干斗氣 | 그대의 북두를 찌르는 기개여 |
| 愧我讀書名 | 나는 독서의 명성 부끄럽네 |
| 舌下長虹起 | 혀 아래 긴 무지개 일어나니 |
| 令人耳自傾 | 사람의 이목을 경도케 하누나 |

사창으로 가는 길에 입으로 부르다

社倉途中口呼

牟陽昨日賞楓客 어제 모양⁴³⁸의 단풍 감상하던 길손
今日龍山溯澗風 오늘은 용산의 시내바람 거스른다
薄酒對君恨無月 박주로 그댈 맞으매 달 없음 한하노니
何來山色落杯中 어디서 온 산색이 술잔 속에 떨어지나

438 모양(牟陽) : 전북 고창(高敞)의 옛 이름.

뒤늦게 김춘원 어르신 61세 생일 시를 차운하다

追次春園金丈六十一生朝韻

| | |
|---------|------------------------------------------|
| 融融和氣滿堂春 | 용용 ⁴³⁹ 한 화기가 집에 가득한 봄날 |
| 白髮蒼顏鏡裏新 | 백발과 창안이 거울 속에 새롭구나 |
| 雙袖飄空趨孝子 | 소매를 허공에 날리며 효자가 달려가고 |
| 九如稀世賀詩人 | 구여 ⁴⁴⁰ 는 세상에 드물어 시인이 축하하네 |
| 祥風大度能容物 | 상풍의 큰 도량 사람을 포용하니 |
| 華鶴仙姿恨不辰 | 화학 ⁴⁴¹ 같은 신선의 자태 불우(不遇)를 한하노라 |
| 天用英邁終有日 | 하늘이 영매한 재주 쓸 날 끝내 있으리니 |
| 瑞星偏照此鄉隣 | 상서로운 별빛이 유달리 이 고을을 비추네 |

439 용용(融融) : 정(鄭)나라 장공(莊公)이 아우 공숙단(共叔段)의 반란을 평정한 뒤에 그와 공모(共謀)한 어머니 강씨(姜氏)를 성영(城潁)에 유폐하고 다시 안 만나겠다고 했다가, 영고숙(穎考叔)의 충언을 듣고 땅굴을 통해 들어가서 강씨를 만났다. 그때에 장공이 노래하기를 “대수 안에 그 즐거움이 화락하네. [大隧之中 其樂也融融]” 하였고, 그 어머니가 나와서 노래하기를 “대수 밖에는 그 즐거움이 퍼지도다. [大隧之外 其樂也洩洩]” 하였다. 그 주석에 “용용은 화락(和樂)이고 예예는 서산(舒散)이다.” 하였다. 『春秋左氏傳』「隱公元年」

440 구여(九如) : 현인의 덕을 칭송하여 산과 같고[如山] 언덕과 같고[如阜] 산마루와 같고[如岡] 구릉과 같고[如陵] 냇물이 한창 흘러오는 것과 같으며[如川之方至] 초승달과 같고[如月之恒] 떠오르는 해와 같고[如日之升] 장구한 남산과 같고[如南山之壽] 무성한 송백과 같음[如松柏之茂]을 말한 것이다. 『詩經』「小雅 天保」

441 화학(華鶴) : 요동(遼東)의 화표주(華表柱)에 앉은 학(鶴)을 말한다. 한(漢)나라 때 요동 사람 정영위(丁令威)가 영허산(靈虛山)에서 도를 닦아 신선이 되었다. 천년 뒤에 학으로 변하여 다시 고향으로 날아와 화표주에 앉았다. 마을의 소년들이 보고 활을 쏘려고 하자, 훌쩍 날아 공중에서 배회하다가 사라졌다고 한다. 『搜神後記』 卷1

나성재, 산암 변시연⁴⁴², 조덕경과 백양사를 유람하다
與羅誠齋邊山巖時淵曹德卿遊白羊寺

樹樹染紅秋氣寒 찬 가을 기운에 나무들 붉게 물드니
南州最勝白巖山 백암산은 남주의 최고 명승일세
溪橋斜日扶杖立 저물녘 다리에서 지팡이 짚고 서니
身在畫圖一幅間 몸은 한 폭 그림 속에 있는 듯

442 변시연(邊時淵) : 호남 지역의 대표적 한학자로서, 32년에 걸쳐 한국의 전통 시문(詩文)을 모아 전 73권의 『문원(文苑)』을 편찬하였다. 손룡정사(巽龍精舍)라는 학당과 한국고문연구회를 만들어 후학을 가르치는 데도 힘썼다.

백양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입으로 부르다

白羊歸路途中口呼

爲觀楓到處

단풍을 보기 위해 이른 곳에

悔我在人先

남보다 앞서 왔음을 후회했다

要識冠南土

남녘땅 으뜸을 알려는가

更期黃菊天

다시 황국 피길 기약하리라

산암의 유거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번계 김윤동 어른님께서 자리에 계셨다

절구 2수

訪汕巖幽居時樊溪金丈潤東亦在座 二絶

1

| | |
|---------|----------------------|
| 訪君秋日日西斜 | 그덜 찾은 가을날 해는 서쪽에 지고 |
| 滿座衣冠摠世家 | 자리 가득한 이들은 다 세가의 선비 |
| 一斗芳醪傾倒盡 | 한 말 향기로운 술을 기울이고 나서 |
| 嗅來庭菊未開 | 다 피지 않은 뜰의 국화 향기 맡는다 |

2

| | |
|---------|-----------------------------------|
| 嶙峋奇氣似虹斜 | 우뚝하고 기특한 기개는 무지개가 비낀 듯 |
| 刊盡子書千百家 | 수많은 제가(諸家)의 서책들 모두 출간했네 |
| 夜夜奎星臨屋角 | 밤마다 규성 ⁴⁴³ 이 추녀 끝을 비추니 |
| 幾番夢裏筆生花 | 얼마나 꿈속의 붓에 꽃이 피었나 ⁴⁴⁴ |

443 규성(奎星) :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하나로, 문운(文運)을 주관하는 별이다.

444 붓에서 꽃이 피었다 :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에 이르기를 “이태백(李太白)이 소시에 평소 사용하는 붓끝에서 꽃이 핀 것을 꿈꾼 뒤로 천재가 더욱 드러나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다.” 하였다.

산암의 별장에서 번계 선생의 백양사 시를 차운하다

汕巖庄次樊溪白羊寺韻

| | |
|---------|----------------------------------|
| 樊翁又是氣嵯峨 | 번계 응 또한 기개가 높으니 |
| 景仰流風歲月多 | 오랜 세월 유품을 경앙하였다 |
| 芥久千年可醫國 | 천년 복령은 나라도 다스리니 ⁴⁴⁵ |
| 松高百尺有攀蘿 | 백 척 솔은 넝쿨이 엉켜있네 |
| 未醒枕上黃梁夢 | 침상의 황량의 꿈 ⁴⁴⁶ 깨지 못한 채 |
| 忽聽郢中白雪歌 | 문득 영중의 백설가 ⁴⁴⁷ 를 듣노라 |
| 南土而今榮草木 | 남녘 땅 이제는 초목이 무성하니 |
| 後塵欲躡問如何 | 어찌하면 선생의 자취를 밟을까 |

445 나라도 다스리니 : 춘추시대 진나라 경공이 의원 화에게 물기를 의료의 이치를 묻자 화가 대답하기를 “최고의 의사는 나라를 치료하고 그다음은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였다. 이 구절은 천년 복령을 산암에 빗대어 나라를 치료할 만한 선비라고 칭송하였다.

446 황량(黃梁)의 꿈 : 한단몽(邯鄲夢)과 같은 말로 부귀공명이 덧없음을 의미한다. 당나라 개원(開元) 연간에 도사(道士) 여옹(呂翁)이 한단(邯鄲)에서 소년 노생(盧生)을 만났는데, 노생이 여옹에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자, 여옹은 노생에게 베개를 주면서 “이것을 베면 부귀영화를 뜻대로 누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여옹은 기장[粱]으로 밥을 짓고, 노생은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평생의 부귀영화를 실컷 누리고 깨어 보니 아직 기장밥이 익지 않았다는 고사이다.

447 백설가(白雪歌) : 초(楚)나라의 가곡(歌曲) 이름인데, 이 가곡은 곡조가 매우 고상하여 화답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다. 어떤 사람이 초나라의 국도(國都)인 영(郢)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에 「하리(下里)」와 「파인(巴人)」을 노래하자 그 소리를 알아듣고 화답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고, 「양아(陽阿)」와 「해로(薤露)」를 노래하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백 명으로 줄었고, 「양춘(陽春)」과 「백설(白雪)」을 부르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다. 『文選』 卷45 「對楚王問」

계은당 양대원 선생의 시의 원운을 차하다

次梁溪隱堂大源原韻

| | |
|---------|-------------------------|
| 滾滾風塵白首年 | 쉽 없는 풍진에 흰 머리 되었지만 |
| 高標落落欲無前 | 낙락한 고표는 앞에 막힘이 없는 듯 |
| 循階流水三更月 | 섬돌 감도는 유수에 삼경의 달이요 |
| 隔戶青山一抹煙 | 문 건너 청산엔 한 줄기 안개로다 |
| 投藥衆人酬世上 | 사람에게 투약하며 세상에 응답하고 |
| 豎碑先墓賁阡邊 | 선인 묘에 비석 세워 묘도(墓道)를 빛냈다 |
| 溪翁識得清溪趣 | 계은 옹은 청계의 흥취를 아는지라 |
| 垂釣蒼波伴鷺眠 | 창파에 낚시 드리우고 백로와 잠이 든다 |

호산 박성주를 애도하다

輓朴湖山晟朱

| | |
|-------|-----------------------------|
| 湖山湖海客 | 호산은 호해 ⁴⁴⁸ 의 객으로 |
| 百尺元龍樓 | 원룡의 백 척 누각과 같다 |
| 談笑可傾座 | 담소는 좌중을 경도하나니 |
| 風流肯讓頭 | 풍류도 어찌 남에게 양보할까 |
| 消磨當世志 | 당세의 뜻을 다 제거하고서 |
| 托附吾儒遊 | 우리 유학에 기탁하여 종유했다 |
| 昇平將有日 | 승평의 날이 있을 것이거늘 |
| 胡不百年留 | 어찌 백년을 머물지 못하였나 |

448 호해(湖海) : 원룡(元龍)은 삼국시대 진등(陳登)의 자인데, 그는 호기가 높기로 이름났다. 허사(許汜)가 형주 목사(荊州牧使) 유표(劉表)와 천하의 인물을 논하면서, “진원룡(陳元龍)은 호해(湖海)의 선비라 호기가 없어지지 않았다.” 하였다. 이에 유표가 무슨 까닭이 있느냐고 묻자, 허사가 “하비(下邳)를 지나다 그를 방문하니 손님을 맞는 예(禮)도 갖추지 않고 오랫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은 큰 침상 위에 올라가 놓고 손님은 침상 아래에 눕게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 사실을 들은 유비(劉備)가 “나 같은 백 척의 누각 위에 자고 그대를 땅에 재울 것이니, 어찌 침상의 위와 아래의 차이 뿐이겠는가.” 하였다. 『三國志』 卷7 「魏書 陳登傳」

매창 박태선공을 애도하다 절구 2수 을사년(1965)

輓梅窓朴公泰璿 二絶

乙巳

1

| | |
|---------|--------------------------------|
| 生平慷慨梅窓子 | 평생 비분강개했던 매창 선생 |
| 磨涅風塵不磷緇 | 풍진이 갈고 물들여도 변치 않았네 |
| 竹老當時眞訣在 | 당시 죽 노인이 진결을 남겼으니 |
| 箕裘先業自爲期 | 기구의 선업 ⁴⁴⁹ 스스로 기약했네 |

2

| | |
|---------|----------------------|
| 昔陪雪曉拜床席 | 예전 눈 내리는 새벽 서재를 찾을 때 |
| 巧值丈人不在時 | 마침 장인께서 계시지 않았었네 |
| 鄉省士林仰山斗 | 고을 사림이 태산북두처럼 우러렀나니 |
| 寒天星落一漣瀾 | 차가운 하늘 지는 별에 눈물을 흘린다 |

449 기구의 선업 : 기구는 키와 가죽옷을 뜻하는데, 곧 가업을 잘 계승함을 말한다. 『예기』 「학기」에 이르기를, “훌륭한 대장장이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본받아 응용해서 가죽옷 만드는 것을 익히게 마련이고, 활을 잘 만드는 궁장(弓匠)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본받아 응용해서 키 만드는 것을 익히게 마련이다. [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箕]” 하였다.

쌍매 박태항 형의 유거에 쓰다

題雙梅朴兄泰桓幽居

| | |
|-------|------------------|
| 窓外雙梅樹 | 창밖에 한 쌍의 매화여 |
| 何心雪裏開 | 무슨 마음으로 눈 속에 피었나 |
| 主人同氣味 | 주인도 기미가 같으니 |
| 月夜獨徘徊 | 월야에 홀로 배회하노라 |

가군의 66세 생일에 기쁨을 적다

家君六十六生朝志喜

| | |
|---------|---------------------------------|
| 爺孃堂上今俱在 | 지금 당상의 부모님 함께 계시고 |
| 無故七人我弟兄 | 우리 형제 7인도 무고하나니 |
| 詩禮千寫訓子姓 | 시례 천권으로 자손들 훈계하고 |
| 桑麻百畝敵公卿 | 상마 백무는 공경을 대적한다 |
| 亭松風靜鶴眠穩 | 솔에 바람 없어 학은 편히 잠들고 |
| 庭院春深花氣明 | 정원에 봄 깊어 꽃기운도 밝구나 |
| 保守遺甑吾輩事 | 청전 ⁴⁵⁰ 을 지키는 우리의 일이니 |
| 敢望分外片時榮 | 분수 밖 잠시의 영예를 감히 바랄까 |

450 청전(靑甑) : 선대(先代)로부터 전해진 귀한 유물을 가리킨다. 진(晉)나라 왕헌지(王獻之)가 누워 있는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모조리 훔쳐 가려 할 적에, 그가 “도둑아, 푸른 모포는 우리 집안의 유물이니, 그것만은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偷兒靑甑我家舊物可特置之]”라고 하자, 도둑이 질겁하고 도망쳤다. 『晉書』卷80「王羲之傳王獻之」

성재의 내방에 사례하다

謝誠齋來訪

深峽索居無賴過 깊은 골 홀로 살며 무료하게 지내다
忽聞剝啄倒裳衣 문득 문소리 듣고 급하게⁴⁵¹ 맞았네
縱然一點靈犀在 비록 한 점의 영서⁴⁵²가 있다 해도
纔敘寒暄遽徑歸 안부를 묻자마자 곧바로 돌아가려는가

451 급하게[倒裳] : 『시경』 「제풍(齊風) 동방미명(東方未明)」에 이르기를, “동방이 밝기도 전에 허둥지둥 옷을 입노라. 허둥지둥 옷을 입거늘, 임금님 처소에서 부르도다. [東方未明 顛倒衣裳 顛之倒之 自公召之]” 하였다.

452 영서(靈犀) : 영묘(靈妙)한 무소불을 말한다. 무소불은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 양방이 서로 관통하는 것에서, 두 사람의 의사(意思)가 서로 투합함을 비유할 때 쓴다.

덕산정사 강회 시운

德山精舍講會韻

| | |
|---------|---------------------------------------------------|
| 多士休言祠告成 | 선비들이 사당의 완성을 말하지 말라 |
| 如田種穫始於耕 | 파종과 수확은 경작에서 시작되나니 |
| 杏樹深春幽鳥宿 | 깊은 봄 살구나무엔 그윽한 새 깃들고 |
| 天峯靈雨潤蘋生 | 천봉의 좋은 비에 ⁴⁵³ 마름 ⁴⁵⁴ 이 돌아난다 |
| 愧我因循違研槩 | 나는 엉뚱뚱 연참 어겨 부끄러운데 ⁴⁵⁵ |
| 羨君能未記陰晴 | 부럽게도 그대는 세상사 번복도 모르누나 |
| 而今崇報吾人事 | 이제 우리의 사업을 알리노니 |
| 俎豆應知不釣名 | 조두는 명예를 추구함이 아니라네 |

453 좋은 비에〔靈雨〕: 『시경』 「용풍(鄘風) 정지방중(定之方中)」에 이르기를, “단비가 이미 내렸거늘, 수레 모는 사람에게 명하여, 새벽녘에 일어나서 명예를 매게 하여, 상전에 나아가서 멈추었도다. [靈雨既零 命彼倌人 星言夙駕 說于桑田]” 하였다.

454 마름: 『시경』 「소남(召南) 채빈(采蘋)」에 이르기를, “마름풀 뜯으러 남쪽 시냇가로 가네. 마름풀 뜯으러 저 개울가로 가네. [于以采蘋 南澗之濱 于以采藻 于彼行潦]” 하였다.

455 연참(研槩) 어겨 부끄러운데: 연참은 벼루와 종이로 학문을 연마한다는 뜻.

한거하면서 회포를 쓰다

閒居書懷

天時人事共悠悠 천시와 인사가 모두 유유하니
胡不生前任意遊 어찌 생전에 뜻대로 놀지 않으랴
識字蘇公窮一世 문자 아는 소공은 평생 곤궁했으나⁴⁵⁶
提壺劉伯耀千秋 술병 잡은 유백은 천추에 빛났다⁴⁵⁷
容身幾笑乾坤窄 몸을 용납할 천지가 좁다고 얼마나 웃었나
遂志空嘆歲月遒 뜻을 이룰 세월도 다 감을 탄식한다
榮落轉頭竟烏有 영고성쇠도 잠깐 끝내는 사라지나니
締盟浩蕩水邊鷗 물가의 호탕한 백구와 맹약을 맺으리

456 곤궁했지만 : 소식(蘇軾)의 「석창서취묵당(石蒼舒醉墨堂)」 시에 이르기를, “인생이 글자를 아는 게 우환의 시초, 성명이나 대강 쓰면 그만이라. [人生識字憂患始 姓名麤記可以休]” 하였다.

457 천추에 빛났다 :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유령(劉伶)을 가리킨다. 그는 「주덕송(酒德頌)」을 지어서 술을 극구 예찬하기도 하였다. 항상 녹거(鹿車)를 타고 술 한 병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시켜 삽(鍤)을 메고 따라다니게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그 자리에 묻어 달라. [死便埋我]” 하였다.

장선⁴⁵⁸의 문우계를 닦다

長船修文友契

| | |
|---------|----------------------|
| 風雨乾坤此獨晴 | 풍우가 치는 천지에 이곳만 맑으니 |
| 靑江澄澈鶴峯明 | 청석강 청정하고 학봉은 밝구나 |
| 莫辭漫興扶頭醉 | 넘치는 흥에 흠뻑 취함을 사양 말라 |
| 其奈春愁與草生 | 봄의 시름 풀과 함께 돋음을 어이하리 |
| 鎮日林禽皆自樂 | 종일 숲의 새들은 모두 절로 즐겁고 |
| 盈庭花木似含情 | 뜰에 가득한 화목도 정을 머금은 듯 |
| 以文招友能無意 | 글로 벗을 부름에 뜻이 없을쏘냐 |
| 圖繪當傳百世名 | 그림 그려 백세에 이름을 전하리라 |

458 장선(長船) : 화순(和順) 절산리(節山里) 장선마을을 가리킨다.

탁암 정진만을 애도하다 절구 2수

輓鄭拓菴 鎮萬 二絕

1

| | |
|---------|----------------------------------|
| 鳳凰江上一高士 | 봉황강가에 높은 선비 한 분이 |
| 吶唸生平率性眞 | 평생 말을 아끼며 참된 성품 따랐네 |
| 博帶峨冠林下老 | 넓은 띠 높은 관으로 임하에 늙어가며 |
| 當今獨保王正春 | 오늘날 홀로 왕의 정춘 보존했네 ⁴⁵⁹ |

2

| | |
|---------|----------------------------------|
| 季春含蓼今何幾 | 계춘에 여뀌 머금은 지 ⁴⁶⁰ 얼마이고 |
| 訪使叩門一愕然 | 부음 사신 문을 두드리니 놀랍구나 |
| 仙臺若得先師看 | 선대 ⁴⁶¹ 에서 선사를 만나뵙거든 |
| 傳道愚余似昔年 | 나는 예전처럼 어리석다 전해주게 |

459 왕(王)의 정춘(正春) 보존했네 : 춘추의 정신을 보존했다는 말이다. 또한 우리 고유의 전통을 지켰다는 뜻이다. 『춘추(春秋)』 은공(隱公) 원년(元年)의 ‘춘왕정월(春王正月)’을 『공양전(公羊傳)』에서 해석하면서 “왜 왕정월이라고 하였는가. 제후들은 주문왕(周文王)의 제도를 따르면서 모두 여기에 귀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何言乎王正月 大一統也]”라고 하였다.

460 여뀌를 머금은 지 : 함께 동고동락함을 이르는 말.

461 선대 : 신선이 사는 곳으로 저승을 가리킨다. 죽어서 신선이 사는 곳으로 갔다는 뜻이다.

금곡에서 보인계를 닦다

琴谷修輔仁契

| | |
|---------|------------------------------------|
| 江雨初晴江日長 | 강비가 막 개여 강의 햇빛 유장한데 |
| 襟紳四集屋騰光 | 사방의 선비들로 가옥에 빛이 넘친다 |
| 滿眼山靑宜穿屐 | 눈 가득 청산은 나막신이 마땅하고 |
| 鑿池形曲可流觴 | 연못의 굽은 형상 유상 ⁴⁶² 하기 좋구나 |
| 棲屑豈曾稻梁計 | 정처 없이 살며 어찌 도량을 꾀했던가 |
| 絃歌追憶魯齊鄉 | 현가를 부르며 제로의 고을 추억하네 |
| 雖無逸少能爲主 | 일소 ⁴⁶³ 처럼 주인 되는 이가 없지만 |
| 彷彿蘭亭古墨香 | 난정의 옛 묵향만은 어렵듯 본뜨리라 |

462 유상(流觴) : 구불구불한 물길에 술잔을 띄우는 것.

463 일소(逸少) :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의 자이다. 왕희지가 명사 42인과 함께 상사일(上巳日)에 회계산(會稽山)의 난정(蘭亭)에 계사(禊事)를 행하고 유상곡수(流觴曲水)를 즐겼으며, 「난정집서(蘭亭集序)」라는 명문(名文)을 남겼다.

바다를 보다

觀海

一望無涯眼界長 바라봄에 끝없어 안계가 유장하니
六州浩渺接空蒼 육대주가 아득히 창공에 이어졌네
倒排山岳威何壯 산악이 거꾸로 비쳐 형세가 웅장하고
關闔雲雷氣欲涼 운뢰가 열리고 닫히니 기운이 차갑네
塵宇東西歎芥蟻 동서로 떠도는 세상 개의⁴⁶⁴를 한탄하고
人生今古感滄桑 인생에서 고금이 창상⁴⁶⁵임을 느낀다
男兒從此胸懷豁 남아는 이로부터 흥회를 넓히나니
擬吐虹霓射斗光 무지갯빛 토해서 두우에 빛을 쏘고자⁴⁶⁶

464 개의(芥蟻) : 비 온 날 지푸라기에 의지한 개미 신세 같다는 말이다.

465 창상(滄桑) : 창해(滄海)가 변하여 상전(桑田)이 된다는 뜻으로, 세상의 변천이 격심함을 이른다.

466 두우에 빛을 쏘고자 : 오(吳)나라 때 북두성과 천우성 사이에 늘 보랏빛 기운이 감돌기에 장화(張華)가 예장(豫章)의 점성가(占星家) 뇌환(雷煥)에게 물었더니 보검의 빛이라 하였다. 이에 풍성(豐城)의 감옥 터 땅속에서 춘추 시대에 만들어진 전설적인 보검인 용전검과 태아검(太阿劍) 두 보검을 발굴했다 한다. 『晉書』 卷36 「張華傳」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이르기를, “용전검의 빛이 우성(牛星)과 두성(斗星)의 자리를 쏘았다.” 하였다.

초하에 윤석촌과 나성재 및 절산의 어른들과 함께 청석강에 노닐다
 初夏與尹石村誠齋及節山諸丈遊靑石江

| | |
|---------|-----------------------------------|
| 沽酒打魚一水頭 | 술을 사고 강에서 물고기 잡으니 |
| 風流肯讓古人流 | 풍류를 어찌 고인에게 양보할까 |
| 虛拋好箇三春日 | 좋은 석 달 봄을 헛되이 버렸으니 |
| 醉散重圍萬斛愁 | 취하여 첩첩한 만곡의 시름 날리세 |
| 妬雪林花如待客 | 새하얀 숲 꽃은 손님 기다리는 듯 |
| 堆雲壟麥欲將秋 | 구름 같은 보리는 수확이 다가온다 |
| 淸纓濁足滄浪曲 | 창랑의 굽이에서 갓끈과 발을 씻고 ⁴⁶⁷ |
| 自許年來始壯遊 | 몇 해 만에 처음 통과한 유람 즐겼네 |

467 발을 씻고 : 춘추시대 한 어린애가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나의 발을 씻으리라. [滄浪之水淸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하였다. 『孟子』 「離婁上」

가을 흥취 2수

秋興 二首

1

| | |
|---------|-------------------------------------|
| 羈窓涼月忽驚秋 | 객창의 찬 달에 문득 가을을 놀라니 |
| 白雁南飛大火流 | 백안은 남으로 날고 대화성 ⁴⁶⁸ 흐른다 |
| 鱸膾擬隨張翰帆 | 농어회 생각나 장한 ⁴⁶⁹ 의 돛배 따르려니 |
| 客懷偏在中宣樓 | 나그네 회포는 홀로 중선루 ⁴⁷⁰ 에 있네 |
| 動毛馬欲棧邊起 | 터럭 움직이며 말은 마구에서 일어나고 |
| 疾眼鵬思雲外遊 | 매서운 눈 독수리는 구름 밖 비상을 생각한다 |
| 畫裏溪山多少景 | 그림 같은 계산의 많은 풍경들을 |
| 囊中筆禿未全收 | 자루 속 붓이 무더 다 거두지 못하네 |

2

| | |
|---------|------------------------|
| 唧唧蟲聲感晚秋 | 찌르르 찌르르 벌레 소리에 만추를 느끼니 |
| 光陰偏入鬢邊流 | 광음은 유달리 귀밑머리에 들어 흐른다 |
| 一天叫月鴻成字 | 하늘 달빛에 울며 기러기는 글자 이루고 |
| 千里望鄉客上樓 | 천리 고향 그리며 객은 누각에 오른다 |

468 대화성(大火星) : 대화심성(大火心星)으로, 이 별이 서쪽으로 내려가면 더위가 가고 가을이 오기 시작한다고 한다. 『시경』 「빈풍(飗風) 칠월(七月)」에 이르기를, “7월에는 대화심성(大火心星)이 서쪽으로 내려가고, 9월에는 옷을 만들어 주네. [七月流火 九月授衣]” 하였다.

469 장한(張翰) : 진(晉)나라 때 장한(張翰)이 가을바람이 부는 것을 보자 오중(吳中)의 농어회와 순채국이 생각나서 말하기를, “인생살이에서는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귀한 법인데, 어찌 벼슬에 얽매어서 수천 리 밖을 떠돌면서 명예와 관작을 노리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수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晉書』 卷92 「文苑傳 張翰」

470 중선루(中宣樓) : 후한말(後漢末)에서 삼국시대에 활약한 위(魏)나라 시인 왕찬(王粲)이 악양루(岳陽樓)에 자주 올라 고향을 그리워하는 「등루부(登樓賦)」를 지었는데, 그 누각을 중선루(仲宣樓)라 부른다. 그의 자가 중선(仲宣)이다.

不覺吟詩到身瘦 나도 모르게 시를 읊으며 몸이 야위니
何須秉燭在春遊 어찌 봄날에만 촛불 잡고 노닐 것인가
苦愁漫興誰深淺 수고와 만흥은 어느 것이 깊고 얇은가
挑興遣愁功可收 흥을 돋우면 시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여러 벗과 강상에서 입으로 노래하다

與諸友江上口呼

| | |
|-------|---------------|
| 步出靑江上 | 청석강가로 걸어 나가니 |
| 遙岑落日時 | 먼 산에 해가 질 때라네 |
| 淸閒忘世趣 | 세상 잊은 청한한 흥취를 |
| 祇有白鷗知 | 다만 백구만이 아는구나 |

동경⁴⁷¹에서의 추회

東京秋懷

| | |
|---------|----------------------------------|
| 鮑石亭今幾百秋 | 포석정은 이제 몇 백 년이 흘렀나 |
| 離離黍稷使人愁 | 늘어진 서직 ⁴⁷² 이 시름을 자아낸다 |
| 王陵多驗澆無斷 | 왕릉은 증험 많아 끝없이 술을 뿌리고 |
| 江水含悲咽不流 | 강수는 슬픈지 오열하며 흐르지 않네 |
| 底意寒鴉吊斜日 | 어이타 까마귀는 지는 해에 조문하나 |
| 傷心明月照高樓 | 서러운 밝은 달빛만 고루를 비춘다 |
| 紛紛士女笙歌沸 | 분분한 남녀들의 생가소리 울리는데 |
| 獨立西風奈鬱幽 | 홀로 서풍에 서니 울적함 어이하리 |

471 동경(東京) : 경북 경주(慶州)의 옛 지명.

472 늘어진 서직(黍稷) : 『시경』 「왕풍(王風) 서리(黍離)」에 이르기를, “저 기장이 축 늘어졌거늘, 저 피는 싹이 돋았다. 힘없이 가는 길 터디기도 하니, 이 마음 둘 곳이 없도다. [彼黍離離 彼稷之苗 行邁靡靡 中心搖搖]” 하였다. 나라가 멸망하여 옛 궁궐터가 기장 밭이 됨을 보고 서글퍼 읊은 시이다.

광한루의 가을 달

廣寒秋月

| | |
|---------|---------------------|
| 廣寒樓上覽秋光 | 광한루에서 가을 달을 보니 |
| 河漢盈盈夕氣涼 | 은하수는 넘실넘실 서늘한 밤기운 |
| 雲卷一天蟾影白 | 구름 걷힌 하늘엔 달빛이 하얗고 |
| 風吹萬戶桂花香 | 바람 불어 집집마다 계화 향기로다 |
| 宛然仙子遺痕在 | 신선의 자취 완연히 남아있으니 |
| 戛曳簫聲似縷長 | 통소소리는 실처럼 유장하게 이어진다 |
| 月下逍遙無數客 | 달 아래 소요하는 무수한 길손들 |
| 却疑身入水晶鄉 | 몸이 수정고을에 들었나 의심하네 |

추강의 어부

秋江漁父

一竿經夏到秋年 낚싯대 하나로 여름 지나 가을 오니
兩岸蘆花日暮天 양안의 갈대꽃에 해가 저무는 하늘
船帆載歸千頃月 창파의 범선은 달빛 싣고 돌아오고
笛聲吹破萬重烟 피리소리에 만중의 안개가 흩어진다
豈貪盈貫銀鱗釣 어찌 꿩미 가득 은어의 낚시 탐하랴
只爲忘機白鷺緣 기심⁴⁷³ 잊고 백로와의 인연 위할 뿐
老作鷹揚眞可笑 우습구나 매처럼 비상한 늙은이⁴⁷⁴여
擬追嚴子富春邊 부춘산 엄자릉⁴⁷⁵을 따르고자 하노라

473 기심(機心) : 꾀를 부리는 마음을 말한다. 옛날 바닷가에 살던 한 사람이 갈매기를 아주 좋아하여 매일 갈매기와 놀았다. 그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듣자니 갈매기들이 모두 너를 따라 노닌다 하니, 네가 갈매기를 잡아 오너라. 내가 갈매기를 완상하고 싶다. [吾聞鷗鳥皆從汝游 汝取來 吾玩之]” 하였다. 다시 바닷가로 나가니, 갈매기들이 알아채고 공중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列子』 「黃帝」

474 비상한 늙은이 : 주무왕(周武王)을 도와 은(殷)나라를 멸망시킨 태공망 여상(呂尙)을 가리킨다. 『시경』 「대아 대명(大明)」에 이르기를, “태사인 태공망이 마치 매가 날 듯, 무왕을 도와 상나라를 정벌하니, 회전(會戰)하는 아침은 청명했네. [維師尙父 時維鷹揚 涼彼武王 肆伐大商 會朝清明]” 하였다.

475 엄자릉(嚴子陵) : 후한 광무제(光武帝) 때의 엄광(嚴光)으로 자릉은 그의 자이다. 엄광은 광무제와 어린 시절의 벗으로, 광무제가 즉위하여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제수했으나 사양하고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하여 칠리탄(七里灘)에서 낚시질하며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인곡 김정채를 애도하다

輓金仁谷正彩

| | |
|---------|-----------------------------------------------|
| 帝巖嶠峯泃江淸 | 제암산 ⁴⁷⁶ 높고 예강 ⁴⁷⁷ 은 맑은데 |
| 中有高人獨守貞 | 그 속에 고인이 홀로 곧음을 지켰다 |
| 氣岸衝霄終落拓 | 충천의 기개 끝내 불우했으나 |
| 文望與斗共崢嶸 | 문망은 북두와 함께 높았다 |
| 受知昔日蒙佳誨 | 예전 지우 입어 좋은 훈도 받았으나 |
| 貽阻多年薄此誠 | 다년간 격조 끼쳐 정성이 열었네 |
| 厭看歐蘇今永寐 | 구양수와 소식 실컷 보다 영면하시니 |
| 胤賢應不墜家聲 | 현명한 아들 가성을 실추하지 않으리라 |

476 제암산(帝巖山) : 장흥읍 북동쪽에서 보성군과 경계를 이루며 소백산맥 끝에 위치하고 있다

477 예강(泃江) : 장흥의 예양강(泃陽江)으로 탐진강(耽津江)을 말한다.

춘원 최인철의 유거에 쓰다

題崔春園 仁徹 幽居

年當九九一何强 나이는 여든하나 어찌나 강건하신지
翰墨平生樂未央 평생 한묵의 즐거움 끝이 없어라
踏盡江山身愈健 강산 두루 밟아 몸 더욱 튼튼하고
吟來蟲鳥世俱忘 시 읊으며 세상을 모두 잊었네
恩添雨露庭蘭茁 우로의 은혜 더해 뜰의 난초⁴⁷⁸ 돋았고
情翕壙簾院棣芳 훈지⁴⁷⁹의 정 흡족해 상채⁴⁸⁰가 향기롭다
抑戒如今公復在 공은 지금도 「억」⁴⁸¹시로 경계하니
晚途絃斷不須傷 노년에 현의 끊김⁴⁸² 슬플 것 없어라

478 뜰의 난초 : 우수한 자제(子弟)를 말한다. 『세설신어(世說新語)』 「언어(言語)」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자제들에게 어떤 자제가 되고 싶냐고 묻자,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이 대답하기를 “비유하자면 지란옥수가 뜰에 자라길 바랍니다. [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 하였다.

479 훈지(壙簾) : 형제간의 우애를 비유하는 말이다. 『시경』 「하인사(何人斯)」에 이르기를, “백씨가 질 나발을 불고 증씨가 짓대를 부는구나. [伯氏吹壙 仲氏吹簾]” 하였다.

480 상채(常棣) : 형제의 우애를 비유한 것이다. 『시경』 「상채(常棣)」에 이르기를, “상체의 꽃 환히 밝게 피니, 지금 사람은 형제만한 이가 없네. [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 하였다.

481 억(抑) : 『시경』의 편명이다. 위(衛)나라 무공(武公)이 나이 95세가 되었는데도 자신을 경계하는 이 억(抑) 시를 지어 날마다 곁에서 외게 하여 자신을 경계하였다고 한다. 『詩經』 「大雅 抑」

482 현의 끊김 : 상처(喪妻)함을 이른다.

산당에서 우연히 읊다

山堂偶吟

巖堂寂寂寄江崖 서당은 적적히 강 언덕에 자리하니
枕石漱流儘適佳 돌에 눕고 물로 양치함⁴⁸³이 쾌적하다
聞籟絕斤時護竹 도끼 끊어 대를 보호해 바람소리 듣고
栽花移石日治階 꽃 심고 돌 옮겨 날마다 계단 다스린다
身如鐵自爐中鍊 몸은 철처럼 화로 속에 단련하지만
愁似名難地下埋 시름은 명성처럼 지하에 묻기 어렵네
滿目烏狐識世亂 온통 까마귀와 여우⁴⁸⁴ 세란(世亂)을 예고하니
一天風雪與誰偕 하늘 가득 풍설을 누구와 헤쳐 나갈까

483 돌에 …… 양치함이 : 진(晉) 나라 손초(孫楚)는 은거(隱居)하려 하여 벗 왕제(王濟)에게 ‘돌을 베고 물로 양치질하겠다[枕石漱流]’는 말을 실수로 “돌로 양치질하고 물을 베겠다. [枕流漱石]” 하였다. 왕제는 “물을 어떻게 베며 돌로 어떻게 양치질하는가.” 반문하자, 손초는 “물을 베는 것은 귀를 씻으려 해서이고 돌로 양치질하는 것은 이빨을 닦으려고 해서이다.” 하여 둘러대었다. 『世說新語』 「排調」

484 까마귀와 여우 : 『시경』 「북풍(北風)」에 이르기를, “붉은 것마다 여우가 아닌 것이 없고, 검은 것마다 까마귀가 아닌 것이 없다. [莫赤匪狐 莫黑匪烏]” 하였는데, 주희의 주석에, “모두 불길한 동물이니,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바이다. 보이는 것이 모두 이러한 것들이라면 나라가 장차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였다.

학우 김규환, 김경석, 김준, 김종옥, 김용기, 김영웅, 최영채, 김찬수와
이별하며 주다

贈別學友 金圭煥 金京錫 金濬 金鍾玉 金容祺 金永雄 崔泳彩 金燦洙

多君逐臭澗邊臺 물가 누대로 날 따르는⁴⁸⁵ 그대들 고마우니
安得目明心且開 어찌하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릴까
達曙地燈憐刺股 새벽까지 등불 아래 다리 찢러⁴⁸⁶ 어여쁘고
分曹鬪藝愧供杯 무리 나누어 문예 겨루매 술잔이 부끄럽네
莫虧一簣爲山止 일궈 그르쳐 산의 완성 그치지 말라⁴⁸⁷
無息涓流學海來 작은 흐름 쉬지 않으면 학해에 이르리라
滿地緇塵誰不染 땅 가득 검은 먼지에 누가 물들지 않으랴
請看淡泊雪中梅 청컨대 담박한 눈 속의 매화를 볼지어다

485 날 따르는[逐臭]: 『여씨춘추』에 다음과 같은 고사가 있다. 어떤 사람이 냄새가 많이 나서 그 부모·형제·처자·친구들이 모두 함께 살지 못하자 바닷가로 가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냄새 나는 사람을 좋아하여 밤낮으로 함께 어울리며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呂氏春秋』 「孝行覽 遇合」

486 다리 찢러[刺股]: 전국시대 소진(蘇秦)이 송곳으로 정강이를 찢러가며 공부했다.

487 그치지 말라: 『논어』 「자한(子罕)」에 이르기를, “비유하자면, 산을 만들 적에 마지막 한 삼태기의 흙을 붓지 않아 산을 못 이루고서 중지하는 것도 내 자신이 중지하는 것과 같으며, 평지에 흙 한 삼태기를 부어 산을 만들기 시작해서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것도 내가 해 나가는 것과 같다. [譬如爲山 未成一簣 止 吾止也 譬如平地 雖覆一簣 進 吾往也]” 라는 말을 발취한 것이다.

서재에 기거하다 느낌이 일어 읊다 병오년(1966)
齋居感吟 丙午

| | |
|-------|-------------------------------|
| 江湖一散人 | 강호에 산인 하나 |
| 自喜得芳隣 | 좋은 이웃 기쁘구나 |
| 寒月墮塘白 | 찬 달은 연못에 하얗게 지고 |
| 疏梅當戶新 | 성근 매화는 창을 마주해 새롭다 |
| 觀書到午夜 | 서책 보며 한밤에 이르고 |
| 養性坐清晨 | 성품 기르며 새벽까지 앉노라 |
| 花石平泉戒 | 평천장 화석의 훈계 ⁴⁸⁸ 지키며 |
| 君家百過春 | 그대 가문에 많은 봄이 지났네 |

488 평천장(平泉莊) 화석(花石)의 훈계 : 평천장은 당(唐)나라 이덕유(李德裕)의 별장인데 이곳에 정자와 누대가 백여 곳이고 천하의 기화이초(奇花異草)와 진귀한 소나무, 괴석(怪石)이 있었다 한다. 이덕유는 평천장을 경영하고서 기화(奇花)와 괴석(怪石)을 잘 보존하라고 유언을 하였다.

절산 어르신들이 열흘 과작으로 시를 지으니 나도 화답하다 6수
節山諸丈課旬有詩余亦和之 六首

1

半畝園中種此君 작은 뜰에 대나무⁴⁸⁹ 심었는데
庭梅花事又三分 정원의 매화 일이 또 삼분일세
開戶看山來爽氣 문 열고 산을 보니 기운이 상쾌하고
燒葉煎茶纈篆文 잎 태워 차 달이니 연기가 아롱지네
羸膽頽頽當世事 거친 담력은 당세의 일 힐항하나
閒情留宿一檐雲 한가한 정에 처마 구름 머물렀네
樓依青嶂門臨水 누각은 청산 기대고 문은 시내에 임하니
何用紛紛耳斷聞 어찌 귀에 분분한 소리 끊을 것 있으랴

2

咄咄中宵感逝年 한밤에 탄식하며 세월을 느끼나니
空慙小技被人憐 작은 기예 사랑받아 공연히 부끄럽다
半生書劍風塵裏 반평생 서검⁴⁹⁰은 풍진 속에 있으니
一里賓朋水竹邊 수죽 가에서 마을 벗들과 어울린다
鰕跡何時遍江海 작은 발자취 언제 강해를 두루 돌까
林居今日癖雲煙 숲에 사는 금일 연하(煙霞)의 병이 들었네

489 대나무[此君] : 진(晉)나라 왕위지가 일찍이 남의 빈집을 빌려서 살면서도 반드시 대나무를 심게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대나무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어찌 단 하루인들 차군이 없을 수 있겠는가. [何可一日無此君邪]” 하였다.

『晉書』卷80「王徽之列傳」

490 서검(書劍) : 책과 같은 옛날 선비들의 일상 소지품으로, 곧 학문과 의기를 뜻한다. 당(唐)나라 고적(高適)의 시에 이르기를, “동산에 한 번 은거하여 흘러보낸 삼십 년 봄, 책과 같이 풍진 속에 늙어갈 줄 알았으랴. [一臥東山三十春 豈知書劍老風塵]” 하였다.

春衣典盡無衣着 봄옷을 저당 잡혀⁴⁹¹ 입을 옷 없는데
 又糶新絲償酒錢 다시 새 실을 팔아 술값을 갚는다

3

一區泉石傍溪橋 시내 다리 곁의 천석 한 구역
 白日掩門塵慮消 낮에도 닫힌 문 속정(俗情)도 사라진다
 玉不去身防行情 옥을 몸에 지녀 게으른 행실 막고
 銘常揭壁戒心驕 좌우명 벽에 걸어 교만한 마음 경계한다
 細鈔丹竈方留案 단조의 방술 초록하여 책상에 남기니
 詎念黃金印佩腰 어찌 황금 인장 허리에 차길 생각하랴
 每苦閨人昧田事 한가한 사람이라 농사에 어두워서
 招招野叟坐深宵 들 노인 불러서 깊은 밤에 앉았네

4

鑿石排雲結一茅 돌 깎고 구름 헤쳐 모옥을 엮으니
 危軒突兀俯青郊 높은 들창 우뚝 솟아 푸른 들 굽어본다
 飯名魚子能開胃 어자반은 능히 위장을 열어주고
 菜有木頭可辦肴 목두⁴⁹²채소는 안주가 되어준다
 撲面飛花當硯落 얼굴 치며 나는 꽃은 벼루에 떨어지고
 參天雙栢蔽門交 하늘 찌른 쌍백은 마주 문을 가렸다
 微禽亦識人間趣 작은 새도 인간의 흥취를 아는지
 簾外喃喃訪舊巢 발 밖에서 재잘대며 옛 둥지 찾는다

491 봄옷을 저당 잡혀 : 두보(杜甫)의 시 「곡강(曲江)」에 이르기를, “퇴조하면 봄옷을 저당 잡히고, 날마다 강변에서 흠뻑 취해 돌아온다. [朝回日日典春衣 每日江頭盡醉歸]” 하였다.

492 목두(木頭) : 두릅나무.

5

| | |
|---------|-----------------------------------|
| 相尋諸友似南村 | 여러 벗을 찾으니 남촌 ⁴⁹³ 과 같아서 |
| 話道桑麻忘日昏 | 상마를 얘기하다 지는 해도 잊었네 |
| 種獲賴人無寸土 | 농사는 남을 의지해 촌토도 없지만 |
| 棲遲卒歲有衡門 | 서지할 형문 ⁴⁹⁴ 있어 해를 마친다네 |
| 溪魚知候隨灘上 | 개울 고기는 때를 알아 여울 오르고 |
| 山鳥弄晴任意喧 | 산새는 햇살 희롱하며 맘껏 지저귀다 |
| 爲賀霏霏窗外雨 | 부슬부슬 창밖의 비를 축하하노니 |
| 園中樹樹澆其根 | 정원의 나무마다 뿌리를 적셨네 |

6

| | |
|---------|----------------------|
| 閉戶經年一水干 | 시냇가에 문을 닫고 한 해를 지내니 |
| 輸贏世似奕棋看 | 번복하는 세상사는 바둑판을 보는 듯 |
| 春深山社宜縫屐 | 산사에 봄 깊어 신발 꿰매기 좋으니 |
| 危舉何人早掛冠 | 위거에 어떤 사람이 일찍 관을 걸었나 |
| 檐際遊絲千萬態 | 처마 끝 아지랑이는 수많은 자태요 |
| 磯邊白鳥兩三歡 | 낙시터의 백조는 쌍쌍이 어여빠라 |
| 胸藏今古終無補 | 가슴에 고금을 품었으나 끝내 무익하니 |
| 聊倒芳樽強自寬 | 다만 술잔 들어 애써 마음 누그린다 |

493 남촌(南村) : 도잠(陶潛)의 「이거(移居)」시에 이르기를, “예전부터 남촌에 살고 싶었으니, 좋은 집터 찾아서가 아니라오. 들으니 마음 깨끗한 사람 많아, 아침저녁으로 자주 만나고자. [昔欲居南村 非爲卜其宅 聞多素心人 樂與數晨夕]” 하였다.

494 서지(棲遲)할 형문(衡門)이 : 형문은 나무를 걸쳐 만든 문으로 가난한 집을 말한다. 『시경』 「형문(衡門)」에 이르기를, “형문의 아래에서 한가지 지낼 만하다. [衡門之下 可以棲遲]” 하였다.

가을날의 즉흥시

秋日卽事

| | |
|---------|----------------------------------|
| 了忘田家萬事忙 | 전가의 바쁜 만사 잊고서 |
| 捲簾斜日據胡床 | 지는 해에 발 걷고 호상에 앉았다 |
| 微風高閣書聲亮 | 고각의 미풍에 글소리 낭랑하고 |
| 驟雨萬林蟬語涼 | 숲의 소나기에 매미울음 서늘하다 |
| 送酒自疑楊子宅 | 술 보내니 양옹 ⁴⁹⁵ 집인가 의심하니 |
| 有村渾似鄭公鄉 | 마을은 전혀 정공의 고을 ⁴⁹⁶ 같구나 |
| 漁兄樵弟相逢處 | 형제 같은 어부와 초부 만날 때면 |
| 時問江山趣短長 | 강산의 흥취의 장단을 물어본다 |

495 양옹(揚雄) : 전한(前漢) 때의 후파(侯芭)가 자기의 스승인 양옹이 술을 좋아하므로 항상 술을 싣고 가 양옹과 마시면서 『태현경(太玄經)』과 『법언(法言)』을 수학하여 이를 후세에 전하였다.

496 정공(鄭公)의 고을 : 후한(後漢)의 경학가(經學家)인 정현(鄭玄)이 가향(家鄉)인 북해(北海) 고밀현(高密縣)으로 돌아오자, 북해상(北海相)인 공융(孔融)이 그를 존경한 나머지 고밀현에 명령하여 특별히 '정공향(鄭公鄉)'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後漢書』卷35「鄭玄列傳」

흥을 보내다

遣興

| | |
|---------|---------------------------------|
| 四海風塵那日晴 | 사해의 풍진 어느 날에 개일꼬 |
| 時間鼓角動山城 | 때때로 고각이 산성을 울린다 |
| 寒星耿耿含霜意 | 차가운 별은 서리를 머금었고 |
| 落葉蕭蕭作雨聲 | 낙엽은 우수수 빗소리 짓는다 |
| 古史丁寧傳子讀 | 고사는 간곡히 자식에게 읽히고 |
| 荒田辛苦藉人耕 | 황전은 애써 손을 빌려 경작한다 |
| 平生最愛屠蟠子 | 평생 가장 신도반 ⁴⁹⁷ 을 아끼나니 |
| 屈木爲家晦姓名 | 나무집 만들고 성명을 감췄다네 |

497 신도반(申屠蟠) : 후한(後漢) 때 사람으로 자는 자룡(子龍)이다. 그는 은거하면서 학문에 열중하여 오경(五經)에 박통하고 참위설(讖緯說)에 밝았으며, 당고(黨錮)가 일어나자 산속으로 들어가 살아 있는 뽕나무를 마룻대로 삼아 집을 짓고 살면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後漢書』 卷53 「申屠蟠列傳」

석촌과 성재 그리고 벽초 손평기와 함께 저녁에 앉아 회포를 노래하다
與石村誠齋孫碧初坪琦夜坐賦懷

| | |
|---------|--------------------------------|
| 舉世滔滔慕駟軒 | 온 세상이 도도히 부귀를 사모하니 |
| 誰將一燭照衢昏 | 누가 촛불로 어두운 거리 비출까 |
| 自憐翰墨床頭客 | 가련타 책상에 모인 한묵의 선비여 |
| 頻夢羲皇卷裏魂 | 자주 희황 ⁴⁹⁸ 의 정신을 꿈꾼다 |
| 迎客呼童掃門徑 | 손님 맞아 동자 불러 길을 쓸고 |
| 携琴隨月坐雲根 | 거문고 안고 달빛 따라 바위에 앉는다 |
| 吾生得意無多日 | 내 삶에 득의할 날 많지 않으리니 |
| 莫惜今宵帶酒痕 | 오늘 밤 술 먹는 자취 아끼지 말라 |

498 희황 : 고대 중국의 황제 복희씨이다. 태평시대의 뜻으로 쓰인다.

버들 솜

柳絮

| | |
|---------|---------------------|
| 柳花能識我偷閒 | 버들 꽃이 나의 한가함을 알고서 |
| 故與落紅來打顏 | 붉은 꽃 떨어뜨려 얼굴을 스친다 |
| 日煖依稀風際雪 | 따스한 날 바람에 날리는 눈인 듯 |
| 天晴暗曖眼前山 | 맑은 하늘 눈앞의 산을 가린다 |
| 遊魚吹沒微波上 | 유어는 작은 물결 불며 잠기고 |
| 癡蝶隨黏嫩葉間 | 더딘 나비는 뒤따라 어린잎에 붙는다 |
| 萬轉千回何處泊 | 수없이 회전하다 어디에 멈추는고 |
| 春光儻報玉門關 | 봄빛을 혹 옥문관에도 알리겠네 |

장병택 별장에서의 작은 모임

蔣炳宅庄小集

| | |
|---------|-----------------------------------|
| 窈窕林泉漸入眞 | 점차 그윽한 임천의 진경에 들어 |
| 鶯花管盡可忘貧 | 피꼬리와 꽃 차지하니 가난 잊겠네 |
| 吹笙鼓瑟留嘉客 | 피리 불고 비파 타며 가객 머물고 |
| 流水閒雲臥碩人 | 유수와 한운에 석인이 누웠네 |
| 枯旱苗望沾雨露 | 가뭄에 짝은 우로에 젖기 바라니 |
| 射牛劍欲掃風塵 | 두우 쏘는 검 ⁴⁹⁹ 으로 풍진을 쓸고자 |
| 請君携酒青江上 | 청석강으로 그대 술을 지니고 오게 |
| 秋月綠陰來往頻 | 가을 달과 녹음에 자주 왕래하리라 |

499 두우(斗牛) 쏘는 검으로 : 오(吳)나라 때 북두성과 견우성 사이에 늘 보랏빛 기운이 감돌기에 장화(張華)가 예장(豫章)의 점성가(占星家) 뇌환(雷煥)에게 물었더니 보검의 빛이라 하였다. 이에 풍성(豐城) 감옥 터의 땅속에서 춘추 시대에 만들어진 전설적인 보검인 용천검(龍泉劍)과 태아검(太阿劍) 두 보검을 발굴했다 한다.
『晉書』卷36「張華傳」

여러 군의 벗들과 월출산 아래 남강 이효갑 형의 별장에 묵다
與數郡諸友宿月出山下南岡李兄孝甲庄

| | |
|---------|------------------------------------|
| 月嶽幾番夢裏遊 | 월출산을 얼마나 꿈속에 놀았나 |
| 東風試上故人樓 | 동풍에 옛 벗의 누각에 오른다 |
| 名山擬飽黃精飯 | 명산 보니 황정반 ⁵⁰⁰ 에 배가 부른 듯 |
| 啼鳥如嘲白盡頭 | 우는 새는 백발을 조롱하네 |
| 玼瑳襟紳知雅會 | 선명한 의관은 선비들 모임이라 |
| 淋漓文酒亦風流 | 문주에 젖으니 풍류도 넘치네 |
| 何由相逐諸君後 | 어떻게 하면 제군의 뒤를 쫓아서 |
| 掃却眉間百種愁 | 미간의 수많은 시름을 쓸어볼까 |

500 황정반(黃精飯) : 황정은 옛날 도사(道士)와 선인(仙人)들이 복용했다는, 비위(脾胃)를 보하고 원기를 증진시키는 유명한 약초이다.

월출산에 오르다

登月出山

| | |
|-------|----------------------------|
| 初望一邱小 | 처음 작은 언덕 보이더니 |
| 行行欲到天 | 걸을수록 하늘에 이를 듯 |
| 三千界浪說 | 삼천세계 ⁵⁰¹ 도 관한 말 |
| 萬里接風煙 | 만 리의 풍연 마주하노라 |

501 삼천세계(三千世界) : 불교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전 우주.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내는 말.

경포대에서 노닐다

遊鏡布臺

| | |
|---------|--------------------|
| 衝天石勢助吾氣 | 하늘 찌른 바위는 기운을 돋우고 |
| 噴雪清流洗客心 | 쏟아지는 청류는 객의 마음 씻는다 |
| 名大南州三百里 | 남녘 삼백 리에 명성이 크니 |
| 幾多今古費長吟 | 고금에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나 |

인덕정⁵⁰²

仁德亭

| | |
|---------|--------------------------------|
| 行人指點一荒臯 | 행인이 황량한 언덕 가리키니 |
| 忽地丹青鎖色高 | 홀연 단청의 묵은 빛이 높구나 |
| 脩竹叢生如束矢 | 총생한 수죽은 화살뭉음 같고 |
| 群山列立似分曹 | 줄지은 산들은 조를 나눈 듯 |
| 轅門射戟雖能技 | 원문의 사극 ⁵⁰³ 뛰어난 기예지만 |
| 此日爭雄更傑豪 | 오늘 겨루는 이들은 더욱 호걸들 |
| 幾得英材爲國屏 | 어찌 영재 얻어 나라 병풍 삼을꼬 |
| 望亭聊薦數杯醪 | 인덕정 바라보며 술잔을 드노라 |

502 인덕정(仁德亭) : 나주 남산공원 내에 위치한 국궁장이다.

503 원문(轅門)의 사극(射戟) : 원문은 장군의 막부이다. 여포(呂布)가 원문에서 150보 거리에 놓아둔 방천화극(方天畫戟)의 끝가지를 화살로 쏘아 맞춘 일을 말한다. 이로써 교전을 앞두던 원술(袁術)의 부장 기령(紀靈)과 유비(劉備)는 화해를 하게 되었다.

보리 물결

麥浪

| | |
|---------|-------------------------------------|
| 麥秀漸漸屆六陽 | 보리 이삭 점점 자라 육양 ⁵⁰⁴ 에 이르니 |
| 波濤忽地接空長 | 파도가 홀연 허공에 길게 이어졌다 |
| 漁翁荷釣疑江漲 | 낚시 맨 어옹은 강물 불었나 의심하고 |
| 田父隨阡嗅氣香 | 밭두둑 걷는 농부는 보리향기 맡는다 |
| 澗洞將懷全世界 | 넘실넘실 온 세상을 삼킬 듯 |
| 洶溶如盪萬家鄉 | 춤 추며 만가의 고을 흔든다 |
| 南風吹解生民愠 | 남풍 불어 생민의 분노 풀어주니 |
| 四野伊今喜欲狂 | 사방 들판이 이제 기쁨으로 가득하다 |

504 육양(六陽): 음력 4월을 가리킨다.

오산⁵⁰⁵ 음사에 화답하다

和鰲山吟社

誰能麤膽最先頭 거친 담력 누가 가장 으뜸이고
吾道如今百六秋 오도는 이제 백육의 시절⁵⁰⁶
曲奏峨洋嘆曠世 세상에 「아양곡」⁵⁰⁷ 드뭇을 탄식하고
酒兼賢座破圍愁 어진 자리 술이 있어 가득한 시름 깬다
山山落日紅將斂 산에 지는 해는 붉은 빛을 거두고
枝枝經春翠欲流 가지들은 봄을 지나 푸른빛이 흐를 듯
回首塵寰知已少 속세를 돌아보매 지기가 적으니
一翻青眼故遲留 한번 청안⁵⁰⁸을 만나 일부러 머문다

505 오산(鰲山) : 전남 장성(長城)의 옛 이름이다.

506 백육(百六)의 시절 : 액운을 말한다. 백육은 106년을 이르는데, 4500년이 1원(元)이 되고 1원(元) 중에 5번의 양액(陽厄)과 4번의 음액(陰厄)이 있어 106년마다 액운이 있으므로 백육이라고 한 것이다. 『漢書』 卷21 「律歷志上」

507 아양곡 : 춘추시대 백아(伯牙)가 타고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가 들었다는 금(琴)의 곡조이다.

508 청안(靑眼) : 진(晉)나라 완적(阮籍)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청안(靑眼)을 뜨고, 미워하는 부류인 예속(禮俗)을 따지는 선비를 만나면 백안(白眼)으로 대하였다. 『晉書』 卷49 「阮籍傳」

사는 공사열에게 축수하다

壽孔泗隱思烈

| | |
|---------|-----------------------------------|
| 結社何年坐翠微 | 언제 푸른 산에 앉아 결사하였나 |
| 八荒遙望罕同歸 | 멀리 팔황을 바라보니 동지(同志)가 드물구나 |
| 蘆山春蕨嘗吾祖 | 노산의 봄 고사리 선조를 제사하고 |
| 泗水秋風濯我衣 | 사수의 추풍으로 나의 옷을 세탁한다 |
| 辰及懸弧妻子樂 | 현호 ⁵⁰⁹ 의 때를 맞아 처자가 즐겁고 |
| 胸因勝戰體身肥 | 흉중은 전승하여 ⁵¹⁰ 몸이 윤택하다 |
| 嘉賓填戶詩相賀 | 집 가득 좋은 손님 시를 지어 축하하니 |
| 完福如翁并世稀 | 어르신 의 온전한 복 세상에 없으리라 |

509 현호(懸弧) : 아들이 태어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생일의 뜻으로 쓰였다. 『예기』 「내측(內則)」에 이르기를, “자식을 낳음에 남자일 경우는 문 왼쪽에 뽕나무 활을 걸고, 여자일 경우는 문 오른쪽에 수건을 건다.” 하였다.

510 전승하여 : 자하(子夏)가 몸에 살이 올랐는데 그를 만난 증자(曾子)가 왜 살이 찼느냐고 물었다. 이에 자하가 대답하기를, “내가 들어와서 선왕의 의(義)를 들으면 영예롭게 여겼는데 나가면 부귀의 즐거움도 영예롭게 여겨서 그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여위었소. 그런데 지금은 선왕의 의가 이겼기 때문에 살찌게 된 것이요. [吾入見先王之義則榮之 出見富貴之樂又榮之 兩者戰於胸中 未知勝負 故羸 今先王之義勝 故肥]” 하였다. 『韓非子』 卷7 「喻老」

공사는 별장에서 풍영계를 닦다

孔泗隱庄修風詠契

| | |
|---------|--------------------------------------------------|
| 泗水源頭一路微 | 사수의 발원지에 작은 오솔길 |
| 東風拂袖此同歸 | 동풍에 소매 날리며 이곳에 함께 왔다 |
| 開懷隔世芳樽酒 | 한 해 지나 향긋한 술로 회포를 여니 |
| 憂國悲歌摠布衣 | 우국의 비가는 모두 포의의 선비들 |
| 遠客來尋高士躅 | 원객이 와서 고사의 발자취 찾으니 |
| 閒庭恐破綠苔肥 | 한적한 뜰 푸른 이끼 깨뜨릴까 두렵네 |
| 德星聚處奎星動 | 덕성이 모인 곳에 ⁵¹¹ 규성이 움직이니 ⁵¹² |
| 今日風流古亦稀 | 금일의 풍류는 옛날에도 드물었으리라 |

511 덕성(德星)이 모인 곳에 : 후한(後漢)의 진식(陣寔)이 자질(子姪)을 데리고 순숙(荀淑) 부자(父子)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천문(天文)에 덕성이 모이므로 태사(太史)가 상주(上奏)하기를, “500리 안에 현인(賢人)이 모였다.” 하였다. 『異苑』 卷4

512 규성(奎星)이 움직이니 : 훌륭한 문장들이 넘쳐난다는 말이다. 규성은 이십팔수(二十八宿) 가운데 하나로, 문운(文運)을 주관하는 별이다.

녹음
綠陰

| | |
|---------|----------------------|
| 童環翠澗邊亭 | 푸른빛 짙게 두른 시내 가의 정자 |
| 吟盡繁陰滿眼青 | 시를 읊으니 눈에 가득 녹음이 푸르다 |
| 多事吹涼要客立 | 다사한 듯 서늘한 기운은 객을 세우고 |
| 無心生籟使人停 | 무심한 바람은 사람을 멈추게 한다 |
| 晴嵐滴滴啼鶯岸 | 맑은 이내는 피꼬리 우는 언덕에 지고 |
| 暝色沈沈浴鳧汀 | 저녁 빛은 오리 씻는 물가에 침침하다 |
| 擬蔭四方鋤畝子 | 사방 김매는 농부 위해 해를 가리고자 |
| 萬千分汝倘能聽 | 많은 그늘 나누려 하니 혹 들어주려나 |

풍영정⁵¹³에서 이퇴계 선생의 시를 차운하다

風詠亭次李退溪先生韻

| | |
|---------|----------------------|
| 浩然投絀是安休 | 호연히 벼슬 던지고 이곳에 편히 쉬며 |
| 忘却塵間百種愁 | 속세의 온갖 시름 망각했노라 |
| 向日葵同傾北闕 | 해바라기 마음은 북궐로 기울고 |
| 伴鷗舟與在中洲 | 백구와 벗한 배는 중주에 함께 있네 |
| 通神健筆倭酋怯 | 신명 통한 건필에 왜장이 겁을 먹고 |
| 得主名亭客杖留 | 주인 얻은 명정에 길손 걸음 머물렀다 |
| 欽仰明知消長理 | 소장 이치 앎을 흠양하니 |
| 朝家正值太平秋 | 조정은 정히 태평 시절 만났었네 |

513 풍영정(風詠亭) : 1560년 관직에서 물러난 김언거(金彦據)가 낙향하여 지은 정자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선창산(仙滄山)과 극락강(極樂江)이 마주치는 강변의 대지 위에 있다. 김언거는 덕망이 높아 낙향을 하자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가 지낼 정각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12채나 되는 정각이 들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풍영정 이외의 11채의 정각들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고 풍영정만 남았다. 풍영정만 소실을 면한 데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다른 정자들이 다 타버리고 풍영정이 불길에 휩싸이자 현판 글자 가운데 앞의 「풍」자가 오리로 변하여 극락강 위로 날아올랐다. 기이하게 느낀 왜장이 불을 끄자 극락강의 오리가 현판에 날아들어 다시 글씨가 되살아났다고 한다.

꿈에서 퇴계 선생을 뵈고

夢謁退溪先生

夫子何由在我傍 부자께서 어이타 제 곁에 계시는고
覺來榻上有餘香 깨고 나니 자리 위에 향기가 남아있네
遙想先生訓誨語 아득히 선생의 훈도 말씀 상상하니
如憐小子痛摧樑 최량⁵¹⁴을 애통하는 소자가 가련한 듯

514 최량(摧樑) : 스승의 죽음을 말한다. 공자(孔子)가 자신이 죽을 꿈을 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뒷집을 지고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서 한가로이 거닐며 노래하기를, “태산이 무너지겠구나, 들보가 부러지겠구나, 철인이 죽게 되겠구나. [泰山其頽乎 梁木其壞乎 哲人其萎乎]” 하였다. 『禮記』 「檀弓上」

남강 나종태 어르신인 유거에 쓰다

題南岡丈 羅鍾泰 幽居

| | |
|-------|----------------------------|
| 錦城南數里 | 금성 ⁵¹⁵ 남쪽 몇 리길 |
| 隱隱一高岡 | 은은히 높은 산 하나 |
| 脩竹軒頭綠 | 수죽은 서재에 푸르고 |
| 新荷風際香 | 새 연꽃은 바람에 향기롭다 |
| 弟兄衾被煖 | 형제의 금피 ⁵¹⁶ 따뜻하고 |
| 兒子書聲長 | 아이의 글소리 유장하다 |
| 勤篤平生業 | 평생의 학업에 근독하니 |
| 應看後日昌 | 후일의 번창함을 보겠네 |

515 금성(錦城) : 전남 나주(羅州)의 옛 이름.

516 금피(衾被) : 후한(後漢) 때 강굉(姜肱)이 아우 증해(仲海)·계강(季江)과 함께 효행으로 명성이 높았고, 형제간에도 우애가 매우 돈독하여 항상 한 이불을 덮었다. 『後漢書』卷 83 「姜肱列傳」

오산⁵¹⁷음사

鰲山吟社

| | |
|---------|--------------------------------------|
| 世事紛紜正漠然 | 세사는 분운하여 정히 막연하더니 |
| 何來快報案頭傳 | 어디서 상쾌한 알림 서안(書案)에 전해지나 |
| 綠筠送影寒生戶 | 푸른 대 그림자에 집엔 서늘함 일고 |
| 幽草微香暗襲筵 | 유초의 향기는 가만히 자리에 풍긴다 |
| 伏櫪蹇驚惟愧我 | 부끄럽다 마구에 누운 노마 ⁵¹⁸ 신세여 |
| 出劔霜刃孰如賢 | 새로 다듬은 상인 ⁵¹⁹ 은 누가 그대 같으랴 |
| 小詩爲賀鰲山社 | 작은 시로 오산음사를 축하하노니 |
| 聲大南州可永年 | 남주의 큰 명성 오래 지속되리라 |

517 오산(鰲山) : 전남 장성(長城)의 옛 이름.

518 노마 : 노마는 절뚝거리는 말이란 뜻으로 선생께서 겸사로 자신을 가리켰다.

519 상인 : 상인은 날카로운 칼날이다. 포경(庖丁)이 말하기를, “지금 신의 칼은 19년 된 것이고 잡은 소는 수천 마리이지만 칼날은 마치 솥돌에서 갓 나온 것과 같습니다. [今臣之刀十九年矣 所解數千牛矣 而刀刃若新發於硎]” 하였다. 『莊子』 「養生主」

노호서실에서 운을 들다

蘆湖書室拈韻

十里江光似鏡湖 십리 강물 빛이 경호 같으니
南窓寄傲聽伊吾 남창에 기대어 글소리 듣는다
曾開望益竹間徑 대숲 길 열어 익우⁵²⁰ 기다리고
又挈忘憂花下壺 꽃 아래 술병 당겨 근심 잊노라
足遍海山多慷慨 해산을 편력해 강개함 넘치고
家傳詩禮絕虛無 가정엔 시례 전해 허무를 끊었네
檢農課子遺安業 농사짓고 아이 가르치며 편안함 남기니⁵²¹
笑殺雲煙閣上圖 우습구나 운연각의 그림이여⁵²²

520 익우(益友) : 『논어』 「계씨(季氏)」에 이르기를, “유익한 벗이 셋이 있고 손해되는 벗이 셋이 있으니, 정직하고 성실하고 견문이 많으면 유익하다.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하였다.

521 편안함 남기니 : 후한(後漢) 때 방덕공(龐德公)은 현산(峴山)에 살면서 성시(城市)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형주자사(荊州刺史), 유표(劉表)가 찾아가서 “선생은 벼슬을 받지 않으니 무엇으로 자손에게 남겨 주겠소?” 하니, 그가 “남들은 모두 위태로움을 주는데 나만은 편안함을 주겠습니다.” 하였다. 후에 처자를 데리고 녹문산(鹿門山)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522 운연각(雲煙閣)의 그림이여 :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 지은 누각으로, 선제(宣帝) 때 이곳에 공신(功臣) 11명의 화상(畫像)을 안치한 기린각(麒麟閣)이다.

남북통일을 염원하다

願南北統一

| | |
|---------|----------------------|
| 權域山川號大東 | 무궁화 산천을 대동이라 부르니 |
| 那時南北吸呼同 | 언제나 남북이 호흡을 함께 할까 |
| 皇天有意施甘雨 | 황천도 뜻이 있는 듯 감우를 내리는데 |
| 薩水無情起冷風 | 살수는 무정하여 찬바람만 부는구나 |
| 鷺鳥三千張翼裏 | 독수리 삼천이 날개를 편 가운데 |
| 貔貅百萬磨牙中 | 날랜 병사 백만이 이를 갈고 있나니 |
| 鴨江洗劍知何日 | 압록강에서 검을 씻을 날 언제일꼬 |
| 轉輾深宵恨不窮 | 깊은 밤 잠 못 들며 한이 끝없어라 |

인암의 선자도에 쓰다

題詠菴扇子圖

| | |
|-------|----------------------------|
| 江上一茅屋 | 강가에 모옥 하나 |
| 蕭蕭萬樹林 | 숲엔 바람이 우수수 |
| 數聲欸乃斷 | 몇 소리 어가 ⁵²³ 끊기자 |
| 遠岵白雲深 | 먼 산에 흰 구름 깊구나 |

523 어가(漁歌) : 원문 관내(欸乃)는 뱃노래이다. 당나라 유종원(柳宗元)의 「어옹(漁翁)」에 이르기를, “물안개 걷히고 해가 솟으니 사람은 보이지 않고, 애내 한 소리에 산수가 푸르구나. [烟消日出不見人 欸乃一聲山水綠]” 하였다. 『유하동집(柳河東集)』에는 ‘애내(欸乃)’로 되어 있으나, 『전당시(全唐詩)』와 장섭(章燮)의 주소본(注疏本)에는 ‘관내(欸乃)’라고 되어 있다.

탁사정에서 판상의 시를 차운하다

濯斯亭次板上韻

滔滔一世夢槐安 도도한 세상은 괴안의 꿈⁵²⁴이니
主老曾知世路難 주인옹은 일찍 세로의 간난 알았네
閒鷺斜陽波萬頃 석양 빛 만경 파도에 한가한 백로요
孤亭午日竹千竿 정오의 외로운 정자엔 천간 대나무라
濯纓濯足看清濁 갓과 발을 씻으며 청탁을 보고⁵²⁵
彈瑟彈碁忘戚歡 비파 타고 바둑 두며 애환을 잊었네
今古登臨多小客 고금의 등림한 수많은 길손들은
祇收風景入毫端 풍경만을 붓끝에 거둘 뿐이거늘

524 괴안(槐安)의 꿈 : 인생의 부귀영화가 모두 덧없는 한바탕 꿈과 같다는 말이다. 순우분(淳于棼)이란 사람이 괴목(槐木) 아래에서 술 취해 잠깐 누워 잠든 사이에 괴안국(槐安國)의 부마(駙馬)가 되어 남가(南柯)의 태수로 삼십 년 동안 있으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꿈을 깨고 보니 괴안국은 바로 괴목의 남쪽 가지 밑에 있는 개미구멍이었다는 이야기가 당나라 이공좌(李公佐)의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에 나온다.

525 청탁을 보고 :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으리라. [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孟子』 「離婁」, 『楚辭』 「漁父」

죽헌 김영량을 축수하다

壽金竹軒 永樑

渾厚生平保一身 혼후함으로 평생 일신 보존했나니
秋風又見滿堂春 가을바람에 또 집에 화기가 가득
鶴隨吹笛徘徊唳 학은 피리 따라 배회하며 울고
樽帶紫霞灑激新 자줏빛 술동이는 일렁인다
家範永傳稱善士 가범은 길이 전해 선사라 칭송되고
床琴無恙勝仙人 상금은 탈이 없어⁵²⁶ 선인보다 낫다네
萊衣爭獻南山祝 색동옷⁵²⁷ 입고 남산지수⁵²⁸ 축원하니
飾喜斯筵可寫眞 기쁜 잔치를 사진으로 남겨야 하리

-
- 526 상금은 탈이 없어 : 상금은 평상의 거문고. 상대방의 건강이 아무 탈이 없다는 말이다. 절친한 벗인 왕자유(王子猷)와 왕자경(王子敬)이 모두 병이 위독하다가 왕자경이 먼저 죽었다. 왕자경은 평소에 거문고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왕자유가 영상(靈床)에 앉아 왕자경이 생전에 연주하던 거문고를 가지고 연주했으나 소리가 조화롭지 못하였다. 이에 왕자유가 거문고를 땅에 던지면서 “자경이여! 자경이여! 사람과 거문고가 함께 사라졌구나. [子敬子敬 人琴俱亡]” 하고, 한참 동안 통곡했다. 『世說新語』 「傷逝」
- 527 색동옷[萊依] : 춘추시대 초(楚)나라 사람인 노래자는 효성으로 아버이를 섬기어, 일흔살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어린아이의 놀이를 하며 아버이를 기쁘게 하였다고 한다. 『小學』 「稽古」
- 528 남산지수(南山之壽) : 장수를 말한다. 『시경』 「소아(小雅) 천보(天保)」에 이르기를 “당신은 등글어 가는 초승달 같고 막 떠오르는 태양 같으며 영원한 남산과 같아서 이지러지지도 무너지지도 않으며, 무성한 송백과 같아서 당신을 끝없이 계승하지 않은 것이 없도다. [如月之恒 如日之升 如南山之壽 不騫不崩 如松柏之茂 無不爾或承]” 하였다.

무진음사에서 여러 어르신과 모여서 이야기하다

武珍吟社與諸丈會話

| | |
|---------|-------------------------------------|
| 世亂武陵何處尋 | 난세에 어디서 무릉도원 찾을꼬 |
| 市塵中有一園深 | 저자의 티끌 속에 정원이 깊구나 |
| 每歎交道翻雲雨 | 늘 운우처럼 번복하는 ⁵²⁹ 교도를 한탄하다 |
| 適以衷心逐士林 | 마침 충심으로 사림을 따르노라 |
| 解意晚花迎客笑 | 뜻을 아는지 늦은 꽃이 손님 맞아 피었고 |
| 多情幽鳥向吾吟 | 그윽한 새도 다정히 나를 향해 노래한다 |
| 竹栢青蒼人灑落 | 죽백은 청청하고 사람은 쇠락하여 |
| 不許妖氛分外侵 | 분수 밖 요기(妖氣)의 침범을 불허하네 |

529 번복(翻覆)하는 : 두보(杜甫)의 시에 이르기를, “손 뒤집으면 구름이요 손 없으면 비가 되니, 경박한 세상인심 따질 것이 뭐 있으랴. [翻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2 「貧交行」

성암 양회순의 수연을 축하하다

賀梁省菴 會順 壽宴

鐵樹花開映此身 철수에 꽃이 피어 이 몸을 비추니
蓼莪篇裏幾思親 「육아」시⁵³⁰에 얼마나 어버이 사모했나
淡淡活計儲書富 담담한 생계에 장서는 부유하고
落落高標拔俗新 낙락한 고표는 세속 벗어 청신(清新)하네
斑斕清晨趨孝子 새벽부터 색동옷 효자가 분주하고
瓓珊佳節賀詩賓 가절에 고운 축시 빈객 넘치누나
省翁應享頤期壽 성암옹은 백년⁵³¹ 장수 누릴 것이니
邁軸澗阿獨養眞 시내에서 유유자적⁵³² 참마음 기르네

530 「육아(蓼莪)」: 『시경』 「소아(小雅) 육아(蓼莪)」에 이르기를, “길고 큰 아름다운 썩이라 여겼더니, 아름다운 썩이 아니라 제비썩이로다. 슬프고 슬프다 부모여, 나를 낳으시느라 몸이 수고롭고 병드셨도다. [蓼蓼者莪 匪莪伊蔚 哀哀父母 生我劬瘁]” 하였다. 이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슬픔을 노래한 시이다.

531 백년[頤期]: 『예기』 「곡례상(曲禮上)」에 이르기를 “백년을 기라고 하니 봉양한다. [百年日期 頤]” 하였다.

532 시내에서 유유자적: 물가와 언덕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시경』 「고반(考槃)」에 이르기를, “고반이 시냇가에 있으니, 어진 은자의 너그러운 마음이네. … 고반이 언덕에 있으니, 어진 은자의 크나큰 마음이네. … 고반이 높다란 평지에 있으니 어진 은자의 여유로운 마음 한가롭네. [考槃在澗 碩人之寬 … 考槃宰阿 碩人之邁 … 考槃在陸 碩人之軸]” 하였다.

무진음사 여러 어르신과 함께 망암 박촌서의 장원에서 놀다
 與武珍吟社諸丈遊朴望菴 春緒 庄

| | |
|---------|------------------------------------|
| 卜築茅堂小澗東 | 작은 시내 동쪽에 초가를 지어 |
| 閉門閒臥萬林中 | 문을 닫고 한가히 숲속에 누웠네 |
| 嘯吟良夜芙蓉月 | 좋은 밤 연꽃의 달을 노래하고 |
| 下上長堤楊柳風 | 버들 바람에 긴 제방 오르내린다 |
| 斐几曾勞千卷積 | 서실에서 애써 천권의 공부 쌓아서 |
| 昏衢獨作一燈紅 | 홀로 어두운 거리 붉은 등불 되었네 |
| 河清無日翁頭白 | 태평시절 ⁵³³ 없이 옹의 머리 세었으니 |
| 爲問寒天惠好同 | 차가운 하늘 혜호 ⁵³⁴ 를 함께 하실런지 |

533 태평시절 : 원문은 하청(河淸). 황하의 물은 본디 탁하여서 맑은 때가 없으나, 천년마다 한 차례씩 맑아지는데, 이는 태평시대의 조짐이라고 한다.

534 혜호(惠好) : 사랑하고 좋아함. 『시경』 「북풍(北風)」에 이르기를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이와 손잡고 함께 돌아가리라. [惠而好我 携手同歸]”라고 하였다.

동초 정철환의 서실에서 운을 들다

鄭東樵 詰煥 書室拈韻

早年辭世隱於樵 일찍 세상 벗어나 초부로 은거하였으니
空看翁頭歲月饒 동초옹의 머리에 괜한 세월만 쌓였네
落落居仁唾權貴 낙락하게 인에 처하며 권귀를 비웃고
謙謙好德問芻蕘 겸겸⁵³⁵한 덕을 좋아해 추요에게 묻는다
典型人仰千尋壁 천길 절벽 전형은 사람들이 우러르니
雅量誰珍五石瓢 오석⁵³⁶의 아량을 누가 귀히 여기랴
文賦翩翩橫逸氣 시문은 편편하여⁵³⁷ 일기가 비겼으니
江山隨處任逍遙 강산 곳곳마다 자유롭게 소요한다

535 겸겸(謙謙)어 : 『주역』 「겸괘(謙卦)」 초육(初六) 상(象)에 “겸손하고 사양하는 군자는 겸손한 덕행으로 자신을 다스린다. [謙謙君子 卑以自牧也]” 하였다.

536 오석(五石) : 장자(莊子)의 친구 혜자(惠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위왕이 나에게 큰 박씨 하나를 보내 주어 심었더니, 다섯 섬들이 박이 열렸다. 그 속에 음료를 채우니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고, 다시 두 쪽으로 쪼개어 바가지를 만들었으나 너무 넓어서 쓸 수가 없었네. 속이 텅 비어 크기는 했지만,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 부수어 버렸네. [魏王貽我大瓠之種 我樹之成 而實五石 以盛水漿 其堅不能舉也 剖之以爲瓢 則瓠落無所用 非不鳴然大也 吾爲其無用而措之]” 하였다. 장자가 말하기를 “지금 자네에겐 다섯 섬들이 박이 있는데, 어찌하여 그것으로 큰 통을 만들어 강호에 띄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무 커서 쓸데가 없다고 걱정만 하는가. [今子有五石之瓠 何不慮以爲大樽而浮乎江湖 而憂其瓠落無所容]” 하였다. 『莊子』 「逍遙遊」

537 편편(翩翩)하여 : 풍모와 문채(文采)가 아름답고 멋스러운 것이다. 『사기(史記)』 「평원군우경열전론(平原君虞卿列傳論)」에 이르기를, “평원군은 혼탁한 세상에 편편한 좋은 공자이다. [平原君翩翩濁世之佳公子也]” 하였다.

동초 61세 생일 축수 시

東樵六十一生朝壽韻

嶽精生甫昔何辰 어느 옛날 산악의 정기가 현인을 낳았나⁵³⁸
正值一陽來復辰 정히 일양이 돌아올 시절일세⁵³⁹
爲保家聲勤課子 집안 명성 지키려 애써 자식 교육시키고
那要世範務權親 어찌 세상 모범 구해 아버지 기쁘게 하길 힘쓰라
素心事大身經劫 평소의 심사 커서 몸은 겁운을 겪었으나
丹竈計成顏帶春 단조의 계책 이루어 안색은 화평하네
誰似東翁兼萬福 누가 동초옹처럼 만복을 겸하였을까
紛紛百歲彼勞陳 분분히 백년토록 저들은 수고로울 뿐

538 현인을 낳았나 : 『시경』 「대아(大雅) 송고(崧高)」에 이르기를, “저 높은 산악이 까마득히 솟아 하늘에 닿았도다. 산악이 신을 내려보내 보후(甫侯)와 신후(申侯)를 낳게 했다. [崧高維嶽 駿極于天 維嶽降神 生甫及申]” 하였다.

539 일양(一陽)이 돌아올 시절일세 : ‘복괘(復卦)’의 뜻을 풀이한 것으로, 음력 11월을 가리킨다. 『주역』 「복괘(復卦)」에 이르기를, “복은 형통하여 나가고 들어옴에 병이 없어서 벗이 와야 허물이 없으리라. 그 도를 반복하여 7일 만에 와서 회복하니, 가는 바를 돕어 이롭다. [復 亨 出入无疾 朋來无咎 反復其道 七日來復 利有攸往]” 하였다.

송오 김기현을 애도하다 절구 2수

輓金松塢基鉉 二絶

1

豪氣堂堂松塢翁 호기가 당당한 송오 어른
屹然萬頃世波中 만경세파에도 우뚝했네
述先裕後爲人範 선조 잇고 후손 끌어⁵⁴⁰ 모범 되니
繼志豈無父祖風 뜻을 이음에 부조의 기풍 없으랴

2

再三獲拜稠人裏 재삼 사람들 속에 뵈었는데
每引余裾愛護加 늘 나를 끌어 아껴 보살폈다
風拂素帷我來哭 바람 부는 흰 휘장에 곡을 하니
江楓江路夕陽斜 강가 단풍 길에 석양이 진다

540 후손 끌어[裕後] : 『서경(書經)』 「상서(商書) 중웨이고(仲虺之誥)」에 이르기를, “의로 일을 바로잡고 예로 마음을 바로잡아 후세에 덕행을 남겨 주소서. [以義制事 以禮制心 垂裕後昆]” 하였다.

향택 임종채의 아버지를 애도하다 절구 2수
輓林向澤大人 鍾彩 二絶

1

月出多仙窟 월출산엔 선굴이 많고
月南多隱人 월남⁵⁴¹엔 은자가 많으니
幸因諸丈後 다행히 어른들 뒤를 따라
間歲往來頻 해마다 자주 왕래했었지

2

先師寓筏市 선사께서⁵⁴² 별교에 기우하실 때
胤子鉛槧同 아드님과 연참⁵⁴³을 함께 했었네
藹藹薰人德 훈훈하신 감화의 은덕에
今何淚不窮 오늘 눈물이 끊이지 않누나

541 월남(月南) : 전남 영암(靈巖)의 마을 이름이다.

542 선사께서 : 선사는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錡) 선생이다.

543 연참(鉛槧) : 독서와 강학을 말한다.

죽곡정사를 방문하다

過竹谷精舍

會事如今幾度成 지금껏 몇 번의 만남 이루었나
一生講道樹風聲 일생 도를 강론하며 풍성을 세웠다
休言宇內煙塵漲 세상에 연진이 자욱하다 말하지 말라
絃誦洋洋似魯城 현송이 양양하여 노성과 같나니⁵⁴⁴

544 노성과 같나니 : 노성은 공자가 강학했던 노나라 도성이다.

백양사에서 노닐다

遊白羊寺

白巖轟轟欲衝天 백암산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를 듯
淑氣南來莫敢前 맑은 기운 남녘에 으뜸이로다
圍壁染紅開繡帳 붉게 물든 절벽은 금수휘장 펼쳤고
浮空積翠似雲煙 허공에 쌓인 푸른빛은 운연 같구나
插萸去歲鄉園裏 지난해 고향에서 수유를 꽂았는데
落帽今秋佛塔邊 을 가을엔 불탑에서 모자를 떨구네⁵⁴⁵
枯骨焉能爲禍福 마른 뼈가 어찌 화복이 되겠는가⁵⁴⁶
世人沈惑二千年 세인이 미혹에 빠진 지 이천 년일세

545 모자를 떨구네 : 진(晉)나라 맹가(孟嘉)가 9월 9일에 정서장군(征西將軍) 환온(桓溫)이 베푼 용산(龍山)의 주연(酒宴)에 참군(參軍)의 신분으로 참석했다. 술에 취한 나머지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서 측간에 가자, 환온이 그에게 알려 주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눈짓을 하고는 손성(孫盛)에게 희롱하는 글을 짓게 하였다. 맹가가 돌아와서 그 글을 보고는 곧장 멋지게 대응하는 글을 지어서 좌중을 경탄하게 하였다. 『晉書』 卷98 「孟嘉列傳」

546 화복이 되겠는가 : 부처나 조사가 이미 죽어 마른 뼈가 되었으니 화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다.

고산서원을 참배하며

謁高山書院

茫茫宇宙一回頭 망망한 우주를 돌이켜 생각하니
恨未當年間丈遊 당년에 강석(講席)⁵⁴⁷에 참여 못 해 한스럽네
今日羹牆猶有地 금일에 갱장⁵⁴⁸할 곳 아직 있으니
摩挲手植故遲留 심으신 나무 만지며 일부러 머무르네

547 강석 : 원문은 간장(間丈)으로 함장(函丈)과 같은 말이다. 사제 간 강론하는 자리에서 한 길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인데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자리를 말한다.

548 갱장(羹牆) : 간절한 추모의 정을 말한다. 요(堯) 임금의 죽은 뒤에 순(舜)이 사모하는 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밥을 먹을 때에는 요 임금의 얼굴이 국그릇 속[羹中]에 비치는 듯하고, 앉아 있을 때는 담장[牆]에 요 임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다는 고사가 있다. 『後漢書』卷63「李杜列傳」

석촌, 성재와 함께 월주를 방문하다

與石村誠齋訪月洲

| | |
|---------|----------------------------------|
| 又訪牟陽十舍程 | 또 모양 ⁵⁴⁹ 땅 십사의 여정 찾으니 |
| 蕭蕭鬢髮一番驚 | 소소한 빈발에 한 번 놀란다 |
| 籬邊又見黃花發 | 울타리에 또 황화가 피었으니 |
| 燈下那無白酒傾 | 등 아래 기울일 백주가 없으랴 |
| 百畝稻稔知歲稔 | 백무의 메벼는 풍년임을 알겠고 |
| 半園松竹起吾情 | 뜰의 송죽은 나의 정 일으킨다 |
| 霏霏未了中宵話 | 비는 부슬부슬 한밤의 대화에 |
| 不寐相看坐曉清 | 잠 못 들고 새벽까지 마주 앉았네 |

549 모양(牟陽): 진북 고창(高敞)의 옛 이름.

불갑사로 가는 도중에

佛甲途中

| | |
|---------|--------------------|
| 再到甲山山外秋 | 다시 불갑산 밖 가을에 이르니 |
| 秋光又和雁聲流 | 가을빛은 기러기 소리와 흐른다 |
| 人生正似萍蓬跡 | 삶은 부평초 자취 같으니 |
| 百歲悠悠一任浮 | 백년 세월 유유한 흐름에 따를 뿐 |

불갑사를 유람하다

遊佛甲寺

| | |
|-------|------------------|
| 十載意中山 | 십년 동안 그리던 산 |
| 巉巖不可攀 | 우뚝 솟아 오를 수 없네 |
| 無心坐法界 | 무심히 법계에 앉으니 |
| 有累奈人間 | 인간의 허물 어이하랴 |
| 石老雲煙古 | 오래된 바위 운연이 예스럽고 |
| 鍾鳴梵唄閒 | 종소리에 범패가 한적하다 |
| 吾生塵未脫 | 나의 삶 티끌을 벗지 못하니 |
| 瞑算昨程還 | 저녁에 어제 길 세며 돌아온다 |

송능의 장원에서 풍영계를 닦다

松農庄修風詠契

榮水秋風駐馬頭 영산강 추풍에 말을 멈추고
南莎亭上飽淸遊 남사정의 청유 실컷 누린다
沈酣李白三杯酒 이백의 석 잔 술⁵⁵⁰ 깊이 취하고
攀援元龍百尺樓 원룡의 백척루⁵⁵¹ 부여잡고 오른다
擬得鷓巢天地窄 초소⁵⁵² 얻으려니 천지가 비좁고
未圖鵬翼歲華流 봉익⁵⁵³ 꺾이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렀네
錦城彷彿青城好 금성⁵⁵⁴은 청성⁵⁵⁵처럼 아름다우니
肯許塵踪此久留 세속의 발자취 머물기를 허여할는지

550 석 잔 술 : 이백(李白)의 「월하독작(月下獨酌)」시에 이르기를, “성과 현의 술을 모두 다 마셨으니, 굳이 신선을 구할 것이 있으리오. 석 잔을 마시면 대도에 통하고, 한 말을 마시면 자연과 합하는 길. [賢聖既已飲 何必求神仙 三杯通大道 一斗合自然]” 하였다. 『李太白集』 卷22

551 원룡(元龍)의 백척루(百尺樓) : 원룡(元龍)은 삼국시대 진등(陳登)의 자인데, 그는 호기가 높기로 이름났다. 허사(許汜)가 형주목사(荊州牧使) 유표(劉表)와 천하의 인물을 논하면서, “진원룡(陳元龍)은 호해(湖海)의 선비라 호기가 없어지지 않았다.” 하였다. 이에 유표가 무슨 까닭이 있느냐고 묻자, 허사가 “하비(下邳)를 지나다 그를 방문하니 손님을 맞는 예(禮)도 갖추지 않고 오랫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은 큰 침상 위에 올라가 놓고 손님은 침상 아래에 눕게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 사실을 들은 유비(劉備)가 “나 같으면 백 척의 누각 위에 자고 그대를 땅에 재울 것이니, 어찌 침상의 위와 아래의 차이뿐이겠는가.” 하였다. 『三國志』 卷7 『魏書 陳登傳』

552 초소(鷓巢) : 작은 새인 초료(鷓鴣)의 둥지로 작은 거처를 뜻한다.

553 봉익(鵬翼) : 봉새의 날개로 원대한 뜻 사업을 말한다.

554 금성(錦城) : 전남 나주(羅州)의 옛 이름.

555 청성(青城) : 지금의 중국 사천성(四川省) 관현(灌縣) 일대. 청성산에 신선들이 산다고 전해진다.

장산재에서의 감회

章山齋感懷

章山高會幾多年 장산⁵⁵⁶의 높은 모임 몇 해인가
始得今宵一座連 비로소 오늘 밤 한자리에 모였네
經劫靈光巍獨立 겁을 겪었으나 영광⁵⁵⁷은 우뚝하니
滿箱遺著浩無邊 상자 가득 남긴 저술 성대하구나
黃花泛酒人皆醉 국화를 술에 띄워 모두 취했는데
紅葉題詩我不眠 단풍에 시를 쓰며 나는 잠 못 드네
叔世猶知師道重 말세에도 여전히 사도는 소중한 법
心香爇處細凝煙 심향을 사르매 작은 향연(香煙)이 어린다

556 장산(章山) : 전남 담양군 장산리인 듯하다. 이곳에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의 사당이 있다.

557 영광(靈光) : 한(漢)나라 경제(景帝)의 아들 노공왕(魯恭王)이 세운 궁전으로 산둥(山東) 곡부현(曲阜縣)에 있었다. 한나라 중기에 도적이 의하여 궁전들이 다 파괴되었을 때 영광전만 보존되었다.

산재에서 즉흥으로 읊다

山齋卽事

滿天風雨臥山庭 풍진 세상 산정에 누우니
剛厭雌黃耳畔聽 귓가에 세속의 시비 소리 싫구나
延壽爐中煎白石 장수하려 화로에 백석⁵⁵⁸ 달이고
憂時匣裏吼青萍 시절 근심에 갑 속의 청평⁵⁵⁹이 운다
一樽對菊人何處 한잔 술로 국화 보던 이는 어디에
百里思親夢亦靈 백리길 부모 생각에 꿈도 영험하네
十載淹留成底事 십 년간 엄류하며 무슨 일 이루었나
江山清興醉難醒 강산의 청흥에 취해 깨기 어렵네

558 백석(白石) : 도사들이 먹는 양식으로 삶으면 토란과 같아져서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당(唐) 시인 위응물(韋應物)의 「기전초산중도사(寄全椒山中道士)」 시에 이르기를, “개울 아래 빨나무 묶고, 돌아가 백석을 삶아 먹겠지. [澗底束荊薪 歸來煮白石]” 하였다.

559 청평(青萍) : 옛날 보검(寶劍)의 이름이다.

무진⁵⁶⁰의 작은 모임

武珍小會

天將啓我作書生 하늘이 나를 이끌어 서생이 되었으니
杏樹壇邊一路明 행단⁵⁶¹ 가에 성인의 길 분명하네
邂逅逢君留月色 우연히 그대 만나 달빛에 머무니
風流擊筑雜歌聲 축과 노래 어울려 풍류가 넘치네
嘆時空白杞人髮 시절 탄식하니 기인⁵⁶²의 머리만 세고
憂國不禁嫠婦情 나라 근심에 이부⁵⁶³의 정 금할 수 없네
豈是男兒甘遜跡 어찌 남아로써 운둔을 즐겨하랴
半床書劍待功成 책상의 서검이 공을 이루길 기다리네

560 무진(武珍) : 광주(光州)의 옛 이름.

561 행단(杏壇) : 학문을 닦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공자가 은행나무 단에서 제자를 가르쳤다고 한다.

562 기인(杞人) : 옛날 기(杞)나라 사람 가운데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여 침식을 폐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列子』 「天瑞」

563 이부(嫠婦)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4년에 이르기를 “과부가 베 짜는 실이 끊어질 것은 걱정하지 않고서 주나라가 멸망을 걱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그 재앙이 자기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여겨서이다. [嫠不恤其緯 而憂宗周之隕 爲將及焉]” 하였다.

서룡재 김용구의 재사에 쓰다

題瑞龍齋 金容九 齋舍

| | |
|---------|----------------------------------|
| 瑞石嶙峋錦水漪 | 서석산 높고 금수는 넘실대는 곳 |
| 南翁卒歲此棲遲 | 남옹이 소요하며 해를 마친다 |
| 字體雄遒龍虎躍 | 자체는 웅건하여 용호가 도약하고 |
| 筆鋒恍惚電雷馳 | 필봉은 황홀하여 뇌전이 번쩍인다 |
| 應知精力凝藏處 | 응당히 정력이 응장된 곳을 알 것이요 |
| 佇看英才育出時 | 기다려 영재가 배출될 날 보리라 |
| 第待妖氣淸掃日 | 요사한 기운 청소되는 날 기다려 |
| 長杠揮灑磨崖碑 | 큰 붓을 휘둘러 마애비를 쓰리라 ⁵⁶⁴ |

564 마애비를 쓰리라 : 공적비를 쓴다는 뜻이다.

죽하 윤종림 어른을 애도하다 절구 2수

輓竹下尹丈 宗林 二絶

1

| | |
|---------|------------------------------|
| 武珍城外金堂下 | 무진성 바깥 금당산 ⁵⁶⁵ 아래 |
| 領袖士林八十年 | 사림의 영수로 팔십 년 |
| 筇絕市塵紛擾裏 | 발걸음은 어지러운 저자를 끊고서 |
| 灌花迎客樂油然 | 꽃 심고 손님 맞아 즐거움이 넘쳤네 |

2

| | |
|---------|-------------------------------------|
| 曾年相結連楣誼 | 일찍 연미 ⁵⁶⁶ 의 우의를 맺었으나 |
| 擬拜軒屏幾歲遷 | 몇 년을 미루며 선생 ⁵⁶⁷ 을 뵈지 못했네 |
| 訃滿江湖誰不愕 | 강호의 부고에 누가 놀라지 않으랴 |
| 衷情未遂恨綿綿 | 충정 이루지 못해 한이 끝이 없네 |

565 금당(金堂) :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산.

566 연미(連楣) : 사돈지간을 말한다.

567 선생 : 원문 헌병(軒屏)은 마루의 난간과 방 안에 둘러친 병풍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녹양⁵⁶⁸의 청파 위홍규의 장원에서의 작은 모임
綠楊魏靑坡 鴻奎 庄小集

滿天風雨正淒然 하늘 가득 풍우가 정히 처연하니
誰作樓船利涉川 누가 누선 지어 순조롭게 내를 건널까⁵⁶⁹
野沃泉甘眞樂國 비옥한 들 단 샘물이 진실로 낙토이니
綠楊明月好爲隣 푸른 버들 밝은 달이 좋은 이웃이로다

568 녹양(綠楊) : 장흥(長興)의 마을 이름이다.

569 순조롭게 내를 건널까 : 『서경(書經)』 「열명상(說命上)」에 이르기를, “(고종이 부열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아침저녁으로 가르침을 들려주어서 나의 덕을 도우라. 내가 쇠라면 너를 숫돌로 삼고, 큰 내를 건넌다면 너를 배와 노로 삼으며, 큰 가뭄이 든다면 너를 장맛비로 삼으리라.’ [命之曰 朝夕納誨以輔台德 若金 用汝作礪 若濟巨川 用汝作舟楫 若歲大旱 用汝作霖雨]” 하였다.

청강서실에서 벗과 만나 밤중에 대화하다

靑江書室會友夜話

蒼然松柏拂欄干 창창한 송백이 난간을 스치니
歲歲同盟守此寒 해마다 동맹 맺어 세한⁵⁷⁰을 지킨다
今世幾多人可意 금세에 몇 사람이나 뜻에 맞는고
聞君玉佩拭眸看 그대의 패옥 소리 눈을 씻고 보노라

570 세한(歲寒) : 『논어』 「자한(子罕)」에 이르기를,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송백이 제일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歲寒然後知松柏之後雕]” 하였다.

무진음사에 가려다가 일이 있어서 이루지 못하다

擬赴武珍吟社有事未果

怯寒茅屋擁衾深 추위가 겁나 모옥의 이불 깊이 덮으니
兀兀煩愁惱我心 괜한 번뇌와 시름에 내 마음 괴롭구나
極浦雪晴淒雁叫 먼 포구 눈이 개어 기러기 애처롭고
虛窓風過亂松琴 빈창엔 바람 스쳐 솔 소리 어지럽네
墨緣成癖臨唐帖 한묵 인연 고질병이라 당첩을 임시하고⁵⁷¹
世變多端玩易林 세상 변고 다단하니 역림을 완미하네
疏懶愧違參月課 게을러 월과에 참여 못해 부끄러우니
徒勞夜夜夢相尋 한갓 수고롭게 밤마다 꿈길에 찾아가네

571 당첩을 임시하고 : 서예를 익히기 위해 당나라 서예가들의 서첩을 베껴 쓴다는 말이다.

직헌 김일식 어른을 애도하다 절구 3수

輓直軒金丈 一植 三絶

1

| | |
|---------|--------------------|
| 偃仰林泉行素志 | 임천에서 언양하며 본뜻을 행하니 |
| 吾鄉屈指丈人先 | 우리 고을 선비는 어른이 으뜸일세 |
| 讀書暇日彈棋奕 | 독서하는 여가에 바둑을 즐기시고 |
| 磊落布衣七十年 | 뇌락한 포의로 칠십 년을 지내셨네 |

2

| | |
|---------|----------------------------------|
| 我作殊方樓屑客 | 나는 타향을 떠도는 나그네로 |
| 一年中幾過懷城 | 일 년에 몇 번 회성 ⁵⁷² 을 지났나 |
| 每逢獅子山邊友 | 매번 사자산 ⁵⁷³ 사는 벗을 만나면 |
| 爲問起居近日寧 | 근일 기거의 안녕을 물었었지 |

3

| | |
|---------|-------------------------------------|
| 年來往往傷心事 | 해마다 왕왕 상심케 하는 일은 |
| 先輩邦中次第零 | 고을의 선배들 차례로 돌아가심이라 |
| 庭上鸞停又鶴峙 | 뜰의 자손 난곡처럼 우뚝 섰으니 ⁵⁷⁴ |
| 靑氈尙保古家聲 | 청전 ⁵⁷⁵ 을 이어 고가의 명성 보존하리라 |

572 회성(懷城) : 전남 장흥(長興)의 옛 지명.

573 사자산(獅子山) : 전남 장흥군 장동면과 보성군 사이에 있는 산.

574 난새와 …… 섰으니 : 훌륭한 자손을 말한다. 한유(韓愈)의 「전중소감마군묘명(殿中少監馬君墓銘)」에 이르기를, “물러나 소부(少傅)를 뵈니, 푸른 대나무와 푸른 오동나무에 난새와 고니가 우뚝이 멈추어 서 있는 듯하였으니, 능히 그 가업을 지킬 수 있는 분이였다. [退見少傅 翠竹碧梧 鸞鶴停峙 能守其業者也]” 하였다. 『古文眞寶 後集』 卷4

575 청전(靑氈) : 선대(先代)로부터 전해진 귀한 유물을 가리킨다. 진(晉)나라 왕헌지(王獻之)가 누워있는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모조리 훔쳐 가려 할 적에, 그가 “도둑아, 푸른 모포는 우리 집안의 유물이니, 그것만은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偷兒 靑氈我家 舊物 可特置之]”라고 하자, 도둑이 질겁하고 도망쳤다. 『晉書』 卷80 「王羲之傳 王獻之」

필암서원을 참배하다 정미년(1967)

謁筆巖書院 丁未

| | |
|---------|----------------------|
| 生違并世恨吾生 | 시대를 함께 못해 삶을 한하니 |
| 恰似昏衢一燭明 | 흡사 어두운 거리 밝은 등불일세 |
| 巖老依然揮筆勢 | 늙은 바위에 필세는 의연하고 |
| 鳥吟彷彿讀書聲 | 새소리는 글소리와 방불하네 |
| 儀型南土人馳想 | 의형은 남토 사람들 항상 사모하고 |
| 出處東方史紀名 | 출처는 동방의 사책에 이름을 기록했네 |
| 獨立廓然樓上望 | 홀로 확연루에 서서 바라보니 |
| 溪山窈窕摠關情 | 그윽한 계산에 다 정을 느끼노라 |

무진시사의 초청에 가다 2수

赴武珍詩社之招 二首

1

| | |
|---------|---------------------------------|
| 遯世忘懷軒冕峨 | 세상에 은둔하여 헌면 생각 잊었고 |
| 倚欄聊復答禽歌 | 난간 기대 다시 새소리에 응답한다 |
| 林泉適意留雲宿 | 임천은 뜻에 맞아 구름과 유숙하고 |
| 翰墨開場喜友過 | 한묵의 터를 여니 벗의 방문 기쁘다 |
| 燕啄芹泥補空壘 | 제비는 진흙 물어 둥지를 메우고 |
| 魚吹柳絮動微波 | 물고기 버들솜 부니 미파가 인다 |
| 時時詩鉢聲催夢 | 때때로 시발소리 ⁵⁷⁶ 꿈을 깨우지만 |
| 語不驚人可奈何 | 놀라운 시구 없으니 ⁵⁷⁷ 어찌하리오 |

2

| | |
|---------|----------------------------------|
| 折簡招招席上珍 | 편지로 석상의 보배 ⁵⁷⁸ 부르니 |
| 肯參梅柳共爭春 | 기꺼이 참석해 매류와 봄을 다툰다 |
| 當時誰作屠龍手 | 당시에 누가 도룡 ⁵⁷⁹ 의 솜씨였던가 |

576 시발(詩鉢)소리 : 시를 짓기 위한 발우인데 동(銅)으로 된 발우를 쳐서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577 시구가 …… 못하니 : 두보(杜甫)의 시에 이르기를, “나는 성벽이 좋은 시구 탐하여, 시어가 사람들 놀라게 하지 못하면 죽어도 그만두지 않는다. [爲人性癖耽佳句 語不驚人死不休]” 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0 「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

578 석상(席上)의 보배 : 자리 위의 보배라는 뜻으로, 유자(儒者)를 비유한 말이다. 노나라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자리를 권하자, 공자가 모시고 앉아서 “유자는 자신의 자리 위에 진귀한 보배를 준비해 놓고서 초빙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儒有席上之珍以待聘]”라고 하였다. 『禮記』 「儒行」

579 도룡(屠龍) : 주평만(朱泚漫)이란 사람이 지리익(支離益)에게 용 잡는 기술을 배우면서 천금(千金)의 가산을 탕진하고 3년 만에 성취하였는데,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써먹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莊子』 「列御寇」 여기에서는 훌륭한 시문의 솜씨를

| | |
|---------|---------------------------------------|
| 千里常慙附驥人 | 항상 천리마 붙는 것 ⁵⁸⁰ 이 부끄럽네 |
| 漫興東山穿屐去 | 흥이 일면 나막신으로 동산 ⁵⁸¹ 가고 |
| 風流北海倒樽頻 | 풍류 넘치는 북해 ⁵⁸² 의 술잔 자주 기울이네 |
| 遨遊翰墨差強意 | 한묵에 소요하며 뜻을 굳건히 하니 |
| 願得芳隣日與親 | 좋은 이웃 얻어 날마다 친하길 원하노라 |

말한다.

- 580 천리마 붙는 것 : 『사기(史記)』 권61 「백이열전(伯夷列傳)」에 이르기를, “안연이 비록 학문이 독실하나 천리마 꼬리에 붙어 행실이 더욱 드러났다. [顏淵雖篤學 附驥尾而行益顯]” 하였다.
- 581 동산(東山) : 진(晉)나라 명재상인 사안(謝安)은 풍채가 뛰어나고 식견이 높았는데, 마흔 살까지 회계(會稽)의 동산(東山)에 은둔하여 음악과 기생으로 즐겼다. 『晉書』 79卷 「謝安傳」
- 582 북해(北海) : 후한(後漢) 때의 사람인 북해태수(北海太守) 공융(孔融)을 가리킨다. 그는 빈객을 좋아하여 좌중에 항상 빈객이 항상 가득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자리에 빈객이 항상 많고 술병에 술이 비지 않으면 나는 근심이 없으리라. [座上客常滿 樽中酒不空 吾無憂矣]”고 하였다. 『後漢書』 卷70 「孔融列傳」

임대정
臨對亭

| | |
|---------|-----------------------------------|
| 瀟灑高標鶴在陰 | 소쇄한 고표는 그들의 학인 듯 |
| 甘心筮遯有誰禁 | 즐겨 은둔하는 마음 누가 금지하라 |
| 締寒歲盟竹千畝 | 천무의 대숲은 세한 ⁵⁸³ 의 맹약 맺고 |
| 待瑞禽來梧十尋 | 열 길 오동은 봉황 오길 기다린다 |
| 江上亭承先祖業 | 강가 정자에서 선조의 가업 이으니 |
| 床頭訓示子孫心 | 책상에서 자손을 훈시하는 마음일세 |
| 擬從諸丈居隣卜 | 여러 어른을 따라 이웃에 살면서 |
| 秋月春花與共吟 | 가을 달과 봄꽃에 함께 시를 읊고자 |

583 세한(歲寒) : 『논어』 「자한(子罕)」에 이르기를,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송백이 제일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歲寒然後知松柏之後雕]” 하였다.

청석강가에서 죽헌 김영량, 매당 김준현, 석촌, 학산 김영희와 함께
술을 마신 후에 운을 듣다

靑石江上與金竹軒 永樑 金邁堂 俊鉉 石村金學山 永淮 酒後拈韻

| | |
|-------|---------------------------------|
| 時適試春衣 | 시절이 봄옷 ⁵⁸⁴ 입을 때를 맞으니 |
| 多君來叩扉 | 사립문 두드리는 그대들 고맙구나 |
| 巖花經雨發 | 바위의 꽃은 비를 맞아 피어나고 |
| 江燕拂雲飛 | 강가 제비는 구름을 스치며 나네 |
| 濯足磯邊坐 | 발을 씻고 바위 가에 앉고는 |
| 帶醺月下歸 | 취한 채 달빛 아래 돌아오네 |
| 吾儕俱努力 |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서 |
| 素志莫相違 | 평소의 뜻을 어기지 말지어다 |

584 봄옷[春衣] : 공자가 여러 제자들에게 각자의 뜻을 말해보라고 하자, 증점(曾點)이 말하기를 “늦은 봄에 봄옷이 이루어지면 관자(冠者) 5, 6인, 동자(童子) 6, 7인과 함께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을 쐬고 시가(詩歌)를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論語』「先進」

흥을 보내다

遣興

| | |
|---------|--------------------------------|
| 寸許心田一就荒 | 한 치 심전이 날로 황폐해지니 |
| 中宵憂思正無疆 | 밤에도 근심은 끝이 없어라 |
| 酒待劉伶瀉肝膽 | 유령 ⁵⁸⁵ 기다려 술로 간담 쏟고 |
| 琴逢鍾子奏峨洋 | 종자기 만나 「아양곡」을 연주한다 |
| 鬢髮欺人生歷歷 | 빈발은 사람 속여 뚜렷이 생기고 |
| 光陰似水去堂堂 | 광음은 물처럼 당당히 흘러간다 |
| 半生行止稀如意 | 반평생 행지가 뜻 같은 일 드무니 |
| 萬事而今信彼天 | 이제는 만사를 저 하늘에 맡기리라 |

585 유령(劉伶) :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의 한 사람이다. 그는 「주덕송(酒德頌)」을 지어서 술을 극구 예찬하기도 하였다. 항상 녹거(鹿車)를 타고 술 한 병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시켜 삽(鍤)을 메고 따라다니게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그 자리에 묻어 달라. [死便埋我]”라고 하였다.

삼우정⁵⁸⁶ 시를 차운하다 8경을 덧붙이다

次森友亭韻 附八景

森友亭中會事成 삼우정 가운데 모임 이루니
迭爲賓主倒裳迎 서로 빈주 되어 바쁘게⁵⁸⁷ 맞는다
眼前突兀知何日 눈앞의 삼우정은 언제 세웠던가
心上經營亦苦情 마음의 경영 또한 괴로운 정이었으리
行酒論文看禮讓 술 돌리고 글을 논하며 예양을 보고
揚貞褒孝樹風聲 정절과 효를 포상하며 풍성을 세운다
天翁似解諸君意 조물주도 제군의 뜻 아는 듯하니
聚首碧山鳴不平 벽산에 머리 모아 불평을 표현한다⁵⁸⁸

586 삼우정(森友亭)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에 있다.

587 바쁘게[倒裳] : 『시경』 「제풍(齊風) 동방미명(東方未明)」에 이르기를, “동방이 밝기도 전에 허둥지둥 옷을 입노라. 허둥지둥 옷을 입거늘, 임금님 처소에서 부르도다. [東方未明 顛倒衣裳 顛之倒之 自公召之]” 하였다.

588 불평(不平)을 표현한다 : 시문을 짓는다는 뜻이다. 한유(韓愈)의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에 “대저 만물은 평정함을 얻지 못하면 운다. [大凡物不得其平則鳴]” 하였다.

낭산⁵⁸⁹의 제월

朗山霽月

| | |
|---------|----------------------------------|
| 誰穿瓊玉玻璃窟 | 누가 경옥과 파려 ⁵⁹⁰ 의 굴을 뚫고 |
| 捧出冰輪朗岵間 | 낭산 사이에 빙륜을 받쳐내었나 |
| 瑩淨無埃心共照 | 청정무구하여 마음까지 비추니 |
| 虛靈至妙此中看 | 허령의 지극한 묘리(妙理) 여기서 보노라 |

589 낭산(朗山) : 장성군 삼계면 낭월산을 말한다.

590 파려(玻瓈) : 칠보(七寶)의 한가지로 수정류(水晶類)이다.

정각⁵⁹¹의 청풍

淨閣清風

清風蕭灑吹欄際 소쇄한 청풍 난간에 불어올 제
高臥北窓懷思長 북창에 높이 누우니⁵⁹² 유장한 심사
寥廓淵明千載後 도연명의 자취 쓸쓸한 지 천년 후
超然今復夢羲皇 지금 초연히 다시 희황⁵⁹³을 꿈꾼다

591 정각(淨閣)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마을 이름이다. 지하수가 좋아 샘이 많아서 정각(井閣)이라 하였는데 기노사 선생이 송천암에게 정각(淨閣)으로 고치게 했다고 한다.

592 북창에 높이 누우니 : 진(晉)나라 도잠(陶潛)의 글에 이르기를, “오뉴월 여름철에 북창 아래에 누워 있다가 서늘한 바람이 잠깐 불어오면 스스로 북희씨 시대의 사람이라고 여기곤 했다. [五六月中 北窓下臥 遇涼風暫至 自謂是羲皇上人]”라는 구절이 나온다. 『陶淵明集』 卷7 「與子儼等疏」

593 희황(羲皇) : 북희씨(伏羲氏)를 가리킨다.

마령의 낙조

馬嶺落照

日光倒射還東照 일광이 거꾸로 동쪽을 비추니
無數青峯忽變紅 무수한 청봉이 홀연 붉은 빛일세
灑淚牛山眞可笑 우산의 눈물 참으로 우습나니
誰將齊景列英雄 누가 경공을 영웅이라 하였나⁵⁹⁴

594 영웅이라 하였나 : 춘추시대 제경공(齊景公)이 우산(牛山)을 유람하다가 제나라의 국성(國城)을 보고 울며 말하기를 “어찌 이 고장을 버리고 죽는단 말인가.” 하자, 종신(從臣)이 모두 따라서 우는데 안자(晏子)만 홀로 웃었다. 경공이 안자에게 이르기를 “과인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자, 종신들은 다 과인을 따라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대만 홀로 웃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자, 안자가 대답하기를 “가령 현자가 죽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킨다면 태공, 환공이 항상 지킬 것이요, 용맹한 자가 지킨다면 장공, 영공이 항상 지킬 것이니, 이들 군주가 항상 이 나라를 지켜 차지하면 임금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晏子春秋』「內篇 諫上」

조동의 초가

鳥洞樵歌

如笑如悲還似喜 웃고 슬퍼하고 다시 기뻐하는 듯
雲中憂憂谷應鳴 운중의 노래가 골짜기에 울린다
兩三爲侶斜陽路 석양 길에 몇몇 짝을 이루나니
借問高人有董生 동생⁵⁹⁵같은 고인 있는지 묻노라

595 동생(董生) : 당(唐)나라 동소남(董邵南)으로 은사(隱士)이다. 한유(韓愈)가 「동생행(董生行)」이라는 시에 이르기를 “아아, 동생(董生)이여! 아침에는 밖에 나가 밭을 갈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고인의 서책을 읽도다. 종일토록 쉬지 못하여 산에서 나무도 하고 물에서 고기도 잡는다. 부역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당(堂)에 올라가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니, 부모는 근심하지 않고 처자식은 원망하지 않도다. [嗟哉董生 朝出耕 夜歸讀古人書 晝日不得息 或山而樵 或水而漁 入廚具甘旨 上堂問起居 父母不感感 妻子不咨咨]” 하였다. 『小學』 「善行」

제강의 어화

堤江漁火

束葦灌油燃夜雨 갈대 묶어 기름 부으니 밤비에도 빛나
穿林閃閃若迷藏 숲을 뚫고 반짝거리니 미장⁵⁹⁶ 같구나
瞬間網弋盈篝盡 그물과 주살로 금방 바구니를 채우니
此土可稱魚稻鄉 이곳을 어도향이라 칭할 수 있으리라

596 미장(迷藏) : 숨바꼭질을 말한다.

발옥산⁵⁹⁷으로 돌아가는 구름

鉢玉歸雲

| | |
|---------|------------------|
| 鉢玉山頭雲一陣 | 발옥산 마루의 구름 한 무더기 |
| 自來自去似無心 | 무심한 듯 절로 오고 가나니 |
| 人人指點望滋潤 | 사람들 가리키며 윤택을 바라니 |
| 歲早如今儻作霖 | 지금 가뭄에 장맛비 되어주기를 |

597 발옥(鉢玉) : 전남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에 있는 산이다.

금성⁵⁹⁸의 소나기

錦城驟雨

| | |
|---------|--------------------|
| 一朵雲生能釀雨 | 한 줄기 구름 일어 비가 내리니 |
| 驟如動地又掀天 | 갑작스레 땅과 하늘을 흔드는 듯 |
| 何由分此蕭涼氣 | 어찌 이 청량한 기운 고루 나누어 |
| 均彼夏鋤南北田 | 여름 김매는 사방 농지에 베풀까 |

598 금성(錦城) : 전남 나주의 옛 지명.

태수산의 채하

台岵彩霞

天台休道荒唐說 천태산을 황당하다 말하지 말지니⁵⁹⁹
萬壑玲瓏畫不如 영롱한 만학이 그림보다 낫구나
應有中間深隱者 그 사이에 깊은 은자 있을 것이니
餐霞朝暮著仙書 조석으로 노을 마시며 선서를 쓰리라

599 천태산(天台山)은 …… 말지니 : 진(晉)나라 때 손작(孫綽)이 「천태산부(天台山賦)」를 지어 아름다운 경관과 신선의 세계를 묘사하였다.

철천에서 만호정⁶⁰⁰ 시를 차운하다

鐵川次挽湖亭韻

| | |
|---------|-----------------------------------|
| 千載名亭占一岡 | 산을 차지한 천고의 명정 중에 |
| 南方先數永平鄉 | 영평 고을이 남방의 으뜸일세 |
| 蜿蜒山氣傑豪出 | 쭙 뻗은 산기운에 호걸이 태어나고 |
| 激灑湖光流澤長 | 넘실대는 호광은 유택이 유장하다 |
| 催鉢詩成呼社酒 | 동발로 시를 재촉하며 사주 부르고 |
| 圍棋神惱話蠶桑 | 바둑에 마음 지치면 잠상을 얘기한다 |
| 鄭公徐子聞風久 | 예전 정공과 서자의 기풍 들었더니 ⁶⁰¹ |
| 今看規條百世香 | 백세의 향기로운 규범 이제 보노라 |

600 만호정(挽湖亭)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에 있는 고려시대의 정자이다. 고려 초기에 건립되었는데, 창건 당시는 무송정(茂松亭)이라 명칭되었다. 그 후 쾌심정(快心亭)으로 불렸다가 1601년(선조 34)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영평정(永平亭)이라 개칭하였다. 1774년(영조 50) 정자가 퇴락하자 증수하면서 만호정으로 개칭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증수하였다. 만호정은 나주지역의 대표적인 정자로 향약과 동약을 시행하였던 곳이다. 서씨·정씨·윤씨의 세 성씨가 관리하고 있다.

601 기풍 들었더니 : 후한의 대학자 정현과 서치(徐稚)를 말한다.

초산서실에 쓰다

題樵山書室

碧城高士寓光城 벽성⁶⁰²의 고사 광주에 기우하여
結社漁樵樂此生 어부와 결사하여 이 삶을 즐긴다
樽酒爲謨嘉客醉 술단지로 가객이 취하길 꾀하고
硯田傾力穉孫耕 연전⁶⁰³에 힘써 어린 손자 필경하네
吟來花鳥成詩譜 시를 읊으며 화조가 시보 이루고
踏破江山忘世情 강산을 답파하며 세정을 잊었노라
翁老笑拋馳騁志 옹께선 웃으며 치빙⁶⁰⁴할 뜻 버리니
故將楣署欲埋名 일부러 문미에 써서⁶⁰⁵ 이름 감추네

602 벽성(碧城) : 전북 김제(金堤)의 옛 이름인 듯하다.

603 연전(硯田) : 문인(文人)들이 생활(生活)을 위하여 글을 쓸 때, 벼루를 농사(農事) 짓는 논에 비유(比喻·譬喻)하여 이르는 말이다.

604 치빙 : 분주히 치달리며 세상사를 경영한다는 뜻이다.

605 문미(門楣)에 써서 : 초산(樵山)이라고 이름한 서실을 가리킨다.

여러 군의 벗들을 맞아 관산의 당동⁶⁰⁶에 있는 나의 장원에서 풍영계를
뒹다

邀數郡諸友修風詠契于冠山之堂洞鄙庄

| | |
|---------|-----------------------------------|
| 布衣落落敵紈衣 | 부귀에 대적할 만한 낙락한 선비들 |
| 千里連鑣夕日時 | 해 질 녘 천릿길을 나란히 찾아오네 |
| 對酒歡娛須盡矣 | 술을 마주하여 기쁨을 다할 것이니 |
| 逢君塊磊擬銷之 | 그대들 만나 쌓인 마음 풀고자 |
| 井中已使投車轄 | 우물에 이미 차할을 던지게 했으니 ⁶⁰⁷ |
| 門外那禁折柳枝 | 어찌 문밖의 버들가지 꺾겠는가 ⁶⁰⁸ |
| 幸恕家無供紙楮 | 집에 제공할 종이 없음 용서할지어다 |
| 剪蕉爲軸可題詩 | 파초잎을 시축 삼아 시를 쓰리니 |

606 관산(冠山)의 당동(堂洞) : 관산은 장흥의 옛 이름이고, 당동은 마을 이름이다.

607 차할을 던지게 했으니 : 수레바퀴의 빗장을 던져 손님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서(漢書)』 권92 「진준전(陳遵傳)」에 이르기를 “진준(陳遵)은 술을 즐겨서 매번 크게 취했다. 빈객이 집에 가득 차면 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객의 수레 빗장 가져다가 우물 속에 던져 버렸다. 비록 급한 일이 있는 객이라도 끝내 돌아가지 못하였다. [遵者酒 每大飲 賓客滿堂 輒關門 取客車轄 投井中 雖有急 終不得去]” 하였다.

608 버들가지 꺾겠는가 : 한(漢)나라 사람들이 전별할 때 장안(長安) 동쪽에 있던 파교(灞橋)에서 버들을 꺾어 주던 고사가 있으며, 역시 석별의 마음을 노래한 「절양류(折楊柳)」란 고대의 악곡이 있다.

천관산⁶⁰⁹에 오르다

登天冠山

| | |
|-------|-----------------|
| 冠山插上天 | 관산은 하늘 위로 솟아 |
| 可望六洲連 | 멀리 육대주를 볼 수 있다네 |
| 仙厭塵人到 | 선인이 속인의 율을 싫어하여 |
| 散雲遮眼邊 | 구름 펼쳐 눈을 가리웠네 |

609 천관산(天冠山) : 전남 장흥군 관산읍(冠山邑)과 대덕읍(大德邑)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역락재에서 선비들 모임

亦樂齋雅會

一見招書顏欲開 한 번 초청 편지 보자 안색이 퍼지니
南風遠赴故人杯 남풍에 멀리 가서 벗의 술잔 들었네
百年倏忽花榮落 백년 세월 홀연히 꽃이 지듯 흘렀는데
舉世紛忙燕去來 세상은 제비가 오고 가듯 분망할 뿐
盤有清樽兼彩鱖 쟁반엔 맑은 술과 쏘가리가 있으나
門無俗客厚蒼苔 문에는 속객이 없어 창태만 두텁네
斯筵難買千金重 이 자리는 천금으로도 살 수 없으니
莫唱陽關別路催 양관곡⁶¹⁰을 불러 이별을 재촉 말라

610 양관곡(陽關曲) : 석별의 노래를 뜻한다. 당나라 왕유(王維)의 「송원이사안서(送元二使安西)」에 이르기를, “위성의 아침 비 가벼운 먼지 적시니, 객사에는 푸룻푸룻 버들 빛도 싱그럽네. 그대에게 권하노니 다시 한 잔 드시오.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친구가 없다 오.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進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 하였다.

적벽강에서 노닐다

遊赤壁江

南風吹棹綠蘋洲 남풍이 녹빈 모래톱 배에 불어오니
天借塵生一日遊 하늘이 내 삶에 하루의 유람 허여했네
石窟龍藏江雨黑 석굴엔 용이 숨어 강비가 검고
山腰雲宿地輿浮 산허리에 구름이 머물러 대지가 떠 있네
共君傾倒千鍾酒 그대와 함께 천종의 술을 기울여
搜膈銷除萬斛愁 가슴 속 만곡의 시름을 없애노라
憂憂簫聲煙霧裏 연무 속에 통소 소리 울려 퍼지니
忽疑乘鶴下仙儔 홀연 신선들이 학을 타고 내리는 듯⁶¹¹

611 학을 타고 내리는 듯 : 주영왕(周靈王)의 태자 왕자진(王子晉)의 고사(故事)이다. 그가 일찍이 통소[笙]를 불어 봉황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락(伊洛) 사이에 노닐다가, 신선 부구공(浮丘公)을 만나 선술을 배우고 송산(崇山)으로 갔다. 그 뒤 30여 년 무렵에 집안 사람 환량(桓良)이 송산으로 찾아가 만나자, 왕자진은 “가족들에게 알려라. 7월 7일에 구씨산(緱氏山)에서 나를 기다리라.”고 하였다. 7월 7일에 구씨산에서 기다리니 과연 왕자진이 백학(白鶴)을 타고 날아와 인사를 하고, 며칠 뒤 다시 백학을 타고 날아갔다고 한다. 『列仙傳』

물염정⁶¹²에서 판상의 시를 차운하다

勿染亭次板上韻

早年投絨臥林臯 일찍 벼슬 버리고 숲에 누우니
百世淸風似謝陶 백세의 청풍이 사도⁶¹³와 같구나
佳沼澄鮮如練白 좋은 연못 맑아서 깃처럼 하얗고
瑞山突兀拂雲高 서석산은 구름 위로 높이 솟았네
林荒古宅尋遺躅 황폐한 숲 고택에 유적을 찾아서
月白虛壇酌薄醪 달빛 밝은 빈 제단 술을 따르다
假使九原今可作 구원에서⁶¹⁴ 다시 살아나신다면
擧公籃輿不辭勞 공의 남여 드는 수고도 마다 않으리⁶¹⁵

-
- 612 물염정(勿染亭) : 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물염마을 ‘화순 적벽’ 상류에 세워진 정자이다. 조선 전기 문신인 송정순(宋庭筍)이 건립하였고, 송정순의 호를 따서 물염정(勿染亭)이라 하였다. 을사사화로 관직에서 물러나 화순 지역에 은거하였다.
- 613 사도(謝陶) : 진(晉)나라 사안(謝安)과 (晉)나라의 은사(隱士) 도잠(陶潛)을 가리킨다. 사안은 회계(會稽) 땅 동산(東山)에서 20여 년 동안 한가히 은거하면서 조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 614 구원(九原)에서 : 구원(九原)은 전국시대의 진(晉)나라 경(卿), 대부(大夫)의 묘지가 있던 곳으로, 무덤을 뜻한다.
- 615 마다 않으리 : 남여(籃輿)는 대를 엮어서 만든 가마이다. 너무도 사모한 나머지 가마를 드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박형운의 아버지를 애도하다 절구 2수

輓朴炯允大人 二絶

1

| | |
|---------|-------------------|
| 龍江江上綠楊村 | 용강가 녹양이 우거진 마을에 |
| 詩禮持家保一門 | 시례로 가문을 유지하며 보존했네 |
| 口絕世人長短說 | 세인의 장단점 얘기를 끊었으니 |
| 眉間德氣自溫溫 | 미간의 덕의 기운 절로 온화했네 |

2

| | |
|---------|------------------------------------------------|
| 茁茁芝蘭賀子孫 | 지란처럼 ⁶¹⁶ 성한 자손 경하하였고 |
| 幸交胤肖拜源源 | 윤초 ⁶¹⁷ 와 교유하며 자주 ⁶¹⁸ 뵈었네 |
| 含蓼過旬嗟臨壙 | 열흘간 슬퍼하다 탄식하며 광에 임하니 |
| 江雨霏霏日欲昏 | 강비만 부슬부슬 날은 어두워지네 |

616 지란(芝蘭)처럼 : 우수한 자제(子弟)를 가리키는 말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 「언어(言語)」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자제들에게 어떤 자제가 되고 싶냐고 묻자,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이 대답하기를 “비유하자면 지란옥수가 뜰 안에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 [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 하였다.

617 윤초(胤肖) : 아버지의 덕을 닮은 자식을 말한다.

618 자주[源源] : 순(舜)임금이 천자가 된 뒤에 이복제(異腹弟)인 상(象)을 비(庖) 땅에 봉해 주고, “늘 보고 싶어 자주 찾아오게 하였다. [欲常常而見之 故源源而來]” 하였다. 『孟子』 「萬章上」

차씨의 세심정에 오르다

登車氏洗心亭

| | |
|---------|--------------------|
| 峽中窈窕別開天 | 그윽한 산골에 별천지 열리니 |
| 此日忘形又忘年 | 오늘 외형과 나이를 잊었노라 |
| 浩浩歌聲翠樓上 | 취루 위에 노랫소리 호연하고 |
| 凜凜寒氣瀑流邊 | 폭포 가에 찬 기운이 늠름하다 |
| 冷看世事輸贏局 | 세사의 승패 냉안으로 보나니 |
| 幾嘆人寰聚散煙 | 인환의 취산을 얼마나 탄식했나 |
| 誰復當時豪傑士 | 누가 다시 당대의 호걸인가 |
| 銷胸塊磊共留連 | 함께 머물러 흥중의 시름 없애리라 |

장씨의 만귀정에 쓰다

題張氏晚歸亭

大野茫茫古郡西 고군 서쪽 망망한 큰 들판에
萬條垂柳覆橋低 많은 버들이 낮게 교량을 가렸다
池荷暈臉翻風馥 연못의 붉은 연꽃 향기 바람에 퍼지고
林鳥盡情傍檻啼 숲의 새는 다정히 난간 곁에 운다
探勝吾爲江海客 나는 승경 찾는 강해의 나그네요
煉丹君作葛仙溪 그대는 단약 짓는 갈선⁶¹⁹의 벗일세
翩翩逸氣橫空碧 편편⁶²⁰한 기개가 창공에 비끼니
千里憑眸取次題 천리의 눈길 빌려 차례로 쓰리라

619 갈선(葛仙) : 중국 진(晉)나라 때 갈홍(葛洪)을 말한다. 연단술을 익혀서 신선이 되었다고 하여 갈선이라고 한다. 자는 치천(稚川), 자호는 포박자(抱朴子)이다.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섭렵하고 신선술을 익혔다. 뒤에 나부산(羅浮山)에 들어가 저술과 연단에 전념하였다.

620 편편(翩翩) : 편편(翩翩)과 같은 말로 풍모와 문채(文采)가 아름답고 멋스러운 것이다. 『사기(史記)』 「평원군우경열전론(平原君虞卿列傳論)」에 이르기를, “평원군은 혼탁한 세상에 편편한 좋은 공자이다. [平原君翩翩濁世之佳公子也]” 하였다.

요월정에 오르다

登邀月亭

取路松間坐翠微 솔 사이 길을 취해 산중턱 오르니
堪嘆人世夢還非 꿈같은 인간세상 그릇됨을 탄식하네
閒情聊伴鷗群睡 한적한 정으로 갈매기 떼와 잠들고
壯志擬圖鵬翼飛 장대한 뜻은 봉새의 비상 도모하네
盤上烹鷄除白酒 반상에는 삶은 닭에 백주까지 사오니
亭中留客賦緇衣 정자에선 객을 잡으며 「치의」 읊는다⁶²¹
浩歌邀月一回想 크게 노래 부르며 달을 맞아 회상하니
千載除翁誰共歸 천년에 응을 제외하고 누구와 함께 할까

621 「치의(緇衣)」 읊는다 : 「치의(緇衣)」는 『시경』 「정풍(鄭風)」의 편명으로, 현사(賢士)를 예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장성 산암장에서 벽농 김상진, 우죽 한철수, 방산 손중희, 월주, 성재,
청강 유재관과 함께 이야기하다 절구 2수

長城汕巖庄與碧農 金相晉 韓又竹 哲洙 孫方山 仲熙 月洲誠齋柳晴岡
在寬 共話 二絕

1

鰲山風景近如何 오산의 풍경은 근래 어떠한고
滿幅瓊瑤歲月多 화폭 가득한 시는 세월이 흘렀네
將看凌霄萬里翻 구만리 하늘 비상하는 날개 보리니
紛紛豈羨五侯家 어찌 분분한 오후기를 선망하랴⁶²²

2

回首風塵無奈何 돌아보니 풍진세상 어쩔 수 없어
逢君每被講磨多 그대 만나 항시 절차탁마 하였네
吾邦文苑傳來處 우리나라 문헌이 전래하는 곳에
會得古今幾大家 고금의 몇몇 대가 이해하였는고

622 오후가(五侯家)를 선망하랴 : 부귀한 가문을 말한다. 전한(前漢) 성제(成帝) 때의 왕씨(王氏) 가문의 다섯 후작이다. 성제는 자기 외삼촌들인 왕담(王譚)을 평아후(平阿侯), 왕상(王商)을 성도후(成都侯), 왕립(王立)을 홍양후(紅陽侯), 왕근(王根)을 곡양후(曲陽侯), 왕봉시(王逢時)를 고평후(高平侯)로, 같은 날 함께 봉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였다.

담헌장에서의 수창

澹軒庄唱酬

| | |
|-------|-------------------------------|
| 卜居古洞深 | 옛 고을 깊은 곳에 복거하니 |
| 猿鶴許知音 | 원학이 지음으로 허여하네 |
| 幾灑蒼生淚 | 창생을 위한 눈물 얼마나 흘렸나 |
| 斜陽梁甫吟 | 사양에 「양보음」 ⁶²³ 노래하네 |

623 「양보음(梁甫吟)」: 삼국시대 제갈량(諸葛亮)이 출사(出仕)하기 전 남양(南陽)의 와룡강(臥龍岡)에서 뭍소 농사를 지을 때 불렀던 노래로, 천하에 뜻을 품은 선비가 우울한 심정을 토로한 시이다.

답답함을 풀다

排悶

枕石漱流自在身 돌에 눕고 물로 씻는⁶²⁴ 자재한 몸이
肯爲塵間折腰人 어찌 속세에 허리 꺾는⁶²⁵ 사람 되랴
澗邊樹樹蟬聲冷 시냇가 나무마다 매미 소리 차갑고
簾外峯峯雨過新 말 밖에 봉우리마다 비가 개어 새롭네
竹戶看書時徹夜 죽호에서 독서하며 때때로 밤을 새고
荳田治穢每侵晨 항상 새벽부터 콩밭의 잡초를 다스리네
煙霞滿地無人管 땅에 가득한 연하 주관하는 이 없으니
我欲充腸又養神 내 가슴 가득 채워 정신 또한 기르리라

624 돌에 …… 씻는 : 진(晉)나라 손초(孫楚)는 은거(隱居)하려 하여 벗 왕제(王濟)에게 ‘돌을 베고 물로 양치질하겠다[枕石漱流]’는 말을 실수로 “돌로 양치질하고 물을 베겠다. [枕流漱石]” 하였다. 왕제는 “물을 어떻게 베며 돌로 어떻게 양치질하는가.” 반문하자, 손초는 “물을 베는 것은 귀를 씻으려 해서이고 돌로 양치질하는 것은 이빨을 닦으려고 해서이다.” 하여 둘러대었다. 『世說新語』 「排調」

625 허리 꺾는 : 진(晉)나라 도잠(陶潛)이 팽택현령(彭澤縣令)으로 있을 적에, 군(郡)에서 파견한 독우(督郵)의 시찰을 받게 되었는데, 아전이 도잠에게 의관을 갖추고 독우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 도잠이 탄식하면서 “내가 쌀 다섯 말 때문에 허리를 꺾어 향리의 어린아이에게 굶실거릴 수는 없다. [我不能爲五斗米折腰向鄉里小兒]”라고 하고는, 즉시 수령의 인끈을 풀어 놓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晉書』 卷94 「陶潛列傳」

취가정⁶²⁶에서 느낌이 있어

醉歌亭有感

天生英傑瑞山陽 서석산 남쪽에 하늘이 영결 내었으니
曠感多年上此堂 다년간 옛일 느끼다 이 당에 올랐다
神略超倫掀一世 우뚝 신묘한 책략은 일세를 흔들었고
丹衷保國貫三光 나라 보존한 단충은 삼광⁶²⁷을 뚫었다
點朱青史罵羅織 청사에 붉은 점 찍으며 모함을 꾸짖고⁶²⁸
灑淚荒墳澆酒觴 황분⁶²⁹에 눈물 뿌리며 술잔을 드리네
飲泣泉臺無限恨 천대⁶³⁰의 무한한 한에 눈물을 삼키니
千秋武穆較誰長 천 년 전 악비⁶³¹와 비교해 누가 나올꼬

626 취가정(醉歌亭)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에 있는 조선시대 말기의 정자로 충장공 김덕령(金德齡)이 출생한 곳이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김덕령의 혼을 위로하고 그의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1890년 후손 김만식(金晩植) 등이 세웠다.

627 삼광(三光) : 해와 달과 별.

628 모함 : 원문은 나직(羅織)이다. 비단이나 베를 엮어 짠다는 뜻으로 죄 없는 사람을 잡아 가서 죄를 꾸며 뒤집어씌우는 것을 말한다.

629 황분(荒墳) : 거칠어진 무덤으로 김덕령(金德齡) 장군의 무덤을 말한다.

630 천대(泉臺) : 저승이라는 뜻.

631 악비(岳飛) : 원문은 무목(武穆)이다. 송(宋)나라 때 금(金)나라의 남하(南下)에 대항한 명장으로, 무목(武穆)은 시호이다.

김씨의 송계재에서 느낌이 있어 읊다

金氏松溪齋感吟

年中一度此相遊 해마다 한 번씩 여기에서 노니니
錫類綿綿過幾秋 효를 지키며⁶³² 면면히 몇 해를 지냈나
白鹿千尋名共屹 천길 백록봉과 그 이름 함께 높고
靑江百折澤長流 은택은 백 굽이 청강과 길게 흐른다
衆孫齊力誠充俎 자손들 힘을 합해 정성껏 조두 채우고
行客摩碑每點頭 행객은 비석 만지며 고개를 끄덕인다
懷仰高風悵悵立 고풍을 앙모하며 슬픈 마음으로 서니
遙山未覺夕陽收 먼 산에 석양이 지는 것도 몰랐네

632 효를 지키며 : 원문은 석류(錫類)이다. 『시경』 「대아(大雅) 기취(既醉)」에 이르기를, “효자의 마음 다하지 않으니 길이 너에게 선을 주리로다. [孝子不匱 永錫爾類]” 하였다.

재동서원⁶³³을 참배하다

謁齋洞書院

| | |
|---------|-----------------------------------|
| 眼際茫茫海接天 | 눈앞에 망망한 바다 하늘에 접했는데 |
| 先生筮遯幾過年 | 선생이 은둔한 지 ⁶³⁴ 몇 해가 흘렀나 |
| 齊明多士要禱薦 | 재계한 선비들 정결한 제사 올리려고 |
| 趨走精靈陟降邊 | 정령이 척강 ⁶³⁵ 하는 곳에 분주하구나 |

633 재동서원(齋洞書院) :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에 여산송씨 송간(宋侃)을 주벽으로 송대립(宋大立), 송심(宋諶), 김시습(金時習) 등 11위를 향사하는 사우(祠宇).

634 은둔한 지 : 원문 서둔(筮遯)은 점을 쳐서 「돈괘(遯卦)」를 얻은 것이다. 『이천역전(伊川易傳)』에 이르기를, “돈(遯)은 음(陰)이 자라고 양(陽)이 사라지니, 군자가 은둔할 때이다.” 하였다.

635 척강(陟降) : 『시경』 「주송(周頌) 민여소자(閔予小子)」에 이르기를, “문왕(文王)의 혼령이 뜰에 오르내린다. [念茲皇祖 陟降庭止]” 하였다.

무진음사의 여러 벗들과 불갑사를 유람하다

與武珍吟社諸友遊佛甲寺

| | |
|---------|------------------------------------|
| 透迤石逕半空斜 | 구불구불 산길이 반공에 비꼈으니 |
| 萬壑楓林勝看花 | 만학의 풍림이 꽃구경보다 낫구나 |
| 夢幻三千泡沫界 | 몽환 같고 포말 같은 삼천세계에 |
| 歲過十百麗羅家 | 신라와 고려 천년 세월 흘러갔네 |
| 諸天夜寂生靈籟 | 제천 ⁶³⁶ 의 적적한 밤 맑은 바람 불고 |
| 慧月鍾鳴出唄歌 | 밝은 달 종소리에 범패 노래 들린다 |
| 獨立凌霄門外栢 | 하늘 솟은 문밖의 한 그루 잣나무가 |
| 如嘲俗客往來多 | 빈번히 오가는 속객을 조롱하는 듯 |

636 제천(諸天) : 불교의 삼십삼천(三十三天)이다. 여기서는 절을 뜻함.

부산 안용복⁶³⁷ 장군의 고사에 느낌이 있어

釜山感 安龍福 將軍故事

海線爭端尙未平 해안선 쟁단이 아직 화평치 않으니
 讐倭何不受天刑 원수 왜놈은 어찌 천형을 받지 않는고
 忠爲護國應輝史 나라 지킨 충성은 역사를 빛낼 터
 朝忘榮官反累名 조정에선 관직은 잊고 누명 씌웠네
 島影浮沈疑艇舶 부침하는 섬 그림자 선박인가 의심하고
 潮聲噴薄想精英 조수 소리 세차니 영혼이 생각하네
 汪躋已被文宣贊 왕기⁶³⁸가 이미 공자의 칭찬 받았으니
 高塔如今鎮釜城 높은 탑이 지금도 부산을 지킨다

637 안용복(安龍福) : 조선 숙종 때 사람이다. 동래부(東萊府) 전선(戰船)에 예속된 노군(櫓軍)으로, 왜관에 출입하여 왜어(倭語)에 능숙하였다. 1693년(숙종 19) 여름에 풍랑으로 울릉도에 표류, 백기주(伯耆州)의 왜인들에게 붙잡혀 갔다가 막부의 명에 의하여 대마도를 통해 동래부로 돌아왔다. 이때 동래부사가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월경(越境)한 일로 2년의 형벌을 내리자, 을해년(1695) 여름에 안용복은 울분을 참을 수 없어 떠돌이 중 5명, 사공(沙工) 4인과 배를 타고 다시 울릉도에 이르렀다가 8월에 양양에 도착하였다. 방백(方伯)이 이 사실을 장계로 보고하고 서물로 압송하였는데, 조정의 의논이 월경하여 이웃 나라와 쟁단을 일으켰다 하여 참형에 처하려 하였다.

638 왕기(汪錡) :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동자(童子)이다. 『예기』 「단궁하(檀弓下)」에 이르기를, “노나라와 제(齊)나라가 낭(郞)에서 싸울 적에 공숙우인(公叔禺人)이 이웃 마을의 동자인 왕기와 함께 싸움터에서 죽었다. 노나라 사람들이 동자 왕기를 상례(殯禮, 미성년자의 상례)로 장례하지 않고자 해서 중니(仲尼)에게 물었는데, 중니께서 말씀하기를 ‘능히 창과 방패를 잡고서 사직(社稷)을 보호하였으니, 비록 상례로 장례하지 않더라도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戰于郞 公叔禺人 與其隣重(童)汪錡 往皆死焉 魯人欲勿殯重汪錡 問於仲尼 仲尼曰 能執干戈 以衛社稷 雖欲勿殯也 不亦可乎]”고 한다.

장산⁶³⁹ 야화

章山夜話

| | |
|---------|-----------------------------------|
| 隔年留約肯相尋 | 지난해 남긴 약속 즐겨 찾으니 |
| 交道汪汪可證深 | 교도의 깊음을 증명할 수 있다네 |
| 酒熟黃花千朶下 | 술 익으니 국화잎 무수히 지고 |
| 雲收皓月一天心 | 구름 걷혀 밝은 달은 하늘 가운데 |
| 臯比在昔仰山斗 | 강학하던 ⁶⁴⁰ 옛날 태산북두로 우러렸고 |
| 澗藻如今趨士林 | 제향하는 ⁶⁴¹ 지금 사람들 분주하네 |
| 我思悠悠人不見 | 나의 그리움 유장해도 볼 수 없으니 |
| 章山徹夜倚欄吟 | 장산의 밤 지새며 난간 기대 읊는다 |

639 장산(章山) : 전남 담양군 장산리인 듯하다. 이곳에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의 사당이 있다.

640 강학하던[臯比] : 고비는 호랑이 가족이다. 송(宋)나라의 장재(張載)가 항상 호랑이 가족을 깔고 앉아서 『주역』을 강론했는데, 후세에 와서는 강학(講學)하는 자리를 고비라 이르게 되었다.

641 제향하는 : 원문의 간조(澗藻)는 시냇가 마름으로 제수(祭需)를 뜻한다. 『시경』 「채빈(采蘋)」에 “이에 마름 뜯기를 남쪽 산골 물가에서 하도다. 이에 마름을 뜯기를 저 흘러가는 도랑에서 하도다. [于以采蘋 南澗之濱 于以采藻 于彼行潦]” 하였다.

광부에서 모여 얘기하다

光府會話

| | |
|---------|----------------------|
| 駸駸歲序屬寒天 | 흐르는 세월에 차가운 하늘 맞아 |
| 孤守書燈寂寞邊 | 적막한 곳 서등을 외롭게 지킨다 |
| 萬里塞垣鳴柝苦 | 만리 변방은 격탁 소리 괴롭고 |
| 誰歌砧杵竟宵連 | 어디서 다듬이 노래 밤새 이어진다 |
| 呼童推了題詩硯 | 동자 불러 시 쓰던 벼루를 물리치고 |
| 曳杖聊隨煖酒煙 | 지팡이 끌고 술 데우는 연기 따라간다 |
| 一代風流傾郡省 | 한 시대의 풍류가 군성을 경도하니 |
| 何由謝得許忘年 | 망년지교의 허락을 어떻게 사례할까 |

김고당⁶⁴² 선생을 애도하다

輓金顧堂先生

生平欽仰顧堂子 평생 고당 선생 흠앙했나니
德氣藹藹藝超倫 덕의 기운 애애하고 문예는 절륜했네
維嶽降神生巨人 산악의 신령 내려 거인이 탄생하니⁶⁴³
先生生長自有村 선생이 성장하던 마을 여전하네
遠自先正文敬後 멀리 선정 문경공⁶⁴⁴ 후손으로
家範燦然百世存 가범은 찬연하여 백세를 보존했네
武山當年絳帳開 무산⁶⁴⁵에서 당년에 강장⁶⁴⁶을 여니
遠近叩篋可填門 원근의 독서인⁶⁴⁷들 문에 가득했네
其間曉顧數三子 그 중 효당⁶⁴⁸과 고당 몇몇 선비들이

642 김고당(金顧堂) : 김규태(金奎泰, 1902~1966)로 고당은 그의 호이다. 본관 서흥(瑞興). 전남 구례 출생. 정기(鄭琦)의 문인. 화이론(華夷論)에 입각한 그의 세계관은 저술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서학(西學) 등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성리학적 정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가례(家禮)에 밝았다. 문집에는 『고당집』이 있다.

643 산악이 …… 탄생하니 : 『시경』 「대아(大雅) 송고(崧高)」에 이르기를, “저 높은 산악이 높이 솟아 하늘에 닿았도다. 산악이 신령을 내려 보후(甫侯)와 신후(申侯)를 낳았도다. [崧高維嶽 駿極于天 維嶽降神 生甫及申]” 하였다.

644 선정 문경공(文敬公) : 선정은 선대의 유현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이다. 김종직의 문하이며 특히 『소학』에 심취하여 ‘소학동자’라 자칭하였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평안도 희천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조광조(趙光祖)에게 학문을 전수하였다.

645 무산(武山) : 고당의 스승인 율계(栗溪) 정기(鄭琦, 1878~1950)가 경남 함천(陝川) 무산(武山)에 정사(精舍)를 짓고 학문에 몰두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646 강장(絳帳) : 붉은 비단으로 만든 휘장으로 서당(書堂)이나 스승을 지칭한다. 후한(後漢)의 마용(馬融)이 붉은 비단으로 휘장을 치고 생도들을 가르쳤다.

647 독서하는[叩篋] : 『예기』 「학기(學記)」에 이르기를 “입학하여 북을 쳐서 올리고 책을 꺼내는 것은 그 학업을 공손히 받기 위함이다. [入學鼓篋 孫其業也]”라고 하였다.

648 효당(曉堂) : 근대 호남을 대표하는 유학자 김문욱(金文錡, 1901~1960)으로 구한말 만해 한용운 등 당대 대표적 지식들과 교류하였다. 정인보 선생에게 “동방에 효당의 학문을 넘어설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극찬을 듣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단발령 거부와 독립

| | |
|---------|-----------------------------------|
| 日月刮剽相輕軒 | 날로 달로 절차탁마하여 고하를 다투었네 |
| 卜地盡爲鹿門計 | 땅을 택해 녹문의 계획 ⁶⁴⁹ 세우니 |
| 千里風雪一廻跟 | 천리길에 풍설 맞으며 발길 돌렸네 |
| 德川亭高方丈下 | 방장산 아래 덕천정 ⁶⁵⁰ 이 높더니 |
| 數家通井無籬垣 | 몇 가구 우물 함께 쓰며 담이 없었네 |
| 人世陰晴那可卜 | 인간세상 화복을 어떻게 예측하라 |
| 一室講誦失源源 | 서실의 끊임없는 ⁶⁵¹ 강송을 잃었네 |
| 先生從此家勢落 | 선생이 이때부터 가세가 쇠락하여 |
| 或入秋山拾橡栗 | 가을 산에 상울을 줍기도 ⁶⁵² 하였고 |
| 或携諸子治火田 | 혹은 자제와 화전 경작도 하였으니 |
| 天使先生成以玉 | 하늘이 선생을 옥으로 이룬 것이라 ⁶⁵³ |
| 世路稍平萬事集 | 세상이 조금 화평해 만사가 안정되자 |
| 信從如雲自南北 | 신중하는 이들 남북에서 구름 같았네 |
| 各隨其材教有方 | 각각 재주 따라 교육의 방도 두시니 |

운동으로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 649 녹문(鹿門)의 계획 : 세파(世波)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 방덕공(龐德公)이 형주자사(荊州刺史) 유표(劉表)의 간곡한 요청도 뿌리치고서, 처자를 데리고 녹문산(鹿門山)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았다. 『後漢書』卷83「逸民列傳 龐公傳」
- 650 덕천정(德川亭) : 고당의 스승인 울계(栗溪) 정기(鄭琦, 1878~1950)가 1927년 구례군 토지면으로 이주하여 강학당인 오원재(五爰齋)와 덕천정(德川亭)을 짓고 후진들을 양성하였다.
- 651 끊임없이[源源] : 순(舜)임금이 천자가 된 뒤에 이복형(異腹兄)인 상(象)을 비(庖) 땅에 봉해 주고, “늘 보고 싶어 자주 찾아오게 하였다. [欲常常而見之 故源源而來]” 하였다. 『孟子』「萬章上」
- 652 상울(橡栗)을 줍기도 : 두보(杜甫)의 시 「건원중우거동곡현작가(乾元中寓居同谷縣作歌)」에 이르기를, “해마다 잔나비 따라 상를 줍노라, 추운 날 산골짜기 안은 해가 저물었네. [歲拾橡栗隨獵公 天寒日暮山谷裡]” 하였다.
- 653 옥을 이루게 : 송나라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이르기를 “빈천과 우척은 너를 옥처럼 다듬어 완성시키려는 것이다. [貧賤憂戚 庸玉汝於成也]” 하였다.

人嘆循循與雅飭 순순하고⁶⁵⁴ 바른 가르침 감탄하였네
 先生內剛外和順 선생은 내면은 강하고 외면은 화순하여
 精神雪月介如石 정신은 설월이요 지조는 바위 같았네⁶⁵⁵
 縱橫筆法凝雲煙 자유자재한 필법은 운연이 자욱하고
 典雅文章淡菽粟 전아한 문장은 속속처럼 담박하네
 當時曉翁相并峙 당시 효당⁶⁵⁶과 함께 우뚝 섰으니
 朱呂恰似道義密 주희와 여조겸⁶⁵⁷처럼 도의가 친밀했네
 南泛瀛海探奇勝 남쪽 큰 바다 건너 명승을 탐색하고
 東遊羅京吊古跡 동쪽 경주 유람하며 고적을 조문했네
 曉翁一朝遽不起 효당 옹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자
 先生痛於喪骨肉 선생은 골육을 잃은 듯 비통하셨네
 後生蹢躅失所之 후생은 길을 잃고⁶⁵⁸ 갈 곳 모르는데

-
- 654 순순(循循)하고 : 안연(顔淵)이 이르기를, “선생님께서는 차근차근 사람을 잘 이끌어 주시면서, 학문으로 나의 지식을 넓혀 주시고 예법으로써 나의 행동을 단속하게 해 주셨다.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하였다. 『論語』 「子罕」
- 655 바위 같았네 : 『주역』 「계사전하(繫辭傳下)」에 이르기를, “군자는 기미를 보고 떠나면서 하루가 다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예괘(豫卦)」 육이(六二)에 ‘돌처럼 견고해서 하루가 다하기를 기다리지 않으니, 정하고 길하다.’라고 하였다. 절개가 돌과 같으니 어찌 하루가 다하기를 기다리겠는가. 이를 통해서 군자가 결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君子見幾而作 不俟終日 易曰 介于石 不終日 貞吉 介如石焉 寧用終日 斷可知矣]” 하였다.
- 656 효당(曉堂) : 김문옥(金文錡, 1901~1960)으로 구한말 만해 한용운 등 당대 대표적 지식들과 교류했고, 근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대 문장가였던 정인보 선생에게 “동방에 효당의 학문을 넘어설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극찬을 듣기도 했다. 또 일제강점기 단발령 거부와 독립운동으로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 657 여조겸(呂祖謙) : 송(宋)나라 때의 학자로 자는 백공(伯恭)이다. 임지기(林之奇), 왕응신(汪應辰) 등에게 수학하였으며, 동생 여조겸(呂祖儉)과 함께 명초산(明招山)에 이택서원(麗澤書院)을 창건하고 강학하였다. 주자, 장식(張栻)과 절친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동남삼현(東南三賢)’이라 불렀다.
- 658 길을 잃고 : 원문 우우(蹢躅)는 홀로 외로이 가는 모양이다. 『맹자』 「진심하(盡心下)」에 위선자인 향원(鄉原)이 견자(獫狁)에 대하여 이르기를, “행실을 어찌하여 저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기만 하면 그만이다. [行何爲蹢躅涼涼 生斯世也 爲斯世也 善斯可矣]” 하였다.

| | |
|---------|------------------------------------|
| 幸有先生康在世 | 다행히 선생께서 세상에 건강하시어 |
| 昏衢煌煌一炬火 | 어두운 거리에서 횃불처럼 빛났고 |
| 頽波屹屹支柱立 | 도도한 물결에 지주처럼 우뚝 섰네 |
| 吾輩默禱享期頤 | 우리들은 묵묵히 장수 ⁶⁵⁹ 를 기도했건만 |
| 詎意星落棄後生 | 별처럼 저서 후생 버릴 줄 어찌 알았으랴 |
| 吾黨今日日益孤 | 오당은 금일 날로 더욱 고립되니 |
| 詞垣誰主牛耳盟 | 사원에서 누가 우이의 맹약 주관할까 ⁶⁶⁰ |
| 愚昧十載承誨訓 | 우매한 나는 십년 동안 훈도 받들어 |
| 銘于胸膈敢忘情 | 가슴에 새겼으니 감히 정을 잊을까 |
| 從古寓慕無定物 | 예부터 사모의 마음 일정함이 없으니 |
| 何啻于墻與于羹 | 어찌 갱장 ⁶⁶¹ 에만 마음을 기탁하랴 |
| 昕夕抱讀先生書 | 아침저녁으로 선생의 서책 안고 읽으니 |
| 庶導迷津鑑此誠 | 나루 ⁶⁶² 로 인도하사 이 정성 살피소서 |

659 장수 : 원문은 기이(期頤). 『예기』 「곡례상(曲禮上)」에 이르기를 “백년을 기라고 하니 봉양한다. [百年日期 頤]” 하였다.

660 우이(牛耳)의 맹약 주관할까 : 회맹할 때 소의 귀를 잡고 피를 받아 삼혈(歃血)하는 등 맹주(盟主)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맹주를 문단을 좌우하는 종장(宗匠)에 비유한 것이다.

661 갱장(羹墻) : 요(堯)임금이 죽은 뒤에 순(舜)이 3년 동안 사모하는 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밥을 먹을 때에는 요임금의 얼굴이 국그릇 속[羹中]에 비치는 듯하고, 앉아 있을 때는 담장[墻]에 요임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하였다. 『後漢書』卷63 「李杜列傳」

662 나루 : 원문은 미진(迷津)으로 길을 잃고 어느 나루를 건너야 할지 몰라서 헤맨다는 말이다. 내가 가야 할 나루로 인도해 달라는 말이다.

금계사⁶⁶³

金溪祠

碩人邁軸忘春冬 석인이 계절을 잊고 소요하시던 곳⁶⁶⁴
嗟晚余生未及從 나는 늦게 태어나 종유하지 못했네
今始溯流彷徨立 이제 흐름 거슬러 방황하며 섰나니
精神應是月千峯 천봉에 뜬 달이 그분의 정신이리라

663 금계사(金溪祠) : 장흥군 부산면 유양리에 위치해 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인 이문화(李文和, 1358~1414)가 금계사에 배향되었다.

664 소요하시던 곳[邁軸] : 『시경』 「고반(考槃)」에 이르기를, “고반이 시냇가에 있으니, 어진 은자의 너그러운 마음이네. … 고반이 언덕에 있으니, 어진 은자의 크나큰 마음이네. … 고반이 높다란 평지에 있으니 어진 은자의 여유로운 마음 한가롭네.[考槃在澗 碩人之寬 … 考槃宰阿 碩人之邁 … 考槃在陸 碩人之軸]” 하였다.

광산부 벗들의 초대에 가다

赴光府諸友之招

折簡相招眼欲青 짧은 편지 초대에 눈이 맑아지니⁶⁶⁵
經來百里短長亭 백리길 단정과 장정을⁶⁶⁶ 지나왔네
萬端懷緒逢君訴 만 가지 회포를 그대 만나 호소하니
一座巡杯爲我停 좌중의 순배가 나를 위해 멈추네
既乏薰陶時立雪 입설의 훈도⁶⁶⁷도 받들지 못했고
又違詩禮鯉過庭 뜰을 지난 공리처림⁶⁶⁸ 시례도 어긋났네
願言桂棹順風去 원컨대 계수나무 노⁶⁶⁹로 바람을 타고서
直到茫茫洙泗汀 곧바로 망망한 수사⁶⁷⁰의 물가 이르고자

665 눈이 맑아지니 : 진(晉)나라 완적(阮籍)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청안(靑眼)을 뜨고, 미워하는 부류인 예속(禮俗)을 따지는 선비를 만나면 백안(白眼)으로 대하였다. 『晉書 卷 49 阮籍傳』

666 단정(短亭)과 장정(長亭)을 : 행인들의 휴게소로서, 5리(里)마다 단정을 설치하고 10리마다 장정을 설치하였다.

667 입설의 훈도 : 스승의 가르침을 뜻한다. 송나라 유작(游酢)과 양시(楊時)가 처음 정이(程頤)를 찾아갔을 때 마침 정이가 눈을 감고 앉아 있으므로 두 사람은 인기척을 내지 않고 서서 기다렸는데, 정이가 눈을 떴을 때는 문밖에 내린 눈이 한 자가량이나 쌓여 있었다고 한다. 『宋史 卷428 楊時列傳』

668 뜰을 지난 공리(孔鯉)처림 : 『논어』 「계씨(季氏)」에 이르기를, “공자가 혼자 서 있는데 아들 이(鯉)가 뜰을 지나자 공자가 ‘시를 읽었느냐?’ 하니 이가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하므로, 공자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했다. [子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未也 不學詩 無以言]” 하였다.

669 계수나무 노(桂棹) : 소동파(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에 이르기를, “계수나무 노와 목란 상앗대로, 맑은 물결을 치며 달빛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른다. 아득한 나의 회포여, 하늘 저 끝에 있는 미인을 그린다. [桂棹兮蘭槳 擊空明兮泝流光 渺漭兮余懷 望美人兮天一方]” 하였다.

670 수사(洙泗) :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의 두 강이다. 공자(孔子)가 이 지역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학문을 강론했기 때문에 후세에 공맹(孔孟)의 학문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뜰에 고매가 있는데 나도 또한 임포⁶⁷¹의 흥취가 있어 아끼고 완상함을
 그치지 않았다. 올해 봄이 온 후로 눈의 깊이가 한 자나 되었는데 한 무리
 괴조가 그 위에 모여서 수일 동안 쪼았다. 때에 미쳤는데도 꽃 한 송이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시를 지었다 절구 2수 무신년(1968)

庭有古梅余亦有林逋之趣愛賞不已今歲入春來雪深尺矣一群怪鳥集
 于其上啄之數日及時難見一花故爲賦 二絕 戊申

1

| | |
|-------|----------------|
| 庭梅偃蹇立 | 뜰의 매화 높게 섰으니 |
| 雪裏見新春 | 눈 속에新春을 보겠네 |
| 冰態玉爲骨 | 얼음 자태에 옥의 근골이니 |
| 看看爽我神 | 보고 보매 정신이 상쾌하네 |

2

| | |
|-------|----------------|
| 怪禽啄蓓蕾 | 괴이한 새가 꽃봉오리 쪼니 |
| 誰報一枝春 | 누가 가지의 봄을 알려줄까 |
| 月到空梅影 | 달이 뜨니 매화 그림자뿐 |
| 黯黯傷我神 | 암담한 내 마음 슬프기만 |

671 임포(林逋) : 북송의 은사(隱士)이다.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초막을 짓고는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숨어 살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일컬었다.

성재를 추억하다

憶誠齋

| | |
|---------|-----------------------------------|
| 二月春天雁尙飛 | 2월 봄 하늘 기러기 아직 나는데 |
| 故人何事信音稀 | 친구는 어인 일로 소식이 드문고 |
| 來憑枕上三宵夢 | 침상의 사흘 밤 꿈에 기탁해 오니 |
| 應嘆林間一布衣 | 숲 사이 포의 하나 탄식해서리라 |
| 爲迓詩冊掃塵硯 | 시 벗을 맞아 벼루의 먼지 털고 |
| 輒呼酒將解愁圍 | 술 장군 불러 시름의 포위 푼다 |
| 頑雲漠漠江湖黑 | 질은 구름 깔려 강호가 어두우니 |
| 安得指南迷渡歸 | 어떻게 지남 ⁶⁷² 얻어 나루로 돌아갈까 |

672 지남(指南) : 나침반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을 뜻한다. 성재(誠齋)를 가리킨다.

무진에서의 모임에서 읊다

武珍會吟

我生何處不蕭涼 나의 삶 어디에서든 소쇄하지 않으랴
宇宙沈沈夜復長 천하가 침침하여 밤은 더욱 길기만
呼僕回車泥澤路 하인 불러 세속의 늪지에서 수레 돌려
治裝潛跡水雲鄉 행장 꾸려 수운향⁶⁷³에 자취 감췄네
燈前縱作憂時淚 등전에서 시국 근심하는 눈물 흘리나
胸裏慙無濟世方 가슴 속은 제세의 방도 없어 부끄럽네
依托高軒差可慰 고현⁶⁷⁴에 의탁하여 조금 위로가 되니
一場翰墨氣蒼蒼 한바탕 한묵의 기운이 창창하구나

673 수운향(水雲鄉): 물이 흐르고 구름이 떠도는 깨끗하고 맑은 곳, 즉 은자가 노니는 곳이다.

674 고현(高軒): 상대방을 지칭한다.

제 3 권

시(詩)

정곡정을 지나다가 느낌이 있어

過鼎谷亭有感

誰知抑鬱子孫情 누가 억울한 자손의 정을 알라
百尺原頭一閣成 백 척 언덕에 제각을 이루었다
流澤元來終五世 유택은 원래 오세에 끝나거늘⁶⁷⁵
何須恩怨報分明 어찌 꼭 은원을 분명히 갚으랴

675 오세에 끝나거늘 : 맹자 이르길 “군자의 유택도 오세면 끊기고, 소인의 유택도 오세면 끊긴다. [君子之澤五世而斬 小人之澤五世而斬]”라고 하였다. 『孟子』 「離婁下」

강진을 지나다가 술재에게 주다 절구 2수

過康津贈述齋 二絕

1

| | |
|-------|---------------------------------|
| 消息南來好 | 남녘에서 온 소식 좋기도 하니 |
| 民和政亦平 | 백성과 정사(政事)가 모두 화평하다네 |
| 聖賢求士急 | 성현이 선비를 급히 구하느라 |
| 吐握不遑寧 | 토포악발 ⁶⁷⁶ 로 편안할 틈 없구나 |

2

| | |
|-------|-------------------------------|
| 相握幾經歲 | 서로 만난 지 몇 해가 흘렀나 |
| 秋風催客程 | 추풍은 길손의 여정 재촉한다 |
| 山禽如解意 | 산새도 나의 뜻을 아는지 |
| 喚友故嚶嚶 | 벗을 부르며 ⁶⁷⁷ 짐짓 울어댄다 |

676 토포악발(吐哺握髮) : ‘주공(周公)이 천하의 현사(賢士)들을 만나기에 급급하여 머리를 한 번 감는 동안에 세 번이나 젖은 머리를 움켜쥐고 나가고 밥 한 끼를 먹는 동안에 입 안의 음식을 세 번이나 뱉어냈다. [一沐三握髮 一飯三吐哺]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677 벗을 부르며 : 『시경』 「소아(小雅) 별목(伐木)」에 “나무 베기를 정정히 하거늘 새가 울기를 앵앵히 하도다. 깊은 골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 앉네. 꾀꼬리의 울음이며 그 벗을 찾는 소리로다. [伐木丁丁 鳥鳴嚶嚶 出自幽谷 遷于喬木 嚶其鳴矣 求其友聲]”라고 하였다.

간벽천

簡碧泉

| | |
|-------|-----------------|
| 眼看一世上 | 눈으로 한세상 바라보니 |
| 君志一何異 | 그대의 뜻 얼마나 다른지 |
| 文字棄如土 | 문자를 흙처럼 버리고 |
| 殷懃愛不已 | 은근한 사랑 끝이 없네 |
| 一朝秋興發 | 하루아침에 추흥이 일어 |
| 訪君十舍外 | 먼 길에 그대를 찾아 |
| 貸車海山陽 | 해양에서 수레를 빌려 |
| 遍覽橘洞里 | 굴동을 두루 유람하였다 |
| 茶山經綸士 | 다산은 경륜을 지닌 선비 |
| 謫居二十載 | 적거한 지 20년 |
| 草木猶留香 | 초목의 향기 아직 남았고 |
| 禽鳥安所止 | 새들도 머물 곳에 안주했다 |
| 投我黃橘果 | 나에게 노란 귤 선물하고 |
| 相送舉霞袂 | 신선의 소매 들어 송별하나니 |
| 願言無相遠 | 원컨대 소원(疎遠)하지 말고 |
| 玉音遙相寄 | 멀리서나마 옥음을 부치기를 |

춘곡 이강중에게 드리다

呈李春谷 康仲

| | |
|-------|------------------------------|
| 帶方稱多士 | 남원은 선비가 많기로 |
| 湖南先屈指 | 호남에서 가장 으뜸 |
| 藹藹春谷子 | 온화하신 춘곡이여 |
| 璿源亦拔萃 | 선원 ⁶⁷⁸ 에서도 빼어난 선비 |
| 能好古體貌 | 옛날의 체모를 좋아하여 |
| 峨冠且博帶 | 높은 관과 넓은 띠로다 |
| 詩酒遣逸興 | 시주로 일흥을 보내고 |
| 棋琴消世慮 | 금기(琴棋)로 세상 근심 없앤다 |
| 達人有何拘 | 달인이 무엇에 구속되랴 |
| 暇日游於藝 | 쉬는 날엔 문예(文藝)에 노닌다 |
| 縱橫揮灑處 | 종횡으로 붓을 휘두르면 |
| 渺然起煙霧 | 멀리서 연무가 이는 듯 |
| 宇內幾多人 | 세상에 몇 사람인가 |
| 猥被過獎誦 | 나를 격려하고 높이는 이가 |
| 投我八幅屏 | 8폭 병풍 선물해 주니 |
| 蔀屋一何侈 | 초가집이 참으로 사치스럽네 |
| 詞意使人醒 | 글 뜻은 사람을 일깨우고 |
| 字劃使人起 | 자획은 사람을 흥기시킨다 |
| 努力加餐食 | 힘써 식사를 더하시어 |
| 惠我有終始 | 시종 은혜를 베푸시길 |

678 선원(璿源) : 선(璿)은 왕실의 존귀함을 표시한 것으로, 선원은 이씨 왕조의 세계(世系)를 말한다.

소당 김보전에게 주다

贈金韶堂普典

溫恭得保一心眞 온화와 공손으로 참마음 보존하고
任彼窮通是達人 저 궁통에 맡기니 정말 달인이라
誰識恢弘渡江志 누가 드넓은 도강의 뜻⁶⁷⁹을 알라
竟爲慷慨抗倭身 끝내 비분강개하며 왜적에 항거했네
韶光藹藹能生物 춘광이 애애하여 만물을 생성하고
堂額煌煌每念仁 당액은 황황하여 늘 인을 생각하나니
尼父聞之忘肉味 니보도 듣고 고기 맛을 잊었다 하니⁶⁸⁰
君應從此可頤神 그대도 이제부턴 정신을 함양하리

679 도강의 뜻 : 진(晉)나라 때 조적(祖逖)이 예주자사(豫州刺史)가 되어 부임하던 도중에 강을 건너다가 중류(中流)에서 노를 두드리며 맹세하기를, “조적이 중원(中原)을 밝히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 강물을 다시 건널진댄, 이 큰 강이 지켜보리라.” 하여, 천하를 맑게 다스리고픈 의지를 토로한 데서 온 말이다.

680 니보(尼父)도 …… 잊었다 하니 : 니보는 공자의 자다. 『논어』 「술이(述而)」에 “공자께서 제나라에 계시면서 (순임금의 음악인) 소악을 들으시며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하였다. [子在齊聞韶 三月不知肉味]”라고 하였다.

간송 이홍채 청장에 쓰다

題澗松 李洪彩 清莊

| | |
|---------|------------------------------------|
| 汭陽江水照人清 | 예양강 ⁶⁸¹ 이 사람을 맑게 비추는 곳 |
| 清德君家最有名 | 그대의 가문 청덕으로 명망 높으니 |
| 慷慨心從書史得 | 강개한 마음 서사(書史)로부터 얻었고 |
| 歡娛筵向酒樽成 | 기쁨의 잔치 술동이로 이루었다 |
| 澗流汨瀟鳴窓活 | 시냇물은 창을 울리며 팔팔 흐르고 |
| 松操堅貞耐雪青 | 굳센 솔의 지조 눈 속에서 청청하다 |
| 不惜華扁高妙術 | 화타와 편작의 묘한 의술 아끼지 말고 |
| 日施刀圭濟蒼生 | 날마다 도규 ⁶⁸² 베풀어 창생을 구제하소 |

681 예양강 : 전남 장흥군에 있는 강으로, 현재는 탐진강이라고 한다.

682 도규(刀圭) : 선가에서 약을 담은 작은 용기를 말한다. 전하여 선약, 또는 의술을 의미한다.

남계 임종덕에게 수창하다

酬南溪 林鐘德

| | |
|---------|---------------------------------|
| 南溪平日氣嶙峋 | 남계의 평소 기개 높고 높으니 |
| 清潔持心孰等倫 | 청결한 마음가짐 누가 대등하랴 |
| 曳杖窮探雲壑際 | 지팡이 끌어 운학의 끝을 찾고 |
| 傾樽要沈世間塵 | 술잔 기울여 세간의 티끌 씻는다 |
| 爲邦策裏方知量 | 나라 위한 계책에서 도량을 알겠고 |
| 觀德亭中擬學仁 | 관덕정 ⁶⁸³ 가운데선 인덕을 배운다 |
| 昔歲同鄉成契闊 | 예전 동향으로 멀리 떨어졌다가 |
| 如今幸得接芳隣 | 오늘 다행히 좋은 이웃이 되었네 |

683 관덕정(觀德亭) : 활 숨씨를 겨루는 정자이다. 관덕(觀德)은 『예기』 「사의(射義)」에 “활 쏘는 사람은 진퇴와 주선이 반드시 예(禮)에 맞게 해야 한다. 안으로 뜻이 바르고 밖으로 몸가짐이 곧은 뒤에야 활을 잡는 것이 정확하고 견고하다. 활을 잡는 것이 정확하고 견고한 뒤에야 적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활쏘기를 통해 덕행을 볼 수 있는 것이다. [射者 進退周旋必中禮 內志正外體直 然後持弓矢審固 持弓矢審固 然後可以言中 此可以觀德行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서재에서 느낌이 있어 읊다 기미년(1979)

齋居感吟

己未

| | |
|---------|----------------------|
| 山水中間結一茅 | 산수 중간에 모옥 하나 엮어서 |
| 漁兄樵弟廣論交 | 어부와 초부 형제 삼아 교유를 맺는다 |
| 梅花殘雪三更月 | 삼경의 달빛에 매화는 잔설에 피었고 |
| 楊柳微風十里郊 | 십리 교외에 버들은 미풍을 받는다 |
| 書劍志蹉來世笑 | 서검의 뜻 어긋나 후세가 웃겠고 |
| 鋤耕計拙被妻嘲 | 농사의 꾀도 졸렬해 처가 조롱한다 |
| 憂邦深夜空垂淚 | 나라 근심에 심야에도 괜한 눈물 |
| 渾似將焚燕雀巢 | 장차 연작의 둥지가 불에 타겠네 |

화강 주상섭에게 주다

贈朱和岡 相變

| | |
|---------|---------------------|
| 清溪昔日住吾東 | 청계가 옛날 나의 동쪽에 거주할 제 |
| 始識和岡襲遺風 | 비로소 화강이 유풍 이음을 알았다 |
| 故土展開傾力裏 | 힘을 기울여 고토를 개척하였고 |
| 英才教育苦心中 | 고심으로 영재를 교육하였다 |
| 言期忠信爲模範 | 말은 충신을 기약해 모범이 되고 |
| 行得柔強是傑雄 | 행실은 강유를 겸한 호걸이라 |
| 顧我平生難克己 | 평생을 돌아보면 극기가 어려웠나니 |
| 非君無黨有誰同 | 그대 아니면 누구와 벗을 할까 |

서석산에 올라
登瑞石山

| | |
|---------|---------------------|
| 散策東風上石臯 | 동풍에 산책하며 바위언덕 오르니 |
| 茫茫眼界發英豪 | 망망한 안계에 호기가 솟는다 |
| 襟懷可吸南溟闊 | 흉금은 넓은 남명을 호흡하리니 |
| 文望誰齊北斗高 | 문망은 누가 높은 북두와 견주랴 |
| 戲答禽鳴閑折柳 | 새소리 화답하며 한가히 버들 꺾고 |
| 行隨春色數傾醪 | 봄빛 따라 걸으며 자주 술잔을 든다 |
| 斜陽欲寫情駘蕩 | 석양에 넘치는 정을 쓰려고 |
| 揮得囊中禿盡毫 | 주머니 속 무딘 붓을 휘두른다 |

송강 김문옥을 축수하다

壽松岡 金文玉

| | |
|---------|-----------------------|
| 梅柳爭春二月天 | 매화 버들이 봄을 다투는 2월의 하늘 |
| 吹笙鼓瑟日如年 | 생황 불고 비파 타니 하루가 한해인 듯 |
| 賀詩嘉客墳門外 | 축시 지닌 손님들 문밖에 가득하고 |
| 稱翠斑衣繞膝前 | 술잔 든 자녀들은 부모를 감쌌구나 |
| 畫帖書架求素志 | 화첩과 서책으로 평소의 뜻 추구하고 |
| 茶鑪藥餌保丹田 | 차술과 약초로 단전을 보존한다네 |
| 暇從當世風流士 | 틈이 나면 당세 풍류의 선비 따르니 |
| 誰道君非地上仙 | 누가 그대를 지상의 신선 아니라 하리요 |

여민 송석의의 회갑연을 축하하다

賀宋餘民 爽儀 回甲宴

儀標超逸氣崢嶸 초연한 의표에 드높은 기개
鏡裡華顏似渥明 명경 속의 화안이 붉게 물들었네
玉樹增妍新雨日 옥수⁶⁸⁴는 비를 맞아 더욱 아름답고
靑氈獨保古家聲 청전⁶⁸⁵은 홀로 고가의 명성 지켰다
口無今世雌黃語 세상의 시비 비판하는 말이 없으니
人道卅年教育名 사람들은 삼십 년 교육의 명성 말한다
花發南風時正好 남풍에 꽃 필 때가 정히 좋으니
壽觴爭獻奏箏笙 다투어 헌수하며 생황을 연주한다

684 옥수(玉樹) : 우수한 남의 집 자제를 비유하는 말. 진(晉)나라 때 사안(謝安)이 일찍이 자질(子姪)들에게 “자제가 인사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사람들은 자제들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노고? [子弟亦何豫人事 而正欲使其佳]”라고 묻자, 그의 조카인 사현(謝玄)이 “비유하건대, 지란과 옥수가 자기 집 뜰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譬如芝蘭玉樹 欲使其生於階庭耳]”라고 하였다. 『晉書』 卷79 「謝玄列傳」

685 청전(靑氈) : 선대(先代)로부터 전해진 귀한 유물을 가리킨다. 진(晉)나라 왕헌지(王獻之)가 누워 있는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모조리 훔쳐 가려 할 적에, 그가 “도둑아, 푸른 모피는 우리 집안의 유물이니 그것만은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儉兒 靑氈我家舊物 可特置之]”라고 하자, 도둑이 도망쳤다. 『晉書』 卷80 「王羲之傳 王獻之」

유달산을 바라보며 학산 김일남과 금봉 박행보와 함께 갔다
望儒達山與鶴山 金日南 金峰 朴幸甫 偕之

| | |
|-------|-------------|
| 茫茫碧海上 | 망망한 벽해 위에 |
| 擎出玉芙蓉 | 옥부용이 솟아나서 |
| 無量經千劫 | 무량한 세월 지나도 |
| 猶存太古容 | 태고의 모습 보존했다 |

목포에서 홍도에 도착하다

自木浦至紅島

| | |
|-------|-----------------|
| 初似過溪谷 | 처음엔 계곡을 지난 듯 |
| 少焉眼界通 | 조금 안계가 통하였다 |
| 迷茫無際岸 | 망망한 바다 끝이 없으니 |
| 齊魯暮烟中 | 저녁안개 속에 제로가 보인다 |

홍도를 유람하다 절구 2수

遊紅島 二絶

1

| | |
|---------|---------------------|
| 千奇百怪自天然 | 천백의 기괴함이 천연으로 이루어져 |
| 泡沫凝精億萬年 | 포말의 정기가 억만 년을 영기었다 |
| 造化翁憐山赤立 | 조화옹이 붉은 산을 어여삐 여긴 듯 |
| 故教松柏間纏連 | 일부러 송백을 사이사이 이었구나 |

2

| | |
|---------|----------------------|
| 終宵月色愛無眠 | 밤새 고운 달빛에 잠 못 이루니 |
| 撲岸潮聲撼枕邊 | 언덕을 치는 조수 소리 침상을 흔든다 |
| 擬躡麻故仙子後 | 마고 신선의 뒤를 따라서 |
| 秀蘭采采老霞烟 | 난초를 캐며 연하에 늙고 싶네 |

홍도에서 가거도로 가서 잠시 쉬고 삼태를 지나 밤에 흑산도에서 숙박하다 절구 2수

自紅島暫憩可居島經三台夜泊黑山 二絕

1

孤舟泛泛最西端 배는 서쪽 끝으로 등실등실 떠가니
直與中州一水干 곧바로 증원과 한 물 사이로다⁶⁸⁶
去瘼何人揮大拳 누가 큰 주먹 휘둘러 병폐를 제거해
能修盟好共歡顏 우호를 체결해 즐거움 함께 할까

2

身寄海天萬里空 바다 만리 허공에 몸을 기탁하니
恰如來往閩風中 흡사 낭풍⁶⁸⁷ 사이를 왕래하는 듯
乾坤拳小非虛語 건곤이 주먹처럼 작단 말도 참이라
叩柁長嘯氣自雄 노를 치며 장소(長嘯)하니 기가 절로 호방하다

686 사이로다 : 시의 '干'은 의미상 '間'으로 보아야 한다.

687 낭풍(閩風) : 곤륜산(崑崙山) 꼭대기로, 이곳에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다.

귀로에 금봉장에서 목다

歸路宿金峰庄

| | |
|-------|------------------------------|
| 中宵叩板扉 | 한밤에 판비 ⁶⁸⁸ 를 두드리니 |
| 稚子出牽衣 | 어린이가 나와 옷을 이끈다 |
| 小頃供茶飲 | 잠시 후 차를 제공해 마시니 |
| 夢猶踏翠微 | 꿈에서 여전히 취미를 밟는다 |

688 판비(板扉) : 널빤지로 만든 사립을 가리키는데, 왕유(王維)의 전가(田家) 시에 “새는 이 끼 낚 우물가에서 새끼를 먹이고, 닭은 흰 널빤지 사립 위에서 우누나. [雀乳青苔并雞鳴白版扉]”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가난한 선비의 집을 의미한다.

석당 박말갑에게 주다

贈朴石堂 未甲

| | |
|---------|----------------------|
| 占得幽居潁水邊 | 영수 가에 그윽한 거처 차지하고 |
| 四時如信石如堅 | 사시처럼 미덥고 돌처럼 굳건하다 |
| 暇游書藝知多日 | 여가에 서예에 노닌 지 몇 날인고 |
| 教養英材擬百年 | 영재를 교양하며 백년을 지내리라 |
| 愛士真心常自屈 | 진심으로 선비 아껴 늘 자신을 굽히니 |
| 凌雲奇氣欲無前 | 능운의 기특한 기개는 앞이 없어라 |
| 讀書中夜青燈下 | 중야에 청등 아래 독서하면서 |
| 又使子孫治硯田 | 자손에게 연전을 다스리게 한다 |

익헌 김종삼의 장원 아회에서

金益軒 鐘三 庄雅會

| | |
|---------|--------------------------------------------------|
| 巧值黃花迫近辰 | 마침 황화가 가까울 때를 만나 |
| 招書來到見情親 | 초대 편지 보내니 정도 친밀하다 |
| 溪山過雨塵埃斷 | 계산에 비가 지나 진애도 끊겨서 |
| 翰墨開場笑語新 | 한묵의 터를 여니 담소가 새롭다 |
| 報客間安門有鶴 | 문전의 학은 객에게 평안을 알리고 |
| 當簷瀟灑竹如人 | 처마의 소쇄한 대는 주인의 인품일세 |
| 蘭興嗟悼洛憂國 | 난정의 탄식 ⁶⁸⁹ 과 낙사 ⁶⁹⁰ 의 우국이야 |
| 何如斯筵渾忘身 | 이 자리에서 일신을 잊는 것과 어떠한고 |

689 난정의 탄식 : 왕희지의 「난정기(蘭亭記)」에 “매양 옛사람들이 감회를 일으킨 이유를 보면 마치 한 문서를 맞추는 듯이 부합하니, 일찍이 옛사람의 글을 대하고서 서글퍼하고 한탄하지 않은 적이 없다. [每攬昔人興感之由 若合一契 未嘗不臨文嗟悼]”라는 말이 있다.

690 낙사(洛社) : 송나라 문언박(文彦博)이 서도유수(西都留守)로 있을 때 부필(富弼)의 집에서 연로하고 어진 사대부들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베풀어 서로 즐겼던 모임을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 또는 낙사기영회(洛社耆英會)라 하였던 데서 온 명칭이다. 『宋史』 卷 313 「文彦博列傳」

인암장원의 아회

인암장원雅會

| | |
|---------|-------------------------------------|
| 金谷詩場課四時 | 금곡의 시회는 사시절 여는데 |
| 武珍風雪更追隨 | 무진의 풍설에 다시 뒤를 따랐지 |
| 深尋禦冷裘三襲 | 추위 막을 갓옷 세 벌 찾았다가 |
| 遽舍觀楓杖一枝 | 갑자기 단풍 구경할 지팡이 하나 놓았네 |
| 喝虎玄談欣客至 | 호랑이 꾸짖는 현담의 손 움이 기쁘고 |
| 雕蟲小技愧人知 | 조충 ⁶⁹¹ 의 작은 기예 알려질까 부끄럽다 |
| 主翁軒外栽梧大 | 주인은 들창 밖에 오동 심어 크니 |
| 待鳳來儀歲月遲 | 유장한 세월 봉황이 오길 기다린다 |

691 조충 : 글을 수식하는 사장(詞章)의 작은 기예를 가리킨다. 양웅(揚雄)의 『법언(法言)』에서 사부(辭賦)를 짓는 것에 대해 “동자(童子)의 조충전각(雕蟲篆刻)을 장부(壯夫)는 하지 않는다.” 하였다.

안은봉⁶⁹² 정사 유허비 시에 차운하다

次安隱峰精舍遺墟碑韻

誅茅講道桂山東 계산 동쪽에 모옥 엮어 강도하니
一曲清流武夷通 한 굽이 청류는 무이⁶⁹³로 통한다
溪作書聲鳴達曙 개울은 독서 소리 새벽까지 울리니
千秋敢忘繼來功 천추에 후진 교육의 공을 잊을쏘냐

692 안은봉 : 조선 중기 때의 학자이자 의병장인 안방준(安邦俊, 1573 ~ 1654)으로, 은봉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죽산(竹山)이며, 보성 출신이다. 박광전(朴光前)·박종정(朴宗挺), 성혼(成渾)에게 수학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의병에 참여했으며, 호남 의병과 봉당 관련 저서를 두루 남겼다.

693 무이 : 무이산은 중국 복건성(福建省) 무이산시(武夷山市)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주희(朱熹)가 은거하여 학문을 닦던 곳이다.

양천 박형문을 애도하다

輓朴楊川炯文

| | |
|-------|---------------------------------|
| 楊子江頭屋 | 양자강가의 자택에 |
| 隱淪七十年 | 은둔한 지 칠십 년 |
| 擇師令子讀 | 스승 택해 자식 독서시키니 |
| 尙志有誰前 | 뜻을 숭상함이 누가 앞서라 |
| 數畝間栽竹 | 몇 이랑에 한가히 대를 심고 |
| 長鑱懶採荃 | 긴 보습으로 전초 캐지 ⁶⁹⁴ 않았네 |
| 鶴鳴人不在 | 학은 울고 사람은 없으니 |
| 未禁淚漣漣 | 흐르는 눈물 금할 길 없어라 |

694 전초 캐지 : 전(荃)은 향초의 이름으로 임금에 비유한다. 『초사(楚辭)』 「이소(離騷)」에 “전초는 내 마음 헤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참소 믿고 성급하게 노여워하시네. [荃不察余之中情兮 反信讒而齎怒]”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농사를 지으며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는 뜻인 듯하다.

남농 고광칠을 애도하다

輓南農 高光七

| | |
|---------|-----------------------------------|
| 早認榮華摠在天 | 영화는 하늘에 있음을 일찍 알아서 |
| 蓉山深處意悠然 | 용산 깊은 곳에서 뜻이 유연했네 |
| 執來牛耳詞壇上 | 사단에서는 우이를 잡았고 ⁶⁹⁵ |
| 禿盡毫鋒硯墨邊 | 서예계에선 붓끝이 닳아졌다네 |
| 幽興幾勞雙屐屐 | 유흥 일면 납극 ⁶⁹⁶ 이 수고로웠고 |
| 機心每斷一簣烟 | 기심 ⁶⁹⁷ 은 늘 도롱이 안개에 끊겼다 |
| 滿庭玉樹能承志 | 정원 가득 옥수가 능히 뜻을 계승하니 |
| 遺草丁寧可永年 | 남긴 시문은 정녕코 영원하리라 |

695 우이를 잡았고 : 회맹(會盟)할 때 소의 귀를 잡고 피를 받아 삼혈(歃血)하는 등 맹주(盟主)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일러 우이(牛耳)를 잡았다고 한다.

696 납극(蠟屐) : 진(晉)나라 원부(阮孚)가 나막신에 항상 밀랍을 반들반들하게 칠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갔을 때 말하기를, “일생 동안 나막신을 몇 켤레나 신을지 모르겠다. [未知一生當着幾緇屐]”라고 탄식했다는 ‘납극(蠟屐)’의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雅量」

697 기심 : 이해득실을 계교하는 마음을 말한다.

석헌정 시운을 차하다

次石軒亭韻

| | |
|---------|--------------------------------|
| 經營幾載告功成 | 경영한 지 몇 년에 성공을 이루니 |
| 岡駐溪回得地平 | 산이 솟고 시내 감도는 평지라 |
| 父祖曾年杖履處 | 부조가 예전에 소요하던 곳이요 |
| 子孫今日羹牆情 | 자손이 금일에 사모하는 정이라 |
| 山如搢笏當前立 | 산은 홀을 꽂은 듯 앞에 마주 서고 |
| 水似開奩徹底明 | 시내는 거울인 듯 바닥까지 맑구나 |
| 蘿菴縱多文獻宅 | 나복 ⁶⁹⁸ 엔 문헌의古宅이 많지만 |
| 公家最是保家聲 | 공의 집이 가장 가문 명성 보존했네 |

698 나복 : 화순 동복의 옛 이름이다.

춘강 신흥렬을 애도하다

輓辛春岡 洪烈

| | |
|-------|-----------------------------|
| 吾黨有春岡 | 오당에 춘강이 있으니 |
| 文學世相傳 | 세세로 문학을 전했다 |
| 穎悟能兼人 | 영오는 타인을 능가했고 |
| 氣概亦絕倫 | 기개 또한 절륜했다 |
| 武珍結詩社 | 무진에서 시사를 맺어 |
| 庶跨二十年 | 거의 이십 년을 지내며 |
| 課月任遨遊 | 달마다 자유롭게 노닐었으니 |
| 山寺又水濱 | 산사 혹은 시냇가였네 |
| 吟弄風與月 | 풍월을 읊고 희롱하며 |
| 吞吐雲及烟 | 구름과 안개를 호흡하고 |
| 時倒囊裡錢 | 때로 주머니의 돈을 꺼내 |
| 共飲一喜歡 | 함께 마시며 기뻐하였다 |
| 攄胸口吐虹 | 흥금을 펴서 무지개 토했고 |
| 憂時夜不眠 | 시국 근심으로 밤에 잠 못 들었네 |
| 揮毫勢迥勁 | 휘호의 필세는 굳건하여 |
| 庶可追古人 | 거의 고인을 추종하였네 |
| 湖南儒淵藪 | 호남은 유학자가 배출되는 곳 |
| 領袖三經春 | 삼 년간을 영수로 지냈다 |
| 二豎入膏肓 | 두 수자가 고향에 드니 ⁶⁹⁹ |

699 두 …… 드니 : 두 수자[二豎]는 병마(病魔)를 말한다. 춘추시대 진경공(晉景公)이 병이 들어 진(秦)나라의 이름난 의원을 불렀는데, 그사이에 경공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병이 두 아이로 변하더니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오는 용한 의원에게 다칠지 모르니, 황(育)의 위와 고(膏)의 아래에 숨어있자고 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경공이 막 도착한 의원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병이 이미 고향에 들어 있어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

| | |
|-------|---------------------------------|
| 施藥屈華扁 | 화타와 편작의 의술도 굴복했다 |
| 無奈天命何 | 천명을 어찌할 수 없으니 |
| 蘭焚蕙自歎 | 난초가 불타매 혜초가 탄식하네 ⁷⁰⁰ |
| 庭前青玉樹 | 뜰에는 푸른 옥수가 있고 |
| 堂內有雨田 | 당내에는 우전 석학 ⁷⁰¹ 있다네 |
| 七十古來稀 | 칠십은 예로부터 드무니 |
| 此可慰英魂 | 이로써 영혼을 위로하리라 |
| 典型難復覩 | 전형을 다시 보기 어려우니 |
| 涕泗自盈巾 | 눈물이 수건을 가득 적신다 |

다. 과연 경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春秋左氏傳』 「成公 10年」

700 혜초가 탄식하네 : 육기(陸機)의 「탄서부(歎逝賦)」에 “참으로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하고, 아! 지초가 불타면 혜초가 탄식하도다. [信松茂而栢悅 嗟芝焚而蕙歎]” 한 데서 온 말로 동류(同類)의 불행을 슬퍼함을 뜻한다.

701 우전 석학 :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교수(教授)하였던 우전(雨田) 신호열(辛鎬烈) 선생을 지칭함.

감회

感懷

年過知非守此臺 지비⁷⁰²의 나이 지나도록 누대 지키니
光陰苒苒莫能回 흐르는 광음 돌릴 길 없어라
力難妙處穿孔破 학문의 묘처 간파하기 어려우니
顏愧遐方叩篋來 멀리서 배우러⁷⁰³ 오는 이들에게 부끄럽네
案有詩成因掃帛 책상에서 지은 시는 비단에 쓰고
酒銷腸渴暗思杯 술잔으로 장의 갈증 없애길 생각한다
幸生天地中間在 다행히 천지 중간에 태어났으니
安得吾身補一才 어떻게 이 몸의 재주를 보완할까

702 지비(知非) : 나이 50 혹은 60을 의미한 말로, 춘추시대 위(衛)나라의 현대부(賢大夫) 거백옥(蘧伯玉)의 말에서 비롯되었다. 『회남자(淮南子)』 「원도훈(原道訓)」에 “거백옥이 나이 오십에 49년 동안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蘧伯玉年五十 而知四十九年非]”라는 말이 나온다. 『장자』 「칙양(則陽)」에 “거백옥은 나이 60이 되는 동안 60번이나 잘못된 점을 고쳤다. [蘧伯玉行年六十而六十化]”고 하였다.

703 배우러 : 원문의 고희은 학생이 수업하는 것을 말한다. 『예기』 「학기(學記)」에 “입학하여 북을 쳐서 올리고 책을 꺼내는 것은 그 학업을 공손히 받기 위함이다. [入學鼓篋 孫其業也]”라고 하였다.

우연히 읊다

偶吟

無術可回挽逝年 흐르는 세월 만회할 방법 없는데
 蓁蕪難耐又當前 진부함이 당전함을 감당하기 어렵네
 臨溪懶葺三間屋 개울 앞에 세 칸 집 게을리 짓고
 負郭纔耕十畝田 성곽 등진 십 무 밭을 겨우 경작한다
 除胸中愁宜共醉 흥중의 시름 없애려 함께 취하고
 評天下事未成眠 천하사 평론하며 잠 이루지 못한다
 誰追千載濂翁德 누가 천 년 전 염계의 덕 따르랴
 素拙生平亦愛蓮 평소 졸렬한 나도 연꽃을 사랑하나니⁷⁰⁴

704 연꽃을 사랑하나니 : 송(宋)나라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는 「애련설(愛蓮說)」을 지어 “나는 홀로 연꽃이 진흙에서 나왔으면서도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기면서도 요염하지 않음을 사랑한다. … 연꽃은 꽃 중의 군자이다. [予獨愛蓮之出於泥而不染 濯清漣而不夭 … 蓮花之君子者也]”라고 하였다.

송운강을 애도하다

輓宋雲江

| | |
|-------|-----------------|
| 窮居一水東 | 시내 동쪽에서 궁거하니 |
| 清趣莫能同 | 맑은 흥취 함께 하지 못했다 |
| 寄跡漁樵裏 | 어초 속에 자취 기탁하고 |
| 置心簡策中 | 마음은 간책 중에 두었다 |
| 把杯賞皓月 | 술잔 들어 호월 감상하고 |
| 蠟屐溯春風 | 납극으로 봄바람 맞았네 |
| 昔日遊觀地 | 옛날 유람하며 관광하던 곳 |
| 幽明也有通 | 유명한 정이 통하리라 |

우촌 김은호 서실에 쓰다

題金牛村 銀鎬 書室

| | |
|---------|----------------------|
| 月出崔嵬獨拔群 | 월출산은 뭇 산에서 높이 솟아 |
| 英雄千載産如雲 | 영웅이 천 년간 구름처럼 나왔다 |
| 簪纓輝赫稱華胄 | 벼슬이 빛나 명문가로 칭송되었고 |
| 社稷安扶有四君 | 사직을 부축했던 사군(四君)이 계셨네 |
| 年少登科知器局 | 연소에 등과하여 그릇을 알겠으니 |
| 夜深明燭點詩文 | 깊은 밤 등불 밝혀 시문을 짓는다 |
| 何時牛背聞橫笛 | 언제 소를 타고 한가히 횡적 불며 |
| 溯彼長川犯暮曛 | 저 장천 거슬러 석양에 이룰까 |

무진음사 모임에서 읊다 신유년(1981)

武珍會吟

辛酉

| | |
|---------|-----------------------|
| 窮巷蟄居忘候時 | 궁항에서 칩거하며 시절을 잊었더니 |
| 庭梅暗坼報人知 | 뜰의 매화 가만히 열려 봄을 알린다 |
| 爲參吟社理裝急 | 음사에 참여하려 행장을 급히 갖추니 |
| 耽看青山鞭馬遲 | 청산을 탐하느라 발걸음은 더디구나 |
| 金玉藏來君待賈 | 그대 감춘 금옥의 값을 기다리다 |
| 風霜閱盡髮生枝 | 풍상을 겪으며 흰 머리만 드문드문 |
| 合歡慙我曾跨歲 | 기뻐함 합하려 내 세월 타넘음 부끄럽고 |
| 寬戶傾杯懶賦詩 | 큰 술잔 기울여 시 짓기도 싫구나 |

장찬홍 화실에 쓰다

題張贊洪畫室

| | |
|-------|-------------------|
| 千峰萬壑裡 | 천봉만학 속에 |
| 拳大一廬精 | 주먹만 한 정사(精舍) 하나 |
| 月色床頭白 | 월색은 책상에 하얗고 |
| 溪聲枕底鳴 | 시내는 침상에 울린다 |
| 勁澹枯藤古 | 굳센 필법은 묵은 마른 등걸이요 |
| 淡雅春山晴 | 담아한 화법은 맑게 갠 춘산이라 |
| 渾得烟霞趣 | 연하의 흥취 모두 얻고서 |
| 悠悠忘世情 | 유유히 세속의 정 잊었노라 |

인암을 애도하다

輓訖菴

| | |
|---------|------------------------------------|
| 爲涉危難智十分 | 위난 겪으면 지혜가 십분 증장되니 |
| 鄉中今日孰如君 | 오늘날 향중에 누가 그대만 할까 |
| 擇隣每效移枝鳥 | 이웃 가려 늘 새처럼 가지 옮겼고 |
| 藏跡冷看出岵雲 | 자취 감춰 산 구름을 차갑게 보았다 |
| 瀟灑詩談眞畏服 | 소쇄한 시담에 진실로 심복하였고 |
| 縱橫史話可聽聞 | 종횡한 사화는 참으로 들을 만했다 |
| 鸞停鵠峙誰此得 | 난곡 ⁷⁰⁵ 의 바른 덕을 누가 얻었으랴 |
| 孫有小同奇有文 | 손자 ⁷⁰⁶ 가 닮아 기이한 문채 갖췄다네 |

705 난곡(鸞鵠) : 훌륭한 자제를 난새와 고니에 비유한 말이다.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전중소감마군묘명(殿中少監馬君墓銘)」에 “물러나와 소부(少傅)를 보건대, 푸른 대와 벽 오동에 난새와 고니가 우뚝 서 있는 듯하였으니, 가업을 제대로 지킬 만한 분이였다. [退見少傅 翠竹碧梧 鸞鵠停峙 能守其業者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韓昌黎集』 卷33

706 소동(小同) : 원문의 소동은 후한(後漢)의 경학자(經學者) 정현(鄭玄)의 손자인 정소동(鄭小同)을 말한다. 정현의 아들이 황건적의 난리에 27세로 죽고 손자가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정현과 같은 정묘년에 태어났고 손금이 또 할아버지인 자기와 닮았다고 하여 이름을 소동(小同)이라 지었다 한다. 『後漢書』 卷35 「鄭玄列傳」

유석 유겸중, 석촌, 노강 박내호와 함께 읊다
與柳維石 謙重 石村朴蘆江 來鎬 共吟

聚首番番喜忘年 백발에 모여 나이 잊어 기쁘니
煎茶評畫一床邊 평상에 차 다리며 서화를 품평한다
吾人交道無偏黨 오인의 교도는 치우침이 없으니
大地春風肯後先 대지의 춘풍 어찌 선후를 다투랴
局量豈能正區宇 국량이야 어찌 세상을 바르게 할까
襟懷常保老雲烟 가슴의 뜻은 항상 운연에 늙기를
我生其奈心違事 심사에 어긋난 나의 삶 어이하랴
共醉尊前蹴硯田 술단지 앞에 취하며 연전을 일군다

초산장원의 아회

樵山庄雅會

| | |
|-------|-------------------------------|
| 春日大江天 | 봄날 큰 강의 하늘 |
| 屋沈萬柳烟 | 집들은 버들 안개에 잠겼다 |
| 埋身書畫裡 | 서화 속에 몸을 묻고 |
| 題軸苔石邊 | 이끼 바위 곁에서 시를 쓴다 |
| 灩澦紫霞動 | 넘실넘실 자하주가 일렁이고 |
| 瓓珊玉樹連 | 선연한 옥수가 이어져 있다 |
| 把杯賀樵老 | 술잔 잡고 초산 노인 축하하니 |
| 可享頤暮年 | 백년 ⁷⁰⁷ 의 장수를 향유하리라 |

707 백년 : 원문 기이(期頤)는 나이 백세를 뜻한다. 『예기』 「곡례상(曲禮上)」에 “백살이 되면 기(期)라 하니 매사에 봉양을 받는다. [百年日期頤]”라고 하였다.

우전 김재만을 축수하다 신유년(1981)

壽金雨田 在萬

辛酉

| | |
|---------|--------------------------------|
| 南平城外峽中村 | 남평 성 바깥의 산골 마을 |
| 竹屋靑燈遠世喧 | 대나무집 청등에 속세의 소란 멀다 |
| 玄圃眞知生美玉 | 현포 ⁷⁰⁸ 에서 미옥이 생산되나니 |
| 醴泉豈不有長源 | 예천의 유장한 근원 어찌 없으랴 |
| 荷鋤春日砥江雨 | 봄날 지석강의 비에 호미를 메었고 |
| 挾冊曾年曉老門 | 일찍 효당 문하에서 훈도 받았다 |
| 百歲誰無茲壽席 | 백세에 누가 이런 수연(壽宴) 없으련만 |
| 莫如斯老紫霞樽 | 이 노인의 자하주(紫霞酒)만 못하리라 |

708 현포(玄圃) : 곤륜산(崑崙山) 정상의 신선 세계 이름이다.

우인과 함께 얘기하다

與友人共話

| | |
|---------|---------------------|
| 秋實春花驗暑寒 | 가을 열매 봄꽃으로 한서를 증험하니 |
| 休將塵事攪聽看 | 속세의 일로 견문을 어지럽히지 말라 |
| 奈其同室相揮戟 | 어찌 형제간에 서로 창을 휘두르나 |
| 又是西潮暗動瀾 | 서양 풍조도 가만히 파란을 일으킨다 |
| 千古愁深難可滌 | 천고의 깊은 시름 씻기 어려우니 |
| 一場談劇足爲歡 | 한바탕 극담만이 즐거움일세 |
| 纔離三月如三歲 | 석 달 이별이 삼 년과 같으니 |
| 藉草成茵醉脫冠 | 풀을 깔고 앉아 취하여 관을 벗는다 |

용강정 원운을 차하다 강인환 선인의 정자이다

次龍岡亭原韻 康仁煥先亭

蒼松翠栢幾經年 창송과 취백이 몇 해나 되었나
曾卜菟裘性命全 일찍 은거⁷⁰⁹ 택해 성명을 보존했다
明燭課兒茅屋裡 모옥에서 촛불 밝혀 아이 독서시키고
釀尊招客菊花天 국화 계절엔 술을 빚어 객을 부른다
候禽得意林園後 철새는 임원 뒤에서 희희낙락하고
晴嶂呈妍几席前 맑은 산은 책상 앞에 고운 모습 드러낸다
一里慇懃酬主老 마을사람 은근히 주인에게 술을 권하며
風軒月戶欲長傳 풍월 넘치는 정자 길이 전해지길 바란다

709 은거 : 원문 도구(菟裘)는 은거지를 말한다. 춘추시대 노(魯)나라 은공(隱公)이 환공(桓公)에게 자리를 물려주고서 도구 땅으로 돌아가 살고 싶다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春秋左氏傳』 「隱公11年」

신재 김호영 어른 수석을 뒤늦게 축하하며

追賀慎齋金丈 鎬永 壽席

懸弧辰值再回年 현호의 시절⁷¹⁰ 다시 만났으니
眼射長庚氣浩然 눈빛은 셋별을 쏘고 기개는 호연하다
醉酒賓歌魚麗什 술에 취해 손님은 어리⁷¹¹를 노래하고
吹笙主誦鹿鳴篇 피리 소리에 주인은 녹명⁷¹²을 읊는다
青春爲政曾傾橐 청춘에 위정하며 주머니를 털었고
晚歲崇先又斥田 만년에 선조 높이며 밭을 경작했다
多謝床琴俱諧韻 평상의 거문고도 모두 운에 맞으니
子孫攝影案頭傳 자손이 찍은 사진 책상에 전해지네

710 현호의 시절 : 남자의 생일을 가리킨다. 『예기』 「내측(內則)」에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문 왼쪽에 활을 걸어두고, 딸이면 문 오른쪽에 수건을 걸어둔다. [子生 男子設弧於門左 女設輓於門右]”라고 하였다.

711 어리(魚麗) : 『시경』 「소아(小雅)」의 편명이다. 연향에 통용하는 악가(樂歌)로, 연향에 올리는 음식이 풍성하고 많음을 찬미한 시(詩)이다.

712 녹명(鹿鳴) : 『시경』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임금이 신하를 위해 연회를 베풀며 연주하던 악가(樂歌)이다.

신재의 회흔례 잔치 시운을 차하다

次愼齋回孿宴韻

正及桃花最好辰 정히 도화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
靑絲紅線禮彬彬 청사와 홍선의 예가 어울리네
東床忽覺青春夢 동상⁷¹³에 문득 청춘의 꿈을 깨니
七寶重粧白髮人 칠보를 거듭 장식한 백발의 사람이라
日月雙輪昭昭處 해와 달이 소소히 비치는 곳에
鵲鳩相親關關晨 저구새 친애하며 관관이 우는구나⁷¹⁴
孫誇吾祖新婚席 손자가 할아버지 신혼자리 자랑하니
如堵來觀集四隣 담처럼⁷¹⁵ 보는 이들 사방에서 모였다

713 동상(東床) : 동상은 사위를 이르는 말이다. 진(晉)나라 때 치감(郗鑒)이 왕도(王導)의 집안에서 사윗감을 고르려고 자신의 문생(門生)을 왕도의 집에 보냈다. 다른 자제들은 모두 잘 보이려고 점잔을 빼고 몸가짐을 조심하였으나 왕희지(王羲之)만은 동상(東床), 즉 동쪽 침상에서 배를 드러낸 채 태연히 누워 있었다. 그래서 왕희지를 사윗감으로 골랐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 『晉書』 卷80 「王羲之列傳」

714 관관이 우는구나 : 『시경』 「관저(關雎)」에 “관관이 우는 저구새 하수의 모래섬에 있다. 요조한 숙녀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라고 하였다.

715 담처럼[如堵] : 많이 모인다는 뜻이다. 『예기』 「사의(射義)」에 “공자가 황상(叢相)에 있는 밭에서 사례를 익히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담처럼 에워쌌다. [孔子射於叢相之圃 蓋觀者如堵牆]”고 하였다.

방산 이종호에게 주다 당시 나주 군수였다

贈李方山鍾壕 時宰羅州

崔嵬方丈幾千尋 높은 방장산 몇 천 길인고
生此甫申靈有臨 신령이 임하여 현인을 낳았다⁷¹⁶
樟櫨何辭濟時楫 예장은 어찌 시대의 노를 마다하랴
峰雲剩作早餘霖 산 구름은 넉넉히 가뭄의 비가 되리라
氣沖斗牛胸磨劍 두우를 쏘는 기개에 흉중의 검 갈았고
政在猛寬手調琴 관맹(寬猛)의 정치는 거문고를 조율하는 듯⁷¹⁷
世世業儒文獻宅 대대로 유학을 지키는 문헌의 가문
對君誰不整衣襟 군을 대해 누가 옷깃 여미지 않으랴

716 현인을 낳았다 : 『시경』 「송고(松高)」에 “산악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을 내려 보내, 보후(甫侯)와 신후(申侯)를 태어나게 하였다. [維嶽降神 生甫及申]”라는 말이 나온다.

717 조율하는 듯 :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훌륭하다. 정사가 너그러우면 백성들이 태만해 지니 태만하거든 준엄함으로 다스리고, 준엄하면 백성들이 쇠잔해지니 쇠잔하거든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그러움으로 준엄함을 바로잡고 준엄함으로 너그러움을 바로잡으니, 이 때문에 정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善哉 政寬則民慢 慢則糾之以猛 猛則民殘 殘則施之以寬 寬以濟猛 猛以濟寬 政是以和]”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昭公20年」

금정서실 주인 이관수에게 부치다

寄錦汀書室主人李官洙

| | |
|---------|-----------------------------------|
| 客館逢君話可聽 | 객관에서 만난 군의 진진한 이야기 |
| 慶州家世錦川汀 | 경주 세가로 금천 물가에 살았다 |
| 胸中已去馳騁志 | 흉중에 이미 치달릴 뜻을 제거하고 |
| 眼底要收苾郁馨 | 눈앞에 필묵의 향기를 거두려 한다 |
| 秩秩圖書盈案架 | 정리된 도서는 서가에 가득하고 |
| 珊珊花木列階庭 | 고운 화목은 정원에 나열되었다 |
| 述先一念如霜刃 | 선조를 잇는 일념은 칼날과 같아 |
| 磨滅不由方出礪 | 숫돌에서 나온 듯 ⁷¹⁸ 마멸되지 않는다 |

718 숫돌에서 나온 듯 : 『장자』 「양생주(養生主)」에 “포정(庖丁)이 19년 동안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는데도 그 칼날이 항상 숫돌에서 금방 꺼낸 듯했다. [刀刃若新發于礪]”는 말이 나온다.

무진음사의 작은 모임

武珍小會

瑞石山前錦水西 서석산 앞 영산강 서쪽에
校宮突兀路依迷 교궁은 우뚝하고 길은 아득하다
世方思治人何在 치세를 생각하나 인재는 어디에
士縱難容賈不低 선비는 용납이 어렵지만 값은 높거니
自賁湯祈千里雨 탕은 자책하며 천리의 비 기원했고⁷¹⁹
深憂詩賦五更鷄 시는 근심하며 오경의 닭⁷²⁰을 읊었다
周公夢見非吾事 꿈에 주공을 봄은 나의 일 아니니⁷²¹
今欲於斯借一棲 오늘 여기에 머물 곳을 빌리고자

719 자신을 …… 기원했고 : 탕(湯)임금이 큰 가뭄을 만나 5년 동안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자, 상림(桑林)에서 기우제를 지내며 자신을 희생으로 삼아 축원하기를 “나 한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 천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천하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 할 지라도 저 한 사람의 탓이니 못한 저 한 사람으로 인해 상제와 귀신이 백성들의 목숨을 해치지 말게 하소서! [余一人有罪 無及萬夫 萬夫有罪 在余一人 無以一人之不敏 使上帝鬼神傷民之命]”라고 하였는데, 과연 비가 내렸다고 한다. 『呂氏春秋』 「順民」

720 오경의 닭 : 진(晉)나라 때 강개(慷慨)한 지절(志節)로 명성이 높았던 조적(祖逖)이 일찍이 자기 친구 유곤(劉琨)과 함께 사주주부(司州主簿)가 되었을 때, 유곤과 한 이불을 덮고 자다가 한밤중에 때 아닌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유곤을 발로 차서 깨우며 말하기를 “이것은 나쁜 소리가 아니다. [此非惡聲也]” 하고, 인하여 일어나서 춤을 명실당실 추었던 데서 온 말이다. 『晉書』 卷62 「祖逖列傳」

721 꿈속에 …… 아니니 : 공자가 주공의 도를 행하고자 하여 가끔 꿈에 주공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노쇠하여 도를 행할 가망이 없어지면서 그런 꿈도 꿀 수 없게 되자, “내가 너무도 쇠해졌구나, 꿈속에서 주공을 다시 뵈지 못한 지 오래 되었으니. [甚矣吾衰也 久矣吾不復夢見周公]”라고 탄식한 내용이 『논어』 「술이(述而)」에 나온다.

유춘계 사성당 원운에 차하다

次柳春溪思誠堂原韻

| | |
|---------|----------------------------------|
| 廓拓茅荒構一堂 | 황무지 열고 당을 하나 엮어서 |
| 欲銷邪念幾星霜 | 사념을 없애려 한지 몇 해인가 |
| 遲澗畔松含翠 | 더딘 시내 솔은 오랫동안 푸르고 ⁷²² |
| 艷艷籬邊菊吐香 | 고운 울타리 국화는 향을 토한다 |
| 對月臨池塵慮斷 | 달빛 연못 대하매 속된 생각 끊기고 |
| 篝燈讀易道心長 | 등불에 주역 읽으니 도심이 자란다 |
| 聖賢秘法傳誠字 | 성현의 비법은 성(誠)을 전한 것이니 |
| 寤寐思之自勿忘 | 자나 깨나 생각하여 잊지 말지어다 |

722 시내 …… 푸르고 : 송(宋)나라 범질(范質)이 조카 범고(范杲)가 품계를 올려 주기를 청하자 시를 지어 깨우쳐 주었는데, 그 시에 “활짝 핀 정원의 꽃은 일찍 피었다가 먼저 시들고, 더디게 자라는 시냇가의 소나무는 울창하여 오래도록 푸른빛을 머금는다. [灼灼園中花 早發還先萎 遲澗畔松 鬱鬱含晚翠]”라고 하였다. 『宋史』卷249 「范質列傳」

자미정에서 노닐다 반남에 있다

遊紫薇亭 在潘南

| | |
|---------|---------------------------------|
| 縣自高麗最盛年 | 현은 고려 전성시대에서 비롯되어 |
| 鍾靈地勢吉祥連 | 영기 모인 지세에 길상이 이어졌다 |
| 滎江逶迤繞郊外 | 영산강 구불구불 교외를 두르고 |
| 月嶽嶙峋當檻前 | 월악은 높이 솟아 난간을 마주했다 |
| 看史書餘圍奕局 | 독서의 여가에 바둑판 에워싸 |
| 忘塵冗裡管雲烟 | 세속 일 잊고서 운연을 차지했다 |
| 居人彷彿商山皓 | 거주자는 상산사호 ⁷²³ 와 방불하니 |
| 爲祝斯亭永世傳 | 이 정자 영원히 전하기를 축원하네 |

723 상산사호(商山四皓) : 한(漢)나라 초기 상산에 은거하던 덕망 높은 네 노인 동원공(東園公),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 녹리선생(用里先生)을 가리킨다.

제주의 유람, 금봉과 함께 가다

濟州之遊與金峰偕之

| | |
|-------|----------------|
| 君是意中人 | 그대는 마음에 그리던 이 |
| 昔同紅島津 | 예전 홍도 나루 함께 했지 |
| 又來仙窟宅 | 또 신선의 굴택에 와서 |
| 滌盡世間塵 | 세간의 티끌을 다 씻는다 |

주중에서 짓다

舟中作

萬里碧無際

만리 푸른빛 가없으니

乾坤水上浮

건곤이 물 위에 떴도다

人生是附芥

인생은 떠도는 짚풀이라

我亦一蜉蝣

나 또한 하나의 하루살이

한라산을 바라보며

望漢拏山

| | |
|-------|-------------------|
| 誰言漢可拏 | 누가 은하수를 잡는다고 하였나 |
| 一蹴可登攀 | 한번 박차면 등반할 수 있겠네 |
| 白鹿潭邊雪 | 백록담 가의 눈을 보니 |
| 始知夏亦寒 | 비로소 여름도 차가운 줄 알겠네 |

호남의 향우에게 주다

贈湖南鄉友

事中誰最喜

무엇이 가장 기쁜 일인가

異域逢同鄉

이역에서 동향의 벗 만나는 것

況設晚餐會

게다가 만찬까지 차리고서

笑談共一堂

담소하며 자리를 함께 함에라

소암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다

訪素菴不遇

| | |
|-------|------------------|
| 漢拏我邦鎮 | 한라는 나라의 진산으로 |
| 三神山之一 | 삼신산의 하나라 |
| 間出英特士 | 그사이 배출된 영특한 선비 |
| 指不可勝屈 | 손으로 다 꼽을 수 없네 |
| 梁高與秦文 | 양씨와 고씨 진씨와 문씨 |
| 英廟謂四絕 | 영조께서 사절이라 하였고 |
| 上下數百載 | 상하 수백 년에 |
| 又有玄翁傑 | 또 걸출한 현옹이 있어 |
| 揮毫疑龍騰 | 붓 휘두르면 용이 비상하는 듯 |
| 持心如玉潔 | 마음가짐은 옥처럼 고결하다 |
| 西歸構山房 | 서귀포에 산방을 엮어서 |
| 偃仰忘歲節 | 소요하며 시절을 잊었네 |
| 我欲訪高居 | 고인(高人)의 거처 방문하려고 |
| 海涉且山越 | 바다 건너고 산을 넘었네 |
| 遇人亦有數 | 만남 또한 운수가 있는지 |
| 巧值登儒達 | 마침 유달산을 등정하셨다네 |
| 猿鶴替主人 | 원학만이 주인을 대신하여 |
| 徘徊日將夕 | 낮부터 저녁까지 홀로 배회하네 |
| 何日再涉溟 | 어느 날 다시 큰 바다 건너 |
| 酌酒抒胸臆 | 술 따르며 흥금을 펼칠까 |

제월 유동렬의 장원에서 만나 얘기하다

柳霽月 東烈 庄會話

| | |
|---------|----------------------------------|
| 奠居何日達川東 | 언제 달천 동쪽에 거처를 정했나 |
| 爲賀翁家萬福同 | 그대 집안의 만복을 축하하네 |
| 納我禾稼築場圃 | 장포를 쌓아 나의 벧단 거두고서 ⁷²⁴ |
| 任他柿栗染霜風 | 감과 밤은 풍상에 젖게 버려두네 |
| 淸眸頽頽千秋上 | 맑은 눈동자는 천추를 넘나들고 |
| 名士淹留一室中 | 명사들은 실중에 머문다네 |
| 縱使年年逢再度 | 해마다 두 번만 만나더라도 |
| 靈犀百里也相通 | 영서 ⁷²⁵ 는 백리에도 서로 통하나니 |

724 벧단 거두고서 : 『시경』 「칠월」에 나오는 말이다. “9월에는 장포를 쌓고 10월에는 벼를 거둬들이나니 기장과 수수와 늦벼와 올벼가 있으며 벼와 삼, 콩과 보리이니라. [九月築場圃 十月納禾稼 黍稷重穋 禾麻菽麥]”라고 하였다.

725 영서(靈犀) : 영묘(靈妙)한 서각(犀角)을 말한다. 서각은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 양방이 서로 관통되었으므로, 전하여 두 사람의 의사가 서로 투합함을 비유한다.

백봉 김옥현에게 주다 임술년(1982)

贈白峰 金沃炫 壬戌

璿源駕洛擅吾東 선원과 가락⁷²⁶은 우리 동방의 으뜸
一脈雲山上接空 일맥 운산이 위로 허공에 접했다
兄撫南湖均道政 형은 호남을 진무하여 도정을 고르고
父擔聖廟振儒風 부친은 성묘⁷²⁷ 맡아 유품을 진작했다
足胝坊曲往來裡 발걸음은 방방곡곡 부지런히 왕래하고
心煎昕宵籌策中 마음은 조석으로 계획하며 애태웠다
覆易成難從古訓 옳기 쉽고 성취 어려움은 옛 훈계
應多他日繼承功 훗날에 계승하는 공이 넉넉하리라

군이 한창 세정을 맡아 날날이 수해지구를 조사했기 때문에 언급하였다.

君方任稅政 而歷查水害地故 及之

726 선원과 가락 : 선원(璿源)과 가락(駕洛)은 김수로왕의 후손으로 김해 김씨이다.

727 성묘(聖廟) : 공자를 모신 사당인 대성전으로, 이 시에서는 향교(鄕校)를 가리킨다.

향산서실에 쓰다 위성렬
題香山書室 魏聖烈

繼文繩武我門珍 문무를 계승한 우리 가문의 보배
德氣溫溫亦有隣 덕의 기운 온화하여 이웃도 있다네⁷²⁸
藏廟金笙餘厚蔭 가묘의 금생에 도타운 그늘 있고
盈庭玉樹駐長春 뜰 가득 옥수는 봄의 화기 머문다
不渝素志身愈健 평소의 뜻 그대로 몸 더욱 강건하고
得保丹心業自新 단심 보존하여 사업이 절로 새롭다
誰識香山扁額意 향산⁷²⁹이라 편액한 뜻 누가 알리요
白公孫氏盡名人 백공과 손씨가 모두 명인이로다

728 이웃도 있다네 : 『논어』 「이인(里仁)」에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德不孤 必有隣]” 하였다.

729 향산(香山) : 향산은 향산거사(香山居士)의 약칭으로, 당(唐)나라 백거이(白居易)의 별호이다. 당무종(唐武宗) 때 백거이가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있다가 치사(致仕)한 뒤에 향산으로 들어가서 향산거사(香山居士)라고 자호하고는 승려 여만(如滿) 등과 함께 향화사(香火社)를 결성하고 만년을 보냈다는 고사가 전한다. 『舊唐書』 卷166 「白居易列傳」

화산 김기석 장군에게 주다

贈華山 金基錫 將軍

忠孝傳家擅古今 가문의 충효는 고금에 으뜸인데
華山又是放聲音 화산이 다시 명성을 떨쳤다네
持心重似千鈞弩 무거운 마음가짐은 천균의 쇠뇌요
訓士精如百鍊金 정밀한 군사훈련은 백련의 강철이라
孫子斬兵號令肅 손자가 병을 참하니⁷³⁰ 호령이 엄숙하고
吳公吮腫惠恩深 오공이 종기 빠니⁷³¹ 은혜가 깊었다
三韓一統人何在 삼한을 통일한 사람은 어디 있는고
擬述前功亦可欽 전공을 계승하니 공경할 만하구나

730 손자가 병을 참하니 : 손자가 오왕(吳王) 합려(闔閭)의 명에 따라 궁중의 미인들을 상대로 전법의 시범을 보이면서, 명령을 듣지 않는 왕의 총희(寵姬) 두 명을 가차 없이 참수하여 군율(軍律)을 엄하게 확립했던 고사가 전한다. 『史記』 卷65 「孫子吳起列傳」

731 오공이 종기 빠니 : 오기(吳起)가 사졸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 주자, 그 사졸의 어머니가 통곡하니, 어떤 자가 “장군이 종기를 빨아 주는 것은 영광인데 무엇 때문에 우는가?”라고 묻자, 그 어머니는 “전에 장군이 저 애 아버의 종기를 빨아 주니, 저 애 아버는 감격하여 전쟁에 나가 후퇴하지 않고 싸우다가 죽었다. 그런데 이제 장군이 다시 저 애의 종기를 빨아 주니, 저 애 또한 감격하여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이므로 나는 저 애가 어디에서 죽을지 몰라 우는 것이다.”라고 한 고사가 있다. 『史記』 卷65 「孫子吳起列傳」

석천 박영봉을 애도하다

輓朴石泉 永鳳

| | |
|-------|--------------------------------|
| 繞屋松溪流 | 집을 감돌아 송계 흐르고 |
| 入簾瑞石幽 | 서석은 그윽이 발로 든다 |
| 揮毫勁似鐵 | 휘호는 쇠처럼 굳건하였고 |
| 圍棋逼於秋 | 바둑은 혁추 ⁷³² 와 필근했다 |
| 渡世信威重 | 세상 건너매 신위가 무거웠고 |
| 苦心文獻留 | 고심하며 문헌을 남겼다 |
| 渾忘寵與辱 | 충욕을 모두 잊고서 |
| 蝸室任悠悠 | 와실 ⁷³³ 에서 자유롭게 소요했네 |

732 혁추(奕秋) : 혁추는 전국시대 바둑의 명인인데, 그 이름이 『맹자』 「고자상(告子上)」에 보인다.

733 와실(蝸室) : 달팽이 집 만큼 작은 초라한 집이란 뜻이다.

심산 김보열 서실에 쓰다

題金心山 寶烈 書室

| | |
|---------|----------------------|
| 瑞石城中一草廬 | 서석의 성시 가운데 초려 하나 |
| 宅心正直是安居 | 정직한 마음이 편안한 거처라네 |
| 穿鞋南北萬千嶽 | 짚신으로 남북의 천만 산악 누비고 |
| 着眼東西今古書 | 동서고금의 서책에 눈을 붙인다 |
| 尙志何愁身喫苦 | 뜻을 높이니 일신의 괴로움 시름하라 |
| 供賓不計囊無餘 | 손님 대접에 주머니 헤아리지 않나니 |
| 世波百丈君能涉 | 백장 세파를 그대 잘 헤쳐나가 |
| 如智如愚意自如 | 지혜로운 듯 우매한 듯 뜻이 자약하다 |

양곡 이경호를 애도하다

輓暘谷 李慶鎬

| | |
|-------|------------------------------|
| 公謂生無邊 | 삶이 가없다 하시더니 |
| 那知向九泉 | 구천으로 향할 줄이야 |
| 儒巾橐裡在 | 유건은 전대에 남았고 |
| 詩卷案頭懸 | 시권은 책상에 놓였네 |
| 遊賞無虛日 | 유상은 빈 날이 없었고 |
| 誠勤認自天 | 정성은 천성임을 알았다 |
| 愧余未執紼 | 부끄럽다 집불 ⁷³⁴ 도 못하고 |
| 幾度夢中連 | 얼마나 꿈속에 함께 했나 |

734 집불(執紼) : 상여 끈을 잡는다는 말로 장례에 참석한다는 의미이다. 『예기』 「곡례(曲禮)」에 “묘소에 가서는 봉분에 오르지 않고, 장례를 도울 때는 반드시 상여 줄을 잡는다. [適墓不登壘 助葬必執紼]”라고 하였다.

청강 유재관을 애도하다

輓柳晴岡在寬

| | |
|-------|-----------------|
| 錦城山氣明 | 금성의 산 기운 밝아 |
| 江上一區成 | 강가에 한 터를 이루었다 |
| 老杏參天大 | 늙은 살구나무 하늘을 찌르고 |
| 翠篁繞屋生 | 푸른 대는 집을 둘렀다 |
| 飯牛治產業 | 소를 길러 생업을 꾸렸고 |
| 剪燭讀書聲 | 등불 돋우며 서책 읽었네 |
| 經歲聞君沒 | 한 해 지나 별세 들었으니 |
| 勿云余薄情 | 나를 박정하다 마소서 |

김규호 양호장에서의 아회

養浩庄 金圭浩 雅會

| | |
|---------|----------------------|
| 君家世住鶴山南 | 그대 집안 세거(世居)는 학산 남쪽 |
| 玩月觀花我再三 | 내 여러 번 달과 꽃을 완상했지 |
| 書史盈床傲軒駟 | 책상 가득 서사는 부귀를 경시하고 |
| 園蔬供卓敵肥甘 | 식탁의 채소는 진미(珍味)를 대적한다 |
| 欲銷塊磊因呼酒 | 쌓인 회포 없애려 술을 부르니 |
| 可濯塵紛又有潭 | 세속 티끌 씻을 연못도 있다네 |
| 是古非今竟無補 | 고금을 시비해도 끝내 무익하니 |
| 只言流峙口宜含 | 다만 산천 말하며 입을 다물리라 |

동초 정철환 어른을 애도하다

輓鄭丈東樵 喆煥

| | |
|---------|--------------------------------------|
| 文奎星落錦城東 | 규성 ⁷³⁵ 이 금성 동쪽에 떨어지니 |
| 灑淚悲傷一省同 | 온 고을이 눈물 흘리며 슬퍼한다 |
| 梁月依稀疑雅度 | 들보의 달빛은 전아(典雅)한 모습인 듯 ⁷³⁶ |
| 庭梅皎潔想高風 | 고결한 뜰의 매화 고풍을 떠올린다 |
| 半生杖履溪山裡 | 반평생 계산에서 소요하였고 |
| 萬卷書編几案中 | 책상에는 만권 서적 쌓여있네 |
| 轉軸壯年能勇往 | 장년에 전환하여 용감하게 나갔으니 |
| 令名後世也無窮 | 후세에도 영명이 무궁하리라 |

735 규성(奎星) : 규성은 이십팔수(二十八宿) 중 하나로, 문운(文運)을 관장하는 별이다.

736 들보의 …… 모습인 듯 : 친구를 간절히 그리워함을 표현한 말이다. 두보(杜甫)가 이백(李白)을 그리며 「몽이백(夢李白)」을 지어 “지는 달빛 대들보에 환하게 비치니, 오히려 그대 얼굴인가 의심하네. [落月滿屋梁 猶疑照顏色]”라고 하였다.

춘강 정옹재의 사적을 읽고 느낌이 있어서

讀鄭春岡容材事蹟有感

| | |
|---------|---------------------------------|
| 曦陽山水一何清 | 희양 ⁷³⁷ 의 산수는 어찌나 맑은지 |
| 産毓英材可使驚 | 길러낸 영재 참으로 놀랍구나 |
| 孝烈闡褒看志節 | 효열을 표창하니 지절을 알겠고 |
| 議論揚抑擅聲名 | 의론이 억양해 명성을 독점했다 |
| 勸規約定鄉坊肅 | 향약의 규약으로 고을 엄숙하고 |
| 連累今銷史策明 | 연루를 해소해 사책이 분명하다 |
| 貴器元從磨琢裏 | 귀한 그릇은 절차탁마에서 나오니 |
| 經辛嘗苦玉如成 | 신고를 겪어야 옥처럼 완성된다네 |

737 희양(曦陽) : 광양의 옛 이름이다.

신춘에 회포를 쓰다

新春書懷

忽覺莢書歲律新 홀연 협서와 세월이 새로우니
何由修得此么身 어떻게 작은 이 몸 수신할까
支頤無語懷千古 턱 괴고 말없이 천고를 회상하니
舉足常愁忝二人 걸음마다 부모 욕될까 시름한다⁷³⁸
蒼翠松誇三尺雪 푸른 솔은 삼척 눈 속에 으쓱하고
蓓蕾梅報一陽春 매화 봉오리는 양춘을 알린다
竟年甕算終何益 한 해의 옹산⁷³⁹이 끝내 무슨 이익이라
莫若勤除案上塵 서안의 티끌 열심히 없애야지

738 걸음마다 …… 시름한다 : 『예기』 「제의(祭義)」에 “한 걸음 밟을 땐 때도 감히 부모를 잊지 않고, 한마디 말을 하는 데도 감히 부모를 잊지 않는다. [壹舉足而不敢忘父母 壹出言而不敢忘父母]”라고 하였다.

739 옹산(甕算) : 옹산은 망상(妄想)과 같은 뜻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향아리 하나를 애지중지하면서 밤에도 끌어안고서 자곤 하였는데, 어느 날 저녁 향아리 하나를 밀친 삼아 부자가 되는 생각에 젖은 나머지 기쁨에 겨워 춤을 추다가 그 향아리를 밟아 깨뜨려 버렸다. 『梅圃詩話』

망암 박춘서를 애도하다

輓朴望菴春緒

| | |
|---------|----------------------------------|
| 烟塵漠漠一區晴 | 막막한 연진 속 한 구역 맑은 곳에 |
| 榮悴無關樂此生 | 영고성쇠 무관한 채 삶을 즐겼다 |
| 剪燭夜看栽藥訣 | 밤이면 등 아래 약초비결 보았고 |
| 課孫晨聽讀書聲 | 새벽엔 손자의 과독소리 들었다 |
| 心如水鏡明人事 | 마음은 수경처럼 인사에 밝았고 |
| 顏帶春風慣世情 | 얼굴은 춘풍 가득 세정에 익숙했다 |
| 每擬厚姿享頤養 | 증후한 자질 장수하리라 여겼건만 |
| 嗟乎埋璧北邙城 | 오호라 북망산에 옥벽을 묻었노라 ⁷⁴⁰ |

740 옥벽을 묻었노라 : 뛰어난 재사(才士)의 죽음을 표현한 말이다. 진(晉)나라의 유량(庾亮)이 죽어 장사지낼 때 하충(何充)이 “옥수를 땅속에 묻으니, 사람의 슬픈 정을 어찌 억제할 수 있으리오. [埋玉樹於土中 使人情何能已]” 하였다. 『晉書』 卷73 「庾亮列傳」

우인이 초대한 작품에 차운하다

次友人見招之作

| | |
|---------|----------------------------------|
| 折簡招余以踏青 | 편지로 나를 불러 답청케 하니 |
| 芒鞋試上賞春亭 | 짚신으로 한번 상춘정에 올랐네 |
| 釀花芳酒能蘇病 | 꽃을 빚은 방주는 병을 치유하고 |
| 醫俗疎篁可實庭 | 뜰 가득 대나무는 속기를 고친다 ⁷⁴¹ |
| 歡樂須要逢子盡 | 그대를 만나 즐거움 다하리니 |
| 光陰豈肯爲人停 | 광음이 어찌 사람 위해 멈추랴 |
| 眼看宇宙皆渾醉 | 천하를 두루 보니 모두 취했거늘 |
| 見放如今我獨醒 | 추방된 나만 홀로 깨었노라 ⁷⁴² |

741 대나무는 속기를 고친다 : 소식(蘇軾)의 「녹균헌(綠筠軒)」에 “밥상에 고기 없어도, 거처에 대나무가 없을 수 없네. 고기가 없으면 몸이 마르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을 속되게 한다. 마른 거야 살찌게 할 수 있지만, 선비의 속됨은 고칠 수 없네. [可使食無肉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 人瘦尚可肥 俗士不可醫]” 하였다.

742 추방된 …… 깨었노라 : 초(楚)나라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에 “세상은 모두 혼탁한데 나만 홀로 맑고, 사람들 모두가 취했는데 나만 혼자 깨었는지라, 그래서 조정에 서 쫓겨났다. [舉世皆濁我獨清 衆人皆醉我獨醒 是以見放]”는 말이 나온다.

무진아회

武珍雅會

推戶春風對朝暉 문을 열고 봄바람에 아침햇살 맞으며
堪嘆世道轉迷微 세도가 더욱 미미함을 탄식한다
此身今作如龍蝥 이 몸은 이제 용처럼 칩거해도
遠志終看伴鵠飛 원대한 뜻은 고니와 함께 비상하리
愛酒病猶難廢飲 술병 들어도 음주 폐하기 어렵고
畏寒春亦欲重衣 추위가 두려워 봄에도 겹옷 입는다
烏啼狐哭盈天地 까마귀와 여우 울음 천지에 가득하니
孰有同車惠好歸 누가 나와 같이 수레 타고 돌아갈까⁷⁴³

743 까마귀와 …… 돌아갈까 : 『시경』 「패풍(邶風)」 북풍(北風)에 “붉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검지 않다고 까마귀가 아니라.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이와 손잡고 한 수레 타고 가리라. [莫赤匪狐 莫黑匪烏 惠而好我 携手同車]”고 한 데서 온 말로, 이 시에서 까마귀와 여우는 불길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표현한 것이다.

벽초 손평기의 장원에서 작은 모임

孫碧初庄小集 坪琦

奠居非水亦非山 사는 곳은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라
瀟灑數椽城市間 성시 사이 소쇄한 몇 칸 집이라네
三尺琴能酬世劇 삼척 거문고로 세상의 번잡 응수하고
一篇詩可取心閒 한 편의 시로 마음의 한가함 취한다
野蔬甘輒香開胃 달고 연한 채소 향기 위를 열어주니
花釀紅濃笑對顏 꽃을 빚은 붉은 술⁷⁴⁴ 웃으며 마주한다
烟雨沈沈迷去路 연우가 침침해 가는 길 아득한데
多君如鳥自知還 그대는 새처럼 돌아올 줄 아누나

744 붉은 술[紅濃] : 이하(李賀)의 「장진주(將進酒)」에 “우리 술잔에 짙은 호박빛, 술통에서 흐르는 술이 진주처럼 붉구나. [琉璃鍾琥珀濃 小槽酒滴真珠紅]”라고 하였는데, ‘홍농(紅濃)’은 이 구절에서 나온 것이다.

무진음사의 벗과 석헌정에서 노닐다

與武珍社友遊石軒亭

| | |
|---------|-------------------|
| 武珍會事於此成 | 무진의 모임 여기에서 이루니 |
| 風雨乾坤話太平 | 비바람 천지에 태평을 말한다 |
| 祇爲淋漓翰墨醉 | 다만 흥건한 한묵에 취할 뿐 |
| 渾忘喧擾悴榮情 | 어지러운 성쇠의 정은 잊었노라 |
| 霖淫流水軒頭拍 | 장맛비에 유수는 정자를 치고 |
| 谷邃幽花葉底明 | 깊은 골에 그윽한 꽃잎 밝기만 |
| 窈窕一區天借假 | 고요한 한 구역 하늘이 빌려주니 |
| 經三百歲保家聲 | 삼백 년간 가문의 명성 보존했네 |

녹천 임동한을 애도하다

輓林綠泉 東翰

| | |
|-------|------------------------------|
| 如今誰守眞 | 이제 누가 진경을 지킬까 |
| 癯鶴自清新 | 마른 학이 절로 청신하거늘 |
| 煮石通神子 | 백석 삶아 ⁷⁴⁵ 신명에 통했고 |
| 運籌玩世人 | 책략 운용하며 세상을 희롱했다 |
| 箴規堪起敬 | 잠규는 공경을 일으켰지만 |
| 生計每淹貧 | 생계는 늘 가난 속에 |
| 有志終難就 | 뜻을 끝내 성취 못하니 |
| 恨深荒原濱 | 황량한 들판에 한만 깊구나 |

745 백석 삶아 : 당(唐)의 시인 위응물(韋應物)의 시 「기전초산중도사(寄全椒山中道士)」에 이르기를 “계곡에서 빨나무를 해서, 돌아가 백석을 삶겠지. [澗底束荊薪 歸來煮白石]” 하였다. 백석은 도사들이 먹는다는 광물 이름이다.

방산이 보내준 술에 사례하다 절구 4수 당시 화순 군수였다
謝方山送酒 四絕 時爲和順倅

1

獨坐無聊裡 홀로 무료하게 앉았다가
忽聞剝啄聲 문득 문소리를 들었다
呼童推戶看 아이 불러 문을 여니
知自方山兄 방산 형이 보내왔구나

2

貧屋有何酒 가난한 집에 술이 있으랴만
癡心思灌腸 어리석은 마음에 음주를 생각했다
白衣使者至 백의의 사자⁷⁴⁶가 이르러서
開甕發清香 옹기를 열어 보니 청향이 인다

3

醉醒吾有石 내게 취석⁷⁴⁷과 성석 있으니
箕坐一彈琴 발을 뻗고 앉아 고를 뜯는다
宇宙如斯闊 우주가 이처럼 광활하니
誰能知我心 누가 나의 마음을 알리요

746 백의의 사자 : 술을 가져온 하인을 가리킨 말이다. 진(晉)나라 때 도잠(陶潛)이 9월 9일에 술이 떨어져 술 생각이 간절하던 차, 강주자사(江州刺史) 왕홍(王弘)이 흰옷 입은 사환(使喚)을 시켜 술을 보내준 데서 나온 말이다.

747 취석(醉石) : 취석은 여산(廬山) 앞을 흐르는 강물 가운데 있는 반석으로, 진(晉)나라 도연명(陶淵明)이 술에 취하여 이 바위에 누워 잤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朱子語類』 卷138

4

況今至再度
一惠亦爲誠
縱愧淵明趣
難忘太守情

하물며 이제 두 번째 선물
한 번의 은혜도 정성이거늘
도연명의 흥취엔 부끄러우나
태수의 정을 잊기 어려워라

술재가 보내준 부채에 사례하다 절구 2수

謝述齋惠扇 二絶

1

| | |
|-------|-----------------------------|
| 歲歲火炎節 | 해마다 무더운 계절이면 |
| 汗流渾浹衣 | 땀이 온통 옷을 적신다 |
| 何當箕大得 | 언제 커다란 부채를 얻어 |
| 扇彼夏畦爲 | 저 여름 밭에 ⁷⁴⁸ 부쳐줄까 |

2

| | |
|-------|----------------|
| 合竹品之貴 | 합죽선은 귀한 품목 |
| 熨紋八節枝 | 여덟 가지에 문양이 고르다 |
| 題詞意自好 | 제사의 뜻도 절로 좋으니 |
| 我可作箴詩 | 내 잠언의 시로 삼으리라 |

748 여름 밭에 : 원문은 하휴(夏畦). 『맹자』 「등문공하(滕文公下)」에 “어깨를 웅크리고 아침 하며 옷는 것은 여름에 밭일하는 것보다도 고된 일이다. [胛肩諂笑 病于夏畦]”라고 하였다.

우연히 읊다

偶吟

誰道春風擇後先 누가 춘풍이 선후를 가린다 말하나
氤氳大氣四時連 화락한 대기는 사시에 이어진다
眞知微息容無地 참으로 잠간의 멈춤도 없나니
終是茲生信有天 끝내 하늘이 이를 생성한 것
談史千篇難見效 천편 사책도 공효(功效) 보기 어려우니
憶親中夜不成眠 한밤 부모 생각에 잠 못 이룬다
邇來忽作非非想 근래에 문득 비비상⁷⁴⁹을 지었다가
還伴莊周栩栩焉 또 장주를 짝하여 나비를 꿈꾼다

749 비비상 : 비상비비상천(非想非非想天). 무색계(無色界)의 제4천으로, 삼계(三界)의 여러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 여기에 나는 사람은 번뇌(煩惱)를 떠났으므로 비상이라 하나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으므로 비비상이라 이름.

이화서 신도비 건립을 듣고 느낌이 있어 읊다

聞李華西神道碑建立感吟

| | |
|---------|-----------------------------------|
| 藥溪滾滾四山青 | 벽계는 흐르고 사산은 푸르니 |
| 今古何人不忘形 | 고금의 누가 외형 잊지 않았던가 |
| 飛鳥哀鳴說遺跡 | 비조는 슬피 울며 유적을 설하고 |
| 穹碑屹立格英靈 | 둥근 비 우뚝 서니 영령이 오신다 |
| 薰陶多士邦猶賴 | 선비들 훈도하여 나라가 의지했고 |
| 發破群蒙世自醒 | 몽매를 깨우쳐 세상이 밝아졌다 |
| 一瓣心香要拜謁 | 한번 심향 ⁷⁵⁰ 마련해 배알하러니 |
| 脩程幾問短長亭 | 긴 여정 단정과 장정 ⁷⁵¹ 은 얼마인고 |

750 심향(心香) :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르는 향을 이른다.

751 단정(短亭)과 장정(長亭) : 단정과 장정은 옛날 행인을 위한 휴게소나 전별의 장소로 사용되던 정자이다. 성 밖의 대로변에 5리마다 단정을, 10리마다 장정을 두었다.

해관 송경섭을 애도하다 절구 3수

輓宋海觀 璟燮 三絶

1

| | |
|---------|--------------------------------|
| 忠剛節義史書傳 | 충강 ⁷⁵² 의 절의 사서에 전하고 |
| 子姓振振數萬千 | 자손은 수없이 번창했다 |
| 山水毓英年五百 | 산수가 영재 기른 지 오백년 |
| 輸忠盡孝孰能肩 | 충효를 다했으니 누가 견주랴 |

2

| | |
|---------|---------------------------------|
| 海觀自是早蜚英 | 해관은 일찍부터 영명을 드날려 |
| 論國政時一擅名 | 국정을 논할 때 명성을 독점했다 |
| 晚托華扁伯休術 | 만년엔 화편과 백휴 ⁷⁵³ 에 의탁해 |
| 回春妙劑濟蒼生 | 회춘의 묘제로 창생을 구제했다 |

3

| | |
|---------|------------------|
| 枉駕弊廬感厚情 | 도타운 정으로 초가를 찾아 |
| 殷勤激勵使人醒 | 은근한 격려로 저를 일깨웠다 |
| 泉臺應見吾先子 | 황천에서 우리 선친 만나실 터 |
| 傳我如今尚不明 | 저는 지금도 우매하다 전해주오 |

752 충강 : 충강공 송간(宋侃, 생물년 미상)을 말한다. 본관은 여산(礪山), 호는 서재(西齋)이고, 시호는 충강(忠剛)이다. 단종 때 형조참판을 지냈다. 단종을 위해 3년 상을 치렀다. 좌참찬에 추증되었고, 흥양(興陽)의 세충사(世忠祠)와 고흥(高興)의 서동사(西洞祠)에 배향되었다.

753 화편(華扁)과 백휴(伯休) : 의술을 말한다. 화편은 옛날의 명의(名醫)인 화타(華佗)와 편작(扁鵲)을 가리킨다. 백휴는 후한(後漢) 한강(韓康)의 자(字)이다. 장안(長安)의 저갓거리에 몸을 숨기고 30년 동안 똑같은 값으로 약을 팔아 생활하였다. 후에 패릉(霸陵)의 산속에 숨어 조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後漢書』 권113

절산에서 문우계를 뒀다

節山修文友契

| | |
|---------|-------------------------------------|
| 天借吾生一日遊 | 하늘이 우리 삶에 하루 유람 허여하니 |
| 騷人清興在清秋 | 시인의 청흥이 맑은 가을에 있구나 |
| 韓歐文藻難參列 | 한구 ⁷⁵⁴ 의 문채엔 참여하기 어려우나 |
| 夷惠襟期肯讓頭 | 이혜 ⁷⁵⁵ 의 지취(志趣)야 어찌 양보하라 |
| 蟹味勝於樽味烈 | 게 맛은 짙은 술맛보다 더하고 |
| 雁聲時與笛聲流 | 기러기 소리는 피리와 함께 흐른다 |
| 誰招曉老魂爲主 | 누가 효당의 혼을 불러 주인 삼을까 |
| 每到斯筵淚不收 | 매번 자리에 오면 눈물을 거둘 수 없네 |

754 한구(韓歐) : 문장으로 이름난 당(唐)나라 한유(韓愈)와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를 말한다.

755 이혜(夷惠) : 백이(伯夷)와 유하혜(柳下惠)를 가리킨다. 『맹자』 「만장하(萬章下)」에 “백이는 성인 중의 맑은 분이요, 유하혜는 성인 중의 화한 분이다. [伯夷 聖之清者也 柳下惠 聖之和者也]”라고 하였다.

산사를 유람하다

遊山寺

| | |
|---------|----------------------|
| 吾輩遊無擇暑寒 | 우리의 유람 한서를 가리지 않으나 |
| 金剛自悔未曾看 | 일찍 금강산 보지 못해 후회스럽네 |
| 每沈城市容身窄 | 매번 성시에 묻혀 몸둘 곳도 좁으니 |
| 一上雲臺縱目寬 | 한번 운대에 올라 마음껏 바라본다 |
| 誰鑿靈芝荷藤網 | 누가 영지를 캐러 등망을 졌는가 |
| 鳥迎來客語松欄 | 새는 손님 맞아 솔 난간에서 지저귐다 |
| 老僧亦有慇懃意 | 노승 또한 은근한 뜻이 있는 듯 |
| 說妙談玄爽肺肝 | 현묘한 도리 설하매 가슴이 상쾌하다 |

유석 유검중을 애도하다

輓柳維石 謙重

| | |
|---------|--------------------|
| 萬竹叢中一洞開 | 만 그루 대숲에 고을이 열리니 |
| 江流逶迤嶂巖崑 | 강물은 흐르고 산은 높이 솟았다 |
| 床頭書史證先業 | 책상의 서사는 선업을 증거하고 |
| 花下釀尊留客杯 | 꽃 아래 술 단지는 객을 만류한다 |
| 遊踏湖山千里盡 | 호산 천리를 두루 유람하였고 |
| 費吟蟲鳥四時來 | 사시의 조충을 모두 읊었노라 |
| 傷心課月武珍會 | 무진의 월과모임에 상심하나니 |
| 評批詩篇淚幾回 | 시를 비평하며 몇 번이고 울었노라 |

야우정 원운을 차하다

次野憂亭原韻

| | |
|---------|-------------------|
| 誰似當年爲國誠 | 누가 당시 위국의 정성 같으랴 |
| 廢墟多日告堂成 | 오랜 폐허 후에 당을 이루었네 |
| 簷檣瀟灑山增彩 | 소쇄한 처마난간 산색을 더하니 |
| 子姓羹牆此寓情 | 자손은 여기에 사모의 정 부쳤네 |
| 蘭氣怡然濡墨氣 | 난초 향은 흡연히 한묵을 적시고 |
| 鳥聲彷彿讀書聲 | 새소리는 글소리와 어우러졌네 |
| 將要紹述先生志 | 선생의 뜻을 잇고 전수하려면 |
| 休使硯田永輟耕 | 길이 연전의 경작 그치지 말라 |

불란서를 유람하는 금봉을 보내며 계해년(1983)
 送金峰遊佛蘭西 癸亥

湖南藝術冠東邦 호남의 예술은 동방에 으뜸이니
 崔巍并世有許孫 세상에 나란히 허의제 손재형 있었네
 許描山水駕吳道 의제의 산수화는 오도자⁷⁵⁶ 능가하고
 孫工草隸逼右軍 손재형 초예는 우군⁷⁵⁷을 필박하네
 君能拔俗從爲師 그대는 세속에 빼어나 스승 삼으니
 操戈入室自成文 창을 잡고 입실하여 문채를 이루었다
 佛蘭西隔幾萬里 불란서는 몇 만 리 떨어져 있는고
 俗尙古雅欽我韓 풍속이 고아하여 우리나라 흠모하네
 渠以招待券送之 저 나라에서 초대권을 보내주니
 爲展東洋圖書眞 동양 서화의 진수를 전시하려네
 君今空航路上去 그대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浩浩彷彿挾飛仙 호연히 신선을 끼고 나는 듯
 願君歷覽西方盡 그대 서방을 두루 편력하길 원하니
 使我臥聞殊俗全 나로 하여금 누워서 타국의 풍속 듣게 하라
 老母稚子滿在堂 노모와 치자가 집에 가득 기다리니
 慎勿多時倚閨門 삼가 어머니를 기다리게 하지 말라⁷⁵⁸

756 오도자 : 양적(陽翟) 사람으로 당(唐)나라 때 화가이다. 황노도학(黃老道學)을 믿었기 때문에 '도현(道玄)'으로 개명했다고 한다. 후세에 중국 산수화(山水畫)의 조사(祖師)로 받아들여지며 그를 존경하여 '오생(吳生)', 혹은 '화성(畫聖)'이라고 일컫는다.

757 우군 : 진나라의 명필 왕희지를 말한다. 우군장군을 지냈기 때문에 왕우군이라고 부른다.

758 기다리게 하지 말라 : 원문은 의려(倚閨)로서, 부모가 멀리 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말한다. 전국시대 왕손가(王孫賈)가 나이 15세 때 민왕(閔王)을 섬기던 중 왕이 달아나서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그러자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면 나는 ‘대문에 기대어서[倚閨]’ 바라보았고, 네가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마을 문에 기대어서[倚閨]’ 바라보았다. 그런데 너는 지금 왕을 섬기다가 왕이 달아나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돌아왔는가.” 한테에서 나온 말이다. 『戰國策』「齊策下」

소성장에서의 모임

小醒庄雅集

| | |
|---------|----------------------|
| 幾嘆而今吾道微 | 오도의 쇠미(衰微)를 얼마나 탄식했나 |
| 意中人是曉星稀 | 그리운 사람 새벽별처럼 드물다 |
| 每思夢寐猶連袂 | 늘 몽매에도 모임을 생각했더니 |
| 忽見招書忙振衣 | 홀연 초대장 보고 바삐 옷을 튄다 |
| 鷗鷺多情締盟集 | 구로는 다정히 맹약하러 모이는데 |
| 林花底事入尊飛 | 숲의 꽃은 어이타 술동이에 지는가 |
| 主翁小醒眞爲貴 | 주인翁의 소성의 뜻 참으로 귀하니 |
| 何不同車惠好歸 | 어찌 좋은 입과 함께 가지 않으리 |

덕촌서실에 쓰다 을축년(1985)

題德村書室 乙丑

| | |
|---------|---------------------|
| 金氏何年卜此中 | 언제 김씨가 이곳에 복거했나 |
| 吾坊文學莫爭雄 | 우리 고을 문학은 견줄 수 없나니 |
| 胸懷曠漠金湖闊 | 넓은 흥회는 금호처럼 넓고 |
| 志氣崢嶸冠嶽崇 | 높은 지기는 관악처럼 우뚝하다 |
| 世路備經知險易 | 세로를 모두 겪어 험이를 알고 |
| 案書看盡達通窮 | 서책을 두루 보아 궁통을 통달했다 |
| 眼前今日如君少 | 금일 눈앞에 그대 같은 이 적으니 |
| 修德孜孜保我衷 | 부지런히 덕을 닦아 윤리를 보존하라 |

제군의 내방에 사례하다

謝諸君來訪

| | |
|-------|-------------------------------|
| 衰年懷人深 | 노년엔 사람이 그리운 법 |
| 況復歲暮節 | 하물며 세모의 계절이라 |
| 諸君能爲我 | 제군이 능히 나를 위해 |
| 慇懃來不絕 | 은근히 끊지 않고 오누나 |
| 能來非爲我 | 오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오 |
| 持身以規律 | 규율로 몸가짐을 할지니 |
| 在家盡孝友 | 가정에서 효우를 다하고 |
| 對人戒驕溢 | 남에겐 교만을 경계하라 |
| 全我天賦性 | 천부의 성품 온전히 하여 |
| 勿爲外物屈 | 외물에 굴복하지 말지어다 |
| 世波一以掀 | 세파가 항상 흔들어 대니 |
| 吾道危如綴 | 오도는 철류 ⁷⁵⁹ 처럼 위태롭네 |
| 數三諸君子 | 여러 군자들이여 |
| 猶不忘舊日 | 여전히 옛날을 잊지 않으니 |
| 浮沈城市塵 | 성시의 티끌에 부침하는 |
| 愧我衰朽質 | 노쇠한 이 몸이 부끄럽네 |
| 寒窓獨塊坐 | 한창에 홀로 앉았노라니 |
| 何以答密勿 | 어떻게 간곡한 정성 보답할까 |

759 철류(綴旒) : 나라의 형세가 매우 위태한 상황을 비유함. 류(旒)는 관상(冠上)에 드리운 구슬로서 관에 달린 것인데 그것이 끊어져 떨어지기 쉬운 까닭으로 일컫는 말이다.

서재에서 회포를 쓰다

齋居書懷

| | |
|---------|------------------------------------|
| 兩鬢蕭蕭又歲初 | 성근 귀밑머리 또 새해를 맞으니 |
| 縱疎生計志饒餘 | 생계는 소탈하나 뜻만은 넉넉하네 |
| 聞韶夫子能忘肉 | 소를 듣고 부자는 고기 맛 잊었으니 ⁷⁶⁰ |
| 彈鋏馮驩愧嘆魚 | 검을 치던 풍환의 한탄 ⁷⁶¹ 부끄럽네 |
| 刻苦做工要自實 | 각고의 공부는 스스로를 채우는 것 |
| 紛紜營事竟歸虛 | 분분히 경영하는 일은 끝내 헛되나니 |
| 欲通天下無窮理 | 천하의 무궁한 이치를 통달하려거든 |
| 經史孜孜讀五車 | 부지런히 오거의 경사를 읽을지어다 |

760 고기 맛 잊었으니 : 공자(孔子)가 일찍이 제(齊)나라에서 순(舜)임금의 음악인 소악(韶樂)을 들어보고는 진선진미(盡善盡美)함을 느낀 나머지 그 후 '석 달 동안이나 고기 맛을 잊어버리고[三月不知肉味]' 감탄하여 이르기를, "순임금의 음악이 이 정도까지인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不圖爲樂之至於斯也]"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論語』「述而」

761 풍환의 한탄 : 전국시대 제(齊)나라 풍환(馮驩)이 맹상군(孟嘗君)의 식객(食客)이 되었을 때, 밥상에 고기반찬이 없자 장검의 칼자루[長鋏]를 두드리면서 "장검이며 돌아가자, 밥상에 고기가 없구나. [長鋏歸來乎 食無魚]"라고 노래했다는 고사가 있다. 『戰國策』「齊策4」

회포를 써서 우인에게 주다

與友人書懷

萬端千緒孰增刪 천만 가지 단서를 누가 더하고 깎으랴
剛喜簞瓢陋巷顏 안자의 누항의 단표⁷⁶²를 기뻐한다
勤拾絮花陶五柳 도연명은 버들 꽃 부지런히 주웠고
雙穿蠟屐謝青山 사령운은 납극으로 청산에 올랐네
看書暇候茶烹烈 독서의 여가에 차 끓는 것을 살피고
作賦餘憐筆意閒 시부를 지으면 한가한 뜻 어여쁘다
葉底猶留春色在 잎사귀에 아직 봄빛이 남아있으니
爲籌觴數折枝還 잔 수를 세려고 가지 꺾어 돌아오네

762 누항의 단표 : 공자가 그 제자 안연(顔淵)을 두고 “어질다, 안회여, 한 그릇의 밥과 한 표 주박의 음료로 누항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움을 변치 않으니, 어질다, 안회여. [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라고 하였다. 『論語』「雍也」

장산의 모임에서 읊다

章山會吟

| | |
|---------|-------------------|
| 風雨乾坤此獨清 | 비바람 천지에 이곳만 청정하니 |
| 欣欣鷄犬亦無驚 | 계견도 흥흥하여 놀라지 않구나 |
| 似迎佳客黃花笑 | 가객을 맞이하듯 국화는 피었고 |
| 爲滌煩襟小澗鳴 | 번뇌를 세척하는 개울의 물소리 |
| 塵事正違承誨志 | 세속의 일로 훈도의 뜻 어겼으니 |
| 瓣香纔展隔年情 | 향을 살라 격년의 정을 펼친다 |
| 洋洋絃誦盈于耳 | 양양한 현가 소리 귀에 가득하니 |
| 彷彿春風坐魯城 | 봄바람에 노성에 앉아 있는 듯 |

금초의 별장에서야 아회 병인년(1986)
金樵庄雅會 丙寅

| | |
|---------|----------------------|
| 樓亭瀟灑竹林間 | 죽림 사이에 소쇄한 누정 |
| 到此何人不怡顏 | 여기 오면 누군들 기쁘지 않으랴 |
| 堆書磊落成高阜 | 쌓인 책들은 높은 언덕 이루었고 |
| 聚石凹尖作小山 | 모은 돌은 울퉁불퉁 작은 산이 되었네 |
| 翁鍊斯心老逾壯 | 옹은 마음 수련해 늙어 더욱 씩씩한데 |
| 彼隨混世去無還 | 저들은 혼탁한 세상 따라 가버리네 |
| 名園恐有雌黃客 | 명원에 시비하는 길손 있을까 하여 |
| 天遣閒雲擁鐵關 | 하늘이 구름으로 철관을 만들었네 |

자상 정연태에게 주다

贈鄭子相 然台

| | |
|-------|-------------------------------|
| 君自成童時 | 그대는 성동일 때부터 |
| 志學已從我 | 학문에 뜻을 두고 나를 따랐다 |
| 英悟而卓犖 | 영특하고 탁락하여 |
| 孜孜可成器 | 열심히 그릇을 이룰 만하였다 |
| 中爲風浪泊 | 중간에 풍랑에 휩쓸려 |
| 蹉跎心中事 | 심중의 일이 어긋나서 |
| 或在邊方戍 | 혹은 변방에서 수자리 하고 |
| 且寄食小吏 | 또한 작은 관리로 기식하였다 |
| 歷險又經苦 | 험난함과 괴로움 겪으며 |
| 嘗盡世間味 | 세간의 맛을 다 맛보았다 |
| 有志活人方 | 사람 살리는 의술에 뜻을 두니 |
| 古今幾多士 | 고금에 몇이나 있는고 |
| 伯休不貳價 | 백휴 ⁷⁶³ 는 값을 속이지 않고 |
| 隱于成都市 | 성시에 은거하였으며 |
| 范公有大志 | 범중엄은 큰 뜻을 두어 |
| 旦暮禱于社 | 조석으로 (명상이 되게 해달라고) 토지신께 기도했다 |
| 君今業刀圭 | 이제 군은 도규를 업으로 하니 |
| 可伸男兒志 | 남아의 뜻을 펴리로다 |
| 藥以濟人命 | 약으로 인명을 구제하고 |

763 백휴(伯休) : 후한(後漢) 한강(韓康)의 자(字)이다. 장안(長安)의 저갓거리에 몸을 숨기고 30년 동안 똑같은 값으로 약을 팔아 생활하였는데, 아녀자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진 것을 알고는 패릉(霸陵)의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조정의 부름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後漢書』 卷113

| | |
|-------|------------------------------|
| 行以範塵世 | 행실은 세속의 모범이 될지니 |
| 昔有衛武公 | 옛날 위나라 무공은 ⁷⁶⁴ |
| 銘戒在左右 | 훈계를 새겨 좌우에 두고 |
| 抑詩日日誦 | 「억」시를 날마다 음송하니 |
| 正當九十歲 | 나이가 정히 90세일 때라 |
| 況是青春年 | 하물며 청춘의 나이에 |
| 豈曰吾己至 | 이미 충분하다 말할 수 있으랴 |
| 任重且道遠 | 책임은 무겁고 길은 먼니 ⁷⁶⁵ |
| 何不加弘毅 | 어찌 홍의를 더하지 않으랴 |

764 위나라 무공은 : 춘추시대 위(衛)나라 무공(武公)은 나이 아흔아홉에도 오히려 나라에 경계하여 “조정의 모든 신하들은 나를 늙었다고 버리지 말고 반드시 조정에서 나를 공경하여 서로 경계하라.” 하고 억계시(抑戒詩)를 지었다고 한다. 『國語』, 『楚語』

765 책임은 …… 먼니 : 『논어』 「태백(泰伯)」에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선비는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되니 책임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仁)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으니 또한 막중하지 않은가.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니 또한 멀지 않은가.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하였다.

제군에게 보여주다

贈示諸君

| | |
|-------|--------------------|
| 人生天地間 | 천지 사이에 사람의 삶이란 |
| 渺然一粒粟 | 한 톨의 낱알처럼 미미하니 |
| 忽忽百年身 | 백년의 몸도 홀연히 흘러 |
| 疾如駟過隙 | 문틈을 지나는 사마처럼 빠르다네 |
| 幼有不省事 | 어려서는 철이 없으며 |
| 老自無矍鑠 | 늙어서는 기운이 없고 |
| 或有疾病時 | 혹은 질병에도 걸리니 |
| 豈可虛渡日 | 어찌 헛되이 날을 보내랴 |
| 世間無數人 | 세상의 무수한 사람이 |
| 無不自校學 | 모두 학교에서 배우나니 |
| 讀書要志篤 | 독서엔 뜻이 돈독해야 하고 |
| 在官期心白 | 관직에선 마음이 청백(清白)해야지 |
| 爲商不貳價 | 장사를 할 때는 값을 속이지 말고 |
| 力農隨地質 | 농사에 힘쓸 땐 토질을 따르며 |
| 事親如奉玉 | 아버이 섬김은 옥을 받들 듯 |
| 左右竭其力 | 좌우에서 그 힘을 다할지니 |
| 訓兒勿誇獎 | 아이 훈도는 지나친 장려 말고 |
| 只可從淳實 | 순박함과 성실을 따르게 하여 |
| 堂堂六尺身 | 당당한 육척의 몸이 |
| 俯仰不愧忤 | 천지간에 부끄러움 없기를 |

김수당의 청장에 쓰다

題金守堂清莊

| | |
|---------|--------------------|
| 漢拏崔嵬可接天 | 한라산은 높아 하늘에 닿을 듯 |
| 奠居於此幾經年 | 이곳에 거주한 지 몇 해인가 |
| 吟詩緩賞千疇橘 | 시 읊으며 천주의 곶을 완상하고 |
| 弄笛暗吹一壑烟 | 피리 불면 골짜기의 안개 날린다 |
| 每守矩規遵祖業 | 늘 법도 지키며 선조의 업 따르고 |
| 不求聞達絕塵緣 | 진연 끊어 영달을 추구하지 않네 |
| 盈庭玉樹珊珊立 | 뜰 가득 옥수가 밝게 섰으니 |
| 完福如翁孰有先 | 수당옹의 완복을 누가 앞서랴 |

백자춘 은기가 정묘년(1987) 하력 2월 초1일에 근연을 차렸기에 12운
을 지어서 주었다

白子 春殷 基以丁卯夏曆二月初一日設筵筵故爲構十二韻以贈之

| | |
|-------|-------------------|
| 人誰不爲昏 | 누군들 결혼을 앓으랴 |
| 於君期爲大 | 군에게 기대가 크나니 |
| 順吾成德處 | 성인의 덕을 따라서 |
| 棄吾幼少志 | 나의 어린 뜻을 버리랴 |
| 父母俱安在 | 부모가 함께 편안하고 |
| 兄弟亦無故 | 형제 또한 무고하니 |
| 當此衰微日 | 이런 쇠미한 날에 |
| 有意儒學界 | 유학계에 뜻을 두었다 |
| 儒是非固陋 | 유학은 고루하지 않으니 |
| 要需人事 | 인세의 일에 필요한 것 |
| 己閱古今書 | 이미 고금의 서책 열독했고 |
| 又通東西語 | 또한 동서의 말에 능통하니 |
| 鵬欲飛長天 | 봉새처럼 장천을 날겠고 |
| 驥將發遠道 | 천리마처럼 먼 길을 달리리라 |
| 世間事無數 | 세간의 일은 무수하나 |
| 皆是吾度內 | 모두 나의 마음에 있나니 |
| 宇宙億萬年 | 우주 억만년에 |
| 此身豈可再 | 이 몸을 어찌 다시 얻으랴 |
| 守承賦畀重 | 부여받은 소중함을 지켜 계승하고 |
| 善養浩然氣 | 호연지기를 잘 기르랴 |
| 若有一刻放 | 일각이라도 방심하면 |
| 便見千仞墮 | 천길 나락으로 떨어질 터 |

願君更努力
滌盡彼腐敗

원컨대 군은 더욱 노력하여
저 부패를 다 세척할지어다

소암의 장원에 묵다

宿紹菴庄

| | |
|---------|----------------------|
| 霖雨初晴眼界通 | 장마가 개어 안계가 통하니 |
| 油然郊色可占豐 | 유연한 들판 빛은 풍년을 점치겠네 |
| 嚙嚙天外聞賓雁 | 하늘 밖엔 기러기 소리 들리고 |
| 唧唧簾間感候蟲 | 발 사이엔 풀벌레를 느낀다네 |
| 好話開心聽不塞 | 좋은 얘기 마음 열고 귀도 트였건만 |
| 塵喧聒耳漠如聾 | 세속의 시끄러운 소리는 못들은 척 |
| 那將斯會吟詩已 | 어찌하면 이 모임의 시 읊기를 마치고 |
| 相與箴規保始終 | 서로 경계하며 시종을 보존할까 |

망양정에 쓰다

題望洋亭

| | |
|---------|----------------------|
| 一嘯天風上石臺 | 하늘바람에 휘파람 불며 석대에 오르니 |
| 憑眸無際起余懷 | 끝없는 전망이 나의 회포 일으킨다 |
| 南臨城府魚鱗錯 | 남쪽 성부 굽어보니 고기비늘 섞인 듯 |
| 西望漢山鷺翼擡 | 서쪽 한산 바라보니 독수리가 비상한다 |
| 日月雙輪激蕩矣 | 일월이 두 바퀴처럼 격탕하고 |
| 龍鯨百怪浮沈哉 | 용과 고래와 온갖 괴물이 부침한다 |
| 何由徧及施仁術 | 어떻게 두루 인술을 베풀어 |
| 賓服東南道路開 | 동남을 복종시켜 도로를 개통할까 |

학고당 원시에 차운하다

次學古堂原韻

| | |
|---------|--------------------|
| 學古堂年大有功 | 학고당은 당년에 큰 공을 세웠으니 |
| 清明志氣在吾躬 | 청명한 지기를 내 몸에 갖추었다 |
| 遊從師友崇明德 | 사우를 증유하며 명덕을 높였고 |
| 領袖士林禁弊風 | 사림을 이끌며 폐풍을 금지했다 |
| 兄弟連眠長枕上 | 형제는 긴 베개 위 나란히 잠들고 |
| 子孫講禮一堂中 | 자손은 한 당에서 예를 강론한다 |
| 九峯山下清溪上 | 구봉산 아래 청계 가에 |
| 萬福將看永不窮 | 만복이 영원히 무궁하리라 |

관선회 벗들과 대화하다

與觀善諸友共話

與君結社今五載 그대들과 결사한 지 이제 오 년
年年課月講一度 해마다 한 달에 한 번 강론하였다
層屋如斗市中 성시 가운데 작은 집에서
不以寒暑少懈怠 추위와 더위에도 게으름 없었네
咀英嚼實進文詞 꽃과 열매 저작하며 시문을 지었고
開心明目利行事 안목을 밝혀 행사를 이롭게 하였다
際是南風嫋嫋吹 지금 남풍이 산들산들 불어오니
欲將煩惱一滌洗 세속의 번뇌 한번 씻고자
載車煌煌筆墨橐 수레에 황황한 필묵주머니 싣고
佩腰灑灑菖蒲酒 허리엔 칠랑대는 창포주를 찻다
濯纓垂足長江流 장강에 갓끈 씻으며 발을 넣고
餐雲飽霞千峯裡 천봉의 운하를 실컷 마시나니
君笑世間探珠子 우습다 세상의 보물 찾는 이여
輕生入海期欲取 삶을 버리고 바다에 들어 취하려 하네
又肯學彼夜乞哀 어찌 배우랴 야밤에 애걸하여
黃金斗大繫肘後 큰 황금인장 팔꿈치에 차는 짓을
兩玉相磨有何成 두 옥이 부딪치면 무엇을 이루랴
以石攻玉方成器 돌로 옥을 쪼아야 그릇이 되는 법
麗澤相資朋友事 서로 도와 강론함은 봉우의 일⁷⁶⁶
相觀而善守初志 서로 선을 본받아⁷⁶⁷ 초지를 지킬지어다

766 봉우의 일 : 원문은 이택(麗澤)으로, 서로 붙어 있는 두 개의 연못이라는 뜻이다. 봉우 간에 서로 도움을 주며 학문을 토론하고 덕을 닦아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周易』「兌卦象」

767 선을 본받아 : 『예기』「학기(學記)」에 이르기를 “서로 보아서 착해지도록 하는 것을 절차탁마라 한다. [相觀而善之謂摩]” 하였다.

임창섭 군의 새 거처에 쓰다

題林君 昌燮 新居

| | |
|-------|----------------|
| 林氏貫羅州 | 임씨의 관향은 나주로 |
| 名人自不絕 | 명인이 절로 끊임없어 |
| 其麗可千百 | 그 수가 천백을 헤아리니 |
| 散居在八域 | 팔도에 흩어져 살았다 |
| 玉燈山窈窕 | 옥등산은 그윽하고 |
| 程子川屈曲 | 정자천은 구불구불 |
| 其間玉山村 | 그 사이 옥산촌은 |
| 淳風眞可挹 | 순박한 풍속 공경스럽네 |
| 三七戶一里 | 한 마을 스물한 가구 |
| 藹然兄弟若 | 형제처럼 화기애애한데 |
| 君家占一區 | 그대도 한 구역 거주하며 |
| 許我隣居卜 | 나에게 이웃을 허여했네 |
| 年少發奇氣 | 연소한데도 기특한 기개 |
| 學可通數國 | 학문은 몇 나라 통달하여 |
| 可以至百尺 | 백척간두에 이르렀으니 |
| 更進一步力 | 다시 힘써 진일보 할지어다 |

회포를 털어 보내다

遣懷

| | |
|---------|----------------------------------|
| 烟塵漠漠此何時 | 연진이 자욱한 이 시절에 |
| 時誦北風三疊詩 | 때때로 북풍의 삼첩시 ⁷⁶⁸ 를 읊는다 |
| 縱至千顛身益壯 | 천 번 넘어진들 몸은 더욱 굳세니 |
| 那由一飽志終移 | 어찌 한 번 배부름에 뜻을 바꾸랴 |
| 引朝海澗方爲沼 | 바다로 가는 시내 끌어 연못 만들고 |
| 種耐寒松亦補籬 | 세한의 솔을 심어 울타리 채운다 |
| 示我周行君獨在 | 그대 있어 나에게 대도를 보여주니 |
| 舍茲坦坦更何之 | 탄탄한 길을 두고 다시 어디로 가랴 |

768 북풍의 삼첩시 : 『시경』 「패풍(北風) 북풍(北風)」에 이르기를 “북풍은 차갑게 불고 눈은 펄펄 내리도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이와 손잡고 함께 가리로다. [北風其涼 雨雪其
霧 惠而好我 攜手同行]” 하였다. 이는 국가가 위란(危亂)할 때에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난리를 피해 은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삼첩은 세 번 반복하여 부른
다는 것이다.

담대헌에서의 아회

澹對軒雅會

| | |
|---------|-----------------------|
| 天風拂拂馬蹄輕 | 천풍이 불어 말발굽도 가벼우니 |
| 百卉誇紅挾路明 | 길가의 백화는 붉은 빛을 뽐낸다 |
| 官有補資侈瓦甍 | 관에서 보조하여 기와가 화사하니 |
| 軒高澹對繞山城 | 높은 담대헌을 산성이 둘러 안았다 |
| 遺編後學燈前讀 | 후학들은 유편을 등불 앞에서 읽고 |
| 繼述肖孫硯畔耕 | 종손은 계술하여 연전(硯田)을 경작하네 |
| 了忘西疇忙劇事 | 서쪽 들판 바쁜 농사일 다 잊고서 |
| 紆懷吐盡百壺傾 | 백단지 술로 쌓인 회포를 토하노라 |

열강으로 가는 이군실 한영을 보내며

送李君實 漢榮 歸洌江

| | |
|-------|----------------|
| 千里漢陽客 | 천리 길 한양의 나그네 |
| 市塵斗室中 | 저자 티끌 속 작은 집이라 |
| 論懷日欲暮 | 회포 논하매 해가 저무니 |
| 擬作古人風 | 고인의 기풍 진작하고자 |
| 誰言花鳥好 | 누가 화조가 곱다 말하는가 |
| 惻悵難爲吟 | 추창한 마음 읊기 어렵네 |
| 天照一輪月 | 하늘에 둥근 달이 비추어 |
| 明明證此心 | 이 마음을 밝게 증언하네 |

한성에서 한의원을 개업한 군실에게 주다
贈君實開韓醫院于漢城

| | |
|-------|-----------------------------|
| 十載從我遊 | 십 년간 나를 종유하니 |
| 多君眞實志 | 군의 진실한 뜻 가상타 |
| 業在岐伯術 | 기백 ⁷⁶⁹ 의 의술 행하면서 |
| 以儒術爲貴 | 유학을 귀히 여기나니 |
| 余亦一疑之 | 내 한번 의심하였으나 |
| 忽然疑自破 | 홀연 의심을 깬다네 |
| 人亦小天地 | 사람 또한 작은 천지요 |
| 儒術是正氣 | 유술은 바른 기운이니 |
| 人扶中和氣 | 사람이 중화의 기운 부축하면 |
| 天地自能位 | 천지가 절로 제자리에 서리라 |
| 醫疾亦不難 | 질병 치료도 어렵지 않으니 |
| 使氣和順爾 | 기운을 화순하게 할 뿐이라 |
| 若非名賢宰 | 현명한 재상이 되지 못하면 |
| 醫欲名天下 | 의술로 천하에 명성을 떨치라 |
| 賤金貴活人 | 황금이 천하고 활인이 귀하다는 |
| 丁寧古人語 | 고인의 간곡한 말씀을 |
| 銘心且刻骨 | 마음과 뼈에 새기고 |
| 慎守勿輕易 | 삼가 지켜 가볍게 여기지 말라 |

769 기백 : 전설 속의 고대 의학가로 황제(黃帝)의 스승이라고 한다.

척전 이병내의 서실에 쓰다

題李拓田 炳奈 書室

清白使君世世傳 사군의 청백이 대대로 전해져
撫來南土二經年 남녘 땅 다스린 지 이년 여
研深今古臨民史 고금의 임민사⁷⁷⁰를 깊이 연구하고
談盡東西御史篇 동서의 어리편⁷⁷¹을 담론한다
三握幾勞調道政 삼악발하며 도정을 조화하였고
一生當苦拓心田 일생 괴롭게 심전을 개척했네
燕翁本是風流客 연옹계선 원래 풍류객이니
識得荊州似有緣 친분을 맺는 것도⁷⁷² 인연이 있는 듯

770 임민사 : 백성을 다스리는 역사를 말한다.

771 어리편 : 관리를 다스리는 방법을 적은 책이다.

772 친분을 맺는 것도 : 당나라 원종(元宗) 때 사람인 한조종(韓朝宗)이 형주자사일 때 이태백(李太白)이 보낸 편지에 “살아서 만호후에 봉할 것이 아니고, 다만 한 번 한형주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 [生不用封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고 하였다. 『古文眞寶』 「與韓荊州書」

인간의 혼채⁷⁷³는 예나 지금이나 말하는 것이다. 오지헌 대형께 자식 다섯이 있으니 고인의 오악⁷⁷⁴에 견줄 만하다. 병인년(1986) 동짓달에 혼채를 마쳤기 때문에 나의 느낌을 써서 계자 용교와 자부 이영숙의 혼례 잔치에 주다.

人間昏債古今所云也吳志軒大兄有子五人可以比古人之五萼丙寅至月畢債故余感而書贈其季子容教及子婦李英淑壽禮筵

| | |
|-------|------------------|
| 人生天地間 | 사람이 천지간에 살면서 |
| 各有自家事 | 각각 자신의 일이 있으니 |
| 宇內皆吾事 | 천하가 모두 내 일이라 |
| 何不干於己 | 어찌 나와 관계가 없으랴 |
| 兩人今成昏 | 두 사람이 이제 성혼하니 |
| 總是名門子 | 모두 명문가의 자제라 |
| 廿年受撫育 | 이십 년간 교육을 받아 |
| 父母恩爲大 | 부모의 은혜가 크구나 |
| 孝爲百行源 | 효도는 백행의 근원 |
| 怡怡奉親孝 | 기쁘게 어버이를 봉양하라 |
| 今已畢所學 | 이제 이미 배움을 마치고 |
| 還爲人指導 | 타인을 지도하게 되었나니 |
| 君子道雖大 | 군자의 도가 비록 크지만 |
| 必自夫婦始 | 반드시 부부로부터 시작하는 법 |
| 請君日夕戒 | 청컨대 그대는 주야로 경계하여 |
| 相敬如賓待 | 서로 손님인 듯 공경할지어다 |

773 혼채 : 자녀들을 혼인시키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말한다.

774 오악 : 악은 상체의 꽃으로 형제간에 서로 화락한 즐거움을 말한다. 오악은 형제가 다섯이라는 뜻이다. 『시경』에 “상체의 꽃이여, 환하게 아름답지 않은가? 지금의 사람들은, 형제만한 이가 없도다. [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고 하였다. 『詩經』 「小雅 常棣」

김양호에게 수창하다

酬金養浩

| | |
|---------|----------------------|
| 最好衰年聚首遊 | 노년의 모여 늙은 가장 좋은 일 |
| 一堂瀟灑俯清流 | 소쇄한 집에서 청류를 굽어본다 |
| 西山爽氣來簾隙 | 서산의 상쾌한 기운은 발 틈으로 오고 |
| 南極星光耀屋頭 | 남극성 별빛은 처마에 빛난다 |
| 酌酒賦詩拋世務 | 술과 시로 세상사 버리고서 |
| 燒丹種玉受天休 | 연단과 종옥으로 천수를 받는다 |
| 塵間那有長生訣 | 속세에 어찌 장생술이 있으랴 |
| 掃盡胸中萬斛愁 | 흉중의 만곡 시름을 쓸어본다 |

계고회 벗들과 함께 순천, 광양 여러 군을 두루 관광하다
與稽古會諸友歷覽順光諸郡

| | |
|-------|-----------------|
| 瑞石塵中客 | 서석산의 속객이 |
| 驅車七月天 | 칠월의 하늘에 수레를 달린다 |
| 治裝秣馬後 | 행장 꾸리고 말을 먹인 후에 |
| 踏盡一山烟 | 온 산의 운연을 두루 밟았네 |

임청대⁷⁷⁵

臨淸臺

| | |
|-------|----------------|
| 權奸起士禍 | 권간이 사회를 일으켜 |
| 一網打名賢 | 명현을 일망타진하였다 |
| 夫子含鬚處 | 부자께서 수염을 머금은 곳 |
| 溪流咽萬春 | 계류는 만년을 오염한다 |

775 임청대 :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비로, 순천향교에서 소유하고 있다. 연산군 연간에 무오사화 때 김굉필(金宏弼)과 조위(曹偉)가 순천에서 귀양살이를 하던 중 옥천서원 근방의 계곡을 벗 삼아 소일하면서 이곳을 임청대라 한 데서 비롯되었다.

팔마비⁷⁷⁶

八馬碑

| | |
|---------|-----------------------|
| 八馬碑前萬柳低 | 버들이 낮게 드리운 팔마비 |
| 駐車讀盡日將西 | 수레 멈추고 읽으니 해가 진다 |
| 何令今古臨民者 | 어찌하면 고금에 위정자로 하여금 |
| 效我崔公字我黎 | 우리 최공의 백성 사랑함을 본받게 할까 |

776 팔마비 : 고려 말의 청백리 최석(崔碩)의 송덕을 기리는 기념비이다. 1281년(충렬왕 7) 승평부사(昇平府使) 최석이 비서랑(秘書郎)으로 전직하자 마을 사람들은 예전의 관례에 따라 말 8필을 기증하였는데, 최석은 상경 후 기증받은 말 8필과 최석의 암말이 승평부에서 낳은 망아지 1마리를 보태어 9필을 다시 돌려보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뒤부터 부사가 오갈 때의 이런 관폐가 없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그의 송덕을 기려 비를 세우고 이름을 팔마비라 하였다. 그 뒤 정유재란 때 파괴된 것을 1617년(광해군 9) 승주부사 이수광이 복원하였다.

옥류동의 학사대⁷⁷⁷ 백운산 아래에 있다

玉流洞學士臺 在白雲山下

玉流洞裏絕塵埃 티끌이 끊긴 옥류동
學士臺前酌酒杯 학사대 앞에 술잔을 따른다
十載先生攻苦處 십 년간 선생께서 공부하시던 곳
匡山鐵杵共崔嵬 광산의 철저⁷⁷⁸와 함께 우뚝하리라

777 학사대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에 있는 자연 암굴이다. 옥룡천이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있으며,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가 어릴 때 10년 동안 수학한 곳이다. 상단에 학사대(學士臺)라는 최산두의 자필 글씨가 새겨져 있고 정자가 세워져 있으며 현판(懸板)이 걸려있다.

778 광산의 철저 : 철저마침(鐵杵磨鍼)의 고사이다. 이백이 젊었을 때, 사천성(四川省)의 상이산(象耳山)에서 공부하다가 증도에 싫증이 나서 포기해 버렸다. 하산하는 길에 작은 시내를 지나다가 한 할머니가 쇠로 된 절구공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엇하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자, 이 말을 듣고 이백은 느낀 바가 있어 오던 길을 되돌아가 학문에 정진하였다.

봉양사⁷⁷⁹ 광양에 있다

鳳陽祠 在光陽

鬱鬱松森裏

울창한 소나무 숲속에

焚香敬掃埃

분향하며 공경히 티끌을 쓴다

湖南多小傑

호남의 많은 영걸이

於此實胚胎

여기서 실로 배태되었나니

779 봉양사 : 광양에 있는 사당으로 최산두(崔山斗) 등을 모셨다.

나주의 다도로 신정 김선곤을 방문했는데 죽파 이상영과 송강과 약헌
김환균이 함께 가서 오언고시 한 수를 지었다

訪金新亭渲坤于羅州之茶道竹坡 李相榮 松岡約軒 金煥均 偕之賦五古
一首

| | |
|-------|---------------|
| 秋風動四野 | 추풍이 사방 들에 일어나 |
| 吹入市中塵 | 저자의 티끌을 휘날린다 |
| 不禁懷寥寂 | 쓸쓸한 마음 금하지 못해 |
| 竟宵憶遠人 | 밤새 먼 사람을 생각한다 |
| 招來三四友 | 몇몇 벗을 초대하여 |
| 百里驅輕車 | 백리길 수레를 달려 |
| 滿院蒼松裏 | 뜰 가득 푸른 솔 속에 |
| 欣然訪隱居 | 흔연히 은거를 찾았네 |
| 黃粱作午飯 | 황량으로 점심을 짓고 |
| 又是剪園蔬 | 또 밭의 채소를 자르니 |
| 吾子慇懃意 | 그대의 은근한 뜻이 |
| 可能敵肉魚 | 능히 어육을 대적하누나 |

방산 대형의 수석에 증정하다

呈方山大兄壽席

丙寅孟春廿一日 병인년 초봄 21일은
方山子值再度壽 방산자가 회갑을 만난 날
兒日上壽翁曰止 자식이 헌수를 옹께서 말리며
伴妻擬探山與水 처와 함께 산수를 찾으려네
君素剛直兼英慧 그대는 평소 강직하고 지혜로워
眼射長庚文夙就 눈은 샛별을 쏘고 문장은 일찍 성취했네
在中央廳十數年 중앙청에 십 수 년 근무하며
謹勤和緩身自治 근근과 화완⁷⁸⁰으로 자신을 다스렸다
臨郡莅市平其政 시군 다스리며 정책을 고르게 펴니
恢恢可作屠龍手 넉넉한 도룡의 솜씨로다⁷⁸¹
始自麟蹄終和順 인제에서 시작하여 화순에서 마치며
忠信爲主民自附 충신을 주장하니 백성이 절로 귀의했다
仁者必壽理自然 인자가 장수함은 자연의 이치이니
何須呼吸山水氣 어찌 꼭 산수의 기운을 호흡하라
青鳥蟠桃共歲華 청조와 반도가 세월을 함께 하고
芝蘭玉樹皆娟秀 지란과 옥수가 모두 곱고 빼어나다
君生先我一日夕 그대는 나보다 하루 먼저 태어났고
君與我親降庚子 그대와 나의 부친은 경자년 동갑이라

780 근근과 화완 : 근신, 부지런함, 화락함, 느긋함을 말한다.

781 도룡의 솜씨로다 : 세상에 발휘하지 못한 채 혼자서 지니고만 있는 특출한 기예를 뜻하는 말이다. 『장자』 「열어구(列御寇)」에 “주평만이 지리학에게서 용 잡는 기술을 배웠는데, 천금의 가산을 다 쏟으면서 삼 년 만에 그 기예를 완전히 익혔지만, 그 기교를 발휘해 볼 곳이 없었다. [朱泮漫學屠龍於支離益 單千金之家 三年技成 而無所用其巧]”라는 말이 나온다.

| | |
|---------|----------------------------------|
| 兩家尊堂今俱沒 | 양가의 존당께서 이제 모두 돌아가셨으나 |
| 吾人敢忘世誼厚 | 우리들이 감히 두터운 세의를 잊을까 |
| 巧值鄙家兒女昏 | 마침 우리 집 자녀의 혼사를 맞아 |
| 賴君主禮行之利 | 그대의 주례로 순조롭게 행했네 |
| 今我雖得周旋好 | 나는 비록 좋은 주선을 얻었으나 |
| 對君盍愧沮遊事 | 그대의 여행을 막아 부끄럽네 |
| 何當畢昏遊五嶽 | 언제 혼사를 마치고 오악을 노닐며 |
| 向禽共期古稀歲 | 상금 ⁷⁸² 처럼 함께 고희를 기약할까 |

782 상금 : 상장(尙長)과 금경(禽慶)을 말한다. 상장은 『주역』을 읽기를 좋아하였는데 「손괘(損卦)」와 「익괘(益卦)」를 보다가 “나는 이미 부귀가 빈천만 못한 줄 알았다. 다만 죽음이 삶과 비교해 어떠한가 알지 못할 뿐이다.” 하였다. 그 후 그는 자녀의 혼사(婚事)를 모두 마치고는 단연코 집을 나와서 벗 금경과 함께 오악(五嶽)의 명산을 유람하면서 여생을 마쳐 그 종적을 알 수 없었다 한다. 『後漢書』 卷83 「逸民列傳」

시거
市居

| | |
|-------|-----------------|
| 僦屋市塵傍 | 저잣거리애 가옥을 빌리니 |
| 隙窓朝受陽 | 창틈으로 아침햇살 받는다 |
| 圓球觀世界 | 원구에서 세계를 보고 |
| 方器替池塘 | 방기로 지당을 대신한다 |
| 貯史夢千古 | 쌓인 사책으로 천고를 꿈꾸고 |
| 插花動暗香 | 꽃을 꽂으니 암향이 풍긴다 |
| 休言耀死後 | 사후에 명예를 말하지 말고 |
| 祇言生前光 | 다만 생전의 빛을 말하라 |

무진의 아회

武珍雅會

| | |
|---------|-----------------------------------|
| 傾耳郢中白雪歌 | 영중의 백설가에 귀를 기울이니 |
| 曲中慷慨一何多 | 곡 중에 비분강개 참으로 많구나 |
| 試看劃策終南客 | 종남산 은자의 계책 ⁷⁸³ 을 한번 보라 |
| 誰若憂邦漆室娥 | 나라 근심하는 칠실의 여인과 어떠한가 |
| 種德勝于種瓊玉 | 덕을 심음은 경옥을 심는 것보다 낮고 |
| 釣名輸了釣江坡 | 명예를 낚음은 강 언덕 낚시보다 못하나니 |
| 洪流支柱男兒事 | 홍류의 지주 ⁷⁸⁴ 는 대장부의 일이라 |
| 肯學滔滔逐世波 | 어찌 도도한 세파를 쫓아가겠는가 |

783 종남산 은자의 계책 : 당(唐)나라 때 노장용(盧藏用)은 처음에 종남산(終南山)에 은둔하여 자못 훌륭한 명성이 있었는데 뒤에 나와서 벼슬하였다. 이때 사마승정(司馬承禎)은 천태산(天台山)으로 들어가니, 장용은 종남산을 가리키면서 “여기에도 아름다운 운치가 있는데 굳이 천태산을 찾을 것이 있나?” 하였다. 승정은 웃으면서 “내가 보기에는 종남산은 벼슬의 지름길인 뿐이네.” 하니, 장용은 부끄러워하였다.

784 홍류의 지주 : 황하 한가운데 우뚝이 솟아 있는 돌산으로, 의지가 확고하여 남들의 지주(支柱) 역할을 하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인다.

춘계 유희석을 애도하다

輓柳春溪 浩錫

| | |
|---------|----------------------|
| 承訃不禁一愕然 | 부음을 받고 놀라움 금치 못하니 |
| 幾番回首憶當年 | 여러 번 고개 돌려 당년을 추억했다 |
| 開懷那忘溪山日 | 계산에서 회포 열던 날 어찌 잊으랴 |
| 携手相期雨雪天 | 손을 잡고 눈 내리는 하늘 기약했다 |
| 有廟尊親情自至 | 가묘 세워 존친의 정 절로 지극했고 |
| 貯書垂後意無邊 | 책을 쌓아 후손에게 남긴 뜻 무궁하다 |
| 翁家文獻振南土 | 춘계 옹의 문헌은 남토를 진동하고 |
| 又是琳琅在案篇 | 주옥같은 시편도 책상에 남아있다 |

장산재의 아회

章山齋雅會

| | |
|---------|------------------------------------|
| 窈窕名區可擬仙 | 그윽한 명승지 신선에 견주니 |
| 蒼松翠竹一山邊 | 창송과 취죽이 산 가에 무성하다 |
| 若知閒意雲歸洞 | 한가한 뜻 아는지 구름은 골로 흐르고 |
| 如證道心月滿川 | 도심을 증명하듯 달빛은 시내 가득 |
| 澗梓遺文曾廣布 | 유문을 출간하여 널리 선포했고 |
| 濡毫陳蹟亦高懸 | 서예의 묵은 자취도 높이 걸렸네 |
| 澗蘋采采應百世 | 선명한 시내 마름 ⁷⁸⁵ 은 백세를 가리니 |
| 多士濟躋雁叫天 | 훌륭한 선비들 속에 하늘의 기러기 소리 |

785 시내 마름 : 제수(祭需)를 올려서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시경』 「소남(召南) 채빈(采蘋)」에 이르기를, “개구리밭을 뜯으러 남쪽 시냇가로 가세. 마름풀을 뜯으러 저 길가 도랑으로 가세. [于以采蘋 南澗之濱 于以采藻 于彼行潦]” 하였다.

석헌정의 회화

石軒亭會話

| | |
|---------|-----------------------------------|
| 跨旬霖雨趁朝晴 | 십여 일 장마가 아침에 개이니 |
| 始覺庚炎腋羽輕 | 비로소 복더위의 몸도 가볍다 |
| 松柏中間嵐翠滴 | 송백 사이에 푸른 이내 떨어지고 |
| 烟波十里櫂歌聲 | 연파 십리에 뱃소리 들려온다 |
| 主能厚餉供肥鰾 | 주인은 살찐 쏘가리로 후하게 대접하고 |
| 天借清遊慰老生 | 하늘은 맑은 유람으로 노생을 위로한다 |
| 投轄高風今復覩 | 투할 ⁷⁸⁶ 의 고풍을 오늘에 다시 보니 |
| 一園花石起余情 | 정원의 화석이 나의 정을 일으킨다 |

786 투할 : 수레바퀴의 빗장을 우물에 던지는 행위로서 손님을 돌아가지 못하게 만류하는 정성을 말한다. 한(漢)나라 진준(陳遵)이 손님을 좋아하여 연회가 있을 때면 언제나 수레바퀴의 빗장을 우물에 던져 손님을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漢書』 「陳遵傳」

우인의 유거를 방문하다

訪友人幽居

| | |
|---------|--------------------|
| 松柏青蒼繞古城 | 푸른 송백이 두른 고성 |
| 巍然廟貌住吾行 | 우뚱한 사당에 걸음을 멈춘다 |
| 詩書有得如頻夢 | 시서의 터득은 자주 꿈을 꾸듯 |
| 蠻觸相爭可晦名 | 만촉의 다툼에 이름을 숨겼다 |
| 梧葉飄風辭樹落 | 오동잎은 바람에 나무에서 지고 |
| 砌花迎客入尊明 | 섬돌 꽃은 객을 맞아 술잔에 든다 |
| 誰將漫筆聊題品 | 누가 붓을 잡아 시를 품평할꼬 |
| 萬事人間總世情 | 인간만사가 모두 세간의 정인 것을 |

관해 김영철의 서실에 쓰다

題觀海 金永澈 書室

瑞石山前關一村 서석산 앞에 고을 하나 열려
遠承駕洛有賢孫 현손이 멀리 가락을 이었다
今爲千里登程驥 이제 준마가 천리 길 오르니
更看他年化翼鯤 훗날 비상하는 대붕을 보리라
磊落陳篇鄴侯架 높다란 서책은 업후의 서가요⁷⁸⁷
琳琅玉樹鄧林園 푸른 빛 옥수는 등림⁷⁸⁸의 동산
扁楣觀海寧無意 관해라는 편액에 뜻이 없으랴
終日乾乾覓本源 종일 부지런히 본원을 찾누나

787 업후의 서가요 : 장서(藏書)가 매우 많음을 뜻한다. 한유(韓愈)의 시 「송제갈각왕수주 독서(送諸葛覺往隨州讀書)」에 “업후의 집에서 책이 많아 서가에 삼만 축이 꽂혔지. 일일이 다 상아 찌를 붙였는데 새롭기가 손도 안 댈 것 같다네. [鄴侯家多書 架插三萬軸 一一懸牙籤 新若手未觸]” 하였다. 『古文眞寶 前集』

788 등림 : 도림(桃林)인데, 중국의 전설에 과보(夸父)라는 선인(仙人)이 해를 쫓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죽을 때 지팡이를 던지매 등림이 이룩되었다 한다.

노호 심정섭의 서실에 쓰다

題沈鷺湖禎燮書室

| | |
|---------|----------------------|
| 君家廿世桂山前 | 그대 집은 이십 대를 계산에 살았더니 |
| 渾室曾移瑞石邊 | 온 가족 일찍이 서석으로 옮겼지 |
| 壁掛煌煌遒勁字 | 벽에는 빛나게 굳센 글자 걸렸고 |
| 床堆秩秩古今篇 | 책상에는 가지런히 고금 서책 쌓였네 |
| 榮華眼冷浮雲散 | 영화를 냉안시하니 부운이 흩어지고 |
| 塊磊胸餘寸鐵堅 | 활달한 흥금은 촌철처럼 굳세다 |
| 何可一時心少懈 | 어찌 잠시라도 마음을 게을리하랴 |
| 人生百歲疾如箭 | 백년 인생 화살처럼 빠르거늘 |

김후담의 선정인 영취정의 원운에 삼가 차하다

謹次永翠亭 金厚潭先亭 原韻

栽松種竹翠成林 송죽을 심어 푸른 숲 이루고
一笠孤亭保至今 외로운 정자 지금껏 보존했네
彷彿墨胎雷首下 백이숙제의 수양산 삶⁷⁸⁹과 방불하고
逍遙孔氏北山陰 공치규가 북산음에 소요함⁷⁹⁰ 같네
全忠投絨心應苦 충심 보전하려 투불⁷⁹¹한 마음 괴로웠고
望哭爲壇跡可尋 망곡하며 단을 만든 자취 찾을 수 있네
何用春秋披異曆 어찌 춘추의 세월 감을 알려 하라
杜門抱膝費長吟 두문불출 무릎 안고 장시를 읊노라

789 백이숙제의 수양산 삶 : 백이와 숙제가 고죽국 임금의 두 아들이었는데 주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정벌하자 백이와 숙제가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 숨어 고사리를 캐서 먹고 세상을 마쳤음. 『史記』 「伯夷列傳」

790 공치규가 북산음에 소요함 : 육조(六朝) 때 송(宋)나라의 공치규(孔稚圭)가 주옹(周顛)이 자신과 함께 종산에 은거하다가 벼슬길에 나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종산에다가 이문을 새겨 주옹으로 하여금 다시는 종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였다. 『古文眞寶』 「北山移文」 참고.

791 투불(投絨) : 불(絨)은 벼슬아치의 슬갑으로 벼슬을 그만둔다는 뜻이다.

조근정의 61세 수연을 축하하다

賀曹槿丁六十一壽筵

| | |
|-------|---------------------------|
| 人生宇宙間 | 천지간 사람의 삶은 |
| 泡沫眞可悲 | 포말과도 같아 참으로 슬프니 |
| 直生猶不足 | 곧은 삶도 오히려 부족한데 |
| 罔生何所爲 | 어찌 거짓 삶을 영위하라 |
| 磊落槿丁子 | 뇌락하다 근정자여 |
| 於斯己有知 | 여기에 이미 지혜로웠고 |
| 家且世業儒 | 가문은 대대로 유학자라 |
| 詩禮爲訓規 | 시례를 교훈으로 삼았네 |
| 少日讀古書 | 어릴 때 고서를 읽고 |
| 中年從新馳 | 중년에 신학문으로 달려가 |
| 東西古今史 | 동서고금의 역사를 |
| 胸裏貯蘊之 | 흉중에 가득 쌓았네 |
| 庠序漢字本 | 학교의 한자 책자는 |
| 難高亦難卑 |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서 |
| 句句明彝倫 | 구절마다 이륜을 밝혔고 |
| 字字醒肺脾 | 글자마다 폐부를 일깨웠다 |
| 廣布全韓域 | 나라에 널리 선포하니 |
| 豈尠學界胎 | 학계에 끼친 공 어찌 적으랴 |
| 君子三樂中 | 군자의 삼락 ⁷⁹² 가운데 |

792 군자의 삼락 : 맹자가 말한 세 가지 즐거움으로, 부모가 모두 생존하며 형제가 무고한 것[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二樂也],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得天下英才 而教育之 三樂也]을 이른다. 『孟子』「盡心章上」

人已可庶幾
頤養親在否
在天未可期
王天下之好
與存誰敢希
老子騎青牛
誕辰巧相離
溫溫持身處
是爲德之基
華髮鏡中新
著述案上輝
傲骨凌龜鶴
大踢蹴驥騏
灑灑紫霞杯
遠賀却老衰
努力加餐食
以待河清時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하였으나
늙으신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한가
하늘에 있는 것은 기약할 수 없다네
천하에 왕 노릇 하는 즐거움도
누가 감히 희구할 수 있으랴
노자는 청우를 타고
탄신일에 마침 떨어져 있다네
온화하게 지신하는 것
이것이 덕의 기초라네
화발이 거울 가운데 새롭고
저술은 서안 위에 빛난다
빼어난 기골은 귀학을 능가하고
큰 기개는 천리마를 박차는 듯
넘실넘실 자하주 술잔으로
늙지 않음을 멀리서 축하하네
더욱더 음식을 잘 드시어
황하가 맑은 때를 기다리소

종보의 창간을 축하하다

祝宗報創刊

| | |
|-------|----------------------|
| 我魏自唐來 | 우리 위씨는 당으로부터 왔으니 |
| 經千三百歲 | 천삼백 년이 지났네 |
| 綿連數十世 | 수십 세를 면면히 이어와 |
| 可至數千戶 | 수천 호에 이르렀다 |
| 或以忠直諫 | 혹은 충성으로 직간하였고 |
| 更有文學著 | 다시 문학으로 드러났다 |
| 或得立志節 | 혹은 지절을 세웠으며 |
| 又復達官躋 | 혹은 달관에 올랐다네 |
| 南北各分居 | 남북으로 각각 분거했으니 |
| 那能合一譜 | 어찌 족보를 합칠 수 있었으랴 |
| 幸賴諸宗力 | 다행히 여러 종족에 힘입어 |
| 創刊我宗報 | 우리 종보를 창간하였네 |
| 古人有格言 | 고인의 격언에 말하기를 |
| 合生散則死 | 합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였으니 |
| 相責以謙讓 | 서로 겸양을 질책하며 |
| 嶄新保遠久 | 참신하게 오래도록 보전하라 |
| 懷州汭江上 | 회주의 예양강 강가는 |
| 吾祖發祥地 | 우리 선조의 발상지라 |
| 年年一會首 | 해마다 한 번 모여서 |
| 尊祖薦蘋藻 | 조상을 높이고 제물을 바친다 |
| 相規敦睦誼 | 서로 규약하여 화목을 높이니 |
| 和氣自藹藹 | 화기가 절로 애애하다 |
| 勤儉以縮用 | 근검으로 재용을 아껴서 |
| 育英以濟世 | 인재를 길러 세상을 구제하세 |

여러 벗의 내방을 사례하다

謝諸友來訪

| | |
|-------|---------------------------------|
| 歲暮寒雪天 | 세모의 찬 눈 내리는 하늘 |
| 課年訪陋居 | 해마다 누추한 거처를 찾는다 |
| 斗屋僅容膝 | 무릎을 용납하는 작은 집에 |
| 自愧於世疏 | 세상과 소원함이 부끄럽네 |
| 雖感慇懃意 | 은근한 뜻은 감사하나 |
| 恐費來遠途 | 오는 길 멀어 두렵구나 |
| 處世當勤儉 | 세상살이는 근검해야 하고 |
| 接人常謙虛 | 사람을 접하면 항상 겸허해야지 |
| 有暇看古籍 | 한가할 때 고적을 보는 것은 |
| 我何人不如 | 내가 누구보다 못할까만 |
| 大海涓流始 | 대해도 작은 흐름에서 시작하고 |
| 九仞一簣虧 | 구인의 산도 일궈로 훼손되나니 ⁷⁹³ |
| 少壯須努力 | 젊어서 모름지기 노력하여 |
| 莫使嘆窮廬 | 궁려에서 탄식하지 말지어다 ⁷⁹⁴ |
| 縱氣焰薰天 | 기焰이 하늘에 불타올라도 |
| 竟至成邱墟 | 끝내는 폐허만 이루나니 |

793 일궈로 훼손되나니 : 『서경』 「여오(旅獒)에 이르기를 “아홉 길의 산을 만듦에 공이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는 데서 무너진다. [爲山九仞 功虧一簣]”라고 하였다.

794 궁려에서 탄식하지 말지어다 : 궁려는 궁색한 집이다. 후한(後漢) 제갈량(諸葛亮)이 아들에게 보낸 서찰에서 “나이는 때와 함께 달려가고 뜻은 세월과 더불어 가버려 마침내 노쇠하면 궁려(窮廬)에 슬피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였다. 젊어서 공부하지 않고 노년에 한탄하는 것이다. 『小學』 5卷 「嘉言」

겸정서실에 쓰다

題謙庭書室

| | |
|---------|----------------------|
| 修因山下汭陽濱 | 수인산 아래 예양강가는 |
| 金氏世居號里仁 | 김씨가 대대로 거주하는 이인 마을 |
| 課子孝忠稱楷範 | 아이에게 충효 가르치며 모범되고 |
| 從師文學藏經綸 | 스승 따라 학문하며 경륜을 쌓는다 |
| 誠于敬祖阡要賁 | 정성껏 선조 공경하며 무덤길을 빛내고 |
| 謙以持身行自淳 | 겸손한 몸가짐 행실이 순박하다 |
| 濟急調窮心既篤 | 곤궁을 구휼하는 마음 돈독하여 |
| 溫溫和氣帶三春 | 온화한 봄날의 화기를 지녔다 |

박연정 성배에게 주다

贈朴淵正 性焙

| | |
|-------|-----------------|
| 我昔遊學日 | 내 예전 유학하던 날 |
| 從學非一二 | 학인이 한둘이 아니었다 |
| 曉堂天下士 | 효당은 천하의 선비 |
| 侍側已多歲 | 곁에서 여러 해 모셨으니 |
| 浮槎山亭村 | 별교 산정 마을로 옮겨 오에 |
| 書室小如斗 | 작은 서실 말 같았네 |
| 君欲從之學 | 군도 따라 배우면서 |
| 爲通新舊界 | 신구의 세계를 통하니 |
| 是爲完體將 | 이는 온전한 체재인지라 |
| 曉翁壯之許 | 효당께서 장하다 허여했네 |
| 冬夏放學期 |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도 |
| 孜孜讀不已 | 부지런히 독서하여 |
| 四書與葩經 | 사서와 시문들을 |
| 數歲過眼際 | 몇 년간 섭렵하였네 |
| 每引余之裾 | 매번 나의 소매를 끌고 |
| 彼童聒聒避 | 학동들의 시끄러움 피해서 |
| 或于溪之崖 | 혹은 시내 언덕으로 가거나 |
| 且擇原之底 | 또는 들판으로 갔다네 |
| 晝夜一室中 | 주야로 서실을 함께하며 |
| 訢訢若兄弟 | 형제처럼 화락했네 |
| 時適北侵後 | 때는 마침 북한이 침략 후라 |
| 募軍無老少 | 노소 없이 군을 모집하매 |
| 書朋被拉去 | 글벗도 피랍되어 가니 |

| | |
|-------|-------------------|
| 裹飯供彼囚 | 밥을 싸서 수인에게 제공했다 |
| 君爲印哲學 | 군은 인도철학 전공하러 |
| 渡美留廿載 | 도미하여 이십 년을 머무는 동안 |
| 曉翁棄後生 | 효당께서 후생을 버리시니 |
| 我獨無所恃 | 나는 홀로 의지할 곳 없었다 |
| 留滯與全南 | 뉴욕대학교와 전남대학교 |
| 兩校結姊妹 | 두 학교의 자매결연을 |
| 君能周旋之 | 군이 능히 주선하여 |
| 交換相教授 | 상호 교환교수가 되었네 |
| 何幸好風吹 | 다행히도 좋은 바람 불어 |
| 與君一握手 | 군과 한번 손을 맞잡았네 |
| 我昔相別日 | 내 예전 이별할 적에 |
| 巧無一血塊 | 한 명의 혈육도 없었는데 |
| 今有六個兒 | 이젠 여섯 아이를 두어 |
| 三男又三女 | 사내 셋에 딸도 셋이라네 |
| 君纔有二女 | 군은 딸만 둘이니 |
| 安能慰老母 | 어떻게 노모를 위로하는가 |
| 酷愛季子女 | 막내 아이 유달리 사랑함은 |
| 東西也相似 | 동서가 서로 유사하하니 |
| 錦衣以還鄉 | 금의환향이란 말 |
| 古人亦曾語 | 고인이 또한 일찍이 말했거늘 |
| 此行應難再 | 이 행차 다시는 어려울 듯 |
| 執袖不忍遞 | 소매를 잡고 돌아서지 못하네 |
| 努力崇明德 | 노력하여 명덕을 높여서 |
| 相期至皓首 | 노년에 이르기를 서로 기약하세 |

또
又

| | |
|-------|-------------------------------|
| 水陸千萬里 | 바다와 육지 천만리 길 |
| 相思幾多時 | 얼마나 많이 그리웠나 |
| 寤寐不可忘 | 자나 깨나 잊지 못하여 |
| 有時夢見之 | 때때로 꿈에서 보았네 |
| 詎意好風吹 | 뜻밖에 좋은 바람 불어 |
| 隔歲再逢爲 | 한 해 지나 다시 만났네 |
| 雖得暫時歡 | 잠시의 즐거움 얻었지만 |
| 那知悲且隨 | 다시 슬픔이 뒤따르네 |
| 應知宇內事 | 응당 천하의 일 알리니 |
| 我邦張可期 | 나라의 흥성 기약하리 |
| 胸懷經綸志 | 가슴엔 경륜의 뜻 품었으니 |
| 足踏東西維 | 발은 동서양을 답파하라 |
| 回首槿花域 | 무궁화 강역을 돌아보매 |
| 何不能依依 | 어찌 연연해하지 않으랴 |
| 胡馬依北風 | 호마는 북풍을 마주하고 |
| 越鳥巢南枝 | 월조는 남쪽 가지 깃드나니 ⁷⁹⁵ |
| 願言長自愛 | 원컨대 항상 자중자애하여 |
| 千百更熟思 | 백번 천번 숙고할지어다 |
| 及此同衰暮 | 함께 노년을 맞는 이때 |
| 最難相別離 | 이별이 가장 어렵구나 |

795 남쪽 가지 깃드나니 : 무명씨(無名氏)의 고시(古詩)에 이르기를 “호지의 말은 북풍에 몸을 의지하고, 월지의 새는 남쪽 가지에 둥지를 짓네. [胡馬依北風 越鳥巢南枝]” 하였다. 전하여 고향을 그리는 정을 의미한다.

幸有黃曾谷
時傳海外奇
此別永無期
豈不涕交頤

다행히 황증곡이 있으니
때때로 해외 소식 전해주게
이번 이별 영원히 기약 없으니
어찌 눈물이 흐르지 않으랴

춘강 기영명 어른을 애도하다

輓奇春岡丈 靈命

| | |
|---------|----------------------------------|
| 外無圭角性慈仁 | 밖으로 모가 없고 성품 인자하니 |
| 設席肆筵集四隣 | 자리를 베풀면 사방이 모였었네 |
| 駕王凌鍾揮筆勁 | 굳건한 필력은 종왕 ⁷⁹⁶ 을 능가했고 |
| 商今評古鍊詩新 | 단련한 새 시는 고금을 품평했네 |
| 針灸通神能濟世 | 신명 통한 침구로 세상 구제하고 |
| 華扁傳術廣扶人 | 화타와 편작의 의술로 널리 사람 일으켰네 |
| 寂寞節祠空主席 | 적막한 절산사에 주석자리 비우고 |
| 翩翩遽作玉京賓 | 훨훨 날아서 옥경의 손님 되셨네 ⁷⁹⁷ |

796 종왕 : 종왕은 진나라의 명필 종요(鍾繇)와 왕희지이다.

797 옥경의 손님 되셨네 : 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으로 옥경의 손님이 되었다는 말은 죽음을 표현한다.

최정현의 장원에서 작은 모임

崔氏 貞鉉 庄小集

| | |
|---------|--------------------------------|
| 萍蓬浪跡轉西東 | 동서로 유랑하는 부평초 자취 |
| 暫得清閒萬念空 | 잠시의 청한에 만념이 사라진다 |
| 幽鳥間關深樹裏 | 그윽한 새는 깊은 나무에서 울고 |
| 碩人棲息亂山中 | 석인은 난산 가운데 살아간다 |
| 休言寰宇煙塵漲 | 세상에 연진이 가득타 하지 말라 |
| 佇看晴天瑞日紅 | 청천에 붉은 서일을 보리니 |
| 何似新豐十斗酒 | 신평 ⁷⁹⁸ 의 값비싼 술을 마시며 |
| 爭鳴劒筑意無窮 | 검과 축 올리니 뜻이 무궁하다 |

798 신평 : 왕유(王維)의 「소년행(少年行)」에 “신평의 맛 좋은 술은 한 말에 십천인데, 함양의 유협들은 대부분이 소년이로세. [新豐美酒斗十千 咸陽游侠多少年]”라고 하였다.

선암사에서 여러 군의 선비들과 강회하다

仙巖寺與數郡多士講會

| | |
|---------|---------------------------------|
| 浮槎結契幾過秋 | 별교에서 결사한 지 몇 해이고 |
| 太半凋零舊日遊 | 옛 놀던 벗들 태반이 사라졌네 |
| 敬薦瓣香仍寓慕 | 경건히 향 올려 사모를 기탁하고 |
| 時翻遺墨暗牽愁 | 유묵을 펼치니 가만히 시름 인다 |
| 僧誇法雨三千界 | 스님은 삼천세계 범우를 자랑하고 |
| 君是元龍百尺樓 | 그대는 백 척 누각의 원룡이로다 |
| 朱陸鵝湖講劇事 | 아호에서 주륙이 강론하던 일을 ⁷⁹⁹ |
| 吾人於此幾回頭 |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회고했던가 |

799 강론하던 일을 : 주자가 일찍이 육구연(陸九淵)과 그의 형인 육구령(陸九齡)을 신주(信州)의 아호(鵝湖)에서 만나 각기 학설을 내놓고 토론하다가 마침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운자(韻字)를 내서 시를 지어 소견을 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아호시」라고 한다.

빙와 안중열 어른을 애도하다 절구 2수

輓安丈冰窩鍾烈 二絕

1

| | |
|---------|----------------------------------|
| 冰月精神松柏操 | 빙월 같은 정신에 송백의 지조 |
| 漱流枕石自祈祈 | 수류침석 ⁸⁰⁰ 의 생활 절로 즐거웠네 |
| 祇爲鄉曲間矜式 | 다만 향리의 모범이 되셨을 뿐 |
| 未展瑰懷老布衣 | 높은 선비의 큰 뜻 퍼지 못했네 |

2

| | |
|---------|--------------------|
| 拜翁昔日蘆岡下 | 옛날 노강 아래서 어르신 뵈고 |
| 論事談文玉屑霏 | 사업과 문장 논하니 옥설이 날렸네 |
| 承誨多時銘肚裏 | 훈도 받들어 마음에 오래 새겼는데 |
| 蘭書今日一歔歔 | 오늘 부음 받고 탄식하노라 |

800 수류침석(漱流枕石) : 진(晉)나라 손초(孫楚)가 소싯적에 은거하려 하면서, “흐르는 물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돌을 베개로 삼는다.[漱流枕石]”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왕제(王濟)에게,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로 삼는다.[漱石枕流]”라고 했던 데서 온 말이다. 『晉書』 卷56 「孫楚傳」

견흥
遣興

南風携手坐樓高 남풍에 손잡고 높은 누각 앉으니
酌酒彈琴氣欲豪 술과 거문고에 기운도 호방하다
富貴由天辭執御 부귀는 재천이라 집어를 마다하고⁸⁰¹
行藏在我不須勞 행장⁸⁰²은 내게 있으니 애쓸 것 없네
最難今古兼三樂 고금에 삼락 갖춤이 가장 어려운 일
其奈鬚眉雜二毛 수염과 눈썹의 흰 터럭 어이할까
偃蹇此身每違世 이 몸은 매번 세상일과 어긋나니
何妨暫借醉鄉逃 잠시 취향에 숨는 것도 무방하리

801 집어를 마다하고 : 집어는 집편과 같은 말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부귀를 만일 구해서 될 수 있다면 내가 말재찍을 잡는 일이라도 하겠다. 그러나 만일 구하여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富而可求也 雖執鞭之士 吾亦爲之 如不可求 從吾所好]”라고 하였다. 『論語』「述而」

802 행장 : 세상에 쓰일 때는 나가서 자기의 도를 행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는 물러나서 숨는 것을 말한다. 공자(孔子)가 안연(顏淵)에게 이르기를 “쓰이면 나가서 도를 행하고, 버림을 받으면 물러나 숨는 것을 오직 나와 네가 그렇게 할 뿐이다. [用之則行 舍之則藏 惟我與爾有是夫]”라고 하였다. 『論語』「述而」

취헌 김종수 어른을 애도하다

輓金丈醉軒 從洙

| | |
|-------|----------------|
| 軒軒七尺身 | 헌걸찬 칠 척 장신은 |
| 玉樹臨風新 | 옥수가 바람 맞는 듯 |
| 氣岸橫千古 | 기개는 천고에 비끼고 |
| 談論壓百人 | 담론은 백인을 압도했다 |
| 共吟文苑所 | 문원에서 함께 음영했고 |
| 陪話筆巖辰 | 필암에선 모시고 담소했네 |
| 他日月朝會 | 훗날 월조의 모임에서 |
| 應書一隱淪 | 응당 은륜 한 분을 쓰리라 |

백헌 허준강의 장원에서 풍영계를 닦다

許栢軒 俊康 庄修風詠契

| | |
|---------|----------------------------------|
| 驅車十舍拂衣巾 | 먼 길을 달려 의건을 터니 |
| 始覺天涯卽比隣 | 천애가 곧 이웃이로다 |
| 鍾得地靈人自傑 | 땅의 영기 모여 사람도 영걸이라 |
| 超然物累志常伸 | 외물에 초연하여 늘 뜻을 편다 |
| 三溪夏日招多士 | 삼계의 여름날 많은 선비 불러서 |
| 千載山陰躡後塵 | 천년 전 산음의 자취 ⁸⁰³ 를 밟는다 |
| 休讓留連終夜飲 | 머물며 밤새 음주도 사양 말지니 |
| 軒頭月色入樽新 | 창 위 달빛이 새로 술잔에 든다 |

803 산음의 자취 :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가 절강성(浙江省) 소흥현(紹興縣)의 산음에 있는 난정(蘭亭)에서 잔치를 베풀고 당시 명사(名士), 사안(謝安), 손작(孫綽) 등 42인을 초빙한 다음, 시를 지으며 즐겼다. 이때의 서문이 바로 「난정집서」이다.

다시 칠언절구를 읊다

更賦七絕

窈窕林巒隔世塵 그윽한 숲과 산이 세진을 막아
婆娑梧月照懷新 넘치는 가을 달빛 가슴을 비춘다
澹然文字飲爲好 담박한 문자음⁸⁰⁴ 참으로 좋거니
肯學如泥渾醉人 어찌 크게 취하기만을 배우랴

804 문자음 : 시문을 지으며 술을 마시는 일이다.

오수 고적비⁸⁰⁵ 아래를 지나다가 느낌이 있어서 지었다
過葵樹古蹟碑下感而有作

數尺殘碑摧劫塵 세월에 꺾인 작고 쇠잔한 비석
摩挲一讀眼翻新 만지며 읽어보니 안목이 새롭다
最憐微物能知主 가련타 미물도 주인을 알거니
愧死千秋反側人 천추의 반측하는 이들 부끄럽네

805 오수 고적비 : 전라북도 임실군 원동산에 비로, 주인을 위해 생명을 바친 충건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조씨의 취사정에 오르다

登曹氏聚斯亭

| | |
|---------|--------------------|
| 昔享有祠講有堂 | 옛날의 사당과 강당이 있어서 |
| 過墟今日尙流芳 | 유허 지나는 오늘도 향기가 흐른다 |
| 諸孫肯構雙肩重 | 후손들 가업을 무겁게 짊어지니 |
| 高士遺風百世長 | 고사의 유풍은 백세에 유장하다 |
| 肄業案藏書秩秩 | 학업 익히며 서안의 책 정연하고 |
| 奠基園種竹蒼蒼 | 터 잡아 심은 대나무 창창하다 |
| 蕪辭多謝殷勤意 | 거친 말로 은근한 뜻 사례하니 |
| 釀得菖蒲勸客觴 | 빛은 창포주를 손님에게 권한다 |

영춘당 원운을 차하다

次春風堂原韻

| | |
|---------|---------------|
| 澗邊蕭灑一茅廬 | 시냇가 소쇄한 모옥 하나 |
| 常帶春風樂我居 | 늘 봄바람 불어 즐겁다네 |
| 松竹軒頭今尙綠 | 당의 송죽 아직도 푸르니 |
| 淸貞高節有誰如 | 청정한 고절을 누가 알랴 |

무진음사가 절산에서 모이니 김씨들이 작은 술상을 차리다
自武珍吟社約會于節山金氏爲設小酌

| | |
|---------|-------------------|
| 門庭無客破苔文 | 문정에 이끼 깨는 객이 없더니 |
| 剝啄今朝隔戶聞 | 오늘은 집 바깥 문소리 들린다 |
| 邂逅清遊傾四郡 | 우연한 청유가 사군을 경도하니 |
| 嶙峋奇氣唾青雲 | 드높은 기운은 청운을 경시한다 |
| 休言洌北江崩岸 | 한양의 무너진 강을 말하지 말라 |
| 堪嘆湖南草槁根 | 호남의 메마른 풀뿌리 탄식하나니 |
| 落日青山鞭馬去 | 청산의 지는 해에 말을 달리니 |
| 仙蹤其奈不同群 | 신선의 자취 함께 못해 어이하리 |

영벽정에 오르다

登映碧亭

| | |
|---------|---------------------|
| 爲耽佳景步遲遲 | 가경에 탐닉하여 걸음을 더디 하니 |
| 隨處輕裝藤一枝 | 도처에 가벼운 행장 지팡이 하나 |
| 擇勝那關途遠近 | 승경 찾으매 멀고 가까움 따지랴 |
| 知幾一任世歡悲 | 기미 아니 세상의 비환 내버려 두네 |
| 愛蓮反復廉翁說 | 연꽃이 좋아 애련설을 반복하고 |
| 依竹詠哦淇澳詩 | 대에 기대어 기옥시를 읊어본다 |
| 鳶戾于天魚在沼 | 솔개는 하늘에 물고기는 연못에 |
| 忘機我亦坐無移 | 나 또한 무심하게 오래 앉았노라 |

춘계 유호석에게 주다 절구 2수

呈柳春溪 浩錫 二絕

1

| | |
|---------|-------------------|
| 家世業儒幾百春 | 대대로 유자의 업 몇 백 년인가 |
| 鬚眉不染世間塵 | 수미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 |
| 憂時中夜獨無寐 | 시국 근심하며 밤에 잠 못 들고 |
| 明燭看書懷轉新 | 촛불 밝혀 독서하니 마음 새롭다 |

2

| | |
|---------|-------------------|
| 我本東西棲屑身 | 나는 본디 동서로 떠도는 신세 |
| 眼靑萍水意中人 | 객지에 그리운 임 보니 반갑기만 |
| 而今世道嘆何益 | 지금 세도를 탄식한들 무엇하랴 |
| 擬逐吾公共結隣 | 그대를 따라 함께 이웃을 맺고자 |

서상보가 나를 방문하여 시를 주기에 그 시운에 따라 화답하다
徐祥甫訪余有詩依其韻和之

| | |
|---------|------------------|
| 逐臭年年蘿菑下 | 해마다 나복 아래 나를 찾으니 |
| 依然昔日讀書樓 | 옛날의 독서루는 예전 그대로 |
| 請君強脊能擔否 | 그대 몸을 세워 감당할 것이니 |
| 吾道綿綿一髮秋 | 우리의 도 터럭처럼 미약하거늘 |

송강정에 올라서

登松江亭

| | |
|---------|-------------------|
| 松翁高節一何清 | 송강의 고절 참으로 맑아서 |
| 勳業如今史策明 | 훈업은 지금도 사책에 밝다네 |
| 江水漫漫千折去 | 강물은 가득 굽이치며 흐르고 |
| 汀蘭歷歷數叢生 | 물가 난초는 뚜렷이 총생했네 |
| 萬言疏證憂邦志 | 만언소는 우국의 뜻 증명하고 |
| 別曲歌深戀主情 | 별곡가는 연주의 정이 깊었네 |
| 回仰遺風覓無處 | 유풍을 돌이켜도 찾을 길 없으니 |
| 幾人於此駐車行 | 몇이나 여기서 수레를 멈추었나 |

죽산 백충선을 애도하다

輓白竹山 忠善

| | |
|-------|--------------|
| 竹翁我所欽 | 죽산은 내 흠모하는 분 |
| 落落保靑襟 | 우뚝 청금을 보존했다 |
| 恐墜箕裘業 | 기구의 업을 실추할까 |
| 每存乾惕心 | 늘 두려운 마음 지녔다 |
| 一床詩禮古 | 책상의 시례 예스럽고 |
| 百畝桑麻深 | 백무엔 상마가 깊다네 |
| 今日何其慟 | 금일 참으로 애통하니 |
| 典形不可尋 | 모습을 찾을 길 없어라 |

필암서원에서 벽농, 계은 김채수를 모시고 백하 변동렬, 월주, 석촌,
봉와 박석원, 성재, 산암과 함께 얘기하다

筆巖書院陪碧農溪隱 金采洙 與白下 邊東烈 月洲石村鳳窩 朴爽 遠誠
齋汕巖共話

| | |
|---------|--------------------------------|
| 燈下欣然看尺素 | 등 아래 혼연히 편지를 보고 |
| 治裝朝日趁晴天 | 맑은 날 아침 행장을 꾸렸다 |
| 對君酒泛東籬菊 | 그대와 동리의 국화 술을 띄우니 |
| 醫世池盈玉井蓮 | 의세지엔 옥정의 연꽃 가득타 |
| 瞻望湛老應千載 | 담로를 우러르니 천년의 세월 |
| 痛哭卵山知幾年 | 난산의 통곡 ⁸⁰⁶ 몇 해나 흘렀나 |
| 蘋藻春秋于澗沼 | 춘추로 시내의 마름을 올리니 |
| 濟躋多士集斯筵 | 훌륭한 선비들 자리에 모였네 |

806 난산의 통곡 :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선생은 인종(仁宗)의 기일(忌日)인 7월 1일이 되면 집 남쪽에 있는 난산에서 밤새 통곡하였다고 한다.

익일 저녁 배를 빌려 황룡강을 건너 산암의 장원에서 묵다
翌暮賃舟渡黃龍江宿汕巖庄

| | |
|---------|---------------------|
| 千村桑柘帶炊烟 | 마을마다 뽕나무에 연기가 오르고 |
| 江上行歌興浩然 | 강상의 노래에 흥취가 호연하다 |
| 投轄高風何磊落 | 투할의 고풍이 참으로 뇌락하여 |
| 携樽今夜共留連 | 술동이로 오늘 밤 함께 즐긴다 |
| 圖書充棟門臨奎 | 수많은 도서들 문엔 규성이 비치고 |
| 鐵笛吹梅洞有仙 | 낙매화 철적 소리 신선의 동부인 듯 |
| 遠客難孤賢主意 | 원객이 주인 뜻을 저버리기 어려워 |
| 笑談達曙得無眠 | 새벽까지 담소하며 잠들지 못한다 |

호서의 음성으로 가는 봉암을 보내며

送鳳菴之湖西陰城

| | |
|-------|-----------------------------|
| 鰲山邂逅客 | 오산에서 우연히 만나 |
| 分手秋風時 | 가을바람에 헤어진다 |
| 明月相思夜 | 밝은 달에 그리운 밤이면 |
| 雁來應不遲 | 기러기도 더디지 않으리 ⁸⁰⁷ |

807 기러기도 더디지 않으리 : 기러기는 편지의 뜻으로, 편지가 곧 온다는 말이다.

대흥사에서 묵다

宿大興寺

| | |
|---------|-----------------|
| 黃葉千林一路開 | 낙엽이 쌓인 숲에 열린 길 |
| 秋霖乍過澗輕埃 | 가을비 지나 티끌도 씻겼다 |
| 諸天花落禪心寂 | 제천의 꽃비에 적적한 선심 |
| 一砌潭空慧月來 | 섬돌 연못에 혜월이 비친다 |
| 何代高僧飛錫杖 | 언제 고승이 석장을 날렸나 |
| 浮生此日淨靈臺 | 부생의 오늘 영대가 청정하다 |
| 香風颯颯夜吹檻 | 향풍이 밤 난간에 불어오니 |
| 疑是驂虬仙子廻 | 규룡을 타고 신선이 오는 듯 |

해남의 벗들과 다시 칠언절구를 읊다
與海南諸友更賦七絕

菩提樹樹可參天 보리수나무들 하늘에 솟아
恰是三生夢有緣 삼생의 꿈에 인연 있는 듯
諸子風流誰似得 제자의 풍류 누가 비슷한가
忘塵世處又忘年 속세도 잊고 나이도 잊었노라

비로 해남향교에 체류하며 춘곡 김상형, 시당 박효수를 모시고 해양 오형기, 백파 민창기, 운암 박호배, 우당 박영호, 백하 민점기와 함께 운자를 들어 회포를 읊다

滯雨海南鄉校陪金春谷 相馨 朴是堂 孝洙 與吳海陽 炯基 閱柏坡 昌基
朴雲菴 浩培 朴友堂 永浩 閱柏下 占基 拈韻賦懷

名區自絕市城塵 명승지에 저자의 티끌 끊기니
眼際靑山一何新 눈앞의 청산은 얼마나 새로운지
萍水百年難得合 부평초 백년 회합이 어려워서
天嘯江雨故留人 하늘이 강비 내려 만류하네

장산에서 고상하게 모이다

章山雅集

| | |
|---------|--------------------|
| 嚴冬天候錯燠寒 | 엄동의 날씨 추위와 더위 착란하니 |
| 匡匡披襟夜倚欄 | 함께 옷깃 열고 밤 난간 기대었네 |
| 洙泗遠流來一派 | 수사의 먼 흐름 한 가닥 내려오고 |
| 淇隈綠竹借千竿 | 기수 굽이 녹죽 천간을 빌렸다 |
| 瓣香祇擬隨時薦 | 향을 살라 시절 따라 드리고자 |
| 雙鬢堪憐照鏡看 | 거울에 비친 귀밑머리 가련하다 |
| 每發窮廬離索嘆 | 늘 궁려에서 외로운 탄식하노니 |
| 對君今日我懷寬 | 군을 마주하며 오늘 회포가 풀린다 |

춘사 봉만근의 서실에 쓰다

題奉春史萬沂書室

| | |
|---------|--------------------|
| 欽欽德氣暖如春 | 고운 덕의 기운 봄처럼 따스하고 |
| 況復庭前玉樹新 | 정원의 옥수도 더욱 새롭다 |
| 誠積年多禮祖廟 | 다년간 정성으로 조묘에 제향하고 |
| 惠施人壽頌鄉隣 | 의술을 베풀어 향리가 칭송하네 |
| 眼醒今古青編史 | 안목은 고금의 청사를 깨우치고 |
| 夢斷繁華紫陌塵 | 꿈은 변화한 속세의 티끌 끊었네 |
| 惟願久留仙骨在 | 원컨대 선풍도골 오래도록 남아서 |
| 世波高處導迷津 | 세파 높은 곳에 미진을 인도하기를 |

설경
雪景

溪堂盡日禱生寒 계당의 침상은 종일 찬 기운
推戶方知雪上欄 문을 여니 난간까지 쌓인 눈
大界山川水晶窟 대지의 산천은 수정굴이요
一園竹樹琇瑩竿 정원의 대는 투명한 옥빛일세
怪形越犬終宵吠 월견은 밤새 괴이하다 짖고⁸⁰⁸
貪讀孫康替燭看 손강은 등을 대신해 탐독하네
安得如斯堆米粟 어찌하면 이처럼 쌓인 곡식으로
使吾民足政爲寬 백성들 풍족하고 정치는 관대케 할까

808 괴이하다 짖고 : 눈이 오지 않는 월나라에 언젠가 눈이 내리자 개들이 미친 듯 뛰어다니면서 짖어댔다는 ‘월견폐설(越犬吠雪)’의 이야기가 유종원(柳宗元)의 「답위중립논사도서(答韋中立論師道書)」에 나온다.

한거의 감회

閒居感懷

| | |
|---------|--------------------|
| 男兒志在佩腰銅 | 남아의 뜻 벼슬에 두고 |
| 幾嘆光陰石火同 | 석화 같은 세월 얼마나 탄식했나 |
| 其奈五更風雨惡 | 어찌하랴 오경의 풍우 거치니 |
| 將看東海日輪紅 | 동해의 붉은 해를 볼 것인가 |
| 垂綸明月青江上 | 밝은 달빛 청석강에 낚시 드리우고 |
| 採藥晴霞后嶽中 | 맑은 노을 모후산에 약초 캐리라 |
| 案上世傳千卷業 | 서안에 대대로 전한 천권의 서책 |
| 精華咀嚼可忘窮 | 영화를 저작하며 궁핍을 잊겠네 |

세모에 제생과 이별하다 절구 4수

歲暮別諸生 四絕

김용기, 백은준, 정연태, 김도수, 이심, 이정순, 이은진, 박명희,
김명수, 박문재

金容祺 白銀浚 鄭然台 金塗洙 李心 李貞順 李恩眞 朴明姬 金命洙 朴文載

1

| | |
|---------|------------------|
| 雪裏亭亭梅一樹 | 눈 속에 정정한 매화 한 그루 |
| 溪邊瀟灑竹千竿 | 시냇가의 소쇄한 대나무 천간 |
| 梅憐淡泊竹憐固 | 매화는 담박하고 대는 견고하니 |
| 共此二君守歲寒 | 매죽과 함께 세한을 지키리라 |

2

| | |
|---------|-----------------|
| 砧杵聲聲催歲律 | 침저 소리 한 해를 재촉하니 |
| 羈窓獨夜正無眠 | 객창의 밤 홀로 잠 못 든다 |
| 如今行過羊腸險 | 이제 험한 양장을 지나려면 |
| 請看衆車覆在前 | 앞에 전복된 수레들을 보라 |

3

| | |
|---------|--------------------|
| 古賢自誤誤人戒 | 남과 자신 오도했다는 고현의 경계 |
| 詎意我今躬犯之 | 어찌 뜻했으랴 내 이제 범할 줄을 |
| 欲展驥騏千里足 | 천리마의 발걸음 펼치려 하거든 |
| 屈首孜孜力強時 | 고개 숙여 젊어서 열심히 매진하라 |

養來志體君知否 지와 체의 봉양⁸⁰⁹을 제군은 아는가
 有慊於斯無足觀 여기에 부족하면 볼 것이 없나니
 莫以紛紛榮利故 어지러운 영예와 이욕 때문에
 浮沈塵世失親權 진세에 부침하여 효도를 잊지 말라

809 지와 체의 봉양 : 『맹자』 「이루상(離婁上)」에 나오는 말이다. 증자가 그의 부친을 봉양할 때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갖추었으며, 남에게 음식을 주기 좋아하는 부친을 위해 상을 치울 때도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지 여쭙었고, 남은 음식이 있느냐고 물으면 반드시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증자의 아들은 증자를 봉양할 때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갖추기는 했으나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줄지 여쭙지 않았고 남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나중에 또 내놓을 속셈으로 없다고 답했다. 맹자는 ‘증자의 아들처럼 하는 것은 부모의 몸만 봉양하는 것[養口體]이요, 증자처럼 해야 그 마음을 봉양하는 것[養志]’이라고 하였다.

금곡의 밤의 대화

琴谷夜話

| | |
|---------|---------------------|
| 嗟吾卒歲守衡扉 | 해가 가도록 형문만을 지키니 |
| 那望鵬程萬里飛 | 어찌 봉정 구만리를 비상하라 |
| 誦讀廢句口生澁 | 열흘간 글 안 읽으면 입이 텅텅하고 |
| 瓊瑤盈軸屋騰輝 | 시축이 가득하니 집이 빛난다 |
| 空山松桂要爲友 | 공산의 솔과 계수 벚을 삼고 |
| 淸沼芰荷欲製衣 | 맑은 못 연잎으로 옷을 짓고자 |
| 澆世復看淳厚俗 | 흐린 세상에 순후한 풍속 보나니 |
| 今非諸老共誰歸 | 여러 어른 아니면 누구와 돌아갈까 |

상원 기유년(1969)

上元 己酉

| | |
|---------|--------------------|
| 太乙神壇祀自昏 | 태을신단의 제사는 밤부터라 |
| 傳來漢俗己盤根 | 전래한 한속이 뿌리를 내렸다 |
| 市城隱映燈無數 | 성시엔 무수한 등이 명멸하고 |
| 宇宙光明月有痕 | 밝은 달빛으로 우주가 빛난다 |
| 簫鼓聲中馳萬馬 | 소고 소리에 만마가 치달리고 |
| 綵繪影裏啓千門 | 채증 그림자에 천문이 열린다 |
| 此遊從古同民樂 | 이 놀이 예부터 백성과 즐겼거늘 |
| 今日田家暗斷腸 | 금일 전가에선 가만히 애를 끊는다 |

세초에 회포를 쓰다

歲初書懷

| | |
|-------|-----------------|
| 彈指過半生 | 잠깐 새 반평생 지났거늘 |
| 心中事未成 | 심중의 일 이루지 못했다 |
| 春來檢筆橐 | 봄 들어 필랑을 점검하고 |
| 酒熟欺愁城 | 술 익으니 시름도 가볍다 |
| 養氣祇要直 | 호연지기를 곧게 기르려면 |
| 持身自不輕 | 몸가짐을 가볍게 알아야 되네 |
| 難將荒廢業 | 황폐한 학업을 지니고서 |
| 少慰雙親情 | 부모의 정 위로하기 어렵네 |

매화를 읊다

詠梅

| | |
|---------|----------------------------------|
| 籬邊殘雪滑蒼苔 | 울타리 잔설에 창태가 매끄러워 |
| 行玩數枝臨水開 | 걸으며 물가의 가지를 완상한다 |
| 逸興擬隨灞橋客 | 파교 ⁸¹⁰ 의 나그네에 흥취가 따르고 |
| 深盟不淺晦菴杯 | 회암 ⁸¹¹ 의 술잔에 맹약이 깊구나 |
| 清香微動輕風過 | 산들바람에 맑은 향기 움직이고 |
| 艷態偏生皓月來 | 밝은 달빛에 고운 자태 드러난다 |
| 偃蹇爾能開士趣 | 너는 한적한 선비의 곧은 흥취로 |
| 澹然故傍讀書臺 | 담담하게 독서대 곁에 서 있네 |

810 파교 : 한(漢)나라 사람들이 전별할 때 장안(長安) 동쪽에 있던 파교(灞橋)에 이르러 버들을 꺾어 주던 고사가 있으며, 역시 석별의 마음을 노래한 「절양류(折楊柳)」란 고대의 악곡이 있다.

811 회암 : 송나라 학자 주희의 호이다.

무진음사 및 목포음사의 벗들과 유달산을 오르다
與武珍及木浦吟社諸友登儒達山

| | |
|---------|-------------------|
| 春風杜宇快晴天 | 쾌청한 하늘 봄바람에 두견 소리 |
| 繫馬驛亭垂柳邊 | 역정의 버들 가에 말을 묶었다 |
| 西海何時通艇舶 | 서해는 언제부터 선박이 통했나 |
| 儒山此日領雲烟 | 오늘 유달산엔 운연이 자욱하다 |
| 滄桑三變渾無跡 | 상전벽해의 자취는 사라졌건만 |
| 萍水重逢儘有緣 | 객지의 상봉은 참으로 인연이라 |
| 疇昔去尋仙子窟 | 예전 신선의 거처를 찾았나니 |
| 蓬萊千載語空傳 | 봉래산 얘기가 천년을 전한다 |

피꼬리

鶯

| | |
|---------|---------------------|
| 百花飛盡綠成陰 | 백화는 다 날리고 녹음 짙을 제 |
| 一澗南風日日尋 | 남풍 부는 시내를 날마다 찾는다 |
| 知止嚶嚶喬木上 | 피꼬리는 교목에 멈출 줄을 알아 |
| 投梭札札柳枝深 | 깊은 버들가지에 북처럼 오고 간다 |
| 無聊比列讒人口 | 근거 없이 참인의 입에 열거하고 |
| 獨擅鼓吹詞客心 | 홀로 사객의 마음을 고취한다 |
| 請看微禽求友誼 | 벗을 구하는 작은 새의 의를 보라 |
| 世間交愧重黃金 | 황금 중시하는 세간의 교유 부끄럽네 |

서강사⁸¹² 낙성식의 음연

瑞岡祠落飲宴

| | |
|---------|---------------------------------|
| 坡平家世擅吾東 | 파평의 가문은 우리 동방의 으뜸 |
| 耀史勳名孰有同 | 청사에 빛나는 훈명 누가 견주랴 |
| 億子輸誠千載下 | 후손들 천년 후에도 정성을 다해 |
| 六賢安享一堂中 | 여섯 현인 한곳에 모셔 제향한다 |
| 奐輪齊美獻文室 | 배어난 미는 현문의 집과 같으니 |
| 頌禱要追張老風 | 장로의 기풍 따라서 송축하려네 ⁸¹³ |
| 錦水長流瑞山屹 | 금수는 유장하고 서산은 높으니 |
| 綿綿福慶也無窮 | 면면한 복경이 또한 무궁하리라 |

812 서강사 : 파평윤씨 종중에서 1968년 무등산 치마봉 아래 사우를 마련하여 파평윤씨 선조 중에서 문행이나 무공을 세운 분들을 제향하고 있다.

813 송축하려네 : 진(晉)나라 현문자(獻文子)가 집을 완공하자 진나라 대부들이 가서 축하하였는데, 장노(張老)라는 사람이 “아름다워라 높도다. 아름다워라 많도다. [美哉輪焉美哉奐焉]” 하였다. 『禮記』 「檀弓下」

만곡사⁸¹⁴에서 느낌이 있어서

萬谷祠有感

| | |
|---------|------------------|
| 先生祠宇百過年 | 선생의 사우 백년이 지나 |
| 洞壑深深鎖翠烟 | 동학은 깊은 안개에 싸였다 |
| 回首莊陵當日事 | 당일 단종의 일을 돌아보고 |
| 傷心夜月子規天 | 달밤 자규 소리에 상심한다 |
| 濟踰郡省諸儒至 | 훌륭한 군성의 유자들 이르러 |
| 于采蘋蘩百世連 | 정결한 제사 백세를 이었다 |
| 忠義六臣固磊落 | 육신의 충의 참으로 뇌락하니 |
| 五千權域史中傳 | 오천 년 근역의 역사에 전한다 |

814 만곡사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에 있는 사당이다. 1791년에 단을 설치하여 봉유례(奉由禮, 1354~1419)·봉준(奉楨, 1378~1439)·봉여해(奉汝詣, 1419~1456) 등을 추모하였다. 1868년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03년 다시 중건되었다.

동백정에서 느낌이 있어서

冬柏亭有感

| | |
|---------|----------------------|
| 江山如畫有斯樓 | 그림 같은 강산의 이 누각 |
| 興入蒼茫未可收 | 창망한 흥을 거둘 수 없네 |
| 來赴高軒論契日 | 고헌들 찾아들어 마음을 논하고 |
| 追思曉老下帷秋 | 효당의 강학 시절 추억한다 |
| 門前鶴唳知人返 | 문전의 학은 사람을 알아보고 |
| 雨後花明破洞幽 | 비 뒤에 핀 꽃은 고을의 적적함 깬다 |
| 三丈風流今寂寞 | 세 어른의 풍류 이제 적막하니 |
| 嗟過廿載摠成邱 | 이십 년 만에 구름만 남았네 |

담대헌에서 여러 어른과 대화하다

澹對軒與諸丈共話

| | |
|---------|-----------------------------------|
| 側身天地正窮陰 | 천지에 몸을 기우니 정히 한겨울 |
| 此日高山仰止深 | 오늘 고산을 깊이 우러른다 |
| 滿案書慙違素志 | 서안의 책은 뜻을 어겨 부끄럽지만 |
| 半生工欲保丹心 | 반평생 공부는 단심을 보존하고자 |
| 誰言覆手還爲雨 | 손 얹으면 비가 된다 ⁸¹⁵ 누가 말했나 |
| 自有同人可斷金 | 마음 같아 쇠 찌를 벗이 있다네 |
| 拋了塵間多少事 | 세간의 많은 일들 모두 버리고 |
| 一番歌唱一番斟 | 한번 노래하고 한번 술을 마시네 |

815 손…… 된다: 두보(杜甫)의 「빈교행(貧交行)」에 암랑세태(炎涼世態)를 표현하여 “손을 뒤집으면 구름 일고 손을 얹으면 비가 내린다. [翻手作雲覆手雨]” 하였다. 여기서는 변치 않는 우정을 표현했다.

백범 김구를 애도하다

輓白凡金公

五千年史忽中斷 오천 년 역사가 홀연 중단되니
烈氣惟公可薄虹 김공의 열기에 무지개도 엷어졌네
臨政雄圖明炬火 임정의 웅도는 햇불처럼 밝았고
終宵暗泣訴蒼穹 밤새 몰래 울며 창천에 호소했네
割溝槿域心如噎 근역의 독립에 마음을 태웠고
勿協干支志與通 물협간지에 뜻이 통했다
一夜星沈江水咽 한밤에 별이 저 강물도 오열하니
大名應并白山崇 큰 명성은 백두산과 함께 숭고하리라

전가를 슬퍼함⁸¹⁶

傷田家

| | |
|---------|---------------------|
| 霖雨沈淫尚未晴 | 지루한 장마 여전히 개지 않는데 |
| 田間布穀勸人鳴 | 전간의 포곡은 농사 권하며 운다 |
| 已當稚稻空租稅 | 모를 심을 때라 조세를 못 냈으니 |
| 又買新絲斷杵聲 | 또 새 실을 팔아 절구 소리 끊겼네 |
| 醫眼前瘡雖免苦 | 당장의 상처 고쳐 고통은 면했으나 |
| 剗心頭肉那望生 | 심장의 살 도려내니 어찌 살겠는가 |
| 何由長被皇天佑 | 어찌하면 길이 하늘의 도움 받아 |
| 身不亡逃夢不驚 | 몸은 도망 않고 꿈도 놀라지 않을까 |

816 전가를 슬퍼함 : 농민들의 몹시 어려운 생활고를 읊은 시이다. 당(唐)나라 때 시인 십이중(聶夷中)의 「상전가(傷田家)」 시에 이르기를 “이월에 새 고치실을 미리 팔고 오월이면 새 곡식 미리 팔아서, 우선 눈앞의 부스럼은 고치지만 도리어 심장의 살을 도려내누나. [二月賣新絲 五月糶新穀 醫得眼前瘡 剗却心頭肉]” 하였다.

부채

扇

紈扇皎潔似輕烟 비단부채 깨끗하여 열린 안개 같으니
畫寫陽臺彩雲邊 양대의 채운⁸¹⁷을 그려 놓았네
出入懷中宜暑日 여름날에 품속에 출입하기 마땅하더니
棄損篋裏怕秋天 가을엔 상자에 버려질까 저어한다
袁生東郡慰民庶 원생은 동군에서 서민을 위로했고⁸¹⁸
王導西風遮後前 왕도는 서풍에 앞을 가렸다⁸¹⁹
安得簸揚箕舌大 어찌하면 큰 키처럼 흔들어서
掃除塵氣滿邦連 나라에 가득한 연진을 소제할까

817 양대의 채운 : 춘추시대 초(楚)나라 양왕(襄王)이 고당에 노닐다가 꿈속에 신녀(神女)를 만나 동침하였는데, 신녀가 떠나면서 “첩은 무산(巫山) 남쪽 높은 봉우리에 사는데,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 비가 되어 매일 아침저녁 양대(陽臺) 아래에 있습니다.” 하였다. 『文選』 「宋玉 高唐賦」

818 원생은 …… 위로했고 : 원생은 한나라 때 사람인 원안(袁安)이다. 큰 눈이 한 길 넘게 내려 낙양 영(洛陽)이 순찰을 나가서 보니, 민가(民家)가 모두 눈을 치우고 나와서 식량을 구걸하고 있는데, 원안의 집 문 앞에는 사람의 자취가 없었다. 일어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눈을 치우고 방에 들어가 보니 원안이 뻗뻗하게 누워 있었다. 왜 밖으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원안이 답하기를, “큰 눈이 내려 사람들이 모두 주리고 있는데 남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後漢書』 卷45 「袁安列傳」

819 왕도는 …… 가렸다 : 진(晉)나라 때 유량(庾亮)이 대병(大兵)을 거느리고 빈진(瀋鎭)에 있으면서 그 위세가 조정을 위협할 정도였다. 당시의 재상이었던 왕도(王導)가 유량이 있는 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면 부채로 가려 막으면서 “원규(元規)의 먼지가 사람을 더럽히는구나.” 하였다. 원규는 유량의 자이다.

무진음사원이 고상하게 모이다

武珍雅集

| | |
|---------|------------------------------------|
| 綿城四月約登臺 | 면성 ⁸²⁰ 의 4월 누대에 오르자는 약속 |
| 天使淫霖路未開 | 하늘의 장마에 길이 막혔다 |
| 夜夢相尋千里去 | 밤 꿈에 천리를 찾아갔더니 |
| 浪踪今跨六旬來 | 유랑의 발자취 육십이 지났다 |
| 時危何究延年術 | 위태한 시절 어찌 연년술 구할까 |
| 興至休停到手杯 | 흥이 이르면 술잔을 멈추지 말라 |
| 離索方知朋舊好 | 홀로 거처하며 벗의 좋음 알았거니 |
| 悠悠懷思惜君裁 | 유유한 생각 그대가 재단해 주게 |

820 면성 : 무안의 옛 이름이 면주(緜州)이니 무안을 가리키는 듯하다.

면양정에 올라서

登俛仰亭

| | |
|---------|---------------------------------|
| 秋色荒涼古郡西 | 가을빛 황량한 고군 서쪽 |
| 依稀一路穿江堤 | 강의 제방에 작은 길 열렸다 |
| 涵淵滄水同心淨 | 깊은 창파는 마음 함께 청정하고 |
| 拱揖龍山入戶低 | 마주한 용산은 문에 낮게 든다 |
| 全省重望看泰斗 | 고을의 중망은 북두태산 보는 듯 |
| 老年清趣擬梅妻 | 노년의 청취는 매처 ⁸²¹ 에 견준다 |
| 風流此日誰擔荷 | 풍류를 오늘날 누가 메어줄거나 |
| 鳥亦關情向客啼 | 새도 정이 있어 객을 향해 운다 |

821 매처 : 송나라 시인 임포의 자는 군복(君復)으로, 서호의 고산(孤山)에 은거하여 20년 동안 성시(城市)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서화와 시에 능하였고 특히 매화시(梅花詩)가 유명하다. 장가를 들지 않아 자식이 없었으며 매화를 심고 학을 길러 짝을 삼으니, 당시에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하였다.

고민을 풀다

排憫

| | |
|---------|---------------------|
| 烟雲千疊一樓深 | 천겹 연운에 깊은 누각 하나 |
| 冷看浮生與世沈 | 부생들 세상에 부침함을 차갑게 본다 |
| 逸驥時憊奴隸手 | 천리마도 노예의 손에 괴롭고 |
| 神龍或被蟻螻侵 | 신룡도 혹 개미가 침범하나니 |
| 風嘯竹氣驚秋氣 | 대나무 바람에 가을을 놀라고 |
| 月墮塘心照我心 | 연못에 진 달은 마음을 비춘다 |
| 此地曾無桃挾岸 | 이곳은 복사꽃 언덕이 없으니 |
| 莫疑復有漁郎尋 | 어부가 찾아올까 의심치 말라 |

석촌이 와서 절산의 여러 어른과 대화하다

石村至與節山諸丈共話

| | |
|---------|----------------------------------|
| 起居嶽峙水流間 | 높은 산 흐르는 물에 기거하며 |
| 一世雌黃摠不關 | 세상의 시비 모두 아랑곳 않네 |
| 往事竟隨鴻踏雪 | 지난 일은 눈 위의 기러기 자취 ⁸²² |
| 閒蹤時與鶴歸山 | 한적한 걸음으로 때로 학과 산으로 간다 |
| 餽蠶婦戴青桑去 | 누에 먹인 아낙은 뽕잎을 이고 가고 |
| 牽犢兒迎白月還 | 소를 끄는 아이는 달빛에 온다 |
| 佳客今宵伴秋到 | 가객이 오늘 밤 가을 맞아 오니 |
| 醕來甕釀喜開顏 | 옹기에 빚은 술로 얼굴을 편다 |

822 기러기 자취 : 덧없는 인생을 말한다. 소식(蘇軾)의 「화자유민지회구(和子由澗池懷舊)」란 시에 “우리 인생 가는 곳마다 어떡하고. 응당 나는 기러기 눈 속 진흙 밟은 듯하리. 진흙에 우연히 발톱 자욱이 남기지만 기러기 날아감에 어찌 동서를 따지리요. [人生到處知何似 應似飛鴻踏雪泥 泥上偶然留指爪 鴻飛那復計東西]” 하였다.

남리 조국현 공을 애도하다 절구 3수

輓曹公南里國鉉 三絶

1

| | |
|---------|--------------------------------|
| 嶙峋奇氣可凌雲 | 높은 기개 구름에 솟구치고 |
| 駿馬迢超冀北群 | 준마는 기북의 군마 ⁸²³ 초월했다 |
| 義鼓何年天地動 | 의고는 언제 천지를 진동했나 |
| 胸中壹鬱一番噴 | 흉중의 답답함 한번 토했다네 |

2

| | |
|---------|----------------------|
| 憲愾歐洲不一論 | 구주 헌법 의지하여 일치가 안 될 때 |
| 爭相占利隔牆籬 | 모두 담장 너머 이익만을 다투었다 |
| 能揮群斥成攸志 | 군소의 배척 물리치고 뜻을 이루니 |
| 却使人人薦祖魂 | 사람마다 선조의 영혼 제향케 하였네 |

민의원일 때에 증론을 모아서 제전을 보존하였다.

爲民議員時得衆論保祭田

3

| | |
|---------|-------------------|
| 心因扶道嘆無休 | 도를 부축하는 마음 늘 탄식했고 |
| 眼爲憂邦淚自流 | 나라 근심에 눈물은 절로 흘렀다 |
| 河水一清將有日 | 황하가 맑을 날 있을 터인데 |
| 胡爲竟不百年留 | 어찌 백년을 머물지 못하셨나 |

823 기북의 군마 : 옛 중국 기주(冀州)의 북쪽으로 지금의 허북성(河北省)은 좋은 말이 많이 나는 곳으로 유명하였다.

중추월

仲秋月

| | |
|---------|--------------------|
| 玉露瀼瀼斗柄移 | 옥빛 이슬에 북두자리 옮기니 |
| 爲觀月色下樓遲 | 달빛을 보려 누각에 머물렀다 |
| 誰家倚檻聞吹笛 | 어느 집 난간에서 피리를 부는가 |
| 戍婦聞鴻遠寄詩 | 수부는 기러기에 멀리 시를 부친다 |
| 天賴往還看久運 | 천도는 왕래하며 오래 운행하니 |
| 人將盈朧詎生悲 | 인간의 성쇠야 무어 서글프랴 |
| 淸輝一遍寰瀛洗 | 맑은 빛이 천하를 두루 씻으니 |
| 緣爾聖賢心法知 | 널로 인해 성현의 심법을 아노라 |

국화

菊

| | |
|---------|--------------------|
| 送酒無人叩竹扉 | 술로 대나무 문 찾는 이 없고 |
| 疏籬曲檻夕陽微 | 울타리와 난간에 석양만 미미하다 |
| 離騷屈子餐英盡 | 굴원은 이소 지으며 꽃을 먹었고 |
| 書史淵明浥露歸 | 도연명은 서사 쓰며 이슬에 젖었다 |
| 淡泊仙姿欺白雪 | 담박한 선자는 백설을 경시하고 |
| 嬋妍正色着黃衣 | 선연한 정색은 황의를 입은 듯 |
| 蝶翅亦識敖霜傑 | 나비 또한 오상의 호걸을 알아서 |
| 欲共生涯款款飛 | 생애를 함께 하고자 다정하게 난다 |

해관 송경섭 어른께 드림 절구 2수

呈宋丈海觀 璟燮 二絶

1

| | |
|---------|------------------|
| 昔年承誨服胸裏 | 예전의 훈도 가슴에 두었으니 |
| 命駕雪中又敢忘 | 눈 속에 오신 뜻 감히 잊으랴 |
| 虛佇多時誠愧薄 | 정성이 박해 오래 기다리시니 |
| 至今座上尙留香 | 지금도 자리엔 향기가 남았네 |

2

| | |
|---------|----------------|
| 氣概超然一世上 | 기개는 일세를 초월하시고 |
| 風流可壓萬人前 | 풍류는 만인을 압도하시네 |
| 嗟乎懷此瑾瑜寶 | 아 주옥의 보배를 품으시고 |
| 遯跡海山寂寞邊 | 적막한 해산에 은둔하시네 |

학정 이우규를 애도하다

輓李鶴汀禹圭

海鶴清姿錦岵陰 금산의 북쪽 해학의 맑은 자태
當年書劒孰知音 당년의 서검을 누가 알았으랴
藝垣常執盟牛耳 항상 문단의 맹약 주관했나니⁸²⁴
風拂素帷擣我心 흰 장막에 부는 바람이 마음을 친다

824 맹약 주관했나니 : 옛날 제후들이 맹약을 할 때 희생의 귀를 베는데, 맹주가 가장 먼저 피를 입에 머금는다.

제 4 권

시(詩)

산거에 느낌이 있어

山居有感

萬樹中間有一樓 깊은 수목 중간에 누각 하나
肯隨塵世共沈浮 진세를 좇아 함께 부침할쏘냐
人如美玉疑玄圃 사람은 미옥 같아 현포의 선인이요⁸²⁵
田產蹲鴟是沃州 밭엔 준치⁸²⁶ 나니 바로 옥주라네⁸²⁷
宇宙漲煙欲何去 천하에 연진이 가득하니 어디로 갈까
江山似此可淹留 강산이 이와 같아 머무를 만하구나
兀然難禁離群嘆 홀로 이군⁸²⁸의 탄식 금하기 어려워
回憶青燈舊日遊 청등 아래 옛날의 교유를 추억한다

825 현포(玄圃)의 선인이요 : 현포는 곤륜산(崑崙山) 정상에 있다는 전설상의 신선이 거처하는 곳이다.

826 준치(蹲鴟) : 토란의 별칭으로, 올빼미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827 옥주(沃州)라네 : 옥주(沃州)는 중국 절강성(浙江省) 신창현(新昌縣) 동쪽에 있는 명산으로 이 위에는 방학봉(放鶴峯)과 양마파(養馬坡)가 있는데, 옛날 진(晉)의 고승(高僧) 지둔(支遁)이 학을 놓아주고 말을 기른 곳이라 한다.

828 이군(離群) : 벗들과 떨어져 외로이 사는 것을 말한다. 자하(子夏)가 이르기를, “내가 벗을 떠나 쓸쓸히 홀로 산 지가 오래이다. [吾離群而索居 亦已久矣]” 하였다. 『禮記』 「檀弓」

세모에 이별을 얘기하다

歲暮話別

百歲光陰孰謂遲 백세의 광음을 누가 더디다 하였나
孜孜毋負此心期 애써 이 심기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而今古道棄如土 이제는 옛 도를 흠처럼 버리나니⁸²⁹
破釜沈船更有誰 누가 다시 술을 깨고 배를 가라앉히랴⁸³⁰

829 흠처럼 버리나니 : 두보(杜甫)의 시 「빈교행(貧交行)」에 이르기를,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가 가난할 때 사귀을, 이런 도리를 지금 사람들은 흠처럼 버린다네. [君不見管鮑貧時交 此道今人棄如土]” 하였다.

830 술을 …… 가라앉히랴 : 출진(出陣)에 앞서 살아 돌아가지 않고 크게 싸우겠다는 각오를 말한다. 진(秦)나라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항우(項羽)가 거록(鍬鹿)의 싸움에서 타고 온 배를 가라앉히고 쓰고 있던 술을 깨부셨다는 일에서 온 말이다.

광부에서 석촌 권희철과 함께 읊다 경술년(1970)
 光府與石村權熙哲共吟 庚戌

悠悠萬事任蒼天 유유한 만사는 창천에 맡기고
 握手東風意快然 춘풍에 손을 잡으니 뜻이 상쾌하다
 煮酒論交千里外 천리 밖 술을 데우며 교유 논하고
 挑燈評世一床邊 책상 가 등불 돋우며 세상을 평한다
 史雲猶樂生塵釜 사운⁸³¹은 여전히 먼지 솥을 즐기니
 季子何蘄負郭田 어찌 계자⁸³²처럼 부과의 밭을 바랄까
 不禁中宵嫠婦嘆 한밤에 이부의 탄식⁸³³을 금치 못하니
 抱衾轉輾獨無眠 이불 안고 전전반측 잠들지 못하노라

831 사운(史雲) : 한(漢)나라 때 범염(范冉)으로 사운은 그의 자이다. 내무현(萊蕪縣)의 장(長)이 되었다가 뒤에 당인(黨人)의 금고(禁錮)에 걸렸다. 청빈하게 살면서도 태연자약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시루에 먼지가 이는 범사운이요, 솥에 고기가 사는 범 내무이네. [甌中生塵范史雲 釜中生魚范萊蕪]” 하였다. 『後漢書』 卷81 「獨行列傳 范冉」

832 계자(季子) : 전국시대에 6국의 재상이 되었던 소진(蘇秦)을 말한다. 그가 산둥(山東) 육국(六國)의 재상이 된 뒤에 고향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낙양의 성곽을 등진 땅 두 마지기만 있었다면, 어찌 여섯 나라 정승의 인장을 찾겠는가. [且使我有雒陽負郭田二頃 吾豈能佩六國相印乎]” 하였다. 『史記』 卷69 「蘇秦列傳」

833 이부(嫠婦)의 탄식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4년에 이르기를 “과부가 베 짜는 복실이 끊어질 것은 걱정하지 않고서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가 망할 것을 걱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그 재앙이 자기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여겨서이다. [嫠不恤其緯 而憂宗周之隕 爲將及焉]” 하였다.

가군의 71세 생신에 느낌이 있어, 경술년(1970)

家君七十一生朝有感

庚戌

恨未伸情周甲宴 회갑연에 정을 못 펴서 한했더니
 今朝獻壽似合題 오늘 아침 헌수하니 수연에 합당하다
 吉祥與等春花發 길상은 봄꽃과 나란히 피어나고
 遐壽應期竹栢齊 장수는 죽백과 같기를 기약한다
 甘旨雖無董廚具 진미는 주방에⁸³⁴ 갖춰진 것 없으나
 斑衣竊效萊兒啼 색동옷 입고 노래자의 울음 본뜨린다⁸³⁵
 七人昆季如相好 일곱 형제의 우호가 서로 좋으니
 福祿臻臻此可梯 이제부터 복록이 끊임없이 이르리라

834 진미는 주방에〔董廚〕: 동소남(董召南)의 주방과 달리 맛있는 음식은 있지 않다고 한 것이다. 동소남은 당나라 때 안풍(安豐) 사람이다. 일찍이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뜻을 얻지 못했으며, 효성스럽기로 특히 이름났었다. 『한창려집(韓昌黎集)』 권2 고시(古詩)에 실린 「차재동생행(嗟哉董生行)」에 “아, 동생(董生)이여!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고인(古人)의 글을 읽는다. 종일 쉴 새 없이 일하여, 산에 가서 나무를 하기도 하고, 물에 가서 고기를 잡기도 하네. 부역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당에 올라가서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니, 부모는 근심하지 않고, 처자식은 불평하지 않네. [嗟哉董生 朝出耕夜歸讀古人書 晝日不得息 或山而樵 或水而漁 入廚具甘旨 堂間起居 父母不戚戚 妻子不咨咨]” 하였다.

835 노래자(老萊子)의 울음 본뜨린다 : 중국 고대 현인인 노래자(老萊子)가 아버이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70세 고령에 색동옷을 입고 어린아이 놀이를 하고 일부러 넘어져서 우는 시늉을 하였다. 『小學』

음사의 여러 어른을 모시고 서강사에서 놀다

陪吟社諸丈遊瑞岡祠

| | |
|---------|---------------------|
| 窮峽稱心事嘆稀 | 산골에 마음 드는 일이 적더니 |
| 芳林春日決愁圍 | 방림의 봄날에 시름을 깨트린다 |
| 閒情半榻留雲宿 | 길상의 한가한 정에 구름이 머물고 |
| 壯志平生伴鵠飛 | 평생 굳센 뜻은 고니를 짝해 난다 |
| 邂逅故人堪慰喜 | 고인을 만나서 위로되고 기쁘니 |
| 風流諸老可依歸 | 풍류 넘치는 여러 어른 의지하리 |
| 爲傾蓬勃花間釀 | 꽃 사이 향기 넘치는 술 기울이고자 |
| 掃石青山更振衣 | 청산의 바위를 쓸고 다시 옷을 털다 |

광부의 선비들 모임

光府雅集

風雨乾坤正此時 천지에 풍우가 몰아치는 이 시절
憂邦一讀屈平詞 나라 근심하며 굴평의 글을 읽는다
匣中秋水經新淬 갑 속의 추수⁸³⁶ 새로 연마했건만
海內親朋恨遠離 해내의 친봉은 멀리 떨어져 한스럽네
桃李成蹊看世態 도리가 길을 이루니⁸³⁷ 세태를 보겠고
鷺鷥隨處許心知 백로는 곳을 따라 마음을 알아준다
江山報道春色好 강산이 고운 봄빛을 알려주니
今日倦遊始赴期 금일의 지친 놀음 처음으로 기약 따랐네

836 추수(秋水) : 가을날의 물처럼 싸늘한 빛이 도는 예리한 칼을 말한다.

837 도리가 길을 이루니 : 『사기(史記)』 「이장군열전(李將軍列傳)」의 논(論)에 “복숭아 오얏 이 말이 없으나 그 아래 절로 오솔길이 생긴다. [桃李不言下自成蹊]” 하였다. 복숭아 오얏이 그 꽃과 과일이 좋아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는 하지만 세한(歲寒)이 오면 잎이 모두 떨어져 발길이 끊김을 이르는 말이다.

녹천 임동한에게 주다

呈林綠泉 東翰

| | |
|---------|-----------------------------------|
| 踏破千山更萬山 | 수없이 많은 산들을 답파하고 |
| 孤舟又着錦江灣 | 배를 또 금강 굽이에 대었다 |
| 莫嫌行李沈城市 | 행장이 성시에 잠겼다 혐의 말라 |
| 爲接清襟叩竹關 | 청금을 접하려고 죽관을 두드렸네 |
| 經世書曾堆案上 | 경세의 서적은 일찍 책상에 쌓였고 |
| 邀朋酒尙釀花間 | 벗을 맞는 술은 아직 꽃밭에 익어간다 |
| 便教鄙吝鎖胸裏 | 문득 흉중의 비린을 없애고자 하니 |
| 叔度而今許往還 | 이제부터 숙도 ⁸³⁸ 는 왕래를 허여하소 |

838 숙도(叔度) : 후한(後漢) 때의 사람 황헌(黃憲)으로 숙도는 그의 자이다. 그는 자품이 청수하고 총명하여 당시 사람들로부터 안자(顔子)에 비유되기까지 했는데, 그와 같은 고을 사람인 진번(陳蕃)과 주거(周舉)는 항상 말하기를 “몇 달만 황헌을 보지 못하면 마음 속에 비린한 생각이 다시 싹터 버린다. [時月之間不見黃生 則鄙吝之萌 復存乎心]”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53 「黃憲列傳」

영릉대⁸³⁹

玲瓏臺

| | |
|---------|-------------------|
| 地得賢人氣亦明 | 현인 얻어 땅의 기운도 밝으니 |
| 雲仍百世擅聲名 | 후손들은 백세에 명성을 독점했다 |
| 江流澄澈山如洗 | 강류는 청정하고 산은 씻은 듯 |
| 一到斯亭萬念輕 | 정자에 이르니 만념이 가볍다 |

839 영릉대(玲瓏臺) : 전남 화순군 남면 복교리(福橋里)에 있다. 조선 선조(宣祖) 때 농재(瓏齋) 김곤섭(金鯤燮)이 지었으며, 종자(從子) 김덕령(金德齡) 형제가 부모님을 위하여 이곳까지 와서 낚시를 하였다고 하여 김장군조대(金將軍釣臺)라 부른다.

빙월정⁸⁴⁰

氷月亭

牛山窈窕別開天 우산 그윽한 곳에 별천지 열리니
隱老當時管一川 은로가 당시 온 시대를 독점했다
不忍荒墟杖屨地 걷던 곳 황폐함을 차마 두지 못하여
築亭講誦百過年 빙월정 축조하여 백년을 강송했네

840 빙월정(氷月亭) : 순천시 송광면 우산에 있는 정자로, 은봉(隱峰) 안방준(安邦俊) 선생이 강학하고 소유하던 곳이다.

순천의 객관에서 학남 정환섭과 이별하다

順天客館別鄭鶴南 桓燮

磊塊胸中氣射虹 흥중의 기운은 무지개를 쏘고
蜿蜒筆下勢騰龍 꿈틀꿈틀 필세는 용이 나는 듯
兩宵萍水奇緣在 이틀 밤 부평초 기연을 남기니
許否他年膏秣從 훗날의 방문⁸⁴¹을 허여하실런지

841 방문[膏秣] : 한유(韓愈)의 「송이원귀반곡(送李愿歸盤谷)」에 “내 수레에 기름 치고 나의 말에 꼴을 먹여.[膏吾車兮 秣吾馬]”라는 구절이 있다. 이후 고말(膏秣)은 길을 떠날 차비를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유거에 회포를 쓰다

幽居書懷

| | |
|---------|----------------------|
| 齒冷辛酸世味嘗 | 이 시리도록 신선한 세미를 맛보고 |
| 乘涼溪屋却千忙 | 서늘한 계곡에서 온갖 바쁨 물리치네 |
| 任情杠筆評三古 | 서까래 붓에 정을 맡겨 고대를 평하니 |
| 違計戎衣掃八荒 | 용의 입고 천하 평정할 꾀도 어긋났네 |
| 枕石臥雲身自健 | 구름 속 돌을 베니 몸은 절로 굳세고 |
| 彈琴酌酒意差強 | 고 타며 술 따르니 뜻도 씩씩해진다 |
| 庭梧滴露磨朱墨 | 뜰의 오동에 진 이슬로 주묵을 갈아 |
| 閒抄東西治病方 | 한가히 동서양의 약 처방을 초록한다 |

요월정⁸⁴²을 유람하다

遊邀月亭

| | |
|---------|-----------------------------------|
| 卜此菟裘過幾秋 | 이곳에 자리한 지 ⁸⁴³ 몇 년이 흘렀나 |
| 登臨斯日仰前修 | 오늘 등림하여 전현을 우러른다 |
| 客來如請鶯呼友 | 객이 오니 꾀꼬리는 벗을 부르는데 |
| 人去空留月在洲 | 사람 떠난 모래톱엔 달빛만 남아 있다 |
| 四壁凝煙看古墨 | 안개 엉긴 사면 벽엔 고묵이 보이고 |
| 千松列戟護危樓 | 천 그루 솔은 창처럼 누각을 보호한다 |
| 黃龍江擅南州好 | 황룡강의 풍광은 남녘의 으뜸이니 |
| 艤棹斜陽任意遊 | 석양에 배를 대고 마음껏 유람하리라 |

842 요월정(邀月亭) : 장성군 황룡리에 위치하고 있다. 요월정 앞에 황룡강이 흐르고 강 건너로는 옥녀봉과 대하고 탁 트인 들판이 보인다. 조선 명조 대에 공조좌랑을 지낸 광산인 요월정 김경우(金景愚, 1517~1559)가 말년에 낙향하여 산수를 벗하며 음풍농월하기 위해 건축한 것으로 1811년 1차 중건하였으며 1925년 후손 김계두가 중건하였다고 전한다.

843 자리한 지 : 원문 도구(菟裘)는 노(魯)나라의 지명으로, 일반적으로 몸이 늙어 벼슬에서 물러나 사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춘추시대 노나라의 신하인 우보(羽父)가 그 임금 은공(隱公)에게 아우 환공(桓公)을 죽이자고 청하였을 때, 은공이 거절하고 임금의 자리를 떠나 도구로 가서 살려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隱公 11年」

석천 박영봉의 장원에서 일재 정홍채, 석촌, 중헌 이민승을 모시고
운자를 나눠 청자를 얻다

石泉 朴永鳳 庄陪鄭逸齋 泓采 石村李重軒 民升 分韻得靑字

| | |
|---------|-------------------------|
| 每唾榮名舉世傾 | 늘 영명에 온 세상이 경도됨을 질타하였더니 |
| 城中自笑滯吾行 | 성중에 나의 행차 지체함이 우습구나 |
| 一場醉酒忘無賴 | 한바탕 술에 취해 무료함을 잊고 |
| 三尺彈琴訴不平 | 삼척 거문고 타며 불평을 호소한다 |
| 誰復昏衢明燭火 | 누가 어두운 길에 불을 밝힐까 |
| 悅如夜雨聽鷄聲 | 밤비에 어렴풋 닭소리를 듣는 듯 |
| 深宵告誡慰勲意 | 깊은 밤 고계한 은근한 뜻은 |
| 渾是春風吹發英 | 모두 봄바람 불어 꽃이 피어나는 듯 |

청우당에 쓰다
題靑友堂

| | |
|---------|-------------------|
| 風塵滾滾此何時 | 세찬 풍진 이 무슨 시절인가 |
| 乾土一區人不知 | 맑은 한 구역을 사람들이 모르네 |
| 招致佳朋開翰墨 | 좋은 벗 초치하여 한묵을 여니 |
| 從今相托歲寒期 | 이제부터 세한의 뜻을 기탁하리라 |

춘계 유호석의 장원에서 우승 이민수, 석촌, 이중헌과 술에 취해 운을 듣다
春溪柳浩錫庄與愚松 李珉秀 石村李重軒酒酣拈韻

靑友堂中眼忽靑 청우당에서 홀연 청안으로 마주하니⁸⁴⁴
鄧林蒼翠卽斯庭 푸른 비췌빛 등림⁸⁴⁵이 이 뜰이로다
幾番留客樽常備 객을 붙들려고 늘 술 단지를 갖추고
又是遊山屐不停 유산의 발걸음도 그치지 않는다네
漠漠炊煙生閭閻 자욱한 밥 짓는 연기 여염에서 일고
蕭蕭秋雨過潭汀 소소한 가을비는 연못가를 지난다
松公石老風流好 송공과 석로⁸⁴⁶의 풍류가 좋으니
玉屑清談傾耳聽 옥설⁸⁴⁷ 같은 청담에 귀를 기울인다

844 청안으로 마주하니 : 진(晉)나라 완적(阮籍)이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청안(靑眼)을 뜨고, 미워하는 부류인 예속(禮俗)을 따지는 선비를 만나면 백안(白眼)으로 대하였다. 『晉書』 卷49 「阮籍傳」

845 등림(鄧林) : 전설상의 숲이다. 옛날에 과부(夸父)가 해를 쫓아 달려서 해가 들어가려 할 즈음에 목이 말라 하수(河水)와 위수(渭水)를 마셨는데도 부족하여 대택(大澤)의 물을 마시려고 하였는데 도중에 목이 말라서 죽고, 버려진 그의 지팡이가 화(化)하여 등림이 되었다고 한다. 『山海經』 卷8 「海外北經」

846 송공(松公)과 석로(石老) : 소나무와 바위를 높여서 하는 말이다.

847 옥설(玉屑) : 청담(淸談)을 나눌 때 아름다운 말이 마치 옥가루가 흩어지는 것처럼 나온다는 뜻이다.

종인 성암 위성택의 61세 생일 시에 차운하다

次宗人省菴 聖澤 六十一生朝韻

正及蓬弧射四辰 사방에 봉호⁸⁴⁸를 쏘는 생신에 미쳐
將看尺蠖屈求伸 장차 척확⁸⁴⁹이 펴는 것을 보리라
寄踪殊域雖爲客 수역에 기탁해 나그네 되었으나
採藥名山欲養親 명산의 약초 캐어 아버지 봉양하려네
閱盡風霜頭髮白 풍상을 다 겪어 두발은 세었으나
算來今古眼睛新 고금을 헤아림에 눈동자가 새롭네
持心磊落省菴子 마음가짐 뇌락한 성암자여
最作人間福履身 가장 인간 세상 복 받은 인간일세

848 봉호(蓬弧) : 뽕나무로 만든 활과 쑥대로 만든 화살을 말한다. 고대(古代)에 아들이 태어나면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쑥대로 화살을 만들어서 천지 사방에 활을 쏘아, 남아로 태어났으면 응당 사방을 돌아다닐 뜻을 품어야 함을 표상하였다. 『禮記』 「內則」

849 척확(尺蠖) : 『주역』 「계사전하(繫辭傳下)」에 이르기를 “자벌레가 몸을 굽혀 움츠리는 것은 장차 몸을 펴기 위함이고, 용과 뱀이 숨는 것은 자신의 몸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尺蠖之屈 以求信也 龍蛇之蟄 以存身也]” 하였다.

옥산 김정출에게 주다 절구 2수

贈玉山金貞出 二絕

1

| | |
|---------|------------------|
| 漕溪一別十過霜 | 조계에서 이별한 지 10여 년 |
| 千里雲山每入望 | 천리 운산은 늘 눈에 든다 |
| 握手今朝無別語 | 오늘 손을 잡고 말도 없이 |
| 但言往事卽悲傷 | 옛일을 말하며 슬퍼할 뿐 |

2

| | |
|---------|---------------------------------|
| 讀書林下我攸宜 | 임하의 독서는 나에게 마땅한 바 |
| 殖貨封侯詎望之 | 식화와 봉후를 ⁸⁵⁰ 어찌 바라겠는가 |
| 請看東西今古史 | 청컨대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지어다 |
| 回車改轍是男兒 | 수레 돌려 길을 고침이 남아로다 |

850 식화와 봉후를 : 식화는 재물을 늘리는 것이고, 봉후는 제후의 봉작을 말한다.

김씨 강명재⁸⁵¹ 시를 차운하다

次金氏講明齋韻

| | |
|---------|------------------------------------|
| 月出臨湖氣淑明 | 월출산 호수 닿아 기운도 맑으니 |
| 蘆村窈窕一齋成 | 노촌 깊은 곳에 서재를 이루었다 |
| 士林幾喜羹墻地 | 사림은 얼마나 갱장 ⁸⁵² 의 터 기뻐했나 |
| 子姓仍看建立誠 | 자손들의 건립 정성 보겠노라 |
| 當日勤勞輸節義 | 당일에 근로하여 절의를 다했고 |
| 千秋礪落樹風聲 | 천추에 우뚝한 풍성을 세웠네 |
| 洋洋絃誦時盈耳 | 양양한 글소리 때로 귀에 가득하니 |
| 行過誰無敬意生 | 지나는 사람마다 공경한 뜻 표한다 |

851 강명재(講明齋) :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청용리에 있는 밀양김씨(密陽金氏)의 재실이다. 1628년에 김홍발(金弘發, 1582~1643)이 노동 마을에 정착한 후 155년이 지난 1783년에 김치상(金致商, 1738~1797)이 창건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843년에 중수된 건물이다.

852 갱장(羹墻) : 옛날 요(堯)임금이 죽은 뒤 순(舜)임금이 3년 동안 지극히 양모(仰慕)한 나머지 국그릇에서 요임금을 보고 담장에서도 요임금을 보았다는 고사에서 연유한 단어로, 사후에 간절히 흠모하는 마음을 뜻한다. 『後漢書』卷63「李固列傳」

가을날 무진음사의 초대에 나가다

秋日赴武珍吟社之招

軒軒腋羽似飄旌 몸에 날개 돋아 나부끼는 깃발인 듯
策馬西風百里程 가을바람 백리길에 말을 달렸다
季世德星相聚地 말세에 덕성⁸⁵³이 서로 모인 곳
南村諸友洽懽情 남촌⁸⁵⁴의 벗들은 기쁜 정이 가득하다
花間酌酒人皆醉 꽃 사이에 술을 따르니 모두 취했고
舌底騰虹座欲傾 혀끝에 무지개 솟아 좌중이 경도하네
工部憂邦千載後 천년 후 두공부⁸⁵⁵처럼 나라를 근심하니
誰能更復繼詩聲 누가 다시 시의 명성을 계승할까

853 덕성(德星) : 후한(後漢)의 진식(陳寔)이 원방(元方), 제방(季方) 두 아들과 손자 장문(長文)을 데리고 순숙(荀淑)의 집에 가서 하늘에 덕성(德星)이 모이는 상서(祥瑞)가 나타났고, 태사(太史)가 이르길, “오백 리 안에 현인(賢人)이 모였을 것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太平御覽』 卷384

854 남촌(南村) : 도잠(陶潛)의 「이거(移居)」 시에 이르기를, “예전부터 남촌에 살고 싶었으니, 좋은 집터 찾아서가 아니라오. 들으니 깨끗한 마음을 간직한 사람 많아, 아침저녁으로 자주 만나려고 해서라오. [昔欲居南村 非爲卜其宅 聞多素心人 樂與數晨夕]” 하였다.

855 두공부(杜工部) : 두공부는 당나라 시인(詩人) 두보(杜甫)이다. 그의 벼슬이 공부원의랑(工部員外郎)이었기 때문에, 세칭 ‘두공부’라 하였다.

즉사
卽事

| | |
|---------|------------------------|
| 爲揮眉間萬種愁 | 미간의 만종의 시름 없애려고 |
| 招招印友約清遊 | 벗을 불러 청유를 약속했다 |
| 日暝雁影和雲沒 | 해가 지니 안영도 구름과 사라지고 |
| 冬煖溪聲撼戶流 | 따스한 겨울 개울은 창호를 흔들며 흐른다 |
| 百歲浮生如瞬息 | 백세의 부생은 순식간이요 |
| 一區寰宇等泡漚 | 한 구역 세상은 거품과 같다 |
| 而今誰識吾人趣 | 이제 누가 나의 취향을 알 것인가 |
| 社酒携君更上樓 | 그대와 사주를 들고 다시 누각에 오른다 |

나삼봉군이 군영에서 편지를 보내어 절구 2수로 사례하다

羅君三奉自軍營有書以二絕謝之

1

| | |
|-------|---------------------------------|
| 君是名家裔 | 그대는 명가의 후예 |
| 從余讀古文 | 나를 좇아 고문을 읽었다 |
| 薤鹽三四載 | 해염 ⁸⁵⁶ 으로 삼사 년을 지냈으나 |
| 刻苦獨超群 | 각고함이 유독 뛰어났다 |

2

| | |
|-------|-----------------|
| 寒風吹朔雪 | 한풍에 삭설이 휘날리는데 |
| 歲暮倚閭人 | 세모에 마을 문에서 기다린다 |
| 滿紙淋漓字 | 종이 가득 정겨운 글자가 |
| 慰吾寂寞濱 | 적막한 물가의 나를 위로한다 |

856 해염(薤鹽) : 부추나 소금 따위로 반찬을 삼는다는 말로 변변찮은 밥상을 말한다.

소암 박종삼의 수연을 축하하다 신해년(1971)
 賀朴紹菴鍾三壽宴 辛亥

蘆岡山下百花辰 노강산 아래 백화가 필 때
 又是翁家鐵樹新 옹의 집안 철수⁸⁵⁷까지 새롭다
 言行擬追當世士 언행은 당세의 선비를 좇고자
 容顏常帶一團春 용안은 항상 화락한 봄빛일세
 翠松堂守青氈古 취송당에서 옛 청전 지키니
 洛水人稱萬福陳 낙수 사람은 만복을 칭찬한다
 鵠峙鸞停庭際列 훌륭한 자손이 뜰에 도열하여
 鹿鳴歌裏速嘉賓 녹명가⁸⁵⁸ 부르며 가빈을 공경하네

857 철수(鐵樹) : 철수는 식물(植物) 이름으로, 잎은 향포(香蒲)와 같고 자색(紫色)을 띤 나무인데, 소철(蘇鐵)이라고도 하고, 해송(海松)이라고도 하나 자세하지 않다. 다만 이 나무는 원래 열대식물인데,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으므로, 선가(禪家)에서는 이것을 무심(無心), 무작(無作)의 묘용(妙用)에 비유하여 사려와 분별을 단절하는 수행의 법칙으로 삼는다고 한다. 『속전등록(續傳燈錄)』

858 「녹명가(鹿鳴歌)」: 『시경』 「소아(小雅)」의 편명이다. 아름다운 손님을 연향하는 시이다.

백하 민점기의 벽상에 쓰다 절구 3수 임자년(1972)
 題閔栢下占基壁上 三絶 壬子

1

漢陽城外一區淨 한양성 밖 한 구역 청정한 곳
 種菜灌花忘世塵 채소와 꽃을 가꾸며 세진을 잊었다
 君看滄溟風萬里 그대는 창명의 만리풍을 보라
 也應緩急渡迷津 또한 조만간 미진을 건너리니

2

扶妻携兒共蝸室 처자와 와실⁸⁵⁹을 함께 하며
 爲理穢荒侵早晨 황무지 개간하려 새벽에 일어난다
 贊易仲尼言尺蠖 중니가 찬역하며 척확을 말했나니
 一番屈欲一番伸 한 번 굽힘은 한 번 펴고자 함이라

3

如我迂疏人共棄 나의 우활함은 모두가 버리는 바
 誰能此世賞余音 누가 이 세상에 나의 뜻 알아줄까
 相逢爲說心中事 서로 만나 심중의 일을 말하노니
 倒盡芳樽坐夜深 방준이 다하도록 심야에 앉았노라

859 와실(蝸室) : 달팽이의 집이란 뜻으로 작고 초라한 집을 비유한다.

매헌 김영석을 애도하다 절구 3수

輓金梅軒 瑛錫 三絕

1

春風堂裏梅軒子 춘풍이 부는 집의 매헌자여
獨保先王舊樣冠 홀로 선왕의 옛 의관 보존했네
願行出言人仰止 언행을 삼가 사람이 우러렀고
炳然百歲一心丹 백년 세월 단심이 밝았다네

2

榮江城外訃車至 영산강 성 밖에서 부거가 이르니
我悔承顏頗隔年 한 해 동안 못 뵈는 것을 후회하네
爲箕爲裘賢有子 현명한 아들 기구⁸⁶⁰의 업을 이으니
典刑今日尚依然 오늘도 여전히 모습이 어른거리네

3

軒頭梅笑春風暖 헌창에 매화 피고 봄바람 따스한데
晚拜素帷巧此時 뒤늦게 흰 휘장에서 뵈는구나
又是亭亭梁月白 높은 들보에 달빛이 밝으니⁸⁶¹
精神彷彿在花枝 정신은 어렴풋 꽃가지에 있는 듯

860 기구(箕裘) : 키와 가죽옷으로 가업(家業)을 비유하는 말이다. 『예기』 「학기」에 이르기를, “훌륭한 대장장이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본받아 응용해서 가죽옷 만드는 것을 익히게 마련이고, 활을 잘 만드는 궁장(弓匠)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본받아 응용해서 키 만드는 것을 익히게 마련이다. [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箕]” 하였다.

861 들보에 달빛이 밝으니 : 두보(杜甫)가 이백(李白)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구에 “지는 달이 지붕을 가득히 비추하니, 그대의 밝은 안색 행여 보는 듯. [落月滿屋梁 猶疑見顏色]”이라 하였다.

경저에서 옥산에게 주다 절구 5수

京邸贈玉山 五絶

1

| | |
|---------|-----------------------------------|
| 憶昔蘆山講道時 | 예전 노산의 강도를 추억하니 |
| 劇光刮垢盡宵爲 | 절차탁마하며 밤을 지새웠지 |
| 羨君才思超儕輩 | 부럽다 군의 재사 무리를 초월하니 |
| 昂昂駉駉千里馳 | 헌걸찬 결제 ⁸⁶² 가 천리를 달리는 듯 |

2

| | |
|---------|----------------------|
| 戰雲蕩蕩頑無晴 | 넓고 짙은 전운 걷히지 않아 |
| 四處夜聞擊柝聲 | 사방에서 밤이면 격탁 소리 들린다 |
| 風襲巖堂終莫奈 | 학당을 덮친 바람 끝내 어찌하라 |
| 長嘆掩卷入軍營 | 길게 탄식하며 책을 덮고 군영에 든다 |

3

| | |
|---------|-----------------------------------|
| 自君盡室洌江濱 | 군은 가족 이끌고 열수 ⁸⁶³ 로 가서 |
| 梁木摧折摠未聞 | 들보가 꺾인 소식 듣지 못했다 |
| 再閱六丁厄何酷 | 거듭 육정 ⁸⁶⁴ 의 참혹한 액난 겪으니 |
| 經雪花如方吐芬 | 눈을 맞은 꽃이 향기를 토하리라 |

862 결제(駉駉) : 준마의 일종이다.

863 열수(洌水) : 한강(漢江)의 옛 이름이다.

864 육정(六丁) : 도교(道教)에서 말하는 신(神)의 이름이다.

4

| | |
|---------|-------------------|
| 下携妻子并恩威 | 아래로 처자에겐 은혜와 위엄을 |
| 上侍偏親孝養之 | 위로 편친 모시며 효도로 받드니 |
| 曉老華亭佇立意 | 효당이 화정에서 기다린 뜻을 |
| 遺詩歷歷也應知 | 남기신 시에서 뚜렷이 알리라 |

5

| | |
|---------|-----------------------|
| 城頭一別十餘春 | 성사에서 이별한 지 십여 년 |
| 共此燈光涕欲嘔 | 오늘 등불을 함께 하니 눈물뿐 |
| 吾輩如今失舵舶 | 우리는 키를 잃은 선박과 같으니 |
| 臨岐相托渡迷津 | 기로에서 서로 의탁하며 미진을 건너리라 |

소매 안사순 어른을 애도하다 절구 3수

輓小梅安丈 思淳 三絕

1

| | |
|-------|-------------------------------|
| 九十光陰裏 | 구십 년 세월 속에 |
| 往來一布衣 | 포의로 왕래했나니 |
| 若參言志列 | 뜻을 말하는 반열에 끼었다면 |
| 赤也可同歸 | 공서적 ⁸⁶⁵ 의 길을 걸었으리라 |

2

| | |
|-------|------------------------------|
| 兀兀燈前讀 | 홀로 등불 앞에 독서하고 |
| 哦哦澤畔吟 | 택반에서 시 ⁸⁶⁶ 를 읊조렸네 |
| 酒後歌慷慨 | 취하면 비분강개 노래하고 |
| 灑落披胸襟 | 쇄락한 흥금을 펼쳤다네 |

3

| | |
|-------|----------------|
| 吞吐江山氣 | 강산의 기운을 탄토하며 |
| 囂然醉復醒 | 효연히 취했다가 깨었다 |
| 松梅亭上月 | 송매정 위의 달빛이여 |
| 恰然見儀刑 | 흡사 선생의 모습 보는 듯 |

865 공서적(公西赤) : 공자의 제자이다. 공자가 묻기를, “적아,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赤爾何如]” 하자, 대답하기를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묘에서 예를 행할 때나 제후들이 회동할 때에 현단복과 장보관을 갖추고 소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非日能之 願學焉 宗廟之事 如會同 端章甫 願爲小相焉]” 하였다. 『論語』「先進」

866 택반(澤畔)에서 시 : 전국시대 초(楚)나라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에 “굴원이 쫓겨난 다음에 강담에서 노닐고 택반에서 읊조렸다. [屈原既放 游於江潭 行吟澤畔]”라는 말이 있다.

석남 정원홍을 애도하다 절구 2수

輓鄭石南元弘 二絕

1

| | |
|-------|---------------|
| 巍巍背虎嶽 | 높다란 호악을 등지고 |
| 浩浩臨程川 | 드넓은 정천에 임한 곳 |
| 中有隱君子 | 그 속에 은근자가 있어 |
| 劬經七十年 | 칠십 년 경서에 애썼다네 |

2

| | |
|-------|-------------------------------|
| 琢磨成以玉 | 탁마하여 옥을 이루었고 |
| 舉止中於規 | 행동거지는 규구에 맞았다 |
| 如得清寰宇 | 맑은 세상 만났더라면 |
| 王庭可羽儀 | 왕정에서 우의 ⁸⁶⁷ 가 되었으리 |

867 우의(羽儀) : 『주역』 「접괘(漸卦)」 상육(上六)에 이르기를, “기러기가 큰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 깃이 본보기가 될 만하니 길하다. [鴻漸于陸 其羽可用爲儀 吉.]” 하였다.

춘전 김지규의 서실에 쓰다 절구 2수

題金春田智圭書幀 二絶

1

| | |
|---------|-------------------------------|
| 懷州城裏相交客 | 회주 ⁸⁶⁸ 성에서 교유하던 객을 |
| 洌水江邊邂逅人 | 열수 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
| 抵掌笑談曉窓白 | 손뼉 치며 담소하다 새벽 창이 밝으니 |
| 雙壺盡處舊情新 | 술 단지 다한 곳에 옛정이 새롭다 |

2

| | |
|---------|---------------------------------|
| 端雅之姿超逸氣 | 단아한 자태에 초일한 기운 |
| 梅花一樹吐寒庭 | 매화 한 그루 찬 뜰에 피었다 |
| 一謹操縱多攸濟 | 마음 근신하여 이룬 바가 많았으니 |
| 知否秋官任不輕 | 추관 ⁸⁶⁹ 의 직임이 가볍지 않구나 |

868 회주(懷州) : 전라남도 장흥(長興)의 옛 이름이다.

869 추관(秋官) : 형조(刑曹)의 별칭(別稱)이다.

운강 신의성을 애도하다

輓愼雲岡義晟

| | |
|-------|----------------------------------|
| 隱淪叔季日 | 말세의 날에 은둔하여 |
| 戰兢在水淵 | 전전긍긍 빙연 ⁸⁷⁰ 을 마주한 듯 |
| 教子誠爲久 | 자식 교육은 정성으로 오래 하고 |
| 述先孝亦全 | 선조 받들에 효성 ⁸⁷¹ 또한 온전했다 |
| 冠衣存古俗 | 의관은 고속을 보존하였고 |
| 家範效前賢 | 가범은 전현을 본받았다 |
| 窈窕雲山下 | 그윽한 운산 아래에 |
| 胤肖共茫然 | 자손들 모두 망연자실하네 |

870 빙연(水淵) : 『시경』 「소민(小旻)」에 이르기를 “전전하며 긍긍하여 깊은 못에 임한 듯이 하며,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한다.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 하였는데, 그 집주에 “여림심연(如臨深淵)은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고 여리박빙(如履薄冰)은 빠질까 염려하는 것이다.” 하였다.

871 선조 받들에 효성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9장에 이르기를, “대저 효는 부모의 뜻을 잘 계승하며 부모의 일을 잘 전술하는 것이다. [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하였다.

송암 손석환을 애도하다 절구 2수

輓孫松巖 碩煥 二絶

1

| | |
|---------|------------------------------|
| 孫氏世居程子上 | 손씨의 세거는 정자천 ⁸⁷² 가 |
| 松巖老子擅賢名 | 송암 노인은 현명을 독점했다 |
| 我愛一生輸心事 | 내 일생에 정성 다한 일 사랑하노니 |
| 佳子讀書亦有聲 | 자식도 독서하여 명성을 떨쳤다네 |

2

| | |
|---------|------------------------------------|
| 輔宗忘己古稀有 | 자신 잊고 종가 도움은 옛날도 드문 일 |
| 叔世松公始見之 | 말세에 송암공에게서 비로소 보았다 |
| 巷不歌謠春不朽 | 거리에선 노래 앓고 방아질 조용하니 ⁸⁷³ |
| 南風揮淚送靈輻 | 남풍에 눈물 뿌리며 영거를 보낸다 |

872 정자천(程子川) : 전라남도 보성읍의 보성강 지류다. 죽천(竹川)이라고도 한다.

873 방아질 조용하니 : 『예기』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이웃집에 상을 당하였으면 방아를 쪼으면서 노래로 돕지 않는다. 마을에 빈소(殯所)가 있으면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지 않는다. [有喪 春不相 里有殯 不巷歌]” 하였다

사헌 정창균을 애도하다

輓鄭思軒 昌均

| | |
|-------|-------------------------------|
| 我愛思軒翁 | 나는 사헌옹을 사랑하노니 |
| 卜居貝治東 | 거처는 보성 ⁸⁷⁴ 의 치소 동쪽 |
| 論交郡省內 | 군성에서 교유를 논했고 |
| 養志林泉中 | 임천에서는 뜻을 길렀다 |
| 尊聖曾宣力 | 성인 받듦에 힘을 펼쳤고 |
| 孝親亦致躬 | 몸을 바쳐 어버이에게 효도했다 |
| 塵世渾不染 | 진세에 전혀 물들지 않아서 |
| 可挹古人風 | 고인의 풍모를 취할 수 있다 |

874 보성(寶城) : 보성을 패주(貝州)라고도 한다.

백양사에서 풍영계를 뒹다 계축년(1973)

修風詠契于白羊寺 癸丑

| | |
|---------|------------------------|
| 石氣崢嶸接素秋 | 가을 맞아 바위의 기세 더욱 높으니 |
| 曳筇緩步小溪頭 | 작은 시내에 지팡이 끌며 천천히 걷는다 |
| 千峯霽月明疑晝 | 천봉의 맑은 달은 대낮처럼 밝고 |
| 萬壑丹楓映滿樓 | 만학의 단풍 빛은 쌍계루에 가득타 |
| 燒葉煎茶清趣味 | 잎을 태워 차를 달이니 맑은 취미요 |
| 剪燈傾酒好風流 | 심지 자르며 술잔 드니 멋진 풍류로다 |
| 江山如此令人醉 | 강산이 이와 같아 사람을 취하게 하니 |
| 徙倚危欄賦壯遊 | 높은 난간 서성이며 장쾌한 유람 노래한다 |

태석 김규원에게 주다

贈苔石 金虬源

| | |
|---------|---------------------|
| 邊山濱海氣嶙峋 | 변산의 바다 기운 높고 높으니 |
| 産毓英忠問幾人 | 영걸을 몇 사람이나 배출했나 |
| 鄉黨爭推文學士 | 향당은 다투어 학사로 추대하고 |
| 王廷優渥寵恩臣 | 왕정에선 은총을 넉넉히 내렸다 |
| 蘋蘩藉藉千年地 | 마름은 천년의 땅에 무성하고 |
| 桑梓陰陰百世春 | 상재는 백세에 그늘을 드리웠네 |
| 古宅花林尙無恙 | 고택의 화림이 아직 무양하니 |
| 早歸一掃案頭塵 | 일찍 돌아가 책상의 먼지를 쓸지어다 |

춘담 김원석 공을 애도하다 절구 2수

輓春潭金公 原奭 二絶

1

| | |
|-------|------------------|
| 送子柳川室 | 아들을 유천의 서실로 보내니 |
| 讀書幸共門 | 요행히 같은 문하에서 독서했지 |
| 十年阻亂裏 | 십 년 동안 난리에 막혔다가 |
| 亂弭更源源 | 난이 그치자 다시 계속 만났네 |

2

| | |
|-------|---------------------------------|
| 謙謙戒易語 | 주역의 겸겸 ⁸⁷⁵ 을 경계로 삼았고 |
| 常帶笑容顏 | 항상 얼굴에 웃음을 띠었지 |
| 皮裏春秋在 | 몸속엔 춘추가 있었으니 ⁸⁷⁶ |
| 不撓似泰山 |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았네 |

875 주역의 겸겸(謙謙) : 『주역』 「겸괘(謙卦)」 초육(初六) 상(象)에 이르기를, “겸손하고 사양하는 군자는 겸손한 덕행으로 자신을 다스린다. [謙謙君子 卑以自牧也]” 하였다.

876 몸속엔 춘추가 있었으니 : 진(晉)나라 때 소준(蘇峻)을 평정한 공신으로 벼슬이 정토대 도독(征討大都督)에 이른 저부(褚裒)를 대신(大臣) 환이(桓彝)가 일찍이 지목하여 말하기를 “계야는 가죽 속의 춘추가 있다. [季野有皮裏春秋]” 하였다. 계야(季野)는 저부의 자(字)이다.

우당 문동일을 축수하다

壽文友堂 東日

春入翁家百歲長 봄빛이 집에 들어 백세가 유장하니
屋頭南極夜生光 지붕의 남극성⁸⁷⁷은 밤에도 빛난다
案留古史傳先業 책상에 남긴 고사는 선업을 전했고
砌種靈根保體康 섬돌엔 영근 심어 건강을 지켰다
食力何如徐孺子 노력한 삶은 서유자⁸⁷⁸와 어떠한가
治園彷彿仲山陽 뜰을 가꿈은 중산양⁸⁷⁹과 방불하다
彩衣趨走勤迎客 색동옷 입고 부지런히 객을 맞아
爲舉高堂萬壽觴 술잔을 들어 고당의 만수를 빈다

877 남극성(南極星) :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한다.

878 서유자(徐孺子) : 서치(徐穉, 97~168)이다. 후한 예장(豫章)의 학자로 진번(陳蕃)의 우대를 받아 천거되었으나 조정에 나가지 않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공손 검약하여 고사(高士)로 불렸다. 명망이 있었으나 언론을 공손히 하여 당고의 화를 면하였다.

879 중산양(仲山陽) : 후한(後漢) 때의 사람 중장통(仲長統)을 가리킨다. 「낙지론(樂志論)」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거주하는 곳에 좋은 토지와 넓은 집이 산을 등지고 물가에 임하여 도랑과 연못이 빙 둘러 있고 대나무와 나무들이 두루 벌려 있으며 장포가 앞에 마련되어 있고 과원이 뒤에 심겨 있다. [使居有良田廣宅 背山臨流 溝池環匝 竹木周布 場圃築前 果園樹後]” 하였다.

매창 정상탁의 벽 위에 쓰다 절구 2수

題鄭梅窓上鐸壁上 二絶

1

世道升沈付不知 세도의 승침은 모른 채로
但將分內事爲之 분수에 맞는 일을 행할 뿐
窓前細雨梅花發 창전의 세우에 매화가 피니
正是幽人讀易時 유인이 주역을 읽을 때라

2

嗟吾書劒摠無成 나는 서검의 뜻 모두 못 이뤘으니
誰識中宵浩嘆情 누가 알랴 한밤에 한탄하는 정을
與子從今俱努力 이제부턴 그대와 함께 노력하면
庶免兩間浪虛生 행여 천지간에 헛된 삶을 면하리라

화산 문재무⁸⁸⁰를 애도하다 2수

輓文華山 在茂 二首

1

| | |
|---------|---------------------|
| 隱淪七十華山下 | 화산 아래 은둔한 지 칠십 년 |
| 但檢桑麻醉酒來 | 다만 상마를 살피고 술에 취하였다 |
| 文藝格高才落落 | 문예는 격조 높고 재주 낙락하며 |
| 門庭訓篤局恢恢 | 문정의 훈계 돈독하고 도량은 넓었네 |
| 若喪一郡士林氣 | 일군의 사림 기운 잃듯 하고 |
| 又使千巖猿鶴哀 | 또 천암의 원학도 슬프게 하였네 |
| 每仰輸誠深老事 | 늘 정성 다하여 늙어감을 우러렀더니 |
| 素帷今日獨傷哉 | 오늘 흰 장막 보며 홀로 슬퍼한다 |

2

| | |
|-------|---------------|
| 華岳深深處 | 화악의 깊고 깊은 곳 |
| 起居得自然 | 기거가 자유로웠다 |
| 乘閒伴鷺立 | 한가하면 백로를 벗 삼고 |
| 當午枕書眠 | 정오엔 책을 베고 누웠다 |
| 待物和沖上 | 사람 대하면 화락했고 |
| 持身謙讓邊 | 몸가짐은 겸양하였다 |
| 子孫聲望大 | 자손의 성망이 크나크니 |
| 始信福由天 | 하늘이 복을 내린 것이라 |

880 문재무(文在茂) : 1906년 화순에서 태어났고,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鉞)을 찾아가 수양하였다. 저서로 『화산유고(華山遺稿)』가 있는데 만취(晩翠) 위계도(魏啓道) 선생께서 서문을 지었다.

내가 계축년(1973) 봄에 성재와 함께 여수객관에 기우하였으니 실로 오남 김공 도중의 유문을 교열하기 위함이었다. 가일에 음영하면서 답답함을 푸는 계기로 삼았다.

余於癸丑春 與誠齋來寓麗水客館 實爲校讐鰲南金公度中遺文也 暇日吟詠以資排悶.

| | |
|-------|-------------------------------|
| 俱是郢門客 | 우리 모두 영문 ⁸⁸¹ 의 객이니 |
| 其於巴里何 | 하리파인 ⁸⁸² 의 노래 어찌할꼬 |
| 峭奇詩泣鬼 | 기특한 시는 귀신을 울리고 |
| 汪洋文生波 | 왕양한 글은 파란이 인다 |
| 厭見城市鬧 | 성시의 번잡 실컷 보았으니 |
| 願尋水竹嘉 | 좋은 수죽을 찾고자 하네 |
| 吾人塊磊氣 | 마음에 우뚝 쌓인 기운 |
| 落日一酣歌 | 낙일에 취가를 부른다 |

881 영문(郢門) : 중국 춘추시대 초(楚)나라 수도이다.

882 하리파인(下里巴人) : 겸사로 하신 말씀이다. 어떤 사람이 초나라의 국도(國都)인 영(郢)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처음에 「하리(下里)」와 「파인(巴人)」을 노래하자 그 소리를 알아듣고 화답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었고, 「양아(陽阿)」와 「해로(雉露)」를 노래하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백 명으로 줄었고, 「양춘(陽春)」과 「백설(白雪)」을 부르자 화답하는 사람이 수십 명밖에 되지 않았다. 『文選』 卷45 「對楚王問」

부록, 성재의 시

附誠齋詩

| | |
|-------|--------------------------------|
| 離家今十日 | 집을 떠난 지 이제 열흘 |
| 梅鶴近如何 | 매학 ⁸⁸³ 은 근래 어떠한고 |
| 往事東流水 | 지난 일은 동으로 흐르는 물 |
| 孤舟萬頃波 | 만경파도에 외로운 배 띄웠네 |
| 但思千卷樂 | 천권 독서의 즐거움을 생각할 뿐 |
| 休道八珍嘉 | 팔진 ⁸⁸⁴ 의 좋음을 말하지 말라 |
| 未遂男兒志 | 남아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
| 終宵嘯且歌 | 밤새 휘파람 불며 노래 부른다 |

883 매학(梅鶴) : 북송의 은사(隱士)인 임포(林逋)의 고사(故事)로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초막을 짓고 매화를 심고 학을 기르며 숨어 살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매처학자(梅妻鶴子)'라고 일컬었다.

884 팔진(八珍) : 여덟 가지 진귀한 음식이다. 여기에서는 음식을 비롯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리킨다.

오동도를 유람하다가 느낌이 있어 절구 2수

遊梧桐島有感 二絶

1

| | |
|---------|-----------------------------------|
| 鐘鼓山前春欲暮 | 종고산 앞에 봄은 저무는데 |
| 將軍島外水連天 | 장군도 밖 해수는 하늘에 이어졌다 |
| 龍蛇往劫憑誰問 | 용사의 지난 겁난 ⁸⁸⁵ 누구에게 물을까 |
| 悽雨悲風四百年 | 치연한 비바람에 흐른 사백 년 세월 |

2

| | |
|-------|----------------|
| 腰佩匣中劍 | 허리에 갑 속의 검을 차고 |
| 一望江上天 | 한번 강상의 하늘 바라본다 |
| 嗟吾生也晚 | 아 나의 태어남 늦어서 |
| 未及破倭年 | 왜구 격파에 미치지 못했다 |

885 용사(龍蛇)의 지난 겁난 : 임진년(1592)과 계사년(1593)의 난리로 임진왜란을 말한다.

附詩

부록 시

1

| | |
|-------|---------------------------------|
| 咫尺雲迷島 | 지척의 구름에 섬도 아득한데 |
| 蒼海接于天 | 푸른 바다는 하늘에 이어졌다 |
| 蓬萊何處是 | 봉래산은 어디인고 |
| 鰲背億千年 | 천년 전 자라 등 ⁸⁸⁶ 을 생각한다 |

2

| | |
|-------|----------------|
| 橫吹牛背笛 | 소 등의 피리 소리 |
| 徐到海中天 | 천천히 바다 하늘에 이른다 |
| 如得買茲島 | 이 섬을 살 수만 있다면 |
| 共君送暮年 | 그대와 모년을 보낼 텐데 |
| 誠齋 성재 | |

3

| | |
|-------|-----------------|
| 遠客逍遙日 | 먼 나그네 소요하던 날 |
| 春風駘蕩天 | 하늘에 춘풍이 살랑인다 |
| 蒼苔埋石逕 | 창태가 돌길을 묻었으니 |
| 誰記我來年 | 내 오던 때를 누가 기억할까 |
| 忍堂金駟洙 | 인당 김일수 |

886 자라 등 : 발해에 방호(方壺), 영주(瀛洲), 봉래 세 선산(仙山)이 있는데, 이 산을 여섯 마리의 자라가 떠받치고 있다고 한다. 『列子』 「湯問」

오남집을 읽고 느낌이 있어

讀鰲南集有感

惟公沒已久

공이 몰한 지 이미 오래

百世空留文

백세에 문장만 남았다

鶴唳三更月

삼경의 달빛에 학이 울고

鵬飛萬里雲

만리 구름에 봉새는 비상한다

儀形無復覩

의형은 다시 볼 수 없지만

風韻尙今聞

풍운은 지금도 들리나니

술재 정채균⁸⁸⁷에게 주다

贈丁述齋採均

| | |
|-------|---------------------------------|
| 半生灌耳久 | 반생토록 귀에 익숙히 듣다가 |
| 始面白頭年 | 백발의 나이에 비로소 만났노라 |
| 政躡蕭曹後 | 정치는 소조 ⁸⁸⁸ 의 뒤를 추종하고 |
| 書窺晉宋前 | 서적은 진송 이전을 엿보았다 |
| 但知述先業 | 다만 선업을 계승함을 알 뿐 |
| 不願買良田 | 좋은 밭을 사길 원치 않았다 ⁸⁸⁹ |
| 聞言言未已 | 전하는 말이 그치기도 전에 |
| 我襟覺爽然 | 나의 회포가 상쾌함을 느낀다 |

887 정채균 : 강진군수를 역임했다. 재임 기간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3년 4개월이다.

888 소조(蕭曹) : 소하(蕭何)와 조참(曹參)의 병칭이다. 두 사람 모두 유방(劉邦)을 보좌하여 칭제(稱帝)하게 한 개국공신으로서, 입국(立國) 후에 서로 연달아 상국(相國)이 되었다.

889 원치 않았다 : 『고문진보』 「진종황제권학문(眞宗皇帝勸學文)」에 이르길 “집을 부(富)하게 하려 좋은 밭 살 필요 없으니 책 속에 절로 천종(千鍾)의 곡식 있다오. [富家不用買良田 書中自有千鍾粟]” 하였다.

동초장에서의 선비들 모임

東樵莊雅集

| | |
|---------|-------------------------|
| 曾聞鐵冶我來遲 | 일찍이 철야 마을 들었건만 내 더디 왔으니 |
| 正值黃鷄啄黍時 | 황계가 수수를 쪼아 먹을 때라 |
| 常對韻人要鬪藝 | 시인 대하면 기예를 겨루고자 하나 |
| 忽臨清景怯爲詩 | 맑은 풍경 임하면 시 짓기 어려워 |
| 庭前細雨長書帶 | 뜰 앞의 세우에 서대초가 자라고 |
| 簷外寒雲罨桂枝 | 처마 밖 찬 구름은 계수가지 덮었다 |
| 況是主翁風致好 | 하물며 주인옹의 풍치까지 좋으니 |
| 江鱗鮪酒會相知 | 물고기와 곡주로 벗들을 모았다네 |

소암 현중화에게 드리다

呈素菴 玄中和

| | |
|---------|--------------------|
| 素翁自是座中春 | 소옹은 절로 좌중의 봄빛이니 |
| 酒後縱橫筆興新 | 취하면 증횡으로 필흥이 새롭다 |
| 吞吐蓬瀛山海氣 | 봉래 영주 산해의 기운 탄토하면서 |
| 渾無一點着埃塵 | 전혀 한 점의 진애도 없어라 |

우암 박건복에게 보내다

柬朴愚巖 健馥

熱血憂邦在少辰 젊어선 열혈로 나라를 근심했는데
生平欲作自由身 평생 자유의 몸이 되고자 하였다
老年遊藝能開院 노년엔 서예에 노닐어 서원을 여니
產出長杠幾個人 장강의 붓⁸⁹⁰을 몇이나 배출했던고

890 장강의 붓 : 훌륭한 문장가를 말한다.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의 여산고(廬山高)에 “아! 내가 말하고자 하노니, 어이하면 긴 기둥과 같은 큰 붓을 얻을꼬. [嗟我欲說 安得 巨筆如長杠]” 하였다.

화강 주정민에게 부치다

寄朱華岡 廷玟

| | |
|---------|-------------------------------------|
| 華山突兀鎮南州 | 높은 화산은 남주의 진산 |
| 晦老孫居幾百秋 | 회로 ⁸⁹¹ 의 후손이 몇 백 년을 살았던고 |
| 能爲一坊堤堰設 | 능히 방곡(坊曲)에 제방을 설치하여 |
| 千春灌溉是良謀 | 좋은 피로 천년을 관개하였다 |

891 회로(晦老) : 주희(朱熹)를 가리키는데, 주희(朱熹)의 호가 회암(晦庵)이다.

벽담 장종철 서실에 쓰다

題張碧潭 鍾喆 書室

南邦爭誦張先生 남방에서 다투어 장 선생을 칭송하니
軒冕泥塗鷺締盟 헌면을 경시하고⁸⁹² 백로를 벗 삼았다
矧有肖孫能繼世 하물며 훌륭한 후손이 대를 이으니
碧潭明月照人清 벽담의 명월처럼 사람을 맑게 비춘다

892 헌면(軒冕)을 경시하고 : ‘헌’은 경대부가 타는 수레이고, ‘면’은 공경의 면복(冕服)이며 니도(泥塗)는 진흙길이다. 곧 고관대작을 진흙처럼 가볍게 여김을 의미한다.

계축년(1973) 10월 29일, 어머니 상을 만나 한해가 지나도록 시를 폐
 하다가 을묘년(1975) 정월에 비로소 음사의 초대에 가서 2수를 짓다
 癸丑十月二十九日丁內憂 經歲廢吟 以乙卯正月始赴吟社之招 二首

1

| | |
|---------|-----------------------------------|
| 半生書劒總無成 | 반평생 서검의 뜻을 이루지 못해 |
| 自愧言爲不稱名 | 언행이 이름에 맞지 않아 부끄럽네 |
| 始信耕讀知我計 | 주경야독이 나의 생계임을 믿겠거니 |
| 休將青紫作身榮 | 칭자 ⁸⁹³ 로 일신의 영예를 삼지 말라 |
| 塵愁渾滌迎春酒 | 세속 시름은 봄맞이 술로 세척하니 |
| 絮話難堪隔歲情 | 솜 같은 말로는 격세의 정 감당하기 어렵네 |
| 回憶於吾天賦重 | 생각하면 나에게 천부가 중하니 |
| 百年圖策詎云輕 | 백년의 계획이 어찌 가볍다 하라 |

2

| | |
|---------|----------------------|
| 伴春君到眼翻青 | 봄과 함께 그대 이르니 반갑기만 |
| 舊誼新情可忘形 | 옛 우의 새로운 정에 겉모습을 잊겠네 |
| 大界如今爭伯仲 | 세계는 지금 백중을 다투나니 |
| 吾邦誰得作蕃屏 | 누가 나라의 울타리와 병풍이 되겠는가 |
| 與其城裏籌興替 | 성중에서 흥폐를 헤아리기보다 |
| 何似山中任醉醒 | 산중에서 멋대로 취하고 깨리니 |
| 一費長吟吐虹氣 | 무지개 기운 토하며 길게 읊조리니 |
| 杯行到手請無停 | 술잔이 돌아오면 멈추지 말지어다 |

893 칭자(靑紫) : 벼슬을 이르는 말이다. 한나라 때에는 공후와 구경(九卿)이 각각 자수(紫綬)와 청수(靑綬)를 찻다고 한다.

서석산을 유람하다

遊瑞石山

曳筇三舍趁晴登 맑은 날 지팡이로 백리길⁸⁹⁴ 오름에
腰下佩壺興倍增 허리에 술병까지 흥을 더한다
展步擬追千里駿 발걸음은 천리마도 따르겠고
憑眸似伴九霄鷹 멀리 보니 하늘의 매를 짝하는 듯
生涯無賴騰人笑 무뢰한 생애는 비웃음만 넘쳤으니
名利何求免世憎 어찌 명리 구해 세상의 미움 면할까
瑞石今春天候早 금년엔 서석산의 봄날이 이르니
杜鵑花發染層層 두견화 피어 층층이 물들었네

894 백리길[三舍] : 1사(舍)는 30리로, 옛날 군대는 하루에 30리를 가서 유숙하였다. 즉 삼사는 군대가 사흘 동안 행군할 거리이다.

사평의 소성 정귀모의 장원에서 선비들 모임

沙坪鄭小醒 貴謨 庄雅集

請君今日莫辭卮 청컨대 그대 오늘 술잔을 사양 말라
展拓胸懷最可宜 흥회를 펴기에 가장 마땅하나니
白雪豈無相和處 백설가⁸⁹⁵는 어찌 화답할 곳 없으랴
黃河應有一清時 황하도 맑을 때가 있으리니
柳橋馬嘶春風暖 유교에 말이 우니 춘풍은 따스하고
酒榻花籌午影遲 술 평상 꽃을 세니 한낮 해 더디다
絲管何如浴沂興 음악이 어찌 기욕의 흥취⁸⁹⁶ 같으랴
悔吾愚昧未曾知 우매하여 일찍 알지 못해 후회한다

895 백설가(白雪歌) : 격조 높은 노래를 말한다.

896 기욕의 흥취 : 사관은 악기를 말한다. 기욕은 기수에서 목욕한다는 뜻이다.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말하기를, “늦은 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관을 쓴 벗 대여섯 명과 아이들 육칠 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우제 드리는 곳에서 바람을 쏘인 뒤에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하였다. 『論語』 「先進」

백하 변동렬 회갑연에 고시 1편을 지어 축하하다

邊白下 東烈 回甲宴爲賦古詩一篇以奉賀

| | |
|---------|-----------------------------------|
| 蘆嶺逶迤西南來 | 노령이 구불구불 서남으로 뻗으니 |
| 攬天嶽峯有聖德 | 하늘을 찌를 듯 성덕산이 높구나 |
| 山下泃然一洞開 | 산 아래 웅하니 한 고을이 열려서 |
| 頽頽頽人自邁軸 | 헌걸찬 석인이 스스로 소요한다 |
| 時與漁樵話茵草 | 어부 초부와 풀숲에서 담화도 하고 |
| 且效淵明醉臥石 | 도연명 본떠 취하여 바위에 눕기도 |
| 背荷長鑱雲深處 | 긴 보습 지고 구름 깊은 곳 들어가니 |
| 瀏亮斜陽採芝曲 | 석양에 채지곡 ⁸⁹⁷ 이 맑게 들려온다 |
| 我愛翁常帶春風 | 백하옹의 춘풍의 기운 사랑하여 |
| 魂馳左右身不得 | 마음은 달려가나 몸은 그렇지 못해 |
| 八月涼風飾喜宴 | 8월 서늘한 바람에 회갑연을 베풀니 |
| 豐額隆準似丹渥 | 넓은 이마 높은 코에 얼굴은 붉은 빛 |
| 高堂萱幃尙無恙 | 고당의 어머니가 여전히 무恙하니 |
| 怡愉晨夕不離側 | 조석으로 기뻐하며 곁을 지킨다 |
| 膝下子孫皆蘭玉 | 슬하 자손은 모두 옥수와 난초 ⁸⁹⁸ 라 |
| 早稻釀酒招嘉客 | 이른 벼로 술을 빚어 손님들 불렀네 |

897 채지곡(採芝曲) : 상산사호(商山四皓)인 동원공(東園公)·기리계(綺里季)·하황공(夏黃公)·녹리선생(甬里先生)이 난리를 피해 남전산(藍田山)에 은거하면서 한 고조의 초빙을 거절하고 자지(紫芝)를 캐 먹으며 불렀던 「자지가(紫芝歌)」를 가리킨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빛나고 빛난 영지여, 주림을 면할 수 있네. 당우의 세상 가 버렸으니, 나는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하였다.

898 옥수(玉樹)와 난초 : 뛰어난 자손을 비유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사안(謝安)이 자질(子姪)들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사람들은 자기 자체가 출중하기를 바라는가?” 묻자, 조카 사현(謝玄)이 말하기를 “비유하자면 마치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자기 집 뜰에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였다.

| | |
|---------|----------------------------------|
| 汨沒塵務違參筵 | 속사에 골몰해서 참여하지 못하니 |
| 愁思黯黯雲漠漠 | 시름에 어두운 마음 구름만 자욱하네 |
| 晚頌一篇荒蕪辭 | 늦게야 한 편 거친 시로 송축하니 |
| 自愧古人九如祝 | 옛사람 구여 ⁸⁹⁹ 의 축원에 부끄럽네 |

899 구여(九如) : 『시경』 「소아(小雅) 천보(天保)」에 아홉 가지의 예를 들어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다. 산과 같고[如山] 언덕과 같고[如阜] 산마루와 같고[如岡] 구름과 같고[如陵] 냇물이 한창 흘러오는 것과 같으며[如川之方至] 초승달과 같고[如月之恒] 떠오르는 해와 같고[如日之升] 장구한 남산과 같고[如南山之壽] 무성한 송백과 같음[如松柏之茂]이 그것이다.

춘곡 김원득을 축수하다

壽金春谷 源得

| | |
|---------|-----------------------------------|
| 懸弧六十一過年 | 현호한 지 육십일 년의 세월 |
| 何事遨遊水竹邊 | 어인 일로 수죽 가에 소요하는고 |
| 慷慨時追高士躅 | 강개한 마음은 고사의 자취를 좇고 |
| 悲涼三復蓼莪篇 | 슬프게 육아 ⁹⁰⁰ 시를 읽는다 |
| 世稱白雪憑翁聽 | 세상의 백설가를 춘곡에게서 듣나니 |
| 人誦青氈有子傳 | 사람은 구엽을 전한 자식을 칭송한다 |
| 又設江湖文酒會 | 게다가 강호에 문주회를 설립하였고 |
| 範規相仗孟光賢 | 규범은 맹광 ⁹⁰¹ 의 어짙을 의지하였다 |

900 육아(蓼莪) : 『시경』 「소아(小雅)」의 편명으로, 효자가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는 시이다.

901맹광(孟光) : 후한(後漢) 때 맹광은 본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남편의 뜻을 따라 화려한 의복을 벗어던지고 가시나무로 만든 비녀를 착용하는 등 검소하게 지내며 기꺼이 함께 패릉산(霸陵山)에 은둔하여 지냈다. 항상 남편에게 밥상을 올릴 때마다 밥상을 높이 들어 공경심을 표하고 양홍(梁鴻) 또한 아내를 손님처럼 공경히 대한 것으로 유명하다. 『後漢書』 卷83 「梁鴻列傳」

나성재의 「일본으로 가는 석천 김원직을 보내는 시」에 차운하다
次羅誠齋送金石泉 源直 之日本韻

萬里鳴鳴鶴鶴在 만리 밖에 척령⁹⁰²이 우니
翁今非學子長遊 옹의 여행 자장의 유람⁹⁰³이 아닐세
殊方恰似三生夢 이역은 흡사 삼생⁹⁰⁴의 꿈이라
行李祇任一葉浮 행장은 다만 작은 배에 맡겼다
幾歲看雲眠白日 몇 해를 구름 보며 한낮에 잠들었니⁹⁰⁵
良宵携手上高樓 좋은 밤 손잡고 높은 누각에 올랐지
滄溟灑氣應吞盡 창명의 큰 기운을 모두 호흡하리니
茅屋嗟吾獨自囚 오호라 모옥에서 나만 홀로 갇혔네

-
- 902 척령(鶴鶴) : 형제를 의미한다. 『시경』 「소아(小雅) 상채(常棣)에 이르기를, “척령이 언덕에 있으니 형제가 급난을 구원하도다. 매양 좋은 벗이 있으나 길게 탄식할 뿐이니라. [鶴鶴在原 兄弟急難 每有良朋 況也永歎]” 하였다.
- 903 자장(子長)의 유람 : 자장은 사마천(司馬遷)의 자이다. 그는 천성적으로 유람을 좋아하여 일찍이 남쪽으로 강수(江水), 회수(淮水)를 유람하고 회계(會稽)로 올라가서 우혈(禹穴)을 보고 구의산(九疑山)을 보았으며, 북쪽으로는 문수(汶水)와 사수(泗水)를 건너 제(齊)나라와 노(魯)나라 지방을 거쳐 양(梁)과 초(楚) 지방까지 두루 유람하였다. 이때 얻은 산천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 명문장가가 되었다고 한다. 『史記』 卷130 「太史公自序」
- 904 삼생(三生) : 불교(佛敎)에서 말하는 삼세전생(三世轉生)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생(前世)과 현생(現生) 그리고 후생(後生)을 의미한다.
- 905 구름 …… 들었나 : 아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한다. 두보(杜甫)의 「한별(恨別)」 시에 이르기를, “고향 집 생각하며 달 아래 거닐다 맑은 밤에 서 있고, 아우를 그리워하며 구름 보다가 한낮에 조노라. [思家步月清宵立 憶弟看雲白日眠]” 하였다.

강씨의 「정당매」 시에 차운하다 절구 2수

次姜氏政堂梅韻 二絶

1

| | |
|---------|-------------------|
| 可愛經年六百來 | 사랑스럽다 육백 년이 지나도록 |
| 尙餘手植一根梅 | 아직도 손수 심은 매화가 남았네 |
| 王顛李跡憑誰問 | 왕조의 흥망을 누구에게 물을까 |
| 雪裏渠能向我開 | 눈 속에서 나를 향해 피었거늘 |

2

| | |
|---------|-----------------------------------|
| 嵬閣穹碑駐往來 | 높은 누각 궁비 ⁹⁰⁶ 에 왕래를 멈추고 |
| 摩挲豈啻灞橋梅 | 어루만지매 파교의 매화만 못하랴 |
| 千秋子孫能修改 | 천추의 자손이 능히 수개하니 |
| 窈窕丹青傍路開 | 요조한 단청이 길 곁에 피었구나 |

906 궁비(穹碑) : 큰 돌을 조각한 아치형의 묘비이다.

청석강가에서 문우계를 닦다

靑石江上修文友契

| | |
|---------|--------------------|
| 曉老當年在水東 | 효당이 당년에 물 동쪽 계셨으니 |
| 慇懃渾似一家通 | 은근히 일가가 통한 듯 |
| 堪憐書劍風塵裏 | 가련타 풍진 속의 서검이여 |
| 幾致賓朋翰墨中 | 얼마나 벗들을 한묵에 초치했던고 |
| 嗟爾邱墟餘古宅 | 아 구허엔 고택만 남았으니 |
| 巍然祠宇想遺風 | 높은 사당에서 유품을 상상한다 |
| 如今宿德飄零盡 | 이제 숙덕은 바람처럼 다 사라지고 |
| 落落晨星我輩同 | 드문 새벽별처럼 우리만 함께 하네 |

『송강집』을 읽고 느낌이 있어서

讀松江集有感

| | |
|---------|------------------------------------|
| 縹緲天風似鳳翔 | 아득한 천풍에 봉황이 나는 듯 |
| 濯之江漢曝之陽 | 강한으로 세탁하고 가을 햇볕을 쬐다 ⁹⁰⁷ |
| 珊瑚雅度疑仙子 | 아름다운 자태는 신선인가 의심하고 |
| 凜烈貞忠薄雪霜 | 늠름한 정충은 설상조차 가볍구나 |
| 馳贈邦旌優寵渥 | 증직과 정표로 은총이 두터우니 |
| 紛紜野說付荒唐 | 분분한 속설은 황당무계한 이야기 |
| 篇中多少琳琅句 | 편중의 많은 주옥같은 시구들 |
| 幾使後生空淚長 | 후생은 공연히 눈물을 흘리노라 |

907 강한으로 …… 쬐다 : 높은 도덕을 말한다. 공자(孔子)의 도덕은 강수(江水)와 한수(漢水)의 물로 씻어내고 가을 하늘의 따가운 햇볕으로 말린 것처럼 청정하고 결백하다는 말에서 인용한 것이다. 『孟子』「滕文公上」

근사재 원시를 차운하다 정영택
 次近思齋原韻 鄭永澤

| | |
|---------|----------------------------------|
| 數椽茅屋峽中天 | 산골 하늘에 작은 초가 하나 |
| 扁以近思送暮年 | 근사재로 편액하고 모년을 보낸다 |
| 刻苦工夫知詣遠 | 각고의 공부에 조예가 원대하고 |
| 嶙峋奇氣欲無前 | 드높은 기개는 거침이 없어라 |
| 垂竿閒坐溪邊石 | 한가히 물가 바위에 낚시를 하고 |
| 冒雨時耕谷口田 | 비를 맞으며 곡구 ⁹⁰⁸ 의 밭을 간다 |
| 快擲世間名利事 | 세간의 명리는 통쾌하게 버리고서 |
| 反求身上是超然 | 초연하게 자신을 돌이켜 구한다 |

908 곡구(谷口) : 서한(西漢) 말엽에 고사(高士)인 정자진(鄭子眞)이 지조를 굽히지 않고 곡구(谷口)란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그 이름이 경사(京師)를 진동하였다 한다.

시산 이종필을 애도하다 절구 2수

輓李詩山 鍾弼 二絶

1

| | |
|---------|--------------------|
| 程子川邊一洞開 | 정자천 가에 열린 고을 |
| 碩人於此幾胚胎 | 석인을 몇이나 배태하였나 |
| 樂翁去後詩山子 | 낙옹이 떠난 후에 시산자가 있어서 |
| 又是箕裘繼業來 | 다시 기구의 구업을 계승했노라 |

2

| | |
|---------|----------------------|
| 恢恢幹局需世材 | 넓은 기량은 세상에 필요한 재주요 |
| 和氣滿容似春廻 | 얼굴 가득 화기는 봄날이 돌아온 듯 |
| 執紼相違來吊晚 | 상여 줄도 못 잡고 조문도 늦어져 |
| 西風揮淚欲心灰 | 서풍에 눈물 뿌리니 마음은 재가 된다 |

창평성 밖으로 신영호 군을 방문하다

昌平城外訪申君 英浩

| | |
|-------|------------------------------|
| 有嶺鹿渴飲 | 사슴이 물을 마시는 고개 |
| 峻截欲撐天 | 높이 솟아 하늘을 지탱할 듯 |
| 時當沍寒日 | 추위가 심한 날을 맞아 |
| 積雪深沒阡 | 적설은 밭을 깊이 덮었다 |
| 結契十數人 | 계원 열 몇 사람이 |
| 魚貫若相連 | 고기 꿰듯 서로 길을 이어 |
| 前呼後應之 |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 호응하니 |
| 顛倒扶無緣 | 넘어져도 부축할 길 없구나 |
| 匍匐作膝行 | 무릎으로 길을 기어가며 |
| 相欲先登巔 | 서로 먼저 고개 오르고자 |
| 短日欲沈西 | 짧은 해는 서쪽으로 지는데 |
| 脅息思飲泉 | 가쁜 숨에 샘물을 생각한다 |
| 努力一躡上 | 노력하여 박차고 오르니 |
| 方是意晏焉 | 바야흐로 뜻이 편안하여 |
| 箕踞一回瞻 | 발을 뻗고 한 번 돌아보니 |
| 山勢正傑然 | 산세가 정히 우뚝하다 |
| 山下卜菟裘 | 산 아래 은거지를 선택하니 |
| 平山有其先 | 평산에 선조가 있기 때문 |
| 所懷有一人 | 그리워하는 사람 있으니 |
| 自幼志四方 | 어려서부터 사방에 뜻을 두고 |
| 臨筆王顏帖 | 왕안 ⁹⁰⁹ 의 서첩을 임시하며 |

909 왕안(王顏) : 왕희지(王羲之)와 안진경(顏真卿)을 말한다.

讀書曉顧堂

勃發有氣概

言行亦美良

服勤爲兩親

交無彼此疆

他日珠山下

擬與君翱翔

효당과 고당에게서 독서했다

기개는 성대하고

언행은 아름답고 선하여

양친을 부지런히 섬겼고

교유엔 피차 격의가 없었다

훗날 주산 아래에서

그대와 함께 소요하리라

박종회 군에게 주다

贈朴君鍾會

| | |
|-------|--------------------------------|
| 君自妙齡日 | 그대는 묘령의 나이 때부터 |
| 賢師己得傍 | 현사를 이미 가까이 모셨다 |
| 朗朗誦語孟 | 낭랑하게 논어 맹자를 독송하고 |
| 勁勁臨鍾王 | 굳건하게 종왕 ⁹¹⁰ 을 임서하였다 |
| 清氣江波白 | 맑은 기운은 결백한 강물이요 |
| 雄風駿馬驤 | 웅장한 기풍은 달리는 준마일세 |
| 曉翁耳面教 | 효당 선생의 친절한 ⁹¹¹ 가르침을 |
| 刻骨請無忘 | 청컨대 뼈에 새겨 잊지 말라 |

910 종왕(鍾王) : 위(魏)나라의 종요(鍾繇)와 진(晉)나라의 왕희지(王羲之)를 말하는데, 두 사람은 모두 서예(書藝)에 능한 사람이다.

911 친절한[耳面] : 귀를 끌어당겨 면전(面前)에서 가르친다는 뜻이다. 『시경』 「역(抑)」에 이르기를 “손으로 잡아 줄 뿐만이 아니라 일로 보여 주며, 대면하여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그 귀를 붙잡고 말해 주노라. [匪手攜之 言示之事 匪面命之 言提其耳]”라고 하였다.

관호정⁹¹² 원시에 차운하다 병진년(1976)
 次觀湖亭原韻 丙辰

曾卜菟裘四百年 일찍이 도구에 거주한 지 사백 년
 斯亭今日正巍然 정자가 오늘에도 정히 우뚝하다
 瓏齋高士遯跡處 농재⁹¹³ 고사가 자취를 감추었고
 石底將軍垂釣邊 석저장군⁹¹⁴이 낚시를 드리던 곳
 講誦祇要尊祖道 강송은 조상의 도를 높이기 위함
 登臨可作御風仙 등림하면 바람을 탄 신선이 되리라
 欲知桂老承先業 선업을 이었던 계로를 알려거든
 試看昕宵滾滾川 주야로 흘러가는 시내를 볼지어다

912 관호정(觀湖亭) : 광주광역시 남구 화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2년에 계남(桂南) 김정수(金鼎洙)가 지었다고 한다. 함련(頤聯) 두 구(句)는 화순의 영릉대(玲瓏臺)에 관한 고사인데 아마 착오가 있는 듯하다.

913 농재(瓏齋) : 조선 중기 때 사람인 김근섭(金鯤燮)이다. 조선 선조(宣祖) 때 그가 화순군 남면 복교리(福橋里)에 영릉대(玲瓏臺)를 건립하여 강호제현과 교유하며 강학하였다. 조카인 김덕령(金德齡) 형제가 부모님을 위하여 이곳까지 와서 낚시를 하였다고 하여 김장군조대(金將軍釣臺)라 부른다.

914 석저장군(石底將軍) : 임진왜란 때 의병장(義兵將) 김덕령(金德齡, 1567~1596)을 가리킨다. 선조 26년(1595) 담양(潭陽)에서 의병을 일으켜 전주(全州) 등 도처에서 적을 대파하고 공을 세우니 사람들이 석저장군(石底將軍)이라 했고, 임금이 충용장군(忠勇將軍)이라 호를 내리기도 했다.

흥을 풀다

遣興

晶明沙礫傍丹崖 밝은 사력이 붉은 벼랑 곁에
可與坡公擇勝偕 명승지 가려 동파와 함께 하리
笑唾功名塵世界 티끌 세계의 공명을 비웃고
擬追烟月太平堦 연월 어린 태평시대 좇으리라
佐樽聶膾顏初解 안주로 회를 저미며 얼굴을 펴고
供饁烹鷄趣復佳 못밥 닭을 삶으니 흥취가 넘친다
尼父當時川上嘆 당시 니보의 냇가의 탄식⁹¹⁵은
寥寥千載更無儕 천년 후 쓸쓸하게 하는 사람 없구나

915 니보의 냇가의 탄식 : 공자가 일찍이 냇가에서 이르기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을 쉬지 않는도다. [逝者如斯夫 不捨晝夜]” 하였다. 『論語』 「子罕」

정당 오태형의 장원에서 회화하다

靜堂吳泰亨 庄會話

黃鳥聲中酌酒宜 황조 노래에 술 따르기 좋으니
主翁解意招相知 주인도 뜻을 알고 벗들을 불렀다
堆床秩秩開胸海 책상에 쌓인 서책에 가슴을 열고
教子勤勤鑿硯池 애써 자제 가르치며 연지를 팠다
巧築奇巖爲山巖 교묘히 기암을 쌓아 산을 만들고
閒栽瑤草作園籬 한가히 요초 심어 울타리 삼았다
而今難買馮驩術 이제 풍환의 방술도 사기 어려우니
彈鋏思魚事絕癡 장검을 치며 물고기 생각도 어리석네⁹¹⁶

916 풍환의 …… 어리석네 : 풍환은 전국시대 제(齊)나라 사람이다. 그가 맹상군(孟嘗君)의 식객으로 있으면서 맹상군이 자기를 후하게 대접하지 않은 데에 불평을 품고 칼자루를 치면서[長鋏] 노래하기를 “돌아가자, 밥을 먹으려 해도 고기가 없구나. 돌아가자, 밖엘 나가려 해도 수레가 없구나. [歸來乎 食無魚 歸來乎 出無車]”라고 하였다. 『史記』 卷75 「孟嘗君列傳」

소암 현중화에게 드리다

呈玄素菴 中和

| | |
|---------|----------------------------------|
| 瀛洲聳出碧海中 | 영주는 벽해 가운데 솟구쳐서 |
| 巖巖盤踞數百里 | 우뚝 수백 리에 걸쳐 서렸네 |
| 上有白鹿之潭水 | 위에는 백록담이 있으니 |
| 流爲噴雪之瀑布 | 흘러서 눈보라 치는 폭포가 되었다 |
| 山水奇麗冠吾邦 | 산수의 기려는 나라의 으뜸이요 |
| 產毓人材亦俊異 | 배출한 인재 또한 준걸하다 |
| 西歸城外有高人 | 서귀포 밖에 고인이 있으니 |
| 胸中豁然無芥滯 | 흉중이 활연하여 막힘이 없네 |
| 書臨六朝酷肖似 | 육조의 서첩 임서하니 참으로 유사하여 |
| 魏鍾晉王可潦倒 | 위의 중요 진의 왕희지를 경도하리 |
| 勁若金鐵列交錯 | 굳건함은 금철이 교차하여 나열된 듯 |
| 勢如龍蛇相飛走 | 형세는 용사가 서로 날고 달린다 |
| 醉後研墨一硯池 | 취한 후 먹을 갈면 연지 ⁹¹⁷ 이루니 |
| 紙堆如山暫揮灑 | 산같이 종이 쌓아 잠시에 휘두른다 |
| 悅如交戰煙塵起 | 마치 교전하여 연진이 일어나는 듯 |
| 須與凱旋收軍馬 | 순식간에 개선하여 군마를 거둔다 |
| 我愛高標出塵俗 | 진속을 벗어난 고표를 사랑하나니 |
| 朝暮吸盡滄溟氣 | 주야로 창량의 기운을 다 마셨네 |
| 間與仙侶拾松子 | 간간이 신선과 짝하여 솔방울 줍고 |

917 연지(硯池) : 후한(後漢)의 초성(草聖)이라 불린 장지(張芝)는 속세를 피하여 오로지 서도(書道)를 벗 삼았으며 베가 있으면 거기에 글씨를 썼고 연못가의 작은 돌에도 글씨를 쓰고서는 물로 씻기를 수없이 되풀이하여 마침내 연못의 물이 먹물로 까맣게 변했다고 전해진다.

| | |
|---------|-----------------------------------|
| 又伴鷗鷺臥沙渚 | 갈매기 백로 짝하여 물가에 눕네 |
| 時有武珍授徒行 | 무진에 문도를 가르치려 행차하면 |
| 枉駕蓬華不鄙棄 | 나의 봉필 ⁹¹⁸ 을 찾아 버리지 않았네 |
| 安得一棹順風去 | 어찌하면 편주로 바람을 타고 가서 |
| 眺帆明窓過春夏 | 밝은 창 돛배를 보며 봄여름 보낼까 |

918 봉필(蓬華) : 봉호(蓬戶)와 필문(華門)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집을 나타낸다.

영사재에서의 아회

永思齋雅會

| | |
|---------|--------------------|
| 甕城城外殿春天 | 동북 웅성 밖에서 봄을 보내니 |
| 多士雄豪孰有前 | 선비들의 호방함을 누가 앞서랴 |
| 瞠目雲蒸翰墨裏 | 눈을 뜨니 한묵에 구름이 일고 |
| 傾心虹起談笑邊 | 마음 기울이니 담소에 무지개 핀다 |
| 堪憐潭底嬋妍月 | 연못의 선연한 달빛 사랑스러우니 |
| 肯學簷端聚散煙 | 처마에 취산하는 연기를 배우랴 |
| 若得青江變爲酒 | 만약 청석강이 술로 변한다면 |
| 與君長醉共留連 | 그대와 늘 취하며 머물러 즐기리라 |

박지은 응을 애도하다 절구 2수

韓朴芝隱翁 二絶

1

| | |
|---------|----------------------|
| 咸陽世族白衣下 | 함양의 세족으로 포의로 내려와 |
| 行義隱居八十春 | 의를 행하며 은거한 지 팔십 년 |
| 德望重于鄉黨裏 | 덕망은 향당 가운데 무거웠으니 |
| 涕流士女頌仁人 | 사람들은 눈물 흘리며 인인을 칭송한다 |

2

| | |
|---------|----------------------------------|
| 胤肖自是承庭訓 | 훌륭한 자제는 가훈을 계승하고 |
| 墨客騷人日與親 | 묵객과 시인을 날마다 친애했다 |
| 生世如斯何有恨 | 이 같은 삶에 어찌 한이 있으랴 |
| 乘鸞又作玉京賓 | 난새 타고 옥경의 손님이 되리라 ⁹¹⁹ |

919 손님이 되리라 : 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으로, 손님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한다.

초연정의 회화

超然亭會話

西來我馬又當秋 가을 맞아 서쪽으로 달려오니
 匡耐天涯雁影流 천애의 기러기를 견딜 수 없구나
 閉戶自甘閒試黑 문을 닫고 한가히 시묵함을 달게 여기고⁹²⁰
 逢君何不醉扶頭 그대 만나 어찌 취한 고개 부축하지 않으랴⁹²¹
 傾鄉多士風流好 고을의 선비들 풍류가 좋으니
 有此名亭禮數優 이 명정을 두어 예의가 넘치누나
 人世參商難後約 인세는 삼상⁹²²이라 훗날의 기약 어려우니
 離杯到手故遲留 이별 술잔 손에 이르면 짐짓 머뭇거린다

920 시묵함을 달게 여기고 : 양웅(揚雄)은 후한(後漢) 말의 뛰어난 학자이고, 『태현경』은 양웅이 『주역』을 본떠서 지은 책인데, 그 내용이 매우 심오하여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조롱했다. 이에 양웅이 「해조부(解嘲賦)」를 지어 “나는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 몇몇 사람들과는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혼자서 나의 태현(太玄)을 지키는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漢書』 卷87 「揚雄傳」

921 부축하지 않으랴 : 송나라 학자 정자가 말하기를 “지금의 학자는 취한 사내와 같아서 왼쪽을 부축하면 오른쪽으로 기울고, 오른쪽을 부축하면 왼쪽으로 기운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학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다.

922 삼상(參商) :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삼성(參星)은 동쪽 하늘에 있고 상성(商星)은 서쪽 하늘에 있어서, 각각 뜨고 지는 시각이 틀리는 관계로 영원히 서로 만날 수가 없는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春秋左傳』 「昭公元年」

국사 정희면⁹²³ 공의 강학비를 읽고 느낌이 있어
 讀菊史鄭公熙冕講學碑有感

| | |
|---------|----------------------|
| 爲究天人築一亭 | 정자를 짓고 천인을 궁구하여 |
| 深深將詣聖賢局 | 깊은 성현의 문에 이르러 했다 |
| 苦囚倭獄時嘗膽 | 괴로운 왜놈 감옥에선 와신상담했고 |
| 勤納英才日授經 | 부지런히 영재를 받아 경전을 가르쳤다 |
| 彷彿書聲啼有鳥 | 어렴풋 글소리에 새도 지저귀고 |
| 依然月色照盈庭 | 의연한 달빛은 뜰에 가득하다 |
| 尊師崇道誰如此 | 누가 이처럼 사도를 존숭할까 |
| 蓮嶽崔嵬獨帶青 | 연악은 우뚝 솟아 홀로 푸른빛일세 |

923 정희면 : 전남 함평(咸平) 사람이다. 1906년 봄, 국권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김용구(金容球)가 일심계(一心契)를 조직하고 동지를 규합할 때 여기에 동참하여 활동하였고, 이어 1907년 8월에는 기삼연(奇參衍) 의병장의 휘하에 들어가 김형식(金炯植)·박용근(朴溶根)·오태윤(吳泰允)·이영화(李永華)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같은 해 10월 일군이 수백 명의 군중을 모아 놓고 김용구의 집에 방화할 때 체포되어 광주(光州)로 이송되었으며, 1908년 봄에 유형(流刑) 6개월을 언도받았다.

현재 김주성에게 드리다

呈金弦齋 胃成

| | |
|-------|-----------------------------|
| 窈窕白雲洞 | 깊고 그윽한 백운동은 |
| 城市一隅邊 | 성시의 한 모퉁이에 있네 |
| 偃仰有碩人 | 석인이 언양하니 |
| 塵白自超然 | 세속에서도 절로 초연하다 |
| 猶有扶世志 | 여전히 세상을 부축할 뜻으로 |
| 敎徒數十年 | 문도를 가르친 지 수십 년 |
| 先丈無恙日 | 선친께서 건강하시던 날 |
| 世稱萬福全 | 세상은 만복을 갖추었다고 칭송했다 |
| 箕裘承襲業 | 기구의 구업을 계승하고 |
| 擬追古昔賢 | 옛날의 현인을 좇으려 했다 |
| 文獻白虎燹 | 문헌은 경인년 병란 ⁹²⁴ 때 |
| 燒盡無一傳 | 소진하여 하나도 전한 것 없는데 |
| 弦齋爲是懼 | 현재가 이를 두려워하여 |
| 汲汲求殘篇 | 급급히 잔편을 구했다 |
| 余昨訪高居 | 지난번 거처를 방문하니 |
| 幾忘倒裳延 | 의상을 전도하고 맞았네 ⁹²⁵ |
| 世爭笑腐陋 | 세상은 다투어 비루함을 비웃으니 |
| 詎意設華筵 | 어찌 화연의 진설을 뜻했으랴 |
| 煮茶且醕酒 | 차를 달이고 술을 걸러 |

924 경인년[白虎]의 병란 : 1950년 6·25 동란을 말한다.

925 전도하고 맞았네 : 서둘러 맞이한다는 뜻이다. 『서경』 「제풍(齊風) 동방미명(東方未明)」에 이르기를, “동방이 아직 밝지 않았는데, 의상을 뒤집어서 입었노라. 넘어지고 엎어지거늘, 공소로부터 부르도다. [東方未明 顛倒衣裳 顛之倒之 自公召之]” 하였다.

慇懃勸百千
先丈曉堂誼
話到淚漣漣
醉酒又飽德
頓忘日西天
風雨此何時
勵揭莫述遭
努力各崇德
慎勤保青氈

은근한 뜻으로 수없이 권하고
선친과 효당의 우의를
얘기하며 눈물을 줄줄 흘린다
술에 취하고 덕에 취하니
문득 서쪽의 해도 잊었다
풍우 몰아치는 이 시절에
머뭇거리지 말고 난관을 건너길
노력하여 각각 덕을 높여서
삼가 부지런히 청전을 보전하세

인암 김재권에게 축수하다

壽金忍菴 在權

月出嵯峨鎮南土 월출산 높고 높아 남토의 진산이요
鵝湖灩澦涵蒼天 아호는 넘실넘실 창천을 머금었다
千載落落毓名人 천년 동안 낙락한 명인을 길렀으니
一望淑氣正蜿蜒 바라보면 맑은 기운 유장하다
蘆洞深深有忍菴 노동 깊은 곳에 인암이 계시니
世世儒雅過半千 오백 년 대대로 유아의 선비시라
遊學畿湖胸自闊 기호에 유학하여 흉금을 넓혔고
閱盡風霜心愈堅 풍상을 겪고서 마음 더욱 견고했다
規戒子孫守赤衷 자손을 규제하며 단심을 지켰고
紹述譙脩保青氈 어려움⁹²⁶ 전승하여 청전을 보존했다
昆弟四五如龍虎 형제 네다섯 사람은 용호와 같은데
翁今遽爾初度年 그대 오늘 어느덧 회갑을 맞았구나
一室雍雍看鳧藻 일실은 화목하여 부조⁹²⁷를 보는 듯
嘉朋濟濟祝龜蓮 좋은 벗 넘쳐 귀련⁹²⁸을 축수한다
從古城市多囂塵 예로부터 성시에 시끄러움 많으니

926 어려움[譙脩]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조의 뜻과 일을 계승하고 행했다는 말이다. 『시경』 「빈풍(邇風) 치효(鴟鵂)」에 이르기를 “나의 깃은 몽땅 모자라지고, 나의 꼬리는 다 닳아 빠졌다. [予羽譙譙 予尾脩脩]” 하였다.

927 부조(鳧藻) : 물오리가 물풀 속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것처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격의 없이 함께 어울려 즐기며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 『후한서(後漢書)』 권31 「두시열전(杜詩列傳)」에 이르기를, “폐하께서 군대를 일으키신 지 13년 동안, 장수는 화목하고 사졸은 물풀 속에서 물오리가 노니는 것과 같았다. [陛下起兵十有三年 將帥和睦 士卒鳧藻]” 하였다.

928 귀련(龜蓮) : 장수를 의미한다. 『사기(史記)』 권128 「귀책열전(龜策列傳)」에 이르기를, “거북은 천년토록 연잎 위에 노닌다. [龜千歲乃遊蓮葉之上]” 하였다.

| | |
|---------|---------------------------------|
| 於此豈可久淹連 | 여기에 어찌 오랫동안 머물 것인가 |
| 請看故園山水好 | 청컨대 고원의 아름다운 산수를 보라 |
| 產出靈芝又蟹鮮 | 영지가 생산되고 해산물 아름다우니 |
| 蟹鮮美兮可供賓 | 신선한 게는 손님께 제공할 수 있고 |
| 紫芝燁兮且作仙 | 자지 ⁹²⁹ 는 빛나서 신선도 되리니 |
| 如我江湖飄泊人 | 강호에 표박하는 나 같은 사람이 |
| 儻許他日一叩舷 | 훗날 뱃전을 두드리는 것 허락하려나 |

929 자지(紫芝) : 진(秦)나라 말기에 동원공(東園公)·기리계(綺里季)·하황공(夏黃公)·녹리선생(甬里先生) 등 이른바 사호(四皓)가 폭정을 피해 상산(商山)에 들어가서 자지(紫芝), 즉 영지(靈芝)를 캐어 배고픔을 달래며 천하가 안정되기를 기다린 고사가 있다. 그들이 지어 부른 노래가 「자지곡(紫芝曲)」이다.

용강 백종호에게 주다

贈白龍岡 鍾浩

| | |
|-------|-------------------|
| 溫溫謙自牧 | 온화한 겸덕으로 자신을 다스리니 |
| 一見倒胸懷 | 한 번 보고 마음이 경도되었다 |
| 持操愛蒼柏 | 지조는 푸른 잣나무 사랑하고 |
| 清新種癭梅 | 청신함은 야윈 매화를 심은 듯 |
| 規兒時講義 | 아이 훈계하며 의리를 강명하고 |
| 迎客輒呼杯 | 객을 맞으면 술잔을 부른다 |
| 古宅傳來久 | 고택은 전해온 지 오래이니 |
| 勿教庭覆苔 | 이끼가 뜰을 덮게 하지 말기를 |

송오 위성탁에게 부치다

寄松塢 魏聖卓

| | |
|-------|-----------------|
| 千仞冠山屹 | 천길 높은 관산에서 |
| 擅來文獻名 | 문헌의 명성 독점했다 |
| 縱由新世界 | 비록 신세계를 따랐으나 |
| 能保古家聲 | 고가의 명성도 보존했다 |
| 蘭杜生幽谷 | 난초와 두약이 유곡에 피고 |
| 架書宜短檠 | 서가의 책은 단경과 어울린다 |
| 請看松在塢 | 청컨대 언덕의 솔을 보고 |
| 共守歲寒盟 | 함께 세한의 맹약을 지키세 |

남강 이효갑의 장원에 쓰다

題李南岡 孝甲 庄

| | |
|---------|----------------------------------|
| 爲訪高居月出深 | 월출산 깊은 곳 고인의 거처 찾으니 |
| 千巖猿鶴摠知音 | 천암의 원학이 모두 지음일세 |
| 典型得看儒林雅 | 전형은 유림의 아사를 볼 수 있고 |
| 書史傳承父祖心 | 서사는 조부의 마음을 전승하였다 |
| 卓犖生涯忘苦樂 | 기개 높아 생애의 고락을 잊었고 |
| 優遊世道任升沈 | 유유자적 세도의 승침에 맡겼나니 |
| 誰知吾子勤艱意 | 그대의 고심하는 뜻을 누가 알랴 |
| 日日王虞帖傲臨 | 날마다 왕우 ⁹³⁰ 의 서첩 임시한다네 |

930 왕우(王虞) : 중국 동진(東晉)의 명필 왕희지(王羲之)와 중국 당(唐)나라 서예가인 우세남(虞世南)이다.

사촌 민병재에게 주다

贈閔沙村 丙宰

| | |
|-------|------------------|
| 聯槩屬曾年 | 석년에 나란히 수학하였는데 |
| 回頭一悵然 | 돌이켜 보니 마음이 슬프다 |
| 碧城風雪裏 | 벽성에 풍설이 몰아치던 때요 |
| 洛水鐵爐邊 | 낙수의 철화로 가로다 |
| 清苦何其壯 | 청고함은 얼마나 굳센던고 |
| 文詞亦可傳 | 문사 또한 전해지리니 |
| 吾家有寶鏡 | 우리 집안에 보경이 있으니 |
| 相託談陳編 | 서로 의탁하여 진편을 얘기하세 |

술재⁹³¹에게 주다 당시 강진군수이다

贈述齋 時作康津倅

| | |
|----------|------------------------------------|
| 印友溫如玉 | 옥처럼 온윤(溫潤)한 나의 벗 |
| 森然在眼中 | 눈앞에 뚜렷이 떠오른다 |
| 四郊鳴土鼓 | 사방 들판에선 토고를 치며 |
| 洽受惠和風 | 혜화의 바람 넉넉히 받는다 |
| 適巡郊以勸農故云 | 마침 교외를 순시하면서 농사를 권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

931 술재(述齋) : 정채균(丁採鈞)이다.

벽천 박형률에게 주다

贈朴碧泉炯律

二客聯鞭入海城 두 객이 나란히 해성에 들어오니
床頭筆橐眼翻青 책상의 붓통에 눈이 맑아진다
斜陽痛飲三杯後 석양빛에 석 잔을 통음한 후에
一曲峨洋⁹³²向子鳴 아양곡⁹³²을 그대에게 노래한다

932 아양곡(峨洋) : 춘추시대 백아(伯牙)가 타고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가 들었다는 금곡(琴曲)이다.

두류산에서 일두⁹³³선생의 시운을 차하다

頭流山次一蠹先生韻

| | |
|---------|---------------------|
| 汀蒲誇綠柳誇柔 | 강가의 푸른 부들에 부드러운 버들 |
| 巧我來時亦麥秋 | 마침 맥추의 시절에 여길 찾았다 |
| 先生去後今誰在 | 선생이 떠나신 후 이제 누가 있는가 |
| 空繫蘭舟水自流 | 난주만 매인 채 물만 절로 흐른다 |

933 일두 : 일두는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호이다. 정여창은 김굉필과 함께 김종직의 문하에서 배웠다.

불일폭포
佛日瀑布

| | |
|-------|------------------|
| 飛流數百尺 | 수백 척 날아 흐르는 폭포 |
| 銀漢自天垂 | 은하수가 하늘에서 드리운 듯 |
| 下作深潭沼 | 아래로 깊은 연못이 되니 |
| 藏龍待旱時 | 숨은 용이 가물 때를 기다린다 |

쌍계사를 유람하다

遊雙溪寺

| | |
|---------|----------------------|
| 一到名山整我衿 | 명산에 이르러 옷깃을 정돈하니 |
| 神清恰似在空虛 | 맑은 정신 흡사 허공에 있는 듯 |
| 溪邊掃石頻傾酒 | 시냇가 바위 쓸어 자주 술잔 기울이고 |
| 林下披襟暫秣驢 | 임하에 옷깃 풀고 잠시 나귀를 먹인다 |
| 下界浮生渾醉裏 | 하계의 부생은 모두 취중이건만 |
| 上方明月頓醒餘 | 상방의 명월은 문득 깨어있구나 |
| 何由挽得垂天瀑 | 어찌하면 하늘에 드리운 폭포를 끌어다 |
| 一世塵埃洗嶠如 | 세상의 진애를 깨끗이 씻어볼까 |

산장에서 노닐다 구수원지

遊山莊 舊水源池

| | |
|---------|-----------------------|
| 苦我衿懷鬱未開 | 나의 울적한 흥금 풀리지 않아 |
| 秋風一嘯倚山臺 | 가을날 산대에 기대어 휘파람 분다 |
| 嗅香清飲傾池藕 | 연꽃 당겨 향기 맡으며 술을 마시고 |
| 磨墨閒題掃石苔 | 이끼 쓸고 묵을 갈아 한가히 시를 쓴다 |
| 祇信靈犀心裏照 | 영서가 심중을 뚜렷이 비추나니 |
| 何勞魂夢枕邊來 | 어찌 수고롭게 몽혼이 침변으로 오랴 |
| 案頭欲作青春業 | 책상에서 청춘의 업을 짓고자 하나 |
| 其奈蕭蕭白髮催 | 소소한 백발의 재촉을 어이할까 |

덕은 조임환의 장원에서 회화하다

曹德隱壬煥庄會話

| | |
|---------|------------------------|
| 吾遊又是白雲秋 | 나의 유람은 흰 구름 흐르는 가을이니 |
| 似占人間第一流 | 흡사 인간의 제일류를 차지한 듯 |
| 酒戶何須居後輩 | 주량이야 어찌 뒤에 자리하라만 |
| 文章無奈讓初頭 | 문장은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양보한다 |
| 誇豐官報孰云好 | 풍년을 자랑하는 관보를 누가 믿으랴 |
| 乖候田家暗惹愁 | 기후 고르지 못한 전가는 남몰래 시름한다 |
| 梨棗滿園杯未盡 | 밤과 대추 가득한 뜰에 술도 한없으니 |
| 爲挑餘興更登樓 | 여흥을 돋아 다시 누각에 오른다 |

송능 이동범 어른을 애도하다

輓松農李丈東範

| | |
|-------|-----------------|
| 榮江西馳來 | 영산강은 서쪽으로 달려와 |
| 逶迤清且直 | 구불구불 맑고 곧게 흐르고 |
| 錦山鍾靈氣 | 금성산은 영기가 모여서 |
| 插雲一何矗 | 구름에 솟아 얼마나 높은지 |
| 錯落草洞村 | 그 사이에 초동 마을 있으니 |
| 開址過千百 | 터를 열어 천백 년을 지내며 |
| 講學及治武 | 학문을 연구하고 무력을 닦아 |
| 個個自雄傑 | 사람마다 절로 웅걸하다 |
| 欽欽松農子 | 흠흠한 송농자여 |
| 天姿亦皎潔 | 천자가 또한 교결하니 |
| 就學李六峯 | 이육봉 선생께 취학하여 |
| 發軔期奇絕 | 처음부터 기절을 기약했다 |
| 遠渡玄海灘 | 멀리 현해탄을 건너서 |
| 究研東西學 | 동서의 학문을 연구하고 |
| 歷覽殊域盡 | 많은 지역을 두루 편력하며 |
| 古今事通達 | 고금의 일에 통달했다 |
| 我韓光復後 | 우리 대한 광복 후에 |
| 國論多分裂 | 국론이 많이 분열되니 |
| 分產與諸弟 | 재산을 아우에게 나눠주고 |
| 使無意不足 | 뜻에 부족함이 없게 하고서 |
| 移身碧城西 | 벽성 서쪽으로 몸을 옮겨 |
| 早見幾微作 | 일찍 기미를 보고 떠났다 |
| 又復還故土 |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

| | |
|-------|--------------------------------|
| 無恙會一室 | 탈 없이 일실에 모였으니 |
| 當時曉堂翁 | 당시 효당 옹께서는 |
| 避地浮槎域 | 부사 ⁹³⁴ 에 피신하셨다 |
| 公與金普亭 | 공께서는 김보정 선생과 |
| 經學院相識 | 경학원에서 서로 알고서 |
| 聯鑣四五人 | 몇몇 사람이 함께 나아가 |
| 湖南稱巨擘 | 호남의 거벽이라 칭하였다 |
| 一見倒胸襟 | 한 번 만나매 흥금을 경도하고 |
| 相與課夏日 | 더불어 여름날을 과독하니 |
| 昕夕酬唱裏 | 조석으로 수창하는 가운데 |
| 情誼似膠漆 | 정 의는 교칠 ⁹³⁵ 과도 같았다 |
| 南泛瀛海上 | 남쪽으로 영해를 건너서 |
| 窮搜仙宅窟 | 신선의 굴택 ⁹³⁶ 을 모두 찾았고 |
| 東至新羅都 | 동쪽으로 신라의 도읍에 이르러 |
| 吊悲諸王跡 | 제왕의 자취를 조문하며 슬퍼했다 |
| 暇遊諸勝地 | 여가에 여러 명승지를 유람하니 |
| 詞賦動成軸 | 사부가 걸핏하면 시축을 이루었다 |
| 曉翁忽棄世 | 효옹께서 홀연 세상을 버리니 |
| 踽踽何可測 | 외로운 마음 어찌 헤아릴까 |
| 襄禮及刊稿 | 장례와 원고의 간행에 |
| 殫誠且補力 | 정성을 다하고 힘을 보탰다 |

934 부사 : 낙안의 옛 이름이다.

935 교칠(膠漆) : 부레풀과 옷나무의 칠처럼 뿔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후한(後漢)의 진중(陳重)과 뇌의(雷義)가 돈독한 우정을 발휘하자, 사람들이 “교칠이 굳다고 하지만, 진중과 뇌의의 우정만은 못하다. [膠漆自謂堅 不如雷與陳]” 하였다. 『後漢書』 卷81 「獨行列傳」

936 신선의 굴택(窟宅) : 제주도를 영주(瀛州)라고도 하는데 신선이 사는 곳이란 뜻이다.

余被獎愛深
諄諄常提掖
陪從嶺南行
辛丑秋九月
蠡樓與陶院
慷慨參拜謁
往復數十日
遍交諸名碩
公每謂引余
嶺行擬再作
此事竟未遂
一朝臥病席
漢城一告別
詎意千古隔
志氣欲邁古
容儀溫如玉
德行範一坊
文學傳來億
後生及未學
于何將考德
嗚乎松儂子
九原難可作
西風灑熱淚
儻知余衷臆

내게도 사랑과 권장을 깊이 하사
항상 순순히 이끌어주었다
한번 모시고 영남을 따라가니
때는 신축년(1961) 구월의 가을
촉석루와 도산서원을
강개한 마음으로 배알하였고
왕복 수십 일에
여러 학자와 두루 교류하였다
공은 매번 말씀하사 나를 이끌고
영남을 다시 가자고 하셨는데
이 일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병석에 누우셨다
한성에서 한 번 고별이
천고의 이별임을 어찌 뜻했으랴
지기는 고인을 넘어서고
용의는 옥처럼 온화하며
덕행은 일방의 모범이요
문학은 내세에 전해졌다
후생과 말학이
장차 어디서 덕을 고찰할까
오호라 송농자여
구원⁹³⁷에서 일어나기 어려워라
서풍에 뜨거운 눈물 뿌리니
나의 충심을 혹여 아실런지

937 구원(九原) : 구원(九原)은 춘추시대의 진(晉)나라 경대부의 묘지가 있었던 곳으로, 무덤을 뜻한다.

정다산의 「천일각」 시를 차운하다 8경을 붙이다

次丁茶山天一閣韻 附八景韻

天一閣前海接天 천일각 앞바다 하늘에 닿으니
碩人於此久留連 석인이 이곳에 오래 머물렀다
遺書傳誦三千里 유서는 삼천리에 전송되었으니
古宅藏修幾百年 고택에서 장수⁹³⁸한 지 몇백 년인가
爲國丹衷葵向日 나라 위한 단청은 해바라기 같았고
護兄堅志秤隨權 형을 보호하는 뜻은⁹³⁹ 권도를 따랐다
依徯往事憑誰問 아득한 지난날을 누구에게 물을까
祇有白鷗相對眠 백구만 서로 마주하고 잠이 들었네

938 장수(藏修) : 학문을 할 때 조금도 변함없이 열심히 한다는 말이다. 『예기』 『학기(學記)』에 이르기를, “군자는 학문할 적에 장하고 수하고 식하고 유한다. [君子之於學也 藏焉修焉 息焉 遊焉]”라고 하였으며, 그 소(疏)에 이르기를, “장이란 마음에 항시 학업을 생각함이요, 수란 배우고 익히는 일을 폐하지 않음이다. [藏 謂心常懷抱學業也 修 謂修習不能廢也]” 하였다.

939 형을 보호하는 뜻은 : 정약용(丁若鏞) 및 그의 형 정약전(丁若銓), 정약중(丁若鍾) 등과 외가인 해남윤씨, 안동권씨 일문의 친인척 등이 천주교에 경도되었다. 인하여 신유박해(1801년)가 일어났는데 정약중은 끝내 배교하지 않아 사형을 받았다.

죽도에 돌아가는 돛배

竹嶼歸帆

誰種千竿竹 누가 천 그루 대를 심었나
四時接素秋 사시에 가을을 접하누나
鱸魚膾正美 농어회가 맛이 들었으니
知是張翰舟 장한⁹⁴⁰의 배인 줄 알겠다

940 장한(張翰) : 동진(東晉) 때 오군(吳郡)의 장한(張翰)이 낙양(洛陽)에 들어가 대사마(大司馬)의 동조연(東曹掾)으로 있다가,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고향인 오군의 순채국[蓴羹]과 농어회[鱸膾]가 생각난다고 하고는 수레를 명하여 고향으로 곧장 돌아왔다. 『晉書』 「文苑傳 張翰」

계량에 울리는 조수

桂梁鳴潮

| | |
|-------|---------------|
| 桂梁春水晚 | 계량에 봄물이 차오르니 |
| 萬鼓似爭鳴 | 만고가 다투어 울리는 듯 |
| 高臥幽人在 | 높이 누운 유인이 계시니 |
| 排他世外聲 | 바깥세상 소리 물리치네 |

우도의 취사 연기

牛島炊煙

斜陽如縷起

사양에 실처럼 오르니

麥飯蔥湯宜

맥반은 총탕과 어울리네

安得歲豐稔

어찌하면 풍년이 들어

萬邦共得炊

만방이 함께 밥을 지을까

용포의 어선 불빛

龍浦漁火

南迷更北起

남에서 어른하다 북에서 반짝이니

恍惚縱橫兵

황홀하기 병장기가 종횡하는 듯

撈獲知無算

어획물이 셀 수 없이 많으리니

竟宵照海城

밤새도록 해성을 비추는구나

천태산의 저녁 구름

天台晚雲

天台自窈窕

천태산은 절로 그윽하여

仙子此相棲

신선이 여기에 서로 깃든다

故使晚雲覆

일부러 저녁 구름 덮으니

似猜來俗兒

속인의 찾아옴을 시기하는 듯

연사의 저녁 종소리

蓮寺暮鍾

| | |
|-------|---------------|
| 千峯月正白 | 천봉의 밝은 달빛에 |
| 泛泛破烟沈 | 종소리는 안개를 헤친다 |
| 應是天花墮 | 아마도 천화가 떨어져서 |
| 冷然發道心 | 청정한 도심을 깨우는 듯 |

다산의 청람

茶山晴嵐

山齋無一事

春日照晴潭

千態萬形狀

茶烟亂纈嵐

산재에 일은 없고

춘일만 맑은 못을 비춘다

천태만상으로

다연이 어지럽게 이내와 아롱진다

관악의 적설

冠嶽積雪

冠嶽自磅礴

遙望似玉堆

何由鑿出盡

施散救貧來

관악은 광대하게 뻗어

멀리서 보면 옥을 쌓은 듯

어찌하면 모두 캐내어

빈자에게 베풀어 구원할까

장산에 모여 읊다

章山會吟

難耐寥寥臥旅窓 여창에 누우니 참으로 쓸쓸하여
常思聽子舊時腔 늘 그대의 옛 곡조를 생각한다
友朋入夢憎鳴雁 벗을 꿈꾸매 기러기 울음 밉거늘
雪月無過任吠尨 설월을 보고 괜히 삼살개가 짖는다⁹⁴¹
師道嚴然屹獐嶽 사도가 엄연히 장악처럼 높으니
君心清矣證龍江 그대의 맑은 마음 용강이 증거한다
誰知聲勢掀天地 천지를 흔드는 성세를 누가 알랴
不換烟波一釣缸 연파 속 낚시바위와 바꾸지 않으리

941 삼살개가 짖는다[吠尨] : 개가 짖는 것은 식견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촉(蜀) 이남지역은 늘 비가 오고 해가 뜨는 날이 적기 때문에 해가 나오면 고을의 개들이 짖어대고, 오령(五嶺) 남쪽 남월(南越)은 기후가 따뜻하여 눈이 오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눈이 오면 고을의 개들이 놀라서 날뛰었다고 한다. 『柳河東集』 卷 34 「答韋中立書」

대만으로 가는 벽강 김호를 보내며

送金碧岡灝之臺灣

中州文物冠宇宙 증주의 문물은 천하의 으뜸
歷歷載記史策中 역력히 사책에 기재되었다
治亂興亡日相尋 치란과 흥망이 날로 반복하니
無數男兒自英雄 무수한 남아가 스스로 영웅이었다
爲保春秋大一統 춘추의 대일통⁹⁴²을 보존하고자
割據一隅無西東 모퉁이에 할거하여 동서가 없었다
茫茫本土集梟獍 망망한 본토는 효경⁹⁴³만 모였고
拳小臺灣存古風 주먹처럼 작은 대만은 고향을 보존했다
其人其書尙在否 그 사람과 그 책이 아직 있는지
懷古傷今意無窮 고금을 회고하고 슬퍼하는 뜻 무궁하다
吾友碧岡生冀北 나의 벗 벽강은 기북에서 태어나서
慷慨生平有奇氣 평생 비분강개 기특한 기개가 넘친다
詞賦鏗鏘鳴金玉 사부는 쟁쟁하게 금옥소리 울리고
筆鋒閃忽起雲霧 필봉은 번쩍이며 운무가 일어난다
爲觀國光營幾年 나라의 빛을 보려고⁹⁴⁴ 몇 년을 도모했나
丁巳初春開航路 정사년⁹⁴⁵ 초봄에 항로가 열렸다

942 대일통 : 대일통(大一統)은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은공(隱公)」 원년 조에 나오는 말로, 천하의 제후들이 모두 주(周)나라 왕에게 귀의하여 이를 중심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943 효경(梟獍) : 효(梟)는 어미를 잡아먹는 새이고, 경(獍)은 아버지를 잡아먹는 악조(惡鳥)이다. 중국 공산당을 지칭한 말이다.

944 나라의 빛을 보려고 : 선진 문물을 접하여 견식을 넓힌다는 의미다. 『주역』 「관괘(觀卦)」 육사(六四)에 이르기를 “나라의 빛을 봄이니, 왕에게 나아가 손님이 되는 것이 이롭다. [觀國之光 利用賓于王]” 하였다.

945 정사년 : 1977년이다.

| | |
|---------|----------------------------------|
| 我是固囚一措大 | 나는 참으로 갇혀있는 조대 ⁹⁴⁶ 이니 |
| 安敢窺得鵬萬里 | 어찌 구만리 봉새를 엿볼 수 있으랴 |
| 在昔季札觀周樂 | 옛날 계찰은 주악을 보고서 ⁹⁴⁷ |
| 一一置評無餘緒 | 일일이 평론하여 남김이 없었다 |
| 請君收盡一篇裡 | 청컨대 그대도 시편에 모두 거두어 |
| 資我胸中破塊磊 | 나의 흉중의 수심을 깨뜨려 주기를 |

946 조대(措大) : 선비를 빈정거리는 투로 부르는 말이다.

947 주악을 보고서 : 계찰(季札)은 춘추(春秋)시대 오(吳)나라 왕자로서 왕위도 마다하고 중원의 각국을 돌며 당대의 어진 자들을 많이 사귀고 노(魯)나라에 와서 주나라와 소속 제후국가의 음악을 구경하고는 여러 나라의 치란성쇠에 관해 평가하였다고 한다. 『史記』 卷31

나승와의 수석을 축하하다 삼봉의 대인이다

賀羅松窩壽席 三奉大人

翁家百歲駐長春 송와 옹의 집안은 백 년이 늘 봄날
大地陽生正好辰 대지에 양기가 이는 좋을 시절
心裏權衡無變日 마음의 권형은 변할 날이 없고
世間榮落不關身 세간의 영고성쇠는 아랑곳없어라
奉觴斑爛趨庭子 추정하는 아들은 색동옷으로 술잔 올리고
鼓瑟歡娛賀壽人 축수하는 이는 비파 타며 기뻐한다
原鶴相依琴在御 형제가⁹⁴⁸ 의지하며 거문고 연주하니
如今完福有誰隣 지금의 온전한 복을 누가 견주랴

948 형제가[原鶴] : 『시경』 「소아(小雅) 상제(常棣)」에 이르기를, “척령이 언덕에 있으니 형제가 급난을 구원하도다. 매양 좋은 벗이 있으나 길게 탄식할 뿐이니라. [鶴鶴在原 兄弟急難 每有良朋 況也永歎]” 하였다.

우천서실에 쓰다

題牛川書室

浮槎城外別開天 부차성⁹⁴⁹ 밖에 별천지 열려
竹柏森森石澗邊 죽백은 석간 가에 무성하다
追遠餘誠能教子 추원⁹⁵⁰의 정성으로 자식 가르치고
看書暇日且耕田 독서의 여가에 밭을 경작한다
伯夷薇作清風至 백이의 고사리 돋으면 청풍이 불고
帝釋雲收皎月妍 제석산 구름 걷혀 명월이 아름답다
牛畝程川首邱思 우산과 정천의 고향 생각⁹⁵¹ 간절하니
昕宵砻砻仰前賢 조석으로 힘써 전현을 앙모한다

949 부차성(浮槎城) : 부차는 낙안(樂安)의 이칭으로 낙안읍성을 가리킨다.

950 추원(追遠) : 『논어』 「학이(學而)」에 이르기를, “아버이 상을 신중하게 행하고 먼 조상을 정성껏 제사 지내면 백성들의 덕성이 둔후하게 될 것이다. [慎終追遠 民德歸厚矣]” 하였다.

951 고향 생각[首邱思] : 여우가 죽을 때면 제가 살던 언덕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고 한다. 『淮南子』 「說林訓」

자춘 윤정효가 시를 지었기에 그 시운을 써서 화답하다 정사년(1977)
 尹子春 正孝 有詩以其韻和之 丁巳

鐵冶江山淑氣生 철야 강산에 맑은 기운 일어나니
 書燈耿與曉星明 서등은 새벽별과 함께 반짝인다
 勤勤俯首希賢志 부지런히 독서함은 희현⁹⁵²의 뜻
 落落治園忘世情 낙락하게 정원 가꾸며 세정을 잊었다
 莫學嫩姿霜下瘁 서리에 시드는 어린 자태 배우지 말고
 佇看貞操雪中青 눈 속의 청청한 정조를 볼지어다
 寸膠元不清河濁 촌교⁹⁵³로는 흐린 황하 맑힐 수 없으니
 固守東岡晦姓名 동강⁹⁵⁴을 고수하며 성명을 감추라

952 희현(希賢) : 송유(宋儒) 주돈이(周敦頤)의 『통서(通書)』 「지학편(志學篇)」에 이르기를, “성인은 하늘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현인은 성인처럼 되기를 희망하고, 선비는 현인처럼 되기를 희망한다. [聖希天 賢希聖 士希賢]” 하였다.

953 촌교(寸膠) : 한 치의 아교(阿膠)라 하면 아주 작은 양을 말한다. 『포박자(抱朴子)』 「가둔(嘉遯)」에 이르기를, “얼마 안 되는 아교로는 흐린 황하를 맑게 할 수가 없다. [寸膠不能治黃河之濁]” 하였다.

954 동강(東岡) : 동강은 은거지를 뜻한다. 후한(後漢)의 주섭(周燾)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자 그의 종족이 “선세(先世)로부터 훈충(勳寵)이 줄을 이었는데 그대만 어찌 유독 동쪽 산비탈[東岡]을 지키는가?” 하였다. 『後漢書』 卷53 「周燾列傳」

송강 김문옥에게 부치다

寄金松岡 文玉

| | |
|---------|----------------------------------|
| 潁江之北甲山陽 | 영강의 북쪽 갑산 남쪽에 |
| 楣上煒煌松在岡 | 문미는 휘황하고 솔은 산에 |
| 時聽風濤聲瑟瑟 | 때때로 들리는 솔바람 소리 |
| 更凌霜雪色蒼蒼 | 창창한 빛은 상설을 능멸한다 |
| 黃河欲濟須舟楫 | 황하를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고 |
| 大廈將傾可棟樑 | 대하가 기울면 동량이 부족하나니 |
| 愧我縱爲蒲柳質 | 부끄럽다 나는 포류 ⁹⁵⁵ 의 자질이나 |
| 寒年肯許共徜徉 | 세한에 함께 소요하기를 허락하소 |

955 포류(蒲柳) : 창포와 갯버들인데, 일찍 늙고 쇠하는 허약한 체질을 비유하는 말이다. 진(晉)나라 고염지(顧悅之)가 간문제(簡文帝)와 동갑이었는데도 이른 나이에 머리칼이 하얗게 세자, 황제가 “경은 어째서 먼저 머리가 희어졌는가? [卿何以先白]” 하고 그 이유를 물으니, “신은 포류 같은 체질이라서 가을이 가까워지기만 해도 벌써 낙엽이 지고 맙니다. [蒲柳之資 望秋而落]”라고 대답한 고사가 전한다. 『世說新語』 「諺語」

춘곡 강동원의 장원에 쓰다

題姜春谷東元清莊

| | |
|---------|----------------------------------|
| 爲見主人迂路尋 | 주인 만나려 길을 돌아 찾으니 |
| 瓦蕘高出碧蘿深 | 벽라 깊은 곳에 기와마루 높구나 |
| 白雲伴鶴棲危檻 | 백운과 학은 높은 난간에 깃들고 |
| 芳樹開花擬鄧林 | 수목엔 핀 꽃은 등림 ⁹⁵⁶ 에 견준다 |
| 靈施刀圭能濟衆 | 신령한 의술 ⁹⁵⁷ 로 대중을 구제하고 |
| 閒看書史亦頤心 | 한가히 서사 보며 마음을 기른다 |
| 芙蓉池上傾尊酒 | 부용지 가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
| 塊磊平生可一吟 | 평생 쌓인 마음을 시로 읊노라 |

956 등림(鄧林) : 전설상의 숲이다. 옛날에 과부(夸父)가 해를 쫓아 달려서 해가 들어가려 할 즈음에 목이 말라 하수(河水)와 위수(渭水)를 마셨는데도 부족하여 대택(大澤)의 물을 마시려고 하였는데 도중에 목이 말라서 죽고, 버려진 그의 지팡이가 화(化)하여 등림이 되었다고 한다. 『山海經』 卷8 「海外北經」

957 의술[刀圭] : 옛날 약을 뜨던 술가락이다. 전하여 선약 또는 의술을 의미한다.

연강 정동채 회갑시에 차운하다

次鄭烟江 東采 回甲韻

| | |
|---------|------------------------------------|
| 正值高堂飾喜辰 | 정히 고당의 회갑연을 맞으니 |
| 峻嶒傲骨老還新 | 높은 기골은 늙어서도 새롭구나 |
| 子能孝處應多頌 | 자식이 효성스러워 송축이 넘치겠고 |
| 德不孤時必有隣 | 덕은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으리라 ⁹⁵⁸ |
| 常釀酒尊呼墨客 | 항상 술을 빚어 묵객을 부르고 |
| 幾嘆書劒老風塵 | 풍진에 쇠퇴한 서검을 한탄했노라 |
| 螽斯揖揖偕床瑟 | 자손은 번성 ⁹⁵⁹ 하고 부인이 함께 하니 |
| 誰似烟翁完福人 | 누가 연강 옹처럼 온전한 복 누렸으리 |

958 이웃이 있으리라 : 『논어』 「이인(里仁)」에 이르기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德不孤 必有隣]” 하였다.

959 자손은 번성[螽斯揖揖] : 『시경』 「중사(螽斯)」에 이르기를, “메뚜기가 모이고 모였으니, 응당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螽斯羽 揖揖兮 宜爾子孫 蟄蟄兮]” 하였다.

장난삼아 유춘정에게 주다

戲贈柳春汀

| | |
|-------|--------------------|
| 錦江流滾滾 | 금강은 쉼 없이 흐르고 |
| 岸柳當三春 | 언덕의 버들은 봄을 맞았다 |
| 嫋娜風邊好 | 바람에 곱게 나풀거리고 |
| 暗澹雨餘新 | 부슬부슬 비에 새롭구나 |
| 有魚應自樂 | 물고기는 스스로 즐거우니 |
| 潤物孰如仁 | 만물을 윤택하매 무엇이 인만 하랴 |
| 汀老楣間額 | 춘정 늙은이란 문미의 편액이 |
| 也知寫得眞 | 또한 참된 묘사임을 알겠노라 |

무진의 회화

武珍會話

| | |
|---------|-------------------------------|
| 塩梅爾手作羹和 | 염매로 손수 국을 조화하고 ⁹⁶⁰ |
| 爲訴衷懷斫地歌 | 충심을 호소하려 땅을 치며 노래한다 |
| 志氣鵬程圖海遠 | 지기는 봉정의 먼 바다를 도모하고 |
| 經綸蠶腹吐絲多 | 경륜은 누에 배처럼 실을 토한다 |
| 前修兢兢循途轍 | 전현의 길을 전전공공 따르는데 |
| 舉世紛紛醉美娥 | 온 세상은 분분히 미인에만 취하누나 |
| 落拓不須止吾輩 | 실의와 불우는 우리들만이 아니니 |
| 快拋塵事飲如何 | 세상사 통쾌하게 버리고 마셔보세 |

960 염매로 …… 조화하고 : 은나라 무정(武丁) 임금의 재상인 부열(傅說)에게 이르기를,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국을 끓일 때면, 그대가 간을 맞출 소금과 매실이 되어 주오. [若作和羹 爾惟鹽梅]” 하였다. 『書經』 「說命下」

정씨 오악정 원시에 차운하다

次鄭氏五萼亭原韻

| | |
|---------|-----------------------------------|
| 經營幾載築斯亭 | 몇 해를 경영하여 정자를 지었나 |
| 爲挹清香暫駐停 | 맑은 향기 취하여 잠시 멈추었네 |
| 種棣盈庭千朶躡 | 뜰 가득 상채 ⁹⁶¹ 는 잎들이 화사한데 |
| 連床讀史一燈青 | 청등 아래 상을 이어 역사를 읽는다 |
| 嘉辰灑落緣文墨 | 문묵으로 좋은 날은 더욱 쾌락하고 |
| 傾郡瓓珊聚德星 | 덕성이 모이니 온 고을이 빛난다 |
| 聽得津津談笑話 | 흥미진진한 담소를 들으면 |
| 使人必醉未能醒 | 심취 ⁹⁶² 하여 깨어나지 못하게 하노라 |

961 상채(常棣) : 아가위나무로서 형제의 우애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시경』 「상채(常棣)」에 이르기를 “활짝 핀 아가위꽃,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 누구라 해도, 형제만 한 이가 없나니. [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 하였다.

962 심취 : 원문의 必은 心의 오기인 듯하다.

초연정에 오르다

登超然亭

| | |
|---------|----------------------|
| 萬樹青蔥氣欲寒 | 숲의 푸른 기운 차가운데 |
| 揮汗衝暑上層欄 | 더위에 땀을 흠치며 층층 난간 오른다 |
| 淙淙流水琴三尺 | 흐르는 물은 삼척의 거문고요 |
| 陣陣清風竹數竿 | 쉽 없는 청풍은 대나무 몇 그루라 |
| 耕峽中田嫌地窄 | 산골 밭 경작하니 땅은 비좁으나 |
| 逢天下士覺懷寬 | 천하의 선비 만나니 회포가 넓어진다 |
| 何由日日追塵後 | 어찌하면 날마다 발자취를 따라 |
| 畫裏江山次第看 | 그림 같은 강산을 차례로 볼까나 |

매헌 김영준을 축수하다

壽金梅軒 永俊

誰道翁今六十年 누가 매헌 옹을 육십이라 하시고
顏如丹渥氣充然 붉은 빛 얼굴에 충만한 기운
治家區劃園栽柿 치가는 구역 나뉘 채전에 감나무 심었고
教子辛艱硯有田 자식 교육 애쓰며 연전을 두었다
乘興叩推梅樹下 흥이 나면 매화 아래서 글을 묻고⁹⁶³
招朋歌舞菊花前 벗을 불러 국화 앞에서 가무한다
箕裘元自治弓術 기구는 원래 야궁의 기술이라⁹⁶⁴
應不寥寥可永傳 쓸쓸하지 않게 영원히 전하리라

963 글을 묻고[叩推] : 퇴고(推敲)와 같다. 당(唐)나라 때 승려 가도(賈島)가 나귀를 타고 시를 읊다가 '새는 못 속의 나무에 잠들고 중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린다. [鳥宿池中樹 僧敲月下門]'라는 구절이 생각났는데, 두드릴 '고(敲)' 자가 좋을지 밀 '퇴(推)' 자가 좋을지 고민에 빠졌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난 한유(韓愈)의 말에 따라 '고(敲)' 자로 결정하였다.

964 야궁(冶弓)의 기술이라 : 『예기』 「학기」에 이르기를, "훌륭한 대장장이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본받아 응용해서 가죽옷 만드는 것을 익히게 마련이고, 활을 잘 만드는 궁장(弓匠)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본받아 응용해서 키 만드는 것을 익히게 마련이다. [良冶之子 必學爲裘 良弓之子 必學爲箕]" 하였다.

낭주⁹⁶⁵에서 은재 박도섭 어른을 곡하다 절구 3수
 朗州哭隱齋朴丈 道燮 三絕

1

| | |
|-------|----------------------------|
| 月山一舍外 | 월출산에서 일사 ⁹⁶⁶ 밖 |
| 陽洞何其深 | 양동은 어찌 그리 깊은고 |
| 邁軸頤人在 | 소요한 ⁹⁶⁷ 석인이 계시어 |
| 每忘四序侵 | 늘 사시의 변화를 잊었다 |

2

| | |
|-------|----------------|
| 桑麻補活計 | 상마로 활계를 때우니 |
| 猿鶴亦知音 | 원학 또한 지음이로다 |
| 八十間修德 | 팔십에도 한가히 덕을 닦아 |
| 名聲在士林 | 명성이 사림에 있었다 |

3

| | |
|-------|-----------------------------|
| 寂寞素帷裏 | 적막한 하얀 휘장 속 |
| 儀刑彷彿臨 | 의형이 어렴풋 오신 듯 |
| 庭前諸寶樹 | 뜰 앞의 여러 보수 ⁹⁶⁸ 가 |
| 可證隱翁心 | 은재 옹의 마음을 증명한다 |

965 낭주(朗州) : 전라남도 영암의 옛 지명이다.

966 일사(一舍) : 30리를 가리킨다.

967 소요한(邁軸) : 『시경』 「고반(考槃)」에 이르기를, “고반이 시냇가에 있으니, 어진 은자의 너그러운 마음이네. … 고반이 언덕에 있으니, 어진 은자의 크나큰 마음이네. … 고반이 높다란 평지에 있으니 어진 은자의 여유로운 마음 한가롭네. [考槃在澗 頤人之寬 … 考槃宰阿 頤人之邁 … 考槃在陸 頤人之軸]” 하였다.

968 보수(寶樹) : 훌륭한 자제를 가리킨다. 진(晉)나라 사안(謝安)의 고사에 나온다.

큰형님 계헌의 61세 생신에 기쁨을 쓰다

伯氏溪軒六十一生朝志喜

| | |
|---------|-----------------------------------|
| 吾是弟兄總七人 | 우리 형제는 모두 7인 |
| 自任諸事獨勞身 | 모든 일 맡아서 홀로 수고했다 |
| 昕宵侍側方知孝 | 주야로 곁을 모시며 효도했고 |
| 勤儉營生足去貧 | 근검으로 생활하며 가난을 벗었다 |
| 禾熟西疇占吉日 | 서주에 벼 익으면 길일을 택하고 |
| 星明南極駐長春 | 남극성 밝으니 장춘이 머무른다 |
| 偏親猶有高堂在 | 편친께서 아직 고당에 계시니 |
| 獻壽斑衣起早辰 | 일찍 일어나 색동옷으로 헌수 ⁹⁶⁹ 한다 |

969 헌수(獻壽) : 환갑잔치에서 장수를 비는 뜻으로 술잔을 올리는 일.

동래에서 송상현⁹⁷⁰ 공이 순절한 일을 느껴서
東萊感宋公 象賢 殉節事

憶昔島夷蔽海來 옛날 도이가 바다를 메워 침략하니
惟公固拒欲無摧 공만이 굳게 막아 꺾이지 않았다
凜凜殉節能其幾 늠름하게 순절한 분이 얼마이노
灑淚西風獨上臺 서풍에 눈물 뿌리며 누대에 오른다

970 송상현(宋象賢) : 1551~1592.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로 재직 중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정발(鄭撥) 장군이 지키던 부산진성이 함락되고 왜적이 동래성으로 쳐들어왔다. 왜적들이 '싸울 테면 싸우고 싸우지 못하겠으면 길을 비켜달라[戰則戰矣 不戰則假道]'고 쓴 팻말을 동래성문 앞에 세우자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키기는 어렵다[戰死易假道難]'는 글을 내걸었다. 군관민이 합심하여 항전했으나 동래성이 함락되게 되자 조복(朝服)을 갈아입고 단정히 앉은 채 적병에게 살해되었다. 충절에 탄복한 적장(敵將)은 시(詩)를 지어 제사를 지내 주었다. 사후 충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동래 충렬사에 제향되었다.

태종대에 올라 대마도를 바라보다

登太宗臺望對馬島

| | |
|-------|--------------|
| 每看前古史 | 늘 전고의 사책을 보니 |
| 馬島是吾邦 | 대마도는 우리의 소유 |
| 今日屬倭虜 | 금일 왜로에 소속되니 |
| 奮然怒眼雙 | 두 눈에 노기가 넘친다 |

부산항 절구 2수
釜山港 二絶

1

| | |
|---------|--------------------|
| 歷數港灣誰與雄 | 항만을 세어보니 부산항이 으뜸 |
| 晝宵萬舶往來中 | 주야로 수많은 선박이 왕래한다 |
| 人家依岸魚鱗錯 | 언덕의 인가들은 어린이 교차한 듯 |
| 士女紛紛競侈風 | 남녀는 분분히 사치풍조를 다룬다 |

2

| | |
|---------|--------------------|
| 干戈七載濟時雄 | 칠 년 전쟁에 시대를 구한 영웅이 |
| 殲滅倭雛指顧中 | 짧은 시간에 왜구를 섬멸했네 |
| 且恐吾生顛譎計 | 우리도 흘계에 전복될까 두려우니 |
| 堂堂誰復鎮腥風 | 누가 당당히 비린 풍조를 진압할꼬 |

술암 정태석의 장원에 쓰다

題鄭述菴 泰爽 庄

| | |
|---------|-------------------|
| 萬事人間信彼天 | 인간 만사는 저 하늘에 맡길 뿐 |
| 白雲流水空悠然 | 백운과 유수도 공연히 유유하다 |
| 德川餘韻嶠湖裏 | 교호 속에 덕천의 여운 남았고 |
| 龜老清標雪月邊 | 설월 가에 귀로의 맑은 의표라 |
| 回憶浮槎同案日 | 부차에서 공부하던 날 추억하고 |
| 方欣釜市話心筵 | 부산에서 기쁘게 마음을 얘기한다 |
| 看君志氣能超俗 | 그대의 지기는 세속에 초연하니 |
| 紹述他年孰有前 | 훗날 선업의 계승을 누가 앞서랴 |

화순의 우평에서 수계하다

修契于和順之牛坪

| | |
|---------|---------------------|
| 秋來韻士不勝清 | 가을이라 맑은 시상이 넘치던 차에 |
| 多謝招書見示情 | 편지로 불러 정을 보이니 고맙구나 |
| 泛酒菊香留客醉 | 국화주 향기는 객을 붙들어 취하고 |
| 滿山楓染照窓明 | 산 가득 단풍은 창을 밝게 비춘다 |
| 乾坤何時能期霽 | 천지는 언제나 맑기를 기약할까 |
| 風詠南州亦有聲 | 풍영계는 아직도 남주에 명성 있네 |
| 翰墨於人竟無補 | 한묵이 사람에게 끝내 보탬 없으니 |
| 天應笑我老儒生 | 하늘은 나를 늙은 유생이라고 웃겠네 |

해남 벗들의 초대를 받고 짓다

海南諸友見招之作

| | |
|---------|---------------------------------|
| 塞琴山水一何清 | 새금 ⁹⁷¹ 의 산수는 어찌나 맑은지 |
| 暗引江湖墨客情 | 가만히 강호 묵객의 정을 이끈다 |
| 緬憶多時顏尙記 | 멀리 추억하매 얼굴은 아직 기억나니 |
| 偏驚十載髮俱明 | 십 년간 센 머리에 더욱 놀란다 |
| 爲看庭菊重陽色 | 중양절에 뜰의 국화를 보려고 |
| 方到村鷄報午聲 | 막 이르니 촌닭은 정오를 알린다 |
| 文酒風流誰可敵 | 문주의 풍류를 누가 대적할까 |
| 生平冷笑醉榮名 | 평생 영명에 취함을 냉소하나니 |

971 새금(塞琴) : 해남의 옛 지명이다.

금봉 박행보⁹⁷²에게 주다

贈朴金峯幸甫

| | |
|---------|----------------------------------|
| 沃州瑰瑋玉芙蓉 | 옥빛 연꽃처럼 찬란한 옥주 ⁹⁷³ |
| 家在名山翠幾重 | 집은 첩첩 푸른빛 명산에 |
| 胸次汪洋波萬頃 | 왕양한 흥차는 만경창파요 |
| 精神灑落月千峯 | 쇄락한 정신은 천봉의 달빛이라 |
| 堪憐紙面生雲氣 | 가련타 지면에 운기가 생기니 |
| 每嘆毫端帶古容 | 매번 붓 끝의 옛 모습을 찬탄한다 |
| 能逼龍眠高妙手 | 용면 ⁹⁷⁴ 의 고묘한 솜씨에 필근하니 |
| 休辭警發我惛慵 | 나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줄지어다 |

972 금봉 박행보 : 박행보는 진도 출신의 문인화가로 광주의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에게 사군자(四君子) 화제의 간단한 묵화를 사사하였고 소전(素全) 손재형(孫在馨)에게 서법을, 그리고 만취(晩翠) 위계도(魏啓道) 선생에게 한학을 수학하였다.

973 옥주(沃州) : 옥주는 진도(珍島)의 이칭이다.

974 용면(龍眠) : 북송의 문인화가인 이공린(李公麟, 1049~1106)을 가리킨다. 자가 백시(伯時)인데 법서(法書)와 명화를 소장하고 있는 명문가의 출신으로, 1070년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병으로 사퇴하였다. 그 후 고향의 용면산(龍眠山)에 은거하며 스스로 용면거사라 칭하고 회화삼매(繪畫三昧)의 여생을 보냈다.

국화를 감상하다 느낌이 있어

賞菊有感

衆芳搖落日

꽃들이 요락하는 날

獨有黃花開

홀로 황화만 피었다

縱愧淵明趣

도연명의 흥취엔 부끄럽지만

呼童輒進杯

아이 불러 술잔을 든다

서운 원창규를 애도하다

輓元瑞耘 楊珪

| | |
|---------|-------------------------------------|
| 數宵入夢語分明 | 몇 밤 꿈에 들어 분명한 말씀 |
| 似示慇懃舊日情 | 은근한 구일의 정을 보이는 듯 |
| 再印心書功自大 | 거듭 심서를 간행한 공이 절로 크고 ⁹⁷⁵ |
| 廣傳先稿意何輕 | 널리 선고를 전하는 뜻 어찌 가벼우랴 ⁹⁷⁶ |
| 文詞婀娜垂楊態 | 부드러운 문사는 수양의 자태요 |
| 雅度闌珊佩玉聲 | 전아한 도량은 아름다운 패옥 소리라 |
| 我馬春風過古宅 | 내 봄바람에 고택을 방문하니 |
| 庭前花木恨微生 | 뜰의 화목도 쇠미함이 한스럽네 |

975 원주에 『목민심서(牧民心書)』라고 하였다.

976 원주에 『천석소저정사(天錫所著正史)』라고 하였다.

자춘을 방문하였는데 만나지 못하다

訪子春不遇

燈前問釋子

등전의 어린 아들에게 물으니

言父武珍去

아버지는 무진에 가셨다 하네

秩秩滿床書

책상에 가득 놓인 책들을 보고

方知君止處

비로소 군의 머문 곳을 알았노라

덕강 양주혁을 애도하다 절구 3수

輓楊德岡柱赫 三絶

1

| | |
|-------|----------------|
| 曉翁移筏市 | 효옹께서 벌교로 이주할 때 |
| 孰有相扶持 | 누가 부지해 주었나 |
| 軒豁德岡子 | 마음이 활달한 덕강이여 |
| 隣居左右之 | 이웃에 거처하며 도와주었네 |

2

| | |
|-------|-------------------------------------|
| 風潮日以急 | 풍조는 날로 급박하여 |
| 舉世胥沈淪 | 온 세상이 침륜되었다네 |
| 誰復知心苦 | 누가 다시 고심하여 |
| 兒童歌五倫 | 아동에게 오륜가를 노래시킬지 알았으랴 ⁹⁷⁷ |

3

| | |
|-------|------------------------------|
| 卜宅澄光里 | 징광리에 터를 잡으니 |
| 恰如仲氏居 | 흡사 중씨 ⁹⁷⁸ 의 거처로다 |
| 休言羸博痛 | 영박의 고통 ⁹⁷⁹ 말하지 말라 |
| 餘馥襲余裾 | 여향이 나의 옷에 젖는다 |

977 누가 …… 알았으랴 : 덕강(德岡) 선생이 청소년들에게 오륜을 깨우치기 위해 오륜가를 지어 보급하였다.

978 중씨(仲氏) : 한(漢)나라 장후(蔣詡)가 뜰에 작은 길 세 갈래를 내고, 송죽국(松竹菊)을 심어 친구 양중(羊仲), 구중(裘仲)과만 사귀고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三輔決錄』

979 영박(羸博)의 고통 : 아들이 죽은 고통을 말한다. 영박은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지명이 다. 오(吳)나라 계찰(季札)이 제나라에서 돌아오다가 아들이 죽자 이곳에 장사 지냈다. 『禮記』 「檀弓」

이리에 계신 일청 장인을 방문함에 느낌이 있어 근체 1수를 삼가 드리다
訪一靑丈人 金亨在 於裡里有感謹以近體一首奉呈

閒臥城隅一艸廬 성 모퉁이 초려에 한가히 누우니
籬邊杞菊認高居 울타리 기국은 고인의 거처를 알린다
手抄磊落先賢蹟 뇌락한 선현의 자취를 초록하고
篋溢經綸自著書 상자에는 저술한 경륜서가 넘친다
屈子離騷猶察察 굴원의 이소는 오히려 찰찰⁹⁸⁰했고
莊生玩世任蘧蘧 장생의 완세는 거거⁹⁸¹한 채로 맡겼네
摧梁痛後無安做 최량의 고통 후에 훈도 받을 곳 없으니
儻導滄溟失柁余 창명의 키를 놓친 저를 인도해 주실지

980 찰찰(察察) : 세밀한 부분까지 지나치게 밝히고 따지는 것이다. 『후한서』 「장제팔왕열전(章帝八王列傳)」의 논(論)에 이르기를, “위문제(魏文帝)가 ‘명제(明帝)는 찰찰하고 장제(章帝)는 장자(長者)였다.’ 하였다. 장제는 사람들이 명제의 가혹하고 박절함을 싫어하는 줄 평소 알았기 때문에 일을 관후(寬厚)한 쪽으로 하였다.” 하였다.

981 거거(蘧蘧) : 『장자』 「제물론(齊物論)」에 이르기를 “언젠가 장주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나풀나풀 잘 날아다니는 나비였는데 스스로 유쾌하고 만족스러웠는지라 자기가 장주인 것은 알지도 못하였는데, 조금 뒤에 잠을 깨고 보니 몸이 형체가 있는 장주가 되어 있었다. [昔者莊周夢爲胡蝶 栩栩然胡蝶也 自喻適志與 不知周也 俄然覺則蘧蘧然周也]” 하였다.

잠포 장영학의 회갑연을 축하하다

賀潛抱 張永鶴 回甲宴

| | |
|---------|---------------------------------|
| 庭梅一樹報春天 | 한 그루 정매가 봄 하늘을 알리니 |
| 冰玉之姿可學仙 | 빙옥의 자질은 신선을 배우리로다 |
| 待看清河應有日 | 황하가 맑을 날을 응당 볼 것이니 |
| 潛居抱道幾多年 | 도를 품고서 은거한 지 몇 해인가 |
| 賓朋深轍填門外 | 빈봉의 발걸음은 문밖을 메우고 |
| 子姓稱觴繞膝前 | 자손은 술잔 들고 슬하를 돌렸네 |
| 裕後述先心獨苦 | 유후와 술선 ⁹⁸² 에 홀로 고심하니 |
| 將占福慶久綿然 | 복경을 누리며 오랫동안 면면하리라 |

982 유후(裕後)와 술선(述先) : 『서경(書經)』 「중휘지고(仲虺之誥)」에 이르기를, “의로 일을 바로잡고 예로 마음을 바로잡아 후세에 덕행을 남겨주소서. [以義制事 以禮制心 垂裕後昆]” 하였다. 『중용장구』 제19장에 이르기를 “대저 효는 선대의 뜻을 잘 이으며 선대의 일을 잘 전술하는 것이다. [夫孝者 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者也]” 하였다.

김종택 군에게 주다

贈金君 鍾澤

| | |
|-------|-------------------------------|
| 在昔就余學 | 예전 내게 취학할 때 |
| 跋涉無朝夕 | 조석으로 찾아와서 ⁹⁸³ |
| 砻砻數三年 | 몇 년 동안 부지런히 |
| 俯首向前讀 | 독서하며 정진하였다 |
| 志氣無少屈 | 지기는 조금도 굽힘 없어 |
| 鏗然如金石 | 금석처럼 굳세었다 |
| 睽離十餘載 | 헤어진 지 십여 년 |
| 知君不可食 | 그대 가난함을 알았다네 |
| 當時猶未昏 | 당시 아직 미혼이러니 |
| 今生三珠玉 | 이제는 아들이 셋이라 |
| 孝能感神明 | 효성은 신명을 감동시켜 |
| 常務親志適 | 항상 아버지 뜻에 힘썼다 |
| 世間好事多 | 세간에 호사가 많으나 |
| 胸懷且開拓 | 흥회를 우선 열어 넓히고 |
| 古有三餘工 | 옛날에 삼여의 공부 ⁹⁸⁴ 있으니 |
| 努力親書策 | 노력하여 서책을 친애하라 |

983 찾아와서[跋涉] : 풀숲길을 걷는 것을 ‘발(跋)’이라 하고, 물길을 걷는 것을 ‘섭(涉)’이라 한다. 『시경』 「용풍(邶風) 재치(載馳)」에 이르기를 “대부가 발섭하고 뒤쫓아 오는지라 내 마음에 근심하노라. [大夫跋涉 我心則憂]” 하였다.

984 삼여(三餘)의 공부 : 틈이 있을 때마다 독서에 매진한다는 말이다. 한 해의 나머지인 겨울과 하루의 나머지인 밤, 때[時]의 나머지인 흐리고 비 오는 시간을 말한다. 『魏志 王肅傳』

오종근 군에게 주다

贈吳君 鍾根

| | |
|-------|-------------------------|
| 歲暮山窓裏 | 세모의 산창에서 |
| 聊憶遠征人 | 멀리 군대 간 이를 생각한다 |
| 朔風吹律律 | 삭풍은 세차게 불고 |
| 戍樓角聲寒 | 수루의 호각 소리 차갑다 |
| 君應徵入營 | 그대는 징집되어 입영하매 |
| 左右無相親 | 좌우에 친한 이도 없으니 |
| 男兒生世間 | 남아가 세상을 살아감에 |
| 有事致其身 | 일이 있으면 몸을 바치는 법 |
| 軍壘右水營 | 군루는 우수영이라 |
| 尙餘纒倭痕 | 아직 왜적을 섬멸한 흔적 남았나니 |
| 靈風來颯颯 | 신령의 바람 소슬히 불어 |
| 應佑忠武魂 | 충무공의 혼을 도우리라 |
| 風餐又水汲 | 바람을 맞고 얼음을 길으니 |
| 辛苦何可言 | 신고를 어찌 다 말하랴 |
| 偉人曾國藩 | 위인 증국번 ⁹⁸⁵ 은 |
| 軍中猶看文 | 군중에서도 글을 보았다네 |
| 君性故孜孜 | 군의 성품 본래 부지런하고 |
| 才思亦超倫 | 재사도 초륜하나니 |
| 從古豪傑士 | 예부터 호걸의 선비는 |
| 隨事各吐芬 | 일에 따라 향기를 토하였다 |
| 繁華豈能久 | 번화가 어찌 능히 오래 가랴 |

985 증국번(曾國藩) : 1811~1872. 청나라 말기 태평천국을 진압한 지도자이자 양무운동(洋務運動)의 추진자다. 주자학자(朱子學者)와 문장가로도 유명하다.

| | |
|-------|-----------------|
| 暮花與朝雲 | 저녁 꽃과 아침 구름 같거늘 |
| 乾坤億萬年 | 건곤 억만 년에 |
| 此身不再番 | 이 몸은 다시 두 번 없으니 |
| 豈以大丈夫 | 어찌 대장부로서 |
| 虛老宇宙間 | 우주 사이에 헛되이 늙으랴 |

설날에 읊다
元朝吟

무오년(1978)
戊午

除穢卽心清
油然和氣生
休羞鬢髮白
自慰梅君香
蒼豈知年運
春惟不世情
常思死後已
任重是吾行

더러움 없애면 마음 맑아져
유연히 화기가 생긴다
하얀 빈발을 부끄러워 말라
매화 향기로 나를 위로하나니
시초가 어찌 연운을 알겠는가
봄은 세상의 정이 아니로다
항상 사후에야 그침을 생각하라
무거운 짐이 나의 행할 바라

계산 김계윤의 장원에 쓰다

題桂山 金桂潤 清莊

| | |
|---------|------------------------------------|
| 桂樹青青擁一堂 | 청청한 계수가 서당을 안으니 |
| 山中清趣有誰當 | 산중의 청취를 누가 감당하는가 |
| 雪霜獨保貞如栢 | 설상에도 잣나무의 정절 보존하고 |
| 辛辣平生性比薑 | 평생의 성품은 생강처럼 신랄하다 |
| 跡擬韓康隱城市 | 자취는 성시에 숨은 한강 ⁹⁸⁶ 에 견주고 |
| 術凌扁鵲治膏肓 | 의술은 고향 다스리는 편작을 능가한다 |
| 請君斗酒琴三尺 | 청컨대 그대 두주와 삼척의 거문고로 |
| 共飲春風萬點黃 | 함께 봄바람 만점 꽃들에 취해보세 |

986 한강(韓康) : 후한(後漢) 때 대표적인 은자(隱者)로 자는 백휴(伯休)이다.

난석 현태에게 주다

贈蘭石 顯泰

| | |
|---------|---------------------|
| 喪亂昔年離故場 | 석년의 상란에 고향을 떠나서 |
| 順天今日作萍鄉 | 오늘날 순천은 객향이 되었다 |
| 蘭過春雨播清馥 | 난초는 봄비에 청향이 퍼지고 |
| 石借溪雲生寶光 | 바위는 계운 빌려 보광이 이니 |
| 塊磊在胸心自古 | 흥금의 시름에도 마음 절로 예스럽고 |
| 貧窮到骨氣愈長 | 벗속 빈궁에도 기개 더욱 유장하다 |
| 言論公正斯爲大 | 언론은 공정함이 위대하나니 |
| 美俗良風使大揚 | 미풍양속을 크게 선양하라 |

시경 박익준의 장원에 쓰다

題朴是耕 益俊 庄

| | |
|---------|---------------------|
| 城市中間掩板扉 | 성시 중간에 판자문 닫고서 |
| 烹茶讀畫可忘機 | 차 달이고 그림 보며 기심을 잊었네 |
| 錦江波靜閒垂釣 | 금강 물결 고요하면 한가히 낚시하고 |
| 瑞石春深每振衣 | 서석의 봄 깊으면 매번 옷깃 떨친다 |
| 書史世傳令子守 | 서사는 대대로 전해 자식이 지키고 |
| 經綸年老與時違 | 경륜은 나이 들어 세상과 어긋났다 |
| 硯田從古元無稅 | 연전은 예로부터 세금이 없으니 |
| 惟是筆耕倍得輝 | 오직 필경만이 더욱 빛을 더한다 |

녹포를 보내준 후암 오재울에게 사례하다 절구 2수
謝後菴吳 在慄 惠鹿脯 二絕

1

崇朝之路送伴來 하루아침 거리에 심부름꾼 보내니
厚意慇懃敢忘懷 은근한 후의를 마음에 잊겠는가
今歲節山春享日 금년 절산의 봄철 제향일에는
豆籩充實賴供麇 사슴고기로 변두⁹⁸⁷가 충실하리라

2

經亂如今少鹿兒 난리 겪은 오늘날 사슴도 적으니
勤求敬薦更誰誰 열심히 구해 바치는 이 누구인가
以難再託癡爲大 어리석어 어렵게 거듭 부탁하노니
肯許年年繼賜之 기꺼이 해마다 계속 보내줄런지

987 변두(邊豆) : 변과 두는 모두 제기(祭器)로, 봄에 종묘와 사직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흥을 풀다

遣興

蠻觸紛紜我豈干 만촉의 분분함을 어찌 간여하라
靑山正好品題看 청산은 시를 지으며 보기 좋거늘
治園種菜當魚肉 뜰에 채소 심으니 어육을 감당하고
斥土儲書傲冕冠 땅을 열고 책을 쌓아 관면(冕冠)을 경시한다
安分端宜知自責 안분하여 자책할 줄 알아야 하고
全交何必盡人歡 사귀를 온전히 함에 하필 기쁨을 다하라⁹⁸⁸
慰吾無賴南村友 심심한 나를 남촌의 벗이 위로하여
時送芳尊意欲寬 때때로 방준 보내 뜻을 풀어준다네

988 기쁨을 다하라 : 『예기』 「곡례상(曲禮上)」에 이르기를, “군자는 남이 자기를 기뻐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남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하지 않아서 교유를 온전히 한다. [君子不盡人之歡 不竭人之忠 以全交也]” 하였다.

송술봉을 애도하다 절구 3수

挽宋述峯 三絶

1

| | |
|-------|--------------------------------|
| 家世素文行 | 가문은 대대로 문행 ⁹⁸⁹ 을 닦아 |
| 箕裘業繼承 | 기구의 업을 계승하였다 |
| 瑚璉堂上質 | 호련 ⁹⁹⁰ 같은 당상의 자질이 |
| 胡不待平昇 | 어찌 태평시절 기다리지 못했다 |

2

| | |
|-------|----------------|
| 飄遙清鶴態 | 훨훨 나는 청학의 자태 |
| 峯嶽峻峯形 | 우뚝 솟은 준봉의 형상 |
| 八十鄉邦裏 | 팔십 년간 향리의 세월 |
| 人傳學士名 | 사람은 학사의 이름 전한다 |

3

| | |
|-------|----------------|
| 吾父生并世 | 나의 부친과 시대가 같으니 |
| 同庚孰與親 | 동갑 중에 누구와 친하셨나 |
| 小生陪未數 | 소생은 자주 모시지 못하여 |
| 一哭暗傷神 | 곡을 하며 가만히 슬퍼한다 |

989 문행(文行) : 『논어』 「술이(述而)」에 이르기를, “공자께서는 네 가지로 가르치셨으니, 문과 행과 충과 신이었다. [子以四教 文行忠信]” 하였다.

990 호련(瑚璉) : 호(瑚)와 연(璉)은 모두 종묘(宗廟)에서 서직(黍稷)을 담는 귀한 그릇이다.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저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너는 그릇이다.” 하였다. 그러자 자공이 “어떤 그릇입니까?” 하고 다시 묻자, “호련이다.” 하였다. 『논어』 「公冶長」

매헌 김영준이 한성에 거주함에 율시 1수를 지어 보내다
梅軒 金永俊 作漢城之居爲賦一律送之

| | |
|---------|----------------------|
| 昕宵乘暇每論文 | 주야로 여가에 글을 논했거늘 |
| 十五人中一又分 | 열다섯 중에 한 사람이 떨어졌다 |
| 歲月無情悲逝水 | 무정한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슬프고 |
| 別離難信似浮雲 | 이별은 부운처럼 믿기 어렵다 |
| 自慙招我尊供美 | 나를 불러 좋은 술을 주니 부끄러웠고 |
| 常愛題詩葩吐芬 | 시에서 꽃향기를 토하니 사랑스러웠다 |
| 誰道漢陽今日好 | 누가 금일의 한양을 좋다고 하는가 |
| 滿城風雨臙相聞 | 성 가득 풍우에 비린내만 풍기거늘 |

공정옥의 장원에서 아회

孔 正玉 庄雅會

聲聲杜宇暮春天 늦은 봄 하늘에 두우새 울음소리
春服初成浴錦川 봄옷을 만들고서 금천에 목욕한다
胸次端宜追與點 흥차는 단연코 증점을 좇으리니
功名豈可畫凌烟 어찌 능연각⁹⁹¹에 공명을 그리랴
開扉三徑疎篁裏 성긴 대숲에 삼경⁹⁹²의 문을 열고
聚友千層瑞石邊 층층 서석 가에 벗들을 모으리라
休說煮丹虛誕術 연단이 허탄한 방술이라 말하지 말라
暫忘塵事暫爲仙 잠시 세속일 잊고 신선이 되나니

991 능연각(凌煙閣) : 당태종이 정관(貞觀) 17년(643)에 장손무기(長孫無忌)·두여회(杜如晦)·위징(魏徵)·방현령(房玄齡) 등 훈신(勳臣) 24명의 초상화를 그려서 여기에 걸어 놓게 하였다. 『新唐書』 卷2 「太宗皇帝本紀」

992 삼경(三徑) : 한(漢)나라 장후(蔣詡)가 향리로 돌아가서 모든 교분을 끊은 채 정원에다 오솔길 세 개[三徑]를 만들고 오직 양중(羊仲)·구중(求仲) 두 사람만 어울렸다는 고사가 있다. 『三輔決錄』 「逃名」

촉석루에 오르다

登臺石樓

| | |
|---------|--------------------|
| 臺石丹青耀幾春 | 촉석루 단청은 몇 해를 빛났던고 |
| 江流嗚咽客愁新 | 오열하는 강류에 객의 시름 새롭다 |
| 斜陽匹馬徘徊立 | 사양에 필마로 배회하다 멈추고서 |
| 酌酒當年殉國人 | 당년에 순국한 분께 술을 붓노라 |

한산도를 유람하다

遊閑山島

騷人莫作等閒遊 시인은 등한히 유람하지 말지니
制勝樓空但繫舟 제승루 비어 배만 매여 있구나
恨殺金甌今尙缺 지금도 부서진 금구⁹⁹³가 한이라
悲風萬里颯如秋 만 리 비풍이 가을인 듯 쓸쓸하다

993 금구(金甌) : 금구는 국가의 영토를 뜻하는 말이다. 남조(南朝) 양무제(梁武帝)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마치 쇠로 만든 사발과 같아서 하나도 상하거나 부서진 곳이 없다. [我家國猶若金甌 無一傷缺]”라고 하였다. 『梁書』 卷56 「侯景列傳」

오후암의 장원에서 회화하다

吳後菴庄會話

| | |
|---------|---------------------------------|
| 經春閉戶醉昏昏 | 봄철 내내 문을 닫고 혼 혼히 취함은 |
| 爲絕破苔留屐痕 | 이끼를 해치는 발자국을 끊고자 |
| 乘興子猷剡溪曲 | 자유는 섬계 굽이에 흥을 탔고 ⁹⁹⁴ |
| 尋眞漁父武陵村 | 어부는 무릉도원 진경을 찾았다 |
| 當時誰作詞垣主 | 당시에 누가 사원의 맹주였던가 |
| 一座將招曉老魂 | 좌중은 효당의 혼을 부르려 한다 |
| 翠竹蒼松如潤屋 | 취죽과 창송으로 집이 윤택하여 |
| 共過寒歲是名園 | 함께 명원에서 세한을 보내노라 |

994 자유는 …… 탔고 : 자유(子猷)는 진(晉)나라 왕휘지(王徽之)의 자(字)이다. 그가 눈 덮인 달 밝은 밤에 산음(山陰)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불현듯 섬계(剡溪)에 있는 벗 대규(戴逵)가 보고 싶어지자, 밤새도록 배를 몰고 그 집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와서는, 흥이 일어나서 찾아갔다가 흥이 다해서 돌아왔다는 고사가 있다. 『世說新語』 「任誕」

대곡 김석구⁹⁹⁵ 선생 문집을 읽고 느낌이 있어 짓다
讀金大谷 錫龜 先生文集有感

蘆翁隻手障川東 노사께서 홀로 시내 막아 동으로 보내매
鉤蹟探玄志有同 깊은 이치 탐색하며 뜻을 함께했다
推重嶺湖著述裏 영호남의 저술에 추증하였고
傾心理學遺篇中 이학의 유편에 마음을 기울였다
淸神雨後三更月 청신함은 비 갠 후 삼경의 달빛이요
和氣花時一院風 화기는 뜰에서 부는 꽃바람이라
沙上嫡傳眞在此 노사의 적전이 진정 여기에 있으니
紛紜何事自爲雄 분분한 사람들 어찌 잘난 체를 하는가

995 대곡 김석구 : 대곡은 김석구(金錫龜, 1835~1885)의 호이다.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경범이며, 전라도 남원에서 태어났다. 『맹자(孟子)』에 통달하여 '김맹자(金孟子)'로 불렸다.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 담양군 대전면 대곡리(大谷里)로 이사하였고, 27년간 기정진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문집으로 『대곡집(大谷集)』이 전한다.

장성에서 김신포의 효행비를 읽고 읊시 한 수를 짓다
長城讀金莘圃孝行碑爲賦一律

| | |
|---------|--------------------------------|
| 松梓蔥青可十尋 | 열 길 남짓 푸른 소나무에 |
| 慈烏啞啞送哀音 | 자오의 울음소리 애처롭다 |
| 汲遐乾地生泉水 | 멀리 마른 땅에 샘이 솟고 |
| 夜黑荒廬感虎心 | 한밤 초가에 범이 감동했다 |
| 純行寡倫書野史 | 드문 효행은 야사에 쓰이고 |
| 褒章成冊自儒林 | 유림은 표창의 책을 지었다 |
| 蔚山家世多忠孝 | 울산 가문은 충효가 많으니 |
| 知是澹翁培柢深 | 담옹 ⁹⁹⁶ 이 심은 뿌리 깊어서라 |

996 담옹 : 하서 김인후 선생의 호가 담재(湛齋)이다.

우암과 지헌 오명렬의 방문에 사례하다 절구 2수
謝愚巖志軒 吳命烈 見訪 二絕

1

武珍院裏費長年 무진원에서 세월을 보내며
臨做歐王筆似椽 큰 붓으로 구왕을 임서했네
抵掌慨慷歌浩浩 손뼉 치며 강개한 노래 부르니
嶙峋豪氣更誰前 드높은 호기를 누가 앞서라

2

我是寔瀛一棄人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몸
誰能煦物暖如春 누가 봄 햇살을 비춰주리
東風三月聯鞭至 동풍 삼월에 함께 오시어
花下傾酒警起新 꽃 아래 술을 들며 새롭게 일깨운다

감음
感吟

棄拋三尺踏青節 지팡이로 답청 시절 포기하고
日課書童任昧農 학동 가르치며 농사엔 어둡나니
屋借梧桐居易月 집의 오동엔 백거이의 달이요
山連華夏武夷峯 산은 중국의 무이봉에 이어졌다
蒲團向壁禪心定 부들방석 면벽에 선심은 고요하고
石竈燒丹道氣濃 석조의 연단에 도기가 짙구나
鳩性縱無容膝處 구졸한 성품은 작은 집도 없으나⁹⁹⁷
盤桓庭畔撫孤松 뜰을 서성이며 솔을 어루만진다

997 구졸한 …… 없으나: 비둘기는 자기 집을 직접 짓지 못하고 까치의 둥지에 깃들여 산다고 한다. 구졸은 비둘기처럼 성품이 졸렬하여 가정을 잘 꾸려나가지 못함을 비유하였다. 용슬(容膝)은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나오는 말로 무릎을 용납할 만한 작은 집을 말한다.

학정서실에 쓰다 문일호

題鶴汀書室 文一鎬

| | |
|---------|--------------------|
| 君家世世擅文名 | 군의 가문 세세로 독점한 문명을 |
| 又是鶴汀似玉成 | 다시 학정이 옥을 다듬어 이룬 듯 |
| 柔色奉親能竭力 | 고운 낫빛으로 봉친에 힘을 다하고 |
| 多年爲政亦輸誠 | 다년간의 위정 또한 정성을 다했다 |
| 快辭塵宇紫青夢 | 진세에 벼슬 꿈을 통과하게 버리고 |
| 更結清江鷗鷺盟 | 다시 청강의 구로와 맹약 맺었으니 |
| 佇待靑燈茅屋裏 | 장차 푸른 등불 모옥 속에서 |
| 檢農暇日讀書聲 | 농사의 여가에 독서 소리 들리겠네 |

무진의 벗들과 모여 얘기하다

與武珍諸友會話

| | |
|---------|--------------------------------|
| 年來懶惰絕追隨 | 근년에 게을러 왕래를 끊었더니 |
| 嘆未知新滅舊知 | 새 벗은 없고 옛 벗도 사라졌네 |
| 宇內最難同氣味 | 천하에 어려움은 기미가 같은 것 |
| 心中自是破藩籬 | 심중의 울타리를 깨야 하나니 |
| 論懷翰墨淋漓處 | 흥건한 한묵에 마음을 논하고 |
| 傾酒荷花的歷時 | 화사한 연꽃에 술잔을 기운다 |
| 叔度而今消鄙吝 | 이제 속도가 비린을 없애주니 ⁹⁹⁸ |
| 慙慙握手故委遲 | 은근히 손을 잡고 짐짓 머뭇거린다 |

998 속도가 비린을 없애주니 : 속도는 후한(後漢) 때의 고사(高士)인 황헌(黃憲)의 자이다. 그의 도량이 넓고 인품이 매우 고매하여 당시의 명사인 진번(陳蕃)과 주거(周舉)가 늘 서로 말하기를 “시월(時月) 동안이라도 황생을 보지 못하면 다시 마음에 비린(鄙吝)이 생긴다.” 하였다. 『後漢書』 83卷 「黃憲傳」

원석 유종룡을 애도하다

輓柳圓石 鍾龍

| | |
|---------|-------------------------------------|
| 慷慨生平嘆道微 | 평생 강개하며 도의 쇠미 탄식하니 |
| 霏霏玉屑舌間飛 | 혀 사이에 잘된 시문 휘날렸다 |
| 修文天上應虛座 | 천상의 수문랑 ⁹⁹⁹ 자리 비었으리니 |
| 問字人間孰叩扉 | 세상의 누가 찾아와 사립을 두드릴까 ¹⁰⁰⁰ |
| 有子螟蛉心自慰 | 양아들 두어서 마음이 위로되니 |
| 持身介潔世相違 | 지신이 정결하여 세상과 어긋다네 |
| 峨嵋山下蒼蒼月 | 아미산 아래 창창한 달이여 |
| 將看新阡大鳥歸 | 새 묘도에 큰 새가 돌아옴을 보리라 |

999 수문랑 : 천상(天上)에서 글을 짓는 관원이다. 진(晉)나라의 소소(蘇韶)가 죽은 뒤에 다시 나타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현재 천상에는 공자(孔子)의 제자인 안연(顏淵)과 복상(卜商)이 수문랑으로 있다.”고 말했다 한다. 두보(杜甫)의 시 「곡이상시역(哭李常侍巖)」에 “일대의 풍류가 다하였으니, 깊은 지하에서 수문랑이 되었으리. 이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으니, 늙어 가는 때에 지음을 잃었도다. [一代風流盡 修文地下深 斯人不重見 將老失知音]” 하였다.

1000 사립을 두드릴까 : 한나라 양옹은 당대의 대학자로서 많은 학자들이 그에게 어려운 글자를 물었다고 한다.

우음
偶吟

| | |
|---------|-----------------------|
| 纔得鷓枝足我居 | 초료의 가지에 나의 거처 족하니 |
| 何須對飯嘆無魚 | 어찌 밥에 고기 없다고 한탄하랴 |
| 當簷梧大照明月 | 처마의 오동에 명월이 비치고 |
| 經雨池清涵太虛 | 비 지난 맑은 연못 태허를 담았다 |
| 不願大名垂史策 | 사책의 큰 명성은 원치 않나니 |
| 祇望修德列簪裾 | 다만 덕을 닦아 인간이 되기를 |
| 有時朋到談玄妙 | 때때로 벗이 와서 현담(玄談)을 나누면 |
| 磊塊胸中亦廓如 | 답답한 흉중 또한 활짝 트인다 |

무양사를 배알하다

謁武陽祠

| | |
|---------|-----------------------------------|
| 何年告訖武陽祠 | 언제 무양사를 완성하였나 |
| 采采蘋蘩寄所思 | 마름 캐어 사모를 기탁한다 |
| 每嘆蘆翁巍道德 | 늘 노사 옹의 높은 도덕 찬탄하고 |
| 又看松老善裘箕 | 송사의 선한 기구의 업을 본다 |
| 一堂師弟應宜配 | 사당에 사제의 배향 마땅하니 |
| 百世儒論自可隨 | 백세의 유론이 절로 따르리라 |
| 最愛賢肖能繼述 | 어여쁘다 현명한 자손이 계술하니 |
| 那教山水廢荒之 | 어찌 산수로 하여금 황폐케 하라 ¹⁰⁰¹ |

1001 산수로 …… 하라 : 송(宋)나라 재상 범중엄(范仲淹)의 「엄선생사당기(嚴先生祠堂記)」에 이르기를, “선생의 유풍은 산처럼 높고 물처럼 유장하다. [先生之風 山高水長]”라고 하였다.

추호 김달호의 서실에 쓰다

題秋湖 金達浩 書室

| | |
|---------|-------------------|
| 介川川上帝山陰 | 개천 시냇가 제석산의 북쪽에 |
| 勤儉平生遯跡深 | 평생 근검하며 깊이 은둔했다 |
| 經雪疏篁看此操 | 눈 속 대나무로 지조를 보고 |
| 當天明月證於心 | 하늘의 명월에 마음을 증명하네 |
| 亭中留客投車轄 | 정자에 손님 붙들며 투할하고 |
| 松下彈琴和鳥吟 | 솔 아래 탄금하며 새와 화음한다 |
| 爲問主人多小業 | 주인의 사업 무엇인가 묻노니 |
| 春風橐筆叩扉尋 | 춘풍에 붓을 들고 찾아오리라 |

온재 장천석의 수연을 축하하다

賀張溫齋 天錫 壽宴

| | |
|---------|-----------------|
| 芳尊初熟菊花生 | 술이 익을 때 국화가 피니 |
| 和氣盈堂此日情 | 오늘 집에 화기가 가득하다 |
| 孝弟于家稱質行 | 가문의 효제는 질박한 행실 |
| 詩書繼世擅文名 | 시서의 명성 대대로 독점했다 |
| 江清山麗應難老 | 맑은 강산에서 늙지 않으리니 |
| 兒餉妻供是大亨 | 처자의 봉양 참으로 형통하다 |
| 好事人間多占了 | 인간의 호사를 많이 차지하니 |
| 斯翁孰有共齊平 | 누가 이 노인과 견주겠는가 |

광주 하백동의 소하 김용학의 집에서 일청, 백하 변동렬, 석촌과 함께 읊다
光州荷白洞金小荷 容鶴 庄與一靑邊白 下東 烈石村共吟

聯轡秋風到巷門 추풍에 나란히 시골집 찾으니
園中花木自成文 뜰의 화목은 절로 문채를 이루었다
晴泉行筭參差落 맑은 샘은 죽통 지나 여기저기 떨어지고
高麓懸崖上下分 용마루 언덕에 달려 상하로 나뉘었다
酒進瓶壺浸藥菓 호리병의 술은 약초를 담갔고
盤登蘿菹過霜根 쟁반의 나복은 서리를 겪었다
區區何必桃源裏 하필 구구하게 무릉도원에서
擬借無心一壑雲 무심한 골짜기 구름 빌리려 하는가

단석 정원강에게 부치다

寄丹石 鄭元强

| | |
|---------|-------------------|
| 屹屹箕山俯潁川 | 높은 기산은 영천을 굽어보니 |
| 晋陽家世孝忠傳 | 진양 가문 대대로 충효를 전했다 |
| 鄉園自有臨江屋 | 향원에 절로 강가의 모옥 있으니 |
| 春雨何忘負郭田 | 봄비에 어찌 성곽의 밭을 잊으랴 |
| 浩蕩風流應不後 | 호탕한 풍류 뒤지지 않겠고 |
| 崢嶸氣岸欲無前 | 우뚝한 기개는 앞선 자 없으리라 |
| 丹心如石能知保 | 철석의 단심 능히 보존하니 |
| 萬事恬然信彼天 | 만사에 편안히 천명을 따른다 |

김철중 준에게 주다

贈金哲中 濬

| | |
|-------|----------------|
| 我來節山日 | 내 절산에 오던 날 |
| 喃喃學語時 | 웅얼웅얼 말을 배웠지 |
| 先師晚抱兒 | 선사께서 늦둥이 안고서 |
| 令歌退陶辭 | 퇴계의 가사 부르게 했네 |
| 入學冬至日 | 동짓날에 입학하여 |
| 向余跪拜之 | 나에게 큰절을 했네 |
| 白虎亂起日 | 백호의 동란 일어나 |
| 漂泊筏橋邊 | 벌교로 표박하였고 |
| 後移蘆岡下 | 후에 노강 아래로 옮겨 |
| 諸丈營苟齋 | 여러 어른들 구재를 지었네 |
| 居之七八年 | 칠팔 년을 지내며 |
| 先師愁滿眉 | 선사의 시름 가득하니 |
| 復遷蘿菴下 | 다시 동복으로 이주하고 |
| 療病榮山涯 | 영산포에서 병을 치료하다 |
| 六月潦雨中 | 유월 장마 중에 |
| 奎落一何悲 | 슬프게도 규성이 떨어졌다 |
| 君在編史職 | 군은 편사의 직에 있으니 |
| 勿爲外物馳 | 외물에 치달리지 말지어다 |

방번 원국진에게 주다

贈元邦藩國鎮

| | |
|-------|---------------|
| 原州擅國中 | 원주는 나라의 으뜸 |
| 魁傑幾多士 | 호걸스런 선비 많으니 |
| 耘谷志介賢 | 운곡은 지조 있는 현인 |
| 麗末守節操 | 여말에 절조를 지켰고 |
| 後裔散四方 | 후예가 사방에 흩어져 |
| 擅名邦內外 | 나라 안팎에 명성 날렸다 |
| 昔日居節山 | 옛날 절산에 거처할 때 |
| 灑掃我門下 | 나의 문하를 쇠소했다 |
| 勸君勤奉親 | 군에게 봉친을 권면하니 |
| 定省勿怠惰 | 혼정신성을 게을리 말라 |

김복진 오택에게 주다

贈金福眞 五泰

| | |
|-------|------------------|
| 駕洛後裔繁 | 번성한 가락의 후예 중에 |
| 君爲判圖派 | 군은 판도공파라 |
| 我交國中士 | 내 사귀는 나라의 선비들 |
| 最多金海氏 | 김해김씨가 가장 많다네 |
| 落南今幾世 | 남녘에 온 지 이제 몇 대인가 |
| 可掬君典雅 | 군의 전아한 모습 뚜렷하네 |
| 勇進年少日 | 젊은 날에 용맹정진하여 |
| 逡巡勿退步 | 머뭇머뭇 퇴보하지 말지어다 |

김자건 장수에게 주다

贈金子健壯洙

| | |
|-------|------------------------------|
| 余始寓節山 | 내가 처음 절산에 우거할 때 |
| 君應纔韶齷 | 군은 겨우 어린애였지 |
| 歷盡中高後 | 중·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
| 詩書講仡仡 | 시서를 열심히 강송했다 |
| 端雅質本好 | 단아한 자질 본래 좋아서 |
| 善於眞卿帖 | 안진경 ¹⁰⁰² 서첩에 능했다네 |
| 今寄法曹界 | 이제 법조계에 있으면서 |
| 抱得兩顆玉 | 두 아이를 안았으니 |
| 臨事期終始 | 일에 임해 시종을 기약하고 |
| 奉親每洞屬 | 부모 섬김에 항상 정성을 다하라 |

1002 안진경 : 당나라의 서예가이다. 명문가 출신으로 육조시대에 『안씨가훈』을 편찬한 안지추의 5대손이다. 안사고의 3대손이기도 하다.

김자중 도수에게 주다

贈金子重 塗洙

| | |
|-------|------------------|
| 蘿菴山氣好 | 나복은 산기운이 좋아서 |
| 人物多崢嶸 | 쟁쟁한 인물 많으니 |
| 先世已占據 | 선세에 이미 점거하여 |
| 可以四郡傾 | 사군을 경도했다 |
| 文學過十世 | 문학은 열 세대를 지나야만 |
| 應待一時榮 | 일시의 영예가 기다리니 |
| 子重謹持心 | 자중은 마음가짐 삼가서 |
| 臨事執平衡 | 일에 임해 평형을 잡으라 |
| 百年如隙駒 | 백년이 망아지 틈 지나듯 하니 |
| 晝宵硯田耕 | 주야로 연전을 갈지어다 |

김여장 규환에게 주다

贈金汝章 圭煥

| | |
|-------|-----------------|
| 卜居貝城北 | 보성 북쪽에 복거하며 |
| 往來數十年 | 왕래한 지 수십 년 |
| 採樵尊帝山 | 존제산에서 나무를 했고 |
| 釣魚栗於川 | 울어천에서 고기를 낚았다 |
| 世世攻文學 | 대대로 문학을 전공하여 |
| 詩書作好緣 | 시서와 좋은 인연 지었다 |
| 觀盡架上書 | 서가의 서책 모두 읽고서 |
| 深究義易箋 | 주역의 전을 깊이 탐구했다 |
| 富貴力不求 | 부귀는 힘으로 구하지 못하니 |
| 孜孜信彼天 | 노력하여 저 천명을 따르라 |

김대진 경석에게 주다

贈金大振 京錫

| | |
|-------|----------------|
| 余在浮槎時 | 내가 별교에 있을 때 |
| 挾冊來相居 | 책을 들고 와서 거주했지 |
| 漠茫嶺南地 | 망망한 영남 땅에서 |
| 先墓爲草墟 | 선영이 잡초 터 되었는데 |
| 間關作限界 | 어렵사리 한계 지으니 |
| 年纔二十餘 | 나이 겨우 이십여 세라 |
| 天道如砥平 | 천도는 숫돌처럼 평평하니 |
| 慎勿費居諸 | 삼가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 |
| 人生百歲中 | 인생 백년 세월 |
| 祇自任蘧蘧 | 다만 자연에 맡길 뿐 |
| 苦心田畝裏 | 전원에서 고심하며 |
| 此身與世疏 | 이 몸 세상과 소원하다 |
| 富貴在於天 | 부귀는 하늘에 있으니 |
| 勿爲外物拏 | 외물에 끌리지 말지어다 |

위자문 창복에게 주다

贈魏子文 昌復

| | |
|-------|-----------------|
| 猗歟玉湖公 | 아름답다 옥호공이여 |
| 君九余六世 | 군은 구세이고 나는 육세 손 |
| 當時文行名 | 당시 문행의 명성이 |
| 赫赫郡省內 | 군성 내에 혁혁했다 |
| 時因儒林望 | 그때 유림의 소망을 따라 |
| 淵谷院創始 | 연곡서원 창시했네 |
| 比之江州陳 | 강주진씨에 견주면 |
| 君與我堂內 | 군과 나는 당내의 친족이라 |
| 誠堂耕讀齋 | 성당과 경독재께서는 |
| 是爲祖與父 | 조부와 부친 되시고 |
| 況又能繼世 | 게다가 가세를 계승하니 |
| 勤篤誰能似 | 누가 이처럼 근독할까 |

김후복 옹기에게 주다

贈金厚福 容祺

| | |
|-------|--------------|
| 昇州古阜村 | 승주의 고부촌에 |
| 居得十餘世 | 거주한 지 십여 세 |
| 忠孝守禮俗 | 충효의 예속 지키고 |
| 因以堤堰毀 | 인하여 제방을 헐었다 |
| 人心保質實 | 인심은 실질을 보존하니 |
| 風俗自淳厚 | 풍속은 절로 순후하다 |
| 卒業中高後 | 중고를 졸업한 후에 |
| 節山讀孟子 | 절산에서 맹자를 읽었고 |
| 開院執教鞭 | 서원 열어 교편을 잡아 |
| 卜居瑞山下 | 서석산 아래 복거하였다 |

김입부 기수에게 주다

贈金立夫 基洙

| | |
|-------|--------------------|
| 華閼光山氏 | 광산은 빛나는 가문 |
| 卜基十餘世 | 터를 잡은 지 십여 세 |
| 居人何所講 | 거주인은 무엇을 강론하나 |
| 忠信與孝悌 | 충신과 효제라네 |
| 暇于修文學 | 여가에 문학을 익히고 |
| 詩稿共父祖 | 부조가 시고를 함께 했네 |
| 鄙姪爲君妻 | 나의 조카는 군의 처라 |
| 今講朱陳誼 | 이제 주씨 진씨의 정의를 강론하네 |
| 余雖愧不文 | 내 글을 못해 부끄러우나 |
| 揭銘君先墓 | 군의 선인 묘에 명문을 지었네 |

큰조카 군명 경량에게 주다

示長姪君明 旣良

| | |
|-------|--------------------------------|
| 芙蓉聖山下 | 부용의 성산 아래는 |
| 我本生長村 | 내가 본래 성장한 마을 |
| 祖翁日施教 | 조부께서 날로 가르침 펴서 |
| 風俗自朴淳 | 풍속이 절로 순박했다 |
| 有酒過牆頭 | 술이 있으면 담장으로 건네고 |
| 有肴且招隣 | 음식이 있으면 이웃을 부른다 |
| 倭虜方去後 | 왜놈이 막 떠난 후에 |
| 共匪亂殺人 | 공비가 어지럽게 살해하던 날 |
| 先君預卜之 | 선군께서 미리 아시고 |
| 移家堂洞基 | 당동의 터로 집을 옮기셨지 |
| 麗朝任妃生 | 고려조에 임비가 태어나 |
| 五德顯此址 | 오덕 ¹⁰⁰³ 을 이 터에서 빛냈다 |
| 升載更卜居 | 이십 년을 다시 살았으니 |
| 舍此更何之 | 이곳을 두고 어디로 가랴 |
| 君爲主祀孫 | 군은 제사를 주관하는 후손으로 |
| 念念善保思 | 항상 잘 보존하기를 생각하라 |

1003 오덕 : 덕(德)자 항렬(行列)을 가진 5형제 어진 선조(先祖).

차질 자문 무량에게 주다

贈示次姪子文 武良

| | |
|-------|------------------|
| 爾兄擔重任 | 너의 형이 증임을 맡았으니 |
| 勤篤善保焉 | 근독으로 잘 보존하라 |
| 堂上將八耄 | 당상의 팔순 부모 봉양하고 |
| 率下幼穉然 | 아래로 어린 애들 이끌라 |
| 每事必糾董 | 매사를 반드시 가다듬어 |
| 逡巡勿遷延 | 머뭇머뭇 미루지 말지어다 |
| 請看今古史 | 청컨대 고금의 역사를 보라 |
| 扶國在擔肩 | 나라의 부축은 어깨에 달렸나니 |
| 同氣七八人 | 동기 칠팔 인 중 |
| 誰可能周旋 | 누가 능히 주선할까 |

군형 권량에게 주다

示君衡 權良

| | |
|-------|------------------|
| 爾亦經世熟 | 너도 세상을 익히 겪었으니 |
| 豈以訓示知 | 어찌 훈계하여 알겠는가 |
| 爾爺余仲氏 | 너의 부친은 나의 둘째 형님 |
| 人稱情過之 | 정은 더하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
| 男妹七八人 | 남매 칠팔 인이 |
| 有事相爲帷 | 일이 있으면 서로 모이니 |
| 年年一度會 | 해마다 한 번씩 모여서 |
| 勿似路人視 | 길거리 사람과 같지 않다네 |
| 老母尙在堂 | 노모는 아직 당상에 계시니 |
| 勿使心傷悲 | 그 마음 슬프게 하지 말라 |

명보 창량에게 보이다

示明甫 昶良

| | |
|-------|-----------------|
| 爾翁余叔氏 | 너의 부친은 나의 막내 형님 |
| 孝心超於人 | 효심이 남보다 뛰어났다 |
| 諸事能勇斷 | 모든 일을 용단하고 |
| 努力善耐貧 | 노력으로 가난을 견디었다 |
| 積累數十年 | 수십 년 재산을 쌓아 |
| 分土感鬼神 | 땅을 나누니 귀신도 감동했다 |
| 自親及門中 | 친족부터 문중에 이르고 |
| 兄弟而洞隣 | 형제부터 마을에 닿으니 |
| 孰無如此行 | 누가 이런 행실 없으랴만 |
| 言行合於眞 | 언행이 진실에 합치하였다 |
| 明甫善記之 | 명보는 잘 기억하여 |
| 心中去畦畛 | 심중에 장벽을 제거하라 |

나선재 삼봉에게 주다

贈羅善才 三奉

| | |
|-------|----------------|
| 曉翁棄世後 | 효당께서 세상 버리신 후 |
| 挾冊來福川 | 서책 끼고 복천에 왔었지 |
| 贅于奇氏門 | 기씨 문중에 사위로 갈 때 |
| 余參上客賓 | 나는 상객으로 참여했네 |
| 稱君爲福童 | 군을 복동이라 칭했거늘 |
| 遽然父爲仙 | 갑자기 부친이 신선 되시니 |
| 兄弟三四人 | 형제 삼사 인이 |
| 一朝可顛連 | 하루아침에 곤궁하게 되었다 |
| 晚得一顆玉 | 쓰러진 가문 부축하리라 |

김보훈 요승에게 주다

贈金保勳 堯松

| | |
|-------|-----------------|
| 我來福川日 | 내 동복에 오던 날 |
| 君父最相親 | 군의 부친과 가장 친했다 |
| 數世奉祀孫 | 수세대의 봉사손으로 |
| 言行可守眞 | 참된 언행을 지켰다 |
| 今擔一坊產 | 이제 고을의 재산 담당하니 |
| 勿恃氣嶙峋 | 높은 기개 으스대지 말고 |
| 堂上忽百歲 | 당상의 백년 세월 훌쩍 가니 |
| 朝夕承諄諄 | 조석으로 순순히 받들라 |
| 君作一家長 | 군은 일가의 가장으로 |
| 臨事效彬彬 | 일에 임하여 문질을 갖추지니 |

취송 김영달에게 주다

贈金翠松 永達

| | |
|-------|----------------|
| 芙蓉山逶迤 | 부용산은 멀리 구불구불 |
| 東馳西海濱 | 동에서 서해 가를 달린다 |
| 濱海雖多村 | 바닷가에 마을이 많으나 |
| 孰如永豐隣 | 어찌 영풍의 이웃만 같으랴 |
| 金陵清州氏 | 금릉은 청주김씨로 |
| 處處多聞人 | 곳곳에 명인이 많다네 |
| 漠漠煙塵裏 | 막막한 연진 속에 |
| 此處可問津 | 여기에서 나루를 묻거니 |
| 古來文獻宅 | 고래로 문헌의 가문 |
| 忠孝談說頻 | 충효를 자주 담설한다 |
| 松隱煌煌字 | 송은의 빛나는 글자가 |
| 至今壁上新 | 지금도 벽상에 새롭다 |

김보경 응에게 주다

贈金保卿 溶

| | |
|-------|-------------------|
| 浮槎初得君 | 별교에서 군을 처음 만날 때 |
| 函丈開顏笑 | 스승께서 활짝 웃으셨으니 |
| 生纔二三歲 | 그대는 겨우 이삼 세 |
| 才藝超輩徒 | 재주와 기예가 동류를 초월했다 |
| 師父忽棄世 | 스승께서 홀연 세상을 버리시어 |
| 無處可呼訴 | 호소할 곳 없어지니 |
| 爲是學校卒 | 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
| 依兄順天市 | 순천시의 형을 의지했다 |
| 今爲一縣倅 | 이제 한 고을의 수장이 되었으니 |
| 勿以我家計 | 가계를 생각하지 말지어다 |

이득우 응림의 서실에 쓰다

題李得雨龍林書室

| | |
|---------|--------------------|
| 漢拏聳于蒼海上 | 창해에 우뚝 솟은 한라산 |
| 三仙神高與夫梁 | 세 신선은 고씨 부씨 양씨라네 |
| 自茲人物開文化 | 이로부터 인물이 문화를 여니 |
| 周圍可滿千里疆 | 땅 둘레는 천리 남짓이라 |
| 萬丈穴及日出峯 | 만장혈과 일출봉은 |
| 鎔鑪與噴火場 | 용광로와 분화구요 |
| 千村如屋芭蕉熟 | 촌마다 지붕과 나란히 파초가 익고 |
| 萬落成林橘柚黃 | 부락마다 숲을 이룬 귤유가 노랗다 |
| 碁局列羅今如許 | 지금은 이렇듯 기국이 펼쳐졌거늘 |
| 君携諸子講倫常 | 군은 제자들과 윤상을 강론한다 |

임동일의 서실에 쓰다

題林東日書室

| | |
|-------|-------------------|
| 病臥卅餘朔 | 와병한 지 이십 개월 |
| 往來朝暮頻 | 조석으로 빈번히 왕래하여 |
| 仗君諸事整 | 군을 의지해 여러 일을 정리하니 |
| 骨肉誰能倫 | 골육인들 누가 견주랴 |
| 君居宰岳下 | 군은 재악 아래 거주하고 |
| 我在竹江瀕 | 나는 죽강가에 있어서 |
| 今作萍鄉友 | 이제 객지의 벗이 되었으니 |
| 何由日日親 | 어찌하면 날마다 가까이할까 |

옥천 민옹의 서실에 쓰다

題閔玉川 鏞 書室

| | |
|-------|------------------|
| 爾陵西十里 | 능주의 서쪽 십리 길에 |
| 五柳自成村 | 오류가 절로 촌을 이루었다 |
| 湛樂會宗族 | 즐겁게 종족이 회동하여 |
| 張范享祖先 | 장씨 범씨처럼 선조를 제향한다 |
| 曉堂講學日 | 효당께서 강학하시던 날 |
| 與君同晨昏 | 군과 주야를 함께 했고 |
| 卅載武珍城 | 이십 년간 무진성에서 |
| 又是日源源 | 날마다 서로 왕래했네 |
| 君與我亦老 | 군도 나도 늙었으나 |
| 自茲那可諼 | 이를 어찌 잊을 건가 |

모은당의 「지감」 시운을 차하다

次慕隱堂志感韻

| | |
|-------|-----------------|
| 村名宜永慕 | 마을 이름 영모가 어울리니 |
| 能遠風塵腥 | 풍진의 비릿함을 멀리했다 |
| 耳自聾非是 | 시비에 절로 귀가 먹었으니 |
| 眼何變白青 | 눈이야 어찌 청백으로 변하랴 |
| 奇花開不盡 | 기이한 꽃은 다 피지 않았고 |
| 幽鳥宿無驚 | 그윽한 새는 조용히 잠들었다 |
| 古栢森森裏 | 늙은 잣나무가 삼삼한 가운데 |
| 羹牆百世情 | 백세에 사모의 정이 넘친다 |

용암서당 시운을 차하다 봉화 2수

次龍岩書堂韻 奉化 二首

1

| | |
|---------|--------------------|
| 爲繼箕裘明理學 | 가업을 이어 이학을 밝히니 |
| 我懷當日傍蒼蒹 | 나는 당일 창창한 갈대를 회상한다 |
| 居隣泉石鮮明地 | 거처는 천석이 선명한 곳ियो |
| 筆絕京鄉往復槩 | 붓은 경향의 왕복서신 끊었다 |
| 松菊園籬疑靖節 | 울타리 송국은 도연명을 견주고 |
| 蓮峯入戶慕周濂 | 문에 든 연봉은 주렴계를 사모한다 |
| 惟公節義誰能知 | 공의 절의를 누가 능히 알아주랴 |
| 猿鶴千岩月一檐 | 처마의 달빛에 천암의 원학이라 |

2

| | |
|---------|-------------------|
| 當年卜築小溪潄 | 당년에 작은 시냇가에 복거하니 |
| 截彼龍岩可得尋 | 높은 저 용암을 찾을 수 있다네 |
| 容膝數椽宜寤宿 | 작은 초가에 자고 깨기 어울리고 |
| 賞春無日不登臨 | 봄을 완상하려 날마다 오른다네 |
| 花間酬客一樽酒 | 꽃 사이 술로 손님과 수작하니 |
| 案上知音三尺琴 | 서안의 지음은 삼척의 거문고라 |
| 遙想燈前承露滴 | 아마도 이슬을 받아 등불 앞에서 |
| 研朱點易到更深 | 밤새 주역에 붉은 점을 찍으리라 |

중재서실에 쓰다

題金重齋書室

| | |
|---------|-----------------------------------|
| 君是江陵舊世家 | 그대는 강릉의 옛 세가 |
| 澹翁詩賦吐天葩 | 담옹의 시부는 하늘 꽃을 토한 듯 |
| 綠綺三尺床邊掛 | 삼척 녹기 ¹⁰⁰⁴ 는 침상 가에 걸렸고 |
| 灑壘千篇案上多 | 천편 고서는 서안 위에 쌓였네 |
| 視富如雲從所好 | 부귀는 뜬구름이라 나의 뜻을 따르니 |
| 持心似砥不爲奢 | 곧은 마음가짐 사치스럽지 않구나 |
| 應知繼述擔任重 | 계술의 무거운 책임 알 것이니 |
| 百歲茫茫道自遐 | 망망한 백년 세월 도가 원대하리라 |

1004 녹기 :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양왕(梁王)으로부터 하사받았다는 좋은 거문고의 이름이다.

이방산의 서안에 분매가 있어 절구 한 수를 장난삼아 읊다
李方山案上有盆梅戲吟一絕

| | |
|---------|---------------------|
| 案頭古怪小盆梅 | 서안의 고아하고 괴이한 작은 분매 |
| 主老無聊擁衾坐 | 주인은 무료하게 이불 안고 앉았다 |
| 數朶疏涼暗坼腮 | 두어 송이 쓸쓸하게 가만히 벌어지니 |
| 寒窓招我勸深杯 | 한창에서 나를 불러 술잔을 권하네 |

오추의 아집

梧秋雅集

| | |
|---------|---------------------------------------|
| 梧葉庭前忽已秋 | 뜰 앞 오동잎에 문득 가을이 드니 |
| 感時烏鵲脫毛頭 | 시절 느껴 오작의 머리 벗겨진다 ¹⁰⁰⁵ |
| 幾勞銷暑頻尋壑 | 얼마나 피서하러 골짜기를 찾았나 |
| 正好憑眸更上樓 | 다시 누각 오르니 조망하기 좋구나 |
| 酒得戶寬常願醉 | 술은 넉넉하니 항상 취하길 원하고 |
| 詩能品貴可長謳 | 시는 작품이 좋아 늘 노래할 만하네 |
| 龍南自是風流客 | 용남은 스스로 풍류객이니 |
| 謂食場苗繫馬留 | 장묘를 먹였다 ¹⁰⁰⁶ 하여 말을 묶어 만류하네 |

1005 오작의 머리 벗겨진다 : 오작이 해마다 음력 7월 칠석이면 견우성과 직녀성이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오작의 깃털이 다 벗겨진다고 한다.

1006 장묘를 먹였다 : 『시경』 「소아(小雅) 백구(白駒)」에, “희고 깨끗한 망아지가, 우리 마당의 풀을 먹는다 하여, 발을 묶고 고삐를 매어, 오늘 아침 내내 있게 해서, 이른바 그분이 여기에서 소요하게 하리라. … 희고 깨끗한 망아지가, 저 빈 골짜기에 있노라. 싱싱한 풀 한 다발을 주노니, 그 사람은 옥처럼 맑도다. [皎皎白駒 食我場苗 繫之維之 以永今朝 所謂伊人 於焉逍遙 … 皎皎白駒 在彼空谷 生芻一束 其人如玉]” 하여 어진 이를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뜻을 노래하였다.

유방산 서실의 시운을 차하다

次柳方山書室

| | |
|---------|-----------------------------------|
| 短短疏籬三四隣 | 작고 성긴 울타리에 이웃은 서넛 |
| 庭園瀟灑亦無塵 | 정원은 소쇄하여 티끌도 없구나 |
| 才因工妙詩尤健 | 뛰어난 재주에 시는 더욱 굳세고 |
| 世與心違德更新 | 세상과 마음 달라 덕이 새롭다 |
| 柿杏陰陰家有福 | 감과 살구 그늘에 집안은 복되고 |
| 子孫矯矯寶藏春 | 자손은 씩씩하여 화기를 품었다 |
| 當時紫陌奔忙客 | 당시 자맥 ¹⁰⁰⁷ 에서 분주했던 객이어 |
| 何似方山自在身 | 지금 방산의 자유로운 몸과 어떠한고 |

1007 자맥 : 풍진이 가득한 서울의 거리를 말한다.

새해 첫날 무진음사에 가다

開正赴武珍社

| | |
|---------|---------------------------------|
| 祇是平生絲穀身 | 다만 평생 입고 먹는 몸이건만 |
| 倏然其奈白頭人 | 문득 백두의 신세 어이하라 |
| 步慙騏足常留櫪 | 천리마 못 미쳐 마구에 머물고 |
| 窩似鷓巢可保眞 | 초료의 둥지서 참을 보존한다 |
| 曳杖時臨泉石會 | 지팡이 끌고 천석의 모임 임하고 |
| 吟詩或作酒尊隣 | 시 읊으며 술동이를 이웃한다 |
| 仲尼老尙從心欲 | 증니는 늙어 마음을 따랐으니 ¹⁰⁰⁸ |
| 吾迓春光與共新 | 나도 춘광을 맞아 일신하리라 |

1008 마음을 따랐으니 : 『논어』 「위정(爲政)」에 이르기를 “일흔 살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하였다.

배민

排悶

墻下猶吹臘雪寒 담장엔 아직 납설의 한기가 불어
滑程移步自詳安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걷는다
侵晨草際分泉湧 이른 새벽 풀숲에서 샘물 길러서
候火飯餘煮月團 불 살피 밥 먹은 후에 차를 끓인다
置案狹堂箱替案 짐이 좁아 상자로 서안을 대신하고
種蘭無地壁塗蘭 난초 심을 땅 없어 난으로 도벽했네
算來萬事何長計 만사를 헤아림에 무엇이 좋은 계획인가
擬進前頭百尺竿 전두의 백척간두로 나아가야 하리라¹⁰⁰⁹

1009 전두의 …… 하리라 : 보다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뜻한다. 당나라 초현대사(招賢大師)의 계송(偈頌)에 이르기를 “백척간두에 앉아 있는 사람이여 비록 도에 들었으나 아직 참되지 못하다. 백척간두에서 모름지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시방 세계가 너의 온 몸인 줄 알리라. [百尺竿頭坐底人 雖然得人未爲眞 百尺竿頭須進步 十方世界是全身]” 하였다.

유수사 근성에게 주다

贈柳秀士根聲

| | |
|-------|---------------|
| 君是晉陽裔 | 군은 진양의 후예 |
| 所居濱南海 | 거처는 남해 바닷가 |
| 天冠山亦屹 | 천관산이 우뚝 솟아 |
| 此山鎮南紀 | 남방의 진산이라네 |
| 抖神一百尺 | 정신을 높이 일깨우고 |
| 更投文學界 | 다시 문학계에 투신하여 |
| 望海拓胸襟 | 바다 보며 흥금을 열고 |
| 見山壯義氣 | 산을 보며 의기를 키웠다 |
| 今從不佞遊 | 이제 나에게 종유하여 |
| 潛心鄒孟子 | 맹자를 깊이 연구하니 |
| 精心讀罷盡 | 정밀한 마음으로 독파하고 |
| 不求吾外分 | 분수 밖을 추구하지 말라 |

임신년(1992) 원단에

壬申元杻

| | |
|---------|-------------------|
| 嘗盡酸鹹髮欲枝 | 신고를 맛보아 머리가 세지만 |
| 此心肯逐世波移 | 마음이야 세파를 따라 옮기랴 |
| 嗟吾民衆無舵艇 | 우리 민중 키 없는 배에 탔으니 |
| 副手何人涉此危 | 누가 조타수 되어 위험을 헤칠까 |

추흥
秋興

| | |
|---------|---------------------|
| 秋風相以簡書聞 | 가을바람에 편지로 소식 알려 |
| 郊外遨遊喜十分 | 교외에 노니니 참으로 기쁘다 |
| 翰墨供筵眞拔萃 | 한묵으로 잔치 여니 발취한 이들이요 |
| 冠衣赴約亦超群 | 선비들 모이니 빼어난 이들이네 |
| 長霖嚙岸江身大 | 장마가 언덕 깎아 강물이 넓고 |
| 雜草開花野頰文 | 잡초가 꽃을 피워 들이 아롱진다 |
| 縱有放懷天地好 | 천지에 회포 품음도 좋거니와 |
| 何如俯首卷中勤 | 부지런히 독서함은 또 어떠한고 |

백자연 은준에게 주다

贈白子淵 銀浚

| | |
|-------|---------------------|
| 君今繼升世 | 군은 이제 이십 세를 계승하니 |
| 凡事當從中 | 모든 일에 마땅히 중도를 따르라 |
| 忠孝爲茶飯 | 충효를 일상으로 삼고 |
| 詩書作俗風 | 시서를 풍속으로 여길지니 |
| 承先祭別廟 | 선조 받들어 별묘에 제사하고 |
| 裕後田比封 | 후손을 위해 밭으로 봉후에 견주어라 |
| 第待治園日 | 다만 치원의 날을 기다릴 때까지 |
| 莫教人借庸 | 타인이 차용하게 하지 말라 |

시국을 탄식하다

嘆時

| | |
|---------|---------------------|
| 我國何時泰運來 | 언제 나라에 태평이 오려나 |
| 窮陰塞處忽聞雷 | 음기 막힌 곳에 홀연 우레가 울거늘 |
| 遙望眼際誰人在 | 멀리 바라보매 어느 사람 있는가 |
| 空嘆心中萬事灰 | 심중의 만사가 식어 감을 탄식한다 |
| 胸臆輪囷言未盡 | 답답한 흥금 말로 다하지 못하니 |
| 義皇淳樸挽難回 | 희황의 순박을 만회하기 어렵네 |
| 寸長尺技咸爲用 | 작은 기예도 모두 쓰이건만 |
| 祇愧無能且不才 | 무능하고 재주 없어 부끄럽네 |

이사 후에 느낌을 읊다

移屋後感吟

| | |
|---------|-----------------------------------|
| 漂泊平生借一堂 | 평생을 표박하다 집 하나 빌리니 |
| 鳩因鵲力計非長 | 남의 힘 빌림은 좋은 계책 아닐세 |
| 妻兒寢食纔稱穩 | 처자의 침식 겨우 온당하게 되었고 |
| 圖史牙籤可得方 | 책들의 아침 ¹⁰¹⁰ 도 방정함을 얻었네 |
| 入戶峯巒呈好色 | 문에 드는 산들은 좋은 빛 드러내고 |
| 侈庭花木吐時香 | 뜰에 넘친 화목은 향기를 토한다 |
| 安分知幾斯爲足 | 안분지기하며 이에 만족하나니 |
| 誰道人間萬事忙 | 누가 인간 만사 바쁘다 말하는가 |

1010 책들의 아침 : 아침은 상아(象牙)로 만든 책표지를 가리킨다.

춘곡 강동원의 서실에 쓰다

題姜春谷 東元 書室

| | |
|-------|------------------|
| 我愛姜春谷 | 내 강동원을 사랑하니 |
| 交過四十歲 | 교유한 지 사십 년 |
| 成童失嚴父 | 성동에 엄부를 잃고 |
| 受教李母下 | 모친 이씨의 가르침 받았네 |
| 幼弟四男女 | 어린 아우는 사남매 |
| 有過抱泣涕 | 허물 있으면 안고 울었네 |
| 母氏性嚴重 | 어머님의 성품 엄중하사 |
| 峻責少許可 | 준열히 질책하며 용서가 적었네 |
| 有書欲見之 |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
| 不論價多少 | 값을 따지지 않았고 |
| 有志陀鵠術 | 의술에 뜻을 두어 |
| 朝暮光州府 | 조석으로 광주를 찾았네 |
| 先祖梅村公 | 선조 매촌공께서 |
| 避亂鳳雛下 | 봉추 아래로 피난했는데 |
| 梅村實記譯 | 매촌실기를 번역하고 |
| 墓前碣石豎 | 묘소 앞에 비석을 세웠으며 |
| 三世合一局 | 삼세의 묘역을 한곳으로 합쳐서 |
| 爲先建大廈 | 선조를 위해 큰 집을 세웠다 |
| 受學李默齋 | 이묵재에게 수학하여 |
| 爲碣于墳墓 | 분묘에 비석을 세우고 |
| 郡誌不可讀 | 군지를 읽을 수 없거늘 |
| 翻譯欲易解 | 번역하여 쉽게 풀이했네 |
| 和順樓亭詩 | 화순의 누정 시들을 |

| | |
|-------|--------------------|
| 輯譯一編裏 | 한 편에 모아 번역하고 |
| 三合爲一郡 | 화순 능주 동북을 한 군으로 삼아 |
| 傳說一編記 | 전설을 한 편에 기록했네 |
| 短歌雜難識 | 단가는 잡다하여 알기 어려운데 |
| 廣求一一蒐 | 널리 구해 일일이 수집했다 |
| 和邑傍大府 | 화순은 광주 곁이라 |
| 因多無主鬼 | 주인 없는 귀신이 많으니 |
| 收骨一區地 | 한 곳에 유골을 수습하여 |
| 累累立石誌 | 석지 여럿을 세웠네 |
| 劑藥與裹饌 | 약제와 음식을 싸서 |
| 時時惠不遇 | 때때로 불우한 사람에게 베풀고 |
| 余病二十朔 | 내 병든 지 이십 개월 |
| 施藥不收價 | 약값을 받지 않았네 |

최춘경 정훈에게 써 보이다

書示崔春卿 正勳

| | |
|-------|----------------|
| 錦城山下里 | 금성산 아랫마을에 |
| 君已得攸居 | 군의 거처를 이미 얻고 |
| 結髮得佳配 | 머리 묶어 좋은 짝을 만나 |
| 生子抱鳳兒 | 봉아를 낳아 품었다 |
| 身經大學院 | 대학원을 거치며 |
| 腹載百家書 | 뱃속엔 백가 서를 실었네 |
| 欲作丈夫事 | 장부의 일을 하려거든 |
| 奮氣猛躍歟 | 기운 떨쳐 도약해야 하리라 |

이남명 종수에게 주다

贈李南鳴 鍾洙

| | |
|-------|----------------------------|
| 完山璿源裔 | 완산은 선원의 후예 ¹⁰¹¹ |
| 單子保家庭 | 독자로 가정을 보존했다 |
| 成童從我遊 | 성동에 나를 종유하여 |
| 孜孜守短檠 | 부지런히 단경을 지켰고 |
| 奉母如奉玉 | 옥을 받들 듯 모친 봉양하여 |
| 時刻勿忽輕 | 한 시각도 소홀하지 않았다 |
| 移家程川上 | 정천가로 이사하여 |
| 治圃全姓名 | 농사지며 성명을 온전히 했다 |

1011 선원의 후예 : 선원은 조선왕조 왕가인 전주이씨의 가계(家系)를 말한다.

김수사 도수에게 부쳐 주다

寄贈金秀士 塗洙

| | |
|-------|------------------|
| 苦學十餘歲 | 고학한 지 십여 년 |
| 乃至見功成 | 이에 성공을 보았으니 |
| 穿壁借燈火 | 벽을 뚫어 등불을 빌렸고 |
| 照書拾螢精 | 반딧불 모아 책을 비췌다 |
| 薤塩繼晝夜 | 풀과 소금으로 주야를 이었으나 |
| 書冊築城營 | 서책으로 성책을 구축했다 |
| 勿以絲毫慾 | 삼가 미세한 욕념으로 |
| 忽至衡失平 | 문득 형평을 잃지 말라 |

하만송을 애도하다

輓河晚松

| | |
|---------|---------------------|
| 一區龜洞別開天 | 한 구역 구동에 열린 별천지에 |
| 朝暮勤於治硯田 | 주야로 부지런히 연전을 일군다 |
| 錦水撼窓流汨瀟 | 금수는 창을 흔들며 세차게 흐르고 |
| 瑞山當戶挹霞烟 | 서산은 문을 마주해 연하를 취한다 |
| 刀圭術妙能扶世 | 오묘한 의술로 세상을 부축하고 |
| 陶鑄詩工可忘年 | 훌륭한 시재(詩才)로 세월을 잊었다 |
| 塵宇昇平將有日 | 세상이 태평할 날 있을 터인데 |
| 胡爲促駕使悽然 | 어찌 서둘러 떠나 슬프게 하는가 |

경산 우공을 뒤늦게 애도하다

追輓鏡山禹公

| | |
|-------|----------------------------|
| 易東先正後 | 역동 선정 ¹⁰¹² 의 뒤에 |
| 又是鏡山承 | 또 경산이 승계하니 |
| 德氣如溫玉 | 덕의 기운은 온유했 옥이요 |
| 心淸等潔水 | 맑은 마음 정결한 얼음이라 |
| 拮据尊遠祖 | 애써 먼 조상을 높이고 |
| 瀏亮伴青燈 | 청량한 글소리는 청등을 벗 삼았다 |
| 勝似謝家樹 | 사가의 보수보다 뛰어난 |
| 諸孫雲若蒸 | 손자들 구름처럼 많구나 |

1012 역동 선정 : 고려 말의 명현(名賢) 우탁(禹倬, 1263~1342)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천장(天章) 또는 탁보(卓甫), 호는 역동(易東)이고 시호가 문희이다. 성균궐주(成均祭酒)로 치사(致仕)하였고, 정주학(程朱學)에 조예가 있었다. 선정은 선왕조의 훌륭한 신하를 말한다.

담대헌에서 풍영계를 닦다

澹對軒修風詠契

| | |
|---------|----------------------|
| 今日高山昔魯東 | 금일의 고산은 예전의 노나라 동쪽 |
| 夏春雖異趣相同 | 춘하는 달라도 취미는 같다네 |
| 當簷萬竹琅玕碧 | 처마의 대숲은 푸른 옥빛이요 |
| 深院晚花錦繡紅 | 깊은 뜰 늦은 꽃은 붉은 금수로다 |
| 心折納涼書卷裏 | 마음은 납량(納涼)의 서권에 꺾이는데 |
| 興廻浮蟻酒尊中 | 흥은 새로 발효한 술잔에 돌아온다 |
| 南湖多士多慷慨 | 남호의 많은 선비 강개(慷慨)가 많아 |
| 遺緒將來守不窮 | 유서를 장래에도 무궁하게 지키리라 |

남곡의 장원에서 수계하다

南谷庄修契

招招印友好相尋 나의 벗이 불러 방문하니
鷄犬如迎門巷深 계견이 깊은 거리에서 맞는다
神術隔垣知差劇 신술은 담장 너머 차극을 알고¹⁰¹³
莢書掛壁卜晴陰 험서는 벽에 걸려 청음을 점친다
對尊快矣宜爲賦 술잔은 상쾌하여 시를 읊기 좋고
見竹欣然卽許心 대나무는 기쁘게 마음을 허여한다
且有江頭山月上 또한 강가의 산월이 솟아오르니
何愁西日下遙岑 어찌 먼 산의 지는 해를 시름할까

1013 차극을 알고 : 『사기(史記)』 「편작창공열전(扁鵲倉公列傳)」에 이르기를 “신선이 편작에게 약을 내어 주면서, 이것을 상지수에 타서 먹으라.” 하였는데, 그 주에 상지수는 이슬과 대나무 위에 맺혀 있는 물이라고 하였다. 그 후로 편작은 담 건너의 사물까지 꿰뚫어 보았다. 차극의 차는 병이 낫는 것이고 극은 심해지는 것이다.

강씨의 취사재 시운을 차하다

次姜氏聚斯齋韻

| | |
|---------|------------------|
| 瑞山一脈屹齊天 | 서석산 일맥이 하늘에 솟은 곳 |
| 地故慳藏億萬年 | 땅이 아껴 감춘 지 억만년 |
| 祠廟儼然神有護 | 엄연한 사묘는 신령이 보호하니 |
| 軒窓耀矣孰能前 | 빛나는 헌창은 누가 앞서라 |
| 漕波一澗來明月 | 조계의 한 물결 명월이 오고 |
| 老柏千章滴翠烟 | 천길 노백은 취연에 물들었다 |
| 彷彿平泉花石業 | 평천장 화석의 업과 방불하니 |
| 主人誠意自牽連 | 주인의 성의가 저절로 이끈다 |

양벽정의 판상의 시운을 차하다

漾碧亭次板上韻

| | |
|---------|------------------|
| 卜築斯亭幾過春 | 이 정자 건축한 지 몇 해인가 |
| 烟波江上狎鷗身 | 연파 강산에 갈매기를 벗하네 |
| 時思欲挹流千丈 | 때때로 천 길의 흐름 취하여 |
| 注彼前郊苦旱人 | 들판의 괴로운 가뭄에 흘리고자 |

청탄의 회흔례 잔치를 축하하다

賀聽灘回聃宴

| | |
|---------|---------------------|
| 修仁山下汭江上 | 수인산 아래 예양강가에 |
| 攝養灘翁襲世傳 | 섭양한 탄옹이 세업을 전했다 |
| 子說爺孃牢共席 | 자식은 부모의 합석을 기뻐하고 |
| 孫誇祖父贅分筵 | 손자는 조와 부의 분근연을 자랑한다 |
| 灼灼夭桃春院落 | 화사한 복사꽃은 봄 뜰에 지고 |
| 嚶嚶鳴雁旦床邊 | 기러기는 아침 평상에 울어댄다 |
| 姮娥月殿居孤獨 | 항하도 월전에 홀로 거처하며 |
| 羨此人間百世緣 | 인간의 백세 인연 부러워하리라 |

우음
偶吟

一無成就送青春 성취 하나 없이 청춘을 보냈지만
其奈吾身心氣均 내 마음과 기개는 변함이 없어라
忘耄抑詩喻御賤 노년 잊은 위무공 억시는 천한 신하 깨우쳤고
銘盤湯戒滌心新 탕은 반명의 경계로 마음을 씻었다¹⁰¹⁴
淪私誰道扶斯國 어찌 사정에 빠져 나라를 부축하라
欺世還稱濟此民 세상을 속이며 백성을 구제한다 말하네
尼父丁寧從政語 공자의 간곡한 종정의 말씀은¹⁰¹⁵
令尊瞻視正衣巾 시선을 높이고 의관을 바르게 함이거늘

1014 마음을 씻었다 : 명반은 탕(湯) 임금이 목욕하던 그릇에 명(銘)을 새긴 것을 가리킨다. 글에 이르기를 “진실로 어느 날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하였다. 『大學章句』

1015 종정의 말씀은 : 공자가 말하기를 “진실로 자기를 바르게 하면 정치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자기 몸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남을 어떻게 바르게 하겠는가. [苟正其身矣 於從政乎何有 不能正其身 如正人何]” 하였다. 『論語』 「子路」

절산의 벗들과 광주에서 경주로 가는 도중에 짓다 절구 3수
 同節山諸友自光府至慶州途中作 三絶

1

湖嶺間關路幾千 영호남 험난한 길 몇 천리가 되는지
 巉岩畏道正茫然 높고 두려운 길이 정히 망망하였다
 開山鑿谷直如矢 산곡을 깎아 열어 화살처럼 곧으니
 朝日發程到午天 아침에 출발하여 정오에 도착했네

2

引致唐軍侵我疆 당군을 불러들여 우리 강토 침략하니
 句麗千里果誰償 고구려 천리를 과연 누가 보상할까
 出爾及吾君知否 자신이 지은 일은 자신이 받나니¹⁰¹⁶
 祇見五陵草弊荒 다만 오릉¹⁰¹⁷에 잡초만 황폐하구나

3

海印寺前濯我眉 해인사 앞에서 나의 얼굴을 씻고
 廻思先哲講論時 선현이 강론하던 때를 회상한다
 靑山嵐氣尊前落 청산의 이내는 술잔 앞에 떨어지고
 衣帶如薰步月遲 의대는 향기에 젖어 달빛에 서성인다

1016 자신이 …… 받나니 :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戒之戒之 出乎爾者 反乎爾者也]” 하였다. 『孟子』 「梁惠王下」

1017 오릉 : 신라 초기의 왕릉으로 시조(始祖) 박혁거세(朴赫居世)와 알영부인(閼英夫人), 제 2대 남해왕(南解王), 제3대 유리왕(儒理王), 제5대 파사왕(婆娑王) 등 5명의 분묘라 전해진다. 일명 사릉(蛇陵)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명칭은 박혁거세가 승하 후 7일 만에 그 유체(遺體)가 다섯 개로 되어 땅에 떨어졌으므로 이를 합장하려 하자 큰 뱀이 나와 방해하므로 그대로 다섯 군데에다 매장하였다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에서 연유되었다.

경오년(1990) 초가을

庚午初秋

光陰忽忽隙駒過 광음이 흘연 극구처럼 흘러가니
那廢三杯一浩歌 어찌 석 잔 술 호연한 노래 폐할까
氣概千秋追北海 천추의 기개는 북해를 추종하니¹⁰¹⁸
空虛一世夢南柯 공허한 세상은 남가를 꿈꾸는 듯
暑炎乖候催歲熟 늦은 무더위가 곡식 익기 재촉하거늘
蟋蟀知時入戶多 실솔은 때를 알아 문호에 드는구나
夏葛冬裘於分足 여름 갈옷 겨울 갖옷이 분수에 족하니
冷看蠻觸動風波 만족에 이는 풍파를 차갑게 보노라

1018 북해를 추종하니 : 한나라 공융(孔融)이 북해태수(北海太守)를 지냈으므로 공북해(孔北海)라 하였는데, 그는 늘 말하기를, “자리 위에는 손님이 항상 차고, 항아리 속에는 술이 비지 않아야 한다.” 하였다.

무진음사 회원의 청장에 가다

赴武珍會員清庄

東風獵獵馬蹄輕 산들산들 동풍에 말 걸음도 가벼우니
歷歷靑山眼際明 청산도 뚜렷이 눈앞에 밝구나
自擬謫仙渾酒醉 적선처럼 술에 흠뻑 취하여
欲追東野以詩鳴 동야처럼 시로써 마음을 표하고자¹⁰¹⁹
迎人鷄犬知淳俗 닭과 개도 사람 맞는 순박한 풍속
留客園林遠世情 원림에 객을 붙드니 세정은 멀다
明月綠楊元白是 명월과 녹양은 원백¹⁰²⁰도 그랬으니
何辭好會逐旬成 십일마다 좋은 모임 어찌 마다하랴

1019 동야처럼 …… 표하고자 : 한유(韓愈)의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에 이르기를 “대저 만물은 평정함을 얻지 못하면 운다. [大凡物不得其平則鳴]” 하였다. 또 말하기를 “알지 못하겠다. 하늘이 장차 그들의 소리를 화락하게 하여 국가의 성대함을 울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장차 그들의 몸을 곤궁하고 굶주리게 하며 그들의 마음속을 그럽고 시름 겹게 하여 스스로 그들 자신의 불행을 울게 할 것인가. [抑不知天將和其聲而使鳴國家之盛邪 抑將窮餓其身 思愁其心腸 而使自鳴其不幸邪]” 하였다.

1020 원백 : 당나라 시인 원진(元稹)과 백거이(白居易)이다.

김해김씨 삼현¹⁰²¹의 사적 병풍에 쓰다
題金海金氏三賢事蹟屏

1

| | |
|-------|-------------------|
| 居廬猛獸衛 | 여막에 거처하니 맹수가 호위하고 |
| 嘗痼病茲瘳 | 설사를 맛보니 병이 이에 나았네 |
| 至孝天人感 | 지극한 효성 천인이 감동하니 |
| 豈無法萬秋 | 어찌 만고에 본받지 아니하라 |
| 右節孝先生 | 위는 절효 선생이다 |

2

| | |
|-------|-------------------|
| 行峻言俱厲 | 행실은 준엄하고 말씀은 엄격하여 |
| 身危道自隆 | 몸이 꼳꼳하니 도가 절로 높았다 |
| 文章與節義 | 문장과 절의가 |
| 凜凜溯高風 | 늠름하여 고풍을 따랐다 |
| 右濯纓先生 | 위는 탁영 선생이다 |

3

| | |
|-------|-------------------|
| 內懷經濟術 | 안으로 경국제민의 방도 품었으나 |
| 外若沈冥爲 | 겉모습은 감춰 어두운 듯 |
| 松操水中月 | 솔의 지조에 수중의 달 같으니 |

1021 삼현 : 조선 22대 정종대왕(1777년)께서 김해김씨(金海金氏)를 가리켜 삼한갑족(三漢甲族)이라 하시며 절효(節孝) 극일(克一), 탁영(濯纓) 일손(駟孫), 삼족당(三足堂) 대유(大有) 세 현인을 가리켜 청도삼현(淸道三賢)이라 하였으며, 한 집안에서 4대 간 세 현인이 났다는 일은 고래로 드문 일인 고로 이로 인해 삼현파(三賢派)로 정하였다 한다. 계파(系派)는 금녕군파(金寧君派)를 비롯한 142개 파가 있으며 김유신(金庾信)의 직계 종파인 3개 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後人神自馳 후인의 정신이 절로 추앙한다
右三足堂先生 위는 삼족당 선생이다

수산재의 원운에 차하다

次水山齋原韻

| | |
|---------|-----------------------|
| 忘世陰晴茅屋裡 | 모옥에서 세상의 음청 잊으니 |
| 填門請益暮朝時 | 주야로 학인이 문하에 가득하다 |
| 賞音壁掛琴三尺 | 벽에 걸린 삼척 거문고 소리 감상하고 |
| 記事床橫筆一枝 | 책상의 놓인 붓으로 일을 기록한다 |
| 清澗濯纓明月弄 | 맑은 시내 갓끈 씻으며 명월을 희롱하고 |
| 深山採藥白雲隨 | 심산에서 약초 캐며 백운을 따른다 |
| 舉公籃輿無爲惡 | 공의 남여를 들어 메도 싫지 않으니 |
| 如起九原追躡之 | 구원에서 일어나시면 뒤를 따르리라 |

일청 김선생의 영연에서 곡을 하다

哭一靑金先生靈筵

| | |
|---------|------------------------------------|
| 我觀一葉獨靑子 | 내 일청 선생을 보니 |
| 胸中落落且磊磊 | 흉중이 낙낙하고 도량이 넓었다 |
| 幼少俛焉讀書爲 | 어려서 부지런히 서책을 읽었고 |
| 及長惟有四方志 | 자라서는 사방에 뜻을 두었다 |
| 贊謁栗溪先生門 | 올계 ¹⁰²² 의 문하에 집지하여 알현했고 |
| 歷訪八域諸名士 | 팔방의 명사를 두루 방문했다 |
| 遍踏東洋三國土 | 동양의 삼국을 편력하고 |
| 泛覽泰西古今史 | 태서의 고금역사를 널리 보았다 |
| 炯炯眼光壓一座 | 형형한 안광은 좌중을 압도했고 |
| 勃勃氣概窺千古 | 씩씩한 기개는 천고를 엿보았다 |
| 我東文物顯宇內 | 동방의 문물은 천하에 빛나거늘 |
| 人皆昧我明于彼 | 모두 우리에게겐 어둡고 서양에만 밝았다 |
| 縱有前賢多少編 | 전현들이 다소 엮은 책이 있으나 |
| 何如而今獨拔萃 | 이제 홀로 발취한 책만 같으랴 |
| 天何不慙遺此老 | 하늘은 어찌 이 원로를 남기지 아니하여 |
| 使有志士淚如雨 | 지사의 눈물을 비 오듯 뿌리게 하는가 |

1022 올계 : 정기(鄭琦, 878년~1950) 선생의 호이다. 자는 경희(景晦)이고, 호는 올계(栗溪)이며, 초명은 정재혁(鄭在赫)이다. 본관은 서산(瑞山)이고, 경상남도 합천(陝川) 올진(栗津) 출신이다. 부친은 정환우(鄭煥禹)이다. 1899년(광무 3)에 노백현(老柏軒) 정재규(鄭載圭)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1905년(광무 9)에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을 도와서 동지를 규합하였다. 1914년에 합천 무산정사(武山精舍)를 짓고 제자를 가르쳤다. 1921년에 만주(滿州)와 간도(間島)를 세 차례나 왕복하면서 빼앗긴 국권회복에 힘썼으나 실패하였다. 1927년에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덕천(德川)으로 이사하여 오원재(五爰齋)와 덕천정(德川亭)을 짓고 후진을 양성하였다.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1967년에 덕천정의 후정에 덕천사(德川祠)를 건립하여 제향하였다. 효당(曉堂) 선생의 스승으로, 만취(晩翠) 선생은 이분의 재전제자(再傳弟子)이다. 문집으로 『올계집(栗溪集)』이 있다.

도남재에서 멋스런 모임을 갖다

道南齋雅集

| | |
|-------|--------------------|
| 道南堂崔嵬 | 우뚝 솟은 도남서당 |
| 曉翁曾起居 | 효당께서 일찍이 기거하신 곳 |
| 回憶當年事 | 당년의 일을 추억하니 |
| 四郡來讀書 | 사방에서 와서 독서했다 |
| 於此因俎豆 |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니 |
| 誰不仰止歟 | 누가 흠양하지 않으랴 |
| 猗猗數畝竹 | 아름다운 몇 이랑 대나무가 |
| 可供士子廬 | 선비의 초가를 받들고 |
| 囂塵事不聞 | 세속 일은 들리지 않으니 |
| 夢寐覺清虛 | 꿈을 깨면 청허를 느낀다 |
| 諸君徒費力 | 제군이 힘을 허비하며 |
| 千里枉訪予 | 먼 길에 나를 방문했네 |
| 我是飽閱世 | 나는 세상 실컷 겪었으니 |
| 與世意自疏 | 세상의 뜻이 절로 멀다 |
| 青春能幾日 | 청춘은 능히 얼마이뇨 |
| 光陰石火如 | 광음은 석화와 같도다 |
| 富貴如浮雲 | 부귀는 부운과 같으니 |
| 從吾所好且 | 나의 좋아하는 바를 따를지어다 |
| 不汲汲名利 | 명리에 급급하지 말지니 |
| 心廣體自舒 | 마음 넓으면 몸도 절로 느긋하리라 |

오지호 화백의 10주기를 추도하다

追悼吳畫伯十周年 芝湖

| | |
|-------|----------------|
| 福川擅南州 | 복천은 남주의 으뜸이라 |
| 山水最秀麗 | 산수가 가장 수려하니 |
| 其間萃粹氣 | 그사이 순수한 기운 모여 |
| 間出魁傑士 | 간간이 호걸이 태어난다 |
| 白鴉山下村 | 백아산 아랫마을은 |
| 吳氏世居地 | 오씨가 세거한 땅으로 |
| 公當叔季日 | 공은 말세에 당하여 |
| 遊學于海外 | 해외로 유학했다 |
| 文壇崇漢字 | 문단에서 한자를 높였고 |
| 書畫凌一世 | 서화는 일세에 뛰어났다 |
| 清潔似癩鶴 | 청결함은 마른 학 같았고 |
| 氣概當猛虎 | 기개는 맹호를 대적했으니 |
| 磊落唾千金 | 뇌락함은 천금을 경시하고 |
| 豪氣跨駿馬 | 호기는 준마를 걸터앉은 듯 |
| 固執漢文用 | 한문 사용을 고집하다 |
| 竟自文壇退 | 끝내 문단에서 물러났으나 |
| 芝山矮屋裏 | 지산동 작은 집에서도 |
| 義氣撐宇宙 | 의기는 우주를 지탱했다 |
| 惟公余敬愛 | 공은 내가 경애하던 분 |
| 每養浩然氣 | 늘 호연지기를 함양했다 |

가을날의 우음

秋日偶吟

| | |
|---------|------------------------------------|
| 四郊稻熟耀秋光 | 들판의 익은 벼가 추광에 빛나니 |
| 庭畔無心嗅菊香 | 뜰 가에서 무심히 국화 향을 맡는다 |
| 露冷樹梢蟬語斷 | 이슬 차가운 가지에 매미 소리 끊기고 |
| 雨收天際雁聲涼 | 비 그친 하늘에 기러기 애처롭다 |
| 精糧難得藏千石 | 곡식은 천석을 저장하기 어려운 법 |
| 稊米常慙付太倉 | 제미를 큰 창고에 붙임이 항상 부끄럽다 |
| 誰決鴻溝南北界 | 누가 홍구의 남북 경계를 갈랐는가 ¹⁰²³ |
| 相通文物大蕃昌 | 서로 문물을 교통해야 크게 번창하리라 |

1023 경계를 갈랐는가: 초한(楚漢)의 전쟁에서 유방(劉邦)과 항우(項羽)가 강화를 맺으면서 홍구(鴻溝)를 경계로 천하를 나누었다. 여기서는 남북분단을 말한다.

『고봉집』을 읽고 나서 김춘곡 장인에게 드린다

讀高峯集呈金春谷丈人

내가 고봉선생의 시 「요월정」에 관계된 것을 읽으니, 압운은 같지만 제목이 다른 것이 셋이다. 하나는 선생이 원운을 차한 것이고, 두 수는 호정공이 제공을 위하여 차운하여 지었다. 당시에 함께 간행하여 후인의 의혹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외람되게 의혹을 분별하고 느낌을 기록했다.

余讀高峯先生詩關邀月亭 押韻同而題目異者三焉 一則先生次原韻也 二首蓋湖亭公爲諸公次韻而作也 當時并刊之以起後人之疑 故今僭爾辨疑而志感焉

| | |
|---------|------------------------|
| 歷覽古今多少籍 | 고금의 많은 서적 두루 읽으니 |
| 連題甲乙唱酬詞 | 갑을의 창수사를 연이어 지었다 |
| 石川篇裡松翁句 | 석천의 시편에 송강의 시구가 있고 |
| 圃隱集中杜甫詩 | 포은집 가운데는 두보 시가 섞였다 |
| 堂成酒熟回車客 | 당 완성하고 술 익으니 객은 수레 돌리고 |
| 花發烟冥邀月墀 | 꽃피고 안개 짙은데 섬돌에서 달을 맞는다 |
| 癖在偷閑辭直長 | 투한의 고질 있어 직장 벼슬 사직하니 |
| 江湖放浪竟攸宜 | 강호에 방랑함도 끝내 마땅한 바라 |

박창성 문재에게 주다

贈朴昌星 文載

| | |
|-------|--------------------------------|
| 君本珍原裔 | 군은 본래 진원의 후예로 |
| 天姿亦俊良 | 천품이 또한 준량하니 |
| 共炊三省室 | 함께 삼성실에서 취사하며 |
| 苦樂十餘霜 | 십여 년 고락을 함께 했다 |
| 范公嘗有語 | 범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
| 不宰爲名醫 | 재상 아니면 명의가 되라 했으니 |
| 對患如親屬 | 환자를 친속처럼 대하고 |
| 始終守母慈 | 시종 자모 같은 마음 지켜라 |
| 讀書螢雪苦 | 형설에 독서하듯 애를 쓰고 |
| 我亦師先輩 | 나 또한 선배를 스승 삼으라 |
| 爲學在誠勤 | 학문은 정성과 부지런함에 있으니 |
| 言行終一致 | 언행을 시종 일치하라 |
| 修身去五辟 | 수신은 오벽 ¹⁰²⁴ 을 제거할지니 |
| 家國本於斯 | 가정과 국가도 여기에 근본한다 |
| 推己及人功 | 추기급인의 공부를 |
| 庶幾天下施 | 바라건대 천하에 베풀라 |
| 處世守謙讓 | 처세엔 겸양을 지킬 것이니 |
| 最悲自聖人 | 잘난 체가 가장 슬프다네 |
| 存身龍隱蟄 | 용이 칩거하듯 몸을 보존하고 |

1024 오벽 :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사람들은 친애하는 바에 편벽되며 천히 여기고 미워 하는 바에 편벽되며 외경하는 바에 편벽되며 애급히 여기는 바에 편벽되며 거만하고 태만히 하는 바에 편벽된다. [人之其所親愛而辟焉 之其所賤惡而辟焉 之其所畏敬而辟焉 之其所愛矜而辟焉 之其所敖情而辟焉]” 하였다.

| | |
|-------|-------------------|
| 蠖屈亦求伸 | 펴려고 하면 자벌레처럼 굽힐 것 |
| 立志似行程 | 입지는 길을 가는 것과 같으니 |
| 豈能中道弛 | 어찌 중도에 그만두랴 |
| 雖經千百險 | 수많은 어려움 겪더라도 |
| 必遂初心期 | 반드시 기약하여 초심을 이룰지라 |

무진년(1988) 세모에 여러 벗들에게 증별하다
 戊辰歲暮贈別諸友

| | |
|-------|------------------------------|
| 孰云百年遲 | 누가 백년이 더디다 말하는가 |
| 冉冉瞬間廻 | 세월은 순간에 흐르나니 |
| 況是歲暮日 | 하물며 세모의 날이면 |
| 不禁心自灰 | 심사는 재가 되나니 |
| 今夕是何夕 | 오늘 밤은 어떤 밤인가 |
| 對君笑顏開 | 그대들 마주하며 얼굴을 편다 |
| 縱然我自慰 | 나는 스스로 위로하나 |
| 何由酬遠來 | 어찌 멀리 찾아온 그대들 보답할까 |
| 六旬飽經世 | 육십 년간 세상을 실컷 겪고 |
| 古今探無涯 | 가없는 고금을 탐색해 보니 |
| 羊腸車輪折 | 양장에 수레바퀴 꺾이고 |
| 灩澦舟楫摧 | 염여퇴에 노도 꺾였다네 ¹⁰²⁵ |
| 年富且力强 | 연부역강한 시절에 |
| 矻矻請勉哉 | 부지런히 힘쓰기를 청하노라 |
| 忠信以爲主 | 충신을 주장하여 |
| 身修家自齊 | 수신하면 가정도 고르게 되나니 |
| 勿以小智誇 | 작은 지혜 자랑 말고 |
| 勿以中途回 | 중도에 돌아서지 말라 |
| 萬事轉眼空 | 만사는 잠깐 사이 공이 되나니 |
| 恢恢拓胸懷 | 흉금을 넓게 펼지어다 |
| 恐懼而修省 | 두려운 마음으로 수성하면 |

1025 염여퇴에 노도 꺾였다네 : 양장(羊腸)은 중국에 있는 험한 비탈길이고 염여퇴(灩澦堆)는 양자강(揚子江)의 물길을 막는 바위 이름이다.

| | |
|-------|----------------------------|
| 何須驚荐雷 | 어찌 우레에 놀라라 ¹⁰²⁶ |
| 鵬程遠圖在 | 봉정의 원도가 있으니 |
| 勇往勿徘徊 | 용감히 나아가 배회하지 말라 |

1026 우레에 놀라라 : 『주역』 「진괘(震卦)」에 이르기를, “우레가 백리를 놀라게 하더라도 (공경하면) 제사를 그르치지 않는다. [震驚百里 不喪匕鬯]”고 하였다.

무진년(1988) 초가을에 계고동인회 회원과 영동지역을 여행하고
노릉¹⁰²⁷을 알현하다

戊辰初秋與稽古同人會員作嶺東之行謁魯陵

寧越山深蜀魄啼 영월 깊은 산에 소쩍새 울음소리
爾能使我一何悲 어찌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고
拜鵑工部詎無意 두견에 절한 두보 어찌 뜻이 없으랴¹⁰²⁸
酌酒秋風日欲西 추풍에 술 따르니 해가 지려 하네

1027 노릉 : 단종(端宗)의 능묘(陵墓)를 말한다.

1028 뜻이 없으랴 : 두보(杜甫)가 촉(蜀) 땅에서 지은 「두견(杜鵑)」이란 시에 “두견새가 늦은
봄 날아와서 슬프게 내 집 곁에서 울었지. 내가 보고는 항상 재배했나니 옛 망제(望帝)
의 넋임을 존중해서였네. [杜鵑暮春至 哀哀叫其間 我見常再拜 重是古帝魂]” 하였다.

청령포

清冷浦

| | |
|---------|--------------------|
| 清冷浦水繞孤城 | 청령포 물이 고성을 둘러 흐르니 |
| 回憶當年整我纓 | 당년을 회상하며 갓끈을 바룬다 |
| 江水至今尙嗚咽 | 강수는 지금도 여전히 오열하나니 |
| 天懸明月想精靈 | 하늘의 밝은 달에 정령을 생각한다 |

육신의 사당

六臣廟

辨得熊魚是六臣 육신께서 웅장과 물고기를 변별하시¹⁰²⁹
恬然就死便成仁 편안히 죽음에 나아가 인을 이루었네
二君不事齊王蠋 제나라 왕촉은 두 임금 섬기지 않았으니¹⁰³⁰
羞愧千秋反側人 부끄럽다 천추에 반측하는 자들이여

1029 변별하사 : 맹자가 말하기를, “물고기도 내가 바라며 웅장도 내가 바라지만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웅장을 취하겠다. 삶도 바라는 바이고 의리도 바라는 바이지만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겠다. [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하였다. 『孟子』 「告子上」

1030 제나라 …… 않았으니 : 연(燕)나라 장수 악의(樂毅)가 제나라를 공격해 들어갔을 때 왕촉(王蠋)의 명성을 듣고 화읍(畫邑)을 30리 밖에서 포위하고 사람을 보내 왕촉을 회유했으나 왕촉이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하고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史記』 卷83 「田單列傳」

탄금대 신립¹⁰³¹의 배수진을 비판하다

彈琴臺 譏申砮背水陣

彈琴臺下水空流 탄금대 아래 강물은 흐르는데
十里烟波使人愁 십리연파가 사람을 시름케 한다
鳥嶺巉岩難蜀道 조령의 험준함은 축도보다 더하거늘
那無陋守過倭酋 어찌 지키지 않고 왜놈들 통과시켰나

1031 신립 : 신립(申砮, 1546~1592)은 선조 때의 무장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왜구가 영남 지역을 함락하자 선조가 신립에게 가서 방어하도록 하였다. 신립이 조령(鳥嶺)에 이르렀지만 첩첩의 요새를 지키지 못하고 퇴각하여 주 서쪽 달천 가에 이르러 배수진을 쳤는데, 왜적의 돌격을 받아 전군이 대패하고, 신립과 종사관 김여물(金汝物)은 모두 강물에 투신하여 죽었다.

상주 충의사 정기룡¹⁰³²

尙州忠毅祠 鄭起龍

| | |
|---------|---------------------|
| 島夷猖獗犯吾邦 | 도이가 창궐하여 나라를 침범하니 |
| 八路靡然數月中 | 몇 달 사이 팔도가 전란에 휩쓸렸다 |
| 英氣凜凜身八尺 | 팔 척 신장에 영웅의 기개 늠름하니 |
| 往來無敵振雄風 | 오고 감에 적이 없어 옹풍을 떨쳤다 |

1032 정기룡 : 정기룡(鄭起龍, 1562~1622)은 1586년 무과에 급제한 후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신립 휘하로 들어가 훈련원 봉사(奉事)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경(趙儼)·김성일(金誠一) 등의 부름을 받고 금산·거창·상주 등지에서 왜적을 크게 격파하였으며, 정유재란 때는 체찰사 이원익(李元翼)의 부름을 받고 대장으로 임명되어 9읍의 장관과 함께 금오산성을 지키고 적장을 참수하였다. 그 공으로 경상 우병사가 되었으며, 1598년에는 명나라 군대의 총병(總兵)을 대항해 경상도 방면에 남아 있던 일본군을 소탕하여 용양위 부호군이 되고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임진왜란 후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삼도 수군통제사 등을 지냈다.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단양을 지나며
過丹陽

| | |
|-------|----------------|
| 昔聞八景好 | 예전 팔경의 좋음 들었더니 |
| 今日歷探之 | 금일에야 두루 찾았네 |
| 少可拭吾目 | 나의 두 눈을 씻게 함은 |
| 三峯最絶奇 | 도담삼봉이 가장 절경일세 |

진안 마이산

鎮安馬耳山

| | |
|---------|----------------------|
| 誰能化翁造物時 | 어떻게 조화옹이 만물을 만들 적에 |
| 混沙與石打成爲 | 모래와 돌을 섞어 이루었네 |
| 恰如雙耳有心聽 | 흡사 두 귀가 마음을 두어 듣는 듯 |
| 何日嘶風一躍馳 | 어느 날 바람에 울며 힘차게 도약할까 |

이 도사의 석탑에 쓰다

題李道士石塔

| | |
|---------|--------------------------|
| 危梯累石百層高 | 높은 사다리처럼 쌓은 돌이 백 층이나 높으니 |
| 雨雨風風不壞搖 |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다네 |
| 當日若非神借力 | 당일에 신력을 가차하지 않았다면 |
| 也知羽尾盡譙脩 | 또한 깃털이 모두 이지러졌으리라 |

청령포에서 어계 조려¹⁰³³의 충의비에 쓰다
淸冷浦題趙漁溪 旅 忠義碑

| | |
|-------|----------------|
| 潛跡往來裡 | 자취를 감추고 왕래하니 |
| 有時虎衛之 | 때때로 호랑이가 호위했다 |
| 死生義豈異 | 생사의 의리가 어찌 다르랴 |
| 蜀魄亦能知 | 두견새도 능히 알겠거늘 |

1033 조려 : 조려(趙旅)는 생육신(生六臣)의 한 분이다. 단종 원년(1453)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있을 때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비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절의를 지키기 위해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함안(咸安)으로 물러나 죽을 때까지 낚시와 소요로 은거하며 단종을 연모하였다.

문우계를 닦다

修文友契

佳辰招客似山陽 좋은 날 객을 부르니 산양과 같아¹⁰³⁴
翰墨淋漓座亦香 흥건한 한묵에 자리 또한 향기롭다
塵世功名心自遠 진세의 공명엔 마음 절로 멀어지고
同流言行德知涼 동류의 언행에서 청량한 덕을 알겠네
盈郊稻熟無貧屋 들판 가득 벼가 익어 빈가가 없으니
照路燈懸不夜鄉 길에 비친 등불에 마을은 대낮 같다
誰起九原友山老 누가 구원에서 우산 노인을 일으키랴
西風灑淚我懷長 서풍에 눈물 뿌리는 회포 유장하다

창설계원으로 지금 선종했기 때문에 말구에서 언급하였다
創設契員而今終之故末句及之

1034 산양과 같아 : 산양은 하남(河南)에 있는 지명으로, 진(晉)나라의 혜강(嵇康), 상수(向秀) 등이 일찍이 이곳에 살면서 죽림(竹林)의 놀이를 하였다. 그 뒤에 상수가 산양 땅을 지나면서 누군가가 부는 짓대 소리를 듣고는 죽은 친구인 혜강(嵇康)과 여안(呂安)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사구부(思舊賦)」를 지었다 한다.

중국을 유람하는 조카 무량을 보내며

送姪子 武良 遊中國

余讀東西無數史 내 동서의 무수한 사책 읽었건만
未能身踐中州土 몸소 중원의 땅을 밟지 못했으니
請君攝影山河來 청컨대 군은 산하를 촬영하여 와서
案上俾探今古事 안상에서 고금의 사적을 탐색게 하라

서산 공연웅, 임동일과 함께 채씨의 구암정에 오르다
與孔瑞山 鍊雄 林 東日 登蔡氏龜巖亭

聖主山前別有天 성주산 앞의 별천지에
龜岩老子管雲烟 구암 노인이 운연을 장악했네
滄桑經劫人何在 창상 겪은 세월 속여 사람은 어디 있나
杜宇聲中日抵年 두우새 소리에 하루가 한 해인 듯

김양호의 청장을 방문하다

訪金養浩清庄

| | |
|---------|----------------------------------|
| 澗陸寬邁賦遂初 | 산수에 소요하며 수초를 읊으니 ¹⁰³⁵ |
| 眞知功苦取三餘 | 참으로 근고의 공부는 삼여에서 취하는 법 |
| 鋤來階下盈畦藥 | 섬돌 아래 가득한 약초밭 김매고 |
| 讀盡燈前滿案書 | 등전의 서안 채운 서책을 읽는다 |
| 冒雨採薇佐盤味 | 빗속에 고사리 캐서 밥맛 돋우고 |
| 期晴折菊補籬疏 | 맑은 날 국화 꺾어 울타리를 기운다 |
| 靑靑玉樹誰能似 | 청청한 옥수는 누가 능히 같으랴 |
| 朝暮起居意自如 | 조석으로 기거하니 뜻이 자유롭네 |

1035 수초를 읊으니 : 조만간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에 돌아와 숨어 살겠다는 말이다. 진(晉) 나라 손작(孫綽)이 10여 년 동안 산수를 유람한 뒤에, 산림에 은거하려고 마음먹은 처음의 뜻을 마침내 이루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초부(遂初賦)」를 지은 고사가 있다. 『晉書』 卷56 「孫楚傳 孫綽」

소암 양동하에게 주다

贈紹菴 梁東廈

| | |
|---------|----------------------------------|
| 古稱竹樹禮儀坊 | 예전부터 능주는 예의의 고장 |
| 負笈從師政渺茫 | 부급종사 ¹⁰³⁶ 한 일 정히 아득하네 |
| 冬柏亭中同結夏 | 동백정에서 함께 여름을 보냈고 |
| 柳川屋裏幾連床 | 유천 집에서 얼마나 연상했나 |
| 藏于玄圃皆崑玉 | 현포엔 곤산의 옥이 매장되었고 ¹⁰³⁷ |
| 長在驥州摠駿驕 | 기주에서 자라는 건 천리마뿐이라 |
| 君與我今頭共白 | 군과 나는 이제 모두 백발이거늘 |
| 昇平何日整巾裳 | 어느 날 태평 맞아 의관을 정제할까 |

1036 부급종사: 급은 책상자이다. 책상자를 매고 멀리 스승을 따라 글을 배운다는 뜻이다.

1037 옥이 매장되었고: 현포(玄圃)는 신선이 산다는 곳이고 곤산(崑山)은 옥의 명산지인 곤륜산(崑崙山)을 가리킨다.

병중에 자책하다

病中自責

| | |
|-------|-----------------|
| 吟病十餘朔 | 병으로 신음한 지 십여 개월 |
| 身何有自由 | 일신에 무슨 자유가 있으랴 |
| 足無可舉體 | 다리는 몸을 들 수가 없고 |
| 口不能應酬 | 입으로는 응대를 할 수 없네 |
| 事恐違規法 | 일마다 법규를 어길까 두려워 |
| 心要免悔尤 | 마음은 후회만 면하길 바란다 |
| 愧我罪山積 | 부끄럽다 나의 죄 산적했으니 |
| 況望名譽收 | 하물며 명예 거두기를 바라랴 |

여러 벗에게 주다

贈諸友

| | |
|-------|--------------------|
| 諸友方年少 | 벗들은 바야흐로 연소하고 |
| 而況身自由 | 몸까지 자유로워 |
| 足能任意步 | 발은 뜻대로 걸을 수 있고 |
| 口亦隨人酬 | 말도 사람 따라 응대할 수 있으니 |
| 行止必循軌 | 행지는 반드시 궤도를 따르고 |
| 施爲勿效尤 | 행실은 허물을 본받지 말라 |
| 屈首孜孜讀 | 머리 굽혀 부지런히 독서하면 |
| 功名良可收 | 공명을 진실로 거둘 수 있으리라 |

계하 구제국에게 주다

贈具溪下齊國

| | |
|-------|-------------------|
| 天地數千載 | 천지 사이 수천 년간 |
| 最難庚甲同 | 같은 해 태어나기 가장 어렵거늘 |
| 生于儒俗裏 | 유학의 풍속에 태어나서 |
| 長在文鄉中 | 문향 가운데서 자랐다네 |
| 人可心爲直 | 사람은 마음이 곧아야 하고 |
| 事要謀自忠 | 일은 충성으로 꾀하는 법 |
| 多君名祖裔 | 그대는 명문의 후예로서 |
| 戒以靈犀通 | 경계하여 영서가 통하기를 |

공영보 연응에게 주다

贈孔英甫 鍊雄

| | |
|-------|----------------|
| 君是尼父後 | 그대는 니보의 후예로 |
| 寄于瑞岳陰 | 서석산 북쪽에 기거하니 |
| 幾世業詩禮 | 시례의 가업 몇 대인가 |
| 自麗至于今 | 고려부터 오늘에 이르렀네 |
| 父祖俱文行 | 부조가 모두 문행이 있었고 |
| 況在相知音 | 게다가 서로 지음이라 |
| 君是又繼述 | 군이 또 계술하여 |
| 向學自沈深 | 향학의 마음 절로 깊었다 |
| 戰戰薄氷履 | 얼음을 밟은 듯 조심하고 |
| 兢兢深淵臨 | 심연에 임한 듯 외경하며 |
| 書藝更兼之 | 다시 서예까지 겸했으니 |
| 平日余所欽 | 평일에 내가 흠모하는 바라 |

김자영 영웅에게 주다

贈金子英 永雄

| | |
|-------|------------------|
| 余住福川日 | 내 복천에 거주한 날이 |
| 可近四十年 | 거의 사십 년 |
| 曉堂聞世士 | 효당은 세상에 알려진 선비 |
| 文行亦嶙峋 | 문행 또한 높고 높았다네 |
| 延聘資田土 | 초빙하여 전토를 제공하니 |
| 魁傑有誠泉 | 성천 같은 호걸이 계셨네 |
| 永思有齊室 | 영사재의 재실을 두고 |
| 來學日循循 | 날마다 와서 순순히 공부했네 |
| 誠老忽已逝 | 성천께서 홀연히 서거하시고 |
| 曉公亦作隣 | 효당께서도 뒤따라 가셨다네 |
| 不佞學未成 | 나는 학문을 성취하지 못했거늘 |
| 況爲教誨身 | 하물며 학인을 훈도하라 |
| 君可纔成童 | 군은 겨우 성동일 때 |
| 向學無夕晨 | 주야 없이 학문에 열중했네 |
| 創廟祀曉老 | 사당을 세워 효당을 제사하고 |
| 道南齋復新 | 도남재를 다시 일신하였다 |
| 君因世波動 | 군은 세파의 흔들림에 따르고 |
| 余亦失所因 | 나 또한 의지할 곳 잃었으니 |
| 武珍三省室 | 무진의 삼성실에서 |
| 月月聚首頻 | 달마다 자주 머리를 마주했네 |

김여해 창환의 서실에 부쳐 쓰다

寄題金汝諧 唱煥 書室

| | |
|-------|-------------------|
| 東邦光山氏 | 동방의 광산김씨는 |
| 摠是華系胄 | 모두 화족(華族)의 후손 |
| 君自連山來 | 군은 연산에서 왔고 |
| 況兼沙愼老 | 게다가 사계와 신독재가 선조시니 |
| 詢是法家子 | 참으로 법가의 자제라 |
| 言行出儕類 | 언행이 무리에서 뛰어났네 |
| 今日教育界 | 오늘날 교육계에 |
| 如君知幾輩 | 군 같은 이가 몇 명인가 |
| 請君日邁進 | 청컨대 그대 날로 매진하여 |
| 期作文壇主 | 문단의 주인이 되기를 기약하라 |
| 我身將不飭 | 나는 몸도 신칙하지 못하거늘 |
| 矧爲人師傅 | 하물며 남의 사부가 되랴 |

죽암 고영두의 청장에 쓰다

題竹菴高 永斗 淸庄

| | |
|-------|---------------------|
| 蕭蕭萬竹裏 | 소소한 대나무숲 속에 |
| 數畝作淸園 | 몇 이랑 맑은 뜰을 만들었다 |
| 享祖藏諸墓 | 조상을 제향하려 여러 묘를 이장하고 |
| 爲親拓一軒 | 아버이를 위하여 정자를 열었다 |
| 教子架三史 | 많은 책 갖추어 자제들 가르치고 |
| 迎賓釀大罇 | 술을 빚어 손님을 맞는다 |
| 君能知涉世 | 군은 세상을 헤쳐 나갈 줄 아니 |
| 勉勉導群昏 | 부지런히 못사람을 교도하라 |

영취정 고창에 있는 광산김씨의 정자이다

永翠亭 在高敞光山金氏亭

| | |
|---------|-----------------------|
| 栽松種竹翠成林 | 송죽을 심어 푸른 숲 이루고 |
| 一笠孤亭保至今 | 작은 정자 하나 이제껏 보존했다 |
| 彷彿墨胎雷首下 | 뇌수산 아래 묵태와 방불하고 |
| 逍遙孔氏北山陰 | 북산 음지에 공치규가 소요하는 듯 |
| 全忠投絨心知苦 | 벼슬 던지던 충심의 괴로움 알겠고 |
| 望哭爲壇跡可尋 | 망곡하던 제단의 자취도 남았다네 |
| 何用春秋披屢曆 | 어찌 세월을 알려고 책력을 펼치랴 |
| 杜門抱膝費長吟 | 문을 닫은 채 무릎 안고 시를 읊을 뿐 |

모암 윤재갑을 애도하다

輓尹帽巖 在甲

| | |
|---------|----------------------|
| 誰能當日寫公眞 | 누가 당일의 공의 모습 그리겠는가 |
| 松老詔言異衆人 | 송노께서 중인과 다르다고 칭송했거니 |
| 志操高堅應笑石 | 높고 굳건한 지조는 금석도 가볍고 |
| 顏容和樂可疑春 | 화락한 용모는 봄날을 의심하네 |
| 忘私衛聖校宮奐 | 사정을 잊고 성인 지켜 교궁이 빛났고 |
| 輸力奉先墓道新 | 힘을 다해 선조 받들어 묘도가 새롭다 |
| 雖在城中塵土裡 | 비록 성시의 진토 속에 있었지만 |
| 超然夷曠自如身 | 초연히 드넓은 자유의 몸이셨네 |

이강양 채준에게 주다

贈李江陽 塚準

陝川文憲地

君祖自嶺來

只知坦路去

或恐岐途差

寧作輩儕首

最難童子師

人爲靈萬物

請勿憂寒飢

합천은 문헌의 땅으로

그대의 조상은 영남에서 왔다네

다만 평탄한 길만 알아 가노라면

혹 기로에서 어긋날까 두렵다네

차라리 무리의 우두머리 될지언정

동자의 스승 되기 가장 어렵나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니

청컨대 기한을 근심 말지어다

이자중 종식에게 주다

贈李子重 鍾植

| | |
|-------|--------------------------------|
| 君顏如玉潔 | 옥처럼 깨끗한 군의 모습 |
| 賢聖法斯遵 | 성현의 법을 이에 따랐다 |
| 檢校終忘午 | 검교하며 정오를 잊었고 |
| 看書或達晨 | 책을 보며 밤을 지냈다 |
| 尺蠖伸時屈 | 척학의 굴신도 때가 있고 |
| 句萌秋復春 | 구맹 ¹⁰³⁸ 도 봄가을을 맞는 법 |
| 人生百歲遠 | 인생 백년 유장하니 |
| 勿作虛過人 | 헛되이 보내지 말라 |

1038 구맹 : 구맹(句萌)은 『예기』 「월령(月令)」에 이르기를, “계춘의 달에는 … 굵은 것은 다 나오고, 곧게 퍼진 것은 모두 죽죽 자란다. [季春之月 … 句者畢出 萌者盡達]” 한 데서 온 말인데, 구(句)는 초목(草木)의 싹이 막 나올 때 굵은 상태를 말하고, 맹은 싹이 조금 더 나와서 곧게 퍼진 상태를 말한다.

김내선 양식에게 주다

贈金乃善 良植

| | |
|-------|-----------------|
| 冷泉方丈下 | 방장산 아래 냉천 마을 |
| 風俗自渾渾 | 풍속이 절로 혼혼하다 |
| 山蕨供朝卓 | 산 고사리는 아침을 제공하고 |
| 川魚佐午餐 | 시내 물고기는 점심을 돕는다 |
| 蘿菴覆平野 | 나복이 평야를 덮었고 |
| 木綿盈一原 | 목면은 들을 메웠다 |
| 鳳城擅福地 | 구례는 복을 독점했으니 |
| 將見更尋源 | 다시 근원을 찾으리라 |

지가림의 서실에 쓰다

題池可林書室

| | |
|-------|-------------------|
| 可林協意人 | 가림은 뜻에 맞는 사람 |
| 頻問病中身 | 자주 병든 몸을 문안했다 |
| 爲父譯荒草 | 부친 위해 거친 초고 번역했고 |
| 教兒散白銀 | 아이 교육에 재산을 쏟았다 |
| 言行恒超等 | 언행은 항상 무리에서 뛰어났고 |
| 隸書亦出倫 | 예서 또한 범상하지 않았다 |
| 溫溫有德氣 | 온화한 덕의 기운 있으되 |
| 臨事自嶙峋 | 일에 임하면 절로 기개가 높았다 |

화엄사에서 풍영계를 닦다

華嚴寺修風詠契

蟾江滾滾智山陽 지리산 남쪽으로 흐르는 섬진강
一大伽藍傍小塘 큰 가람이 작은 연못 곁에 있다
握手名道難再度 명도에서 만남은 두 번 하기 어려워
話心佳節撥千忙 가절에 바쁜 일 제치고 마음을 얘기한다
衆生濟處僧鳴鐸 중생을 구제하며 스님은 목탁 울리고
百劫經來佛據床 백겁을 거치며 부처는 자리를 지키네
走地飛空如咫尺 지척인 듯 땅을 달리고 허공을 나니
何愁驛路短而長 어찌 역로의 길고 짧음을 근심하랴

병중에 읊다

病中吟

讀書六十竟何爲 육십 년 독서가 결국 무엇을 위함인고
身不隨心萬事違 몸이 여의치 않아 만사가 어긋났네
哺餽傳來前聖戒 전성께서 포철을 경계하라 전하시니¹⁰³⁹
況爲士子志能移 하물며 선비로서 뜻을 바꿀 것인가

1039 경계하라 전하시니 : 맹자가 악정자(樂正子)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자오를 따라서 온 것은 한갓 먹고 마시기 위함이니, 나는 그대가 옛날의 도리를 배우면서 먹고 마시는 데에 쓸 줄을 알지 못했노라. [孟子謂樂正子曰 子之從於子敖來 徒餽啜也 我不意子學古之道而以餽啜也]” 하였다. 『孟子』 「離婁上」

곡성에서 단군전을 알현하다

谷城謁檀君殿

浴川城外柏森森 옥천성 바깥 잣나무 삼삼한 곳

臺有鳳凰可十尋 봉황대는 열 길 높이라

十月初三香火薦 시월 초삼일에 향화를 올리니

濟蹠多少集儒林 훌륭한 유림이 많이 모였다

백당 신태윤의 고사를 느끼고

感申白堂泰允故事

倭治殘酷似煎然 왜인의 다스림 불처럼 잔혹하니
國粹精神散如烟 국수의 정신이 연기처럼 흩어졌다
隻拳呼號禁壓裏 탄압 중에도 홀로 외치니
檀君統緒縷如傳 단군의 통서가 실처럼 이어졌다

구례에서 매천¹⁰⁴⁰의 사당을 알현하다

求禮謁梅泉祠

| | |
|---------|-------------------|
| 韓末堂堂黃進士 | 한말의 당당한 황진사여 |
| 爲悲槿域沈淪死 | 근역의 침륜을 슬퍼하며 죽었다 |
| 鳳城之外數間祠 | 봉성 바깥 몇 칸의 사당에 |
| 采藻蟾江將祀事 | 섬진강 마름 캐어 제사를 받든다 |

1040 매천 : 매천은 황현(黃玹, 1855~1910)의 호이다. 조선 후기의 우국지사(憂國之士)로,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피탈이 되자 국치(國恥)를 통분하며 절명시(絶命詩) 4편을 남기고 음독 순국하였다. 『매천야록(梅泉野錄)』은 한국 최근제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된다.

윤추계¹⁰⁴¹의 묘소를 찾다

過尹湫溪墓

吾邦制度倣中州 우리나라의 제도는 중원을 본뒀으니
不着布巾渾脫頭 포건을 쓰지 않으면 민머리나 마찬가지로
始識先生心慮遠 비로소 선생의 원대한 심려를 알았으니
後民前士示千秋 전후의 선비와 백성에게 천추를 보인 것

1041 윤추계 : 조선 전기의 문신인 추계(湫溪) 윤희손(尹孝孫, 1431~1503)이다.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유경(有慶),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1453년(단종1) 문과에 급제하고 의정부 사인이 되었으나 아버지의 병으로 사직하여 장흥 부사(長興府使)가 되었다. 그 후 전주 부윤이 되었을 때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포상할 것을 청하자 성종은 감탄하여 당표리(唐表裏)를 하사하였다. 경상도 관찰사,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형조 판서, 우참찬에까지 이르렀다. 『경국대전』과 『오례의주(五禮儀註)』를 수찬하고, 세자의 복식을 정하는 등 국가의 의전을 정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구례 칠의단¹⁰⁴² 절구 3수

求禮七義壇 三絶

1

泰山萬丈壓孤城 만장 태산이 고성을 압도하니
義士堂堂寫血盟 당당한 의사들이 혈맹을 기록했다
螢火燐燐疑鬼火 반딧불은 귀화인 듯 반짝이고
江聲恰似咽鳴聲 강물 소리도 오열하는 소리인 듯

2

湖嶺之間一水通 호남과 영남을 통하는 물길
此爲喉厄亂離中 이곳은 난리 중에 요충지라
壬辰蟻附倭千萬 임진년에 개미 떼 같은 왜놈들을
殲滅於斯起烈風 여기서 섬멸하여 열풍을 일으켰다

3

江上壘壘七義壇 강가에 연이은 칠의사 제단
至今想像骨猶寒 지금도 상상하면 뼈속이 차갑다
水聲如帶干戈氣 물소리도 간과의 기운을 품은 듯
昭乎日月照衷丹 밝은 일월이 단층을 비춘다

1042 칠의단: 칠의단은 임진왜란 때 구례(求禮) 석주관(石柱關) 전투에서 순절한 칠의사(七義士)를 모신 곳이다.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구례현감 이원춘(李元春)과 석주관 전투에서 전사한 왕득인(王得仁) 등 칠의사 위패가 모셔져 있다.

제석에 느낌이 있어서

除夕有感

病臥中宵歲欲除 한밤의 병석에서 한 해가 가는데
愁如春草剪難除 춘초와 같은 시름 없애기 어렵네
回思往事眠不得 지난 일 회상하며 잠들지 못하니
其奈邪萌且未除 사특한 싹을 제거 못 해 어찌하랴

취송 김영달의 서실에 쓰다

題金翠松 永達 書室

| | |
|---------|--------------------|
| 世德清州長保春 | 청주의 세덕을 길이 보존했으니 |
| 應知後日福振振 | 후일에 복이 넘칠 것을 알겠네 |
| 深宵風過琴聲憂 | 깊은 밤 바람 불어 거문고 소리요 |
| 萬壑雪封玉色新 | 만학에 눈이 덮여 옥빛이 새롭네 |
| 水面影沈龍偃蹇 | 수면에 잠긴 그림자 용이 꿈틀대고 |
| 月中露冷鶴精神 | 달빛에 찬 이슬은 학의 정신일세 |
| 予慙軟弱蒲之質 | 부끄럽다 나는 연약한 포류의 자질 |
| 脫俗何時得卜隣 | 언제 세속 벗어나 그대와 이웃할까 |

고금오의 서실에 쓰다

題高錦塢書室

| | |
|-------|------------------|
| 華胄長興氏 | 명가의 후손 장흥 고씨 |
| 聲望一國中 | 나라 안에 성망이 높으니 |
| 父曾殉節死 | 부친은 일찍 순절하셨고 |
| 子亦復讐忠 | 자식 또한 복수하여 충성했다 |
| 歷數何誰姓 | 헤아리면 어떤 성씨 그러했나 |
| 獨承家世風 | 홀로 세가의 풍격을 이었다 |
| 君今重舉止 | 군은 이제 거지를 무겁게 하여 |
| 且可作幘幪 | 장차 국가의 장막이 될지어다 |

울산 이희재의 서실에 쓰다

題栗山李曦載書室

| | |
|---------|----------------------|
| 廣州甲冑擅吾方 | 광주의 갑주는 우리 동방 으뜸이니 |
| 先世何年謫貝陽 | 선세 어느 해에 보성으로 폄적됐나 |
| 帶得程川心滌潔 | 정천을 띠어서 마음을 세척하고 |
| 案爲糧島計豐穰 | 양도를 앞산 삼아 풍성함을 꾀하네 |
| 文章車載應華國 | 한없는 문장은 나라를 빛내겠고 |
| 人傑斗量可作梁 | 수많은 인걸은 동량이 되리라 |
| 叔季猶知從問學 | 형제가 여전히 학문할 줄을 아니 |
| 多君朝暮與連牀 | 그대들은 조석으로 책상 이어 공부하라 |

김신정의 서실에 쓰다

題金新亭書室

| | |
|---------|------------------------|
| 來往今過數十年 | 서로 왕래한 지 이제 수십 년 |
| 曾知操執石金堅 | 금석 같은 지조는 진즉 알았다 |
| 譜同一國尋源系 | 족보는 일국을 대동하여 원계를 찾았고 |
| 祠合三賢薦豆籩 | 사당엔 삼현을 합사하며 변두를 올린다 |
| 身縱拙於謀飽煖 | 몸은 생계를 도모함에 졸렬하나 |
| 心常饒欲濟顛連 | 마음은 늘 어려운 이들 구제하였다 |
| 明燈勤讀終何有 | 밝은 등에 부지런한 독서는 끝내 무엇인고 |
| 蝸室起居信彼天 | 와실에서 기거하며 천명을 따른다 |

청탄서실에 쓰다

題聽灘書室

| | |
|---------|----------------------|
| 遂仁山下有名村 | 수인산 아래 이름난 마을 |
| 修老遺風尙得存 | 수로의 유풍이 아직 남아있네 |
| 治績夏燈忘午夜 | 여름 등불 아래 길쌈으로 밤을 잊고 |
| 迎賓秋秫釀深樽 | 손님 맞아 가을 벼로 술을 담근다 |
| 峻嶒鞍岫藏清氣 | 높은 안산은 맑은 기운 머금었고 |
| 屈曲內江見道源 | 구불구불한 예강에서 도의 근원을 본다 |
| 垂釣聽灘塵事遠 | 청탄에서 낚시하니 속세의 일 멀기만 |
| 依依寤寐在鄉園 | 항상 애뜻하게 향원에서 소요한다 |

진난정의 서실에 부쳐 쓰다

寄題陳蘭汀書室

| | |
|---------|----------------------|
| 數間層屋聳蒼空 | 수 칸 층층가옥 창공에 솟아 |
| 坐臥千編堆積中 | 많은 서책 속에 기거하네 |
| 松影入簾來瑟瑟 | 솔 그림자 발에 드니 비파 소리 오고 |
| 蘭叢在案送香風 | 서안의 난초는 향풍을 보내네 |
| 能通史書知文法 | 사서에 능통하며 문법도 알고 |
| 善賦歌詩協羽宮 | 시가를 잘 읊고 음악도 조율하네 |
| 始信湖南女流界 | 비로소 믿나니 호남의 여류계에서 |
| 芳名可以得無窮 | 무궁한 방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 |

홍운봉의 벽에 쓰다

題洪雲峯壁

| | |
|---------|---------------------|
| 錦城山下金安里 | 금성산 아래 금안리는 |
| 昔有盤桓已奠居 | 예부터 소요하며 터를 정했네 |
| 倚竹披襟風過際 | 바람 불면 대나무 기대 옷깃 헤치고 |
| 撫松散策月生初 | 달이 오르면 술 만지며 산책하네 |
| 貫通今古醫治術 | 고금의 의술을 관통하고 |
| 遍觀東西針灸書 | 동서의 침구서를 두루 읽었다 |
| 賓客填門爭恐後 | 문을 메운 빈객들 뒤질까 저어한데 |
| 慙慙有志引余裾 | 은근한 뜻으로 나의 옷깃 당기네 |

심자상 정섭에게 주다

贈沈子祥 禎燮

| | |
|-------|------------------------------|
| 貝城獐山下 | 보성의 장산 아래는 |
| 風俗頗醇厚 | 풍속이 매우 순후하여 |
| 沈氏自成村 | 심씨가 마을을 이루고 |
| 學問崇節義 | 학문은 절의를 높인다 |
| 君是華閥胄 | 군은 명가의 후손으로 |
| 主鬯二十世 | 이십 대의 제사를 주관하고 |
| 貯書數千卷 | 장서는 수천 권이라 |
| 文昌星來照 | 문창성이 와서 비춘다 |
| 縱然斯亦稀 | 이 또한 드문 일이지만 |
| 實行乃爲貴 | 실천이 이에 귀한 법 |
| 運意綴語際 | 뜻을 운용하여 말을 엮을 때 |
| 文勢使滂沛 | 문장의 기세 성대케 하라 |
| 文雖與時異 | 문체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
| 體制自相似 | 체제는 절로 유사한 법 |
| 博通古今書 | 고금의 서책을 박통한 연후에 |
| 然後可窺古 | 고인을 엿볼 수 있으리라 |
| 尼父亦爲畏 | 니보께서도 외경한 것은 ¹⁰⁴³ |
| 以其餘年富 | 남은 세월이 많기 때문이라 |

1043 니보께서도 외경한 것은 :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후생이 외경할 만하니 미래가 어찌 오늘날 못할 줄 알겠는가. [子曰 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知今也]” 하였다. 『論語』 「子罕」

김소산 병학의 서실에 쓰다

題金蘇山炳學書室

| | |
|-------|------------------|
| 扶寧鎮東國 | 부안은 동국의 진산이요 |
| 邊山濱西海 | 변산은 서해 가에 있네 |
| 金氏歷麗韓 | 김씨는 고려와 대한을 거치며 |
| 可至千萬麗 | 천만의 수에 이르렀다 |
| 科宦可盈百 | 과거는 거의 백을 채우고 |
| 上庠亦車載 | 상상 또한 수없이 많았다 |
| 村村淳朴俗 | 마을마다 순박한 풍속이요 |
| 家家忠孝戒 | 집집마다 충효를 훈계하였다 |
| 其間有一士 | 그사이에 한 선비 있으니 |
| 頎然如玉晰 | 흰칠하여 옥처럼 빛난다 |
| 濡染家庭訓 | 가정에서 훈도를 받았고 |
| 且嫻外邦語 | 외국어 또한 능숙하다 |
| 君姿亦聰慧 | 군의 자태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
| 言行極爲可 | 언행도 지극히 훌륭하니 |
| 百年如石火 | 석화와 같은 백년 세월에 |
| 勿負吾所事 | 자신의 일을 저버리지 말라 |

덕암 김평호의 서실에 쓰다

題金德巖 枰鎬 書室

光山氏閥孰比肩 광산의 별족을 누가 비견하랴
況是文忠爲祖先 하물며 문숙공 충숙공이 선조시니
師水心淸鑑鏡裏 물처럼 맑은 마음은 거울 속을 비추고
懸河口給壓樽前 현하의 언변은 술자리를 압도한다
煮茶話處風來檻 차 달이며 얘기하니 난간에 바람 불고
釀酒吟時月上椽 술 따르며 읊을 제 처마에 달이 뜬다
滿架圖書多損壞 서가에 가득한 도서는 훼손이 많으니
應知讀盡絕韋編 아마도 독서에 위편이 끊겼으리라¹⁰⁴⁴

1044 위편이 끊겼으리라 : 위편삼절(韋編三絶)의 고사로, 책이 다 떨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읽는 것을 말한다. 공자(孔子)가 말년에 『역경(易經)』을 좋아하여 많이 읽은 탓에 『역경』을 묶은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고 한다. 『史記』卷47「孔子世家」

백용암 광인에게 주다

贈白龍菴 廣寅

| | |
|-------|------------------|
| 君是同鄉客 | 군은 동향의 객으로 |
| 龍江爲嫡兄 | 용강이 친형이 된다 |
| 漢陽長幣店 | 한양에서 은행장이 되었고 |
| 瑞石近書檠 | 서석에서 서등을 가까이 했다 |
| 奉親如奉玉 | 아버이 섬김은 옥을 받듯 |
| 撫姪似撫晶 | 조카를 보살핌은 수정을 만지듯 |
| 他日相逢處 | 훗날 서로 만나면 |
| 保來古族名 | 옛 가문의 명성 보존하라 |

김자득 명수에게 주다

贈金子得 命洙

| | |
|-------|--------------------|
| 涖官規縱多 | 관직의 규범 비록 많으나 |
| 淸愼勤三字 | 청신근 세 글자라네 |
| 正己乃治人 | 자기를 바르게 해야 남을 다스리니 |
| 安能一念怠 | 어찌 한 생각 게을리하라 |
| 人生天地間 | 사람이 천지간에 살아감에 |
| 絲穀豈無悲 | 의식에 어찌 슬픔이 없으랴만 |
| 常奉聖賢語 | 항상 성현의 말씀을 받들어 |
| 勿忘百歲爲 | 백년의 일을 잊지 말지어다 |

학헌 이학재의 서실에 쓰다

題鶴軒李鶴宰書室

| | |
|-------|----------------|
| 以鶴揭于額 | 학을 편액으로 걸었으니 |
| 斯軒名合情 | 학헌의 명칭이 어울린다 |
| 阜中夏曳響 | 언덕에 학의 소리 울리고 |
| 雲表翱翔清 | 구름 가에 맑게 비상한다 |
| 道士馴爲伴 | 도사는 길들여 벗을 삼고 |
| 仙人驂得縈 | 신선은 등에 타고 맴도나니 |
| 齋號請勿負 | 서재의 호칭 저버리지 말고 |
| 晝夜近長檠 | 주야로 장경을 가까이 하라 |

서은 송진한 교수의 서실에 쓰다

題瑞隱宋 鎮韓 教授書室

| | |
|-------|-----------------------|
| 君訪三省日 | 그대 삼성실을 방문하던 날 |
| 一見知超倫 | 한 번 보고 절륜함을 알았네 |
| 清顏如少年 | 소년처럼 맑은 얼굴은 |
| 可謂德潤身 | 덕이 몸을 윤택하게 한 것 |
| 不惑猶髮白 | 불혹에도 머리가 섰으니 |
| 亦知螢雪辛 | 또한 형설의 신고함이라 |
| 心白涅不緇 | 결백한 마음 물들지 않고 |
| 操堅磨不磷 | 굳센 지조는 닳지 않았네 |
| 洋學比鏹鐵 | 서양의 학문이 놋쇠라면 |
| 國文是金銀 | 국문은 금은과 같은지라 |
| 大學教人法 | 대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법은 |
| 使人日日新 |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 |
| 學問死後已 | 학문은 죽은 이후에 마치니 |
| 深遠可無垠 | 심원하여 끝이 없다네 |
| 騏驕不一步 | 천리마도 교만하면 일보도 나가지 못하고 |
| 螻蛄千里臻 | 자벌레는 지든하나 천리에 이르니 |
| 大舜父母頑 | 대순은 부모가 완악하였으나 |
| 終身慕其親 | 종신토록 아버이를 사모했다네 |
| 縱橫東西籍 | 동서의 서적을 두루 섭렵하여 |
| 屹爲詞壇珍 | 우뚝 학계의 보배가 될지어다 |

애일당 김효순의 유거에 쓰다

題愛日堂 金孝淳 幽居

| | |
|-------|-----------------|
| 玉立數竿竹 | 옥빛으로 선 몇 줄기 대나무 |
| 忽見來祥禽 | 홀연 상서로운 새가 보인다 |
| 爾能知我意 | 나의 뜻을 아는지 |
| 盡日向人吟 | 종일 나를 향해 지저귀다 |

부 록

만취 위공의 행장[晚翠魏公行狀]

공은 휘 계도(啓道), 자 경배(敬培)이며 만취(晚翠)는 그 호이다. 위씨(魏氏)는 선대(先代)에 휘 경(鏡)이 당(唐)나라의 학사(學士)로서 신라(新羅)에 와서 벼슬하게 되어 관직이 대아찬(大阿飡)에 이르고 회주군(懷州君)에 봉해졌는데, 회주는 곧 장흥(長興)의 고호(古號)니 자손들이 그대로 관향으로 삼았다. 고려 때에 휘 계정(繼廷)은 벼슬이 태보문하시중(太保門下侍中)에 이르고, 시호(諡號)는 충렬(忠烈)이며, 예종(睿宗)의 묘정(廟庭)에 배식(陪食)되었으니 이분이 중세(中世)의 현조(顯祖)이다. 누대(累代)를 전하여 휘 충(種)이 합문지후(閣門祇候)¹⁰⁴⁵로서 고려가 망하자 조선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의리를 지키다가 진도(珍島)에 유배되었다. 조선(朝鮮)에 들어와서는 휘 덕의(德毅)가 호는 청계(聽溪)인데 임진왜란 때에 임금의 수레를 용만(龍彎)까지 모시고 진원(珍原) 원님으로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니, 오계(鰲溪), 서애(西崖)와 함께 인걸(人傑)로 나란히 일컬어지고 죽천(竹川) 및 황산사(黃山祠)에 제향(祭享)되었다. 휘 정헌(廷獻)을 낳았는데 호 국천(菊泉)으로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창도하여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추증되었다. 3세(世)를 전하여 휘 명성(命成)은 호가 옥호(玉湖)인데 연곡(淵谷)에 서원(書院)을 건립할 때 가장 많은 정성을 바쳤으니 공에게 6세조이다.

고조는 휘 도방(道昉) 호 국헌(菊軒)이고, 증조는 휘 영집(榮集) 호 옥계(玉溪)이며, 조는 휘 윤조(胤祚) 호 초헌(樵軒)인데 이 3세(世)가 모두 행의(行誼)가 있었다. 선고는 휘 석한(錫漢) 호 의재(毅齋)이고 문장과 행실을 모두 갖추었으며 유집(遺集)이 있어 세상에 전해진다. 선비는 해

1045 합문지후(閣門祇候) : 고려 때 각종 의식을 담당하던 각문(閣門) 즉 통례원(通禮院)의 정7품 벼슬이다.

남윤씨(海南尹氏)로 복하(福夏)가 그 선고인데 부녀(婦女)의 의절(儀節)을 지극히 갖추었고 병인년 정월 21일에 관산(冠山) 성산리(聖山里)의 집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7남 1녀 중에 서열이 넷째로, 타고난 성품이 순수하고 정직하였으며 의용(儀容)이 단정하고 차분하였다. 어려서부터 재주와 지혜가 있었고 조금 자라서는 항상 문학(文學)을 익히니 문중의 부로(父老)들이 매우 사랑하였다. 일찍부터 선친의 가르침을 받들어 겨우 5세에 종형(從兄)인 인재공(忍齋公 위계동(魏啓同))의 가숙(家塾)에 나아가 배워 쇄소진퇴(灑掃進退)의 예절을 익혔다. 9세가 되자 백 잠계(白潛溪 백형기(白亨璣))의 문하에서 『논어』, 『맹자』, 『증용』, 『대학(大學)』을 숙독하고 마음을 집중하여 반복하였으며, 17세에 화산(華山) 조교석(曹教錫)을 당동(堂洞)의 사제(私第)로 초빙하여 여러 해 동안 경사자집(經史子集)을 공부하여 대의(大義)를 두루 관통하였다. 그 후 김효당(金曉堂 문옥(文鈺)) 선생의 문학과 지절(志節)이 훌륭하다는 명성을 듣고서 곧바로 절산(節山)에 가서 집지(執贄)하고 경사(經史)의 심오한 뜻과 의리의 정미(精微)함에 대하여 의심이 들면 반드시 묻고 알아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조예(造詣)가 나날이 깊어지니 선생의 칭찬이 적지 않았고 사우(士友)들도 모두 공을 추중(推重)하여 원대함을 기대하였다. 이윽고 효옹(曉翁)이 가족을 데리고 벌교(筏橋)에 와서 거주하자 사방의 사우들이 경서를 들고 따르니 문풍(文風)이 크게 흥성하였다.

경자년 봄에 스승이 다시 절동(節洞)으로 이주(移住)하여 불행히 세상을 떠나셨으니, 당시에 공의 나이가 35세였다. 장례를 마친 뒤에 공은 선생께서 살던 집에 살면서 선생께서 하시던 학문을 하였다. 또 절동의 여러 벗들과 더불어 계(契)를 하나 맺어서 이름을 ‘금곡음사(琴谷吟

社)라 하고 서로 나란히 산수가 아름다운 곳의 정자와 누대를 찾아가 더불어 시를 읊고 각자 자기의 뜻을 말하곤 하였다. 공이 일찍이 영사재(永思齋)에 모여 술을 마실 때 지은 시에 이르기를, “뜰의 이끼 밟으며 찾는 객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 창문 밖에 들리네. 우연한 청유가 사군을 경도하니, 높고 기특한 기상 청운조차 하찮구나. 열북(洌北)의 강 언덕 무너졌다고 말하지 말라, 호남의 풀은 뿌리까지 말라 탄식하네. 해 저무는 청산에 말을 몰아 돌아가니, 신선의 자취 함께 못함을 어찌하라.” 하였는데, 시대를 한탄하고 세상을 서글퍼한 심정을 볼 수 있다. 효당 옹께서 돌아가신지 10여 년 뒤에 문생(門生) 및 다사(多士)가 사당을 세우기로 발의(發議)하고 공이 그 일을 주간(主幹)하였다. 경향(京鄕) 각지에서 뜻이 있는 자들이 메아리처럼 호응하여 재물을 모으고 자금을 만들어 빛나는 재실(齋室)을 지어서 영정(影幀)을 봉안하고 사림(士林)이 제사를 모셨으니 그 스승을 존송하고 은덕을 갚는 정성이 지극하였다.

공이 항상 말하기를, “자식이 된 자는 반드시 효제충신(孝悌忠信)을 근본으로 삼아야 사람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학자(學者)는 농민들의 피약별 밭두둑에서의 노고를 몰라서는 안 된다.” 하고, 농번기가 되면 제생(諸生)들과 더불어 논에 가서 모내기를 거들어 그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부모를 모심에 뜻과 몸을 극진히 봉양하였고, 거상(居喪)할 때에는 슬퍼함이 예를 넘을만큼 곡진하였고, 기일(忌日)이 되어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듯 정성을 극진히 하여 가도(家道)를 이루었다. 형제들과 화락하게 지냈고 종친(宗親)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온화하고 신의가 있었다. 성품이 또 술을 즐기었으며 어지러움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남의 좋은 점을 즐겨 말하면서도 잘못까지 덮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공을 덕이 있는 군자라고 칭송하였다.

공의 나이 58여 세 때에는 절동(節洞)으로부터 광주부(光州府) 산수동(山水洞)에 와서 우거(寓居)하여 방 한 칸에 한가하게 지내며 ‘삼성(三省)’이라는 이름을 걸었다. 소문을 듣고 배움을 청하는 자들이 날마다 문에 가득 차니 분수에 따라 역량을 채워주면서 가르침을 게을리 않았으므로 공의 문하(門下)에 점잖고 반듯한 선비들이 적지 않았다. 또 김일청(金一淸), 윤중헌(尹重軒) 등 제공(諸公)들과 더불어 관선회(觀善會)를 만들어 달마다 강마(講磨)하면서 무진음사(武珍吟社)의 사우(士友)들과 함께 서로 수작(酬酌)하고 음영(吟詠)하자 광주부 전 경내의 유풍(儒風)이 진작(振作)되었는데, 불행하게도 풍질(風疾)에 걸려 기묘년 6월 8일에 졸하였으니 어찌 사문(斯文)을 위하여 한탄하지 않겠는가. 장지(葬地)는 관산(冠山) 방촌리(榜村里) 신기(新基)의 왼쪽 산기슭의 부자(負子) 언덕에 있다. 원배(元配)는 영광김씨(靈光金氏) 재섭(在燮)의 따님인데 현숙하였으되 자식을 낳지 못하였고, 배는 광산김씨(光山金氏) 홍현(洪鉉)의 따님인데 3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은 만철(萬喆), 승철(丞喆), 홍철(洪喆)이고, 딸은 나주(羅州) 임선우(林善宇), 김해(金海) 김보현(金保炫), 충주(忠州) 박승규(朴勝圭)에게 출가하였다. 내외손(內外孫)은 아직 어리다.

아, 공은 뛰어나고 순수한 재주와 자질로 일찍부터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뜻을 가다듬고 독실하게 배워서 경사자전(經史子傳)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공부하였고 그 문학(文學)과 행의(行誼)와 지절(志節)도 의연(毅然)히 사림(士林)의 본보기가 되었다. 비록 그 명도(命道)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처지에 안주하여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후진(後進)들의 훈도를 자신의 소임(所任)으로 여겼으며, 유학의 명맥을 한 방면에 부지하여 세웠으니, 공이 사문(斯文)에 끼친 공로가 누가 감히 적다고 하겠는가? 평생 지은 시와 글이 매우 많았으나 후세에 전하

기를 꺾이지 않았다. 공의 문인들이 유문(遺文)을 모아 엮어서 한 편(編)을 만들어, 바야흐로 인쇄를 맡기어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니, 그 뜻이 또한 가상하다.

공의 문인(門人) 정사문(鄭斯文) 연태(然台)가 나를 찾아와 초안(抄案)을 보여주면서 공의 행장(行狀)을 부탁하였다. 나는 배움도 알고 글 재주도 없으니 어찌 감히 짓겠는가. 하지만 공이 세상에 계실 때를 추억하니 나를 매우 두텁게 아껴주었고 베푸신 은혜도 많았으니, 목소리와 웃는 모습이 고스란히 어제 일처럼 느껴진다. 이제 이미 구원(九原)으로 돌아가셨으니 통한(痛恨)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정의(情誼)상 끝내 사양할 수가 없어서 공의 평생과 행적의 대개를 간략하게 서술하여 세상의 입언(立言)하는 군자(君子)에게 알려주는 바이다.

단기 4334년 신사 소춘일(小春日)에
곡부(曲阜) 공연웅(孔鍊雄)이 삼가 찬(撰)함

原文 晚翠魏公行狀

公諱啓道，字敬培，晚翠其號也。魏氏之先有諱鏡，以唐學士來仕新羅，官至大阿飡，封懷州君，懷州卽長興之古號也，而子孫仍貫焉。麗朝諱繼廷，官太保門下侍中，諡忠烈，陪食睿宗廟，是爲中世顯祖。屢傳有諱種，閣門祗候，麗社屋守罔僕義，謫于珍島，入鮮朝諱德毅，號聽溪，龍蛇之亂，扈駕龍灣，除珍原不就，與鰲溪西崖，并稱人傑，享竹川及黃山祠。生諱廷獻，號菊泉，丙子胡亂，倡義旅贈掌樂院正，三傳諱命成，號玉湖，淵谷建院時，致誠最多，於公六世祖。高祖諱道防，號菊軒，曾祖諱榮集，號玉溪，祖諱胤祚，號樵軒，三世俱有行誼。考諱錫漢，號毅齋，文行俱備，有遺集傳于世。妣海南尹氏福夏其考，壺儀極備，以丙寅正月二十一日生公于冠山聖山里第。七雁一女，序居四，稟姿純直，儀容端雅。自幼才智，稍長，常習文學，門父老甚愛之。早承庭訓，纔五歲，就學于從兄忍齋公家塾，習得灑掃進退之節。九歲從白潛溪門下，熟讀論孟庸

學，潛心反復，年十七聘曹華山教錫翁于堂洞私第，積年課工經史子集，淹貫大義。後聞金曉堂先生文學志節之高名，乃執摯于節山，經史之奧意，義理之精微，有疑必問，不知不措。由是造詣日深，先生稱詡不尠，士友莫不推重，期以遠大。既而曉翁挈家來住筏橋，四方士友執經從之，文風蔚興。及至庚子春，再移節洞，不幸易簀，時公年三十有五矣。葬畢後，公居先生之廬，爲先生之學，且與節洞諸友，結一契，名以琴谷吟社，襟裾相連，每尋山水佳處，亭榭樓臺，與之賦詩，各言其志。公嘗會飲于永思齋，有詩曰“門庭無客破苔文，剝啄今朝隔戶聞，邂逅清遊傾四郡，嶙峋奇氣唾青雲，休言瀨北江崩岸，堪嘆湖南草枯根，落日青山鞭馬去，仙蹤其奈不同群。”可見其感時傷世之意也。曉翁歿後十餘年，門生及多士，發議建祠，公主其事，京鄉各地有志者，莫不響應，鳩財成資，煥然齋成，奉安影幀，士林行祀，其尊師報恩之誠，可謂至矣。公恒言曰“爲人子者，必以孝悌忠信爲本，乃可謂人子者矣。”又曰“學者不可以不知農人夏畦之苦。”及其農繁，與諸生往助稼役，使不失其時。至於事親也，極養志體，居喪也，哀毀過節，當忌必致如在之誠，家道乃成，于兄于弟，洽而湛樂。處宗接人，和而有信，性且嗜酒而不及其亂，樂道人善而不掩有過，人稱有德君子矣。公年五十餘，自節洞來寓光府山水洞，燕居一室，掛以三省，聞風請益者，日常盈門，隨分充量，誨誘不倦，在公之門下，雅飭之士，不少焉。又與金一清，尹重軒，諸公設觀善會，逐月講磨，與武珍吟社士友，相酬吟詠，光府一境儒風振作，不幸罹風疾，己卯六月八日卒，豈不爲斯文恨也。葬在冠山傍村里新基左麓負子原。配靈光金氏在變女，賢而無育，配光山金氏洪鉉女，育三男三女。男萬喆，丞喆，洪喆，女適羅州林善宇，金海金保炫，忠州朴勝圭。內外孫尚幼。嗚呼，公以卓犖純粹之才質，早從師訓，勵志篤學，經史子傳，無漏纖悉，其文學行誼與志節，毅然爲士林之儀範。雖其命道多舛，安於所遇，不怨不尤，惟以訓迪後進爲己任，扶植儒脈於一坊，其於斯文之功，孰敢曰少之哉。平生所著詩若文甚多，而不爲傳後計，門人綴拾遺文，哀集一編，而方付手民，以圖不朽，其意亦嘉尚矣。公之門人鄭斯文然台訪余，示以抄案，屬爲狀行。顧以淺學不文，安敢乎哉。追想公之在世，愛我甚厚，受賜亦多矣，聲音笑貌，依然如昨。今已九原矣，痛恨何極，於誼終辭不獲，略敘公之生平行蹟之大概，諗夫世之立言君子云。

檀紀四三三四年辛巳小春日 曲阜 孔鍊雄 謹撰

만취 위공의 묘갈명 병서[晚翠魏公墓碣銘 并序]

송(宋)나라 후산(后山) 진씨(陳氏)¹⁰⁴⁶가 증남풍(曾南豐)¹⁰⁴⁷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독실하게 흠모하고 변치 않았다. 그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첩박명(妾薄命)」¹⁰⁴⁸이라는 시(詩)를 지어 이르기를, “소리는 하늘에 들릴 것이고, 눈물은 구천(九泉)에 흐르리라. 죽은 분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니, 이 내 몸만 길이 서글퍼하리.” 하였고 또 말하기를, “한평생 향불 하나 피워서 삼가 증남풍께 올리노라.” 하였으니, 천년 후에도 오히려 사람을 감동시켜 울게 한다.

오호(嗚呼)라, 근래에 작고(作故)한 나의 벗 만취(晚翠)공이 스승인 효당(曉堂) 선사(先師)에 대한 일 또한 그러하였다고 이를 만하다. 공은 처음에 나와 화순(和順) 절산(節山)의 함석(函席) 아래에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공은 그때 막 약관(弱冠)의 나이를 넘었고 장흥(長興)으로부터 와서 여러 해 머물렀다. 용모가 단정하고 기개가 차분하여 부지런히 공부하니, 서숙(書塾)에 함께 기거하는 자들이 7~8인이었으되 공의 학문이 가장 부유하였으므로 스승이 간혹 외출하면 모두 대신 과목을 전수하여 그로 인해 ‘부선생(副先生)’이라고 일컬었다. 나는 공보다 다섯 살이 적었는데 공에게 얻은 유익함이 특히 많았다. 그 후 시사(時事)가 어수선하여 스승께서 한곳에 항시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으나 공은 항상 배종(陪從)하면서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나는 도리어 전일하게 종유

1046 후산(后山) 진씨(陳氏) : 송대(宋代)의 시인(詩人)인 진사도(陳師道)이다.

1047 증남풍(曾南豐) : 송대(宋代)의 명사(名士)인 증공(曾鞏)을 말함. 남풍(南豐) 사람으로 자는 자고(子固),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당송팔가의 한 사람이다.

1048 첩박명(妾薄命) : 북송(北宋)의 진사도(陳師道)가 스승 증공(曾鞏)을 잃은 슬픔을 박복(薄福)한 첩(妾)에 비겨서 읊은 시로, “예로부터 첩은 운명이 기구하여, 입을 섭기는 데에 해를 마치지 못하였네. 일어나 춤추며 임의 장수를 빌었건만, 서로 남양의 무덤길로 전송하고 말았네. 어찌 차마 임의 옷을 걸치고, 남을 위하여 몸단장할 수 있으랴.” 하였다. - 『古文眞寶前集』 卷2 「妾薄命」

(從遊)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간 적이 많았다. 간간이 한 번씩 찾아보면 선생께서는 믿어 아끼고, 공은 떠나지 않고 스승을 존모함이 더욱 견고하여 그 정의가 거의 골육(骨肉)보다 더 깊었다. 급기야 스승께서 돌아가실 때 공에게 집안일을 신신당부하셨고, 공은 삼가 받들어 어기지 않겠다고 승낙하였다. 스승께서 돌아가신 후 드디어 그곳에 머물며 집에 돌아가지 않고서 수업을 맡아 십수 년간 문도(門徒)를 가르치다가 스승의 아들이 성장하여 그 집안일 맡기를 기다려 물러 나와 광주(光州)에 거주하였다. 또 스승의 유집(遺集)을 간포(刊布)하고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제전(祭田)을 사들여 마련하는 일 등을 힘껏 주선하였으니, 대체로 한 가지 일도 공을 통하지 않고 성사된 것이 없었다.

오호라, 효옹(曉翁) 선사께서 공을 믿고 의지함이 이처럼 깊고 지극한 것이 어찌 우연이겠으며, 공이 스승에게 보답한 것도 또한 어찌 그리 정성스러웠던가. 이것은 또한 후산(后山)에게도 있지 않았던 일인 듯하다.

이제 선사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40년이나 되고 공이 세상을 떠난 지도 3년이 지났다. 공의 문도(門徒)들이 바야흐로 공의 유문(遺文)을 모아 편집하여 인쇄하려고 하면서 김군(金君) 영웅(永雄)이 공의 맏아들 만철(萬喆)의 뜻으로 나를 찾아와 묘갈명(墓碣銘)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내가 어찌 감히 할 일이겠는가. 그러나 정의(情誼)를 헤아리면 한사코 거부할 수가 없었다.

살펴보건대, 공은 휘 계도(啓道)요, 자 경배(敬培)이고, 만취(晩翠)는 호이다. 위씨(魏氏)의 선계(先系)는 당(唐)나라의 학사(學士)인 경(鏡)이 신라(新羅)에 와서 벼슬하여 관직이 대아찬(大阿飡)에 오르고 회주군(懷州君)에 봉해졌는데, 회주는 뒤에 장흥(長興)으로 개칭(改稱)되었으며 인하여 관적(貫籍)으로 삼았다. 고려 때에 시중(侍中) 휘 계정(繼廷)은 시호(諡號)가 충렬(忠烈)이요, 몇 대를 전하여 휘 충(種)이 함문지후

(閣門祇候)로서 고려가 망하자 새 조정의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진도(珍島)에 유배되었다. 이조(李朝)에 들어와서는 임진왜란 때 휘 덕의(德毅) 호 청계(聽溪)가 어가를 호종한 공로로 진원(珍原)원님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휘 정헌(廷獻)은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창도하여 장악원정(掌樂院正)에 추증되었다.

고조는 휘 도방(道昉)이고, 증조는 휘 영집(榮集)이고, 조는 휘 윤조(胤祚)이고, 선고는 휘 석한(錫漢)으로 유집(遺集)이 있어 세상에 전해진다. 선비는 해남윤씨(海南尹氏) 복하(福夏)의 따님인데 대한이 망한 후¹⁰⁴⁹ 첫 병인년 정월 21일에 성산(聖山)의 집에서 공을 낳았다.

어려서는 종형(從兄)인 인재(忍齋 위계동(魏啓同))에게 배웠고 스승에게 나아가 배울 나이가 되어서는 부친의 명으로 잠계(潛溪) 백공(白公 백형기(白亨機))에게 가서 경전(經傳)을 수학하였으며, 얼마 뒤에는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錡) 선사(先師))에게 나아가 드디어 분의(分義)를 정하였다. 공은 아들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으니 부모께서 매우 마땅하게 여겼고, 동기간에 우애하여 온 집안이 화목하였으며 자제들도 올바른 행실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법도가 있는 집안이라고 칭찬하고, 문도(門徒)들도 심복하여 매우 정성껏 공을 모셨으니, 덕이 있고 학식이 있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였겠는가.

중년에는 제공(諸公)과 더불어 관선회(觀善會)를 설립하여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경사(經史)를 강론하였고, 또 음사(吟社)를 만들어 때때로 사림(士林)들과 함께 산수(山水) 사이에서 풍영(風詠)하였다. 얼마 후에

1049 대한이 망한 후 : 원문의 옥사(屋社)는 멸망한 나라의 사직(社稷)을 뜻한다.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천자의 대사(大社)는 지붕을 덮지 않아 서리·이슬·바람·비를 직접 맞게 하여 천지의 기운이 통하게 한다. 이런 까닭에 망한 나라의 사직에는 지붕을 만들어 하늘의 양기를 받지 못하게 한다. [天子大社 必受霜露風雨 以達天地之氣也 是故喪國之社屋之 不受天陽也]” 하였다.

풍질(風疾)에 걸려 몇 년간 신음하다가 마침내 기묘년(己卯年) 6월 8일에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은 74세다. 원근(遠近)의 사람들이 너나없이 사문(斯文)을 위하여 서로 조문(弔問)을 하였으며, 방촌(傍村) 새터(新基)의 왼쪽 산기슭 부자(負子) 언덕에 장사 지냈다.

배필은 영광김씨(靈光金氏)로 재섭(在燮)의 따님인데 자식이 없고, 계배(繼配)는 광산김씨(光山金氏)로 홍현(洪鉉)의 따님인데 3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은 만철(萬喆), 승철(丞喆), 홍철(洪喆)이고, 딸들은 나주(羅州) 임선우(林善宇), 김해(金海) 김보현(金保炫), 충주(忠州) 박승규(朴勝圭)에게 출가하였다.

공은 생전에 항상 말하기를, “사람은 마땅히 효제(孝悌)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공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장(兄長)에게 공경하였으니 자신의 말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리고 공이 스승을 독실하게 높인 점은 더욱 드러내어 알려져서 후세에 전할 만하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스승을 부친처럼 모시어
별세 후 머무름은 단목씨(端木氏)¹⁰⁵⁰의 기한을 넘었고
문도를 마음을 다해 가르치고
유고는 궤연을 철거할 때 간행하였네
향년(享年)은 고희를 넘겼으니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집안에는 뜻을 계승하는 자식 있으니
전통은 영원히 드리워지리라

신사년(辛巳年) 남지절(南至節)에
성주(星州) 이백순(李栢淳)이 찬(撰)함

1050 단목씨(端木氏) : 단목(端木)은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인 자공(子貢)의 성(姓)이고 그의 이름은 사(賜)이다. 자공은 스승 공자에 대해 6년 상을 이행하였다.

原文 晚翠魏公墓碣銘 并序

宋后山陳氏，師事曾南豐，篤慕無貳，於其歿，作「妾薄命」詩曰‘有聲當徹天，有淚當徹泉，死者恐無知，妾身長自憐’，又曰‘平生一瓣香，敬爲曾南豐’千載之下，尚足以令人感涕。嗚呼，如近故吾友晚翠之於曉堂先師，亦可謂云爾矣。公始與余，相知於和順之節山函席之下，公時方逾弱冠，來自長興留有年。貌端氣靜，勤於做工，同塾者爲七八人而公學最富，師或駕外，皆代爲授課，因稱以副先生。余少公五年，其得益尤多，厥後時事搶攘，師不能恒於厥居，而公每陪從，未嘗離左右，余顧不專從遊，頗有他適，間一往拜則先生信愛，公不捨而尊慕先生愈固，其情義殆過於骨肉。及先生將啓手足，申申囑以家事，公謹奉諾不違。樛頹後，遂留不歸，幹其蠱，誨其徒者數年，俟師子長而克家，然後退去家光州，又盡力周旋於遺集之刊布，祠宇之營建，祭田之買置，蓋無一事之不由公而成者。嗚呼，曉翁先師之所以服公如此其深且至者，豈偶然哉，而公所以報佛者，又何其勤也。此又恐后山所未有也。今先師之歿，已四十年，公棄世亦三年矣。公門徒方哀輯公遺文，付諸劄副氏，金君永雄以公允萬喆意來，要阡銘於余，余烏敢哉。揆之情義，不可牢拒，按公諱啓道，字敬培，晚翠號也。魏氏之先，唐學士諱鏡來仕新羅，至大阿滄，封懷州君，懷州後改長興，因以爲籍。高麗時有侍中諱繼廷，諡忠烈，數傳諱种，閤門祇候，麗亡罔僕，仍謫珍島，李朝壬亂時，有諱德毅，號聽溪，有扈駕功，除珍原率不就。諱廷獻，丙子倡義，贈樂正。高祖諱道昉，曾祖諱榮集，祖諱胤祚，考諱錫漢，有遺集行世。妣海南尹福夏女，韓屋社後，初丙寅正月二十一日舉公于聖山第。幼從從兄忍齋學，就傳之年，以親命往從潛溪白公，受經傳，已而就曉堂先師，遂定分焉。公修子職無怠，親甚宜之，友于同氣，一門雍睦，子弟有行，人皆稱以法家，門徒心服，服事甚勤，非有德有學而致之乎。中歲與諸公，設觀善會，月一集會，講論經史，又作吟社，時同士林，風詠山水之間。俄嬰風崇，呻嚙數年，竟以己卯六月八日不起，壽七十四。遠近莫不以斯文相吊，葬于傍村新基左麓負子原。配靈光金氏在嬖女，無育，繼配光山金氏洪鉉女，生三男三女。男萬喆，丞喆，洪喆，女歸羅州林善宇，金海金保炫，忠州朴勝圭。公平生有恒言曰“人當以孝悌爲本。”而克孝於親，克悌於兄長，可謂不負所言矣。而其尊師之篤，則尤可表著而傳於後也。銘曰「事師如父，沒而留逾於端木氏之期，授徒盡心，稿能刊布於及撤筵之時，年過古來之稀，可以不悲，家有承志之子，統其永垂。」

歲在辛巳南至節 星州 李栢淳 撰

만취유고의 발문[晚翠遺稿跋]

나의 선사(先師) 효당(曉堂) 김문옥 선생께서 남쪽 지역에서 강장(講帳)을 크게 열었을 때 한 시대의 영특하고 뛰어난 선비들이 경서(經書)를 들고 지고 찾아와 배우기를 청하고 도(道)를 묻는 자들이 매우 많았으니, 이는 참으로 옛 문학을 좋아하는 일대 성사(盛事)였다. 그러나 당시 백호(白虎)의 전란을 만나 스승께서 거처를 지속하지 못하고 절산(節山)으로부터 이양(梨陽), 김제(金堤), 장흥(長興), 별교(筏橋)로 전전하셨기에 배우는 자들도 마치 구름이 출몰하듯 모임과 흠어짐이 일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십수 년을 하루같이 모시고 따르면서 시종 변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모신 사람은 십수 명에 불과한데 만취(晚翠) 위공(魏公)이 그 가운데 특히 두드러진 분이다.

위공은 독실한 자질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재주로 처음에 잠계(潛溪) 백공(白公 백형기(白亨機))의 문하에서 학문의 바른길을 들었고, 나이가 약관(弱冠)을 넘겨서는 마침내 사문(師門)¹⁰⁵¹에 나아가 질정하여 경서를 밝히고 이치를 분석하는 학문과 문사를 엮어 짓는 법도를 터득하였다. 시로 발현된 것은 경계를 만나면 심회를 묘사하여, 솜씨 있게 다듬어 꾸미지 않더라도 풍운(風韻)이 맑고 매끈하였으며, 문사에 드러난 것은 일에 나아가 의리를 논하여, 또한 미려(美麗)하게 수식(修飾)하지 않아도 궤범(軌範)이 통달하고 밝았으니 참으로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깊고 컸다고 하겠다.

그리고 스승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공계선 능히 옛 모습과 옛 학문으로 후진(後進)을 훈도하면서 차분하게 법도를 유지하여 사문(師門)에서 전수받은 규범을 잃지 않았다. 틈틈이 무진음사(武珍吟社)와 계고회(稽

1051 원문 斯文인데, 師門의 오기인 듯하다.

古會) 및 호남의 옛것을 좋아하는 여러 선비와 종유하면서 산정(山亭)과 수각(水閣)을 돌아다니며 시를 읊고 술잔을 주고받았으며 선현들의 유적(遺蹟)을 둘러보며 감상하였다. 오직 날마다 한묵(翰墨)에 종사(從事)하는 외에는 세속에서 숭상하는 일은 부러워하는 바가 없는 까닭에 공이 지은 시문(詩文)이 이렇게 풍성하였다. 애석하다, 만약 공이 오래 건강하게 장수를 누렸더라면 지은 것이 어찌 이 정도에 그쳤겠는가.

오호라, 선사께서 후학(後學)들을 버린 지가 어느덧 43년이나 되었고, 동문(同門)의 선진(先進)들도 차례로 세상을 떠나서 오당(吾黨)의 무리가 나날이 더욱 고고(孤苦)해지고 있는데, 저번에 성재(省齋) 나공(羅公 나갑주(羅甲柱))의 유집(遺集)을 받아 읽어보고 이번에 또 공의 유고를 열람하게 되었으니, 어찌 서글픈 탄식을 견딜 수 있겠는가. 공의 두 문학생 김영웅(金永雄)과 정연태(鄭然台)가 나란히 나를 찾아와 내가 공에게 오랜 벗이라는 이유로 일찍이 권말(卷末)에 한마디 글을 요청하였고, 근래에 또 이미 인쇄에 들어갔다고 독촉하기에 마음속에 느낀 바를 위와 같이 간략히 서술하여 돌려보낸다. 그러나 구원난작(九原難作)¹⁰⁵²의 한탄이야 그 끝이 있으랴.

임오년 봄 정월 하순
밀양 손평기(孫坪琦) 발(跋)

原文 晚翠遺稿跋

翳維我先師曉堂金先生，大設講帳于南服也，一代英髦俊邁之士，携經擔書，而講業問道者甚衆，此誠好古文學之一大盛事也，然而時際白虎之亂，師不恆其居，自節山轉徙

1052 구원난작(九原難作): 구원은 춘추시대 진나라 귀족들이 묻혔던 곳이다. 구원에서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는 말이니,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뜻이다.

于梨陽，金堤，長興，筏橋也，授徒因以聚散，如浮雲之出沒不常矣。而十數年間陪從如一日，而始終不渝，至于啓手足之日者，不過十數子，而晚翠魏公，其中尤著者也。公以篤實之資，明慧之才，初從潛溪白公之門，得聞爲學蹊逕，年逾弱冠，卒就斯門而取正焉。深得其明經析理之學，構文措辭之法，至其發於吟哦則遇境寫懷，雖不以雕繪爲工，而風韻瀏亮，出乎文詞則就事論義，亦不以美麗爲飾，而軌範通哲，信乎其有所受者，深且大矣。抑自山頽之後，公能以古貌舊學，教迪後進，循循有法，要不失師門所受之繩尺，間日從遊武珍吟社若稽古會與湖中好古諸彥，徜徉詠觴於山亭水閣，遊賞觀感於先賢遺蹟，惟日事翰墨之外，無所慕於世務俗尚。以故所著詩文，如此富盛矣。惜乎，若使長享康壽，則所作豈止於斯而已哉。嗚乎，先師之棄後學，於焉四十有三年矣，同門先進，次第徂謝于世，吾黨日益孤苦，而曩者受讀誠齋羅公遺集，今又閱公遺稿，豈勝於悵發嘆哉。公門二弟，金永雄，鄭然台甫，聯鑣而來，以余爲久要於公，嘗請卷末之一言，近又既以入梓督之，故略敘所感于中者如右而歸之。然九原難作之恨，其終已耶。

壬午春正月下旬 密陽 孫坪琦 跋

삼가 만취 선생 유고의 뒤에 쓰다[敬題晚翠先生遺稿後]

오호라, 이 책은 곧 나의 선사(先師)인 만취(晚翠) 위공(魏公)의 유고(遺稿)이다. 공께서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에 비로소 편찬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었으니, 제자 된 자들이 마치 금옥(金玉)을 얻은 것처럼 반가울 뿐만 아니라, 평소 종유(從遊)한 여러 선비들도 뉘라서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나 구천(九泉)에 계신 선사의 영(靈)은 생각건대 틀림없이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선사께서 『통감(通鑑)』을 강론(講論)하실 때, 당(唐)나라 정관(貞觀) 12년에 저작랑(著作郎) 등세옹(鄧世隆)¹⁰⁵³이 표(表)를 올려 황제의 글을 모으자고 청하자 황제가 말하기를, “짐(朕)의 사령(辭令)이 백성에게 유익(有益)하면 족히 영원히 전해지는 계책이 되는데, 만약 무익(無益)하다면 모으더라도 어디에 쓰이겠는가?”라고 한 부분에 이르러 문득 책을 덮고 말하기를, “태종(太宗)의 글과 말은 명문(名文)과 격언(格言)이 아닌 것이 없어서 족히 천하 후세에 전할 만하였는데도, 오히려 이처럼 겸손하게 요청을 물리쳤다. 하물며 지금 세상의 이른바 글을 배운다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진실해지는 학문(爲己自實之學)에 힘쓰지 아니하고, 다만 남들을 위하여 교묘하게 꾸며대는 글[爲人巧飾之文]을 숭상하니, 자기 한 몸의 쓰임에 불과한데도 한 편도 빠짐없이 간행(刊行)하여 세상에 배포하니 이는 유자(儒者)가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이 말을 살펴보면 공께서 기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53 등세옹(鄧世隆) : 당(唐) 태종(太宗)에게 표문(表文)을 올려 태종의 시문(詩文)을 모아 문집(文集)을 만들기를 청하였는데, 태종은, “양(梁)나라 무제(武帝) 부자(父子)와 진(陳)나라 후주(後主)와 수(隋)나라 양제(煬帝)는 다 문집(文集)이 있었지만, 나라가 망(亡)함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니 임금의 덕정(德政)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문장을 중시한들 무엇하겠는가?” 하고 마침내 유히하지 않았다.

그렇기는 하나, 우리 선사께서 평소에 성현(聖賢)의 글을 읽고 의리(義理)를 변론하거나, 혹은 사우(士友)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애써 부응해 준 글이나, 자연 현상의 양태(樣態)를 조용히 관찰하고 수시로 사물을 음영(吟詠)하거나 불평(不平)한 심사를 후련하게 씻어내고 시사(時事)를 슬퍼하여 심회를 서술하거나, 산수의 아름다운 곳을 두루 유람하면서 심정을 즐겁게 하거나 인간의 애경(哀慶)을 접하고 당하여 일에 대해 서술하거나, 사람들을 권선징악(勸善懲惡)하기 위하여 훈계를 드리우거나, 벗을 초대하여 밤을 새워 대작(對酌)하며 창수(唱酬)한 시편들이 그야말로 많다고 할 수 있으되, 후세에 전하려고 도모하지 않고 먼지 쌓인 상자 안에 내버려두어 거의 흩어져 사라질 지경이었다.

이런 까닭에 나의 외우(畏友)인 정연태(鄭然台)가 이 점을 걱정하여 수집하고 정리 서사(書寫)하였는데, 일을 지난해 봄부터 시작하여 올봄에 마쳤으니, 그의 현로(賢勞 어질어서 혼자 수고하다)를 어찌 이루 다 말하겠는가. 또한 특히 느낀 바가 있으니, 간행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제현(諸賢) 및 제자들의 의리와 정성에서 나왔다. 이는 선사께서 평소에 가르침에 싫증 내지 않고 순순히 바르게 다듬은 증함이 아니겠는가?

선사의 경개(梗概)에 대해서는 나처럼 학식이 얇은 자가 감히 논할 수 없으나 다만 이 일의 전말(顛末)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므로 출간하게 된 개요(概要)를 간략히 서술하였다. 바라건대, 동문제현(同門諸賢)은 글재주의 말단에 종사하지 말고 선사의 심법(心法)을 전수(傳守)하면 제자 된 직분에 거의 어긋나지 않으리라.

단기(檀紀) 4335년 임오(壬午) 춘분절(春分節)에
문하생(門下生) 광산(光山) 김영웅(金永雄)이 삼가 쓰다.

原文 敬題晚翠先生遺稿後

嗚呼，此即我先師晚翠魏公之遺稿也，公歿後三年，始克成編以出于世，不啻爲弟子者如得金玉之爲欣，而蓋其平日所從遊之諸章甫，孰不喜也哉。然在泉先師之靈，想必不悅，何者。昔先師講論『通鑑』也，及至唐貞觀十二年，著作郎，鄧世隆，表請集上文字，上曰“朕之辭令，有益於民，足爲不朽計，若其無益，集之何用之處。”輒掩卷曰“太宗之文與言，莫非名文格言，足以傳之於天下後世也，而猶如是謙退之，況今世所謂學文者，不務爲己自實之學，但尚爲人巧飾之文，不過自家一身之用而已，無遺一篇刊布于世，此非儒者之事也云。”則觀於此，可以知其不喜也。雖然惟我先師平居讀聖賢之書，而辨論義理，或因士友之請而勉強應副之文，與靜觀自然現象之態而隨時詠物，滌蕩塊磊不平之心而傷時述懷，周遊山水佳處而樂情，接遇人間哀慶而敘事，爲人勸善懲惡而垂戒，招朋達曙對酌而唱酬之什，可謂富矣，而不圖其後，棄之塵箱，幾至散亡。是以余之畏友鄭然台甫，惟是之懼，搜而輯之，整而寫之，役自去春始而至今春訖，其爲賢勞何可勝言也。抑亦尤其所感者，則其所要刊費，皆出於諸賢及弟子之義誠。此其非先師平日教人不倦諄諄雅飭之驗耶。若夫先師之梗概，非余薄學之不敢所論，但傍觀斯役之顛末，故略述出刊之概要。惟願同門諸賢勿從事於文爲之末，而傳守先師之心法。則其於爲弟子之職，亦庶幾不差云爾。

檀紀四三三五年壬午 春分節 門下生 光山 金永雄 謹跋

찾아보기

인명(人名)

| [ㄱ] | | | |
|-----------------|---------------|-----------------|--------------------------|
| 강동원(姜東元) 춘곡(春谷) | 18, | 김도중(金度中) 오남(鰲南) | 602, 606 |
| | 671, 756 | 김명수(金命洙) 자득(子得) | 539, 830 |
| 강인환(康仁煥) | 419 | 김문옥(金文玉) 송강(松岡) | 392, |
| 고광칠(高光七) 남농(南農) | 404 | | 491, 670 |
| 고금오(高錦塢) | 820 | 김문옥(金文錡) 효당(曉堂) | 93, 113, |
| 고영두(高永斗) 죽암(竹菴) | 804 | | 200, 205, 221, 227, 318, |
| 공사열(孔思烈) 사은(泗隱) | 300, 301 | | 371, 373, 417, 456, 508, |
| 공연웅(孔鍊雄) 서산(瑞山) | 795, 840 | | 509, 549, 589, 601, 621, |
| 공정옥(孔正玉) | 704 | | 626, 627, 638, 653, 707, |
| 구철수(具喆壽) 우송(友松) | 195 | | 735, 741, 775, 776, 802, |
| 권희철(權熙哲) 석촌(石村) | 566 | | 837, 838, 842, 844, 847 |
| 기영명(奇靈命) 춘강(春岡) | 512 | 김병학(金炳學) 소산(蘇山) | 827 |
| 김경발(金慶埗) 단석(丹石) | 245 | 김보열(金寶烈) 심산(心山) | 437 |
| 김경석(金京錫) 대진(大振) | 284, 727 | 김보전(金普典) 소당(韶堂) | 386 |
| 김계윤(金桂潤) 계산(桂山) | 697 | 김복진(金福眞) 오태(五泰) | 723 |
| 김규원(金虬源) 태석(苔石) | 597 | 김봉용(金鳳用) 인재(忍齋) | 837, 844 |
| 김규태(金奎泰) 고당(顧堂) | 210, | 김상진(金相晉) 벽농(碧農) | 361, 529 |
| | 211, 371, 626 | 김상형(金相馨) 춘곡(春谷) | 534 |
| 김규호(金圭浩) | 440 | 김석구(金錫龜) 대곡(大谷) | 708 |
| 김규환(金圭煥) 여장(汝章) | 284, 726 | 김선곤(金渲坤) 신정(新亭) | 491, 822 |
| 김기석(金基錫) 화산(華山) | 435 | 김수당(金守堂) | 471 |
| 김기수(金基洙) 입부(立夫) | 730 | 김신포(金莘圃) | 709 |
| 김기현(金基鉉) 송오(松塢) | 317 | 김양식(金良植) 내선(乃善) | 809 |
| 김달호(金達浩) 추호(秋湖) | 717 | 김양호(金養浩) | 485, 796 |
| 김도수(金塗洙) 자중(子重) | 539, 725 | 김영달(金永達) 취송(翠松) | 737, 819 |
| | | 김영량(金永樑) 죽헌(竹軒) | 311, 339 |

| | | | |
|-----------------|----------|-----------------|------------------|
| 문재무(文在茂) 화산(華山) | 601 | 박효수(朴孝洙) 시당(是堂) | 534 |
| 민범식(閔範植) 경문(景文) | 87 | 방재원(房在源) 초산(樵山) | 351, 416 |
| 민병재(閔丙宰) 사촌(沙村) | 644 | 백은준(白銀濬) 자연(子淵) | 539, 753 |
| 민 용(閔 鏞) 옥천(玉川) | 741 | 백중호(白鍾浩) 용강(龍岡) | 641 |
| 민점기(閔占基) 백하(柏下) | 534, 586 | 백충선(白忠善) 죽산(竹山) | 528 |
| 민창기(閔昌基) 백파(柏坡) | 534 | 백형기(白亨璣) 잠계(潛溪) | 837, 844, 847 |

[부]

| | | | |
|-----------------|----------|-----------------|-----------------------|
| 박건복(朴健馥) 우암(愚巖) | 610 | 변동렬(邊東烈) 백하(白下) | 529, 616, 719 |
| 박내호(朴來鎬) 노강(蘆江) | 415 | 변시연(邊時淵) 산암(汕巖) | 258, 260, 261, 529 |
| 박도섭(朴道燮) 은재(隱齋) | 678 | 봉만근(奉萬沂) 춘사(春史) | 536 |
| 박말갑(朴末甲) 석당(石堂) | 399 | | |
| 박문재(朴文載) 창성(昌星) | 539, 780 | | |
| 박석원(朴奭遠) 봉와(鳳窩) | 529 | | |

[사]

| | | | |
|-----------------|----------|-----------------|------------------|
| 박성배(朴性培) 연정(淵正) | 508 | 서기중(徐祺鍾) 상보(祥甫) | 242, 244 |
| 박성주(朴晟朱) 호산(湖山) | 263 | 선병한(宣炳翰) 남헌(南軒) | 140 |
| 박영봉(朴永鳳) 석천(石泉) | 436, 576 | 손석환(孫碩煥) 송암(松巖) | 594 |
| 박영호(朴永浩) 우당(友堂) | 534 | 손중희(孫仲熙) 방산(方山) | 361 |
| 박익준(朴益俊) 시경(是耕) | 699 | 손평기(孫坪琦) 벽초(碧初) | 291, 447, 848 |
| 박종삼(朴鍾三) 소암(紹菴) | 474, 585 | 송경섭(宋璟燮) 해관(海觀) | 455, 561 |
| 박중회(朴鍾會) | 627 | 송명희(宋明會) 소파(小波) | 88 |
| 박지은(朴芝隱) | 634 | 송상현(宋象賢) | 680 |
| 박춘서(朴春緒) 망암(望菴) | 314, 444 | 송석의(宋奭儀) 여민(餘民) | 393 |
| 박태선(朴泰璿) 매창(梅窓) | 264 | 송술봉(宋述峯) | 702 |
| 박태항(朴泰桓) 쌍매(雙梅) | 265 | 송운회(宋運會) 설주(雪舟) | 88 |
| 박행보(朴幸甫) 금봉(金峰) | 394, 686 | 송진한(宋鎭韓) 서은(瑞隱) | 832 |
| 박형률(朴炯律) 벽천(碧泉) | 646 | 신영호(申英浩) | 625 |
| 박형문(朴炯文) 양천(楊川) | 403 | 신의성(愼義晟) 운강(雲岡) | 593 |
| 박형운(朴炯允) | 357 | 신태윤(申泰允) 백당(白堂) | 814 |
| 박호배(朴浩培) 운암(雲菴) | 534 | | |

| | | | |
|-----------------|-----|-----------------|----------|
| 신희열(辛鎬烈) 우전(雨田) | 407 | 유겸중(柳謙重) 유석(維石) | 415, 458 |
| 신희렬(辛洪烈) 춘강(春岡) | 406 | 유동렬(柳東烈) 제월(霽月) | 432 |
| 심정섭(沈禎燮) 노호(鷺湖) | 501 | 유재관(柳在寬) 청강(晴岡) | 361, 439 |
| 심정섭(沈禎燮) 자상(子祥) | 826 | 유중룡(柳鍾龍) 원석(圓石) | 714 |

[오]

| | | | |
|---------------------|----------|-----------------|-------------------------------------------------------|
| 안사순(安思淳) 소매(小梅) | 590 | 유준정(柳春汀) | 673 |
| 안종열(安鍾烈) 빙와(氷窩) | 515 | 유호석(柳浩錫) 춘계(春溪) | 496, 525, 578 |
| 양대원(梁大源) 계은당(溪隱堂) | 262 | 윤재갑(尹在甲) 모암(帽巖) | 806 |
| 양동하(梁東廈) 소암(紹菴) | 797 | 윤정복(尹丁錫) 석촌(石村) | 274, 291, 322, 339, 415, 529, 557, 566, 576, 578, 719 |
| 양동하(梁東廈) 자송(子松) | 146 | 윤정효(尹正孝) 자춘(子春) | 669 |
| 양주혁(楊柱赫) 덕강(德岡) | 690 | 윤종림(尹宗林) 죽하(竹下) | 330 |
| 오명렬(吳命烈) 지현(志軒) | 710 | 이강중(李康中) 춘곡(春谷) | 385 |
| 오재율(吳在慄) 후암(後菴) | 700 | 이강현(李康炫) 월주(月州) | 251 |
| 오종근(吳鍾根) | 694 | 이경호(李慶鎬) 양곡(陽谷) | 438 |
| 오지호(吳芝湖) 모후산인(母后山人) | 777 | 이관수(李官洙) | 423 |
| 오태형(吳泰亨) 정당(靜堂) | 630 | 이동범(李東範) 송농(松農) | 151, 652 |
| 오형기(吳炯基) 해양(海陽) | 534 | 이민수(李珉秀) 우송(愚松) | 578 |
| 원국진(元國鎭) 방번(邦蕃) | 722 | 이민승(李民升) 중현(重軒) | 576 |
| 원창규(元暢珪) 서운(瑞耘) | 688 | 이백순(李栢淳) | 845 |
| 위경량(魏炘良) 군명(君明) | 731 | 이병내(李炳奈) 척전(拓田) | 483 |
| 위계동(魏啓同) 인재(忍齋) | 837, 844 | 이상영(李相榮) 죽파(竹坡) | 491 |
| 위권량(魏權良) 군형(君衡) | 733 | 이우규(李禹圭) 학정(鶴汀) | 562 |
| 위무량(魏武良) 자문(子文) | 732, 794 | 이은진(李恩眞) | 539 |
| 위성렬(魏聖烈) | 434 | 이정순(李貞順) | 539 |
| 위성탁(魏聖卓) 송오(松塢) | 642 | 이중수(李鍾洙) 남명(南鳴) | 759 |
| 위성택(魏聖澤) 성암(省菴) | 579 | 이종필(李鍾弼) 시산(詩山) | 624 |
| 위창량(魏昶良) 명보(明甫) | 734 | 이종호(李鍾堯) 방산(方山) | 422, 450, 492, 745 |
| 위창복(魏昌復) 자문(子文) | 728 | | |
| 위홍규(魏鴻奎) 청파(靑坡) | 331 | | |

건축물

| | | | |
|------------|---------------|----------|-----|
| 고산서원(高山書院) | 321 | 수산재(水山齋) | 774 |
| 덕촌서실(德村書室) | 462 | 용산재(龍山齋) | 248 |
| 석헌정(石軒亭) | 405, 448, 498 | | |

호남한국학 저술지원총서 15

국역 만취집 晩翠集

인쇄 2024년 11월 20일

발행 2024년 11월 30일

발행인 홍영기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위계도

번역자 김재희·이대연·박미향

편집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ISBN 979-11-90608-94-7 (94910)

979-11-90608-28-2 (세트)

만취(晩翠) 위계도(魏啓道, 1926~1999)의 문집 중 시 부분을 한글로 번역한 글이다. 그는 어렸을 때는 잠계(潛溪) 백형기(白亨璣, 1881~1948)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효당(曉堂) 김문옥(金文錡, 1901~1960)에게 나아가 학문을 연마하였다. 김문옥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학맥을 이은 율계(栗溪) 정기(鄭琦)의 문인이다. 『만취집』은 총 8권 및 부록 등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부터 권4까지가 한시이며, 총 637제 837수의 한시가 해당된다.



값 30,000원

ISBN 979-11-90608-94-7
ISBN 979-11-90608-28-2 (세트)